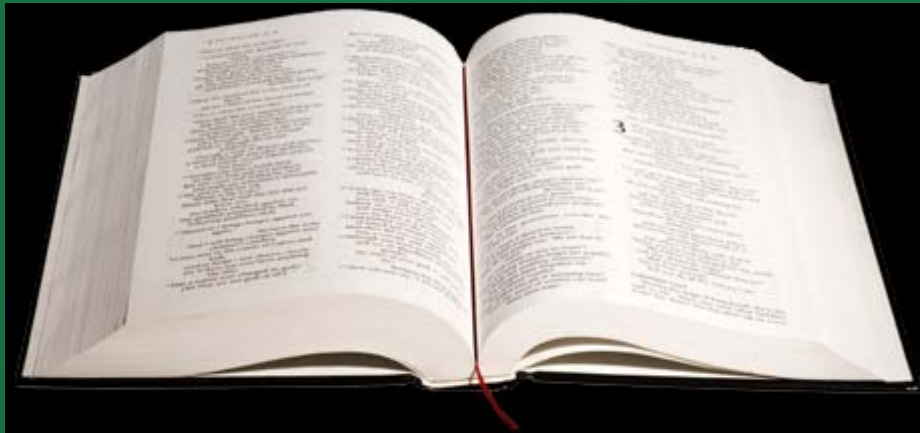


Bible Study Notes

(바이블 스터디 노트 제3권)



말씀의 합리적 이해 개정판
4년 과정 성경 공과 각 반 통합 책

아니타 돌 지음/ 배제형 옮김
도서 출판 벽옥

4년 과정 성경 공과
바이블 스터디 노트

제3권

말씀의 합리적 이해 개정판
공동 번역 성경

BIBLE STUDY NOTES
BY ANITA S. DOLE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옮김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이 책에 대하여...

이 책, “바이블 스터디 노트”는 자기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 또는 이를 위해 몇 사람들이 매 주 모여 공부하는 그룹들 등등의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려 해서 편역 출판된 책이다.

역자가 출판한 여러 성경 해설서 중에서 본 권은 과거 1970년도 경에 북미 새교회들의 주일 학교를 위해 아나타 에스 돌 여사께서 매 주 한 공과씩 집필하신 주일 성경 공과(bible study notes)를 번역한 것이다.

현재 시판되는 원서(영문판)은 총 6권으로 성경 책의 순서에 따라 재 편집되어 있다. 하지만 역자는 이 책을 돌 여사가 처음 구상하여 실시하셨던 그대로 매 주 한 공과씩 공부하여 4년에 마치도록 각 권당 40 공과, 전 4권 도합 160 공과로 처음 그대로의 방식을 따라 책을 엮었다.

영문판은 성경 본문을 생략하고 있으나 성경 통독이 우선임을 감안해 책의 부피가 커지는 단점을 감수하고라도 본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처음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초심자를 감안해 부드러운 성경 번역이라 판단되는 공동 번역을 본문 읽기로 선택했다. 물론 이 번역은 역자의 상응 해석을 위해 마땅치 않은 대목들이 많아 개역 한글판을 인용하는 때도 많이 있다.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분명하게 다 읽는 것, 더불어 기억에 많이 남게 읽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성경 본문에 이어 교리 요점,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어서 1, 2, 3반, 기본 상응 공부, 4, 5반, 그리고 각 공과 해설에 도움을 준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저서로부터의 인용문이 첨부되고 마지막으로 각 공과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시험지에 해당하는 질문과 답으로 매 주의 공과 공부를 마무리 한다.

각 반은 영문판의 경우 primary(1반), junior(2반), intermediate(3반), senior(4반), adult(5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는 교회 주일 학교 공과를 위해 나이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략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성인의 성경 공부에 응용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 이하인 유치원 수준의 경우는 공작, 그리기, 등등으로 공부하는데 이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의 books scan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교리 요점”은 각 공과에 등장하는 공통 주제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 예배” 편은 개인 사정상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는 가정, 또는 목사와 같은 전문가 없이 한, 두 가정이라도 뜻있는 이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설교 자료를 제공하여 어디서나 예배를 이어가게 하고자 편찬된 공과이다.

“기본 상응 공부”는 몇 안 되는 낱말이지만 기억에 담아두면 본문외 성경의 의미파악에 적잖은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1-5반”의 시작 머리에 있는 작은 글씨체의 글은 성경 교사에게 보내는 글이지만 읽어두면 본문 이해에 보탬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은 각 공과의 의미파악에 도움을 준 이마누엘 스웨덴북의 저서 속의 문항을 발췌 인용하고 있어 때로 이해가 난감해질 수 있지만 차차 이해될 것이다.

“질문과 답”은 각 반에 해당하는 질문 몇 개씩을 모두 모아 놓고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라면 질문 첫 항부터 중간까지는 매우 쉽겠지만 끝 부분 2-3개의 문항은 흥미있을 것이다. 첫 질문이 너무 쉬워 유치한듯 여겨지더라도 거룩한 성경 공부라는 점에서 겸손히 답을 만들며 기억에 더 다진다면 유익할 것이다.

교회에서 이 책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와같이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요즘 시대는 각종 자료 수집이 쉽고 활발하기도 한 바, 특정한 어떤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나홀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이들이 있는 바, 역자는 그분들의 성경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위해 이 책은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확신하여 연령별 분류가 아닌 성경 지식 수준에 따른 분류를 채택하여 1-5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물론 본 서의 각 반을 매 주 다 읽고 공부한다면 이는 역자의 더할나위없는 바램이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 이해되지 못해 난해해지거나 혼돈되는 것이 염려되어 각자의 성경 이해 수준에 적합한 반만을 골라 30분 내지 1시간 내에 한 공과 공부가 끝날 수 있도록 각 반을 떼어내 한 권의 작은 책으로 재편집해 들고 다니기 쉽고 책 구입

비용도 줄이고, 공부 부담도 덜되어 꾸준히 이어나가는 성경 공부의 시작 끈 역할을 역자는 기대하여 큰 책인 “바이블 스터디 노트”를 분해하여 각 반별 작은 책 “성경 공과”라는 책명을 붙여 4권x6반=24권으로도 출판해두었다. 이 작은 책은 큰 책으로 부터이기 때문에 95% 정도가 완전히 같다.

성경에 내 영을 위한 양식이 들어 있다 확신하여 성경을 멀리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성경 읽기와 읽은 대목의 의미 파악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제라 역자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되 처음부터 단번에 지식을 쓸어 담듯 하지 말고 매우 천천히 매일, 또는 매 주 한 단계씩 밟아 올라 지상의 삶 안에 영계의 것을 담아 나가 저세계로 가져가길 기도한다.

이 책 외에 더 많은 내용은 웹사이트 www.baysidechurch.org를 검색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라틴 성경, 이마누엘 스웨덴봄의 초판 저술(라틴어)과 그의 저술 대부분(영문판), 여러 목사들의 성경 해설서 (영문판) 및 이 책을 포함하여 역자의 모든 번역서, 그리고 미국 보스톤 주변 여러 교수들의 논문집(영문판)을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다.



제 3권 차례

1. 창조 제 5-6일	창세기 1장 20-31절	11
2. 뱀	창세기 3장	28
3. 무지개	창세기 9장 1-17절	47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61
5.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	77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95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창세기 41장	113
8. 열 가지 재앙	출애굽기 7-10장	129
9. 메추라기와 만나	출애굽기 16장	150
10. 성막	출애굽기 26, 27장	167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183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 3, 4장	201
13.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 9장	219
14. 판관 입다	판관기 11장	234
15.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사무엘상 4장 1-11절 5장, 6장 1-16절	252
16. 사울과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1-46절	271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사무엘하 6장	289
18. 성전 건축	열왕기상 6장	305
19. 엘리야의 겹옷	열왕기하 2장	320
20. 요시아 왕	열왕기하 22장	337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시편 91편	355
22. 성전에서 솟는 샘	에제키엘 47장 1-12절	371
23.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 2장	387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아모스 8장	406

25. 강림에 대한 예언	말라기 3장	422
26. 세례자 요한의 출생	누가복음 1장	437
27. 주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20절	457
28. 나인 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 1-30절	473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누가복음 9장 1-36절	489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42절	508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누가복음 11장	525
32. 큰 잔치	누가복음 14장	544
33. 방탕한 아들	누가복음 15장	561
34. 부정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578
35. 종려주일(3)	누가복음 19장	595
36. 부활절(3)	누가복음 24장 1-12절	612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누가복음 24장 13-53절	631
38. 네 기수들	요한 계시록 6장	647
39. 일곱 쟁 봉인	요한 계시록 8; 9장	663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 계시록 21장 9-27절	679

1

창조 제 5-6일

머리말

본과의 서론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이다. 즉,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창조 제1-4일 동안과 제 7일째에 있는 내용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0-31절

1장: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 온갖 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낫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셋날도 밤 , 낮 하루가

지났다.

교리 요점 (Doctrinal Points)

- *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며 창조자이시다.
- * 우리 마음속의 두 평면인 자연적인 평면과 영적인 평면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 *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 *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와 바램들을 잘 조절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Notes for Parents)

성경은 1500여년 이상의 긴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완성된 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마치 현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처럼 여기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성경은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매해 수천만권 이상 팔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닌 진정한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 자아발전을 위한 어떤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기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인간의 역사와 삶 그리고 자연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기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기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성경에 담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그분에 관한 것,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깊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임하는 곳이 어디서든지 인간을 변화 시켰고, 이로 인해 그들의 역사도 바뀌었음을 만큼 하느님의 힘이 담긴 책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의미는 말씀의 표면에서는 좀처럼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도덕적인 교훈이 담긴 동화를 그저 평범한 이야기처럼 읽어 주듯이 성경을 막연히 읽는 사람은 단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사건의 이야기들만 알 수 있을 뿐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모르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쓰인 이유는 주님이 보실 때 인간이 어린아이에 불과하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야 했기 때문이다.

본과는 제 3권의 첫 공부로서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본반의 말씀은 창조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의 첫 장은 모든 남녀가 하느님의 모양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즉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지능을 가진 고등 동물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자라기를 희망한다면, 부모는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 1반 (Primary)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심과 창조 7일의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창조 5-6일째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노력해야 함도 언급한다.

주 예수가 곧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세상의 남녀노소를 만드셨다. 아주 오래 전 우리가 태초라고 부르는 그대에 주님은 최초의 사람들을 만드셨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진 후의 일이었다. 주님께서는 맨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 낮과 밤 그리고 마른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그리고 땅에는 푸른 싹과 낱알을 내는 풀 그리고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돌아나도록 하셨다. 그 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 뒤 바다에서는 고기가 헤엄치고 창공에서는 새들이 날도록 하셨다. 그리고 마른 땅 위에 온갖 동물들이 살도록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임무를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현명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더 나은 방도를 찾기 위해서 늘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용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 가지를 더 배우고 알아야한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 쓰임에 맞게 쓰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과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질문정리

- * 사람들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먼저 창조된 이유는 무엇인가?
- *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녀가 창조되었는가?
- * 사람들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 *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공부하고 그분의 진리를 추론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물과 달리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 * 주님께서는 창조를 끝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 2반 (Junior)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그것이 갖는 상징성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다음의 질문들로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점검해 보자.

- * 성경을 일컫는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 * 성경은 크게 어떻게 분류되는가?
- *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통합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 *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은 무엇인가?
- * 창세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성경의 첫 번째 절을 기억하는가?
- * 주님께서 창조를 끝내신 날 몇 째 날인가?
- * 주님은 7일째에 무엇을 하셨는가?

- * 동물과 사람들에 앞서 식물과 나무들이 창조되어야 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 마지막에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

본문은 창조 기간 중 제 5-6일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창조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간략히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 빛이 주어졌고, 둘째 날에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였고 마른 땅이 나타나서 푸른 싹이 돋아나도록 하셨으며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도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다.

주님께서 이러한 순서로 땅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되도록 준비하신 것이다. 동물과 사람들이 창조되기 전 그들이 살 땅이 먼저 창조되어야 했던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때문에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는 올바른 애정들(동물들이 자리 잡고 그분의 진리가 진정한 총명과 지혜(인간들)로 발전되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곳(에덴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땅)이 먼저 다져지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과학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진화론을 믿고 주장한다. 진화론이란 모든 것이 우연히 이뤄졌으며 인간 역시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동물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론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창조론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새교회의 창조론은 일반적인 창조론과는 상이하다. 새교회의 창조론은 주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창세기 1장에서처럼 말씀만으로 6일이라는 시간 안에 창조하신 것이 아닌 말씀이라는 그분의 지혜에 의하여 우주에 형성된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그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고 완성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창조, 즉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릇이 그분의 법칙에 따라 진화된 피조물 안에 이뤄 졌다라고 설명한다. 인간을 짐승들과 구별되게 하는 능력 곧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과 본능의 충동들을 이겨내고 옳은 것은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룩놓으신

그릇인 것이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하여 살기 때문에 진보가 없다. 동물들의 몸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되며 생존을 위해 변하고 발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생존을 위한 것일 뿐 그들의 본능에 따르는 행동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동물들이 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먹이, 안식처 또는 종족 보호를 위한 상호보호 등에 관한 것에 그친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존 본능을 넘는 높은 이상과 바램들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삶과 생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하느님이심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관한 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지상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하느님이나 천국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배우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즉 돈이나 명예 혹은 권력이나 쾌락과 같은 것들만을 위해서 산다면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짐승처럼 되어 버린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이러한 이들이 사후에 모여서 사는 곳을 일컬어 지옥이라고 한다.

제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담의 갈빗대로 이브를 창조하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관계로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후에 그를 위해 아내가 창조되었으며 그들 부부가 인류의 기원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말씀은 모두 비유이며 상징이라고 한다. 설사 말씀의 내용 그 자체가 인간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하더라도, 말씀의 모든 단어는 상응으로 이뤄져 있어서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창세기 1장의 「사람(man)」이나 2장의 「아담(adam)」은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이다. 즉, 아담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종족적인 면에서 인류라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이 최초로 창조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담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하나의 종족으로서 창조되었던 것이다. 물론 창조 당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만드셨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 주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창조 5일과 6일째의 내용에 있는 특별한 교훈 중 하나는 인간이 지상의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며 무언가 구별되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들을 우리 뜻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한다. 슬기로운 통치자가 권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참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슬기로운 통치자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자국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궁리한다. 우리는 이러한 슬기로운 통치자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의 의도를 배우고 이해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현명하게 선용해가야 할 것이다.

제 3 반 (Intermediate)

창조 7일의 전체적인 상응을 살펴본 후 특별히 5-6일째를 자세히 다룬다.

우리는 제 3권의 첫 공부를 시작함에 앞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첫째, 여태껏 우리가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책인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책은 주님에 의해 그분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 영혼들의 거듭남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쓰였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나 비유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마치 영혼이 육신에 담겨 있듯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글자적인 내용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셋째, 창세기의 11장까지는 고대 말씀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며 그 부분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 없이 오직 상징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이 창세기 제 12장부터 라는 것은 현대의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넷째, 우리는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을 묵상함은 우리를 주님과 천국으로 보다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수단이 되며,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묵상할 때만이 말씀 속의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첫 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글자에 있어서까지도 아주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땅과 땅위의 만물을 6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창조 하셨음으로 요약된다. 창조의 이야기에 있는 각각의 날들은 우리가 아는 24시간으로 이뤄진 하루로서의 날이 아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서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란 생명이 지구 위에 형성되기에 앞서 주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따라 지구가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이 형성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공기와 땅이 필요했고,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먼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고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물, 즉 바다나 호수 또는 강이 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

우리가 사람인 진정한 이유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은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는 상태부터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를 상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영혼이 하늘과 땅이라는 양면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 출발하지만(1절) 아는 것 혹은 이해하는 것 없이 출발했다는 것(2절)과 이해성의 빛이 점점 드리워짐을 통하여(3절) 인격의 형성이 시작되며(6-13절)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도 시작된다는 것이다(14-19절).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곧 우리 영혼의 성장과정인 이유는 주님의 섭리로 인해서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읽는 사람의 수준과 깊이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그 내용을 살펴보자. 어린 시절의 우리는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노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배워야만 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벌을 피하는 것일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알기 보다는 그 일들의 결과, 즉 상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벌 때문에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성장해가면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요 질서라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해가 이뤄지고 확신이 생겼을 때가 바로 해와 달과 별, 즉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 관해 배워 온 것들을 기초로 하여 인생에 대한 진정한 결정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상과 벌이라고 하는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결과에 따르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이며,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것이 바로 5일째와 6일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여러분은 물이 진리와 상응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인체 내에서 물이 하는 역할과

우리의 영혼 내에서 진리가 하는 역할이 똑같도록 창조하셨다. 상응으로 바다는 기억적인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다에 많은 물이 모아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바다와 같은 많은 양의 지식이 담긴 기억적인 지식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갈 때 우리 안에 모아져 있던 기억적인 지식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생명이 바다에 있는 고기들인 이유이다. 이는 주님께서 부르신 첫 사도들이 모두 어부였던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만드신 생명은 새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실로 알고자할 때 우리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지식들이 기억적인 지식들 속에서 발견되어 그것들이 생명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새들이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을 날아다니는 모든 생각들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만드신 생명은 동물들이다. 좋은 의미에서 이러한 동물들은 옳다고 믿고 결정한 것을 행하려는 우리의 열정 곧 의지이다. 성경에서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애정 또는 바램을 상징한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의 동물들은 주님에 의하여 창조된 동물들로서 선하고 유용한 모든 바램들을 상징한다.

우리의 마음에 물고기들과 새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이 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거듭날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인간이 다른 창조물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주님을 아는 능력과 그분을 사랑하는 능력을 지니며 그분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자유 때문이다. 인간 외의 다른 창조물들은 고정된 자연법칙이나 타고난 본능으로 살아간다. 반면, 인간은 배우는 능력과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발전되도록 창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으나 둘이 합해져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되어졌다.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람이 되고자하면 우리의 몸을 잘 간직하며 우리의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지 밑에 두어야함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며 성경의 맨 첫 절이기도 한 창세기의 첫 구절에 “하늘(heaven)과 땅(earth)”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땅이란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그로부터 비롯된 우리 안의 생각과 바램들이다. 그리고 하늘이란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부분으로서, 우리의 영적 발전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늘(heaven)”을 발달시킬 수 없게 된다.

기본 상응 공부 (Basic Correspondences)

- * 날 = 어떤 일이 이뤄지는 시기
- * 물고기 = 기억속의 지식에 관한 애정

제 4반 (Senior)

말씀의 진정한 가치와 인간의 본질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창조의 이야기는 성경의 시작으로 성경 공부의 시작이다. 따라서 창조에 관한 공부는 성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처음 부분에 있어야 할 이야기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창조된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적이나 의미 없이 삶을 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본 반에서는 특별히 창조 중 5-6일 사이에 있는 구절을 다루고자 한다. 이 구절에는 고기, 새,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등장한다. 새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창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혼의 창조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단순한 진화론적인 발전으로 생겨난 고등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들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살고 있으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는 것을 바랄 수 없다. 인간 또한 동물들과 같은 육체적 욕구와 본능을 가지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욕구와 본능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애정은 동물들과는 달리 육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인 본능과 자연적인 본능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본능을 충분히 발달시켜야만 한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육체나 세상적인 열망만을 쫓는 삶을 영위한다면, 그는 동물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가능성과 자연적 가능성, 즉 본문 첫 절에서 언급되는 '하늘과 땅' 모두를 지니고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여전히 형체 없이 공허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한 무지의 어둠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주님의 섭리로

인해 하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드리워 밝아짐으로 인해 생겨나는 약간의 이해성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우리의 기억 안으로 지식을 모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로 집합되는 모습에 해당된다. 그리고 지식의 보다 높은 것과 보다 낮은 것을 구별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인격은 그 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비록 소소하기는 하나 독립적인 생각이나 친절과 같은 행위가 거기에 처음으로 돌출된다. 처음 시작하는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자신의 것인 듯 생각하고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가 칭찬받게 될 때 상당히 우쭐해 한다. 스웨덴북은 영적 발달 단계로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의 상태, 즉 셋째 날의 상태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넷째 날의 단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된다. 그 이유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은 자아 중심으로부터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삶과 선함 그리고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근원되는 것으로서 자신으로부터 그 근원이 있지 않음을 진실로 알게 되는 때를 뜻한다.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순수한 생각과 행위들을 이룰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그 안에 주님의 현존이 없으면 살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예로 이해해 보자. 우리가 두 명의 친구로부터 똑같은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두 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마련한 선물을 친구가 매우 기쁘게 여겨서 친구에게 자신이 좋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해 주길 기대할지도 모른다. 반면, 다른 한 친구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친구가 그것을 받고 매우 기뻐하기를 바라고 자신의 작은 정성이 친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선물을 연관시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두 명의 친구 모두 똑같은 생일 선물을 주었으나 전자의 선물 속에는 진정한 선함이 없었고 이기적인 목적만 있었을 뿐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선물 속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사랑이 주는 자를 통하여 스스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넷째 날에 이루게 되는 새로운 삶은 어떤 질서 속에서 발달해 간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고기가 창조되고 공중에 새들이 창조되었다. 이는 우리가 지식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 낼 수 없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지식이 물질적인 것임은 모두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가 뭔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러한 물질적인 지식이 영적 발달에 긴요함을 경시해 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말씀에 관한 지식을 기억 속에 채워 놓지 않으면, 우리 안의 진정한 선함은 발달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올바른 것을 아는

능력은 우리의 “바다”인 저장된 지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기억되는 사항은 주님의 첫 네 명의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자신 안의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움직임은 새와 같이 되어 우리 생각을 지성의 더 높은 영역으로 부상하게 해준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배워서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능력에 대한 도전이다.

동물은 우리의 애정을 상징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정신 능력, 즉 의지와 이해성이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능력이 함께 보조를 맞출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선한 행동에 대해 생각은 해 보았으나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을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스웨덴봄에 의하면, 이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에 합류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동물로 표현되는 애정은 뭔가에 끌리는 마음 혹은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의 애정이란 단어는 어떤 이성간의 감정이 아닌 순수하게 뭔가에 끌리는 마음임을 주의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 즉 애정은 우리의 의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정이 우리가 가진 올바른 삶에 관한 지식과 생각에 응하여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간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인간으로 거듭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에 있어야 할 질서를 모두 잘 지켜야만 할 것이다. 본문 끝부분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도록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나는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별 일 없을 거야.”라고 착각하면서 자만하게 되면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일이 혼함을 명심해야한다. 그 이유는 자만심과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낳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을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5반 (Adult)

본 반에서는 하느님의 형상을 닮는 진정한 인간의 본성, 자연적 선함과 영적 선함의 상이점, 기억 속에 지식을 모아 두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순수한 선함을 삶에서 이루기 위해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본다.

「천국의 신비」 제 4항에는 “내적 의미에서의 창세기 제 1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새 창조 또는 인간의 거듭남을 뜻하며, 특별하게는 태고 교회에 관한 것을 취급하고 있다. 말씀 속에 위와 같은

것이 담겨져 있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의미나 표현을 하지 않는 단어 또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첫 절에서 말해지는 하늘은 거듭나기 이전 사람의 내적 측면을 의미하고, 땅은 외적 측면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의 첫 장은 물질적 창조의 진정한 수순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과학적이지 않는 의미로 24시간으로 구성된 「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날」이라는 단어는 관용적인 의미 혹은 특히 고대시대를 말할 때 어떤 기간, 즉 “그 시대에” 또는 “동굴에서 거주하던 시대”와 같은 문구에서 잘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날」을 24시간으로 이뤄진 하루로 간주하는 점이다.

본문 1장은 유아기로부터 성인기까지 있게 되는 개개인의 발달 단계를 그려준다. 또한 본문은 무지한 원시적 교회 상태에서 진정한 교회 상태가 되기까지 인간 종족이 발달한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진정한 교회란 지상에서의 첫 교회, 즉 태고 교회를 말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인류의 진화를 지켜보시다가 인간들의 내적 상태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그들을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그릇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최초의 인류라고 한다.

우리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부터 진정한 형태로의 인간의 변화를 거듭남 또는 재탄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점진적 과정으로 이뤄져있다. 어떤 교회는 “개종”이라 부르는 한 번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인해 “구원”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새교회에서는 그러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이는 종교를 바꾸거나 무종교인의 상태에서 종교를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개종은 필수적이나 그것이 창조 첫날에 있게 되는 “빛이 생겨라!”와 같이 마음에 빛이 옴으로서 영적 여행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6-13항에서 창조의 육일을 거듭나는 과정에 적용시켜 그 의미를 함축해 설명하면서 “거듭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여섯째 날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째 날 상태에, 그 다음 소수 사람들이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상태 혹은 다섯째 날 상태에 머무른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섯째 날 상태에 이르며, 일곱째 날 상태에까지 이르는 자는 거의 없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제 1권 1장에서는 창조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 2권 1장에서는 1일부터 4일까지의 이야기를 다뤘다. 스웨덴북은 “넷째 날의 상태는 사랑에 감동되고 믿음에 의해 밝혀질 때이다. 이 상태 이전의 사람은 경건하게 대화하며 선을 열매 맺기도 했으나 이 모든 것은 시험을 거친 결과로 행해졌다. 그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궁핍 때문이었을 뿐 믿음과 이타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과 이타애가 그 사람의 내적 인간 속에서 점화되고 있고, 이 둘을 두개의 발광체 곧 해와 달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한다. 본 반에서는 여기에서 더 진행되어 5일부터 6일째의 상태에 있게 되는 영적 성장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1항에서 “다섯째 날의 상태는 인간이 믿음으로부터 온 것으로 말하고, 자신을 선과 진리로 굳게 만들 때이다. 이 사람에 의해 생산된 것들은 살아 움직이는데,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라고 부르고 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믿음 곧 해와 달이 개인의 삶에서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자신이 생각한 진리 또는 자신이 행한 선들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바, 이 단계에서 그 사람이 움켜진 진리와 선함의 수준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푸른 잎, 즉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진리와 선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때 바다와 공중 그리고 땅에 살아있는 생물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질서대로 창조되어 졌다. 바다란 기억 속에 모아져 있을 때의 지식을 말한다. 고기란 “인간의 외면에 속하는” 기억 속의 지식들이다. 그렇다면 바다와 고기의 상이점은 무엇일까? 모든 지식은 우선 외면의 경로로부터 우리 속에 도달된다. 우리의 지성은 삶을 통하여 수집된 갖가지 지식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지식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자 끌어내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다. 설령 지식들이 세상적 혹은 어떤 지적인 사용을 위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지식들은 “고기”를 만들지 못한다. 이에 대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21장 3-6절에서 언급되어 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진 쪽은 배의 왼쪽이었다. 왼쪽이란 지적인 측면인데, 이 측면에서는 어떤 고기도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오른쪽이란 우리의 의지 또는 애정의 측면인데, 이쪽에 던져진 그물에는 그것을 끌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다. 우리는 영적 진보를 이루기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기억 속에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 지식에는 생명을 주는 주님을 섬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천국의 신비」 제 40항에서는, “ ‘새’는 넓은 의미에서의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의 내면에 속한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는 바램을 가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식을 끌어낸다.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끌어낸 지식을 살펴본 후 그것을 단순히 세상적이고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지식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린다. 다섯째 날에야 비로소 인간은 믿음으로부터 온 것으로 말하여 자신을 선과 진리로 굳혀지게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마지막 단계 곧 여섯째 날은 「천국의 신비」 제 12항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여섯째 상태란 인간이 사랑에서 생겨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 말하며 선한 행동을 할 때다. 이리하여 이뤄지는 것이 ‘살아있는 영혼’ 또는 ‘동물’이라고 불린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이 결합된 상태에서 행동하기 시작 할 때 그 사람은 영적 인간, 즉 ‘하느님의 모습대로’인 인간이 된다.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믿음에 속한 지식들과 그 사람의 ‘양식’이라고 불리는 이타애로서 하게 되는 일들로 지탱되고, 이와 더불어 천국의 기쁨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된다. 물론 그 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은 여전히 육체와 감각들에 속한 것에 의해 지탱되고 그것들로부터 기쁨을 가진다. 이 두 생명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사랑이 우위를 점령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그 싸움이 사랑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천적 인간이 된다.” 그리고 45항에서는 “짐승에는 해를 주는 악한 짐승과 해를 주지 않는 선한 짐승의 두 부류가 있다. 인간 속의 악들은 악한 짐승 곧 곰과 늑대 그리고 개들로 의미된다. 선하고 온화한 것들은 이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짐승들인 사슴과 양 그리고 어린양으로 의미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짐승이란 선하고 온화한 것들로서 애정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우리의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 순수하고 선한 애정들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된다. 스웨덴본은 그의 저서들에서 ‘자연적 선’과 ‘영적 선’ 간의 구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선과 악 모두에 대한 경향성을 상속받는다. 하지만 거듭나기 전의 우리는 악에 대한 경향성이 우세한 가운데 삶을 영위해 간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선한 경향성조차도 사실은 자아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경향성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남을 향한 디딤돌로 이 경향성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것들은 초기에 순수한 선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이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이러한 자연적 선한 의도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본이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여섯째 날이라는 상태에서도 “사랑이 우위를 점령할 때까지 싸움은 지속되게 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식을 낳고 변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악을 극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주님으로부터 새 지식을 얻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여겨지는 상태에 결코 도달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뵑의 저서에서 (From the Writings of Swedenborg)

「천국의 신비」 제 44-45항: “인간은 땅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관한 지식이 인간 안에 먼저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선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먼저 자신이 믿고 행해야 할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안에는 이해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곳이 이해성이고 들은 것을 행하는 곳이 의지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신념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듣는 것과 행함이 분리되어 분단된 마음을 가지는 바, 이를 일컬어 주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로 부르신다. 즉,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마태복음 7:24,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성에 속하는 것들은 ‘바다가 상징하는 것들’, ‘창공 아래의 새들’ 또는 ‘창공 위에 있는 물’로 의미되고 있다. 그러나 의지에 속하는 것들은 여기서 ‘땅이 생산하는 동물’로 의미되는데, ‘짐승’이나 ‘기는 것’ 또는 ‘땅의 길짐승’ 등으로 의미된다.”

질문 정리 (Suggested Questions on the Lesson)

- 1)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 2) 왜 이 책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이 책의 첫 11장까지와 나머지 성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성경은 어떻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가?
- 5)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6) 창세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7)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은 무엇인가?
- 8) 몇 일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 9) 날이란 말은 우리의 24시간을 뜻하는가?
- 10)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1) 해와 달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2)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3)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 14)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5) 인간은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 16) 인간은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17) 태초 전에 창조된 것이 있었는가?
- 18)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 20) 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21) “정복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경 2)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3) 순수한 상징
- 4) 구약과 신약성서 5) 모세, 법, 모세 오 경 6) 창세기 7) 한 처음에
- 8) 6 9) 아니요 10) 해와 달 그리고 별 11) 하느님에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12) 고기와 새 13) 동물 14) 인간 15) 하느님의 모습
- 16)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17) 아니요 18) 하느님이 쉬셨다
- 19) 그분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 20) 지성과 생각 그리고 애정 21) 조절하라

2 뱀

머리말

1권과 2권에서 공부한 창조의 과정을 상기하면서 본과를 시작한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인간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심정 상태가 에덴의 동산이며 인간이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했다라면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동산의 두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주님의 명령을 상기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제 3장

3장: 1.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2.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3.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4.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그 나무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6.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 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7.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8.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띄이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10.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따 먹지 말라고 일러 둔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12.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13.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습니다.” 14.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15.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6.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17.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 먹지 말라고 내가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18.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19.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20.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21.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22.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 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하시고 23.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었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24.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교리 요약

- * 우리의 중심 원리는 주님을 신뢰함과 자아를 신뢰함이라는 두 가지로서 이들은 서로 반대된다.
- * 현상(외관 혹은 가상)에 관한 교리는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에게 저주하신 서술과 연결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에덴의 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하다. 자연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대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성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임은 수많은 오류의 교리들을 낳게 했다. 원죄에 관한 교리, 즉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상속되어 왔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 지성의 향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창세기의 앞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을 아예 따로 떼어버리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 기독교인들은 과학적인 설명이나 합리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아 버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창세기의 글자적인 이야기와 그로부터 파생된 원죄라는 것에 매여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온 바와 같이 창조의 기록들은 주님께서 인간과 세상의 자연적인 역사를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발달에 관해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 아닌 상징적인 이야기, 즉 인류라는 면에서의 전체 인격이 어떻게 발달되며 변화하는가와 각 개인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되는가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 순수한 사랑과 지혜의 분이사라면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모든 신앙인들을 곤란케 만든다. 이에 대해 스웨덴북은 인간이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아를 신뢰함을 선택함으로써 악이라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고 답한다. 즉, 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비롯된 절대적인 것이 아닌 인간에게 비롯된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어떤 힘이나 실재함을 갖지 못한다. 자신을 신뢰함이란 먹지 말도록 명령된 나무의 실과,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징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을까? 스웨덴북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 안의 감각적인 욕구들의 충동 곧 당장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의 보다 높은 본성을 희생시키거나 보류해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시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 바로 뱀으로서 상징되고 있다. 그리고 뱀으로 상징되는 감각적인 욕구들의 충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까다롭고 극복하기 힘든 시험에 해당된다. 즉,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이라는 삼각관계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기록된 며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같은 진리를 내포한다.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 하나는 ‘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섬길지를 선택하도록 창조되어서 이토록 악하게 되었을까?’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택의 자유만이 우리를 참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며 선택의 자유로 인해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사랑하고 싶은 것과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이 없으면 의를 행함에 따르는 행복이나 미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성장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기로운 부모와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 1반

본문 13절까지를 모두 소개한 위의 이야기는 비유이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그 속에 든 뜻에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인간이 모든 동물을 지배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브가 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놓아두었음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도 행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태초에 주님께서서는 하늘과 땅, 바다, 마른 땅, 해, 달, 별, 고기, 새,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순서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온갖 종류의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는 동산 곧 에덴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있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순진한 어린아이들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 동산에는 두 개의 유명한 나무들이 있었다.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다. 그 외의 실과들, 즉 생명나무의 실과를 포함한 모든 실과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란 각기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남자들이 아담 그리고 최초의 여자들이 이브라고 불렸다.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된 것을 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뱀이라고 부른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뱀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이는 뱀이다. 여러분은 수풀 속을 숨어서 기어 다니는 뱀들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려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어이 하려하는 욕망이 바로 우리의 심정 속을 숨어서 기어 다니는 뱀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13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그분께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을 떠나야만했고 다시는 그곳으로 되돌아 올 수 없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좋게 보이거나 자신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것 같아서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다. 그리고 이내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지만 때는 이미 늦었음을 경험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하며 순종적일 때 만사형통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속 깊은 곳에는 본문의 뱀과 같은 욕망이 숨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시험해 볼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뱀이 상징하는 욕망이 설득하는 것에 매우 영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과 이브는 아름다운 동산을 떠나야 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자신이 선호하는 길만을 고집할 때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제 2반

창세기의 첫 이야기들은 인류 초기에 관한 것, 악이 발생한 과정, 우리의 영적 발달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심정 안으로 악이 들어오도록 어떻게 허용되는가에 관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임을 주지시킨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 반을 공부하자.

- * 성경 제 1장은 무엇에 관하여 쓰여 있는가?
- * 주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 *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 * 인간은 누구의 모습을 닮게 창조되었는가?
- * 인간은 동물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 * 주님께서서는 인간에게 땅과 땅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단어 「아담」은 무엇을 뜻하는가?
- * 주님께서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이었는가?
- * 뱀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이브는 무엇을 했는가?
- * 아담은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마치 한 쌍의 남녀인 것처럼 말해지고 있다. 하지만 단어 이브는 히브리어로 “살아있음”란 뜻이다. 그리고 아담이란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태초의 인간들은 하나의 교회 즉 태고 교회를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발달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어린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진한 것처럼 선하고 순진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했다. 이러한 그들의 심정 상태는 창세기 제 2장에서 언급되는 에덴의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상징되는데, 에덴이란 히브리어로 기쁨을 뜻한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항상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 이기적 욕망은 뱀으로 상징되고 있다. 요한 계시록 3장 17-19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니 그분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옷이 그들의 육체를 위한 옷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옷 입힐 진리를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는 주님만이 그들에게 진리를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대신 뱀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원래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2장 25절)”는 순진한 상태에 있었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게 되어 주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는 숨을 수 있었으나 주님으로부터는 숨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들을 더 깊이 공부할 때 불순종으로 야기된 뱀과 남자 그리고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지혜는 곧 질서로서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은 선악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 역시 창조의 섭리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저주들이 실상 주님으로부터 내려 온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저주란 불순종 자체에 따르는 인과(因果)인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는 우리가 추론하는 능력과 자율로서 선택하는 두 가지 능력을 갖고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무한하셔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길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지만 주님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그분께서 보시는 바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 그 이유는 강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고유 능력을 말살시켜

우리를 인간이 아닌 동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함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게 되어 피곤과 곤란이 우리를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 때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자신의 삶의 피곤함과 곤란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으로 인해 아름다운 동산을 떠나야만 했고, 그들의 양식을 주님에게서 받는 대신 스스로 일해서 구해야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 불순종했을 때 다시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상식적인 것으로서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한 번 잘못 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 옳은 길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더욱 쉽게 느껴져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다. 즉, 어떤 것이든 한 번 습관이 되면 그것을 벗어 버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창세기 이후 성경의 이야기들은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후 옳은 길로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만을 고집하는 인류와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계도하시려는 주님의 노력을 보여준다.

본문의 구절들 중에서 특히 두 구절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15절이다. 이 구절은 말씀 중에서 처음 나타나는 “강림에 대한 예언”이다. 이 구절은 장차 뱀이 제안한 것을 행하기를 거절할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며, 그 아이로 인해서 내리막길로만 치달던 인류의 타락이 멈춰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본문 마지막 구절이다. 거룩들에 관해서는 차후 다시 언급되나 성경 중에서는 본문에 처음 등장한다. 이들은 상징적인 모양으로 실질적인 생물이거나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선함을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표현한다.

이제 잘못된 것을 행하려는 우리의 욕망이 뱀으로 상징되는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저 사람은 돼지 같아.” 또는 “저 사람은 여우같아.”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실제로 돼지나 여우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나 성격이 돼지나 여우의 특성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 그러한 표현들을 쓰게 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태고 시대 사람들은 자연계의 모든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나 특질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자연계의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지식을 “상응”이라고 한다. 굳이 직접 뱀을 보지는 못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책이나 TV를 통해서 뱀의 행태와 사냥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뱀에 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뱀의 행태(行態)는 우리 안의 낮은 곳에 있는 “감각적”인

본성이 하는 행위와 아주 유사하다. 감각적인 본성은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주님과 하늘에 속한 것을 아예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감각적인 것 이상의 것으로 쏠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매려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깊은 속에 숨어서 기어 다니며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물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자신의 방법만으로 그것이 이뤄짐을 믿도록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감각적인 본성의 시험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어느새 그것에 깊숙이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이브가 간교한 뱀의 말에 경청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함을 스스로의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이다.

제 3반

에덴의 동산과 두 나무 그리고 뱀에 관한 일반적인 상응을 살펴본다. 그리고 성경의 첫 장이 인류 초기의 영적 역사와 개개인의 영적 발달을 다루고 있음도 지적한다.

식물은 사고 또는 마음속의 것들을 표현하며, 동물은 심정 또는 의지에 속한 것을 표현한다. 나무들이란 일반적인 큰 원리들을 표현한다. 태초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과정을 따라 하나의 교회로 발달된 후에 그들의 상태는 2장에서 전하는 바대로 에덴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동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며, 모든 지혜와 선함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가장 큰 원리를 상징한다. 2장 9절과 17절 그리고 3장 3절을 읽어 보면, 인류의 심정 상태가 본문 시작 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생명나무는 이제 더 이상 동산의 중앙에 있지 않다. 이는 그들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느낌을 상실해버렸음을 의미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알기 위한 지식을 위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원리를 말한다. “내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다 된 거 아닌가?”하는 표현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뱀은 동물계의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애정을 표현하는데, 그 애정의 대상은 감각적 쾌락이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이나 좋은 옷을 입는 것 혹은 유희를 즐기는 것 등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뱀으로 상징되는 감각적인 애정이 제자리만 지켜 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감각적인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아주 배제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각적인 즐거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활에서 이탈되어 시간과 돈 그리고 정력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종종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전혀 해가 없고 오히려 다른 것 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 이는 뱀이 이브에게 “너는 정녕 죽지 않으리라”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브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뱀이 이브에게 말했다 함은 우리의 의지가 시험 당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으로 그것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지를 입증하려는 변론을 자신 속에서 찾게 된다. 이것은 이브로부터 과일을 받아먹는 아담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발견하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선행들을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한다. 무화과나무 잎이란 우리의 자연적인 선함에 관한 생각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변명은 “완전해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이 정도만 되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은 사 놓은 것 아닌가?”라고 끝맺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에 순진과 신뢰함으로 출발했던 아름다운 내적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주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정녕 죽으리라”라는 경고에서의 죽음이란 그들이 동산 밖으로 추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주님 대신 자아를 믿기 시작 할 때에 온갖 종류의 곤란으로 빠져든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우리의 거짓된 생각을 말하며, 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방법이 진짜 쉬운 방법이요 길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 위에 떨어진 저주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려함으로 인한 인과이다. 이것은 우리가 설령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장의 제목인 뱀의 처벌에 관한 14절을 주의 깊이 읽어 보면, 감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뱀으로 상징되는 감각적인 애정은 결코

세상적인 것 이상 보다 높게 들릴 수 없다. 그래서 뱀이 단지 “먼지”만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뱀에 의해 상징되는 시험을 완전히 극복하셨다. 제 15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첫 예언으로서, 감각적인 것에 대한 모든 시험을 겪게 될 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그 때에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는 언제나 뱀의 유혹을 거부하고 뱀의 머리를 짓부수게 될 것임을 예언한다. 여기서 머리란 어떤 것을 통치하는 원리를 말하며, 주님이 짓부수시는 뱀의 머리란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민수기 21장 4-9절과 요한복음 3장 14-15절에 있는 모세와 구리 뱀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물은 뱀이란 감각적인 욕망이 추구하는 만족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리 뱀이란 이 욕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뜻한다. 주님은 그분의 감각적인 삶을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도록 들어 쓰셨다. 우리의 감각들이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들을 우리 마음의 안내자로 인식해 버릴 때, 그것들은 주님을 배신하는 쪽으로 우리를 더욱 더 멀리 이끌고 간다. 이리하여 본문의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게 닥치는 시험과 싸우려고 노력하면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에게 합세하여 싸워주셔서 결국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마지막으로 24절을 읽어보자. 거룩들이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을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불칼이란 악을 점검하여 선을 보호하는 사랑으로부터 영감 된 진리이다. 본문의 칼이 양날을 가진 까닭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6-21절도 읽어보자. 궤 안에 보존된 십계명이란 우리가 시험과 맞서 싸우는데 첫 번째로 들어 써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기본 상용 공부

나무 = 일반 원리

무화과 = 자연적인 선함을 중심으로 하는 원리

뱀 = 감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들 = 진정한 선함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섭리

제 4반

인류와 개인의 양 측면에 있게 되는 악의 근원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자아 신뢰의 본성과 그에 따르는 실수와 고통도 살펴본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영적 발달에도 응용된다. 영적 발달은 거듭남이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다. 거듭난 사람은 행복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아닌 주님께 언제나 신뢰를 두고 모든 선함이나 진리가 그분에게서만 비롯됨을 알며, 그분께 순종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자신의 영원한 삶에 복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로 상징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인간은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면서 그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차원 낮은 욕구들을 잘 조절하면서 영적인 삶을 지속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태초의 사람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영적 삶의 가장 높은 수준인 태고 교회로까지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에서 타락하여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것을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어 자신의 삶을 그분의 질서에 따르도록 하면서 교회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난 후 자신이 충분히 배웠으니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모습일 것이다.

본문은 태고 교회의 타락과 그 경로를 통해서 악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제 3절에서 배우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동산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도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선함과 진리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믿으려 든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자유를 거둬버리지 않고서는 주님께서도 막으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님께서서는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셔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원리에 대한 경고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 주님께서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하여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한 순간일지라도

네 스스로 선함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네 마음속에 허용치 말라. 그 이유는 그 허용이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이다.”일 것이다.

우리가 종종 스스로를 내맡기게 되는 유혹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중에서도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뱀이다. 뱀은 우리의 의지인 이브를 부추긴다. 자신이 반드시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고 위험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쾌락이 우리의 의지를 부추기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 정말로 나쁠까하고 생각하며 이미 알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일 리가 없다.”라며 결론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이브와 같이 자신의 추론 능력에 유혹당해서 따게 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넘겨준다. 이리하여 우리의 의지와 추론 능력 모두가 유혹에 빠져서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 즉각적인 결과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느낌과 더불어 그 잘못을 변명으로 덮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앞을 가린 무화과나무 잎이란 자신 속에 있는 자연적 선함에 관한 생각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진함과 신뢰함에 어울리는 모든 기쁨들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은 피할 수 없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실이 있을 후 의를 행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힘든 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인 가시덤불과 엉덩퀴와 싸우며 우리 마음의 발을 일궈야한다.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동산 입구에 있는 두 가지 안전장치이다. 거룩들이란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신성한 섭리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형상화한 상징적 모습이다. 칼이란 진리가 싸우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특히 불칼이란 신성한 사랑에서 온 진리를 상징하는데, 이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검으로 한 쪽 날은 악을 저주하고 다른 한쪽 날은 선을 방어하는 힘을 상징한다.

우리의 의지가 이기적인 느낌들을 발달시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수단으로 하여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산으로 이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배워야 한다. 즉,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스스로 맛보아야만 하고, 설사 자신의 뜻과는 반대될지라도 의를 행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 우리는 때로 아기를 보면서 “나도 언제나 이 아기처럼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중얼거린다. 이때의 우리는 정말로 아기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아이의 순진함과

순수함이 부러워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가야할 우리 앞에 놓인 먼 길에 대한 탄식을 표현할 뿐이다. 하지만 영적 진보를 해 나가는 데는 어떤 지름길도 없다. 설령 우리가 선 대신 악을 종종 선택함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이성을 발달시킴으로서 차후의 선택에 있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뱀과 남자 그리고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란 주님께 불순종하고 자아에 신뢰를 두어 피할 수 없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의 구약성서를 통한 인간의 이야기는 주님께에서 멀어지는 하강의 일도이자 꾸준한 투쟁이다. 새교회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죄론”을 믿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악에 대한 경향성을 내리받아 태어날 뿐이다. 사람이 악에 대한 경향성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악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사람이 악에 대한 경향성을 인식하고 점검하게 되면, 그는 악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듭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인간의 영적 하강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떤 시험에도 저항 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부수심으로써 하강의 일도로만 차단던 인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된 것이다. 본문 15절은 이런 강림에 대한 첫 예언이다.

제 5반

악의 근원과 인류의 하강을 주로 살펴본다.

뱀이란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상징이다. 감각적이라는 말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가진 오감인 시각, 촉각, 청각, 미각 그리고 후각의 육체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봄은 우리가 흔히 오감을 단지 육체적인 감각으로만 치부하나 사실 오감은 우리의 진정한 몸인 영체에도 존재하여 정신적인 면에서도 오감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인 것들이 아닌 자연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접촉하여서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봄은 이를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이라고 부르며, 이는 뱀에 의해 상징된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우리의 영체의 일부분에도 속하는 이러한 감각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각적인 부분은 우리 마음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서 더 높은 영역들의 밑에서 받쳐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주님께서 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뱀은 두 가지의 상응, 즉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 모두를 지닌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0:16). 이는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 오게 되는 모든 지식을 이용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식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결코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또 한 가지 뱀과 연결되는 성경의 사건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의 욕망과 불순종으로 뱀들에 의해 재앙을 받았던 것이다. 그때에 모세는 하느님의 명을 받아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 본 이는 낮게 된다고 말했다. 구리 뱀은 감각적인 것들을 선한 용도로 바꾸는 것을 상징한다. 이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구리 뱀 자체가 예배의 대상물이 되었을 때 히즈키야 왕은 그것을 파괴해 버렸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구리 뱀을 우상화하여 주님을 예배함으로부터 더욱 멀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선함이 외부적인 선한 일속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서 주님에 관해 더 배우거나 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인간 속성을 구리 뱀이 높이 들려야 함과 견주어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뱀은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우리의 감각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느낌들을 가져다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호소한다. 이것들이 가져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기쁜 것들이다. 자연의 아름다움, 좋은 음악, 향긋한 냄새, 어루만져 느껴지는 은은한 감촉 등이 그 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의존하려고 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의 감각이 확인해 주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주 쉽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지식이나 힘을 찾는 대신 자신에게서 그것들을 찾으려드는 쪽으로 쉽게 기울게 된다.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며, 그 첫 유혹은 여인이라는 우리의 애정을 유혹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애정을 통하여 뱀은 남자로 상징되는 우리 속의 지적인 마음까지 유혹한다. 즉, 감각에서 오는 쾌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호소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쾌락이 올 때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의 지성은 우리가 그 쾌락을 즐거워하는 이유를 추켜들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쾌락을 금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를 거절하거나 어떤 악이 우리의 쾌락에

대한 탐닉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에서의 뱀은 먼저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의심이 바로 『모든 악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밝혀 주신 것에 의거하여 추론하거나 판단하려함을 못하게 하는 유혹이 바로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천국의 신비」 제 196항에서 “고대 시대 때에는 밝혀주신 것보다 감각적인 것들에 더 신뢰를 둔 ‘뱀’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서는 더욱 나빠져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신들이 보고 만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식들로 자신들이 믿지 않는 회의심을 스스로 확증하려고 하여 소경보다 더 심한 맹목적인 자기신뢰를 자신 안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감각적인 것을 삶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 주님에 관한 지식이나 천국적인 것에 관한 지식들만이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통찰력을 잃게 된다. 고대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아 자연에 대한 것을 추론하는 대신 자연으로부터 받아 하느님을 추론하기 시작하여 자신들의 감각으로 확증할 수 없는 것을 믿기를 거절했던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대인들은 천적인 사람이 가졌던 진리에 대한 즉각적인 지각 능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 곧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지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제 7절에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다는 구절이 뜻하는 바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상응이 소개되고 있다. 즉, 무화과나무로 이는 “자연적인 선함”을 상징한다.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자연적인 선함이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수준인 친절함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뜻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심각한 과오를 행했을 때 자신이 가졌던 “선한 행위”를 상기시켜 그 과오를 덮어씌워서 자위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선함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알몸을 덮으려고 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상징된다. 겉옷이란 진리에 상응되고, 벌거벗음이란 진리의 결핍을 말한다. 이 시점에서 상기되는 성경의 사건은 히즈키야 왕의 열병이 무화과로 만든 고약으로 치료된 것과 주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이다. 이 사건들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삶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그렇다하더라도 자연적인 친절함이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수용하는데 부족했음에 대한 변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고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친절함이나 선한

일은 독선이나 위선이 될 뿐 순수한 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 3장 14-18절을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는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떨어진 벌을 공부하기에 앞서 “현상(외관, 겉보기, 가상)”에 관한 교리를 알아야 한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그분은 결코 벌하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에서 성내시고 시기하시며 복수하시고 저주하시며 벌하시는 분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려면 완전이란 글자가 뜻하는 바대로 성냄이나 복수 또는 저주와 같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주님께서 저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있어서 인간을 수단으로 쓰셔야 했던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언어와 사고로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는 종종 성경 속에서 외관적인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악한 상태에 있을 때에 진리는 자기를 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에 대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자녀가 그릇된 길을 고집할 때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과 노력은 그 자녀가 느끼기에는 부모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고 여기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벌은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가 행한 악 속에서 이미 존재한다.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인간을 인도해버릴 때 그 감각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뱀이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한다고 저주받은 것 역시 주님께서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 그러한 선택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은 지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것과는 멀어져 버린 지상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밝혀주신 진리 대신 우리의 감각들이 보고 느낀 것에 신뢰를 두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졌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여자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 의지 속의 애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삼았던 태초 사람의 상태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 의지를 통해서 직접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애정이 세상과

자아를 중심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는 악과 벌이라는 쓰라린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진리나 선도 이를 수 없게 되었다. 말씀 속에서 아이들의 출생은 좋은 측면에서 언제나 선과 진리의 출생을 상징한다. 그리고 남자에게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라고 말해졌다. 자아로 뚫뚫 뭉친 사람의 마음은 그를 속 태우는 거짓 사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은 그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어려움을 발견하는 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하고 말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는 동산 밖으로 추방되고, 불칼과 더불어 있는 거룩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동산 입구에 설치되었다. 거룩들이란 말씀 전체를 통해 보호하시는 신성한 섭리를 상징한다. 본문에서의 거룩들이란 인간이 인간의 속성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을 모독함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섭리를 뜻한다. 성경에 있는 같이란 거짓 혹은 진리를 무기로써 사용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가 자신이 아는 진리에 따라 살기를 끝까지 거절할 때 진리라고 한 그 신앙은 그의 고집스런 불순종의 상태로 더 진전되지 않도록 결국 그로부터 거둬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94-195항: 여기서의 ‘뱀’은 인간이 신뢰하는 인간의 감각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들짐승’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외적인 인간의 모든 애정을, ‘여인’은 인간 자신의 것 또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라는 뱀의 말은 인간 자신의 것이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주체는 태고 교회의 세 번째 후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끼며 인정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 이 과정의 첫 상태가 의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 다음 절까지 이어진다. 태고 교회 사람들은 인간 속의 모든 것을 짐승이나 새들에 비유했다. 이러한 관습은 홍수 뒤의 고대 교회에 이르러서도 잔존했고 예언자들 사이에도 보존되었던 것이다. 인간 속의 감각적인 것들은 ‘뱀’으로 불렸는데, 이는 뱀이 땅에 붙어살듯이 감각적인 것들이 육체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고 교회 인들은 믿음의 신비와 관련된 추론들과 감각들이 증거에 기초를 두는 것을 ‘뱀의 독’이라 부르고, 그렇게 추론하는 자신들은 ‘뱀’이라고 일컫는다. 그들이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곧 눈에 보이는 것들(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 자연적인 것

등)로부터 더욱 추론하여 말씀은 “아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라고 기록한다.”

질문 정리

- 1) 성경 첫 장 첫 절을 기억하는가?
- 2) 우리 속의 하늘과 땅은 무엇인가?
- 3) 영적 의미에서 창세기 제 1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 4)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 5) 첫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졌는가?
- 6) 지상에서 발달된 첫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7) 첫 교회의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8) 제 1장이 끝난 뒤 첫 남녀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 9) 어떤 특별한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가?
- 10)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1) 생명나무는 이야기 처음에 동산 어디에 있었는가?
- 12) 첫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 13)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4) 뱀은 무엇인가?
- 15) 뱀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6) 이브와 아담은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17) 그 뒤 그들은 왜 부끄러워했는가?
- 18) 그들은 그들의 알몸을 어떻게 가렸는가?
- 19) 불순종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 20) 동산은 어떻게 보호 되었는가?
- 21) 주님의 강림에 대한 첫 예언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한 처음에... 2)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3) 거듭나는 단계
- 4)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 5) “땅”을 지배하라 6) 태고 교회
- 7) 에덴 8) 아담과 이브 9)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10)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된다는 원리 11) 중앙
- 12)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 13)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
- 14) 감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15) 절대로 죽지 않는다.
- 16) 열매를 먹었다 7) 불순종에 대한 죄의식 18) 무화과나무 잎
- 19) 동산에서 추방됨 20) 거룩들 21) 제 15절 참조

3

무 지 개

머리말

뱀의 유혹에 관한 내용은 태고 교회의 타락에 관한 내용과 직결된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타락의 결말인 파멸로부터 남겨져야 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성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9장 1-17절

9장: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낱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2.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과 바닷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5.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양갓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양갓음을 하리라. 6.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7. 너희는 많이 불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8.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9.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10.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짐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11.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12.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13.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14. 나는 너 뿐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17.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교리 요약

- * 인간 안에 있는 의지와 이해성
- * 재구성과 거듭남의 교리
- * 역사의 기초로서 이어지는 주님의 처방에 관한 생각들
- * 고대 말씀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흔히 처음으로 가보게 되는 곳으로 운전하는 도중 갈림길을 접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표지판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야할 길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표지판대로 따르면 가고자 하는 곳에 문제없이 도착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혹 우리는 표지판이 없는 갈림길이나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려하거나 길을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한 짐작에 의해서나 혹은 단순히 가기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기에 쉬워서 선택했던 길이 차후에 보니 목적지와는 전혀 반대 방향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우리의 삶 매순간에 다분하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올바른 표지판을 세워 두신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주님보다 더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한번 잘못 내딛은 길은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계속 내리막길로 치달아 결국 주님의 길에서 아주 멀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악한 열정과 거짓된 생각들이 실제로 그들을 파괴할 지경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태고 교회인들의 파멸은 본문에서 홍수의 이야기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험한 시험 속에서도 굳세게 서서 선을 지키며 악을

사랑하는 다수를 따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선한 사람들이 바로 노아로 상징되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여 멸망의 폭풍을 타고 넘어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나운 폭우가 지난 후 구름을 뚫고 태양이 비쳐올 때 하늘 어두운 부분의 반대편에서 아름다운 색깔로 된 등근 태두리를 지닌 무지개를 보게 된다. 무지개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격렬했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지나 소유하게 되는 그 순간을 상징한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지성 속에 담아 두신 그분의 말씀에서 온 진리의 한 조각을 우리를 위해 밝혀주신다. 즉, 과거에는 쓸모없어 마치 해묵은 쓰레기와 같이 여겨져 마음속 어느 곳에 쳐 박혀 있었던 진리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이다. 설사 우리의 인생이 어둡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축복하고 계심을 무지개라는 상징적인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

제 1반

무지개의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한 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표시임을 그것을 볼 때 마다 상기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자 노력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심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의 생활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불과함도 강조한다.

앞서 우리는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주님께 불순종했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을 배웠다. 그들은 타락으로 인해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었다.

근목자혹이라는 말처럼 무리 중 한 사람이 잘못 되면 결국에는 무리 자체가 그 사람과 비슷해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 역시 주님께 한 번 불순종한 뒤 점점 나빠져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악에 물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심히 나쁘게 되자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큰 홍수로 인한 파멸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소수의 선한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배를 만드는 방법과 그 배 안에 각종 새와 짐승을 들여 넣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다. 홍수를 일으킨 큰 비는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다. 물은 계속 차올라 결국 산꼭대기까지 덮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안전했다. 비가 멈추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땅이 마르기 시작하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배에서 나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

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데, 무지개가 바로 그 약속의 표시이다. ‘언약은 서로 동의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본문을 보면, 하느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을 알 수 있다. 본문 9장 8-17절을 읽어 보자.

누구나 한번쯤은 무지개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무지개란 비가 막 그칠 무렵 구름이 아직 짙을 때 태양이 출현하면서 아름다운 밝은 색깔들이 활 모양으로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리운 어둠의 강도에 관계없이 태양이 언제나 비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표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겪는 어떤 곤란도 길지 않을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 2반

노아와 홍수에 관한 지식을 검토한 후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본 반을 진행한다.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의 인류의 역사를 언급한다. 즉, 인류가 악하거나 야만스럽게 창조되어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점차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려가 결국 스스로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프리즘을 통해 흰빛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내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무지개를 이해해 본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하자.

- * 에덴의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 동산에 있던 특별한 두 가지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아담과 이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해진 것은 무엇인가?
- * 무엇이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꺾었는가?
- * 불순종에 대한 그들의 벌은 무엇이었는가?
- * 노아와 더불어 누가 방주에 들어갔는가? (창세기 7:7)
- * 노아는 그 밖에 무엇을 방주로 들여보냈는가? (창세기 7:8-9)
- *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는가? (창세기 7:12)
- * 홍수가 끝나자 배는 어디에 머물렀는가? (창세기 8:4)
- * 주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 주님은 노아에게 어떤 표시를 주셨는가?

- * 통상적으로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보게 되는가?
- * 무지개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불순종은 또 다른 잘못된 행위를 낳아서 결국 악이 악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그들의 영혼은 건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되었다. 해를 지날수록 각 세대는 점점 이기적이며 악해져 가서 더 이상 생명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악이 그들을 파괴시킨 것이다. 이것은 홍수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시험에 저항해서 구원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아라랏(Ararat)이란 히브리어로 높은 땅을 뜻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는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서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맨 땅이 드러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제단은 예배를 상징하는데, 이는 새교회 역시 제단에 항상 성경책을 놓아두는 이유가 된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은택을 입을 때마다 그분께 제단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우리 역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다.

간혹 우리는 물을 뿌릴 때 무지개를 보기도 한다. 무지개는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하여 굴절 반사될 때 형성된다. 즉, 태양에서 오는 빛이 굴절 반사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프리즘도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

앞서 우리는 물이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다. 빛 또한 진리를 상징하여 우리가 갑자기 뭔가를 이해하게 될 때 “나는 본다(I see)”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물방울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구절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시게 될 때 빛이 그 구절 안으로 갑자기 비추어져서 무지개가 여러 색깔을 내듯이 주님의 진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발생시킨다.

무지개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험과 고난의 시기에 직면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때에 우리는 그분께 가장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면 그분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표시가 바로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다. 또한 주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인류가 파괴되어야만 할 만큼 극악한 지경에까지 도달하는 것도 다시는 허용하시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다. 인류가 파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을 뿐이다. 후에 인류가 다시 악해져서 이와 비슷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주님 자신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안전하게 바른길로 다시 접어들 수 있는 방법을 인간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 3반

지상에 존재했던 타 교회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홍수와 무지개의 표시에 대한 의미를 주로 다룬다. 또한 진리를 배워야 할 필요성, 배운 진리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무지개의 연관성도 강조한다.

노아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태고 교회, 즉 지상에 존재한 첫 번째 교회의 마지막과 두 번째 교회 곧 고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내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 삶의 과정 중 아주 초기에 거행되는 성장 과정을 표현한다. 유아들처럼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순진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자연에 속한 것들이 천국적인 것을 표현하여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우리보다 더욱 영적이며 지혜로웠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영혼들이나 천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들의 마음과 모두 일치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뜻하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 유아들의 유사점으로, 유아들은 언제나 그들이 가진 느낌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나타내며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언제나 옳지 않음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느낌들을 판단하며 조절하기 시작함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심에 젖어서 악에 빠진 후로는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점점하고 판단하게 해주는 “더 나은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마음이 나빠지자 그들의 생각과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향하는 길의 끝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나쁜 습관이 점차 자신을 지배하여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킨 홍수란 태고교회의 사람들의 파멸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악함으로 인해 파멸의 지점에 이르기 직전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남기를 위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본성에 한 가지 변화를 만들어 주셨다. 극소수의 사람, 즉 “남겨진 자들”은 본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 안에 만드신 한 가지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함께했으나, 주님께서는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분리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진리를 받아 들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것은 고대 교회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므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상태이다. 이리하여 설령 사람들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악에 기울어져 있다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곧 이해성을 통해서 진리가 다시 가르쳐질 수 있고 억지로라도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따르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들은 좋은 습관을 형성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또 다른 좋은 습관을 이루게 되어 궁극적으로 구원되도록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고 교회 시대의 말기에 속한 사람들(창세기 6장 5절)의 상태가 극히 이기적이었던 것같이 우리 역시 그 시작은 극히 이기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배우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순종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순종함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웨덴북이 강조하는 “재구성과 거듭남”의 과정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배 안에 태운 후 범람하는 홍수를 이겨내는 이야기는 주님이 만드신 변화가 태고 교회로부터 남겨진 선한 이들 안에서 이뤄지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표현한다. 그리고 비가 40일 주야동안 쏟아졌다. 말씀에 있는 모든 숫자는 각기 상응을 갖는다. 숫자 4란 시험에 상응된다. 그리고 숫자 10은 어떤 상태가 완전히 이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숫자 40이란 시험이 완전히 이뤄짐을 의미한다.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비가 멈추고 홍수가 빠지는데 150일이나 걸렸고 그 후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 지상에 그의 생활을 재건하는데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던 성경의 이야기처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창세기 8장 20-22절을 읽어보자. 제단이란 언제나 예배를 상징한다. 노아가 쌓은 제단은 고대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회의 건설을 표현한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을 갖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적인 경로, 즉 그들의 순진함과 선한 심정을 통해서

환상이나 꿈같은 것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을 훈육시키실 수 있었다. 하지만 태고 교회의 말기에 이르자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내적 문이 닫히게 되었음을 느끼고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러한 가르침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이로 인해 고대교회가 이뤄질 썸 언어로 기록된 가르침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을 스웨덴본은 고대말씀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간들은 고대 말씀 또한 잃어 버렸다. 스웨덴본에 따르면 성경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은 고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 우리로 하여금 고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미약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자연속의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어떻게 상응하는가를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대 말씀들은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 졌다. 이는 고대 교회 사람들의 언어가 상징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새교회인 고대 교회와 새 언약을 만드셨다. 언약 또는 계약이란 쌍방이 동의하에 이뤄지는 약속을 말한다. 주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태고 교회 사람들이 한꺼번에 멸해진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언약에 대한 표시가 바로 무지개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가 이 때 처음 생겨난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지개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다만 주님께서 무지개를 새로운 약속의 표시로 삼으신 것이다. 무지개는 참 아름답다. 무지개는 태양광선이 빔방울에 굴절 반사되어 여러 색깔로 보이게 되는 자연 현상이다. 또한 무지개는 한 인간이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상태를 상징한다.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류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황금시대 또는 태고 교회라고 부른다. 태양의 빛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는 곧바로 땅에 이르듯이 태고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심정 안에 직접 가르침을 넣어 주셨다. 그러나 노아라고 불리는 시대, 즉 은시대 또는 고대 교회 때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부터 있게 되는 진리들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방울들을 통해서만 배워야 했다. 그래서 주님은 상응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계발시켜 주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천태만상이듯이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진리의 모습이 바로 오색영롱한 무지개 색깔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풍이 지난 후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무지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진리에 대한 아름답고 완벽한 상징이다.

기본 상응 공부

40 = 시험

홍수 = 삶을 파괴하는 거짓들

무지개 = 우리 속에 담긴 말씀에서 받은 진리들이 우리를 계발시키기 위해
주님에 의해 사용됨

제 4반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러한 진리를 결코 알지 못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배워야 함을 언급한다.

태고교회 사람들은 삶의 진리를 주님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찾고자 하여 자연적인 감각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적 측면은 멈출 수 없는 타락을 시작하고야 말았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이기적인 욕망과 그와 짝을 이루는 거짓들로 침식당해 결국 모든 영적인 호흡과 진정한 인간 생명이 질식하기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산꼭대기까지 채우며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을 파괴시키는 홍수이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끝까지 순종하고자 했던 극소수의 사람, 즉 “남겨진 자”들로서 태고교회가 완전히 황폐해질 때에도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주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인해 완전히 멸망되는 것으로부터 보존시킨 방법이다. 각 개인의 인생에서 이를 보면, 주님께서 막 태어난 우리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지닌 이기심을 수단으로 하여 인도하시는 방법에 해당된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께 순종할 때 순종을 선택함이 자신에게 더 이로움을 눈치 채는 모습과 흡사하다. 즉, 어린아이가 부모가 가르치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를 화나지 않게 함이 우선이나 그렇게 하다보면 그 좋은 습관이 자연히 몸에 배여 결국은 올바른 것을 행함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습과 같다.

성경 이야기에서 “땅이 다 마른다”함은 과거 시대의 괴물 같은 거짓들인 홍수가 다 빠졌다는 말이다. 이것이 완료된 후에야 남겨진 선한 것들이 지상에서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첫 행동은 주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다. 이 행동은 말씀 속에서 동물을 “번제물”로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다. 그러나 스웨덴붉은 노아가 제단 앞에 동물을

바쳤으나 그 동물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제단의 불 앞에 동물을 바치는 것이 자신들의 애정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성스럽게 구별함을 의미한다고 인식했다. 아주 오랜 후 이런 의미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동물 자체를 태우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셨는데, 이는 우상 숭배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저질러서 이를 예방하시기 위해 동물의 번제를 허락하신 것뿐이다.

이후 주님은 성경 이야기에서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만드셨는데, 이후로 인간이 악과 거짓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해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겠다는 징표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무지개는 대기 중의 조그만 물방울에 태양의 흰빛이 굴절 반사되어 태양의 반대 방향에 반원형으로 길게 뻗어 나타나는 일곱 가지 빛깔의 모양이다. 무지개는 인간의 새로운 상태에 대한 완전한 상징적인 묘사이다. 아담의 시대처럼 주님의 빛은 더 이상 인간의 애정에 직접적으로 비추실 수 없었다. 그 대신 주님께서 인간의 지성 안에 받아들인 말씀의 진리에 빛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만큼씩만 계발시켜 주신다. 각자의 특별한 상태나 필요성에 부응하여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응용할 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무지개를 응시하면 아름다운 색깔로 나타나는 현상 곧 빛의 하모니에 해당된다. 흔히 무지개는 폭풍이 거의 가실 무렵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무지개는 곤경과 시험의 때에 우리와 현존하셔서 보호하시고 계발해 주시는 주님을 상징한다. 우리의 어느 심정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특별히 시험받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다.

아담으로 그려진 사람들은 소위 태고교회를 형성했다. 이 교회는 ‘애정적인’ 또는 ‘천적인’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신화에서는 이를 “황금시대”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금속들 중에서 금이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고대 교회, 즉 신화에서 “은시대”라고 부르며 노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지적’ 또는 ‘영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은이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신화는 그 근원을 참작한다면 역사시대의 사람들이 만든 창작품이 아니라 오랜 전통이 상응어로 말했던 초기 사람들로 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5반

태고교회의 사람들과 우리를 포함한 그 후 사람들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더욱 배우지 않고서는 충분한 정도의 수준에 결코 이르지 못함을 강조한다.

역사에 관련된 새교회의 가르침은 이전에 어둡고 불확실했던 영역을 밝혀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탐조등과도 같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과거 시대의 유물로부터 또는 인간이 만든 기록을 집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의 근원은 단편적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한 역사는 인간의 성취에 대한 과정 곧 인간이 주위 환경을 점차 정복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인간이 인간을 정복하고 부리는 것에 대한 기록일 뿐이다. 더욱이 종교적인 면에서 서양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고 발달시킨 개념의 역사로서 정치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을 가졌을 뿐 하느님의 자리는 어느 부분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계시가 모든 역사를 규율하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스웨덴붉은 모든 시대 속에 있는 교회는 그 사회를 몸체라고 할 때 그 몸체 속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했고 이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생각과 생명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스웨덴붉이 밝히는 고대인의 특성은 고고학적인 연구로 이뤄진 고대에 대한 학설들과는 매우 다르나 신화에 나오는 금시대와 은시대의 이야기들과는 상당히 가깝게 여겨진다. 본문은 홍수의 시대로서 태고교회에서 고대교회로의 변천을 다루고 있다. 「천국의 신비」 605항에서는 지금 취급 되는 주제가 노아로 불리는 새교회의 형성으로 묘사되고, 그 교회의 형성이 갖가지 종류의 살아있는 것이 받아들여진 방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새교회가 부상되기 전 그 교회의 사람들은 많은 시험으로부터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바, 이는 방주가 홍수위에 떠 있는 모습이다. 이 과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요 홍수가 오래 지체함 역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결국 그가 진정한 영적 인간이 되어 자유로워짐이 물이 빠지기 시작함과 이에 수반되는 많은 것들이 제거됨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고대 교회의 거듭나는 사람의 상태가 기술되어 있고, 이는 새 언약 곧 무지개의 “표시”로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이 영원한 계약임을 주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록 고대 교회가 타락하고 멸망하여서 그들의 지식이 소멸되었다할지라도 거듭나는 수단으로서 인간속의 특성이 되는 무지개의 언약은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상위의 인류는 태고교회인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설사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주님께 극도로 신실하여 천적인 등차로의 진보가 있었다고 추측 될지라도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홍수 이후 태고교회의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 교회의 지옥의 문도 닫혀져 있었다. 이후 이어지는 교회들은 그들의 천적인 천국을 갖기는 했지만 무지개의

징표로 기술된 과정을 뛰어넘는 도달은 불가능했다. 우리들 각자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나 진리를 배워야 하며 천적인 상태에 이르기 전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1043항에서 구름이란 우리 지성이 우리속의 자연적인 의지 속에 있는 악의 결과로 있어지는 희미함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온 진리를 자신의 지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주님께에서 오는 빛이 그 진리를 비추어 빛나는 바, 태양 광선이 어두운 구름을 배경으로 빗방울을 굴절반사 할 때의 모습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성 속의 진리가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그 배경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지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그 속에 폭 빠져 주님이 없는 듯 여길지 모르나 주님은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시험 속에 있는 우리와 현존하심을 의미해 준다. 또한 무지개는 우리가 진리에 신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결국 우리로부터 시험을 제거해 주시며 정결한 심정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갖는 우리의 의지가 악하여서 태고 교회 인들이 가졌던 지각으로 직접 진리를 볼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지성 안에 받아들인 말씀의 글자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진리들이 투영될 뿐이다. 이리하여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재구성”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에게 새 의지를 주시게 된다. 이런 단계가 바로 홍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는 방법이다. 그리고 무지개는 인간의 “천적인” 상태와 구별되는 “영적인” 상태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상응적인 표시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042항에서 “영적인 천사들 곧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듭나서 된 천사들은 저 세상 삶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마치 머리 주위에 무지개를 가진 듯 나타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갖는 무지개의 특성은 각기 다른데, 이는 각 천사가 진리를 자기 마음에 허용했던 방법에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지개의 모든 색깔은 하모니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태양의 흰 광선에서 비롯된다. 우리 지성의 특수한 어떤 항목은 마음속에서 반사되어 색깔을 결정하거나 마음속의 완고한 거짓들로 인해 아예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독단적인 주장 속에서 주님께 의해 거듭난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 났을 때 계시를 즉시 받지는 않지만 말씀이나 말씀에서 온 설교 등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심어진 것만을 받게 된다. 우리 모두는 우리속의 거짓이라는 구름이 가능한 한 없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주님의 진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 아름답고 다채로운 빛깔로 빛나기를 소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타애가 발견되지 않으면 무지개가 아예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늘 소망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진리에 대한 깨우침도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042항: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이란 거듭나는 영적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구름사이에 있는 활 또는 무지개가 태양 광선이 빗방울을 수식함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여기며 언약의 표시로 말씀에서 무지개를 취하고 있음을 의아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름사이의 활’이란 거듭남을 표현하고 거듭나는 영적인 사람의 상태도 의미함을 상응을 알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 영적 천사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듭난 이데인데, 이들이 저 세상 삶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들 머리 주위에는 무지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는 무지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일치하여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들의 속성이 천국과 영들의 세계에 알려진다. 무지개의 현상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것에 상응되는 자연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연적인 것 안에 주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빛이 수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영적 천사들이며, 천적인 천사들은 ‘불로’ 거듭난다고 말한다.

질문 정리

- 1) 지상의 첫 교회 사람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2)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3) 어떻게 악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 4) 선한 나머지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5) 홍수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는가?
- 6)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첫 행동은 무엇이었던가?
- 7)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8) 그 약속의 표시는 무엇이었던가?

- 9) 무지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10) 우리는 무지개를 언제 보게 되는가?
- 11) 물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2) 구름에 있는 물방울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13)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태고 교회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 14)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 15) 왜 무지개가 노아와 만든 새 언약의 표시가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에덴 2) 태고교회 3) 인간의 불순종 4) 홍수
- 5) 거의 일년(참조 창세기 7:11,8:13) 6) 체단을 쌓다 7) 더 이상 홍수는 없다
- 8) 무지개 9) 물방울에 태양광선이 비춰져서 10) 폭풍이 끝난 직후
- 11) 진리 12) 지성 안의 지식들 13) 지각 14) 양심
- 15) 새로운 상태를 그려주려고 - 빛이 기억 속에 든 진리를 비춘다

4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머리말

태고교회와 고대교회의 타락과 몰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선하여서 남겨진 노아와 아브람의 부르심을 재조명해본다. 그리고 본문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설명한다.

성서 본문: 창세기 16장

16장: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래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 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뜻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3.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십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5. 그러자 사래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업신여깁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7. 야훼의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 가에 있었다. 8. 그 천사가 “사래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하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자, 9.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10. 이렇게 일러 주는 것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11. 야훼의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어 주셨다. 12.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 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13.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뵈다니!”라고 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14. 그래서 그 샘터를 “라하이 로이”라고 불렀다. 그 샘터는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15.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은 아브람의 나이 팔십 육 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교리 요점

- *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
- * 우상의 기원
- * 겸손과 순종 - 영적 발전의 기초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아브람은 역사적인 인물로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아브람의 고향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이다. 그는 고대 교회가 몰락된 후 갈라진 자들 중 하나인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태어났다. 창세기 11장 1-9절에서는 고대 교회의 몰락이 바벨탑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기술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 까지 하느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인 아브람을 발견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를 불러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라고 하였고, 거기서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람은 이에 순종했고 주님께서서는 그를 크게 번성시켜 주셨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와 그의 아내 사래는 아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 이에 조바심이 난 사래는 자신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진정한 결혼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브람 역시 사래의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해 할 때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지해서 저지른 일은 경중에 관계없이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쁜 일인지 알면서 행한 것들로만 심판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래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옳은 것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하갈이 사래를 업신여겼을 때 아브람은 사래를 옹호했다. 하갈은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래의 여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했다. 하갈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를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셨다. 지금도 그분은 하갈을 대하시듯이 우리 모두를 대하고 계신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샘터”이고, 그분의 전달자 곧 천사들은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며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갈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는 아브람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할 사항은 본문의 이름 “아브람”과 “사래”는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 17장 1-5절과 15-16절을 보면 그들의 이름에 붙이게 된 “h”는 주님의 이름 “Jehovah”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과거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처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이름에 “h”를 첨가하신 것이다.

제 1반

성서의 글자적인 이야기를 머릿속에 정리해 두어야 하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기억되도록 하고, 노아의 후손 역시 아담과 이브처럼 자신들이 주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여 그분께 순종함을 멈추면서 악해졌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아브람의 부름과 그의 결과를 설명한다. 본 반을 통해 아브람-사래-하갈-이스마엘의 관계를 기억하도록 하자.

본문은 유대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이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다. 주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새교회를 이루셨다. 이후 사람들은 한동안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순종했으나 그리 길게 지속되지 못했다. 우리가 선택하고 모든 이들과 잘 지낸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임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대개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아서 나쁘게 되는 일이 흔하다. 우리는 조금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 뿐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누구나 저지르게 된다. 고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일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즉, 그들은 처음에는 선하고 지혜로웠으나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해서 결국 주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교회라는 존재는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고대 교회가 타락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무렵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우르라는 먼 동쪽 지역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순종하면 그의 후손들이 큰 국가를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람은 그러한 주님의 부름에 순종했고, 주님께서서는 가나안의 땅에서 그를 축복하셨다. 그 후 그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많았으나 그가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상속자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사래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잉태했다. 하지만 잉태함을 알게 된 하갈이 사래에게 거만하게 굴자 사래는 하갈을 구박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도망쳤다. 빈들의 샘터에서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 위로 해주면서 하갈의 아들 역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주님의 약속을 전한다. 그 후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닌 아브람과 사래라고 불리고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은 후에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 이름들이 익숙하다.

제 2반

고대교회가 몰락한 이유와 아브라함 이야기의 처음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피하려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언급한다.

노아의 시대 후에 사람들은 말씀을 가졌고 그로부터 진리를 배웠다. 스웨덴북은 이를 고대 말씀이라고 부르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책 중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도 언급되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수기 21장 14절과 여호수아 10장 13절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8절을 읽어 보자. 비록 우리는 고대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모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고대

말씀으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고대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약하게나마 알 수 있다. 고대 말씀은 모두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언어로 말하고 썼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상응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웠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현명함을 자랑하게 되어 불행이 시작되었다. 결국 스스로의 현명함을 믿고 의지하게 된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필요성 자체를 잊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시대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남아 있는 선한 사람을 모으셔서 또 다시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셔야만 했다. 이 새 교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전 이름은 아브람과 사래였다. 영문과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에 “h”가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h”는 주님의 이름인 여호와에서 온 것으로, h가 그들의 이름에 더해진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창세기 17:1-5, 15절 참조).

사래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대를 잇고자 했다. 그 이유는 당시 아브람과 사래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짐이 잘못된 줄 몰랐으며, 사래가 자신이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대를 이을 자식을 갖게 해서 남편을 행복하게 해 주고자 한 아브람에 대한 사랑을 사래에게서 보셨기 때문이다. 아브람의 자식을 잉태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은 거만해져서 사래를 우습게 여겼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예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를 놀리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이웃 사랑과 반대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쭐대며 남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타인을 돕기 위해서이지 타인을 해치거나 조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빚어지는 결과를 피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는 비겁한 행위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더욱 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없다. “천사”란 단어는 “전달자”란 뜻이다. 주님께서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어 진실을 말씀해주셨듯이 그분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진실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물론 우리에게 보내진 주님의 직접적인 전달자는 성경이며, 천사들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며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만큼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똑바로 처신할 것을 권고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속의 소리를 양심이라고 부른다. 이 소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들에 기초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준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 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 * 아브람은 왜 이집트로 내려갔었는가?
- * 그는 가나안으로 되돌아 왔을 때 어느 곳에 정착했는가?
- * 그가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 * 사래는 아브람에게 어떻게 아들을 갖게 해 주려고 했는가?
- * 사래의 여종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 여종은 어디 출신인가?
- * 하갈이 아이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사래를 어떻게 대했는가?
- * 아브람은 하갈과 사래 중 어느 편을 지지했는가?
- * 아브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 *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 * 주님의 천사는 하갈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 천사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천사는 그녀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가?
- * 하갈은 주님께 순종 했는가?
- *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천사는 그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말했는가?

제 3반

고대 교회가 몰락한 이유와 주님께서 새로운 처방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이집트 출신의 하녀 하갈의 상응적인 의미도 알아야 할 것이다.

고대 교회, 즉 노아라고 불리는 이 교회의 특성은 아담이라고 불리는 태고 교회의 특성과는 아주 달랐다. 태고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 또는 감정에 의해 움직였다. 반면에 고대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성에 의해 규율되었다. 따라서 고대 교회 절정기의 사람들은 아주 슬기로웠다. 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말씀의 내적 의미를 공부함을 사랑했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 보다 더 확연하고 깊이 있게 그들의 말씀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의 가진 지혜에는 큰 시험이 동반되었다. 그 시험이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시험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고대 교회 사람들의 “자기 총명을 자랑함”은 그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지상에 존재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유명무실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고대 교회의 말기는 성경에서 바벨탑의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다.

무지개의 표시로 언약한 주님은 그 언약대로 사람들을 꺾어내지 않으셨다. 대신 주님은 그들이 잘못 사용한 진리에 대한 이해성을 거두시고 “사람을 온 땅에 흠트셨다.”(창세기 11:8). 스웨덴북에 따르면 동양에 있는 종교의 일부가 이 고대교회로부터 전래된 진리에 기초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선한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 의해서 남겨진 선한 자들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이 훈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이끄셨다.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맹목성에 가까운 주님께 대한 그의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다. 그는 고대 교회의 최후시기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상에는 많은 거짓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해내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수 있었고, 그로부터 큰 국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는 아주 나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받은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상속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래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하녀인 이집트 출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도록 제의했고 아브람은 이를 수락했다. 우리는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갖는 것이 주님의 법이므로 아브람과 사래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고대 교회의 초기, 즉 교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로 존속했을 때에는 모두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브람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초기에 주어졌던 진리들이 거의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래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가 무지하여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으신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의 무지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배우기를 거절하여 무지해진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행동들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자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탓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것에는 언제나 인과에 따르는 나쁜 결과가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하갈의 아들은 아브람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

자식을 원함을 영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선하고 진정한 것을 원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선한 바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바램도 처음과는 다르게 점차 거저 사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쉽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하녀였다. 성서 지도에서는 가나안 땅과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라는 대표적인 세 지역들을 볼 수 있다. 말씀 가운데서 이 세 곳은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을 표현한다. 즉,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이다. 이에 대한 것은 공부해가면서 차차 상세히 알게 될 것이다. 앞서 우리는 1권과 2권을 통해 이집트가 “기억적인 지식”을 표현함을 배웠다. 아시리아는 생각과 추론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이집트) 생각하는(아시리아) 것을 종합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는 의지를 표현한다. 간단한 예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석해 보자. 우리는 처음에 성서를 읽고 그로부터 얻게 된 지식을 기억 속에 저장한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이다. 그 후 우리는 저장해 둔 지식을 꺼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는 소가 여물을 먹고 난 후 나중에 한가롭게 반추하는 작용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에서 꺼내어 곰곰이 생각한 결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아시리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성서에서 온 기억속의 지식들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는 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에 해당된다. 성경에 있는 여자들은 다양한 진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 여인 하갈은 기억속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애정)을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에 갖는 애정 중 하나로서 아이들의 탐구심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얻은 지식들이 진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되면, 기억속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유용한 애정이 된다. 이 진정한 목적은 본문에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이 지식을 자랑하려 하고, 심지어 자신이 진정으로 슬기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해 버리고 만다. 이것은 본문에서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래를 경멸하는

모습에 해당된다.

하갈은 질책을 받게 되자 광야로 도망쳤다. 광야란 안전함에 정반대되는 곳을 뜻한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럴 때의 광야는 마음이 거절되는 상태 또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자신의 마음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방황함을 뜻한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타인을 경멸하는 이들이 흔히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에서 광야에 있는 이들이 본문의 하갈과 같이 주님께 의해 샘터로 인도되어짐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필요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 주시기 위해 언제나 나타나심을 의미한다.

주님의 천사는 광야의 샘터 근처에서 하갈을 발견했다. 천사란 전달자로서 말씀이 뜻하는 것을 말한다. 천사가 하갈에게 전한 첫 번째는 주인에게 되돌아가서 올바르게 처신하라는 것이었다. 이 후 천사는 하갈이 낳은 아들에 관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약속을 전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당황하며 불행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천사, 즉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감수할 때 그로 인해 아주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다.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름에 대한 의미는 차차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천사가 이스마엘에 대해 한 예언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기본 상용 공부

가나안 땅 =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을 가진 상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평면

아시리아 = 생각하고 추론하는 평면

이집트 = 삶의 가장 바깥 평면, 기억적인 지식

광야 = 혼돈되고 정착되지 않은 심정상태

제 4반

아브람은 교회의 역사로 보면 세 번째이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회로 보면 첫

번째에 해당된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성경은 많은 비유들을 내포하나 대부분이 실제 역사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11장까지는 선사시대, 즉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브의 창조 직전까지에 있는 에덴의 동산으로 묘사된 태고교회의 최고 수준이 바벨탑의 이야기로 묘사된 고대교회의 최저 수준에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창조 이후 사람들이 영적 사람이 되어 가는 대신 더욱 더 외적이며 세상적인 상태로 되어 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의 교회는 천적인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영적 교회였다. 반면 에벨(창세기 11:14)로 묘사된 세 번째 교회는 자연적인 교회였다. 이후 공부에서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있는 이 교회도 점차 내면의 모든 이해성을 상실하여 교회 안에서 그 이해성이 완전히 상실됨에 따라 결국 그들 속에 영적 생명이 없게 되어 표징뿐인 교회 즉 교회의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고대 교회가 기울고 몰락된 것은 그들의 “자기 총명을 자랑함”이 극에 달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위대한 지혜를 가졌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가진 지혜가 주님에게서 온 선물임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고대 교회 사람들은 자연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에 사용했는데, 그들은 상응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들의 후손들은 자연물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잊고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기원이며 이렇게 고대 교회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고대 종교들에 있었던 우상 숭배는 상응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고대 교회의 예배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스스로에 의존하기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려는 간절한 바람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다. 아브람 또한 그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하셨다. 아브람이 선택된 이유는 그의 맹목성에 가까운 순종심 때문이었는데,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했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태고교회나 고대 교회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우리의 유전적인 배경을 상징하고 아브람은 주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상징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아이로 머무르는 인간은 없다. 즉, 우리 모두는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간다. 이것이 태초의 인류가 자신의 삶을 원했듯이 아브람도 자신의 아들을 원했음으로 표현된다. 자녀란 언제나 새로운 발달을 의미한다. 아들은 진리적인 측면에서, 딸은 선 또는 애정(무언가를 사랑하려는 마음)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발달은 변화를 의미한다.

아브람의 첫아들은 상속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아브람의 진정한 아내 사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야기대로라면 아브람과 사래에게 잘못이 있을 뿐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는 잘못이 없다. 스웨덴본에 따르면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 초기의 사람들은 일부일처가 주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담의 시대 이후 이 진리는 많은 거짓들과 뒤섞이면서 퇴색되어 버렸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래의 시대에는 일부일처가 옳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을 행했으나 그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주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무라시지 않으셨다. 그렇다하더라도 잘못된 행위에 따르는 악한 결과가 없을 수는 없었다. 이 법칙은 주님의 영구불변하는 법칙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몰라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분의 자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행위가 가져오는 인과만큼은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은 삶의 여러 평면을 상징한다. 그 중에서 이집트는 자연적인 지식 또는 외부의 지식 곧 기억속의 지식을 상징한다. 그리고 여인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애정)을 그리는데, 이집트 출신인 하녀 하갈은 자연적인 지식 또는 기억적인 지식에 대한 애정을 상징한다. 주님 없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결과로 인한 우리의 첫 수고는 자연적인 애정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한 수고로서 만들어지는 사상은 결코 영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사는 자”가 되었고, “들나귀 같은 자”가 되었다. 어렸을 때 우리의 애정들은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에 쉽게 기울고 그러한 만족으로부터 추론하기를 즐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우기며 부모나 선생님들의 말을 비웃기도 하는데, 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들을 경멸하고 냉소하는 것(창세기 21:10)과 같다. 하갈은 우리 안에 있는 애정이 지극히 외적이고 세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한 우리의 추론을 표현한다. 하갈의 자만심(자랑)은 그녀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것은 자만심에 찬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마치 광야와 같아서 정상적인 길이나 고정된 안식처가 없고, 곡식을 생산할 잘 가꾸진 논이나 밭도 없는 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물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진리를 주심을 뜻한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 즉 진리의 전달자가 되는 그분의 말씀은 빈들을 벗어나 주인 곁으로 되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보다 더 슬기로운 이들에게 겸손하고 귀를 기울이면 만사가 모두와 더불어 잘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이스마엘로 상징되는 우리의 첫 번째 추론력의 큰 결점은 자긍심이 지나쳐 오만해 지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스스로가 영리한 듯 여겨지더라도 스스로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광야 속에서 헤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시험이나 곤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우리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할 진리를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고대로부터 유대 교회까지의 변천을 살펴본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의미도 알아본다.

노아는 홍수 이후 지상에 건설된 고대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게 된 두 번째 교회이며, 유대 교회는 세 번째 교회에 해당된다. 스웨덴본은 노아의 세 아들이 고대교회의 각기 다른 예배와 교리의 근원들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셈은 진정한 내적 예배를, 함은 부패된 내적 예배를 그리고 야벳은 내적인 것과 상응되는 외적인 예배를 상징한다(「천국의 신비」 1146). 그리고 창세기 제 10장에 있는 계보의 내적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형태의 예배들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떻게 고대교회의 진정한 모형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게 파생되었는가를 설명한다. 제 10장을 통해 셈의 후손이 주님과 인류를 연결하는 중심부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보에서 두 번째 고대 교회가 발달되었고, 이를 성서에서는 에벨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천국의 신비」 1343항에서는 이 교회에 관하여 “ 에벨이 하나의 국가 곧 에벨을 조상으로 하는 히브리 국가로 불렸다는 것과 그로 인해 넓은 측면에서 두 번째 고대 교회의 예배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그들 역사가 말하는 것들로 명확해진다.”라고 설명한다. 이 국가로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예배를 가진 자들은 모두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그들의 예배는 한참 후에 있게 되는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졌다.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 회복된 예배의 주된 특성은 자신들의 하느님을 유일신 ‘여호와’라고 부르며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태고교회는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며 여호와라고 불렀음을 창세기 첫 혹은 그 밖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수 후의 교회인 고대 교회 역시 주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그들 중에서도 특히 내적인 예배를 가졌던 자들이 10장 21절에서 ‘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외적인 예배 속에 있던 다른 이들 역시 처음에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적인 예배가 점차 외적인 예배로 되어가고 외향적으로 더욱 치닫게 되면서 외적인 예배는 차차 우상숭배가 되어갔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그들 나름의 하느님을 숭배했는데, 히브리 국가만이 여호와란 이름을 보유해 왔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히브리 국가를 구별되게 해 주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 역시 외적인 예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정착해 버린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느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까지 잊어버렸고 모세 역시 그러했다. 이리하여 이 자손들에 대한 주님의 최우선적인 훈육은 여호와가 히브리인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이심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천국의 신비」 제 1360항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가 되어 버린 세 번째 고대 교회였고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은 이상화된 예배가 끝나고 (AC1375) 아브람을 통한 표징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전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1403항에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시점(12장 1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에벨이 언급되는 부분까지의 역사는 사실이 아닌 신화적인 것으로서, 이것들은 내적인 의미에서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실재를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천적인 교회인 태고교회는 모든 지상적이고 세상적인 것, 인간의 신체에 속한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상응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즉,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 것들과 상응하는 주님의 왕국에 대한 어떤 것들 곧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적인 지각으로 그것들을 보거나 납득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물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상응하는 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보되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단지 내적인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도구로서만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된 것들이 구전으로 전해져서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수집한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홍수 후의 고대 교회에 있게 되는 고대 말씀이다.

고대 교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언어로 쓰인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고대 교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 내적인 의미를 배웠고, 그것들로부터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상응의 지식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의미들을 알지 못하게 되자 지상의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거룩한 듯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적인 의미를 상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들을 의미도 모른 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대

교회 다음에 오는 유대 교회에서는 그 내적인 의미를 배제한 상징적인 표현들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스웨덴북은 이것을 표징적인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는 아브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뒤에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스웨덴북은 아브람부터 있게 되는 성경의 인물들을 표징들 또는 표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내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징적인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상징의 의미가 중요할 뿐이다. 예를 들어, 유다나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과 성향에 상관없이 왕이라는 직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주님의 왕권적인 기능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사제들은 그분의 사제적인 기능을 표현한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라는 열조들의 이야기는 열조들의 역사성 안에 담긴 속뜻으로 보면 표징적인 교회의 발달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속뜻은 우리 각자의 영적 발달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유아시기부터 아동기 초기까지의 영적 발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순진하고 신뢰함으로 가득차서 순종적이던 시기로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 보려고 시도하는 때로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스웨덴북은 본문의 속뜻을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외부에 속하는 기억적인 지식에 대한 애정 안으로 내적 인간이 유입되어 잉태되는 것, 즉 첫 합리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내적인 인간이 아브람으로, 이집트 출신의 하녀 하갈은 외부에 해당되는 기억적 지식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이 둘에서 파생되는 합리성이 바로 이스마엘이다.”라고 요약한다. 하갈이란 이름의 뜻은 “낮선 자” 또는 “채류자”인데, 하갈의 이름이 가진 뜻만 보아도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는 초기의 사고들로부터 오는 결론들이 임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초기의 사고들은 전적으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지식에만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설익은 이성에서 보이는 것만을 토대로 추론한다. 따라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연장자들의 충고와 그에 대해서 분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 슬기로운 자들이 갖는 사고(思考)의 토대는 아주 깊은 진리들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 시절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은 하갈이 자신의 안주인을 업신여기고 사래가 하갈을 박대하여 하갈이 주인 곁을 피해 도망가는 이야기에 담겨 있다.

하갈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천사를 만났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지식을 사랑하는데 있으면 주님의 섭리 하에 말씀에 관한 외부적인 지식이 언제나 공급되어진다는 것이다. 말씀속의

외부적인 지식은 좋은 면에서 우리를 견책하고 충고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된다. 그래서 하갈은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안주인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비록 하갈의 아들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되지 못했다. 우리의 첫 자연적인 추론역시 우리에게 필수적인 항목이어서 우리 삶의 어느 부분 특별히 세상적인 업무를 지휘 통제하는 측면을 많이 담당하여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자연적인 추론이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는 적합한 추론이 되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봄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1949항」: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합리적인 진리를 의미함은 ‘들나귀’가 합리적인 진리를 상징함으로부터 명확해진다. 말씀 속에는 말, 승마자, 노새 그리고 나귀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적인 것과 추론에 관한 것 그리고 기억적인 지식을 의미함을 아는 자는 여태껏 아무도 없었다. 이런 동물들과 승마자들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짐은 주님의 신성한 자비로 인해 각자에게 적절한 부분에서 더 많은 확증을 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분류 속에 ‘들나귀’가 있는데, 이는 들나귀가 광야의 노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나귀는 인간의 합리성을 의미하지만,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합리성이 아닌 합리적인 진리를 겉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합리성일 뿐이다. 진정한 합리성은 선과 진리로 이뤄진다. 다시 말해서, 이타애에 속하는 것과 믿음에 속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들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의 합리적인 진리에 해당된다. 이 진리가 이스마엘에 의해 표현되어 위의 구절로 기술되는 것이다. 즉, 선에서 분리된 합리적인 진리가 이스마엘이라는 특성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인 진리를 말하거나 합리성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스마엘로 특징되는 합리성을 가진 사람은 설사 그가 믿음의 진리에 있다하더라도 진리 안에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타애의 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은 늘 침울하며 결실을 맺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어서 모든 이들을 거짓 속에 있는 자들로 간주한다. 또한 그는 항상 남을 비판하는 것에 빠르며 남을 응징하고 처벌하려고 한다. 게다가 그의 마음은 동정심 또는 타인과 보조를 맞추려하거나 적응해 보려는 것이 없고, 단지 상대방의 마음을 구부러트리기 위한 것만 알고 할 뿐이다. 그 이유는 그가 진리에서 근원된 모든 것은 열심히 찾으려하나 선에서 근원된 것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는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며느릿감을 이집트에서 골라 맞아들였다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창세기 21:9-21). 이 모든 것은 이와 같은 합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질문 정리

- 1) 세 번째 교회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가나안 땅의 어느 곳에서 정착했는가?
- 3)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아브람이 원하는 것 중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5) 사래는 남편의 부족함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했는가?
- 6) 하갈은 어느 나라 출신인가?
- 7) 그 여자는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
- 8) 왜 하갈은 안주인을 피해 도망갔는가?
- 9) 그녀는 어디로 갔으며, 주님의 천사는 어디서 그녀를 발견했는가?
- 10) 천사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렀는가?
- 11) 천사는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2)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남쪽 3) 사래 4) 아들
- 5)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 6) 이집트 7) 안주인을 업신여겼다
- 8) 박대 받았기 때문 9) 광야, 샘터 10) 되돌아가 순종하라
- 11)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12) 이스마엘

5

이삭과 리브가

머리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아둔다. 그리고 이스마엘 대신 이사악이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도 알아야 할 것이다.

성서 본문: 창세기 24장

24장: 1.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2.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심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3. 하늘을 내신 하느님,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4.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사악의 신부감을 골라 오겠다고 하여라.” 5. 종이 물었다. “신부 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 가도 됩니까?” 6.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 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7.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 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8. 신부감이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가지만은 말라.” 9.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10.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열 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 갔다. 11.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무렵이었다. 12.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심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13.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14.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심복 이사악의 아내감으로 정해 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15.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16.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 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17.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 가서 그를 받으며 항아리의 물을 줌 마시게 해 달라고 청했다.

18.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19.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 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다. 20. 그리고 병에 남은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는 물을 길으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21.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22.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 세겔 나가는 금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 주고 다시 십 세겔 가는 금팔찌 두 개를 팔목에 끼워 주고는, 23.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누 님 따님이시요?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 갈 만한 방이 없겠소?” 24. 리브가는, “저는 브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하고 대답하고 나서 25. 이렇게 말하였다. “저의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 가실만한 방도 있습니다.” 26.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27. “내 주인의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고나” 하며 찬양하였다. 28. 아가씨는 뛰어 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29.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우물로 뛰어 나왔다. 30. 라반은 코고리와 누이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 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31.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 복 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 놓았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32.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 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 왔다. 33.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34.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35.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36. 안주인 사라는 늘그막에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37.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38.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를 찾아 가서 며느리감을 골라 오너라.’

39.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이 저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여쭙었더니

40.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섬겨 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따라 보내시어 내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가문,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 올 수 있을 것이다. 41.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한테로 가기만 하면 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42.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42.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43.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혼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 달라고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44.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나서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45.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길으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46.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47. 저는 리브가에게 뉘 덤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고리를 걸어 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 주고 나서

48.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딸을 주인덤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 내게 하셨습니다. 49.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길을 찾겠습니다.”

50. 그러자 라반과 브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51.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53.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54. 그와 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55.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 가십시오.”

56.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 온 목적은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 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하고 듣지 않았다. 58.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 봅시다.” 58.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하겠습니다.” 59. 그러자 그들은 누이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역조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네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61.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62. 그 때 이사악은 라하이 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 곳은 네겟땅이었다. 63. 저녁때가 되어 이사악은 들에 바람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 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64.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사악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66.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사악에게 보고 하였다. 67. 이사악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 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사악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교리 요점

- * 보다 높은 합리적인 능력과 보다 낮은 합리적인 능력
- * 결혼에 관한 교리
- * 생명이 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함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위해 기적을 수행하셨다. 그 이유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넘었기 때문이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21장에서 사라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어머니는 광야에 나가 살도록 쫓겨났다. 그곳에서 이스마엘은 또 다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성경에서도 이스마엘족이라는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이는 사라가 127세까지 살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 형제인 나홀에게 그의 종을 보내서 나홀의 후손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했다. 샘터에서의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인에게 아주 친숙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내를 선택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걸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내적 의미로 담겨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을 신뢰함이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는 주님의 분부를 지켰고, 아브라함의 종은 주님의 인도로 적합한 조건의 처녀를 발견했다. 리브가의 가족과 리브가 역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삭은 그런 과정으로 선택된 아내를 의심 없이 맞이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거룩한 것으로서 결혼이 준비되어야 하고 배우자를 찾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바램과 의도를 충분히 교육시키며 그들의 삶으로서 보여준다면 깨어지는 가정이 줄게 될 것이다.

제 1반

본문의 내용이 다른 장에 비해 다소 길기는 하나 어느 한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했으나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진정한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4세가 될 무렵 사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며,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이다.

이삭의 어머니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하란으로 보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정착했던 곳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연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그곳으로 종을 보낸 것이다. 그 종은 낙타 열 마리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의 성 근처 어디서 멈췄는가?
- * 그는 주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 * 주님은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어느 처녀를 종에게 보여 주셨는가?
- * 리브가는 누구였는가?
- *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인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환영했다.
- * 그들은 주님께서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선택하셨다고 느껴서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했다. 리브가 역시 이를 기꺼이 승낙했다.
- *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는가?

제 2반

나홀성 또는 하란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보고 그 위치를 기억한다. 또한 아브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여행한 길인 우르-하란-세젠-베델도 지도에서 찾아보고,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과 그가 처음 정착한 곳도 알아본다.

주님께서서는 사라는 위해 기적을 베푸셨다. 즉, 사라가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얻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며, 그 의미는 “웃음”이다.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에게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의 21장 6절을 읽어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녀의 안장을 위해

막벨라 동굴을 샀는데, 그 후 그곳은 아브라함 일족의 가족 매장지로 쓰였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수차례 등장한다.

때가 되자 이삭은 아내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족이었고, 그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우상 숭배자를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주님을 포기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아내를 맞길 원했다. 이리하여 그는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로 그의 종을 보내 이삭의 신붓감을 고르도록 했던 것이다.

“나홀성”이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이름을 따라 부른 것으로 하란에 있는 마을이다 (창세기 11장 27-32).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향할 때 아버지 데라, 형제 나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과 더불어 출발했는데, 나홀은 중도에서 멈춰 하란 지역에서 정착했다.

당시 사람들은 집에 우물이 없었고 물이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전 마을을 위해 샘을 하나밖에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모든 사람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샘터에 보내야 했고, 퍼 올린 물을 집으로 가져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물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 가축들을 샘터로 몰고 와 물통에 물을 퍼 담아 주어야 할 때도 있었다(창세기 29장 2-3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이름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 이유는 그가 야곱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가족들 역시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랐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믿었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창세기 16장 13-14절을 읽어 보면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beer」란 샘에 대한 히브리어이다. 이 네 글자로 시작되는 성경상의 다른 이름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샘을 의미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다음 질문을 통해서 본 반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 그는 어디로 갔는가?
- * 나홀이란 누구인가?
- *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 근처에 왔을 때 어디서 멈췄는가?

- * 그는 이삭에게 적합한 신붓감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 * 주님은 어떻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 * 누가 물을 길으러 왔는가?
- * 리브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이삭의 신붓감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 리브가의 할아버지와 그녀의 오빠는 누구인가?
- *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친척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 * 왜 리브가의 친척들은 그녀가 이삭에게 시집가는 것을 기뻐했는가?
- * 그 종은 리브가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 * 리브가는 그 종과 함께 기꺼이 떠나고자 했는가?
- * 누가 리브가와 더불어 고향을 떠났는가?
- * 이삭과 리브가는 어디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정했는가?

제 3반

본장의 공부는 깊이 있게 다루면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진정한 결혼과 살아있는 어떤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선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할 필요성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아들은 진리를 그리고 딸은 애정을 표현한다. 결혼한 상태인 남편은 어떤 특정한 선을 표현하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표현하는 선에 일치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예로 이해해 보자.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그러한 결심을 함과 동시에 '선한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는 진리를 배워서 참된 선을 알기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선행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몰두한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선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려 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우리의 선행은 단지 자연적이고 외적인 선행일 뿐이다. 즉, 영적인 선행 곧 참된 선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주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사라는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이집트 출신의 하갈은 세상적인 자연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애정)을 상징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같이 상징하는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칭찬 받기는 좋아하나 벌 또는 책임은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시키게 되는 첫 번째 추론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에 기초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영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수준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즉,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며 그가 사라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했던 이유이다.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었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고향, 그가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유, 그와 함께 고향을 떠났던 이들, 그들이 멈췄던 곳 그리고 누가 그 중간 지점에 정착했는가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보자. 본문에서 우리는 하란, 즉 나홀성에 대해서 읽게 된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족 여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이유는 가나안족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시는 하느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자를 머느릿감으로 맞아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형제인 나홀의 가족 중에서 이삭을 위한 좋은 아내를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정황은 이삭으로 표현되는 영적 추론에 속하는 새로운 종류의 애정도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으로부터 발생되어야 함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으로 종을 보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하인이나 노예보다 집사나 간사 또는 청지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다른 기록들에서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음은 그의 종이 열 마리의 낙타에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여행했으므로 짐작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외적인 능력이나 지식들이 우리의 영적 발달을 위해 올바르게 쓰인다면, 그것들은 아주 유익한 것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선용을 수행하는 외적인 것에 대한 일련의 이해성을 표현하고 있다. 낙타란 외부의 지식들을 말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외칠 때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란 지역 샘터에 멈췄을 때 주님께 징조를 간구했다. 리브가는 이 징조의 성취를 위한 것처럼 때맞춰 샘터로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였고 그녀의 오빠는 라반이었다. 라반이라는 인물은 후에 야곱의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주님에 대한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선택한 것이 곧 주님이심을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리브가도 기꺼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본문의 줄거리는 젊은이들의 결혼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들의 여생을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서로가 잘 어울려야 함은 두말할 여지없이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정과 지성에 속한 것까지도 서로 잘 어울려야 함을 말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결국 행복이 없게 되어 올바른 가정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 있는 결혼에 대해서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이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가치관과 같은 신앙을 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이란 진리에 상응됨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 올리는 샘이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을 위해 샘에서 기꺼이 물을 길어 올린 리브가의 자발성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과 일상의 행동들까지 더불어 포함된 모든 것을 인도할 진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려는 우리의 자발성을 상징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님을 신뢰하여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으로 종을 보냈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 역시 그분을 신뢰하여 그녀가 가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게다가 리브가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지역과 보지도 않았던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서 기꺼이 고향을 나섰던 것이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어린 시절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억을 터전으로 하여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다.

기본 상응 공부

아들 = 진리들

딸들 = 선들

남편 = 선

아내 = 진리에 대한 애정

하인 = 외적인 일에 대한 유용한 이해성
낙타 = 넓은 의미에서의 외적 지식들
샘 = 말씀의 글자

제 4반

우리는 성장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고, 각 변화를 이끌어 갈 진리를 주님께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한 진리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될 수 없다.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주님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의 표현인 결혼의 본성을 언급한다.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결혼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려는 자세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함을 언급한다.

이삭은 사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 가장이 되었다. 이삭은 ‘진정한 것은 무엇인가?’하는 판단의 기초를 세상적인 사상에 두는 대신 주님께서 말씀에서 밝혀주신 진리의 믿음에 두는 추론력을 표현한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매우 늙어 있었는데, 이는 우리의 어린 시절 상태인 단순한 신뢰와 순종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합리성”이 발달되는 때를 그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결혼이 사라가 죽은 뒤 진행되었음 역시 의미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부름 받았을 때 홀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라를 포함해서 형제인 나홀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났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까지 갔다. 반면에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중도에 정착했는데, 그곳은 메소포타미아로 “강들 사이”(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란 뜻이다. 나홀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한 지역의 이름은 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은 성경에서 “나홀성”이라고도 부르며,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인 나홀의 가족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로 결정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하란이라는 먼 곳까지 여행 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거룩한 땅의 남쪽 지역인 헤브론이었다. 그가 먼 곳에 있는 친척에게서 며느리를 구한 이유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거주한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님의 명령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므로 허술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결혼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한다. 결혼 전의 남자는 이해성을 그리고 여자는

애정을 표현한다. 선한 이해성이 악한 바램(애정)과 결합하면 아주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어떤 나쁜 일의 “주모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악한 바램과 상통한다. 즉, 주모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악한 바램이 우리의 마음에 없을 때 우리는 보다 자유롭게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영적 합리성인 이삭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함을 사랑하는 마음(애정)과 결합되어야만 했다. 즉, 세상적인 포부나 바램과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합리적이려면 바른 생각과 선한 바램을 모두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나홀의 가족은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단순히 선한 상태를 표현한다.

이삭의 이야기에서 샘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샘이란 진리를 표현한다. 진리를 길어 올리는 샘이란 말씀의 글자이다. 이와 더불어 기억되는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수일 것이다. 본문 18절에서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세요.”라고 말하며 기쁘게 물을 길어 올리는 리브가의 모습은 진정한 영적 애정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까지도 말씀이 인도해 주기를 바램을 그린다. 낙타란 자연계에 관하여 알고 즐거워함을 표현한다.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심복,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 모두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로 그들의 삶을 규율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본문은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안내를 구한 후 그분의 안내를 따라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은 종교적 바탕을 가진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 이유는 믿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며 그들 삶의 가장 깊은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두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래야 한다. 이리하면 그들이 갖는 목적 측면에서 일치되어 그들이 가질 자녀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일치되고, 그들의 가정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위에 기초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진리에 대한 다양한 애정을 살펴본 후 삶 속에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애정도 살펴본다. 그리고 “진리의

탐구"가 선이 아님을 강조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에 관한 영적인 사상을 심어주며 양육해야 하는 중요성도 강조한다.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속에서 보다 높은 합리적인 능력의 발달이 시작됨을 표현한다. 이 능력이란 진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관에 기초하기보다는 보다 깊은 데 곧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에 두고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사라의 구십 세였으며 이스마엘은 열네 살이었다. 이스마엘은 아기인 이삭을 조롱한 이유로 어머니 하갈과 더불어 광야로 쫓겨났고, 거기서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른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알려주신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성경을 읽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에 적힌 글자대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한 것이 맞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신 주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을 하시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겉으로 들어나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려는 쪽으로 향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제 23장에서는 사라가 백이십칠 세에 죽는 것과 그녀의 매장을 위해 아브라함이 헷 사람인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동굴을 사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역시 깊은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막벨라 동굴이 성경에서 수차례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 사건이 이삭의 결혼 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삭의 결혼 전에 사라의 죽음과 매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 곧 유아기 시절은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천적 평면과 연결되어 있는 때이다. 다시 말해서, 천적인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영향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때이다. 이러한 단계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단계는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단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단계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과 두뇌가 지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합리적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으로 표현되는 단계이다. 이삭의 단계는 아브라함의 단계와는 다른 새로운 흥미와 애정들을 가진 새로운 상태에서

한번 발달된 뒤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 같은 애정이나 생각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이것은 유아는 사랑만으로도 인도될 수 있으나 그 보다 큰 아이들은 논리성이 있어야 인도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6세 이상의 아이들을 교육 시킬 때 “왜”라는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나이에 따라 각자 그들의 상태에 맞는 진리를 사랑하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삭이 어른이 되자 오래된 애정을 상징하는 어머니인 사라는 죽고 새로운 애정을 상징하는 아내로 하여금 그의 어머니가 삶 속에 차지했던 자리를 채우게 된다. 본문에서 이삭이 아내를 찾아 나서서 발견하는 모든 방법을 상응으로 읽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인도 하에 있어질 우리 삶 속의 진정한 합리성이 건설되는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속의 아브라함은 우리의 심정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상징하고, 그의 모든 집안일을 돌보던 늙은 심복은 자연적인 마음을 상징한다. 만약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이 충성스런 하인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분의 뜻에 맞게 규율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섰다고 말해진다. 하지만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가나안의 타락한 원주민들 사이에서 찾지 말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다. 창세기 6장 첫 절에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인해 거인족이 등장했고, 결국은 모두를 파괴해 버리는 종말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 구절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이기적이고 자연적인 애정과 하나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지지하거나 변명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결국 멸망 곧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은 이와 비슷한 악에 빠지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즉, 우리의 새로운 합리적인 마음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구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자질이 이기적인 삶과 생각 속에 남아 있으려는 우리의 이기심을 지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기 혈연 곧 주님께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아내를 구해야 하는 바, 그 아내란 주님에 관하여 배우려는 애정과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애정)을 상징한다.

이에 대한 실례로 성경을 공부하는 옳은 방법과 그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들만을 찾으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되 단지 자신이 선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려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행하던지 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느끼거나 자신 속의 악을 지적해 주는 명령이나 계명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말씀에 대한 우리속의 합리적인 이해성이 “가나안족의 딸”들인 이기적인 애정과 “결혼”하는 것이 되고 만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읽되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내속의 어떤 것 곧 결점을 발견하기 위해서와 발견된 결점을 고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연 중에서 이사악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추구하는 우리속의 마음은 자연적인 마음이다. 그 마음은 일상 업무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는 부분으로 수집된 지식을 질서 있게 간직하는 바, 그것이 진정한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된다. 또한 그 마음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워 둔 주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모든 것 -본문에서의 열 마리의 낙타들-을 쓸모 있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란으로 표현된 교리에 관한 첫 이해성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준다. 거기서 이 하인은 샘터에 있는 리브가를 발견하고 그녀를 이삭의 신붓감으로 즉시 인식한다. 이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낙타들을 위해서도 가까이 물을 길어 주었기 때문이다. 샘은 말씀의 글자를 그리고 샘물은 말씀속의 진리를 뜻한다. 신성한 진리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애정)만이 말씀 안에 쌓여 있는 주님에 관한 지식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길어 올릴 수 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이기적인 애정)은 주님에 관한 지식이 죽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한 가지 교훈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즉, 리브가가 머느리 감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녀가 이삭에게 데려와져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삭이 하란으로 장가들어 갔다는 구절은 성경의 어디에도 없다. 하란은 거룩한 땅에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곳은 단지 거룩한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한 지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란 지역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보려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능력이 발달된 뒤에 주님을 희미하게 생각하는 상태로 되돌아감을 원치 않으신다.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상태 곧 맹목적인 믿음(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을 뜻하므로 믿음 속의 진리를 이해하려는 기대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따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과연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분은 모든 것에 우리의 두뇌를 사용하되, 종교에 관한 문제에 가장 먼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좋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해하여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다. 우리가 보유하기 위해서 혹은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의 무지한 상태 곧 무지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속성인 겸손과 온유 그리고 신뢰로서 주님 앞에 “순진”이라는 속성을 다시 가져야 한다. 스웨덴봄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의 순진” 대신 “지혜의 순진”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데려와져야 했던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리브가)이 우리 삶의 합리적인 평면(이삭)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 둘이 하나 됨이 주님의 질서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랠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벗어나 성장했을 때 때로 방향하거나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부여되어 왔던 것들을 더 이상 그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독자적인 자신의 추론력으로도 성서 속의 진리들을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서속의 참 진리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는 듯 여겨져 우울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성서에 대한 합리적인 기초를 알게 됨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론력이 발달되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가졌던 믿음을 잃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합리적인 능력에 맞는 성경이나 주님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교회인들은 이러한 성경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새교회만이 가능한 일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과거 어린 시절의 상태에 간직했던 믿음과 신뢰 그리고 결코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의 분향을 그리워함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 상태를 찾기 위해 여러 교회에 참석하며 그들의 합리성이 용납할 수 있는 교리를 찾아 헤매게 된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새교회인들에게 주님이 내리시는 도전장인바,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외치며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봄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212항: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랠다가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는 것은 ‘위로를 받음’이라는 의미가 새로운 상태로서 명백해진다. 위로를 받는 상태란 새로운 것이고, 이 상태는 지나온 상태에 이어 계속되어 ‘어머니를 잃은’ 상태로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은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다시 태어난다’ 혹은 ‘새로이 창조되었다’라고 한다. 따라서 그가 거듭날 때 그의 마음은 천국을 향하여 열려져 천국에 있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천국을 향해 열려있고 주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근거한 믿음 안에 거하는 마음이 바로 새사람이다. 이러한 심정 상태의 변화는 인간의 육체로는 지각될 수 없고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육체가 영을 싸고 있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거듭났다면 육체를 벗고 영만이 나타날 때 이는 전체적으로 또 다른 형체이다. 그 이유는 그 형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이타애의 형체를 지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디 출신인가?
- 3) 왜 그는 거룩한 땅에 가게 되었는가?
- 4) 그는 어디서 정착했는가?
- 5)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인가?
- 6) 하갈은 누구인가?
- 7) 아브라함의 첫아들은 누구인가?
- 8) 이사악은 누구의 아들인가?
- 9)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는가?
- 10) 왜 아브라함은 이사악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가?
- 11) 아브라함은 이사악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 12) 보낸 곳은 어디인가?
- 13) 누가 그곳에 정착했는가?
- 14) 아브라함의 심복은 어디서 멈췄는가?
- 15)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 어떤 징조를 구했는가?

- 16) 누가 그 징조를 성취해 주었는가?
- 17) 리브가는 누구의 손녀인가?
- 18) 왜 그녀의 부모는 아브라함의 심복과 떠나도록 했는가?
- 19) 이사악은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가?
- 20) 이사악은 그녀에게 만족했는가?
- 21) 이스마엘과 이사악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 22) 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아브라함 2) 우르 3) 하느님이 부르셔서 4) 헤브론 5) 사라 6) 사라의 하녀
- 7) 이스마엘 8) 사라와 아브라함 9) 이사악을 놀렸다 10) 우상 숭배자여서
- 11) 심복 12) 하란 13) 아브라함의 형제 14) 샘터에서 15) 물을 길어 올려주는 여인
- 16) 리브가 17) 나홀 18) 그녀를 보내는 것이 하느님이 뜻이라고 믿어서
- 19) 들에서 20) 만족했다 21) 첫 번째와 두 번째 합리성 22) 말씀

6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머리말

야곱의 어린 시절과 하란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야곱의 꿈을 간략히 살펴본다.

성서 본문: 창세기 29장, 35장 23-26절

29장: 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2.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이 세 무리로 엮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뚜껑이 덮여 있었다. 3. 그 돌뚜껑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러 냐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 자리에 덮어 두는 것이었다. 4.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5. 그가 물었다. “그러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말고요.” 6. 야곱은 그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잘들 지내십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7.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축을 모아들일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 가지고 가서 풀을 뜯기지 않습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양떼가 다 모여 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9. 야곱이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10.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뚜껑을 굴러 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11. 그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12.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카라고 말하자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13. 라반은 친누이의 몸에서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 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14.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골육임에 틀림없다”하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15.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네가 내 골육이라고 해서 내 일을 거저 해셔야 되겠느냐?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16.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17.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18.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칠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작은 딸인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19.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20.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칠 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21.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다 왔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22.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23.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와 한 자리에 들었다. 24. 이 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25.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 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였다. “삼촌이 저에게 이리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26.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네.”하며 부탁하였다. 27. “초례 기간 한 주일만 채워 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칠 년 동안 내 일을 해 주어야 하네.” 28.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주일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29.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빌하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30. 야곱은 라헬과도 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 칠 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다. 31. 야훼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32.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피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다. 33.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나에게 또 아기를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다. 34.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들을 셋이나 낳아 드렸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불렀다. 35.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제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 뒤 얼마 동안 레이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35장: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블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교리 요점

- * 삶의 세 평면으로는 의지와 사고 그리고 행동평면 혹은 천적과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평면이 있다.
- * 이러한 평면들은 자연적인 평면에서 천적인 평면으로 발달되어 간다.
- * 자연적인 평면은 겉과 속을 지니고 있다.
- * 행동속의 동기에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선할 수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열조들”이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들을 자신들의 선조들로 간주하고 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다.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는 창세기 32장 24-2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그가 도망친 이유는 쌍둥이 형인 에사오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형의 권리인 장자 상속권과 더불어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주님께서 야곱의 잘못을 그냥 눈감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야곱은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는 쌍둥이 가운데서도 집을 더 사랑했지만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했고,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형 에사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야곱이 귀향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수반되는 인과까지 없어지지 않는 삶을 가르친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 그가 그녀를 위해 종살이를 더 하는 것, 그에게 처음 주어진 아내는 레아였다는 것 그리고 열 두 아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비유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비유적인 이야기들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젊은이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나 그의 앞길에 예상치 못했던 역경들이 발생되어 곤란과 실망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한 인내로서 결국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부모가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동기로 해나간다면 그들은 일하는 가운데서 끝없는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아만을 위해 집착하는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나 영적 성장이 결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열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고 하란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들이 요셉이며 베냐민은 거룩한 땅에 되돌아 올 때까지 태어나지 않았음도 언급한다.

이사악과 리브가는 야곱과 에사오라는 두 아들을 가졌다. 그들은 쌍둥이였으나 서로 많이 달랐다. 둘은 성장하면서 함께 어울리지 않았고 한 때 에사오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녀의 친정인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켜야만 했다.

열 한명의 아들이 하란 땅에서 야곱으로부터 태어났고, 그가 거룩한 땅에 되돌아 온 후 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마지막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하란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들이고, 베냐민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 나셨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야곱이 길 가는 도중에 가졌던 꿈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 * 그가 하란에 왔을 때 처음 멈춘 곳은 어디였는가?
- * 누가 라반의 가축 떼를 몰 먹이기 위해서 나왔는가?
- *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맞아 들였는가?
- *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7년이 지난 후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 누구를 그에게 주었는가?
- *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 그 후 야곱은 6년 동안 더 봉사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 * 야곱이 총 몇 년동안 봉사했는가?
- *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은 몇 명인가?
- * 레아가 야곱에게 준 몸종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라헬의 몸종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 2반

야곱이 의미하는 것은 만사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려는 경향성과 그에 따라 길고 모질게 지속되는 결과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일이 언제나 주님과 이웃에 유용해지려는 바람으로부터 행해져야 함을 강조한다.

본 반에서는 다시 하란 지역을 살피게 된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에사오는 장자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 그 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고 에사오에게 갈 장자의 축복마저 훔쳤다. 그리하여 야곱은 에사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멀리 달아나야만 했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야곱의 꿈 이야기이다. 꿈을 꾸고 난 야곱은 주님께서 자신을 번영시키고 무사히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신다면 그분을 섬기겠노라는 약속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하란에 있는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우리 삶은 스스로가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야곱은 힘겨운 고생을 통해서 이를 배워야 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나씩 얻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야곱이 주님 그리고 라반과 흥정하는 속성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기대하면서 일해 나갈 때 결과에 실망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웃에게 유용한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야곱 역시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렸던 것이다. 그는 열 두 아들을 가졌는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Israel)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으로, Israel의 글자 중 끝의 「L」은 하느님에 대한 히브리 단어이다. 이스라엘이란 “하느님은 승리하신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경 이야기 중에서 때로 야곱은 때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린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차차 공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성경의 그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린다.

야곱의 열 두 아들 중에서 여섯은 레아가 낳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그리고 즈블론이 레아의 아들들이며 그녀에게는 다니아란 딸도 있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며,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가장 어린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며, 요셉은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 중 마지막 아들이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했고, 가축 떼를 다시 얻기 위해 6년을 더 봉사했다. 그 뒤 그는 거룩한 땅으로 귀환했다. 베냐민은 베들레헬에서 과히 멀지 않은 거룩한 땅 내에서 태어났다. 창세기 35장 16-20절에서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본문인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의 이름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구절들을 기억해 두면 성경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밧단 아람(창세기 35:26)은 하란이 위치한 평야의 이름이다. 이 지방의 일부는 후에 시리아가 되는데, 아람이란 시리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그곳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강들 사이에”란 뜻이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삼각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야곱은 라반과 더불어 20년을 함께 머물렀다. 하지만 그는 20년 만에 고향에 되돌아 올 때까지도 형 에사오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러한 야곱의 상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사오는 한때 잘못을 행한 야곱을 용서한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그의 귀환을 환영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보기 위해 우선 헤브론으로 갔다.

그때 이삭은 죽음에 임박해 있었다.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49장 28-33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모두가 과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당시 가족 매장지로 쓰기 위해 헷족으로부터 사들인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헬은 베냐민이 태어날 때 죽어서 베들레헴 근처에 안장되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멈춘 곳은 어디인가?
- * 그는 샘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목자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누가 라반의 가축 떼를 몰고 샘에 왔는가?
- *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맞았는가?
- * 라반의 딸은 누구인가?
- * 야곱은 라반의 딸 중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 *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반의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봉사해야 했는가?
- * 7년이 지나자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속였는가?
- * 라반은 야곱을 속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했는가?

제 3반

삶의 세 평면으로서 열조들의 일반적인 의미와 각 평면들이 순서대로 발달하는 것을 주로 설명한다. 또한 의지와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까지 성취되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행동적인 평면은 외적이나 내적인 것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연에 속한 외적인 것은 순수한 영적 애정이나 생각에 앞서 질서 안에 놓여야 함을 설명한다.

야곱은 “열조”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앞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이라는 삶의 세 평면을 배웠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평면을 함유하게 된다. 행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생각이 아닌 바램 혹은 동기이다. 그 후 우리는 그 바램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생각한 것을 실제의 행동으로 옮겨 놓는다. 행동은 가장 나중에 오는 것이나 행동이 없으면 우리의 바램이나 생각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이들 세 가지 평면을 상징하는 세 집단을 발견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발달 순서대로 있게 되는 각 평면을 표현한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바램에 의하여 규율되는 때인 유아기나 초기의 어린 시절을, 이삭은 지성이 발달되거나 훈련되는 때인 어린 시절 후기나 청소년 시기를 그리고 야곱은 세상에서 자신의 행동적인 의무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때인 청년 시기를 표현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 세 가지 평면을 표현하자면 천적과 영적 그리고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내적 의미의 대상인 선한 삶의 발달 면에서 이 세 가지 단계들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즉, 우리는 먼저 선하게 되기를 위한 후 선한 것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배운 올바른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선함에 대한 자연적인 평면 또는 가장 바깥쪽 평면의 발달에 관한 것이다.

야곱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그는 출발 초부터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이 가진 더 나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여겼다. 그는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결정하도록 만든 사다리에 관한 꿈을 보았을 때조차도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우선으로 여겼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시작과 더불어 이기적인 데로 기울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기심들을 질서적인 삶으로 끌어내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와 같은 교훈은 본문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야곱은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고,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발견한 성 밖 바로 그 샘터에서 멈췄다. 샘이란 말씀의 글자를 그린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 보려고 노력할 때 첫 번째 멈추어야 할 장소는 언제나 말씀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물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와 같이 당대의 모든 가축 떼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샘에 모여야만 했다. 양이란 순진하며 신뢰적인 애정을 표현한다.

성경에서 남편은 선을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의해 그려진 특수한 선에 속한 일련의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이삭은 하란에서 아내를 구해야 했지만,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이집트로부터 아내를 맞았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의 샘터에서 라헬을 만났고 한 눈에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 기꺼이 칠 년간 더 봉사한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성서에 기록될 정도로 야곱은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칠 년이

끝난 후 그에게 주어진 아내는 레아였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다시 칠 년간 봉사해야만 했다.

레아와 라헬 모두 진리에 대한 애정을 그리나 이들은 종류가 다르다. 언니인 레아는 “외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동생인 라헬은 “내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라헬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는 완벽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오랫동안 노력하여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를 정도로 행복해서 세월이 마치 쓴 살 같이 지나가는 듯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즉, 우리는 꿈처럼 아름다운 이상에서 미끄러져 뒤쳐지기 일쑤다. 우리는 완벽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연구하며 일하여 나날을 소비했다 라도 막상 미끄러진 후에는 차선책으로 자신이 처음 꿈 꿔던 이상에 다소 덜 미치더라도 당장 가능해 보이는 것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눈매(안력이 부족한)를 가진 레아가 상징하는 것이다. 라헬을 원했으나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야 했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 전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의가 인도해 주는 길을 명확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의를 행하는 습관을 형성해 놓아야 함을 뜻한다.

우리의 삶에 형성된 의를 행하는 습관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로 상징된다. 성경에서 자녀의 출생은 진리와 선의 생산을 상징한다. 야곱은 삶의 바깥 평면 또는 자연적인 평면에 있게 되는 순수한 선함을 표현하며, 그의 열 두 아들이란 선한 바깥 생활 곧 일상생활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선함이나 진리들을 표현한다. 먼저 레아에게서 네 아들이 태어난다. 레아의 네 아들들은 믿음, 사랑, 선한 행위들 그리고 외적인 마음에 있는 선한 의지를 상징한다. 다음으로 두 하녀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이는 보다 높은 것을 섬기려 하는 낮은 등급의 진리나 선함들을 상징한다. 야곱의 아들들 중 마지막 두 아들이 라헬에게서 태어난다. 이 두 아들은 진정한 내적 사랑과 이해성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 또는 거듭남의 수단이며, 세상적인 인간 대신 영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은 길고 멀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래에 제시되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족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억해두기 바란다. 그 이유는 이 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란 후에 야곱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다(창세기 32:24-28).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상응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21장 12절에 그들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있는데, 새에루살렘의 성문에 그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세세히 언급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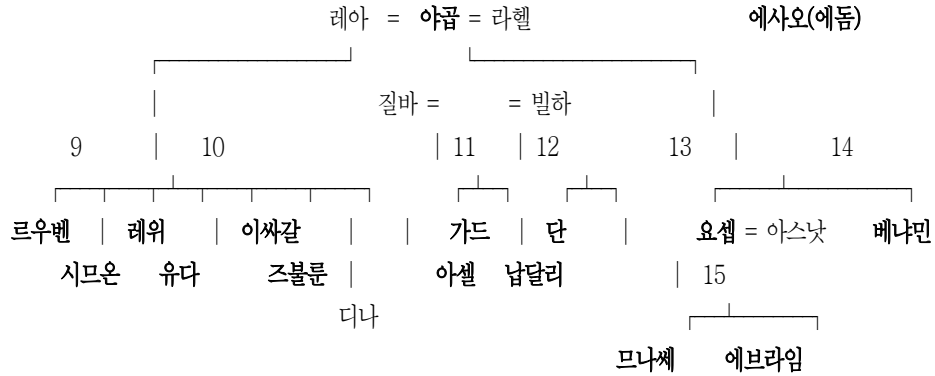
불가능하므로 차후 그들의 일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들이 태어난 순서는 그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발달되는 순서이나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 때만 해당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보려고 노력하나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을 떠올리며 가장 높은 선과 진리가 마지막으로 태어나게 됨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 두 아들 중 요셉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요셉은 하란에서 출생한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고, 베냐민은 야곱이 거룩한 땅으로 귀환한 후 태어난 아들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기본 상응 공부

- 아브라함 = 천적 또는 의지평면에서의 선택
- 이삭 = 영적 또는 사고평면에서의 선택
- 야곱 = 자연적 또는 행동평면에서의 선택
- 레아 = 외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 라헬 = 내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 열 두 아들 = 우리 삶에서 발달될 수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

< 참고 도표 >





기호설명

성서 참고

=	부부관계	1. 창 11:27-29	6. 창 25:1-2	11. 창 30:10-13
┌	부모에 자녀(들)	2. 창 19:36-38	7. 창 29:4-6,16	12. 창 30:5-8
+	비정식 부부	3. 창 22:20-23	8. 창 25:24-26	13. 창 30:22-2
꺾은글씨	남자이름	4. 창 21:1-3	9. 창 29:32-35	14. 창 35:18
가는 글씨	여자이름	5. 창 16:15	10. 창 30:10-13	15. 창 41:50-52

제 4반

세 가지 평면의 삶의 발달순서를 살펴본 후 자연적인 평면이 거듭나기 전 반드시 질서에 따라 제자리에 있어야 더 높은 평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상을 갖는 것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또한 직업을 선택하여 추구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해서인지 혹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인지 그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각기 새로운 발달은 삶의 전체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같은 형식으로 있게 된다. 새로운 발달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의 의지 속에서 뭔가에 대한 바램 곧 열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에 상관없이 동기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일단 하나의 바램이 생기게 되면 그 바램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추론력에 의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바램과 그에 따른 생각이 뭔가 실질적인

성취를 원한다면, 이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단계가 우리의 영적인 발달과 진보라는 측면에서 세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으로 표현된다. 야곱은 성취를 이루는 자연적 곧 바깥쪽 평면을 표현한다. 우리는 선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무엇이 올바른가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삶의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바램과 생각이 많다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높은 이상 곧 의도나 생각들을 삶으로 실제화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에 동감한다. 따라서 우리의 바깥쪽 삶 곧 일상생활을 천국으로 되게 만드는 것은 느리고 긴 과정이다.

야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격자는 아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가 형에게 내리는 축복을 가로챘고, 이로 인한 형의 분노로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간 살아야 했다. 또한 그는 형을 피해 달아나는 여행 초기 베델에서 경이한 꿈을 꾸게 된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 약속은 자신의 여행을 잘 마무리 지어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삼촌 라반을 섬기되 그것도 흥정 끝에 있어진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야곱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 각 개인이 거듭나기 전 있게 되는 외적인 삶의 특징을 상징한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때 주위로부터 자신이 위로 받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 발생하는 일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더 높은 뭔가를 움켜쥐고 있음을 이미 보고 계신다. 우리의 어린 시절 때 저장된 순진하고 신뢰 깊은 유아기의 상태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주님에 의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주님께서 심어두신 것들로서, 그분은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 야곱의 환상이 그의 전 인생과 더불어 머물고 있었듯이 이 상태들은 우리 안에 머물면서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이상향을 붙잡고 있게 된다.

이런 사실들은 야곱과 결혼한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딸이란 애정 곧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언니인 레아는 삶의 외부 측면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려준다. 레아가 언니라는 것은 진리의 발달이 외부에서 먼저 있게 됨을 뜻한다. 이는 보다 높은 것을 아는 상태가 우리 안에서 먼저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합리적 능력의

발달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발달되는 순서와 같다. 이렇게 처음으로 발달되는 우리속의 마음 곧 애정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흠이다. 이는 본문 17절에서 “레이는 부드러운 눈매(부족한 안력)를 가졌다”는 말로 서술되고 있다. 반면에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다”라고 서술되고 있다. 그래서 라헬은 내면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곧 애정을 표현한다.

야곱이 하란 지역 근처의 샘터에 멈췄을 때 라헬은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그곳으로 왔고,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반하고 만다. 하란 지역이란 말씀을 담은 글자를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읽게 될 때 양과 같은 순진함은 주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되살아나게 된다. 따라서 영적 진리를 배우는데 기쁨이 동반되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이상향으로 즉시 승낙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반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야곱이 자연적 평면 수준의 선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라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칠 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기로 라반과 합의했다. 그녀를 위한 노력의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그에게 주어진 아내는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칠 년을 일해야만 했다. 우리는 상황과 시기는 다르나 이러한 야곱의 상황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는 고상한 삶의 환상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달성해 보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노력한 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다시 다짐하게 될 때 그 삶은 우리 앞에 계속 존재하게 된다.

레아와 라헬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다. 라헬은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 레아는 야곱에게 첫 네들을 낳아 주었고 그 후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 성경에서 자녀의 출생은 우리가 선과 진리를 생산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진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라헬은 삶의 시작 초부터 우리의 이상향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이상향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성의 진보와 더불어 진리의 외면 혹은 그릇이 완성되어야 하고, 더 높은 지식의 획득이 있기 전 보다 낮은 수준의 지식부터 충족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담아 두고자 할 때 담아두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하나 실제로는 담아질 물건에 적절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이상향은 출발 당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향의 성취는 사실상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뤄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을 표현한다. 복합체(complex)란 라틴어의 “함께 끈 끈나풀”이란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이 단어는 흔히 우리의 근대적인

삶에서 사용되기도 하다. 하지만 사용 빈도에 비해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고려해 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즉, 우리는 현실적으로 진정한 복합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복합되는지, 자신의 마음이 상대방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떤 동기와 생각이 가장 높은 것이 되어 다른 것을 규율할 것인가 등이 매 시간마다 얼마나 다양해지는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본문 이후에도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다. 스웨덴본은 이들이 언급되는 순서는 언급된 구절의 앞 뒤 문맥을 가려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한명씩 집중적으로 다룰 수는 없으나 본문에서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분은 라헬의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기억할 것이다. 이들은 야곱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들로서, 영적인 선과 진리를 표현한다. 이들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서 더욱 상세히 다룰 것이다. 요셉은 하란 지역에서 출생한 마지막 아들이고, 베냐민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룩한 땅으로 귀향한 후 베들레헴 근처에서 출생했다.

제 5반

다음의 다섯 가지를 본 반의 주제로 한다. 1) 야곱의 삶의 진보에 따른 상응의 변화 2) 보다 높은 발달의 기초로서 질서 있는 바깥 삶의 필요성 3) 삶의 중심이 자아추구 또는 주님과 이웃 사랑이냐에 따라 있게 되는 차이점 4) 이상향을 인식한 것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의 차이점 5)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일반적인 상응

야곱에 대한 상응이 뚜렷하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바깥 삶을 선한 측면에서 성취하고 그렇게 성취된 외적인 선이 보다 순수한 선으로 발달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즉, 선을 행하는 우리의 동기가 변함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는 이웃에게 인정받는 눈에 보이는 선을 행함에서 주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려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야곱은 우리가 부모의 간섭을 떠나 독립되는 삶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표현하고 있다. 야곱으로 표현되는 시기는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유아시절의 상태인 단순함과 신뢰성을 지나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자화자찬 혹은 자만심의 상태를 거쳐서 이삭이라는 진정한 합리성이 우리의 집 곧 우리 인격의 가장의 지위를 이어받은 후 있어진다. 이삭의 시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나 추론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올바른 능력이 적당히 발달되어 그것이

우리의 바깥 삶에도 직접 응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새로운 진리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새 진리는 이삭의 결혼의 경우와 같이 세상적 혹은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해서 안 된다. 야곱의 아내도 이삭의 경우와 같이 하란에서 찾아야만 했다. 이삭의 아내와 같이 야곱의 아내들도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할 근원 곧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되는 진리를 사모함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독립해서 집을 떠나는 자녀들의 마음에 간직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모들은 이를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세상에서 확실한 보수가 보장되는 것에 비중을 두기보다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바램에서 먼저 추구되어야 함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삭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 이삭은 하란으로 가지 않았으나 야곱은 스스로 하란에 가서 대가를 치르고 아내를 얻어야 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른 시절에 발달되는 보다 높은 합리성은 거룩한 땅 곧 영적인 수준을 떠나도록 허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 의해 이삭에게 데려와졌다. 그러나 야곱은 거룩한 땅에서 밀려나 듯이 떠난 후 하란에서 아내들을 맞았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종교를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결심할 때 내부와 외부 모든 측면의 진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브가와 라헬에게서도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 리브가는 집에서 쓸 물을 길어가기 위해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갔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구하되 차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진리를 획득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라헬은 우물가로 가되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간 목자였다. 나홀의 가족은 데라와 아브람과 더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으나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다. 하란에 멈춘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단순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 선함이나 순종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양떼란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서 진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본문 29장을 “이 본문의 내적 의미에서 야곱은 주님의 자연적 속성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어떻게 진리의 선이 ‘라반’이라는 선 곧 신성한 근원에서 온 선과 결합되는지를 표현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라헬’이라는 내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요약한다. 그리고 그는 「천국의 신비」 3793항에서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자연적 속성을 그리고 라헬은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진리가 선과 결합해야 하므로 애정을 수단으로 일이 진행된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란 라헬로 표현된 선과 짝짓고 싶어 하는 애정이다. 자연적 속성 안에서도 합리성 안에서와 같이 내면과 외면 두 가지가 있다. 라헬은 내면의 진리에 대한 애정이고, 레아는 외면의 진리에 대한 애정이다.”라고 말한다.

야곱의 결혼과 그의 아들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외적 선한 삶의 질서적 발달을 다루고, 그 발달이 선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내적인 것도 가져야만 함을 말해준다. 야곱은 라헬을 먼저 보고 그녀에게 반했다. 내적인 진리는 우리의 이상향으로 그것을 꼭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램이지만,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듯이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참을성을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긴 인고의 세월 속에서 실망이나 지체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또한 인지상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6335항에서는 열 두 아들의 상응에 대해서 “한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이라고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 6448항에서 “그들을 통해서 선과 진리들의 측면에서 가능한 교회의 모든 상태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영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충한다. 열 두 아들의 개인적인 상응은 말씀속의 모든 상응처럼 각자의 상응성이 말씀이 언급되는 주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 이 다양성에 관한 것은 「천국의 신비」 제 3862항에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제 6335항에서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 간략한 상응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믿음, 시므온- 의지안의 믿음, 레위- 이타애, 유다- 천적 교회 혹은 신성한 천적 측면에서의 주님, 즈블룬- 선과 진리가 함께 삶, 이싸갈- 일로 보상함, 단- 진리로부터 삶의 선 안에 있으나 여전히 선으로부터 삶의 선 안에 있지 않은 사람, 가드- 진리로부터의 일은 하나 선으로부터의 일은 여전히 못하는 사람, 아셀- 애정의 축복, 납달리- 시험과 시험후의 상태 요셉- 영적인 교회 혹은 신성한 영적 측면에서의 주님, 베냐민- 영적 교회의 선에 관한 진리

요셉은 하란에 출생한 마지막 아들이다. 베냐민은 야곱이 거룩한 땅에 귀환한 후 베들레헬 근처에서 출생했다. 베냐민의 출생과 동시에 라헬은 죽었고, 그녀는 그곳 근처에 묻혔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열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동굴에 안장된 여자가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레아였다는 점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질적인 진정한 배우자를 레아로 판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란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819항: “레아가 언니인 이유는 외적인 진리가 먼저 습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라헬이 동생으로 불린 것은 내적인 진리는 외적인 진리가 습득된 후에야 비로소 배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외적인 진리에 먼저 감동을 가진 후에 내적인 진리에 감동된다. 외적인 진리도 내적인 진리와 비슷하여 개별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윤곽을 지닌다. 예를 들어, 사물의 경우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에 속한 어느 부분도 개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의 글자 안에 전체적인 사항이 있고, 내적인 의미는 그 속에 개별적인 진리로 들어있다.”

질문 정리

- 1) 야곱은 어떻게 예사오의 자리를 차지했는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
- 5)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야곱은 어느 딸을 사랑했는가?
- 7) 야곱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딸은 누구인가?
- 8) 야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렀는가?
- 9) 그의 아들은 몇 명인가?
- 10)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 11) 그가 하란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은 누구인가?
- 12) 베냐민은 어디에서 출생했는가?
- 13) 아브라함과 이사악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하란의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레아와 라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장자의 권리를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 2) 에서의 위협
- 3) 하란
- 4) 라반
- 5) 레아와 라헬
- 6) 라헬
- 7) 레아
- 8) 20년
- 9) 열 둘
- 10) 요셉과 베나민
- 11) 요셉
- 12) 베들레헴 근처
- 13) 의지와 생각과 행동
- 14) 말씀
- 15) 진리에 대한 외적인 애정과 내적인 애정
- 16) 선과 진리의 모든 측면

7

이집트의 통치자 요셉

머리말

본문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친숙한 말씀이다. 줄거리의 앞뒤를 질문 형식으로 연결하면서 본과를 진행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1장

41장: 1. 그로부터 세월이 이 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강 가에 서 있었다. 2.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고 있었다. 3. 그런데 곧 이어 여위고 불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불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다가 했더니, 4. 이내 그 살이 찌고 잘 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5.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일곱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 가는 것이 보였다. 6. 그런데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7. 더우기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8.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9. 그 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10. 언젠가 폐하께서 소신과 빵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 댁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11.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12. 그 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13.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14.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 오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13.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내가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푼다면서?”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 주실 이는 하느님뿐이십니다.” 17.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강 가에 서 있었다. 18.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밭을 뜯는 것이었다. 19. 이어 암소 일곱 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윈 소는 처음 보았다. 20. 그런데 여위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일곱 마리 소를 잡아 먹는 것이었다. 21.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 먹었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 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가, 22.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이삭 일곱이 돌아 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23. 그러나 곧 뒤이어 돌아 난 일곱 이삭은 셋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24.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미술사들에게 했으나 그 뜻을 일러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5.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 주신 것입니다. 26. 잘 생긴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27.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일곱 암소나 셋바람에 말라비틀어진 일곱 이삭도 일곱 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28.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29. 앞으로 올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30.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일곱 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옛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31.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32. 폐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33. 그러니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4.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오분의 일씩 받아들이도록 조치하십시오. 35.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에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36.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일곱 해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37.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38.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39.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40. 그러니 나의 온 왕궁을 네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41.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며, 42.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고운 모시옷을 입혀 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43.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렀거라”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44.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이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45. 파라오는 요셉에게 시브닛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고 온이라는 곳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삼십세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에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47. 칠 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48. 이렇게 에집트 땅에서 칠 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도시에 갈무리해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49.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의 모래더미 같았다. 마침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50.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곳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세넛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다. 51.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하면서 요셉은 만아들의 이름을 뜨나세라 지었다 52.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53. 이집트 땅에서 칠 년이나 풍년이 들어 흥청댔지만, 그런 세월이 다 지나자, 54. 요셉이 말한 대로 칠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55. 이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파라오에

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파라오는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은 날로 심해 갔다. 57.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물려들었다.

교리 요점

- * 기억 안에 들어 있는 지식의 본성
- * 영적 사항이 기억 속에 든 지식의 통치자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여러분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매우 친숙하고 사랑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것을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흔히 있는 “성공담”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요셉의 이야기의 간략한 줄거리는 어린 한 소년이 형제들의 질투심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후 노예로 팔리게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집트에서 왕 다음가는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은 정직 근면하며 신중하고 신실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이 밖에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는 바로 본문에서 파라오가 요셉을 옥에서 꺼내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파라오와 대면하게 된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풀고 그에게 다가올 흉년에 대해 말하고 슬기로운 자를 선택해서 흉년에 대비할 것을 권면했다. 그러자 파라오는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을 믿었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했다. 따라서 요셉이 이집트를 통치했을 때 진정으로 그곳을 통치하신 이는 주님이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첫째 교훈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지 않고서는 지혜로워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한다. 우리는 모두 삶에 대한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풍족한 시기 곧 풍년의 칠 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방법대로 살면 힘들다고 생각함에서 비롯되는 흉년의 칠 년 곧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게 해주는 칠 년의 고난도 겪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풍년동안에 가능한 많이 주님의 진리를 우리의 지성 속에 저장해둔다면, 우리는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하고 불평하게 되는 흉년동안에 미리 저장해둔 주님의 진리를 끄집어내서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갖는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은 삶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획득하는 삶에 대한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주님과 그분의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풍요로운 횡수가 더 많아지도록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제 1반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말씀 그대로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였고 언제나 그를 돌보셨는데, 이는 그가 선택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내기 힘든 것같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선택하게 보호해 둔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

요셉이 17세였을 때 그의 형들은 그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형들은 요셉이 집을 떠나 있을 때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처넣어 가둔다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고 음모했는데 그사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집트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를 팔았다. 그런줄을 모른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아버지께 말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다. 요셉이 아주 근면하고 총명해서 보디발은 그를 집안의 총무로 임명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요셉에 관해서 거짓을 고했고, 보디발은 그녀를 믿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들이 꾸 이상한 꿈을 해몽 해주었다. 후에 이집트의 왕도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나라 안의 현명한 어떤 이들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그때 감옥에 들어와 있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에 관하여 왕에게 말해서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파라오는 요셉이 아주 총명하며 주님께 은총 받음을 알고는 그에게 이집트의 모든 국토를 다스리는 직책을 주었다.

다음 질문들로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 * 파라오의 꿈은 무엇인가?
- *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는가?
- * 요셉은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충고했는가?

제 2반

제 1반과 유사하게 진행하되 이집트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이집트가 상응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집트에 관한 세부 사항도 염두 해 두도록 하자.

요셉의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것이다. 이집트는 나일 강을 따라 형성된 길고 좁은 독특한 나라다. 그 나라의 비옥한 토지는 나일 강의 양쪽의 계곡을 따라서 있게 된 것이다. 성서 사전에는 이집트에 대하여 “그 나라의 일반적인 형태는 모세의 시대 이래에도 큰 변화를 가질 수 없었다. 전 국토는 아주 비옥하여 놀랄만하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반면 그 양쪽에 모래사막이 있다는 것이다. 그곳의 기후는 연평균 균등하여 건강에 좋은 편이다. 북쪽 해안은 강우량이 적지 않으나 내륙 지방은 아주 적다. 경작지가 강우량에 의존되지 않은 곳은 이집트를 제외하면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나일 강의 범람이 이집트의 국토를 비옥하게 하고 그 나라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일 강의 범람이 축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일 강이 이집트인들에게 고대 유래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온 이유이다. 강물이 점차 불어나서 하지에 최고 수위로 달하고, 그 뒤 2개월 정도 범람이 있게 된다. 가장 높은 수위가 추분쯤에 있고, 범람은 3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해안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기는 놀랄 정도로 건조하며 쾌적한데, 이 특이한 대기 환경은 비문이나 각종 그림으로 된 유적들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기온은 일 년 내내 높은 편으로, 겨울의 가장 추운 때나 오후 그늘진 곳도 화씨 50-60도 정도로 훈훈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이집트에 있었던 7년간의 기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집트는 좋은 기후와 높은 생산성 때문에 고대 시대에 그 주변 나라들이 가뭄과 흉년을 겪게 되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관습처럼 행해졌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흉년이 들 경우 그 재난은 주변의 나라들에도 여파를 미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할 교훈은 한 가지이다. 우리는 나쁜 일이 자신에게 발생했을 때 낙담하며 그것을 타인의 탓을 돌리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곤란을 되돌릴 방법을 궁리하다가 결국 세상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하며 그 모든 원인이 주님께 있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자신에게 발생했을 때 분개하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상황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역경을 이겨냄으로서 더욱 강건함을 얻게 된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 *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는가?
- *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는가?
- * 누가 보디발에게 요셉에 대한 거짓말을 했는가?
- *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 * 그와 함께 누가 감옥에 있었는가?
- * 그는 그들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가?
- * 그는 술 따르는 시종장에게 무엇을 청했는가?
- * 그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요셉의 청탁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 *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요셉을 상기시켜 주었는가?
- * 왕은 요셉이 경고한 다가 올 재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 누가 왕의 꿈을 마지막으로 해몽했는가?
- * 요셉은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진언했는가?
- * 왜 왕은 요셉에게 그 진언을 수행하라고 했는가?

- * 왕은 어떤 권력을 그에게 주었는가?
- * 왕은 누구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는가?
- * 요셉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요셉은 흉년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제 3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이야기의 상응을 살펴본다. 그리고 흉년의 의미와 요셉만이 흉년을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동안의 삶에 관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셔서 그분을 미워했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은전 몇 닢에 주님께서 팔리셨다는 것 등이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된 것처럼 요셉이 거친 고난은 그가 진보하는 수단이 되어 결국 그의 가족 모두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실용적인 교훈을 제공해 주신다. 이집트란 기억속의 지식을 표현한다. 기억속의 지식이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자연계에 관한 모든 지식과 우리가 교회에서 습득하는 성경의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전에 있게 되는 단순한 이해들까지도 포함된다. 이집트의 지리를 살펴보면 땅의 대부분이 낮고 편평하다. 그 땅의 비옥함은 나일 강의 범람에 의존되며, 비옥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귀금속이나 보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그 땅의 특징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타국에서 수입된 금이나 은으로 세공하는 기술이 상당히 수준 높은 편이었다. 요셉의 시대 때의 이집트인들은 단순하고 평화로우며 근면했다. 그들 중 위대한 이들은 자연 학문으로 고대 시대에 여러 나라들에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이집트가 고대 세계의 곡식 창고였다는 사실은 이집트가 우리의 머릿속에 수집된 지식의 창고를 상징함을 보여준다. 스웨덴북은 이집트인들이 고대 시대 때 상응에 관한 지식에 특별히 관심을 두었고 그들의 상형문자는 상응의 지식에 기초한다고 말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이는 송아지가 유용한 자연적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응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항상 보호하셨다. 그가 이집트로 팔린 것은 사실 그를 시기하는 형들의 음모로부터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이다. 수백 년 뒤에 태어난 또 다른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헤로데 왕의 분노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경고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담고 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자세를 보며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어려서 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아.”라고 말하여 그것이 어린 시절에 받은 훈육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의 성장을 보호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긴 어린 시절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님께서 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획득하는 동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 또한 이집트로 가신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삶에 관한 지식의 획득이 우리의 삶에 있는 질서 중 하나이고 주님께서 입으신 인성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것, 특히 성경의 글자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은 꾸준히 성경을 인용하셨다. 주님께서 그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듯이 그분의 어린 시절에 배워 두셨던 것이다. 우리와 다른 점은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구약 성서의 모든 사항을 기억에 담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자신의 지성 속에 말씀의 지식을 담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야곱의 열 두 아들이란 우리가 발달시키는 우리 속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함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중 어느 것이 때로는 “거꾸로”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를 말한다. 이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보다 더 중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요셉을 처치하려고 음모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일이 벌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수단으로 우리 속의 보다 높은 것들을 사용하신다. 우리속의 요셉이란 영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다. 요셉은 그의 형들보다 더 높은 생각의 세계에서 살았다. 즉, 그는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세계 속에서 살았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주님과 천국에 관한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하려고 할 때 세상적인 것들 곧 의식주 혹은 명예 따위들이 우리의 관심밖에 있어 대수롭지 않게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관심사가 우리 속의 요셉보다 훨씬 나온 듯 여기며 그때마다 우리 속의 요셉을 제거하려고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장차 있게 될 우리의 영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 보존시켜 주신다. 그리하여 요셉은 우리 기억 속의 일부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어 술잔을 따르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자신의 생각 밖으로 내던지고자 애쓰는 때에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서는 삶의 일련의 질서들을 잡고 계시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짐작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게 만든 우리 속의 어떤 원리도 그러한 경험을 도울 수 없다. 이는 파라오가 꿈 꿈을 이집트의 어떤 현자도 풀 수 없었던 모습과 같다. 이리하여 우리는 별수 없이 우리의 기억 속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상기하게 되며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뭔가를 보려고 노력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자신의 고집대신 그분의 방법에 따라 삶을 정착시켜야 함을 실감하게 된다. 이것은 파라오가 요셉을 전국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모습에 해당된다.

칠 년간의 풍년이란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또는 쉽게 배우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어떤 사람에게나 주어진다. 그러나 칠 년의 흉년이란 우리가 생계를 꾸리느라 너무 바쁜 때 또는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며 미래의 가족을 부양하려고 몰두하는 시기 등을 말한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미 기억 속에 저장해둔 원리들을 사용하면서 버티게 된다. 따라서 우리 땅 곧 인격 속에 요셉을 통치자로 더 빨리 임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년의 시기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요셉 = 삶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기근 = 지식의 결핍이 길어지는 때

제 4반

지식은 그 자체의 축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삶의 영적 측면과 자연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집트에서 권력을 쥐게 되는 요셉의 부상은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끄는 것은 오로지 영적 원리의 통치뿐임을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음을 그린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자연적인 지식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만족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듯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파라오의 꿈이 바로 그 때를 그려주고 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허울 좋은 논쟁은 본문에서 등장되는 이집트의 마술로 상징되는데, 이집트의 어떤 마술사도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허울 좋은 논쟁은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어떠한 답도 해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 깊은 곳 곧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그곳에 우리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었던 누군가를 우리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한 때 제자들에게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했으나, 때가 오면 너희가 믿게 되리라”하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있어온 영적 교훈의 대부분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것은 본문에서 파라오의 꿈을 마술사들이 해석할 수 없자 술잔을 따르는 시종장이 갑자기 요셉을 상기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통치자로 요셉을 선택한 파라오 휘하의 이집트란 올바른 질서로 기울게 되는 실용적 삶을 그린다. 이 삶 속에서의 칠 년간의 풍년이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열심히 배워 행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 풍요로운 시기에서 얻은 경험들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흉년이라는 의혹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저장된다. 우리가 슬픔과 시험 속에 처하더라도 주님의 선함과 우리 위에 운행되는 신성한 섭리에 관해 배운 것들을 상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마다 요셉의 곡식창고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어린 시절에 습득되었으나 주님께 의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영적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질서에 일치되도록 현명하게 인도하게 된다. 하지만 본문 이후의 성경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치해야 한다고 느낀 후에도 세상적인 학식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곧바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높은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단번에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집트에의 노예 신세를 지나서 사십 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느꼈다하더라도 그것이 거듭하여 다져져야만 우리의 마음에 정착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다. 이리하여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요셉의 뼈가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는 데 많은 세월이 소요됐던 것이다.

우리는 배울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의 이야기들을 익혀서 우리의 지성 속에 저장해 두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궁핍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든 지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시련에 저항하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진정으로 슬기롭다면, 인생의 출발 초부터 영적 사항들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인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라오가 요셉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한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제 5반

삶에 있게 될 시험을 예상하면서 시험이 왔을 때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토의해 본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면서도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교훈들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것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속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해준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와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 경향성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며, 마침내 그것들을 아예 마음 한 구석에 감금해 버린다. 그런 후 세상에서 성인으로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각종 쾌락들과 활동들에 흠뻑 젖어서 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어린 시절에 비추던 영적 교훈이나 교회 혹은 자신의 종교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요셉이 아직 살아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의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단지 우리의 마음 표면 밑바닥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인식하고 그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요셉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올라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커다란 영적 시련을 이겨내도록 준비해준다.

말씀의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어느 한 시기에만 응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 진보를

해나가려면,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거듭하여 말씀 속의 이야기들이 표현하는 곳을 주기적으로 거쳐 가야만 한다. 영적 성공의 모습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룩한 땅으로 귀환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귀환과 더불어 자아만족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우리가 자신이 행한 선행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잊거나 자신은 더 이상 영적 궁핍에 놓이지 않을 것이므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때이다.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었거나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기만족감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문을 닫는 때면, 우리속의 요셉은 언제든지 이집트로 팔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는 계속되는 기근을 예방하거나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견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심을 가르쳐준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집트란 우리 기억속의 지식을 그려준다. 이 기억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 온 모든 것들, 즉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과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의 구절들이 연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들까지 모두 수집되어 있다. 우리가 영적 결핍으로 인해 무언가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때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곳이 바로 이 기억이라는 평면이다. 이 기억속의 지식 중 우두머리는 이집트의 왕(파라오)이다. 파라오는 자연적인 지식들을 다스리는 원리를 상징한다. 이 원리가 사실상 기억속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바, 주님은 이를 제일 먼저 계발해 주신다. 그래서 파라오는 다가올 고난을 예시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술을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파라오 앞에 서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백성들의 구원을 설비하시는 것이며, 요셉으로 하여금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면, 우리는 요셉과 그의 경험들이 거듭나는 우리 삶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4286항이다. 이 항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부분과 연결되는데, “이스라엘은 자연적 속성 안에 담긴 천적 근본을 지닌 영적 인간을 의미하는 바, 이스라엘은 자연적 속성을 상징한다. 천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영적 인간 자체는 합리성인 바, 요셉의 다른 점이 아래 글에서 구분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아래 글은 이스라엘이 자연적 속성 안에 존재하는 천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영적 인간이고 요셉이 천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영적 인간 자체 곧 합리성이

라고 말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지는 이유는 넓은 의미에서 사랑과 이타에 속한 모든 선은 천적이라고 불리고, 믿음과 총명에서 파생되는 모든 진리는 영적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서술이 베냐민의 출생을 다루는 「천국의 신비」 제 4585항이다. 즉, “내적인 인간 또는 외적인 인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이해성에 들어갈 리 만무하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위의 두 인간이 하나로 작용하나 어찌됐든 위의 두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연적 속성이 외적 인간의 구성 요소이고 합리성이 내적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것 그리고 영적 혹은 천적이란 말의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천국의 신비」 제 534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선과 접합된 진리들이 자연적인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음과 그렇게 저장된 진리들이 차후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사용되도록 저장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칠 년 동안의 흉년’이란 진리들이 아주 많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곡식을 도시마다 저장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진리들이 선과 접합되어 인간 속에 저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칠 년간의 기근’ 또는 ‘기근동안에는 그전에 모아들인 것으로 지탱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선과 접합된 진리를 통해서 거둢을 의미한다. 선에 접합된 많은 진리들에 적절한 용어는 아껴두신 것들일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거둢나기 위해 고통당하는 정도만큼 주님께서 우리 속에 아껴두신 것들을 사용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아껴두신 선에 접합된 진리들이 공급되는 정도만큼 그것들을 끌어내셔서 우리의 자연적 속성 안으로 되돌려 보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겉에 속한 것과 속에 속한 것이 상응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상응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본문에서 ‘칠 년 흉년’이 의미하는 상태로 인한 결과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우리 안에서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과 같다. 오늘날 교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상관없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즐기도록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산이다. 그 이유는 영적인 삶을 이루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받아들여지거나 들어오도록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둢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적인 삶을 이룰 수 없다. 거둢나기 위해서는 교리속의 진리가 생활 속의 선과 결합해야만 한다. 이러한 결합에 의해서만 인간은 영적 생명을**

지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326항」: “새로이 창조되는 인간의 자연적 속성 혹은 거듭나는 인간의 자연적 속성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자연적 속성과는 아주 다르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 속성은 인간 바로 그 자체로 그것으로 생각하고 바랜다. 이러한 사람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이상 그의 합리성이나 영적인 속성이 닫혀져 있어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것이 그의 모든 것이어서 그의 성질(性質)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원인이 결과의 성질을 결정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원인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거듭난 사람의 자연적 속성은 그의 영적인 속성이 존재하는 대로 되어간다. 자연적 속성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즉 자연계로부터 이끌어지는 지식 같은 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속성이 자연적 속성 안에서 행동되는 데에 따라 동의하며, 자연적 속성은 수단으로서 자연적인 것일 뿐이다.

질문 정리

- 1) 요셉은 어떻게 이집트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두 시종장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 3) 왜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했는가?
- 4) 파라오의 두 꿈은 무엇인가?
- 5)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6) 요셉은 파라오에게 무엇을 충고했는가?
- 7) 파라오는 그 충고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 8) 파라오는 요셉에게 어떤 권력을 주었는가?
- 9) 파라오는 요셉에게 누구를 아내로 삼도록 했는가?
- 10)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 11) 요셉은 어떻게 기근을 준비했는가?
- 12)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기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5)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함으로 2) 꿈을 해석해 주었다
- 3)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따르는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 4)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불품없는 암소 일곱 마리,
잘 여문 이삭 일곱-말라비틀어진 이삭 일곱
- 5) 칠 년 풍년과 칠 년 흉년 6)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 양식을 저장하라
- 7) 요셉 8) 전 국토의 통치자 9) 아세냐 10) 므나쎄와 에브라임
- 11) 전 국토에 양식을 저장했다 12)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
- 13) 기억속에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 14) 새 진리를 배우기에는 지금 너무 바쁘다는 식
- 15) 영적인 원리의 지배하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놓아 둠

8

열 가지 재앙

머리말

본문의 분량은 상당히 긴 편이지만 본문 전의 이야기를 미리 읽어두면 공부하는데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후손들이 기근이 끝나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계획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에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나 어려운 광야 생활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7-10장

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2.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3.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역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4.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5.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6.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7.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팔십 세, 아론은 팔십 삼 세였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9. “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려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아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11.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 들였다.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12.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다. 13. 그래도 파라오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15.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에 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17.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가 야훼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18. 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 야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운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권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서는 나무그릇이나 돌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20. 모세와 아론은 야훼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내려 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21.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22.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23.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 갔다. 24.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25.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칠 일이 지났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7. 만일 네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28.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떼 지어 올라 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 가 너의 침대에까지 뛰어 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술과 떡 반죽 그릇에도 뛰어 들리라. 29.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 오르리라.’”

8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강가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뻗쳐 개구리가 온 땅에 기어오르게 하라고 일러라.” 2.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물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기어올라 와 이집트 땅을 온통 뒤덮었다. 3.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4.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부탁하였다. “개구리가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야훼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 백성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5. 모세가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궁궐에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물러가게 기도를 드릴까요?” 6. 파라오가 내일까지 해 달라고 부탁하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야훼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 이제 개구리들은 당신과 당신의 궁궐과 신하와 백성들에게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8.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 나왔다. 모세는 개구리가 파라오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해 달라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9. 야훼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 주셨다. 집과 뜰과 들에 있던 개구리가 모두 죽어 갔다. 10. 더미로 쌓인 개구리들이 썩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찼다. 11. 이리하여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일러라. 그러면 이집트 땅 어디에서나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13.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의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14.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 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이니 그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7. 만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등애를 보내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을 쏘고 너의 집안에도 들끓게 하리라. 너희 이집트인이 사는 집이나,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남은 구석 없이 등애 천지가 되리라. 18. 그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등애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19. 이와 같이 나는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가 내일 일어나리라.’” 20.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술한 등애가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에 날아들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온 땅은 등애 등쌀에 썩밭이 되었다. 21. 마침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렀다. “가서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22.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이집트인들이 부정한 것을 바치다가는 그들 손에 죽지 않겠습니까? 23.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나홀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24. 그러자 파라오가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야훼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어서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 하여라”하고 허락을 내렸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가는 길로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애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내일까지 모두 떠나게 해 달라고 빌 터이니 다시는 번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내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26. 모세는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27. 야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등애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8.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9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2. 만일 네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3. 야훼의 손에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4.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이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5. 야훼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6.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8.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가마솔 밑에 붙은 그을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려라. 9. 그 그을음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 나가 이집트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굶아 터지게 되리라.” 10. 그들은 가마솔 밑에서 그을음을 긁어모아 가지고 파라오 앞에 나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가축은 종기가 나서 굶아 터지게 되었다. 11. 이집트의 미술사들은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미술사들까지도 온 이집트에 번진 종기에 걸렸던 것이다. 12. 그러나 야훼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역지를 부리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1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14. 내가 이번에는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누리에 나 같은 신이 없음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리라.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너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16. 까닭이 있어 너를 남겨 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 위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17.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나의 백성을 업신여겨
 내보내려 하지 않으니, 18. 내일 이맘때 나는 우박을 역수로 퍼부으리라. 이집트에 나라가 선
 뒤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리라. 19.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뿐
 아니라 들에 있는 것을 안전한 데로 모아 들여라. 들에 남아서 미처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모조리 죽으리라.” 20.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서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 들였으나 21. 야훼의 말씀을 허술히 여긴 자들은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2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쳐들여라. 그리하면 우박이 이집트 땅에 쏟아지리라. 이집트 땅의 사람과 가축과
 모든 풀 위에 쏟아지리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쳐들자, 야훼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비꼈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신 것이다.
 24. 번개가 번쩍거리며 우박이 맹렬하게 쏟아졌다. 이집트 나라가 생긴 뒤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심한 우박이었다. 25. 이집트 전국에 걸쳐 사람을 비롯하여 가축이며 들에 있는 풀들이 모두
 우박을 맞았고 나무들도 우박을 맞아 모조리 부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27.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잘못을
 깨달았다. 야훼께서 옳으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나빴다. 28. 그러나 야훼께 기도해 다오.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저 천둥소리와 이 우박은 견디어 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더 이상 너희를 이곳에
 붙들어 두지 않겠다.” 29.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서면 곧 야훼께 손을 들어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 천둥소리가 멎고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야훼의 것임을 알려 드리리다.
 30. 그래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나님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31. 마침 보리는 이삭을 패고 아미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그것들은 결판났으나, 32. 밀과 쌀보리만
 은 아직 이삭이 펠 때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남아났다. 33.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오면서 야훼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소리와 우박이 멎고 땅에 내리던 비도 멎었다.
 34. 파라오는 비가 그치고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뒤틀려 신하들과
 함께 고집을 부렸다. 35.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대로였다.

10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2. 이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네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굶하지 않고 버틸 셈이나?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4.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5.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나무들도 갹아 먹으리라. 6. 그뿐이랴! 너의 궁궐과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7.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8.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러 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9.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딸도 데려 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10.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 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팔려 보낼 성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11. 어렵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12.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귀를 먹어 치우리라.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모든 것을 먹어 버리리라.” 13.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에 주야로 샷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샷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14.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 와 전역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카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땅의 모든 푸성귀와 나무 열매를 먹어 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16.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여 말하였다. “너희의 신 야훼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17. 한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야훼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18.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야훼께 기도를 올리자 19. 야훼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바다에 쓸어 넣었다. 20.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질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이집트 땅이 온통 질은 어둠에 싸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23.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환하였다. 24.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들어 말하였다.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 25.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6.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느님 야훼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을 야훼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27.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28.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아라. 다시 내 앞에 얼씬거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29.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리 요약

- * 우리가 영적 목적에 대한 초점을 잃을 때 사건이 발생된다.
- * 세상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높은 본성을 점진적으로 파괴시킨다.
- * 악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대처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외국인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래서 파라오(왕)들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불어나자 그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파라오들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마침내 파라오들 중 한 명은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여 버리라고 명령했다. 앞서 우리는 아기 모세가 구원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다.

모세는 주님에 의해 보존되었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그들의 진정한 고향인 거룩한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큰 임무를 맡게 되었다. 파라오가 지속적으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본문에 언급되는 열 가지 재앙들은 주님의 뜻에 완강히 저항하는 파라오의 고집이 하나씩 꺾여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 가지 재앙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거룩한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천국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다. 지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은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다.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과 쾌락들을 발견하여 그것들에 빠져 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지상에서 일시적인 체류자임을 망각하기도 한다. 우리가 우리 속의 높은 자질들을 세상이 노예화시키는 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인격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향으로 가게 하여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파라오의 고집스런 결정으로 야기된 열 개의 재앙이 이집트의 국토를 황폐케 만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선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용을 통해서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의 영혼 안에 천국을 만드는 두 가지 사랑인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1반

모세의 출생과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본문 8장 1-15절은 반드시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단어 형식으로 암기해 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집트에 계속 체류했다. 그들의 수는 차차 불어나 마침내 상당한 인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세월이 흐르자 자신들의 땅에 사는 외국인들을 시기하며 그들이 차후 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파라오들은 차차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 행한 일들을 잊어갔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은 그들 자신의 땅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어 거룩한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다.

본문에서의 파라오는 우리에게 상당히 어리석은 자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나태하여 고통

받을 만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제 길을 찾기도 하고, 안일해지면 또 다시 고통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모두 역시 파라오만큼이나 어리석은 때가 많은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 반을 정리해 보자.

- *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권능을 주신 주님은 누구로 하여금 그를 돕도록 하셨는가?
- * 모세의 말을 들은 파라오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 * 파라오의 고집을 꺾기 위해 이집트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 * 제일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두 번째 재앙을 일으켰는가?
- * 모세 외에 누가 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권능을 행사했는가?
- * 파라오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가?
- * 그래서 파라오는 무엇을 약속했는가?
- * 파라오는 그 약속을 지켰는가?
- *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제 2반

본문과 성경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하는 형식으로 공부한다. 답을 모를 경우에는 주어진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자.

단어 「exodus」는 “나카다”라는 뜻이며, 성경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가 광야에서의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는 상당히 친숙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 * 파라오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1:15-16)
- *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어떻게 구하려고 했는가? (2:1-4)
- * 모세는 누구에게 구해졌는가? (2:5-10)
- * 왜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갔는가? (2:11-14)

- * 그는 어디로 갔는가? (2:15)
- * 모세의 장인은 누구인가? (2:16-21)
- * 주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3:1-6)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3:10)
- * 주님은 모세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 주셨는가? (4:1-5)
- * 주님은 모세의 일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두셨는가? (4:14-17)
- *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가? (5:3)
- * 파라오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5:4-9)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먼저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권능의 이적을 파라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렀고, 그들도 똑같은 이적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한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은 이적과 비슷한 것을 마술로 보여주는 능력이 있었다. 이는 그들이 영이나 마음에 의하여 자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을 상응(correspond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집트인들에게도 전해 내려왔던 것이다. 또한 상응에 관한 학문은 이집트인들에게 아주 좋아하는 연구 대상이기도 했다. 마술사나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은 이 지식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겉으로만 보고서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적과 유사한 것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않아 주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모세가 행한 이적 중 아주 단순한 것만을 뒤따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세나 아론 그리고 지팡이를 통하여 열 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내리셨는가를 보여준다. 열 가지 재앙들을 순서대로 간단히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그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다.
2. 수많은 개구리들이 강에서 튀어나와 모든 것에 달려들다.
3. 땅의 먼지가 이 또는 모기로 변하다.
4. 파리 떼(등에 떼)가 땅의 모든 것을 덮다.

5.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다.
6. 모든 사람 곧 마술사까지도 종기에 앓다.
7. 천둥과 우박이 모든 들판을 파괴하다.
8. 메뚜기 떼들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다.
9. 어둠이 온 땅을 3일 동안 덮다.
10. 그 땅의 첫 자식이 한밤중 사이에 죽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재앙들 중 어떤 것도 히브리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정도의 재앙들이라면 파라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을 가지 않게 하지 못할 것임에 동의할 것이다. 파라오는 하나의 재앙이 절정에 이르러 견디기 힘들어지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재앙이 멈추면 즉시 바뀌고 말았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실행하여 곤경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올바르게 처신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곤경에서 헤어나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곤경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망각하게 된다.

재앙은 지속적으로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다. 파라오의 마술사나 신하들조차도 파라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간청했으나 그의 마음은 너무 완고했다. 이러한 파라오의 모습은 한 번 잘못된 길에 빠진 이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은 결국 그의 고집을 꺾고 말았다. 그래서 파라오는 히브리인을 이집트에서 떠나가도록 허락했다. 비록 한참 후에 그의 마음이 다시 변하여 히브리인들을 홍해까지 추격해 왔지만, 주님의 권능은 파라오의 군대를 또 다른 이적으로 격파해 버렸다. 각 재앙의 깊은 의미는 차후 또 공부하게 될 것이다. 각 재앙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을 거절하고 고집부릴 때 발생하는 것들에 관한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재앙들은 우리의 영혼 속 좋은 것들이 하나씩 파괴되어져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는 때까지 진행된다.

제 3반

본문의 내용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여 재앙의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는 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했다는 것과 요셉의 치적을 아는 파라오와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본문의 재앙들을 연결하여 본 반을 진행한다.

우리는 앞서 기억적인 지식의 올바른 사용에 관하여 배웠다. 요셉의 시대에 파라오는 우리 마음의 바깥쪽 면을 통치하는 선한 원리들을 표현한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전 국토를 다스리는 자로 임명했다. 이 모습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지혜를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한 후 나일강 삼각지의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함으로써 7년 동안의 기근으로부터 보호되었던 것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과 사뭇 다르다.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이 이미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이집트에 체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하게 된 상황으로 시작된다. 야곱은 우리 삶의 자연적인 평면 또는 행동 면에서 있게 되는 선함을 말한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달되어야 하는 우리속의 선함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된다. 행동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선함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데, 교회명부에 이름을 등록한 후 세례를 받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선행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꾸려가는 것이 그 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수준에서 정착해 버리고 “이제 이 정도면 선한 인격자가 되지 않았나?”라고 자문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자신에게 필요 없다는 것처럼 여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거룩한 땅을 떠날 때 기근이 끝나면 그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이 죽은 후에도 안정된 이집트에서의 생활로 인해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무관심해져 버렸다.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그들의 땅에 대해서 잊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불붙은 가시덤불(출애굽기 3장)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물어보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의 속성 중 주님께서 거하시는 높은 부분을 표현한다. 이집트인들은 우리의 속성(屬性) 중 물질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측면을 표현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이야기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대의 파라오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다.

출애굽기 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이집트인이 겪게 되는 열 가지 재앙들에 관한 것을 말해준다. 주님께서 이 재앙들을 내리신 것이 아니지만, 파라오나 이집트인들은 그것들을 신의 벌이라고 느꼈다. 또한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도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보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이야기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으로서 설령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악한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 진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 다시 설명하자면,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고생을 모세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파라오로 하여금 그의 어리석음을 볼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완고함은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열 가지 재앙들은 파라오의 지성 속에 든 거짓과 심정 속에 든 악이 형상화되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누군가가 자연적인 삶 안에 정착하고 그것이 편안하여 주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잊게 된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과 세상만을 사랑하는 측면은 서서히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선을 씹어 삼켜 결국 그 사람의 지성 속 진리를 모두 멸절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재앙들로 그려지고 있다.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진리를 왜곡해 버림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악을 지지하는데 진리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는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을 베푸는 것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한다. 즉, 그는 “선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네 형제 중 작은 이에게 베푼 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논지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개구리, 모기, 이, 파리 혹은 피부병 등은 우리의 마음을 휩쓰는 독특한 악과 거짓의 형태들을 말한다. 작물과 가축 떼들이 몰사하는 것은 심정 안에 있는 선함들이 죽는 것을 말하고, 온 땅이 어둠에 덮이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영적인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되는 무능력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재앙인 만배 새끼들의 죽음은 이러한 상태에 도달된 사람들은 항구적인 진리나 선함을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이루어 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상응의 측면에서 각 재앙들을 살펴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파라오가 처음에 있게 된 한 두 번의 재앙으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파라오의 모습은 이기적인 길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있는 특징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곤경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옛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신체적인 아픔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는 회개로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고 스웨덴북이 말한 까닭에 대한 부가설명이 된다. 공포나 두려움등과 같은 것은 악한 바램의 달성을 잠시 동안 재검토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우리 안의 바램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 진정한 변화는 오로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파라오 = 좋은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세상 삶의 원리
나쁜 측면에서 볼 때 세상욕의 원리
이스라엘의 후손 = 우리의 영적 가능성들

제 4반

각 재앙을 중심으로 토의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추론에 포로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의 자연적 속성, 즉 거듭나고 있는 사람의 자연적 속성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천국의 신비 제 5326항).”란 말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과거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내세운 파라오란 거듭나고 있는 사람의 자연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이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야겠다고 하며 각종 재앙이 자신들의 국토를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고집 부리는 파라오는 거듭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자연적인 측면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듭남의 유무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집트란 우리의 기억적인 지식의 평면을 말하며, 이집트인들이란 기억적인 평면 위에서 살게 되는 우리속의 다양한 부분들을 뜻한다. 이 세상에서 있게 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존은 기억적인 지식에 의존하게 된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본문과 본문 이후의 구약성서를 망라하여 우리속의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곳이 바로 보다 높은 우리의 평면으로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역대 파라오들이 요셉을 점점 잊고 히브리인들을 노예화시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진리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정리정돈 해놓는 상태에서도 우리속의 깊은 바다에 잠식해 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고개를 들고 나와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여 결국 보다 높은 우리의 본성까지도 노예로 전락시킴을 보여준다.

우리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끔찍한 범죄의 범인으로 잡히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곤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의 파라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호소하는 소리에 냉랭하게 비웃는 파라오의 모습, 즉 주님의 진리가 자신에게 호소해 오는 어떤 힘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가 어떤 것을 일깨워 주게 되면 그의 고집은 더 강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부딪침이 계속됨에 따라 결국은 그의 깊은 상태가 더 뚜렷해진다.

열 재앙들은 전적으로 물질주의적이며 세상적인 사람의 내적 삶 속에서 발달된 더욱 깊은 거짓과 악들이 그 자태를 차츰 드러내는 것을 그린다.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한다. 강에서 튀어나온 개구리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맞춰 추론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말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위의 두 이적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파라오가 개구리들을 제거하는데 모세를 시켜야만 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이집트인 마술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기의 습격은 위의 파라오 같은 마음이 “땅의 먼지”에서 튀어 오르는 것, 즉 감각적인 바램으로 인해 감염되는 것에 관한 표현이다. 이 먼지란 창세기 3장 14절에서 “흙을 먹어야 하리라”라고 뱀이 저주된 때의 흙과 같은 의미이다. 이 재앙 뒤에 따르는 등에 소동은 위의 감각적인 바램들의 결과로 마음 안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셀 수 없는 거짓 생각들을 말한다. 이런 감각적인 바램과 거짓 생각에 따르는 발견이란 한 인간 속에 있게 되는 자연적인 선한 바램들의 황폐해진 모습이 다섯째 재앙, 즉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황폐해진 마음 바탕이 되면 안쪽 삶에 든 악이 표면으로 돌출하기 시작한다. 이는 피부병이 전국에 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피부병 곧 악이 표면에까지 표출되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있었던 모든 진리와 선함이 파괴해지는데, 이것이 일곱째와 여덟째 재앙인 우박과 메뚜기 소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인간 마음과 일상생활 곧 안쪽 삶과 바깥 삶이 쓸모없이 되면 어둠이 땅을 덮게 된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은 더 이상 진리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 재앙, 즉 이집트의 모든 첫 배 새끼가 죽는 재앙이란 이러한 사람이 믿음을 놓았던 그 어떤 것 속에도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그 이유는 그의 심정 속에 선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그 믿음 역시 전혀 쓸모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에 관한 위의 표현들은 매우 어둡지만 이는 분명한 진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만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애쓴 사람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있게 되는 빛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의 굴레를 벗으려 한다는 것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어 내는 지도자로 주님께 의해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거듭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인생길에서 수차례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하지만 그곳에 내려간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거룩한 땅인 영적인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의 편리하고 안일함에 포로가 되면, 우리는 우리를 매어놓은 사슬을 부수고 어려운 길로 해서 되돌아오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주님의 법인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5반

요셉의 시대에서 그의 후손들이 노예화되는 시대까지의 파라오의 변화, 열 가지 재앙들, 마술사의 권능 그리고 파라오의 고집 등을 살펴본다.

상응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씩 열거되는 본문에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접하게 한다. 예를 들어, 주님은 모세에게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느님을 예배하도록 삼일간의 광야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모세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한 것은 주님이 파라오의 심정을 강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마치 주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게 한다. 또한 다섯째 재앙에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말해졌는데, 이후에 있는 우박의 재앙에서 주님을 두려워한 이집트인들이 제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 들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수행한 기적중의 일부를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을 통해 상응에 대해서 밝히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고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물질주의적인 삶의 철학에서 부수되는 특별한 악들과 그 악들의 파괴적인 결과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줌을 알게 해주셨다. 우리는 먼저 신성한 진리가 글자를 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말씀의 이야기들이 형상화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나오는 속임수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주님은 어떤 과업에 말씀을 주시게 있어서 받는 사람이 가진 그릇을 통해서 형상화 시키셨다는 것이다. 모세 속에 있던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명령을 살짝 비틀도록 유도했는데, 이런 모습이 후에는 완전히 다른 형상 곧 그의 자만심을 부추겨 올려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려 결국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질책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실 교훈을 위해 글자적인 이야기에서 위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라오의 완고한 저항이 하느님께서 부추긴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허용하셨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어긋나면 벌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자주 바꿀 것임도 주님에 의해 예견되었다고 기술되고 있으나, 이 역시 파라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결과였다.

앞서 우리는 이집트의 통치자로 요셉을 내세운 파라오가 거듭나는 마음의 자연적인 수준을 지배하는 원리를 표현함을 배웠다. 스웨덴북은 이 원리를 “새로운 자연적 속성”이라고 부른다. 최근 성경 원문 연구에 의하면 위의 파라오는 “목자 왕들”이라는 계보에 속한 파라오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파라오들은 다른 계보에 속한 왕들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자연적인 수준을 표현한다. 이 수준의 마음은 이스라엘 후손들로 표현되는 우리 속의 영적인 특질들이 자유로워지려는 어떤 노력에도 완강하게 고집 부린다. 위와 같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는 진리가 밝혀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들을 말한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이후 열 개의 재앙이 이집트를 차츰 황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재앙들은 주님의 신성한 능력이 어떤 의미도 없이 무작정 그 힘을 과시함으로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속박을 풀어줘야 하는 것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파라오란 우리 속에서 자연적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을 발밑에 두고 싶어 할 때 일어나는 저항과 같다. 어떤 이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진정한 질서가 거꾸로 되어 버려서 그의 의지와 이해성 속으로 흐르는 주님에게서 나온 힘은 파괴로 변하고 만다. 그리고 그 파괴란 그 사람 속에 든 선과 진리에 대한 파괴인 것이다. 이 파괴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는 계속되는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처음에는 기본이 상할 정도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 파괴되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모두 파괴된다. 스웨덴북은 우리에게 해독을 주는 모든 것은 우리 속에 든 악을 통해 생겨난다고 말한다.

이집트의 재앙들은 실재했던 것들로서, 주님으로부터의 벌이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것을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비는 물질을 통해 자아를

만족시키며 자신의 생각과 애정을 자연계에 집중시키는 영혼들은 이러한 재앙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처음의 두 재앙들은 재연해 보일 수 있었으나 그들이 더 이상은 재연하지 못했고 그들의 재주가 부족함을 깨닫자마자 모세가 신성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출애굽기 8:18-19). 스웨덴북은 동방국가들에 있었던 마술과 그에 관한 지식은 고대 교회로부터 전해진 전통 속에 있었던 상응에 관한 지식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과 파라오가 어떤 계획된 대본에 따라 연출된 것처럼 재앙들이 진행된 것을 의아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우리가 과식으로 인해서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의 해로움을 명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감당해 내야 할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과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새교회는 어느 누구도 벌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거듭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우리에게 오는 벌이란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인과일 뿐이다. 그래서 본문의 재앙들은 물질주의를 고집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정의 황폐함이 심화되어 가는 모습인 것이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일반적인 시험이다.

이집트의 열 재앙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북의 저서 「천국의 신비」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천국의 신비」를 읽으면서 하나의 재앙과 그에 따르는 재앙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첫 재앙은 진리의 왜곡 곧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부추기는 쪽으로 성경의 진리를 비꼬거나 사용할 때 있게 되는 모습이다. 이후의 단계는 이렇게 거짓화된 진리에서 어떤 즐거움을 산출하는 것인데, 이는 개구리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각 재앙의 간단한 의미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열 재앙의 간단한 의미

1. 물이 피로 변함 - 진리가 거짓화됨
2. 개구리가 기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다 - 마음이 거짓 논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참
3.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다 - 감각적인 바램이 지상적인 쾌락을 기대함으로 인해 흥분됨
4. 이집트의 온 땅이 등애로 썩대밭이 되다 - 온갖 거짓 생각으로 마음이 짝 차다
5.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다 - 모든 자연적인 선이 점차 파괴되다

6. 피부병이 전국에 번지다 - 속에 든 악이 생활 부분에서도 드러나다
7. 우박과 번개가 모든 작물을 파괴하다
 - 악으로부터 온 거짓들이 어린 시절에 마음속에 저장된 교회의 진리를 파괴함
8. 메뚜기가 남은 작물을 다 먹어 치우다
 - 밖으로 나타난 거짓들이 남아있는 모든 작물을 파괴함
9. 어둠이 온 땅을 삼 일간 뒤덮다 - 마음이 순수한 진리를 전혀 볼 수 없게 됨
10. 온 땅의 모든 첫배 새끼가 죽다 - 이타애가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저주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7273항: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많이 행하리라(출애굽기 7:3)’는 온갖 종류의 경고이며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표징과 이적이 진리의 확증을 의미함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신성한 권능의 수단으로 여기서는 경고들이다. 그 이유는 표징과 이적이 그들에게 거짓 속에 있었음과 신성한 권능을 보여주어 그들이 경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 속에 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고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저 세상 삶에 들어 올 때도 이들에 대한 저주가 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먼저 방문한 후 곧 검토된 후 있어지기 때문이다. 검토는 영들과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음을 납득하도록, 즉 그들이 저주받을 삶만을 영위하여 그런 성질 속에 있음을 깨닫도록 해 준다. 이리하여 모두 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필요가 없게 된다.”

「천국의 신비」 제 7280항: “이집트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출애굽기 7:5)’란 이집트인들이 신성을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란 신성을 두려워함을 뜻하고, 이집트인들이란 거짓 속에 있는 자들과 그 거짓이 만연된 것을 의미함에서 확실해진다. 신성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짓된 자들도 있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이 지옥을 억누르고 그 속의 사람들을 묶어두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올바르게 사는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묶어두는 끈 역할을 하는 까닭은 올바른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내적인 두려움으로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영혼이 멸하지 않게 되고 양심, 즉 양심 속에 든 선과 진리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되어서 공의와 공정 곧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해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타애의 애정과 결합되는 정도만큼, 즉 주님 사랑에 결합되는 정도만큼의 두려움(경외함)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있게 되는 내적인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두려움이나 양심을 위한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맞는 거짓 원리를 가지고 혹독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적인 두려움 대신 외적인 두려움, 즉 자신의 명예나 소득을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나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바로 악한 자들이 갖는 두려움이다. 악한 사람들은 저 세상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내적인 두려움으로 억류되거나 매여질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과거의 벌에 의해 외적인 두려움으로만 붙잡혀 있게 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악을 행함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거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신성을 두려워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외적인 두려움은 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바램도 결여되어 있고 단지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어떤 격렬한 벌에서 오는 공포만이 있게 된다.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가?
- 2) 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두려워했는가?
- 3)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누구를 들어 세우셨는가?
- 5)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6) 어떤 이적을 행해서 모세가 권능을 가졌음을 입증해 보게 했는가?
- 7) 누가 모세를 도왔는가?
- 8) 모세는 파라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0) 몇 개의 재앙이 일어났는가?
- 11)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 13)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14) 미술사들은 어떤 재앙을 흉내 내었는가?
- 15) 이집트는 우리 삶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이집트에 억류된 이스라엘 후손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열 재앙은 넓은 측면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이집트에 머물렀다 2)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3)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 4) 모세 5) 이집트에 재앙을 6) 지팡이가 뱀으로 7) 아론
- 8) 백성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9) 재앙으로 위협 10) 10 11) 물이 피로
- 12) 개구리 13) 첫배 새끼가 죽었다 14) 1-2번째 재앙 15) 세상적인 지식수준
- 16) 세상속에 노예가 된 우리의 높은 본성
- 17) 세상적인 인격을 고집함으로 퇴보되는 연속적인 단계들

9

메추라기와 만나

머리말

본장에서 상기해 둘 사항은 과월절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월절이 구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의 주님의 생애와도 깊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문 전의 이야기들인 홍해를 건너는 것과 긴 여행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되었던 과정도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6장

16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썩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3.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4.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 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5. 여섯째 날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음식을 차려 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이는 것의 곱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분이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7.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야훼께서는 너희가 당신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는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모세는 말을 계속하였다. “야훼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신다. 야훼께서 당신께 불평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나? 너희가 하는 불평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야훼께

하는 것이다.”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일러 주시오. 야훼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어 주셨으니, 모두들 그의 앞으로 나오라고 해 주시오.” 10.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2.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해거름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 주어라.” 13.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 아침에는 진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 안개가 걷힌 뒤에 보니 광야 지면에 마치 흰 서리가 땅을 덮듯이,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15.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양식이다. 16. 야훼의 명령이니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여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식구 수대로 거두어들이면 된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많이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덜 거두어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결국 저마다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었던 것이다. 19. 모세는 그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 두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0.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이 남겨 둔 것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 모세는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21.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들였고, 그 나머지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 22. 여섯째 날에는 일인당 두 오멜씩, 이틀 분을 거두어 들었다. 회중의 모든 대표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 일을 알리자, 23.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모두 쉬어야 하는 야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굶고 싶은 대로 굶고 끓일 만큼 끓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 두어라.”

24.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었으나 쉬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 그것이 없을 것이다. 26. 옛새 동안은 거두어들일 것이 있겠지마는 이레째는 안식일이니, 이 날에는 거두어 들일 것이 없다.” 27.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레째 되는 날에도 거두어들이려고 나가 찾아보았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었다. 28.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29.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레째 되는 날에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30. 그래서 백성들은 이레째 되는 날은 쉬었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었고 맛은 벌꿀과자 같았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야훼의 명령이시다.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대대로 보관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때에 광야에서 먹여 살린 양식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도록 하여라.” 33.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야훼 앞에 보관해 두도록 하시오.” 34. 아론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관 앞에 놓아 보관하게 하였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 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교리 요점

- * 재구성이란 무엇인가?
- * 거듭나지 못한 삶을 재구성시키기 위해 수반되는 곤란은 무엇인가?
- *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과월절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장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되는 광경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어진 휴식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 주님께서는 먼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적을 하나씩 베풀어 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불평은 이집트에 있을 때 가졌던 “고기 가마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집에 부족한 것이 많다면 다시 불평하기도 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은 새 집에는 없는 것이 옛 집에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또 다시 이사를 간다면 그는 새로운 집에 만족할 수 있을까? 그는 불평만 늘어 될 뿐 100%만족하는 집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옛말에 “불평이 일어나면, 먼저 네가 받은 축복부터 헤아려 보아라.”라는 교훈이 있다. 우리는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듯이 우리를 매우 온화하게 다루신다.

메추라기와 만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가르쳐 준다. 즉,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양식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도 포함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영적 양식이란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문제나 시험을 위한 지혜와 힘을 의미한다. 우리는 매일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며 일주일 동안 받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주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불평들을 모두 한쪽에 내려놓고 예배시간이나 성경 공부시간동안 주님 안에서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예배이며, 쉼이라는 안식하는 날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주일을 뺀 나머지 날들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일지 모른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곁에 비치해두고 계신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날마다 얻어야 할 양식이 있는 것이다.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로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상기시켜 준다.

제 1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과 관련하여 만나의 본성과 그 이름의 근원 그리고 수집에 따른 지시사항도 살펴본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나는데 동의하자 그들은 소유물과 가축 떼를 챙겨 즉시 떠났다. 그들은 출발에 앞서 주님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기 위한 축제를 가졌는데, 이는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매년 같은 날에 그 축제를 기념하도록 주님에 의해 명령됨으로써 그분께서 이집트의 노예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심이 그들의 마음에 기억되도록 했는데, 이 축제는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유사하다. 그들은 이 축제를 과월절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 축제 때에 열 가지 재앙들 중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었으나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룩한 땅으로 귀환하는 동안 주님에 의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다. 그들은 기둥이 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갔고, 기둥이 멈추면 멈춰서 야영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서 항상 앞에서 인도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홍해에 부딪치자 물을 갈라 그들로 하여금 마른땅을 디며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자 주님께서서는 물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지도 보여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연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해 주셨던 것들을 금방 잊어 버렸다.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다. 주님께서는 먼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셨던 것같이 우리의 우리도 똑같이 먹이고 계신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광야의 생활이 힘들어 지자 사람들은 무엇을 회상하기 시작했는가?
- *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셨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빵 대신 무엇을 주셨는가?
- * 만나(Manna)란 무엇을 뜻하는가?
- * 그들은 만나를 하루에 몇 번 발견했는가?
- * 각 개인당 얼마큼씩 모았는가?
(오멜(omer)은 히브리의 측량단위로 한 오멜은 대략 3-4리터에 해당된다.)
- * 그들이 만나를 밤새도록 보존하려고 했을 때 만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 * 이틀 분의 양식을 수집함이 가능했던 날은 언제인가?
- *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만나의 맛은 어떠한가?

제 2반

과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본 후 홍해를 건넌과 마라의 쓴 물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에 관하여 언급한다. 또한 만나의 일반적인 상응을 살펴보고 그것이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것도 강조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과월절을 마친 후 성급히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도자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안내자를 주셨다. 그것은 낮의 안내를 위해서 보내진 구름 기둥과 밤의 안내를 위해서 보내진 불기둥이었다. 그들은 기둥이 멈출 때는 멈췄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다. 여러분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것과 그들을 추격해 온 이집트 군대가 바다를 건너려다 익사당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즉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The Sower』라는 책에서는 그들이 지나간 지역들의 이모저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래 언덕들이 그들과 바다 사이인 오른쪽에 있고, 그들의 왼쪽에는 높다란 바위 언덕들이 벽처럼 서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도 없고 봄철인데도 태양은 매우 뜨거웠다. 이 계절에는 남동풍이 숨 막히는 먼지를 동반하면서 불어서 피부를 타게 만든다. 비는 겨울철에 그 지방에 내리나 갑작스런 홍수로 변하기도 하며 개울물은 즉시 말라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이집트를 나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과 음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임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불평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지닌 공통적인 경향성 중 하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과거의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회상하면서 불평하는 것이다.

본문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여행에서 먹여 주시는가를 보여준다.

『The Sower』라는 책에 의하면 메추라기는 그 지방에서 사는 새가 아니라고 한다. 메추라기는 봄철에 그 지역을 거쳐 가는 철새일 뿐이다. 즉, 겨울철을 아프리카에서 나고 이동하면서 잠깐 지나치는 것뿐이다. 이 새는 날개가 강하지 못하여 한 번에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잠깐 쉬면서 날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기보다 빵을 더 소원했을지도 모른다. 빵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곡물 가루들로 만들어 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다. 민수기 11장 7-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로 먹을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시편 78편 25절에서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라고도 불린다.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간 만나로 먹여졌다. 여호수아 5장 10-12절을 보면 그들이 거룩한 땅에서 곡식을 발견하자마자 만나가 멈춰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이

곡식을 재배하기 위해 갖가지 준비를 하지만, 인간은 씨와 새 그리고 동물들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본문에 있는 보다 깊은 교훈은 공부를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더 깊게 이해될 것이다. 만나란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또 다른 양식, 즉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표현한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주님으로부터 얻고, 그것을 신선할 때 사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한 음식을 한 끼에 다 먹을 수 없고 일주일 분의 양식 또한 하루 동안에 다 먹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 주위에는 일요일 하루 단지 몇 시간만 교회에 출석하면 나머지 날들에는 주님을 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같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경을 읽고 주님께 관하여 생각하며 장차 닥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선함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간구하는 기도문이 내포하는 진정한 의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질문으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사람들은 특별히 무엇을 갈망했는가?
- * 주님께서서 어떤 종류의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는가?
- * 하루 중 어느 때에 메추라기가 보내졌는가?
- *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모세는 그 빵이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는가?
- * “만나(Manna)”란 무엇을 뜻하는가?
- * 백성들은 하루에 몇 번 그것을 거두러 나갔는가?
- * 그들은 그것을 얼마큼씩 수집했는가?
- * 안식일에는 어떻게 음식을 먹도록 명령되어졌는가?
- *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려고 했던 만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만나는 무엇과 비슷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 * 그 맛은 어떠했는가?

제 3반

메추라기와 만나의 상응 그리고 양식을 모으는데 대한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단순하고 실용적인 교훈을 찾아본다. 그리고 본문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광야 여행의 시작에 포함되는 회개와 중생 그리고 거듭남도 살펴본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의 이야기들을 재정리 해 보자. 열 가지 재앙과 과일절의 제정이 있었던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과일절 음식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먹도록 명령되어졌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여행을 돕도록 금과 은 그리고 옷들을 내놓게 하셨다. 이후 그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고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 두 장소에서 멈추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을 마리아에서 가르치셨고, 그들이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하여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사항은 그들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엘림으로부터 바다와 나란히 가게 되는 남쪽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그들과 바다 사이에는 모래 언덕 그리고 왼쪽에는 가파른 벼랑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이 행로가 메마르고 황량하여 불평을 늘어놓기면서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갈망하며 그 때를 그리워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나 그분의 축복을 잇는 데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참을성이 많으시고 풍요로운 자비”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모세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창세기 첫 장을 공부하면서 저녁이 희미한 총명의 상태를 뜻하고 아침이 새로운 이해가 떠오르는 사랑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배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처하게 될 이러한 두 상태에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메추라기란 우리가 의를 행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칭송을 받아서 얻는 즐거움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저녁의 상태에 있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을 뜻한다. 만나(Manna)란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내향적인 행복을 말하며, 이는 새로운 영적 진보를 위한 시작이므로 아침의 상태에 해당된다.

만나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상응으로 이해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어진다. 만나는 아침 이슬과 더불어 내려졌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선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며, 이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워 둔 진리를 특별한 사건에 응용할 때 오게 된다. 시편 78편 25절에서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라고도 불린다.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양분이 공급되도록 물질적인 형태로 주어진 천사들의 양식이며, 이는 신성한 선이 우리를 위해 굳어져 버린 우리의 행동들

안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다고 스웨덴북은 말한다. 만나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의미이며,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무엇이 영적인 선으로 의미되는지 알지 못한다. 스웨덴북은 영적인 선을 “진리의 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응용함에 따라 진심어린 기쁨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나는 날마다 수집되고 그날 먹기에 충분한 만큼만 거두어져야 했다. 주님의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일주일동안 필요한 음식물을 하루에 모두 섭취할 수 없듯이 일주일을 살아 낼만큼 충분한 선함을 일요일 단 하루 만에 흡수할 수 없다. 우리의 영적 강함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유지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하더라도 배움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 이것은 하룻밤을 넘은 만나가 “구더기가 썩고 썩는 냄새가” 났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고 계신다. 안식일은 평화와 안식이라는 생기를 우리가 다시 되찾는 상태이며, 이날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모아진 것으로 즐길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의 광야 여행 동안 만나로 먹여졌고, 그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은 중단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과 싸우는 동안에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려준다. 이스라엘 족들의 광야 여행이 “재구성”의 시기를 그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즉 갑작스런 종교적 경험으로 기독교인이 되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며, 어떤 교회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이러한 종교적 귀의 곧 개종으로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며,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명한다. 하지만 새교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개종과 구원을 믿지 않는다. 종교적 귀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머나먼 영적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convert”란 단어는 “turn with” 곧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자아가 아닌 주님께로 방향을 바꿔 향해야만 한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사항은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체류함은 자기 탐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주님께 순종하여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한 그들의 결정은 앞서 언급된 종교적인 귀의와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단계였다. 그들은 예정지에 도착하기 위해 먼 길을 가야만 했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우리는 새교회의 가르침에서 회개와 재구성 그리고 거듭남이란 단어들을 자주 접한다. 진정한 회개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이기적이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이기적인 측면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게 될 때 우리는 차츰차츰 우리의 삶을 주님께에서 온 선과 진리로 “재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재구성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실망하며 주님께 신경질적으로 반역하고, 때로는 뒤로 미끄러져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전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방법)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땅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람 곧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메추라기 = 선함에서 오는 자연적인 만족

만나 = 영적인 선 또는 진리의 선 - 선함에서 오는 순수한 행복

제 4반

구원에 관한 새교회의 교리와 타교회 교리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각종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한다.

우리는 광야 여행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자아와 세상에 속한 삶의 상태 그리고 “거듭남”이라 불리는 삶의 상태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영적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 시대 때에 군림한 파라오의 지휘 하에 있는 이집트란 우리의 영적 가능성들이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에 노예화 된 상태를 표현해 준다. 모세는 우리가 지도자로 삼아야할 주님의 법을 표현한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은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후손들을 떠나도록 허용하는데 확신하도록 했다. 또한 그것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과 모세야말로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느님의 대리자임을 확신하도록 해 주었다. 우리가 성경에

서 거룩한 땅으로 표현되는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적인 삶이 자신을 노예화시킴을 스스로가 보고 깨닫는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

과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저녁에 기념되었던 절기인데, 이는 우리가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바램이나 생각들로 이뤄진 사상체계를 버리고 주님께 의한 인도를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은 재구성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접어드는 표시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삶이라는 거룩한 땅의 경계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법도에 의거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있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행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재구성이라는 시기를 표현한다. 이 재구성의 첫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한 후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시험이며 이를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결심이 진정으로 확고해지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는 승리 후 구름과 불기둥의 안내를 받으면서 시나이 반도 동쪽 해안을 따라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라에서 그들에게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샘이 열 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서 그들에게 쉼과 새 활력을 갖는 시간을 주셨다.

개종이란 종교를 바꾸거나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개종이란 단어는 부흥회와 같은 종교 모임에 참석하여 갖게 된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근거로 하여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때 흔히 쓰인다. 그러나 새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구원된다고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인간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가득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길로 향할 것을 결심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구원이 가능할까? 사실 이렇게 바꾼 방향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환이란 구원을 향한 가나안 여행길의 한 점에 불과할 뿐이다. 구원의 길은 시험에 시험이 잇따르는 세월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이히는 길고 고된 영적 여행이다. 우리는 이 여행에서 때로 승리를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뒤로 자빠져서 패배도 감내해야 하며 자주 실망하여 주님께 반역적으로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안내로 한 걸음씩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에 다가가게 된다.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는 썩 광야가 놓여있다. 이 광야는 그 이름의 뜻이 “진흙”인 것처럼 메마르고 뜨거우며 먼지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전환하여 삶의 패턴을 바꿔갈 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려준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보내진 시점이 바로 이 때였다. 메추라기란 선을 행함에 따른 외적 만족을 표현한다. 외적 만족이란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려고 애쓸 때 이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사랑해주고 경외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우리를 인정함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만족감은 단지 일시적인 부추김에 불과하다. 이것은 메추라기가 주님께 서 보내시는 정규적인 양식이 아니었던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에게 외적 만족이나 쾌락보다 더 긴요하게 필요한 것은 만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만나를 주시는 다양한 모습은 경이롭고 아름답다. 우리는 자신을 재구성해 가는 시기에 언제나 위를 보게 되는데 외적인 결과 이상의 어떤 것이 없으면 한결같이 위쪽만을 향하여 재구성의 시기를 견지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이 시기에 얽어지고 자빠져 코가 깨지는 체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나란 영적인 선으로, 스웨덴붉은 그것을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선” 또는 “영적 인간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나?”라고 서로에게 물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동안 그들을 지탱시켜준 양식이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이나 삶을 처음 대하게 될 때 그것이 여태껏 경험해 온 즐거움들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주님을 섬기는 노력에서 오는 순수한 행복이 바로 만나의 맛이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만나를 날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수집해야 한다. 여기서의 아침이란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자연계의 아침뿐만 아니라 각자의 새로운 심정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먼저 아침에 이슬이 땅위에 내리는데, 이는 각기 새로운 심정 상태가 새롭게 여겨지는 진리를 받음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후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여 힘을 얻도록 하는 내적 만족인 것이다. 그런데 만나는 “햇볕에 녹아 버렸다.” 이는 우리에게 새롭게 여겨진 내적인 만족도 새로운 심정상태가 또다시 새로운 시험을 거치게 되면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에 힘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을 상기해보자. 시편 78편 25절에서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 양식을 거둬들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울바름을 견지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얼마만큼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는지도 측정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과 경건한 흥미로 인해 도를 넘어 지나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0절에는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는 모세의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겨둔 만나는 “구더기가 끓고 썩는 냄새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의 열심과 경건함을 넘어서는 말씀 공부는 오히려 그것의 분량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맛도 잃게 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만나를 수집하지 않았다’함은 우리가 일요일에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승리 후에 오는 쉼과 평화의 거룩한 상태이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6일간 노력한 것과는 달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한 걸음씩 재구성을 이루어 가는데, 이사야의 말처럼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나날이 보태어 정진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우리는 이를 깨닫고 영적 풍요로움이 가득한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정진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재구성에서 거듭남으로 그리고 자연적인 기쁨에서 영적인 선으로 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여행은 우리의 재구성의 시기를 그린다. 이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을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일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주님께 대한 순종은 여전히 자아로 가득 차 있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재앙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한 몫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집트인들의 속박을 깨야함과 즉시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도록 했다. 이 결심과 그들의 해방을 상기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 당시 기념한 과월절은 그 후에도 해마다 기념하도록 명령되었다. 이와 유사한 기념식은 주님이 지상에서 그분의 마지막 과월절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를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하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뤄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석할 때 주님의 자녀라는 “표시와 표적”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

기를 간구한다. 이집트를 떠나기로 한 그들의 결심이란 거듭나기로 결심한 모든 이들이 빠르던 늦던 간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정이란 세상적인 욕심과 제멋대로의 삶을 등 뒤로 하고 영적인 삶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 결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단계지만, 이는 거시적인 의미에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의 거듭남이 서술된 스웨덴북의 창조 이야기를 회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요즈음의 모든 사람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상태는 첫 날(상태)이다. 그 나머지 중 일부는 둘째 날에, 또 얼마는 셋째와 넷째 그리고 다섯째 날(상태)에 해당된다. 그리고 극히 드문 수가 여섯째 날에 해당되며, 일곱째 날의 상태에 들어가는 이는 거의 드물다.” 거듭남은 인생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우리에게도 가능한 천사의 속성을 향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성장의 과정동안 앞으로의 전진만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올바른 질서로 가져다 두려는 우리의 노력이 시종일관 붙어 다니는 시험과 실패 그리고 고난과 반역적인 성향을 묘사한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한 후에도 전쟁이 계속되었고 그에 따라 후퇴와 패배 또한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변화하는 심정상태에 주님의 섭리가 작용되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지지하시는가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우리가 전진하는 길을 따라 승리와 쉬는 때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경이로운 방법들에 관한 묘사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본문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변화 없는 현존하심과 섭리하심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이집트에 남겨둔 외적 즐거움을 갈망하고 과거의 즐거움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이집트에서의 노예 신세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고,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열망하는 그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양식을 보내셨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 제 8426-2항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상응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저녁때가 이전 상태의 끝을 명시하는 이유는 저 세상에서의 상태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의 하루 일정 곧 아침, 정오, 황혼 또는 저녁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계에서도 항구적인 상태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런 변화를 그곳의 모든 이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영인들은 질서에 따라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 영계나 이 세상에서는 매일의 하루하루와 매해가 되돌아오지만 그날과 그 해는 결코 이전의 날과

해와 같이 맑고 다양해진다. 모든 상태의 시작은 지상에서 있는 아침에 상응되므로 말씀에서도 아침이란 단어는 어떤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태의 끝은 저녁에 상응되므로 말씀에서 저녁은 상태의 끝을 의미하여 기술된다. 따라서 각 상태가 아침이라는 것은 그들이 사랑 속에 있음을 뜻하고, 정오라고 함은 그들이 빛 가운데 혹은 진리 가운데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녁일 때 진리의 측면은 흐릿하나 자연적인 사랑의 기쁨 안에 있게 된다. 이 기쁨은 저녁때에 받게 된 메추라기로 의미되고, 선은 매일 아침 받게 된 만나로 의미된다.”

본문에서 메추라기는 “자연적인 기쁨을 통과하면서 선해짐”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와 선함 속에서 이타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할 때 자연적인 것에서 오는 만족감 곧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오는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주위의 칭송을 듣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견지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본문의 메추라기와 민수기 11장 10-23절 그리고 31-34절의 메추라기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메추라기는 보내졌지만 재난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추라기에 너무 게걸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지나치면 독선에 입맛을 다시게 되고, 그러한 기쁨 속에 오래 머무르면 안전해질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문의 이야기는 신성한 섭리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계속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는가를 보여준다. 만나를 수집함에 따른 지침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부분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6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일요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다 거둬들일 수는 없다. 즉,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고 각 날의 문제점은 전 날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아침 이슬과 더불어 내려진 만나는 “처음 형성된 진리의 선”을 표현한다. 「천국의 신비」 제 8462항에서 주님의 새로운 선물인 “만나”는 다음과 같다. “ ‘만나’란 단어가 알려지지 않은 것에 깜짝 놀람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언어적인 구조에서 ‘무엇’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임으로부터 확연해진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빵이 만나라고 불린 까닭은 그것이 믿음의 진리를 통하여 낳은 이타애의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거둬나기 전의 인간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78편 25절에서 불리는 천사들의 양식이 곧 실제의 만나임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봄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452항: “ ‘저녁때가 되자 난데없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들이 진을 친 곳을 뒤덮었다.’란 구절은 자연적인 기쁨을 통해 선이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메추라기’의 의미가 자연적인 기쁨이라는 것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다. ‘메추라기’가 자연적인 기쁨을 명시하는 것은 메추라기는 바다의 새였기 때문이다. 바다의 새는 자연적인 것을 의미하고, 바다의 고기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기쁨을 통해서 선이 있게 됨을 명시하는 까닭은 저녁때가 되자 메추라기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저 세상의 삶에도 저녁때에 상응되는 상태가 있는데, 이는 선한 영들 곧 천사들이 과거 세상에서 가졌던 자연적인 인간의 기쁨인 자연적인 애정으로 돌아가는 상태이다. 이렇게 된 위치되는 이유는 선이 그 상태에서부터 나오기도 하며 그들이 그런 상태로 인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외적인 인간 곧 자연적인 인간 안에 이타애와 믿음이 이식됨으로써 완전해진다. 이타애와 믿음이 인간에게 이식되지 않으면, 선과 진리는 내적인 인간 혹은 영적인 인간 곧 주님으로부터 그 인간 안으로 흘러갈 수 없게 된다. 즉, 자연적인 인간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 것과 같아서 흘러 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받을 그릇이 없으면 유입은 멈추고 멀해지는 것이다. 즉, 내적인 인간 역시 닫히고 만다. 위의 사항으로 명백한 것은 자연성은 숙박시설과 같은 상태로 있어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기쁨을 수단으로 있어진다. 자연적인 인간에 속하는 선들이 기쁨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이 기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족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무엇이 그들의 여행을 인도했는가?
- 3) 주님께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그들이 썩 광야에 접어들자 어떤 불평을 늘어 놓았는가?
- 5) 주님께서는 저녁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는가?

- 6)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 7) 그들은 발견한 것을 어떻게 불렀는가?
- 8) 만나란 무엇을 뜻하는가?
- 9) 만나를 수집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 10) 만나를 수집하는 명령사항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1)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집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가?
- 13) 주기도문에서 만나를 상기하게 해주는 구절은 무엇인가?
- 14)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족은 무엇을 그리는가?
- 15) 메추라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만나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과일절 2) 구름(불)기둥 3) 물을 가르심 4) 고기가 없다고 5) 메추라기
- 6) 싸라기 같은 빵 7) 만나 8) 이게 무엇이나? 9) 매일 한 오멜씩
- 10) 더 수집한 만나는 썩었다 11)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로 수집함 12) 40년
- 13)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4) 재구성
- 15) 선을 행함에서 오는 외적 만족
- 16)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에서 오는 영적 선함

10

성막

머리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나이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일 년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의 출발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나이 지역에서의 일 년에 관한 것과 그곳에서 이뤄진 것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시나이에서 주어진 법과 예배의 외적 형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로 응집시켜 주었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26장, 27장

26장: 1. 내가 살 성막은 피륙 열 폭을 들어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실과 자줏빛 양털과 붉은 빛 양털과 진홍빛 양털로 무늬를 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2. 그 길이는 이십 팔 척, 나비는 사 척으로 폭마다 치수를 같게 하여라. 3.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4. 나란히 이은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 자줏빛 털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같은 고를 만들어라. 5. 한 쪽 끝에 붉은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이와 서로 맞닿게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6.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서로 맞걸어서 한 성막을 만들어라. 7.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은 염소털로 짠 피륙으로 열 한 폭이 되게 만들어라. 8. 그 열 한 폭은 길이가 삼십 척, 나비가 사 척으로 모두 치수를 같게 하고 9.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남은 여섯 폭도 따로 이어라. 그리고 천막 앞쪽에 늘어지는 여섯째 폭은 접어 올려라. 10.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 고 오십 개를 만들고, 다른 한 쪽 끝에 붉은 폭 가장자리에도 고 오십 개를 만들어라. 11. 그리고 놋쇠로 갈고리 오십 개를 만들어 두 쪽을 맞걸어 한 천막이 되게 하여라. 12. 여분으로 남은 천막 반폭은 장막 뒤쪽에 늘어지게 하고 13.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일 척씩 남는 부분은 장막 양 옆으로 늘어뜨려 덮게 하여라. 14. 또 주홍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워라. 15.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라. 16. 널빤지 길이는 십 척, 나비는 일척 반으로 하고 17. 널빤지마다 축꽃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성막의 널빤지는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18. 성막 오른쪽인 남쪽 가장자리에는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우고 19. 그 널빤지 스무 장을 세울 밀받침 마흔 개는 은으로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축꽃이를 꽃을 밀받침 두 개를 만들어 놓아라. 20. 그 반대편인 성막 북쪽 가장자리에도 널빤지 스무 장을 만들어 세워라. 21. 그리고 은으로 밀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다른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놓아. 22. 성막 서쪽인 뒷면에는 널빤지 여섯 장을 만들어 세우고 23. 널빤지 두 장을 더 만들어 성막 뒷면 두 귀퉁이에 겹세워라. 24.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세워서 첫 고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널빤지 두 장을 세워 두 귀퉁이를 벌려라. 25. 한 널빤지 밑에 밀받침 두 개, 또 한 널빤지 밑에도 밀받침 두 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 여덟 장에 밀받침은 모두 열여섯 개가 된다. 26. 아카시아나무로 널빤지들을 펠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 다섯 개, 27. 성막 다른 쪽 옆구리의 널빤지에도 다섯 개, 성막 서쪽인 뒷면 널빤지에도 다섯 개를 만들어라. 28. 중간 가로다지는 널빤지들 가운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마치게 해야 한다. 29.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펠 널빤지 고리는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30.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31.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거름 모양의 무늬를 놓아 가며 휘장을 짜라 32. 이 휘장을 칠 기둥 네 개는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거기에 휘장을 칠 금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으로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 기둥들을 그 위에 세워라. 33.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모셔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것이다. 34.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35. 휘장 앞에 젓상을 놓고 젓상 맞은편 성막 남쪽 가에 등잔대를 놓고 젓상을 북쪽 가에 놓아라.

36. 성막 문간을 가릴 막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가며 짜라. 37.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 기둥에는 금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밀받침 다섯 개는 놋쇠를 부어 만들어라.

27장: 1. 아카시아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오 척, 나비 오 척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삼 척으로 하여라. 2. 제단 네 귀퉁이에는 빨 네 개가 돌아나게 만들고 제단에 놋쇠를 입혀라. 3. 그을음받이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를 놋쇠로 만들어라. 4. 제단에 두를 놋 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엮어서 만들고, 이 철망 네 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6.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 놋쇠를 입혀라. 7. 그 채는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8.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그대로 만들어라. 9. 성막을 둘러 쌀 울은 남쪽 오른쪽에 길이 백 척 되는 휘장을,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만들어라. 10.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1.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백 척 되게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무 개와 밀받침 스무 개는 놋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12. 서쪽 울에 칠 휘장은 길이가 오십 척 되게 만들고 휘장을 칠 기둥 열 개와 밀받침 열 개를 만들어라. 13.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오십 척이다. 14. 그 정문 한 쪽 가에 밀받침 세 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5. 다른 쪽 가에도 세 밀받침 위에 기둥 세 개를 세운 다음 십 육 척 되는 휘장을 쳐라. 16. 울의 정문에 드리울 막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 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천으로 이십 척 되게 만들고 그 기둥 네 개와 밀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17. 울을 돌아가며 세울 기둥마다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에 놋쇠로 된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8. 울의 길이는 백 척, 너비는 오십 척, 높이는 오 척이 되게 놓아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는데, 놋쇠로 만든 밀받침을 받쳐야 한다. 19.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울에 박을 맡뜯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20.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짙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21.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등불을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의 휘장 밖에 켜 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교리 요점

- * 질서적인 삶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 * 모든 개개인은 가장 작은 형태의 교회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과 불기둥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떠났을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속박에서 막 탈출한 유목민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3개월 후 시나이이라고 불리는 큰 산에 도착했는데, 그 산은 평지에 우뚝 세워 둔 것처럼 보였다. 구름과 불기둥은 그곳에서 멈췄고, 그들은 산 앞 평지에 진을 쳤다. 이후 그들은 거의 일 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을 규율할 방대한 법전을 그들에게 주시므로써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형성시켜 주셨다. 당시 주어진 법전은 오늘날의 법전과는 달리 종교가 중심이 된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는 십계명이었다. 사실 계명들은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계명들이 모세 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다른 나라의 법전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법들이 인간 사회의 진정한 기초가 되며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느님에 의하여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임을 염두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 법이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시나이 산 꼭대기로부터 불과 연막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말해졌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계획서와 그 안의 모든 가구들과 그곳에서 집행될 예배에 관한 모든 지침도 주셨다. 이렇게 지어진 성막은 진지 중앙에 위치해졌고, 행군할 때에는 대열의 중앙에 있도록 분부되었다.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집”으로서 인간들 사이에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였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었는데, 이는 하느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하느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주님의 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뻗쳐 나아가 지휘 감독하게 된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세워진 성막이란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과 그분의 진리가 세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성막과 그 내부에 있는 세 장소 그리고 가구들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들은 차후에 다루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을 공부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고린도전서 3:16)”라고 쓴 서한을 상기하기 바란다.

제 1반

성막의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수를 놓는 것이나 색깔들을 강조한다. 본 반의 내용은 교회가 주님의 집이라는 것과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성막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세 장소와 성막의 제기 그리고 집기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세 가지 금속을 기억하도록 한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주님의 집이라고 불린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배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 머무르는 동안 주님에 관한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을 모두 잊어 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오랜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전 시나이 산이라고 불리는 산 밑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머물도록 하셨다. 이후 그분은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법, 즉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예배에 대한 지시사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듣도록 불과 연기 가운데서 산 위로 내려 오셔서 계명을 말씀하셨다. 그 후 그분은 백성들이 그분을 예배할 집 곧 성막을 어떻게 지어아하는지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중이어서 우리와 같은 집이나 교회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그들은 천막에서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그들의 교회 역시 천막이어야만 했다.

질문 및 요점정리

- * 성막의 길이는 약 45피트였고 폭은 15피트였다.
- *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성막은 무엇으로 씌워졌는가?
- * 입구는 무엇이었는가?
- * 또 다른 커튼은 휘장이라고 불렸고, 이를 가지고 성막을 두 칸으로 나눴다.
- * 안 부분을 지성소 그리고 바깥 부분은 성소라고 불렀다.
- * 바깥뜰은 기둥에 건 커튼으로 둘러쳐져 있는 열려진 울이다.

- * 성막에 있는 모든 나무는 금박으로 입혀져 있었다.
- * 널빤지를 놓는 기초는 은으로 되어 있었다.
- * 바깥 울을 위한 기둥들과 받침들은 놋쇠로 되어 있었다.

제 2반

우리의 삶과 성막의 세 장소가 갖는 의미의 연관성을 살펴본 후 성막 안 가구들의 의미도 살펴본다. 하지만 성막이 지어졌던 과정과 그 모양을 사실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막의 길이는 13.5 미터였고, 그것의 넓이는 대략 4.5미터 정도였다. 그리고 성막을 둘러싼 울의 넓이는 약 22.5 미터였고, 그것의 길이는 45 미터 정도였다. 성서의 규격인 1큐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인데, 요즘의 수치로는 46-56cm 정도이다. 성막과 그 안의 가구들을 위한 모든 재료들은 백성들의 자유로운 헌납으로 모세에게 모여졌다. 우리는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셨음을 36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성막은 베일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커튼(휘장)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안쪽 부분은 입방체로 지성소라고 불렀고, 다른 부분은 성소라고 불렀다.

성막에 쓰인 판자들은 각 판자가 밑 받침대 위에 세워질 때 서로 잘 맞도록 만들어졌고, 금 고리가 긴 가로다지를 꿰어 잘 맞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막은 금방 세워지기도 했고 빨리 철거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야영할 때에는 진영의 중앙에 성막을 세웠고, 행군할 때에는 대열의 중앙으로 성막을 운반했다. 레위지파 곧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만이 성막을 관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성막 내부치장의 연결이 금으로 되어 있었고 성막 울의 연결은 놋쇠나 구리로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성막 안에 사용된 세 가지 금속들과 그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막에 사용된 나무들은 가시가 돋친 아카시아 나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8-22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성막은 성전과 다름없이 주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거하시는 장소로 지어졌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이 거하셨던 인간의 몸은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였으므로, 그분은 그것 역시 성전이라고 부르셨다. 우리 역시 우리 속에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가질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들 안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져 있다. 우리의 “지성소”는 가장 깊은 심정이며, 주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우리의 “성소”는 우리의 지성이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에 관하여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바깥뜰”은 우리의 행동이며, 여기서 비로소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열려지게 된다.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가구가 궤뿐이었음을 주목하고, 궤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십계명의 두 돌 판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명기 6장 6절, 시편 40편 8절, 119편 98절, 이사야 51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보기 바란다. 이는 그 구절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막 속의 지성소 안에 궤가 있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성막이란 무엇인가?
- * 이스라엘족의 첫 교회가 텐트였던 까닭은 무엇인가?
- * 성막의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그 벽의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성막 꼭대기를 씌운 세 개의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바깥 주위의 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성막의 모든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 * 판자 밑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바깥뜰의 커튼이 걸어지는 고리는 무엇이며, 그 받침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제 3반

성막에 대한 상응을 주로 언급한다. 그리고 건축에 사용된 세 가지 금속들과 그들의 위치도 살펴본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접어들어 약 3개월이 지난 뒤 시나이 산에 도달했고 산 아래의 평지에서 야영을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의 일 년 동안 체류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 체류한 기간 중 후반기는 그들이 노예 상태로 있었던 처지여서 그들이 훈련되지 않고 비조직적이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조차 잊고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알려 주어야 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그들의 하느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시나이에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이 계명이 주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유는 십계명이 불과 연기로 자욱한 산꼭대기로부터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뒤 모세가 산 위로 불러 졌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침과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법을 그에게 주셨다. 이 때 주어진 법들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발견된다. 레위기서는 종종 레위지파 인들에 대한 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레위지파가 예배에 대한 임무를 가지도록 주님께 의해서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시나이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지침 중에는 성막의 건축과 그 안의 설비들에 관한 것들이 있다. 이후 성전으로 불리는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계시는 장소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지성소에 있는 궤위의 속죄관으로부터 대 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이 진을 칠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었다. 성막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안의 장소를 상징한다. 이는 아주 깊은 면에서 성막이 주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그분의 신성한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막의 형태는 우리 삶의 형태로, 우리는 이것으로 인격을 형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막의 세부사항은 우리를 위한 의미들로 가득 차 있다.

성막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들을 본장에서 한 번에 공부할 수는 없다. 본 반에서는 성막의 세 구역과 성막에 사용된 세 가지 금속들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세 구역이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을 곧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말한다. 이 구역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생각과 행동에 상응된다. 지성소는 결코 걸혀지지 않는 베일로 가려져 있어서 누구도 그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심정을 눈으로 보거나 생각으로 알지 못한다. 즉, 우리 자신조차도 자신 안의 깊은 심정에 무엇이 있는지 좀처럼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성소 역시 베일로 가려져 있으나, 그곳은 성막의 예배를 위해 사제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커튼이 한쪽으로 젖혀져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역시 우리 속에 감춰져 있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대화나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속에 있는 생각들을 엿 볼 수 있다. 성막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었다. 즉, 우리의 행동은 모든 이가 굳이 탐색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태임을 말한다. 본과의 뒤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면, 성막의 각 장소에 어떤 설비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설비들은 각각의 상응을 가진다.

이제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속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나무는 물질적인 선 또는 유기체적인 선에 상응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자연적인 수준에서 있게 되는 선행에 대한 자극을 말한다. 그리고 나무들을 금으로 입히도록 명령되었다. 금이란 주님만이 선하시다는 인식에서 오는 순수한 사랑을 말한다. 속 덮개는 금고리가 서로 조여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전 인생을 통일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의미한다. 성막 벽을 받치는 밀받침들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면과 지적인 면의 삶을 떠받쳐 주는 것이 진리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수양 기적으로 된 세 번째 덮개의 고리들은 구리 또는 놋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막울에 쳐지는 커튼을 걸 기초도 놋쇠로 되어 있었다. 놋쇠 또는 구리는 자연적인 선을 그린다. 놋쇠나 구리로 상징되는 자연적인 선이란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있게 되는 선이다. 이 종류의 선은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며 나아가서 삶을 통일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막을 짓거나 설비를 위해 쓰인 모든 것이 백성들의 자유로운 기부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인격의 진정한 일부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인격 발달이 주님과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여 있게 됨을 뜻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성막과 각종 설비들을 위해 일하도록 뽑혀진 사람들에게 “합당한 능력”을 붙어 넣어주시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섬기고자 원한다면,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성막 = 주님의 방향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하여 살아감

지성소 = 가장 깊은 심정

성소 = 생각들

성막울 = 바깥쪽 삶 곧 일상생활

금 = 주님을 사랑함

은 = 진리

구리(놋쇠) = 자연적인 선함

나무 = 물질적인 선

제 4반

질서있는 생활의 중심에 종교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성막과 그 안의 모든 설비를 산에서 모세에게 지시하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누차 강조되고 있다. 서간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성막이 천국적인 인격의 모형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다(참조 히브리서 8:5).

성막은 세 구역 곧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계있다. 성막의 구조와 그 안의 가구들 그리고 제기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의 천국적인 인격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상징한다.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과 은 그리고 동(놋쇠)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자연적인 선으로 상응된다. 이 셋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을 성결하게 하며 통일화 시켜 그 인격을 떠 받혀 주게 된다.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된 커튼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계시록 19장 8절에서 해석해 주신 바,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의 근원은 무엇인가? 스웨덴붉은 이 모시가 천적인 근원에서 온 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 가지 색, 즉 청색과 자색 그리고 홍색은 각기 진리로부터의 천적인 사랑과 선으로부터의 천적인 사랑 그리고 영적인 선 또는 진리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속죄판 위에 있는 거룩들과 에덴의 동산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서게 된 거룩들은 모두 “천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옥에 의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려는 신성한 섭리를 의미한다. 염소 털로 짠 피륙이란 천국의 외부 또는 천적인 선의 겉모습을 의미한다. 수양 가죽은 진리들의 겉모습을 그리고 돌고래 가죽은 선들의 겉모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응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위의 용어들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애매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갖는 상응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심오한 의미를 표현해 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막 위에 씌울 덮개란 우리 속에는 동기와 생각을 옷 입혀 보호하는 높고 낮은 진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오는 영감의 깊은 느낌을 표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속의 동기나 생각의 복합성이 갖는 맥락을 파악하게 된다.

‘사용될 모든 나무가 금으로 입혀져 있다(26:29)’란 우리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게 되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우리의 진정한 인격의 건설에 쓸모 있게 하려면 그것들이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영화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외의 모든 자연적인 것들(나무)은 자아 만족을 건설하는데 사용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외에 필요한 밀받침, 고리, 기둥 그리고 가로다지들이란 진정한 인격이 확실한 진리위에 기초되고 전체가 하나로서 건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기되는 사항은 예루살렘 또는 바위위의 집은 “꼭 짜인 도시로서 건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인 천국적인 인격은 삶을 배회함으로 형성된 일그러진 집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순간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규율되는 심정에 기초되지 않으며, 유명 인사나 철학자가 주는 그럴듯한 연설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천국적인 인격은 세상의 “그럴듯한 말”로 형성될 수 있는 인격이 아니라는 말이다. 26장 30절에서와 같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을 공부해서 형성해 놓는 인격이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인 것이다.

제 5반

성막의 건축과 그 안의 가구들 그리고 제기들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시나이 산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러한 성경의 계명들은 선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잠시 재고해 보자. 만나가 내려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르다는 불평과 더불어 르비딤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고, 그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아론과 후르의 도움을 받은 모세가 그의 팔을 주님을 향해 계속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있었고, 그의 충고로 모세는 백성들의 사소한 언쟁을 해결할 재판관들을 세웠다. 그들은 삼 개월의 여행 끝에 사나이에 도착하여 산 밑 평지에 진을 쳤으며, 모든 백성들은 계명이 주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때 주어진 계명들은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계명들은 지상에 있게 된 교회의 시작부터 인류의 삶의 근본이 된 것으로서 인식되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계명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타나는 것들로, 스웨덴 불에 따르면 고대 교회로부터 전수해 내려온 것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들이 시나이에서 다시 주어지되 많은 이적과 경이로움을 더하여 인상 깊은 방법으로 전해진 이유는 그 법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임을 확실히 하시기 위함이었다. 본문에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법들이 영원한 거처를 가져야 함이 명시되고 있다. 계명 외에 다른 사항들도 시나이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예배에 대한 각종 규정들과 사제들의 예복에 관한 것들, 성막과 그 안의 기구와 제기들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집전되어야 할 예배에 관한 것 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에서 열한달 동안 체류했다. 그들은 그 시기동안 이전에 세상만을 섬기던 그들의 삶에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사항에 그분의 법이 닫는 진정한 질서로 조직화된 삶으로 재조직되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의 중심이며 상징이 되었다. 전 진영이 야영할 때면 언제든지 캠프들의 한 중앙에 성막이 설치되었고, 행군할 때에는 행군대열의 한 중앙으로 성막이 운반되어졌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모든 지파들은 각기 할당된 임무와 지정된 위치가 있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성막이 건립된 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성막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막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간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삶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장한바 있다. 성막과 그곳에서의 각종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이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삶 전체에 이르기까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막의 설계도는 우리 삶이 건설해야 할 계획서이다. 우리의 삶에는 안쪽 삶과 바깥 삶이 있다. 바깥 삶을 다른 말로는 행동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생각은 행동 안에 있는데, 이는 행동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또한 그 생각 속에는 생각을 하게끔 자극한 바람 또는 욕구가 존재하여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세 겹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것을 테니스를 예로 삼아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는 먼저 테니스를 잘 쳐야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테니스를 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연습하기만 하면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습은 좋은 습관을 만들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에 익숙해지면 정말로 잘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이에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설사 우리에게 좋은 기교에 대한 정밀한 지식이나 많은 연습이 있었다하더라도, 우리를 밀어붙여주는 동기가 건전치 못하면 결국엔 실패로 이어지고 만다. 게다가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재주를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램으로 경기에 임하거나 승리하겠다는 바램이 공정한 경기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강할 때 또는 상대가 이길 경우 상대의 우월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경기 자체를 부패하게 만든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으로부터만 올 수 있고, 올바른 생각은 순수한 동기로부터만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성막을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지성소는 우리의 가장 깊은 심정을 말한다. 주님의 계명은 그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 즉, 우리의 모든 바램 중에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법이 “우리 심정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25장 22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두 거룩들 사이에서, 즉 그분의 보호하시는 섭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신다. 이는 양심이라는 우리의 속죄관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러진다. 그래서 지성소의 모든 것은 금, 즉 순수한 사랑으로 이뤄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막 벽의 밀받침이 은으로 된 것은 순수한 사랑의 기반은 배워 순종할 진리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성소는 가끔 대 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자신 속에 든 동기를 꿰뚫어 보기가 과히 쉽지 않지만 때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그분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의미한다. 비록 사제들이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는 것을 돌보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곳은 공공장소는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성소는 지성소와 유사한데, 성소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지 않더라도 그 생각들을 깨우려 해서 안 됨을 의미한다. 우리의 지성 안에는 분향단과 등잔 그리고 제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분향단이란 기도와 겸허한 태도를, 등잔이란 모든 우리의 밝음이 주님께게서만 온다는 인식을 그리고 제상이란 모든 선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모든 가구들의 재료가 금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생각들이 위의 의미들을 사랑해야 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성막 뜰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바깥 삶(행동)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사용된 금속은 구리(놋쇠)이다. 즉, 행동 선상에 나타나는 선은 자연적인 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벽을 형성할 휘장을 서로 팽팽하게 연결시킬 고리는 은으로 만들도록 명령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바깥 삶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 줄 특별한 진리들을 말한다. 이 뜰에서 사제들은 씻음과 제물을 바치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물두멍이 필요한 이유는 진리에 의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늘 씻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큰 제단이란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과 그분의 나라를 더 욱 넓히고자하는 바램에서 선을 행해야 함을 표현한다. 제물은 뭔가를 바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간혹 어떤 이들은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뭔가를 “포기”함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일이 있었다할 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있는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제물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를 “거룩하게 만듦”이다. 즉, 행동선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헌납되어야 하지만 스스로가 잘나서 행해진 것처럼 보이는 선함은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뤄주시는 선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성막의 다양한 면모는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묘사해준다.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심정 안에 들어앉아 우리의 생각을 통해 행동선상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씻고 또 씻어 참된 진리 안에 하느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만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막을 가장 높은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완전하고 신성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묘사한다. 이 삶이 바로 “산에서 보여준 규격”이다.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슬기롭게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9643항: “밀밭침이 ‘은’으로 되고 널빤지가 ‘금’으로 입혀진 이유는 널빤지가 선을 의미하고 밀밭침이 진리를 뜻하는 바, 선이 진리로 받쳐져야 힘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금’은 선을, ‘은’은 진리를 의미한다. 선은 진리를 통해 힘을 가진다는 것은 진리가 선을 모양 있도록 하여 선이 그 내용이 되고 진리는 그 형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 2)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외에 어떤 다른 법을 모세에게 주셨는가?
- 3) 성막이란 최근의 용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 4) 성막의 벽은 무엇으로 되었는가?
- 5) 성막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졌는가?
- 6) 성막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가?

- 7) 각 부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8)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9)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 10) 성막 뜰의 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11) 성막 뜰에는 어떤 두 가지가 있었는가?
- 12) 성막 건축에 쓰인 세 가지 금속은 무엇인가?
- 13) 각 금속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 14) 휘장은 무엇인가?
- 15)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예배 드려야 했는가?
- 16) 성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성막의 세 구역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궤가 지성소에 있음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시나이산 2) 각종 규정이나 예배 방법 3) 천막 교회
- 4) 판자들을 금으로 입혔다 5) 동물 가죽 6) 3 7) 지성소, 성소, 성막울 8) 궤
- 9) 젖상, 분향단, 등잔 10) 커튼 11) 물두멍, 제단 12) 금, 은, 동
- 13) 금은 나무를 씌우는데, 은은 팽팽하게 히는데, 동은 받침으로
- 14) 내부 커튼 15) 유목민 16) 질서 있는 인간의 삶 또는 인격
- 17) 의지, 생각, 행동 18) 우리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한다

성막의 설계

서
(큐빗)

지성소
궤
분향단
젯상
성소

촛대

남

성막뜰

북

물두멍

번제단

동

11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머리말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한 패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리 오래 기억되지 못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르쳐진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도 망각하고 있었다. 본과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들과 그 도전의 참혹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성서 본문: 민수기 16장, 17장 1-15절

16장: 1. 레위의 증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할이요, 할아버지는 크핫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요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2.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백 오십 명이 따라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4.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5.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야훼께서 알려 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당신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6.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라. 7.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내일 야훼 앞에 향을 피워라. 그 때 야훼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8.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9.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당신 앞에 나와 야훼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나? 10. 하느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가? 11.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야훼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인가?”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갈을 보냈다. 13. “우리를 짓과 꼴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 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하시오? 14. 당신은 우리를 짓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소.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오? 우리는 못 가요.” 15. 모세는 참을 수 없어 화가 나서 야훼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오는 봉헌물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16.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훼 앞에 나오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17.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 가지고 야훼 앞으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이백 오십 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18.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19.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20.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1.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22.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길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4.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26.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27.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28.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지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야훼께 보내심을 받아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29.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30. 이제 야훼께서는 여지껏 딸린 식구들과 함께 삼켜 모두 산 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31.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 버렸다.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 버렸다. 33.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34.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35.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던 이백 오십 명도 야훼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

17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르아잘을 시켜 불탄 자리에서 향로를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가져다 쏟아 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와 불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 3. 큰 잘못을 저지르고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를 모아가 두드려 퍼서 제단에 씌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라. 이것은 야훼 앞에 가져왔던 것인 만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4. 사제 엘르아잘은 타 죽은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그 구리 향로들을 모아가 두드려 퍼서 제단에 씌웠다. 5. 이것은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혈통을 이어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야훼 앞에 나가 향을 피울 수 없다는 것과 만약 무엄하게 나갔다가는 코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6.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야훼의 백성을 죽을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불평하였다. 7. 이렇게 회중이 그들에게 모여 들어 덤비자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때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다. 8.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 다다르자, 9.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빠져 나오너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11.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워 가지고 어서 회중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이 죄 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시오. 야훼의 진노가 터져 염병이 번지기 시작하였소.” 12. 아론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향로를 들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 갔으나, 염병은 이미 백성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를 흔들어 향내를 풍기게 하여 백성이 죄 값으로 받을 재앙을 막아 주며 13. 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14. 코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번 병으로 죽은 사람만 만 사천 칠백 명이나 되었다. 15. 염병이 물러가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 왔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매순간 우리를 떠 받쳐 주고 계신다.
- *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어져 있고,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의 판단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
- *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라는 격식을 차려서 존재되는 것도 아니다.
- *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는 우리의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이타애란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의 이야기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려졌다는 기이하고 처절한 벌이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간은 자연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에 아주 매혹되어져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계가 저절로 존재하여 스스로 발달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이 동물 중에서 지능을 가진 상위 동물로 스스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여 왔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문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신구약성서의 기적들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 그들의 발언이 대중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시대의 “사색가들”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 곧 자연이 저절로 창조될 수 없어서 하느님께서 분명히 계셔서 창조가 어떤 지혜로운 작용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기적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자연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본문을 토대로 당시에 지진과 번개와 천둥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연의 움직임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자연적인 원인 뒤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위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인류를 복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노력 속에서 그분을 돕거나 방해하게 된다. 인간은 종종 하느님을 부정함으로 인한 실제적인 결과들, 즉 아픔이나 고통 혹은 시련 등이 자신에게 허용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이나 욕망들로부터 정신을 차리게 된다. 선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결과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죄 있는 자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 충분한 교훈을 얻게 된다. 코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반역을 지지한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케 함으로부터 예방되도록 하는 교훈의 대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교훈의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성서에 담아 두셨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온 이타적인 사랑을 자아애로 만들어 결국 그것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지와 이해성만을 고집하는 이들은 본문에서 성막에 가는 대신 자신들의 천막 문가에 머무른 이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땅은 그들을 삼켜 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적인 것이 그들의 영적 생명을 파괴시켰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어리석은 태도 중 어디에라도 자신이 속하는 것을 방치하는 자들은 그들을 파괴하게 될 악들에 의해 재앙이 오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특별히 본문 1-7절과 18-35절을 다시 읽어본다. 본문에서는 언제나 첫째가 되기를 원하며 타인을 시기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주님의 길을 거절하는 이들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모세가 이집트인들 위에 재앙이 떨어지도록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음을 보았다. 모세는 그 능력으로 르비딤에서 백성을 위해 바위로부터 물이 솟아나도록 했고, 주님은 시나이에서 그를 통해 백성의 정부 형태를 위한 모든 법과 성막을 짓고 성막의 관리를 위한 지침들도 내려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우리는 간혹 주위에서 자신과 비슷한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상당히 시기한 코라가 등장한다.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이었고, 레위지파는 성막을 돌보도록 주님께 의하여 분리되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사제였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성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코라는 어느 지파 소속인가?
- * 그에게 가담한 다른 두 명은 누구인가?
- * 모세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이의제기에 어떤 안을 제시했는가?
- *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코라와 분향한 250명의 남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아론은 재앙을 어떻게 멈추게 했는가?
- * 반역자들의 향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제 2반

본문에서의 교훈과 반역에 따른 벌의 상응도 살펴본다.

레위기서 이후 민수기서가 등장한다. 민수기는 모세가 주님의 명을 받아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로 시작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걷혀진 후 광야를 지나는 행군을 다시 시작한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해 주셨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을 토로하는 일이 허다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들이 소수라서 서로 친하며 교육되기 쉽고 인도되기도 쉬운 집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들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해도 60만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수많은 집단 속에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남의 허점만을 들먹거리며 자신의 의사에 동참하도록 타인을 피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무리도 있었다. 또한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시기심과 불일치가 존재했다. 그래서 모세는 수차례 다양한 양상의 반역들을 처리해야만 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반역중의 하나이다. 코라의 반역은 주님으로 인하여 끝이 났다. 그러나 코라가 받은 참혹한 형벌마저도 백성들을

침묵케 하는 충분한 교훈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을 죽게 한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큰 재앙을 초래 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인해서만 멈춰질 수 있었다.

주님께서 성서 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포함한 전시대의 모든 인류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고집세고 반역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본문에서와 같이 잔혹한 처벌로만 질서를 지킬 수 있었다. 인간이 그 때 이후로 더욱 발달되고 이성으로 더욱 잘 교육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생생한 교훈이 필요하다.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은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 일인자가 되길 원했고 그로 인한 시기심으로 가득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나쁜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선택한 진정한 지도자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이미 많이 갖고 있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께서 인간들이 극히 악해져서 어느 지도자들도 그들을 질서 안으로 되돌려 놓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옳은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지도력을 가지신 것에 반기를 들며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가 주로 우리에게 발생된다. 즉, 땅 곧 수준 낮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삼켜 버리거나 불 곧 자아 사랑이 우리를 파괴시킨다. 또는 재앙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리쳤듯이 다양한 악들이 내리치는 재앙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누가 반역을 주도했는가?
- * 그는 어떤 지파 소속인가?
- * 누가 그와 함께 음모를 꾸몄는가?
- *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는가?

- * 모세는 누구에게 지도력의 이의에 대한 수습을 제기했는가?
- * 모세는 코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코라외에 분향한 25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모세는 그들의 향로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제 3반

이야기의 상응들에서 교훈을 찾아본다.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규정 속에서 레위인들 곧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을 따로 분리해서 야영중이든 행군중이든 간에 성막을 돌보며 성막의 각종 행사를 담당하도록 명령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론이 대 사제가 될 것이며 아론의 후손들만이 사제직에 봉직된다고 명령되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항에 관한 충분한 확증을 갖고 있었다. 모세 역시 레위지파의 출신으로서 백성들을 지도하며 통치하도록 주님께 의해 임명되었고, 그분은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은 실제로 주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다. 그 반역은 주님을 섬기는 척했던 일부 레위인들에 의해서 주동되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동으로 하는 예배라는 의식에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주님께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대 사람들에 대하여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체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체 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이사야 29:13).”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23절에서는 “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있기 쉬운 시험으로, 생활에서 계명에 순종함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내면에 있어야 할 진실에 대한 대체물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모습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지파 소속은 아니었다. 그들은 야곱의 첫아들인 르우벤의 후손이었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이란 천국적인 인격을 발달시킴에 있어지는 다양한 애정들을 그린다. 첫 제인 르우벤은 믿음을 표현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영적 진보는 우리에게서 시작조차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나는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느님에 관하여 배우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아 사랑에 삶의 방향을 의존하며, 그들이 사는 공동체의 표준역시 자아 사랑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그들을 소환했을 때 성막에 오지 않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천막 문 앞에서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꺼이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필요한 지혜를 찾으려 하는 우리의 태도를 묘사한다.

오만으로 인해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즉,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고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 버렸다.” 이것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말씀 안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묘사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성서의 제 1장 1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의 하늘과 땅은 우리 속의 천국적인 부분과 지상적인 부분을 말한다.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 배우기를 거절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속의 천국적인 부분은 발달되지 못하며 우리속의 지상적인 부분이 우리를 훌쩍 삼켜 버린다. 즉, 세상적인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채우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천국적인 발달로의 가능성마저도 꺼져 버리는 것이다. 영어 성경의 「pit」은 주로 지옥으로 번역되며, 히브리어로는 「sheol」로 음부 또는 죽음의 장소라는 뜻이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주님으로부터 단아버릴 때 남아있게 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과 생물적인 생명뿐이며, 이는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것이다.

코라와 그를 지지한 회중의 대표 250명은 그들의 천막에 머물지 않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성막 앞에 집결하여 그들의 향로를 저마다 손에 가득 채워 들고 있었다. 말씀에서 지도자란 제일가는 생각 또는 개념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 대표자들이란 코라가 자신의 반역을 지지하기 위해 수집한 많은 개념들을 그린다. 우리는 이 개념들 중의 하나를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코라는 모세에게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라고 항의한다. 이것은 코라가 자신을 모세와 아론과 동등하다고 내세우기 위해 사용한 진리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도 참조). 우리는 자신의 길을 쫓고자 논쟁할 때 말씀속의 진리를 하나 꼬집어내어 자신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용한다. 스웨덴북은 이를 “진리의 왜곡”이라고 말한다. 향로란 예배를 표현한다. 향로안의 불은 예배에 영감을 주는 사랑의 종류들을 말하고, 향이란 기도를 말한다.

성막의 향로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 이유는 구리가 자연적인 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코라와 더불어 반역에 가담한 대표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벌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버리는 것이었다. 주님으로부터의 불은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영구적으로 전달되며,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이 이 거룩한 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을 파괴토록 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변하게 한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회중의 대표 250명이 가지고 나온 향로가 파괴되지 않고 두들겨 퍼서 제단에 덮어씌우도록 한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이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와서 자신 안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회생이란 “거룩하게 만듦”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희생물이 바쳐지는 성막울의 큰 제단은 자신을 위해 선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두 번의 참혹한 광경을 제시한 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두 번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하며 회중의 대표들을 죽게 한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자신의 죄과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기 아주 힘든 마치 진드기와 같은 것이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 죄과는 내 과오야, 누구에게도 그 책임은 없어.”라고 정직하게 실토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한 계속 끓어 올라서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을 파괴시킨다. 이것은 본문에서 투덜대었던 사람들을 파괴시킨 재앙과 같다.

이제 각자 본문 공부의 결론을 작성해 보도록 하자. 우선 46-50절을 읽어보자. 모세는 말씀을 표현하고, 아론은 주님의 신성한 선에 관한 측면을 표현한다. 향로와 불 그리고 향 등의 상응을 고려해보면, 우리에게 재앙을 뿌리는 우리 속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확실한 처방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뒤의 질문에서 제시된 것과 대조해 보기 바란다.

기본 상응 공부

뽑힌 회중의 대표 = 첫째가는 진리나 개념

땅 = 자연적인 마음

향로 = 예배

향 = 기도

주님에게서 나온 불 = 이타적인 사랑

제 4반

독선과 교만을 자신의 심정과 지성에 두고, 특히 예배에 그것을 허용함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살펴본다. 또한 반역의 시발점이 백성들의 사소한 불평이었음도 강조한다.

본문의 사건의 잔혹성은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동안 계속해서 실망하며 불평해 왔음을 보았다. 열한 달 동안 시나이에 머무르면서 조직된 시민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들의 완전한 조직체계조차도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예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립된 현대국가에서도 쉽게 발견되며, 불만족과 반역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허다한데, 우리는 자신이 즐기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충동이 어떤 제한을 교묘히 비껴나감으로 야기되는 과오를 흔히 발견한다. 스웨덴 북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직접적인 외부조건만을 고려하는 경향성이 강한 민족이라고 말한다. 이 백성들은 오로지 그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나 처벌로만 인도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선택의 자유가 간섭되어도 괜찮았던 이유이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너희에게 베푼 기적을 띠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마태복음 11:21). 이 구절은 그들의 의지가 강요당하지 않았을 때의 실상을 보여준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게 하시거나 그들 내의 사건을 지휘하시어 역사 혹은 사건들이 상응에 의해 표현되도록 섭리하셨던 것이다. 본문의 사건 역시 기록된 바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상응적인 의미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세워 놓으신 질서에 대한 반역,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반대되게 세우는 것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에 반대되는 자신의 지혜 곧 선함과 지혜가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대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 반역은 사실 광야 여행 동안

계속적으로 굶아 왔었고, 불평불만이 터트려져 나오기 전까지 그 세력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아주 유사하게 우리 인격 속의 이기적인 요소들도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서 조금씩 굶고 쭈시다가 어느 특별한 일에 접하게 되면 공개적인 반역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코라는 레위지파였다. 레위지파는 성막의 일을 돌보도록 주님께 의해 분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사제로서 집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주님의 명령은 코라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그는 자신도 레위지파로서 아론 못지않게 선한 인격자라고 자부했던 것이다. 그는 아론을 공격하는데 모세까지도 신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지시 사항을 내리셨고 이를 다시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레위지파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며, 예배 속에서 우리를 관장하게 되는 우리속의 생각이나 애정을 말한다. 표징적인 인격 측면에서 대사제 아론은 주님께에서 나오는 순수한 선함을 표현하고, 모세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받게 될 때의 순수한 진리를 표현한다. 코라는 우리의 예배 안으로 침투한 이기적인 동기들을 표현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교회의 임무를 수행해갈 경우 진정한 예배는 모독되며 우리의 전 인격은 그 결과를 받기 마련인 것이다.

반역을 네 가지 사항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1) 이기적인 동기인 코라가 타인을 이끌고 있다. (2) 회중에서 뽑힌 이름 난 사람 이 백 오십 명은 우리의 추론을 통치하는 교훈들을 말한다. 그들은 모세 밑에서 그를 돕도록 그가 내세운 자들이었다. 스웨덴본은 코라가 모세에게 대항하도록 그들을 부추겨 그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진리의 왜곡”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의미들은 제 3절만으로도 쉽게 납득된다. 즉, “당신들은 지나치오, 주님은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주님의 회중위에 군림하오.”란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주님께 의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이나 코라가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함으로 왜곡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믿고자 하는 어떤 것을 입증하려고 할 때 혹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쓴다. 코라에게 합세한 이백 오십 명이 성막 앞으로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에서 나온 불은 그들을 태워 버렸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를 예배에 침투시켜 예배를 모독할 때 우리 모두를 살게 해 주는 주님의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 즉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사랑으로 변하게 만들음을 의미한다. (3)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본문 전에서 언급된 이들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이해성 안의 믿음”을 표현한다. 믿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의 발달에 있게 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지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선한 삶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멈추거나 주님에 관하여 배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했던 인정은 실지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본문에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성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천막에 머무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에 관해 배우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상에 따라 살게 되어 결국은 세상적인 사고가 그를 삼키고 천국의 빛이 차단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땅이 입을 벌려 그를 삼켜 “지옥”으로 내려가고 만다. 반역의 마지막 요소는 (4) 백성들이다. 말씀에서 백성(회중)이란 우리의 인격 자체가 표현해 내는 수많은 생각들을 말한다. 우리의 예배가 자아 사랑으로 모독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사상이 자기 멋대로 방향을 잡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은 오염되고 만다. 만 사천 칠백 명이나 죽게 만든 엄병(scourge)이란 독선과 교만이 자신의 지성과 심정에 초래하는 황폐함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재앙은 겸손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때만이 멈춰진다. 향로란 예배의 상징물이다. 제단에서 나온 불이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이며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코라와 기타 회중 대표들이 들고 나온 향로가 그들과 함께 멀해지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설령 우리가 우리의 동기들이 순수하지 못함을 발견했다하더라도 공적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됨을 뜻한다. 그 향로들은 두들겨 퍼서 제단에 썩워졌다. 즉,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켜 주님께 자신이 순수하게 바쳐지도록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 5반

본문은 때때로 빠지기 쉬운 자아 만족에 대한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행은 거듭나고 있는 삶 중에서 재구성의 시기를 그린다. 이 시기는 계명의 순종이라는 원리로부터 온 질서 안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가져다 놓는 과정으로 오랜 세월이 요구된다. 이 시기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자아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거듭나는 영적 삶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선택하느냐하는 갈림길 중에서 하나를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함으로써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구성의 시기는 출발 초부터 불만족, 실망 혹은 반역 등에 의해

잠깐씩 멈춰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 재구성의 시작 전에 가졌던 낡고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바램과 추론들이 우리가 한 걸음씩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밑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들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바램과 추론들은 틈만 나면 밖에 얼굴을 드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반역적인 돌출은 중얼거리는 정도의 불평일 뿐이어서 주님의 자비스러운 섭리로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지만, 본문에서와 같은 반역은 우리 속에 든 자아사랑이나 자기 총명이 오랫동안 우리의 시선을 피해서 모의하여 온 사건의 극치로 쉽게 잠식되지 않는다.

본문의 주제인 반역은 일부 백성들이 코라를 지도자로 인정했을 때 오랫동안 속에서 끓던 증기가 터지듯이 드러난 것이다. 코라는 레위지파인데, 이 지파는 성막의 일을 돌보도록 주님께서 따로 떼어두신 지파이다. 그는 아론의 가문은 아니었고, 주님의 명에 따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사제가 될 수 있었다. 성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는 자신이 사제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에 분개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옹호하려고 했다. 코라라는 이름의 뜻은 “머리가 벗겨진”인데, 일반적으로 머리털은 행동선상에 있는 진리를 말한다. 코라 역시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특별히 임명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의 야망은 그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충동했다. 그리고 코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주님의 말씀을 끌어냈다. 제 3절에서 보이는 그의 논지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출애굽기 19장 6절과 같이 모세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에서 취해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누구든지 범하기 쉬운 잘못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말씀이 주님께 의해 영감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믿고자하는 것에 거스르는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읽지 않은 척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하면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들이 서술되는 항목들만을 중시여기기도 한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 진정한 이유는 그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탐구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검증함으로써 우리속의 생각과 지침을 바꾸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을 뿌리 채 뽑아내기 위해서이다. 코라의 반역을 지지한 이백 오십 명의 회중 대표들이란 바로 위와 같이 말씀을 이용해 버리는 것, 즉 말씀속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규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구절은 빼내고 자신에게 유리한 구절만을 뽑아내는 것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행위를 “진리의 왜곡”이라고 말한다.

진리의 왜곡에 따른 인과가 본문에서 250명에 대한 벌로 묘사되고 있다. 즉, “주님께에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는 것이다. 주님께에서 나오는 불이란 이타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시작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참 생명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참 생명을 추구한다고 주님께 고백한 뒤 자아 사랑으로 바뀌 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말 것이다. 구리로 된 향로란 행동적인 면에서의 예배를 상징한다. 그 안에 든 불이란 예배를 자극시켜주는 동기들이다. 향이란 지성 속에서 제공된 소원을 말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 스스로가 선한 인간임을 가늠하면서 자신이 참석하는 예배가 자신의 구원과 관계되는 공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어야 한다고 간청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회중 대표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들 모두 벌을 받아 참혹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이 들고 나왔던 향로들은 보존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비리 하나를 듣고서 “교회에는 위선자가 더 많더라”라는 식의 변명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향로를 모아다가 두드려 퍼서 제단에 썩워”라는 구절의 의미를 경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행동적인 예배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로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는 자신을 추켜들려는 태도가 있어서 안 될 것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자신을 헌납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코라의 반역에 동참한 두 무리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르우벤지와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었다. 온은 본문 초입부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그는 겔으로나마 모세에 순종하면서 반역의 집단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에 멸하는 장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째아들로서 믿음을 표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해성에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영적 생명이 발달하는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르우벤은 우리가 진리를 무언가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우리의 지성이 신성한 진리를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된 믿음이 지적인 인정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인정한 신성한 진리는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성막으로 출두하라는 모세의 요구에도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천막 문간에 서 있을 뿐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말씀 속의 진리를 배우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나마 배운 소량의 진리도 일상생활에 응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믿음만의 교리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관한 것을 배우며 그분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세상에 널려있는 우수한

사상에 끌려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천국의 빛줄기를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르게 된다. 그러면 결국 “땅이 입을 벌려” 모조리 삼켜 버려서 우리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이것은 오래 전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식구들과 더불어 당했던 것과 같다. 즉, 우리가 기껏 생산해낸 모든 애정과 생각과 행위들 그리고 자신이 자랑으로 여긴 모든 것이 자신과 더불어 지옥에 빠져 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살피지 않으면 세상욕과 이기심은 우리가 행동한 모든 것 안에 존재하게 된다.

이 반역에 가담한 또 다른 무리는 백성(회중)들이다. “백성”이란 날마다 있게 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다단과 아비람이 성막에 오는 대신 그들의 천막에 머물겠다고 고집하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 제 10130항에서 “건드림이란 교류와 교통 그리고 수납 등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건드린다. 때로 우리는 단순히 친목이 깊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말에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찬성해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러한 습관에 빠지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사상에 우리의 사고가 물들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겨 받아들이는 것들이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할 원리와 실제로 상반됨을 실감하는 때가 흔하다. 주님께서도 “네가 어떻게 듣는가에 유념해라”하고 경고해 두셨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다단과 아비람의 천막으로부터 물러섰다. 많은 백성들이 반역에 이미 정신이 오염되어 있어서 반역의 지도자들에 대한 참혹한 교훈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친구가 죽게 된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올려댄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우리는 한번쯤 자신의 잘못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알지만 자신 속에 있어왔던 충동이 자신의 잘못이 타인 때문이라고 돌려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 놓은 백성들을 내리친 재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를 거절하는 심정 상태에 대한 영적 결과를 상징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주님에 대한 불순종 내지 반역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흔적은 씻어도 지어지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은 이론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향을 피우자 멈춰졌다. 우리가 신실한 겸손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약함이나 악들을 기꺼이 그분 앞에 드러내 보이겠다고 결심하고 진실로 그분의 처분을 구하면, 우리의 반역적인 것들의 결과는 다시 주님의 점검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324-6항: “코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식구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땅이 집어 삼켰다. 그들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 향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켜진 이유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선을 모독했음을 의미하며, ‘모세’와 ‘아론’은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한다는 것(반역)’은 주님에 대해서와 거룩한 직무 수행에 관한 불만으로 신성모독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제단에서 불을 취했을 때 제단으로부터 불이 토해져 나왔고, 그 불은 그들의 향로들이 제단을 덮도록 만들어졌다.”

질문 정리

- 1)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도록 모의했는가?
- 2) 코라는 어떤 지파 소속인가?
- 3) 레위지파의 직무는 무엇인가?
- 4) 아론의 직무는 무엇인가?
- 5) 코라는 왜 불만족했는가?
- 6) 코라 외에 누가 반역에 가담했는가?
- 7) 이 두 사람은 어떤 지파소속인가?
- 8) 그들은 어디에 머물겠다고 고집했는가?
- 9)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몰살되었는가?
- 10) 코라를 지지한 어떤 다른 집단이 그와 더불어 성막에 왔는가?
- 11)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 13) 계속 불평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이 재앙은 어떻게 멈추었는가?
- 15) 다단과 아비람이 받은 벌은 무엇을 그리는가?
- 16) 향로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코라와 그를 지지한 회중 대표들이 받은 벌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왜 향로는 파괴되지 않았는가?

질문의 답

- 1) 코라 2) 레위 3) 성막과 예배를 돌봄 4) 대사제 5) 아론을 시기함
- 6) 다단과 아비람 7) 르우벤 8) 그들의 천막 9) 땅이 삼켰다
- 10) 250명의 회중 대표 11) 불이 살랐다 12) 제단을 덮도록 만듬 13) 재앙
- 14)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15) “믿음만”의 결과 16) 예배
- 17) 자신이 원하는 쪽을 지지하도록 진리를 왜곡시킨 결과
- 18) 과실이 예배 때문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이므로

「보충 설명」

다음은 17장 11-15절의 깊은 의미에 대한 간략한 주석이다.

11절: 너의 예배를 실지로 만들라. 형식적인 예배로 인한 악을 제거하라.

12절: 위의 악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겉으로 만의 헌신은 그 안에 파괴가 있음을 알아라.

13절: 죽은 예배와 산 예배의 차이점을 명백히 구분하여라.

이리하여 영적인 가치에 더 손실이 없게 하라.

14절: 자신의 어리석은 처신에 따른 손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라.

15절: 그런 다음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로 돌아오라.

12

요르단강을 건너다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했음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고리 역할로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광야에서의 전투와 열 두 스파이(민수기 13-14장)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상기해 보자.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주님을 신뢰했고 모세에게 슬기로운 조언을 했음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3, 4장

3장: 1.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천막을 거두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뻘을 떠났다. 요르단강에 다다른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묵었다. 2. 사흘 후에 장교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3.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이 보이거든 너희도 각기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라. 4.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천 척 가량 궤를 앞세워라.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재계 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6.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명령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라.” 명령대로 사제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7.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 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 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8. 너는 계약궤를 멘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에 들어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가까이들 와서 너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0. 여호수아는 말하였다. 브리즈족, 기르갓족, 아모리족, 여부스족

은 반드시 쫓겨나리라. 11. 이제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가 너희 선두에 서서 요르단강을 건널 것이다. 12. 그러니 즉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열 두 사람을 뽑아라. 13.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궤를 멘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강 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독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14.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요르단강을 건너는데 사제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15.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마침 추수철이 되어 독에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있었는데, 궤를 멘 사제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16.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우뚝 일어서서 아담에서 사르단 성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독을 이루는 것이었다. 아라바 호수라고도 하는 사해로 흘러내리던 물이 다 끊어져 백성들은 예리고 맞은편으로 건너 갔다. 17. 야훼의 계약궤를 멘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넜다.

4장: 1. 온 겨레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열 두 사람을 뽑고 3. 여기 요르단강 한복판 사제들이 발을 붙이고 섰던 데서 돌 열두 개를 날라다가 이 백성이 이 날 밤 목을 곳에 두라고 명령하여라.” 4.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낸 열 두 사람을 불러 모으고 5. 일렀다. “너희의 하느님 야훼의 궤 앞으로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 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사람마다 어깨에 돌 한 개씩을 메어 나오너라. 6. 이것이 너희 가운데 기념으로 남으리라.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7. 야훼의 계약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어진 사실을 일러 주어라. 그리고 이 돌들은 그 궤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졌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라고 일러 주어라.” 8.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메어 내다가 그날 밤 목을 곳에 세워 두었다.

9.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계약궤를 멘 사제들의 발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 요르단강 한복판에 돌 열두 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10. 야훼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이르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멘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11. 온 백성이 다 건너자 사제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갔다. 12. 르우벤과 가드와 므나세 반쪽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전투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나섰다. 13. 무장한 그들 사만 명 정병들은

야훼 앞에 나서서 예리고 평야를 바라보며 싸우러 나갔다. 14. 그 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15.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 “증거케를 메고 있는 사제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하여라.” 17.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18. 야훼의 계약케를 멘 사제들이 요르단강에서 나왔다.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강 물은 물길을 따라 이전과 같이 양쪽 언덕에 철철 넘치도록 흘렀다. 19.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나와 예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친 것은 정월 십일이었다. 20.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에서 메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갈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훗날 너희의 후손이 이 돌들이 무엇이나고 묻거든, 22.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받을 적시지 않고 건넌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23.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바다를 말리시어 우리가 모두 건너도록 해 주시지 않았느냐?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요르단강 물도 말리시어 우리로 건너게 해 주신 것이다. 24. 그리하여 세상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의 손이 얼마나 힘 있으신가를 알게 하고 언제까지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옳은 길로 정진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 * 계명들은 우리의 지침서이며, 모든 어려운 결정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 * 주님을 신뢰함이 믿음의 시작이다.
- * 의를 행함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거듭나는 상태의 시작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성서에서 가나안 땅, 거룩한 땅 또는 약속된 땅이 모두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과 요르단강이 물질세계와 천국 사이의 경계선을 상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상기해야 할 사항은 천국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 이들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진실로 선하게 사는 자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천국이 임하여 몸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마음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적인 인격을 우리 안에 형성하지 못하면 사후에도 천국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거룩한 땅으로 가는 여행에서 각 단계들을 거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영적인 여행에도 단계들이 있다. 우리는 단 번에 천국적인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영적인 여행에는 넘어야 할 두 가지 경계선이 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세상적인 삶과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정 사이를 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홍해로 성경에서 언급된다.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는 면에서 있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둘 사이를 가르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요르단강으로 언급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와 요르단강 모두를 건너야 했는데, 그들은 처음에 두 강을 건너갈 수 없는 장애물처럼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셨다. 이처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지만 영적인 여행을 막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세상욕과 이기심을 주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성실하게 계명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때는 온다. 즉, 요르단을 건너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자하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에도 이어지는 천국에 있는 상태인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상태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못해”라는 태도는 어떤 곳에도 우리를 도달 시켜주지 못한다.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의 임무란 그가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르쳐진 대로 행동하는 것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 1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재고한다.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와 「요르단」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1:7-8)를 크게 낭독해 본다.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열고 홍수를 위로 밀쳐 내 준 것이 십계명의 두 돌 판을 담은 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올바른 길을 전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강조한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반기를 들며 불평해 왔음을 배웠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땅을 향하는 여행 도중이다. 거룩한 땅은 약속된 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즐겁게 주님께 순종했다면, 이집트에서 거룩한 땅까지 이르는 그들의 여행은 몇 달 만에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족하며 불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약속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수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르단강을 건너야만 했다. 그들이 거룩한 땅의 경계선인 요르단강에 도착했을 쯤에는 장마철이어서 강의 수위가 최고로 높아 강둑이 범람되고 있었다. 그들의 숫자는 장정만 해도 대군이었으며, 거기에는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 떼 그리고 텐트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무리는 굉장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을 건너기 위한 배가 없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지방으로 여행하고 있었는가?
- * 그들의 여행은 얼마나 걸렸는가?
- * 그들의 여행이 길어 진 까닭은 무엇인가?
- * 거룩한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 우리는 언제 천국적인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 *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까닭은 무엇인가?
- * 주님께서 모세가 죽은 뒤 누구를 지도자로 임명하셨는가?
- * 거룩한 땅의 동쪽 경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 * 누가 강을 건너는 것을 인도했는가?
- * 그들은 무엇을 앞세우고 있었는가?
- *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복판에 무엇을 세워 놓았는가?
- * 모든 백성이 강을 다 건너자 그는 강 건너 쪽에 무엇을 세웠는가?
- * 왜 그는 돌들을 세웠는가?
- * 그들이 돌을 세우고 야영한 장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 2반

광야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여호수아의 태도를 주로 살펴본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사항은 주님을 신뢰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데 용감해야 할 필요성이다.

본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땅에 들어갔던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들의 불평불만과 반역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체류하게 했다. 그들은 바른 길이 겠보기에는 멀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최선의 길임을 40년이라는 광야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가나안 땅, 즉 거룩한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러나 천국은 선한 이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천국적인 인격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장소가 아닌 영혼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있고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인들은 주님께 불만족하며 반역했으므로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민수기 13-14장에는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열두 명으로 하여금 거룩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다. 스파이들은 가나안 땅이 과연 경이로운 곳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그들 중 열 명은 그곳에 있는 적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로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진해서 그 땅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싸워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열 명의 스파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로 인해 그 땅을 점령하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겁쟁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머물도록 명령하셨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어린이나 젊은이들만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죽어야만 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없어”라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한다는 교훈을 준다.

모세는 단지 거룩한 땅을 보는 것만 허락되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간의 광야생활이 끝나는 지점인 요르단강에서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들이 진을 쳤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봉우리로 부르시고 산 아래 멀리 펼쳐져 있는 거룩한 땅을 모두 보여주셨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주님께 의해 임명되었다. 여호수아는 투사며 용사여서 광야 기간 동안 군대 지도자로서 활약했다. 주님께서서는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엄숙한 임무를 주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 1장 6-9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후 본문에 이를 때까지의 진영 경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48절에서는 그들의 광야 생활 중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을 “아비람 산악지대를 떠나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 진영으로부터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보내어 요르단강을 건너 정탐하도록 했는데, 특히 예리고의 견고한 성벽을 살피도록 했다. 왜냐하면 예리고 성은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넌 다음 있게 될 첫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정탐원들이 되돌아 왔을 때 요르단 어귀까지 전진해서 3일 동안 그들이 건너야 할 강을 바라보면서 머물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가축 떼가 함께 하는 큰 무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범람하는 요르단강을 건널 배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스러워했다거나 두려워했다는 어떤 서술도 성경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진영지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돌들을 세우고 그 곳을 길갈이라고 불렀다. 「길갈」이란 히브리어로 “굴림”이라는 뜻이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면, 그 이름이 그곳에 주어졌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기적인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전진하기 위해 용감해지는 것이 아주 더디게 이뤄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로 들어설 때 그 길은 결국 우리 앞에 열리지게 된다. 그 이유는 계명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제 5장 10-12절을 읽고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당시 강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15절 참조)
- * 맨 앞에 누가 나섰는가?

- *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는가?
- * 퀘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 * 첫 사제들의 발이 강물 가에 닿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퀘를 멘 사제들이 어디서 멈춰 있었는가?
- * 여호수아는 강바닥의 중간에 무엇을 세웠는가?
- * 그는 각 지파에서 뽑은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 누가 강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는가?
- * 그들이 강을 다 건너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열 두 개의 돌로 무엇을 했는가?
- *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무엇인가?

제 3반

재구성과 거듭남의 상이점을 강조한 후 그것을 리더십의 변화, 즉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상황으로 설명한다. 요르단의 의미, 퀘가 언제나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 그리고 확신에 따른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본문의 요점이다.

신명기란 “이름을 두 번째로 부름” 또는 “반복”을 뜻한다. 신명기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여정 중에서 시나이 산에 첫 번째 진을 친 후부터 요르단 강에 도착할 때까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에서 주어진 많은 법들과 명령을 반복해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요약해 둔 책이다. 신명기서는 주님에 대한 모세의 감사 찬송으로 끝맺고 있는데,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백성들의 엄숙한 임무와 열 두 지파에 대한 그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불러 느보산 봉우리에 올라가 자신 아래 멀리 펼쳐져 보이는 거룩한 땅을 본 후 죽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모세조차도 주님에 대한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민수기 20:7-13)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전투인 아말렉족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모세는 그들이 싸우는 동안 산봉우리로 올라가서 주님께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의 팔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패했고 그의 팔이 들어 올리지면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이룬과 후르가 그의 팔을 부추겨서 결국 아말렉을 패배시켰다. 그 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민수기 13-14장을 보면, 열 두 스파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즉시 정복하자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주님 대신 열 스파이들의 말을 신뢰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때에 의사표시가 가능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말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의해 인도되었다. 따라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20세 이하의 젊은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들이었다.

연장자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리는 여전히 대군이였다. 3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수확철에 요르단 강에 도착했으며 그 절기가 그 강의 홍수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광야 여행은 재구성되는 시기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인식하고 진리에 순종할 때로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경향성과 싸우는 시기인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이 길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집트에서 성장한 사람들처럼 반역을 일삼던 사람, 즉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이 언젠가 죽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험이나 곤경에 직면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더 이상 흔들리거나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가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수확철에 해당되며,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좋은 열매 곧 의를 행함에 있어서 억지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지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건너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인 요르단강이 있지만, 주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우리에게 그것을 건너라고하시며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한다. 모세는 의무의 측면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법을 표현하고, 여호수아는 기꺼이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는 똑같은 법을 표현한다. 스웨덴복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거룩한 땅으로의 진입은 거듭남의 실제적인 시작을 표현한다. 즉, 우리의 바깥 삶인 일상생활을 질서 안에 가져다놓고 우리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악을 찾아내어 쳐부수는 시기를 말한다. 이 악들은 거룩한 땅 내에 살고 있는 강한

적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주님의 법을 사용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처지는 전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새 의지는 주님께서 때가 되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이기적인 옛 의지와는 다르다. 의지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거듭남으로 이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요르단」이란 이름은 “하강”을 의미한다. 길이가 백여 마일이 조금 더되는 요르단 강은 레바논 산맥으로부터 지상의 가장 낮은 표면인 사해로 흘러 내려간다. 이는 주님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 내려 보내는 진리를 가능한 한 낮은 영적 상태에까지 내려 보내고 계심을 묘사한다. 요르단은 해가 떠오르는 거룩한 땅의 동쪽 경계선이다. 해가 뜨는 방향 곧 동쪽은 주님을 표현한다. 따라서 요르단 강으로 묘사되는 진리들은 천국적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이다. 즉,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가는 진리 곧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과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과 진리가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진정한 도움을 주신다는 진리이다. 누구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수확의 시기 곧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명료한 진리들을 장애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적들이다. 이러한 적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 움츠리고 있는 악들을 의미한다. 우리의 “거룩한 땅”이 악한 경향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경향성들은 위와 같이 인도하는 진리들을 우리에게 거짓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시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속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인격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시험인 것이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궤를 둘러맨 사제들이 홍수로 넘실거리는 강안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자 강은 즉시 갈라졌다. 궤가 강 한복판에 머무는 동안 물은 뒤로 당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의 중심에 계명을 두고 담대하게 전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야 할 길을 계속 열어주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돌이란 기초가 되는 진리를 표현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열 두 개의 돌을 메고 나와서 길갈로 가져갔다. 길갈은 거룩한 땅에 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진영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르단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념함으로써 영원히 그분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1장 6-9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를 크게 낭독해 보자. 그의 임무는 천국적인 인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지금은 물론 사후에서도 천국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본 상응 공부

요르단 = 우리에게 천국적인 삶을 소개해 주는 진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에 장애물로서의 요르단 강 = 악에서 나온 거짓들
돌 = 기초가 되는 진리들

제 4반

일상생활을 질서 안에 놓는 것과 자신 안의 악을 찾아 극복해내는 것의 차이점을 주로 살펴본다.

우리는 본문과 더불어 광야 여행으로 그려진 “재구성”의 시기를 마무리 짓게 된다. 주님이 지시하신 질서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맞추는 일이 이토록 힘든 임무가 되어버린 까닭은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 동안 여물어진 세상적인 표준이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항거해 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성인들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억지로 따라야만 했던 때 그들이 모두 광야에 뼈를 묻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후손들은 요르단 강 근처에 있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진영이 될 곳에 도달하도록 허용되었다. 요르단 강가에 진을 치게 된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자라 광야에서 성장했던 이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였다. 모세에게도 느보산 꼭대기에서 거룩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그는 그 산에서 죽게 되어 거룩한 땅에 발을 딛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모세란 주님의 법에 순종하되 단순한 원리로 순종하는 것, 즉 맹목적인 순종을 상징한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행동뿐인 억지 순종은 반복된 연습을 거쳐 습관이 되면서 기쁨을 가진 진정한 순종으로 변해 가는데, 이러한 진정한 순종의 시작이 바로 실제적인 거듭남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속의 악들을 찾아내어 극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사실 행동적으로 의를 이루는 것보다 내속의 적들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 두 가지 임무는 거듭나는 우리의 삶을 위한 필수요소들이다. 성경상의 모든 것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의 양면적인 상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간의 영적인 진보에 우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행동과 삶에 대한 평가는 바깥쪽 표현에 해당되는 행동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이루게 하는 내적 존재인 동기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주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되어 계명을 지킨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그가 타인이 자신을 선하다고 인정하여 그로 인한 명예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바람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음을 광야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줄거리에서 발견한다.

일반적으로 요르단 강은 인간의 모든 평면을 거쳐 아주 낮은 평면까지 흘러내리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하나, 본문에서의 범람하는 요르단 강은 이 진리의 반대측면을 그려주고 있다. 요르단 강은 거룩한 땅의 경계에 해당되는데, 이강이 표현하는 단순한 진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삶의 천국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땅은 이미 악한 자들로 가득 해 있었고 요르단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고 있는 본문의 상황은 우리속의 깊은 악들 곧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억측하는데서 비롯되는 다양각색의 거짓들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마음속의 거짓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케를 멘 사제들이란 우리의 지도자요 보호자로서의 주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재편성을 마치고 종교적인 원리로 자리 잡은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도록 명령되었고, 그들이 강물로 나아가자 그들 앞에서 범람하던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들이 강 한복판에 굳건히 서 있는 한 백성들, 즉 우리속의 애정들이나 생각들은 거룩한 땅 곧 천국적인 삶으로 안전하게 진입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땅에는 부딪쳐야 할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일단 경계선을 건너면 천국적인 삶을 이루는 확실한 발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이 스스로를 선한 인격으로 만들겠다는 첫 결심 곧 주님의 법도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그려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심은 자신속의 나쁜 습관들과 싸우며 잘못된 행동들을 주님의 바른 질서로 갖다 놓는 것으로서 길고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나의 긴 수행을 마치고 또 다른 강물의 장벽을 건너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선한 삶을 즐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진정으로 즐기려면, 우리는 다시 우리속의 심정과 지성 내에서 자라고 있는 적들과 대적하며 오랜 세월동안 싸워야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진입한 여호수아의 첫 행동은 강을 건너게 해주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강에서 메어낸 돌 열 두 개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다. 열 두 개의 돌이란 자비로우시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권능을 결코 잊지 않도록 거듭나는 삶의 시작 초에 우리 마음에 확실히 인식해 두어야

할 근본이 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세계의 삶에서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의 결실을 맺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뛰어난 재주나 명석한 두뇌로 인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스스로가 훌륭한 인격자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성공의 영예를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 5반

지도권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승계 된 것의 의미와 요르단 강의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재구성의 삶이든 거듭나는 삶이든 간에 계명은 변함없이 각 삶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함도 강조한다.

본장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 공부할 주된 부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위의 세권의 책들이 레위기나 신명기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의 세권의 책들에 지면을 더 할애한 이유는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 담겨진 가르침이 이미 그 책들 속에 있어서 전 성경을 보다 빠르게 탐구하기 위해 레위기와 신명기에 지면을 덜 할애했을 뿐이다. 레위기서 안에 있는 규정들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이나 행동 지침에 적용될 수 있는 속뜻을 담고 있다. 신명기서라는 이름은 법을 두 번째 주심이라는 뜻이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근처 그들의 마지막 야영지에 도착한 후 전달된 책으로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과 그의 지도하에 발생했던 모든 일들의 요약이기도 하다. 신명기서 1-4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한 이야기와 주님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연약함 그리고 이러한 그들을 주님께서 떠받쳐 주시고자 이뤄주신 갖가지 경이로운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법과 규례들을 요약하면서 그 법에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신명기 나머지 부분에는 이 법들이 레위인들에게 전달되고, 여호수아 이하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해 특히 안전과 번영의 시기에 그들이 주님만 의존해야 함을 잊어버리도록 시험되는 때에도 성심껏 준수하겠노라고 소리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세의 리더십은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온전히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느낌과 생각들이 우리속의 주인이 되었던 상황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세상적인 동기들이나 거짓 사상들은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고 틈만 나면 속에서 자라 오르려 고한다.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매일 즐기던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잊지

못해 자꾸 뒤돌아보곤 했다. 재구성되는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법을 마치 모시기 힘든 스승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법에 조금만이라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우리속의 보다 높은 수준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자아 집착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름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는 훈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이뤄 놓은 모든 것 안으로 잠입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 모세로 표현된 순종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 곧 영적인 삶이라는 거룩한 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정작 그 땅의 경계선을 넘도록 해 주지는 못한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의 도움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인데, 그는 리더십의 또 다른 형태인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되 그 법이 우리의 삶과 온전히 하나 되어 더 이상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임을 새로운 영으로 보게 되어 그것이 스스로를 인도함을 당연하게 여긴 후에 있게 되는 순종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 전반에 항상 사용되어 우리가 단순한 외적인 삶 곧 표면의 삶으로부터 내면의 삶인 순수한 영적 삶으로 건너가게 되고 주님의 진리에 자신의 생활을 억지로 꿰어 맞추던 과거와 달리 그 진리를 우리 내부의 동기나 생각들에 응용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악한 충동을 주는 우리 내부에 깊이 숨어있는 적들과 싸우게 된다는 말이다. 거룩한 땅의 정복은 거듭나는 우리의 시기를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정진을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외부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 전투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부하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임무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성서를 바탕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처벌이 없는 법을 깨트리거나 무효화시켜도 된다는 생각,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또는 말씀의 의미를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경우 우리는 결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라는 구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적극적이며 건설적이며 진보적인 삶이다. 우리는 그 삶 안에서 전진만을 생각해야 하는 데, “나는 구원된 인격인데.” 혹은 “나는 성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웬만한 시험쯤은 문제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여기고 미리 만족에 취해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용기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형태인 진리를 대담하게 말하는 용기, 유혹에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 속의 악을 옹호하려는 변론 따위를 과감히 내던지고 공정하게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 뭐.”라는 식의 군중심리적인 유혹에 홀연히 대항하는 용기, 자신을 향한 빗발치는 듯한 비난에 당당히 자신을 내보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적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용기를 갖게 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는 이러한 용기가 자신 안에서 나온다고 억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힘을 얻을 데가 없다는 것과 우리의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승리임을 늘 인식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거듭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임을 명심하고, 그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 철에 요르단에 도착했다. 즉, 거듭남의 시작은 우리가 광야 여행을 승리로 이끈 후 승리한 것들을 수확하는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중 하나가 버티고 있음을 발견했다. 요르단 강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미미한 부분까지 내려와 닿는 주님의 진리를 의미하며, 이는 천국적인 삶의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갖고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러한 계명들의 준수가 바로 천국적인 삶의 경계선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에 진을 쳤을 때쯤 거룩한 땅은 그들과 싸울 준비가 완료된 적들로 가득 해 있었다. 우리 속 깊은 곳인 거룩한 땅을 접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속의 이기심이며, 이기심의 군대인 자기본위는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까지도 거짓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적은 우리 속에 늘 가득하다. 따라서 거룩한 땅으로 향하는 경로에 걸림들이 된 요르단 강이란 진리 대신 거짓을 표현한다고 스웨덴북은 말한다. 거짓을 좀 더 구체적을 표현하자면, 왜곡된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람하는 요르단 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퀘의 권능이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안치된 퀘 안에 보관되어 있는 두 개의 돌판으로 이뤄진 계명이란 “심정에 새겨진 계명”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심정에 새겨진 계명이야말로 거듭나는 삶인 거룩한 땅의 진입을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정에 새겨진 계명이란 바른 삶을 사는 이유가 타인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전제 없이 스스로의 행동에서 올바름을 확신하고 점검을 완료할 때를 의미한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진실로 가치 있는 동기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의 순종에 두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정과 지성에도

계명을 새겨둘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땅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결심과 확신 그리고 보증이 되어 있는 때조차도 장차 여정 동안 우리를 일깨워 줄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틈만 있으면 뒤로 미끄러지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특별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러한 경향성은 강하게 그 두각을 드러낸다.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죽기 전에 이에 관한 것을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즉, 우리에게 과거의 곤란했던 시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선한 해결책을 강구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르단 강 바닥에서 떼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갈에 기념비로 세운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줄 어떤 것이다. 각자의 경험 속에 있는 기념비는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타인에게 우리의 삶을 증거 하는데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타인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활 안에 든 주님의 계명임을 확인하게 되거나 혹은 그들이 우리가 배운 교리나 가르침을 실제로 삶에 응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간증하는 진리가 결코 거짓이 아님이 자동으로 증명될 것이다. 이제 4장 20-2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기념비를 세운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길갈과 연결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거룩한 땅 내에서의 첫 과월절을 지켰다. 이 절기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시는 권능을 엄숙하게 회상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어진 날이다. 그리고 길갈에서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 거듭나는 상태에 진입한 사람은 영의 양식이 어디서 오며 어떻게 그것이 생산되는지 알고 있다. 그 사람은 과거 만나가 처음 내려진 날에 “이것이 무엇이나”라고 수군거렸던 재구성의 시기와는 달리 영적 자양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은 영의 양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과거의 만나가 햇볕에 녹았듯이 대낮의 열기로 녹거나 썩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을 순수하게 하는데 전념하겠다는 표시인 할례식이 그곳에서 재개되었다. 길갈의 뜻은 “굴리다, 벗기다”인데, 5장 9절에서와 같이 그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집트의 수모가 벗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의미는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헤아려 보기 바란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설명」: “여기서 ‘요르단’과 그 강물은 악으로부터 나온 거짓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가나안이 당시 우상 숭배 국가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주님만이 지옥에서 오는 악의 거짓을 흠으시고 제거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의 신성한 진리만이 천국과 교회 안에 신실함을 가져올 수 있으며 천국과 교회 안에 동봉된 법이 신성한 진리라는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요르단을 건넌에 있어서 례가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명령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례를 멘 사제들의 발이 요르단 강물에 닿자마자 강물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이고, 그들이 모두 강을 건넌 뒤 물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 강물은 천국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입문적인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요르단이 가나안 땅의 첫 경계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들어갔을 때의 그 땅은 교회를 표현하는데, 요르단 강은 그 땅으로 가는 입문을 표현한다. 요르단 강물은 소개하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강 한 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떼고 나오도록 명령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룻밤을 지낸 첫 장소로 그 돌들을 운반한 것은 ‘돌이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떼어낸 열 두 개의 돌’이란 교회속의 진리들을 의미하게 된다.”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2) 누가 모세의 지도권을 승계 받았는가?
- 3) 여호수아에게 어떤 임무가 내려졌는가?
- 4)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지는 어디인가?
- 5) 그들은 한 해의 어느 철에 마지막 진영지에 도착했는가?
- 6) 거룩한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강은 어떻게 갈라졌는가?
- 8) 여호수아는 강 한복판에 무엇을 세웠는가?
- 9) 거룩한 땅에서의 첫 진영지에 무엇을 세웠는가?
- 10) 여호수아는 왜 이 돌을 세웠는가?
- 11)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12) 왜 그렇게 불렀는가?
- 13) 그곳에서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요르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요르단강을 건너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느보산 2) 여호수아 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 4) 예리고성 반대쪽 5) 수확 철 6) 요르단강 7) 기적으로 8) 열 두 개의 돌
- 9) 열 두 개의 돌 10) 강을 건넌 기적을 회상하라 11) 길갈(굴림, 벗김)
- 12) 이집트인들의 수모가 벗겨졌기 때문 13) 과월절, 할례식 14) 싸우는 진리
- 15) 영적인 삶을 소개하는 진리들
- 16) 의지를 바꾸기 시작한 뒤 영적인 삶을 진정으로 영위해 감

13

기브온 주민들

머리말

본과이전에 강조되었던 사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적들로 가득 했음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예리고의 함락과 아이성의 포획에 관한 이야기도 간략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9장

9장: 1. 이 소식을 듣고 요르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와 대해 연안을 끼고 레바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왕들은 모두 2.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3.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4.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털너털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헛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떠날 채비를 차렸다. 5. 또 발에는 닳아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6.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진지로 여호수아를 찾아 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8.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하고 묻자, 9.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느님 야훼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고

10. 요르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사는 바산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11. 우리 나라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12. 여기에 우리의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려고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딱딱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해졌습니다. 13.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14.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야훼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받았다. 15.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16.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그들이 인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17.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버라, 브에롯, 키랏여아림에 이르렀다. 18.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19.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20. 우리는 그들을 살려 둘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 준 맹세 때문에 입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21.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을 일단 살려 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길게 하자.” 온 회중은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22.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찌자고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 데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으며 종살이를 해야 한다.” 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25.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26.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27. 그 날로부터 그들은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의 제단 일을 거들게 된 것이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신다.
- * 말씀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 * 우리의 순종은 곧 믿음의 척도이다.
- * 우리는 실수로 인한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경험삼아 최선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요한 계시록 제 21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사가 금자로 그 성을 재었더니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가 똑같았으며 그 측량 자는 “사람의 자요 천사의 자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계시록의 거룩한 성도 구약 성서의 거룩한 땅처럼 천국을 상징한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에도 우리속의 지성과 심정 내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들 속에는 천국을 재는 자를 가진 잠재적인 천사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가능성을 “측량”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각은 서로 아주 다른데, 이는 각기 특정한 유전적인 능력과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우리 안의 거룩한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시작하던 때의 가나안 땅처럼 우리의 영적 발전을 저지하려는 적들로 가득하다.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참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약함을 인식하여 그것을 선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묘사이다. 간혹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과 여호수아의 관계와 같이 우리속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잠시 넘어가는 때가 있다. 즉, 우리가 이런 경향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구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경향성들을 우리 인격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과 동맹을 맺는 이야기이다.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향성들 중에서 “남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열성을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성향은 본문에서 기브온족이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자연스런 성향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이 성향을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품성처럼 수긍해 버린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성향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차차 그 성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약함에 속함을 깨닫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그 성향이 있어야 할 마음속의 위치를 보여주시게 되어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우리의 천국적인 목적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는 이웃의 흠을 잡기 위해서 혹은 호기심으로 자신의 이웃을 지켜보며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지켜보며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쉽게 납득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들 속에 있는 천사의 자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더 자라도록 도와주신다.

제 1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던 이유와 그들과의 평화를 원했던 이유를 설명한다. 본장의 교훈은 우리가 흔히 언뜻 보기에 괜찮아서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대한 주의 사형이다. 따라서 부주의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그것이 올바른가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르단 강을 건너 거룩한 땅으로 진입했을 때 그 땅은 적들로 가득해 있었고 정복해야 하는 도시들 중에는 굳건한 성벽을 가진 것들도 많았다. 강을 건너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은 예리고 성이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퀘를 메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육 일간 돌고 칠일째에는 일곱 번 돌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대로 했고, 주님은 여리고 성의 성벽을 무너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도록 해 주셨다. 그 후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라고 불리는 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셨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말에 속아서 실수를 행하고 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두었고, 그 성도 파괴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여 그 대가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섬기도록 하는 벌을 주었다. 이리하여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으며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아이 성과 여리고 성이 함락되자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 * 어느 백성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 했는가?
- * 그들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속였는가?
- * 여호수아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 * 기브온 주민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무엇을 잊어 버렸는가?
- * 여호수아의 잘못은 무엇인가?
- * 우리가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우리가 실수로 한 약속이더라도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가?
- *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제 2반

성경의 다양한 사건들을 연결시켜 가나안 땅의 악인들의 기원을 다룬다. 특별히 히위족을 언급하고, 성경 중에서 참조할 구절들도 찾아본다. 이러한 공부 과정은 성경 이야기가 서로 연계성이 있음을 알게 해 주며 차후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의 이전 문단인 여호수아 8장 30-35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27장 1-13절에서 준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집산 사이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낭독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 250여 년 동안 이집트에 체류했었음을 기억한다. 그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아주 많이 증가하여 여호수아가 정복을 시작할 때는 적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예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은 가나안 땅의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이는 그 성들이 아주 견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전체는 여호수아를 대적할 준비로 부산했다. 그러나 그 적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체결하기를 선택한 부족이 하나 있었다. 그들의 영토는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은 네 성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그리고 키랏여아립 지역의 성읍들에 해당되었고, 이 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히위족(Hivites)이다. 그들에 관해서는 창세기 10장 17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 그 부족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중의 하나인 가나안의 자손이라고 한다. 가나안족이 거룩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다. 가나안족은 많은 소 부족들로 갈라졌는데,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적이였다. 그러나 헷족과 히위족이라 불리는 부족들은 이스라엘과 평화를 체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고대 교회로서, 지상에서 존재한 두 번째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는 지식 또는 진리를 특별히 사랑했다. 처음에 그 교회는 진리에 따라 살고자 진리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동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변색되어 갔다. 사람들 중에는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함보다 단순히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좋아해서 배우는 자들이 있는데, 본문의 히위족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건 책략은 정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와 부딪쳐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다.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된다. 본문 14절을 통해 그의 실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성급하지 않고 주님께 조언을 구했다면,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안에 있는 것 곧 히위족의 감춰진 속내를 보여주셨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속에서 수차례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많은 실수를 행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간구해야 함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결과에 솔직히 직면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약함을 가르치는데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방향을 강구해 주신다.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실수가 주님께 의해서 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이란 진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나무란 이 세상의 삶이 더욱 안락하고 건강해 지도록 사람을 도와주거나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등의 행동에 의한 선을 표현한다. 우리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사물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선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히위족으로 하여금 나무를 꺾고 물을 길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한 이유이다.

나쁜 것은 언제나 나쁜 결과만을 초래한다. 다음 장에서는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체결하여 주위의 다른 부족들이 그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켰고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까닭에 그들을 돕기 위해 싸우리 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자신이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3반

기브온 주민의 계약에 대한 상응은 꽤 단순하다. 이는 말씀의 글자에서 나쁜 말처럼 여겨지는 것이 내적인 의미에서는 진리임을 보여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과일절을 기념한 후 예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 그들은 세겜까지 순례 여행을 하여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명령을 완료하고자 했다(신명기 27장 참조). 세겜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거룩한 땅으로 왔을 때 머물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본문에서의 여호수아도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8장 30절 참조).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다. 세겜은 양쪽에 두 개의 산이 있어 천연의 원형 광장을 형성하고 있던 곳이다. 세겜을 둘러싼 두 개의 산인 에발산의 언덕과 그리집산의 언덕에는 여섯 지파씩 나누어 서 있었는데, 이 광경은 모세가 범령을 포고할 때와 같은 대열이다. 그들은 법들이 모두 낭독되자 “아멘”으로 응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길갈로 돌아갔다.

당시 거룩한 땅에 살았던 국가들 중 거인 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대교회의 잔류에 해당했다. 사실 고대 교회는 영적인 교회여서 그들의 제일가는 기쁨은 상응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응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상응의 지식은 멸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다. 초기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자연물을 가지고 형상들을 만들었다. 이는 자연물과 상응되는 영적인 것을 상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고대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그들은 영적 지식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후기 고대교회 사람들은 형상 자체를 예배하게 되어 결국 그로부터 우상 숭배가 발생되었고 차차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 중에는 악한 욕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무지해서 죄를 범한 자들이 많았고, 올바른 진리가 보였을 때 굳이 반대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 그들 중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기브온족이었다. 기브온족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룩한 땅에 있었던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는 대신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추구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는 방법은 부정적했으나 그들의 의도가 신실했으며 이는 후에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됨을 보여준

다.

기브온족이 이용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만 보면 부정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의 내적 의미는 진실이다. “먼 나라”, 즉 기브온족이 자신들이 온 곳을 칭한 먼 나라는 고대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빵은 예배를 상징하는데, 고대교회의 시초에는 그것이 따뜻함과 새로움으로 영적인 선이었다. 하지만 기브온족이 가지고 온 빵은 고대 교회인들이 진정한 예배에서 방황하기 시작한 후 진정한 예배가 말라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피게 되었음을 표현한다. 그들의 “술부대”는 그들이 가진 교리들을 상징한다. 교리 역시 고대교회의 시작 초기에는 강하고 진정했지만, 본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새 진리를 담기에는 부적당한 낡은 부대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마태복음 9:17참조). 그리고 “그들의 헨 옷과 헨 신발”이란 삶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해성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해를 거듭함에 따라 쓸모없게 되어버렸음을 뜻한다.

기브온 주민들은 스스로를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는 정해진 특별한 용도 없이 그저 지식을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전적으로 주어져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끝마다 “왜”라는 단어를 붙여서 묻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왜”라고 묻는 것은 어린이들만이 아니다. “왜”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하게 되는 질문인 것이다. 어린이들이 “왜”라고 묻는 것은 정확한 답을 원하는 의식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운 것이다. 즉, “왜”라고 묻는 것은 “정신적인 호기심”의 표현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인 호기심”을 다정한 친구처럼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적당한 위치에 머물도록 하면서 그것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호기심”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를 가져오는 지식들까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혼란 속으로 끌고 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정신적인 호기심을 종속되는 위치, 즉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하의 위치에 눌러 놓음으로서 우리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기브온족은 “나무를 꺾고 물을 길어”나르는 위치에 놓여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성막을 섬기도록 배치되었다.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무는 올바른 행동을 표현하며, 물은 진리를 표현한다. 간단한 예로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기독교인은 “전쟁은 완전히 없어져야 할 것이야”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인류에 의한 “나무를 꺾고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이 수없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자료의 수집과

원리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조심스럽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막을 위한 나무와 물은 성막뜰에 있는 큰 놋 제단의 사용과 거기에 있는 놋대야를 위함이었을 것이다. 성막의 뜰이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시도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말한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호수이를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롭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초로 했고 주님의 조언도 구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행동했다(제 14절 참조). 비록 그가 이스라엘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브온족을 만들긴 했으나, 그는 조약을 체결하여 10장에서 보는 바대로 그들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등 그들에게 묶이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드러나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시험과 싸워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성급하게 행동할 때마다 기대치 않은 것, 즉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빵 = 영적인 선

가족 포도주 부대 = 교리들

겉옷 = 우리의 애정을 옷 입히고 있는 진리들

제 4반

본반은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실수까지도 우리에게 용이하도록 해주심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땅에 다시 진입했을 쯤에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적들로 가득 해 있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항은 말씀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땅에 있었던 국가를 거론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선사시대의 교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음을 짐작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즉, 태고교회에서 출현한 거인들이 아직도 그 땅에 있었던 것과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들이 고대 말씀으로부터 취해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창세기 10장 15-18절의 족보들에서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거룩한 땅 밖에 있었던 나라들과 민족들의 선조들은 성경에서 보면 역사시대인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 이유는 거룩한 땅 밖의 국가들이란 우리가 성장할 때 주위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악들을 상징하고, 거룩한 땅 내의 국가들이란 유전성 속에 든 악 곧 우리 내부의 악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 있는 악들을 모두 파괴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에서 악들에 대한 정복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의 발밑에 두게 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며 심지어 그것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영적 발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본문속의 기브온 주민들은 퇴보된 고대교회의 잔류 중에서도 가장 양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인 히위족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지식을 사랑하며 그 지식을 선용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의 어린 시절에 두드러져 나타난다. 어린 시절의 우리는 만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사랑함이 영적인 진보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절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며, 환경이나 조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유로 기브온 주민들이 주님의 제단의 일인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회중을 섬기는 동안 그들의 생명이 유보되었던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왔을 때 그를 속이려고 꾸민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속임수이나 그것들의 상응적인 면에서는 순수한 진리를 함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에 흠뻑 빠져 있어 종교와는 근절된 한 과학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최대한 몰두하여 자연계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죽을 때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타인들에게 남기고 간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발견이 선하게 혹은 악하게 쓰이는지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가 어린 시절 주님께 가까웠을 때 가졌던 순진한 선함이 막 구워 가지고 나온 딱딱딱딱하고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표현된다면, 그가 죽을 무렵의 빵 곧 그의 선함은 말라서 바삭바삭해져 맛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 없이 부드럽게만 느꼈던 그의 양심은 이제 너털너털하게 기운 현 가죽 술 부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법은 낡아 헤진 옷으로 표현되며, 세상적인 편리 주의로 일관된 그의 신발 역시 닳아빠져 기운 낡은 신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유아기인 먼 나라로부터 긴 여행을 마친 사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의 노동의 결과는 영적인 삶을 섬기게 만들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메마른 과학자 역시 우리의 정신적인 나라 안에서 보면 정상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흥미의 추구가 세상적인 지식인 과학, 예술, 사업, 사회단체, 스포츠 또는 심지어 성경 교재에서도 인간의 영적 생명에 선용되려는 것에서 떼어져 있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빵은 우리 속에서 메말라지고 우리의 종교 원리들은 부스러져 산산조각 나며 살아가야 함에 대한 지식들마저 진정한 용도에서 빛나가 하강하게 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얻고자 애쓴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해 버리고 그러한 지식이 우리속의 보다 높은 특질을 섬기는 하인 역할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이 속임으로 인한 것이니 파기해야 한다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살려두셨으나 그들에게 알맞은 임무를 주어 지키도록 하셨다. 제 10장을 보면 기브온 주변 국가들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서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 때 또는 차후에 자신의 약점이 잘못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통제 하에 잘 배치하여 마무리 짓는 다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결과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5반

가나안족의 선조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마나면 우리 선조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된 악의 경향성을 살펴본다. 본문에서는 악의 경향성마저도 영적 발달에 쓰이도록 배려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우상숭배의 근원이 고대교회의 상응에 대한 지식이 악용되고 오용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후기 고대교회에 있던 우상숭배자들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우상 숭배를 모든 나라들에 퍼트렸던 것이다. 다신교도 이러한 고대교회의 우상숭배자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땅에 있었던 나라들 역시 같은 근원을 가진다. 그들 중에는 가나안족이라는 이름하에 있는 몇 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여서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말씀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가나안 지방의 경계선은 시돈에서 시작하여 그랄쪽으로 내려가다가 가자에 이르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쪽으로 라사에 이르렀다”라고 한다(창세기 10:9,19).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은 “내적인 예배가 부패됨”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내적인 악들 그리고 우리 심정과 지성 안으로 주님께서 진입하시려는 것을 막는 악들을 표현한다. 이 가나안족과 더불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테고교회의 악한 잔류로서 자아 찬양에 쉽게 빠지는 경향성을 표현한다.

가나안족들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그 땅에 처음 왔을 때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앞서 우리는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롯을 잡아간 왕들 그리고 그들을 아브라함이 격퇴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 부드럽고 순진한 상태에 있는 동안 우리 속에 유전된 악들에 대항하는 우리의 첫 투쟁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의 적들을 여전히 휘어잡지 못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 백 오십년 동안 그곳에 체류했다. 그들이 이집트에 체류하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늘어갔고 견고한 성을 지으면서 가나안 땅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왔을 때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긴 투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줄거리는 영적 여정을 가는 우리의 경험에 대한 생생한 묘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부모에 의해 보살펴진다. 어린아이는 아직은 어려서 천국적인 삶의 참된 의미를 모르지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천국적인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된다. 그 후 우리는 집을 떠나 학교라는 세상에 참여한 후 직업전선에 진출하면서 독립된 개인으로 발돋움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외적인 것들 혹은 바깥 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동안 우리의 전투는 오로지 외적인 평면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땅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 되돌아오게 되면, 즉 우리의 지성과 심정이 발달되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얼마 되지 않은 적들이 아닌 견고한 요새를 짓고 들어가 진을 치고 막강한 세력을 지닌 악들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적들을 부수는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얻은 승리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본문 이후의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남은 적들이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며 자신들과 혼합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것들을 많이 모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라도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금방 세력을 이뤘 역습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의 하나 하나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우리속의

악을 대항하는데 있어야 할 우리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때는 결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주님께 이제는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안일이 우리의 삶에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기브온 주민들과 있었던 사건을 접하게 된다. 기브온 사람들이란 히위족이다. 창세기 10장 15-18절에 열거된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는 헷족과 히위족이 있다. 이 두 부족들은 고대교회에서 파생된 다른 가나안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 가깝게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밍과 막베라 동굴을 사들인 거래자 또한 헷족이다. 그리고 예사오는 헷족의 두 여자와 결혼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의 열왕시대에서 선한 역할을 하는 헷족의 언급을 보게 된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윗이 바세바에게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속임수를 썼을 때 헷족인 우리아가 다윗의 군대에 속한 군인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싸우다 전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히위족에 대한 언급을 창세기 34장에서 하물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라나와 결혼하고자하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그녀를 위해 어떤 보수를 제공하는 데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스웨덴본은 헷족과 히위족이 고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상응에 대한 지식을 계속 탐모하여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바른 자들에 속했다고 말한다. 헷족은 한계가 있는 외적인 지식들을 상징하고, 히위족은 예배의식과 표현 안에 든 내부의 지식을 상징한다. 「천국의 신비」 제 3058항에서는 기브온 사람이란 진리를 계속 알고 싶어 하나 아는 것 이상 다른 목적 곧 지식을 배워 선용할 목적의식이 없는 이들, 즉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이들을 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의 계약은 표면상으로 보면 엄연한 거짓말이지만, 내면 상으로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다. 12절과 13절의 이야기를 내면적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먼 나라, 즉 고대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은 그들이 출발할 당시에는 따끈따끈 했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대교회가 처음에 생산한 영적인 선이야 말로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는 뜻이다. “이 부대도 술(포도주)을 채울 때는 새것이었는데,”라는 말에서 포도주란 영적인 진리의 교리로, 이것 또한 히위족이 고대교회로 발달될 당시에는 새 것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옷과 신”은 삶의 행동적 측면에 대한 사상과 이 사상의 실질적인 응용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처음에는 새 것이어서 서로가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은 점차 말라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헤어지고 닳아졌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편이 낫다고 인정했으며, 그들과 싸우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될 것임도 알고 있었다.

이제 기브온의 상대방인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야기대로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약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주님께 한마디 조언도 구하지 않은 채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 모습은 진리가 내면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50장 2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못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잘 아시며 우리가 흠인 것도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섭리는 우리가 파괴하지 못하는 우리속의 유전된 악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용한 매개체가 되도록 해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의 법칙이 의미해주는 것은 우리속의 많은 것들이 그 자체로 보면 우리의 약함이며 우리속의 천사들에게는 이상한 것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약함과 이상한 것을 잘 들여다보고 살펴서 그것들을 적당한 위치에 놓고 잘 부리게 되면 우리의 높은 목적을 섬기도록 하는데 꽤 유용하다. 우리 모두는 기브온 주민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자연적인 욕구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호기심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도우려 함에 있어서 최선의 수단을 일러주기도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유용한 진리를 가져오기도 한다. 기브온 사람들은 주님의 제단을 위해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게 되었다. 나무와 물이 성막에서 사용된 곳은 성막 뜰 뿐이었다는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기 바란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4431항: “히위족들은 고대 때부터 내면의 진리를 의미했고 성품이 좋은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부정한 행위가 그들을 소멸시키지는 못했다. 즉, 교회속의 진리가 다른 국가들과 같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히위족인 기브온 주민들은 주님의 섭리로 여호수아와 회중지도자들과 맺은 조약을 수단으로 보존되었던 바다.”

「천국의 신비」 제 1097항: “유대교회에 관하여 말씀 안에 쓰인 모든 것은 주님의 왕국을 표징한다.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각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왕국의 어떤 용도에 충당되었다. 그분의 왕국 내에 계신 주님과 관계없이 사용된 말씀속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는 지옥적인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길갈에 무엇을 세웠는가?
- 2) 길갈에서 이스라엘족들은 무엇을 기념했는가?
- 3) 거기서 그들의 음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4) 거룩한 땅 내의 적들 중 누가 여호수아에게 평화를 원했는가?
- 5)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속였는가?
- 6) 여호수아는 어떤 측면을 소홀히 했는가?
- 7)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과 어떤 조약을 맺었는가?
- 8)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조약을 파기했는가?
- 9)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어떤 책임을 지웠는가?
- 10) 이 이야기에서 약속에 관한 무엇을 가르치는가?
- 11) 기브온 주민의 선조는 누구인가?
- 12) 그들은 우리속의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그들의 ①헤어진 옷 ②말라서 바삭바삭해진 빵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기르도록 했음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열 두 개의 돌
- 2) 과월절
- 3) 만나가 중지됨
- 4) 기브온 사람들
- 5) 먼 나라에서 온 채했다
- 6) 주님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 7)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 8) no
- 9)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라
- 10) 히위족(노아의 아들 함으로부터 온)
- 11) 지적 호기심
- 12) ①행동지침의 생각 ②영성(spirituality)
- 13)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인 실제적인 지식을 얻고자 지적 호기심을 사용함

14

판관 「입다」

머리말

여호수아의 가나안땅 정복과 각 지파별 할당부분을 언급한 후 판관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땅에서 강세를 얻게 된 까닭을 설명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입다의 성급한 서약과 여호수아의 기묘한 사람과 체결한 성급한 조약도 비교해 본다. 입다의 딸에 관련된 사건은 5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1장

11장: 1.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2.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입다에게 “너는 바깥 여자에게서 난 놈이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하면서 그를 쫓아 내었다. 3.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돕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망가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을 모아 비적패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 4.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은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의 일이었다. 5.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길르앗 원로들은 돕 지방으로 입다를 데리러 가서 6. 그에게 청했다. “그대가 와서 우리의 장군이 돼 주어야 우리가 암몬군을 칠 수 있겠소” 7. “나를 미워하여 내 가문에서 쫓아내던 때는 언제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의 청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8. “그래서 우리가 그대를 찾아 온 것이 아니오?”하며 길르앗 원로들은 입다에게 청하였다. “우리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을 물리쳐만 준다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은 그대를 수령으로 모시겠소” 9. 입다가 길르앗 원로들에게 채우쳐 물었다.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가서 암몬 백성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 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당신들이 나를 수령으로 받든단 말이지요?” 10. 야훼께서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군 말씀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두고 보시오.“ 길르앗 원로들이 이렇게 다짐하자, 11.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을 따라 나섰다. 백성들이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자, 입다는 야훼 앞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그 곳은 미스바였다. 12.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나와 그대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내 영토에 쳐들어 왔는가?” 13. 암몬족 임금은 입다의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 올 때 아르논 개울과 야벡강 사이에 있는 내 영토를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빼앗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고이 돌려보내라.” 14. 입다는 암몬족 임금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15. “나 입다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영토나 암몬족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없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 홍해바다를 지나 카데스에 이르러 17. 에돔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18.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영토를 돌아서 모압 영토 동편으로 갔었다. 아르논 개울이 그 국경이었으므로 아르논 개울 건너편에 진을 치고는 모압 국경에는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19.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왕노릇하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을 넣었다. 20. 그런데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와서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21.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수고 그 지역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2.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개울과 야벡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온 땅을 광야에서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3.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네가 우리를 몰아내겠다 말이나? 24. 너는 네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빼앗아 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신 야훼께서 빼앗아 주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단 말이나? 25. 모압 왕 시뿔의 아들 발락도 이스라엘과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싸우지 못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덤비느냐?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거기 딸린 촌락, 아로엘과 거기 딸린 촌락, 또 요르단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에 자리잡고 산지도 삼백 년이나 되었는데, 너는 왜 여태까지 이 고장들을 찾지 않았느냐? 27. 나는 너에게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전쟁을 걸어오다니 어찌 된 일이나? 심판자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 바란다. 28. 그러나 암몬족의 임금인 입다에게서 온 전갈을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다. 29.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나쎄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에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아왔다. 30. 거기에서 입다는 야훼께 서원하였다.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31.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32.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진지로 쳐들어 갔다.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으므로 33. 아로엘에서 민닛 어귀에 이르기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었다. 또 아벨그라뎀까지 진격하며 마구 짓부수었다. 이리하여 암몬군은 이스라엘군에게 꺾이고 말았다.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오는데,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그를 맞는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35.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쩔단 말이냐!” 36. 그러자 딸이 이리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야훼께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야훼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37. 그리고서 딸은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청을 드렸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벳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 가 돌아 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어 한이나 풀겠습니다.” 38. 입다는 두 달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 보냈다. 두 달 동안 딸은 벳들과 함께 산에 들어 가 처녀로 죽는 것을 한하여 실컷 울었다. 39. 두 달이 지나 아버지에게 돌아 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원한 대로 하였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엔 한가지 관습이 생겼다. 40.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애곡하게 된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흥정할 수 없다.
- * 말씀의 영적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정반대되는 때가 있다.
- *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자신의 원하는 바와 반대되더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함도 포함된다.
- * 이타애는 언제나 순종이 포함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판관기에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판관시대 이전의 이스라엘백성들은 걸출한 지도자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졌는데, 이들 모두는 제각기 신성하게 임명된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즉 그들의 숙원이었던 거룩한 땅의 정복 후 그들은 각 지파 별로 할당된 지역들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자만심에 빠져 버렸다. 판관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 시기에 관하여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21:25).”라고 전한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 나로서 최선이 아닐까?”하는 주장을 종종 듣게 된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아주 그럴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한 것들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꾸준히 지켜 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의 진리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번영을 이루게 될 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듭하여 당부한 모세의 경고를 끝내 잊어버렸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누군가가 자신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던 악은 머리를 들고 일어서며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러했듯이 강한 세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비를 완료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가 행했던 바대로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하며 자신의 욕망을 진실로 포기하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판관시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주로 다룬다. 이와 더불어 입다의 서약과 그로 인한 결과를 언급하고, 입다와 그의 딸이 주님께 한 그들의 약속의 신실함도 강조한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땅에서의 전투에서 적들을 쳐부수는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은 구획을 지어놓고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나쎄 반 지파 외에는 모두 철퍼를 뽑아 땅을 차지했다. 철퍼뽑기에 참가하지 않은 위의 2 1/2지파는 요르단강 건너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각 지파는 소속된 땅을 소유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세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며 주님께 관한 것들을 차차 잊어 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적이 섬기는 신들도 예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적들의 힘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기대했고, 주님 역시 그들을 거둬주어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강한 지도자를 들어 세우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들어 세운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부른다.

본문에서는 요르단 저편에 사는 적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암몬족이다. 암몬족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주님은 입다리를 사람을 들어 세워서 그들의 지도자로 만드셨다. 입다는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주님께 한 가지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승리를 주시면 귀환하는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을 그분께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승리를 이룬 후 귀환할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그가 제일 사랑했던 그의 딸이었다. 그는 주님께 서약할 때 서약의 결과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외동딸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그 서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 주님께서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이라는 것은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제 2반

성경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진행할 것인데, 성서 지도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입다의 고향과 2 1/2 지파의 정착지와의 관계도 연결하여 살펴본다.

우선 신명기 6장 10-15절을 읽어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경고를 확인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에 빠지는 경우 외에는 쉽게 주님을 잊어버렸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발견된다. 우리는 만사가 형통될 때 쉽게

자기만족이나 자만심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는 곤경을 그냥 내버려두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백성들이 모두 죽은 후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들이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땅의 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엄격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법과 경고를 까맣게 잊어 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이뤄 주신 하느님 대신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각종 신들을 예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고친 후 바로 잡힌 습관을 계속 지켜야 하지만 “극복했으니 별탈 있겠어. 겨우 한번 어기는데.”라는 식으로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뒤로 미끄러져 원위치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공격을 시작하여 그들을 침략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주님께 통사정을 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 세우셨다. 이러한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부른다. 판관들은 전 국토를 지배하거나 모든 백성들을 지휘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단지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별된 자들이었다. 판관이란 이런 지도자들에 관한 기록이다. 본문에 나오는 판관은 입다 외에 드보라, 기드온, 삼손, 엘리 그리고 사무엘 등이 유명한 판관들이다.

당시 다신교를 믿는 국가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듯이, 입다 또한 자신의 딸을 제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죄악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죄악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얼마나 그리고 왜 나쁜가를 몰랐던 것이다. 우리 역시 선한 동기에서 시작하나 무지함으로 실수를 행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신다. 입다와 그의 딸은 그것이 옳바르다고 믿고 있었다. 주님께서 창세기 22장 16-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입다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약속을 하기 전에 꼼꼼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한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하며 다른 이들이 약속을 지키려는 것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를 대비한 뒤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의 판관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 *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 암몬족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인가?
- * 입다는 어떤 경솔한 서약을 했는가?
- * 그가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 * 그의 딸은 아버지가 서약을 깨트리도록 했는가?
- *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어떤 간청을 했는가?
- *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어떤 관습이 생겼는가?

제 3반

입다의 딸이 제물로서 갖는 상응이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나 판관 시대의 전체적인 윤곽과 의미를 살펴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판관들이란 여호수아에 의해서 거룩한 땅이 완전히 정복된 후 그곳의 적들에 대항하여 백성을 이끌도록 주님에 의해 한 명씩 일으켜 세워진 지도자들을 말한다. 거룩한 땅의 정복은 우리 삶의 거듭나는 시기를 그려준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삶의 생활적인 부분을 주님의 질서 위에 세우고 그러한 삶에서 우리나라 오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우리의 심정 안에 깊이 뿌리박힌 유전적인 악들과 싸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싸움의 시작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의 적들을 발밑에 두게 되었다. 이후 가나안 땅은 제비를 뽑아 각 지파들에게 할당되었고, 각 지파는 각자 지역 내에 잔존하는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명령되었다. 하지만 정적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들은 가장 남쪽 지역인 헤브론 주위의 지역을 차지한 갈렙의 후손들뿐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착함 곧 자신들의 집을 짓고 밭을 일궈 새로운 땅을 즐기는 것에만 집착해 있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잘못된 경향성중 하나를 극복했다고 자부하게 될 때 자신의 노력을 쉽게 과대평가하며 이로 인해 자신 안의 다른 조그만 약점들을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가장 엄격히 금지되었던 책무인 다른 종족과의 결혼마저도 우습게 여겼다. 이러한 일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이는 모든 장로들마저(연장자들)죽은 후에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 자신의 악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잊고 마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은 강세를 얻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괴롭히고 짓누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한때의 승리에 취해 우리의 악들이 모두 정복되었다고 믿으면서 나태해지면, 그 악들은 틈을 타서 점점 다시 자라 오른다. 그리고 우리가 옛적에 겪었던 시험에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눈치 챘을 때는 이미 늦어서 벌써 시험에 빠져서 짓눌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시편 107편 13절에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주님께서 사경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묘사되는 바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경에 빠졌을 때마다 주님을 회상했다. 이것 역시 우리 모두 체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빠져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들어 세운 관관이란 우리가 빠진 시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도록 기억 속에 들어있던 말씀으로부터 연계 되는 특수한 진리를 말한다.

관관시대의 대부분의 적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가나안 땅 안 뿐만 아니라 그 땅 밖, 즉 요르단 강 건너 저쪽의 적들까지도 강세를 얻어 그 지역을 재탈환 하려고 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나쎄 반쪽 지파들은 그들의 거주 지역으로 요르단 동쪽을 선택했다. 그 땅은 요르단을 건너기 전 암몬족으로부터 획득한 지역이다. 그곳은 길르앗 산비탈에 풍부한 목초지를 갖고 있었다. 요르단의 동쪽이란 우리의 바깥쪽 행동을 표현한다. 그곳에 있는 적들이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즉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진입한 후 곧 거듭나는 삶을 시작한 후 질서를 따르는 생활에 상당히 익숙해져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착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올바르게 않은 것을 말하며 경솔한 행동을 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본문의 암몬족의 공격은 바로 이러한 시험에 빠지는 상황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암몬족은 “진리의 왜곡”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말씀속의 진리가 옳다고 인정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비비꼬아 버리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한때 “안식일에는 꼭 주님의 예배에 참석해야 해”라고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함을 인정한 후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정성만큼 골프장에서도 그분께 예배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주님이 주일날 교회에만 계시는가?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험 중에서도 외적인 종류, 즉 표면적인 시험에 속한다. 이때 주님은 말씀의 표피인 글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가져다주신다. 즉,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 가셨다.”라는 구절을 접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외부적인 시험에 대처하기 위한 외부적인 수준의 진리 곧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있게 되는 진리가 바로 본문의 길르앗 사람 입다로 상징되고 있다.

본문의 줄거리는 입다의 경솔한 서약에 관한 것인데, 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에 대한 꿈을 꾸자,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창세기 28:20-22).”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 흥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생하도록 허용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것이며, 우리의 선함을 위해 있어진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입다에게 발생된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진정으로 섬김에 요구되는 것, 즉 우리의 바램을 끊임없이 포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용된 것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말씀의 영적인 뜻(속뜻)이 말씀의 글자적인 뜻(겉 뜻)과 정반대의 측면을 가지는 경우 중 하나이다. 글자적인 뜻으로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입다로 하여금 인간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참혹한 주님의 모습이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더욱 상기해야 할 사항은 입다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침을 당연하게 여겼고 입다 역시 그것을 잘못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때처럼, 입다와 그의 딸 역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최고의 헌신의 표시로서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마치 올바른 것처럼 믿게 되어서 저지르게 되는 잘못된 주님께서 그냥 두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입다가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도록 허용하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을 자신의 선택으로 하게 된 경우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이 믿는 대로만 행할 수 있고, 주님께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속뜻 곧 내적인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딸이란 애정, 즉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본문을 보면 입다의 딸이 외동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입다의 외동딸이란 입다가 당시 가졌던 유일한 애정을 상징한다. 즉, 그는 서자로 태어나서 힘센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유일한 애정은 출세나 성공뿐이었다. 성공 곧 그에게 줄 만족감인 승리에 대한 애정이 그의 외동딸로 표현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만족감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이와 더불어 상기해야 할 것은 번제물이다. 주님께 드리는 번제물이란 우리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모든 선한 특질들을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표현한다. 산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애통해하도록 입다의 딸에게 허용된 두 달이란 우리속의 자아만족을 주님께 바칠 제물로 만들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수행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아만족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딸들에게 생긴 관습이란 우리가 주님께 한번 바친 제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나타나는 효과를 그린다. 이리하여 판관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삶의 표면에 흐르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판관 = 말씀에서 비롯된 특별한 용도를 가진 진리
길르앗 = 바깥 삶에 있는 선

제 4반

자기 과신의 위험 그리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가 채택한 선한 원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입다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언뜻 보기에는 조금 기이하고, 금기해야 되는

어떤 사항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판관기서는 거룩한 땅의 소유권을 장악한 때로부터 유대국가로의 발달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완충 시대적인 시기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보면, 이 시기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 발전에 대한 아주 큰 것, 즉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배우게 된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거룩한 땅의 정복이란 정식으로 거듭남이 시작되는 시기를 표현한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란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유전적으로 받은 우리속의 각종 악함과 악들을 열심히 발견하면서 극복해가는 상태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 후 그들은 그 땅을 제비뽑아서 각 지파에게 할당했고, 각 지파들은 제각기 자기들 땅으로 가서 그 땅의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적들을 소탕하도록 명령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이나 내면에 든 악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열매를 즐기 시작하는 때를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우리가 많은 시험들을 치러야만 완전해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획득한 승리로 인해서 마음이 우쭐해져 장차 오게 될 시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다. 즉, 우리는 이러한 자기 과신이 우리의 위험 신호등에 불이 깜박거리는 것과 같음을 모른 채 방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한 후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판관기 1장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남쪽 지역 지파인 유대와 시므온은 그들 영토내의 적들을 완전히 소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선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외의 지파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를 이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으나, 그들이 모두 떠난 후에는 그분을 잊고 가나안 주민들과 혼합되어 결국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해나가겠다고 다짐한 후 시작된 첫 열정이 매일 닦치는 세파에 휘말릴 때 얼마나 쉽게 식어 가는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파에 시달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행동하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여 결국 세상이 그러하듯이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 영적인 삶 대신에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가 과거에 극복했다고 생각한 우리속의 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들이 어느새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바로 거룩한 땅의 곳곳에서

하나씩 고개를 들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힘에 억눌릴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 때마다 그분은 일이 터진 지역에 관관을 들어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적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관관들이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그분께서 특정한 시험들과 직면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들어내 쓰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길러진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특수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거룩한 땅은 요르단 강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길게 놓인 지역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보다 넓게 보면 요르단 강 동쪽의 계곡 역시 거룩한 땅 내에 속한다. 그곳은 오래 전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할 때 살기로 선택한 비옥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고 유쾌한 것을 가진 부분, 즉 자연적인 평면을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적인 평면이 많은 시험들을 갖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 하에 거룩한 땅 근처까지 접근했을 때 그들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쳐 갔으나, 바산의 거인왕인 옥과 시혼을 정복함으로써 아모리 사람들로 부터 계곡을 빼앗았다. 그 때에 르우벤과 가드지파는 요르단 건너 서쪽 대신에 그 지역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용사들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것을 돕는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락해 주었다.

므나쎄 지파의 반쪽도 역시 “요르단 건너” 지역에 정착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부분은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스웨덴북은 길르앗이 처음에 있어진 선함 또는 육체의 감각에 속한 선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선남선녀가 되고 주님께 순종하며 이웃에 친절을 베푸는 인격이 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높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도 많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자연적인 천국에 거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한다. 그들은 더 높은 천국이 있음을 알지만, 그들 스스로 더 높은 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입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이 바로 자연적인 천국에 거주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길르앗 지역이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었고, 입다 이전의 관관인 아이르 역시 그곳 출신이었다. 하지만 아이르에 관한 언급은 그가 이십 이년간 관관을 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아이르와 입다는 관관들 중에서 거룩한 땅 안에서 들어 세우지 않은 자들이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곤경은 길르앗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이며, 아이로는 입다와는 다른 곤경이 발발할 때 있었던 관관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거듭남을 시작한 후 싸워야하는 적의 대부분은 거룩한 땅 내에 있는 적으로, 우리 속에 든 유전적인 악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룩한 땅 밖에 있는 길르앗의 곤경은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본문에서의 적은 암몬족이다. 암몬은 롯의 두 아들 중 하나이다. 암몬족은 우리가 자연적인 선 안에만 머물러고 하여 발생하는 악에 쉽게 이용당한다는 것과 진리를 쉽게 왜곡시켜 버리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한다. 암몬족이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쌓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부와 행복을 쟁취하여 그것에 푹 빠져들면서 선의 표준을 세상적인 행복에 두게 되면,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까지도 세상적인 표준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자연적인 선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맹점은 선행을 베풀에 있어서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베풀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자연적인 선 안에 머물고 있는 자는 악한 자들에게 베풀 선이 결국 그들의 악을 부추기는 것임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를 부연 설명하자면, 자연적인 선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칼을 빌리러 왔을 때 그것을 빌리러 온 이유와 사용목적에 대해서 헤아려 보지 않고 그것을 빌려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어 그냥 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서 빌려간 칼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과 같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강도질과 같은 것에 악용될 수도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북은 “악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선한 자에게 악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판관으로서 입다가 상징하는 바는 주님께서 진리를 거짓 해석하는 것을 반박하시기 위해 우리 지성 속에 세우시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이다. 누가복음 6장 27-36절은 진리가 거짓되게 해석되는 성경 부분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34절의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꾸어준다”라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부분이다. 입다는 창세기 28장 21절의 야곱처럼 자신이 주님과 흥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30절에서 알 수 있는 그의 분별없는 서약이다. 그는 선을 행하되 자신에게 오게 될 공적과 보상을 바라며 그것을 행했다. 수차례 살펴본 바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 곧 자신에게 올 보상이나 공적을 바라면서 선행을 시작한다. 우리가 요르단 강을 건넌 상태, 즉 거듭나는 상태에 있다면 이런 것쯤은 뒤에 남겨 두어야만 할 것이다. 입다의 이야기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선의 근원이 자신인 듯 착각하게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애정, 즉 자연적인 것(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삶의 표준을 두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애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입다의 딸이다. 입다가 승리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집에서 나와 제일 먼저 그를 맞는 외동딸의 모습은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의 승리에도 환호하며 자축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이러한 자축의 분위기를 마음에서 느끼게 될 때 그것을 즉시 포기해야 함을 인식한다. 번제란 우리가 가지는 모든 선함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 곧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속의 자연적인 것들의 반항을 내려 놓아야만 한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실컷 우는 외동딸, 즉 제물이 되는 외동딸로 그려지고 있다.

제 5반

영적인 여정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게 된다. 세상으로부터의 압력에 쉽게 눌려서 동질화되는 실수는 선을 고려함에 있어서 외적인 선행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내적인 의미에서의 판관시대란 우리가 삶에서 외부적인 행동지침들을 바른 질서 안에 놓고 우리 속 깊은 곳의 시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도권을 장악하여 자신이 영적인 삶을 건설했다고 자부하게 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러한 성급한 자신감으로 인해 경계를 깨트리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의 영적인 삶의 실제와 생각에까지도 느슨해지고 만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타협은 단 한번이라도 예외를 두게 되면 이주 빠르게 우리를 과거에 투쟁했던 악들 속으로 미끄러지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얼른 실감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지파 별로 분할되어 각자의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아래 정착한 후에 그들은 영토 내에 남아있던 적들과의 전투를 중단했다. 그들이 적들과 혼합되면서 적들의 세력은 더욱 강해진 반면 그들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갔다. 세월이 흐르자 적들은 하나씩 고개를 들었고, 그들은 과거 여호수아 지휘 하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썩워놓은 굴레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적들과 싸우기 위해 곳곳에 한명씩 필요에 따라 들어 세운 사람들이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삼손과 같은 판관들이다. 그래서 판관들이란 우리가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실감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든 말씀 가운데서 들어내서 세우시는 특별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특별한 진리들은 우리가 당면한 시험에 들어맞는 진리들이다.

판관시대의 대부분의 적들과 판관들은 거룩한 땅 내에 있었으나, 본문에서의 경우는 요르단 건너지역에서 일이 발생되고 있다. 물론 판관과 전투 역시 요르단 건너지역에서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시험이 우리의 외부적인 부분에 관한 것임과 이에 대처하는 진리 역시 말씀의 바깥쪽 곧 글자적인 의미에서 오는 간단한 진리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심을 의미한다. 암몬족들의 왕이 입다에게 보낸 전갈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아모리족에게서 이 지역을 빼앗았다(민수기 21:21-24 참조). 아모리족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악을 표현한다. 이 지역과 사막사이 곧 르우벤지파와 가드지파의 남동쪽과 동쪽 경계에 롯의 후손인 모압족과 암몬족이 살았었다(창세기 19장 참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 들렀다가 거룩한 땅으로 돌아온 후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 롯은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 제 1549항에서 롯이 외적인 인간과 감각적인 것 속에 존재하는 외적인 인간의 쾌락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마음의 감각적인 평면은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운 위치에 있다. 성서에서 롯은 자신의 거주지로 요르단 계곡(평야)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는 그 선택으로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은 우리의 높은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리에게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은 외부에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쾌락에 쉽게 매혹되어 이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바른 질서로부터 쉽게 이탈되게 한다. 롯의 근친상간으로 얻어진 두 아들 곧 모압과 암몬은 감각적인 부분의 정상적인 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고, 그것의 결과는 선과 진리의 간음질이었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2468항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룩하게 나타나는 외적인 예배 안에만 있을 뿐 내적인 예배가 없는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과 진리들을 외적인 예배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꾸준히 배우기는 하지만, 내적인 예배에 속한 것은 거절하고 경멸하는 이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내적인 예배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본문에서 길르앗을 공격하는 암몬족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길르앗이란 요르단 동쪽 지역 중 평야보다 산 쪽에 치중하여 주어진 이름인데, 이 산악지역에 나란히 해서 가드지파의 상속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뤄지고 있다. 야곱의 아들 가드란 좋은 측면에서는 생활의 선 또는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선한 행동지침과 진정한 교리에 기초한 생활을 표현한다. 「천국의 신비」 제 4117-3항에서는 “길르앗은 첫 번째 선으로서 이는 육체적 감각에 속한 선이다. 그 이유는 거둬들이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이 선 또는 이로부터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명」 654-44항에는 길르앗이 다른 것들 사이에서 말씀의 글자에 있는 의미로 추론함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듭나고 있는 사람의 바깥쪽 삶에 관한 것 곧 그의 행동지침과 그의 즐거움 그리고 그의 예배 등 타인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측면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측면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굴복하기 쉽고, 특히 악과 타협하게 하는 시험에 더욱 약하다. 그래서 “진리의 간음질”을 표현하는 암몬이 길르앗의 적이 되어 이스라엘이 놀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시험은 그 형체가 다양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각자의 체험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본보기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본문에서 판관으로 세워진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적법적인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고 친형제들에게서도 버림받아 홀로 살아야 했다. 스웨덴북은 입다에 관하여 직접적인 해석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스웨덴북의 상응의 원리로 추측해 보면, 입다는 아마도 세상적인 표준이나 거짓에 접촉된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얼마간의 단순한 진리들을 표현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적인 추론이라는 그물에 뒤엉킨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고, 세상적인 추론을 구원의 도구로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입다의 맹세는 암몬족을 짓부순 승리에 포함된 사항을 인정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지침이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시험과 싸워야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하지만 나쁜 탐욕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시험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입다는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 주신다면, 암몬군을 쳐부수고 돌아 올 때 제 집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아홉째 번째로 바꿔 올리겠습니다”라고 서약했다. 굉장한 장사인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의 서약을 수행해냈다. 우리는 암몬족 같은 악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모든 제물들을 우리 심정속의 것들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와 유사한 교훈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대목에서도 발견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말리셨으나 입다의 경우에는 말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입다의 딸이 자아 사랑을 지극히 아끼려는 마음을 상징하여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임을 암시해 준다.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번제 자체는 뭔가를 죽이는 파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있게 되는 정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입다의 이야기가 글자적인 의미에서 보여주는 도덕적 측면의 교훈은 새교회의 주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석들에서는 중요한 의문으로 남는다. 우리 역시 새교회의 상응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입다가 분별없이 한 서약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로 가장 명확한 교훈은 분별없이 성급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33-37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608항에서 “맹세란 내면이 아닌 외면상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한다. 약속은 심각한 것이어서 경솔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며, 경솔하게 깨트려져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한 약속이 어리석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우리는 선택 상에 문제점을 갖게 된다. 여기서의 선택이란 옳고 그른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의 악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만약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킴으로서 자신에게 곤란함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차후 있게 될지 모르는 곤란함을 대비하도록 해주는 교훈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위협이나 곤란함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우둔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약속을 깨트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을 깨뜨림으로서 상실하게 될 신용적 손실을 감수하고 이웃에 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설 때 그분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 3) 본문의 판관은 누구인가?
- 4)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5) 본문에서는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6) 입다는 무엇을 서약했는가?
- 7) 입다가 승리하고 집에 올 때 처음 환영 나온 자는 누구인가?
- 8)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서약을 깨트리도록 노력했는가?
- 9) 그녀는 어떤 요청을 했는가?
- 10) 이로 인해 어떤 관습이 생기게 되었는가?
- 11) 판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2)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된 것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백성들이 주님을 잊었다
- 2) 판관을 세워 주셨다
- 3) 입다
- 4) 요르단 건너편
- 5) 암몬
- 6) 자기를 환영 나온 첫 사람을 제물로 바침
- 7) 입다의 딸
- 8) 노력하지 않았다
- 9) 두 달간의 여유
- 10) 해마다 사흘씩 곡함
- 11) 필요성을 만날 특별한 진리
- 12)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라

15

빼앗긴 궤와 돌아온 궤

머리말

관관시대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전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때의 백성들과 관관시대 백성들의 상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또한 본문 이전의 내용인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본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4장1-11절, 5장, 6장 1-16절

4장: 1.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에벤펠에 진을 쳤고 블레셋군은 아베크에 진을 쳤다. 2. 블레셋군이 이스라엘군을 향하여 열을 지어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사천 명이나 되었다. 3.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내실 것이다.” 4.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거룩을 타고 만군을 거느리시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 오게 하였다. 당시에 그 계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였다. 5. 야훼의 계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6. 블레셋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하며 웅성거리다가 야훼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7. 블레셋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 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8.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 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9.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내어라. 사나이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인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국이니, 자 - 사나이답게 싸우자!” 10. 이리하여 불레셋군이 짓쳐 들어오자 이스라엘군은 크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삼만이나 쓰러졌으며 11.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5장:1. 불레셋군은 빼앗은 하느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2. 불레셋군은 그 하느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3.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세웠다. 4.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야훼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성한채로 남아 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에게 구르고 있었다. 5.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사제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6. 야훼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 넣으셨다. 아스돗에 종기가 들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7.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8. 사람을 보내어 불레셋 추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갖으로 옮겼다. 9. 그런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자 야훼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에 종기가 돌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10.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다시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닿자, 에크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냐?”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11. 그래서 그들은 불레셋 추장들을 모두 불러,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내어놓지 않았다가는 우리 일족이 몰살을 당하겠다.”고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때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12.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6장: 1. 야훼의 궤가 불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 지 칠개월이 지났다. 2. 불레셋 사람들은 사제들과 점장이들을 불러 놓고 물었다.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 보시오.” 3.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죄제물을 엮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가 왜 당신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4. 그들이 “면죄제물로 무엇을 엮어 보내야 합니까?”하고 묻자, 이렇게 일러 주었다. “금으로 종기 모양을 다섯 개, 쥐 다섯 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런 재앙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추장에게 미쳤으니, 그것을 불레셋 추장들의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5.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종기와 쥐들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신께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6.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에게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7.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멩에를 떼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젓먹이 송아지들은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8. 그리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돌려보낼 금면죄제물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낸 다음 9.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큰 재앙은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가 당한 재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0.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11. 그리고 수레에는 야훼의 궤를 싣고 금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12. 그러자 소는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 갔다. 불레셋 추장들은 벳세메스 지방까지 따라 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13.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14. 수레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와 멧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수어 암소를 야훼께 번제로 드렸다. 15.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궤와 금예물이 든 상자를 그 큰 바위 위에 내려놓자 그 날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6. 그 날 불레셋의 다섯 추장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 * 말씀의 진리는 쌍날을 가진 검이므로, 선한 이는 보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파괴한다.

- * 사랑과 선한 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 * 우리는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앞서 살펴본 바대로 언약궤는 시나이 산에서 주님께서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상자이다. 우리는 이 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가구였다는 것과 주님께서 두 거룩들 사이에 있는 증거궤 위의 속죄판 위에서 "살아있는 목소리"로 대사제들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한다(민수기 7:89). 그리고 궤는 이스라엘 후손을 위해서 경이로운 일들, 즉 요르단 강을 갈랐고 예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기적들도 행한 바 있다.

궤에 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계명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계명을 앞세워야 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여 가르치시고 계심을 당부하고 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명은 우리의 심정 안에 찍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은 성막에서 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 당했고, 궤마저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계명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고 우리의 악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서 블레셋 족은 특이하고 어려운 어떤 시험을 상징한다. 그들은 우상인 [다곤]에 예배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머리와 손은 가졌으나 몸은 물고기인 신이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거 비린내가 나는데."라는 표현은 '뭔가 수상하다' 혹은 '의심쩍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들려온 말이 고백된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말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는 추궁 받게 되는데, 결국 솔직히 말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적인 여정의 경우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만약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선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은 제시하지만 정작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블레셋"이 우리의 "궤"를 빼앗아 가버린 것과

같다.

블레셋 족의 진영으로 옮겨진 궤는 그 위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블레셋 군이 궤를 다곤 신전 안의 그 신상 곁에 두자 그것은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쓰러져 있었고, 그것의 머리와 손은 동강나져 버리고 몸통만 성한 채 남아 있었다. 이것은 계명이 우리가 고백한 공의는 험잡일 뿐 아무런 진정성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의미한다. 그 후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발발했는데, 쥐떼가 그들의 작물을 파괴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모든 악들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곧 우리 삶과 비교하게 될 때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한다. 그리하여 블레셋 군들은 면죄제물과 함께 본래의 영토로 궤를 되돌려 보냈다. 즉, 우리가 선한 사람인채 해왔음을 알게 된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계명을 바른 곳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장소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심장부이다. 면죄제물이란 우리가 신실한 회개와 진실로 선하게 되고자하는 의지로 우리의 행동선상에 이기심 대신 이타심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1반

궤가 돌아오는 것에 관한 세부사항은 흥미 있는 교훈을 준다. 그것이 주는 가장 단순한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이다. 궤를 빼앗겼던 것과 이로 인해 블레셋 진영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본문 5장 1-11절까지를 큰소리로 낭독해 보도록 하자.

본문 이전의 내용은 사무엘의 출생과 그가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대 사제인 엘리에게 데려다 주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를 돕도록 하는 이야기이다. 주님께서 깊은 밤중에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에 대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사무엘이 장차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사무엘은 성장한 후 마지막 판관이 되었는데, 다른 판관들과는 달리 거룩한 땅의 모든 지역과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판관이 되었다.

사무엘이 성장하기 전 백성들은 심각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잊어버림으로서 그들 속에서 자라온 것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을 따라 거주하는 블레셋 족에게 공격당했다. 블레셋의 국력은 아주 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능가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올바르게 행할 때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그들은 자신속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대신 성막에 있던 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내려놓았다. 그 이유는 그 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블레셋 군이 궤를 빼앗아 그들의 영토로 옮겨가도록 허용하셨다. 이로 인해 블레셋 족도 하나의 큰 교훈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날 밤 다곤 상의 주춧대가 땅에 처박히고 그 상의 손과 머리는 부러져 나갔다. 그리고 또 다른 재앙이 그들을 내리쳐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고, 쥐떼가 그들의 작물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궤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궤를 선물과 함께 돌려보냈다. 그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을 불렀는데, 그들은 그들의 악들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제 2반

본문이 주는 일반적 교훈인 궤의 남용과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의 의미들을 살펴본다. 본문의 내용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관관으로 인정하게 되어 진행되는 이야기의 시작으로서 열왕들에 관한 이야기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를 알아두면 차후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관관이란 주님께서 거룩한 땅의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적들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들어 세우신 지도자를 말한다. 하지만 관관들 중 마지막 관관인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역경으로부터 어떤 지혜도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곤경에 처할 때마나 주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길만을 걸어갔던 것이다. 결국 성막을 지키는 사제들마저 부패하고 말았다. 성막은 여호수아에 의해 거룩한 땅의 중심지인 실로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정규적인 예배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지고 있었다. 엘리는 실로에 있는 성막의 대사제였는데, 그는 너무 늙어서 그의 두 아들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성막의 의무를 돌보도록 허락했다. 그의 두 아들들은 자신들이 성막을 모독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시중을 듣기 위해 성막으로 데려와져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엘리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다. 이리하여 사무엘은 관관시대의 마지막 관관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관관이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성장하기 전에 그들의 자만심으로 인해서 큰 재난을 겪게 되었다.

이 재난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이다.

블레셋 족이란 가나안의 서부 해안을 따라서 있는 평야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부유했으며 강했고 튼튼한 성도 갖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부족들은 아스돗, 가자, 아스클론, 갓 그리고 에크론이었다. 블레셋 족들은 관관시대 때에 아주 세력이 커져 이스라엘을 자신만만하게 내려 누르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 강해지자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어떻게 조처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주님으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지 않고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고서도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 행한 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잘못으로부터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궤마저 빼앗겼듯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기대를 결코 채워 주시지 않는다.

블레셋 족의 신인 다곤의 신상은 물고기 형상의 몸에 사람의 머리와 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다곤의 신상은 블레셋 족들의 마음이 상징하는 것과 아주 닮아서 그것의 사람부분인 머리와 손은 동강나져 뒹굴고 물고기인 부분만 성한 채 있었던 것이다.

궤는 블레셋 지역의 어느 곳으로 옮겨지던지 간에 두 개의 재앙이 터졌다. 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증기로 끄끙 앓았고, 쥐떼가 득실거리며 작물을 마구 파괴시켰다. 이러한 두 재앙들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재앙들처럼 사람들에게 만연된 특수한 악들을 상징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심정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계명을 읽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행복이나 평안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에게 주님의 계명은 귀찮은 것에 불과해서 그들은 계명을 없애 버리고 싶을 것이다. 즉, 그들의 마음에 임하는 계명들이란 재앙으로 밖에 느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비유로서 우리의 영혼 곧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들에 대한 묘사이며 상징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함에 따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데, 본문의 이야기를 상응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의 "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지는 상황 즉 궤를 빼앗김이 있다. 이 상황이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뒷전에 계명을 처박아 두려고 애쓰는 것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스라엘로 궤가 돌아옴"이란 우리가 궤의 원 소유지인 곳인 우리 삶의 중심부에 계명을 되돌려 놓기로

결심하는 때를 상징한다.

본문에서 궤는 실로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궤는 벳세메스로부터 키랏여아림으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지게 되어 그곳에 이십 년 동안이나 안치되었다. 벳세메스와 키랏여아림은 “레위지파”의 성읍들이었다. 레위인들은 과거 영토가 분할되어 각 지파에게 영토가 할당될 때 지역대신 거룩한 땅 전국에 위치한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는데, 그 중의 둘이 바로 벳세메스와 키랏여아림이었다. 그래서 이 성읍의 거주민들은 모두 레위지파의 후손들이었고, 그들은 궤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 후 궤를 위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새 성막을 지은 후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안치되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어떤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는가?
- *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 *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전에 주님께 그들을 도와 달라고 간청한 어떤 것과 같다고 생각되는가?
- * 누가 실로에서 전쟁터로 궤를 가져왔는가?
- * 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흡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블레셋 군이 처음 궤를 옮겨 간 곳은 어디인가?
- * 그들은 궤를 어디에 두었는가?
- * 블레셋 인들의 신상에 어떤 변이 발생했는가?
- * 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데 무엇이 사용되었는가?
- * 그 수레는 어떻게 끌려갔는가?
- * 궤와 더불어 어떤 예물이 보내졌는가?
- * 누가 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블레셋 인들에게 알려 주었는가?
- * 소는 궤를 어디로 끌고 갔는가?
- *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 3반

블레셋 족과 케가 되돌아옴에 관한 상응의 세부사항을 주로 다룬다. 그 이유는 케를 삶의 올바른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기본이 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관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에 대한 의무를 경솔히 여기고 그분 없이도 선해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곤경과 역경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실제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 우리가 겪게 될 역경들 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안의 것들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본문은 사실상 사무엘에 관한 것이다. 사무엘은 관관시대의 마지막 관관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일제히 회개하는 상태에 돌입하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들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로서 인정된 사람이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을 섬기는데 헌납된 상태였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의 일들을 돕기 위해 고령의 엘리에게 데려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에게 메시지를, 즉 엘리가 그의 아들의 악행을 방관했음을 견책하셨고 사제직을 그의 가문으로부터 거두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어린 사무엘이란 우리 속에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우리의 심정상태인 주님에 대한 순진과 신뢰가 다시 꿈틀거림을 표현한다. 이 꿈틀대는 주님께서 우리가 자만심에 젖어 있을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시고자 우리를 준비시키는 수단이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블레셋이다. 이때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능가할 만큼 세력이 커져 있었다. 블레셋이란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삶으로 주님께 순종함이 없어도 구원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시험을 표현한다. 이 시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존재한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경솔한 생각중 하나는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에 소속해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도 많이 배웠으니 이제는 선한 사람임에 분명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더라도 구원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없으면 금방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시련이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주님 탓으로 돌리며 그분으로부터 쉽게 돌아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사제가 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으로 진정한 예배가 극도로 모독되어 블레셋에게 쉽게 약탈될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을 찾는 대신 그들의 전투를 위해서 전투지역으로 퀘를 옮겨 놓았다. 퀘를 전쟁터로 가져다놓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상태란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나 해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니거나 미신에 기대보려는 것과 같다. 그들은 지성소로부터 퀘를 꺼내다가 전쟁터에 내려놓았다. 주님의 권능이 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존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결과는 그들이 예상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 즉, 퀘는 이스라엘을 그 전투로부터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이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도 잊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퀘는 블레셋 군에 의해 포획되고 그들의 땅으로 옮겨졌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퀘란 우리가 계명을 아주 막연하게 마음에 지니고 있음을 그려준다. 다시 말해서, 계명이 거룩한 어떤 것임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스스로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퀘가 없는 성막이 그 후로도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몸만 계속해서 교회에 들락거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든 계명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복도 가져오지 않는다. 블레셋의 수중에 있는 퀘는 그들에게 내려진 세 가지 재난들의 원인이었다. 첫 번째 재난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땅에 처박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인 손과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물고기의 형상인 몸만 성한 채 있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며 냉혈동물이다. 따라서 물고기는 지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 물고기 형상에 사람의 머리와 손을 더해 놓았다는 것은 예배에 알맞고 인간처럼 보이도록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퀘의 출현만으로 이러한 가상을 상징하는 다곤 신상은 파괴되고 말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계명을 읽되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단순한 지식 이상의 어떤 것임을 인식하지 않은 채 읽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재앙은 종기였다. 일반적으로 피부의 발진은 불순물이 피부에 접근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된다. 계명은 우리의 감춰진 악들에 빛을 비추어 준다. 작물을 파괴하는 쥐떼란 우리가 블레셋 족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탐닉하게 되는 수많은 작은 악들을 상징한다. 쥐떼가 작물들을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악들을 탐닉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우리 안의 선들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옴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심정상태로 되돌아옴을 그린다. 우리의 새로운 "수레"란 우리의 생활 안에 계명을 중심으로 삼게 되는 새로운 사상을 말하며, 암소란 그 새로운 사상으로 유용한 삶을 이루어 내기 위한 새로운 애정을 상징한다. 뒤에 남긴 송아지들은 과거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즐기고 아꼈던 자연적이며 이기적인 형태의 애정들이다. 금으로 된 종기와 쥐들이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타심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습관이 차지하던 자리를 메우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말한다. 숫자 다섯이란 "아주 적지만 그래도 충분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선함의 시작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송아지에 대한 암소의 울음소리란 우리가 과거에 즐겼던 이기적인 쾌락이 이제 더 나은 상태로의 진입을 위해서 계명에의 순종을 스스로 허락함에 따라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갈망들을 말한다. 궤가 벧세메스에 도착하자 암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란 주님께 우리의 애정을 헌납함을 의미한다.

궤는 첫 도착지인 벧세메스에서 머물지 않았다. 벧세메스는 레위인들의 성읍 48개중 하나였다. 48개의 성들이란 거룩한 땅이 다른 지파들에게 분할될 때 영토 대신 그들의 소유물로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것이다. 벧세메스성은 블레셋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본문에서 궤가 벧세메스에 도착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시작 후 갖게 되는 예배의 첫 심정상태를 표현한다. 따라서 궤는 이내 또 다른 레위지파의 성인 키랏여아림으로 옮겨졌다. 이 성은 거룩한 땅의 보다 안쪽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지역이기도 했다. 궤는 다윗왕이 예루살렘으로 안치될 때까지 그곳에서 20여 년간 모셔졌는데, 그 의미는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기본 상용 공부

- 블레셋 = 삶이 없는 지식
- 다곤 = 자기 총명에 빠진 자만
- 종기 = 표면에 나타난 내부의 불순함
- 쥐떼 = 작은 악들, 특히 감각적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악들
- 암소들 = 유용한 활동을 사랑하는 마음
- 수레 = 어떤 것에 대한 일반적 사상이나 일반 원리

제 4반

계명이 삶 속에서 항상 지켜져야 하는 이유와 삶의 매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 있어지는 갈등을 주로 다룬다.

관관시대란 연극 공연에 비유하면 제 일 막이 끝나고 제 이 막으로 넘어가는 때에 잠깐 있어지는 막간(interlude)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막간의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본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심에 폭 빠져 주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있었는데, 그들은 이로 인해 무관심에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아예 멸망해 버리는가 하는 양 갈래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기로에 서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길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다. 즉, 그분은 관관기의 마지막 관관이 될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성막의 진정한 예배를 오염시킨 두 사제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허용한 무기력한 대사제이자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경고하셨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견된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은 신속하게 집행되었는데, 본문에서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볼 수 있다.

본문을 공부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궤에 관한 역사이다. 궤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를 빠져나와 시나이 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올바른 국가질서와 삶의 체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신 계명들이 적힌 두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자로서 성막의 지성소에 늘 보관되도록 명령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다. 궤는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요르단을 건너 예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동안 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가르침의 근원으로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 의해 거룩한 땅의 중심지역인 실로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들의 정규적인 예배가 건립된 후 궤는 그곳에 정착했다. 여호수아가 지은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었지만,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던 점을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는 영구적인 설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성막은 많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상적인 일들에 몰두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이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야기로만 보자면, 그것은 3천년 이전에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벌어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북은 이 이야기와 우리의 삶이 가지는 중요한 연관성을 상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교육을 잘 받고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여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열심히 배웠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좋은 조건을 모두 가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충실하며 신앙심도 깊으니까 장래에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야.”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가정을 떠나 독립된 삶을 꾸려나가야 할 때를 맞게 되어 이런저런 세상적인 일들로 매일 바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이 몸담은 사회조직에서 친구를 사귀며 그곳에서 삶의 즐거움과 성취감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충실하며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 년에 단지 몇 번 얼굴을 비치는 정도로 교회생활을 하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 살면서 자신과 연계된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모방하려고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되면 블레셋 군이 공격할 적절한 때가 되는 것이다. 블레셋 족이란 자신이 아는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시험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러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악에 저항할 힘을 이미 예전에 잃어버렸음을 갑자기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신실한 삶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삶과 그 속에서 있었던 안전함을 회상하게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케를 기억해내는 모습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상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과 안내를 받고자 성막에 있는 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달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터로 케를 가져오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그릇된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잘못을 회개하려는 성의 없이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비롯된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동지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지원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군과 같은 신세가 된다.

이스라엘 군은 결국 케를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것은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지켜지지 않는 계명은 단지 우리 기억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흡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케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역시 뒤로 넘어져 죽고 말았다. 우리가 계명이 순종을 전제로 함을 믿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생명도 없게 된다.

결국 실로에 있는 성막은 안이 텅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다. 구약성서에서 케는 하느님에 대한

예배의 심장이다. 그래서 퀘의 여행은 변화하는 우리의 심정상태에 관한 것들을 표현한다. 퀘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란 우리가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를 순수하게 바랄 때를 의미한다. 퀘가 안치된 여러 장소들이란 신성한 법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퀘를 소홀히 대할 때란 우리가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퀘를 블레셋 군에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계명을 지키려는 주님의 명령을 떠넘겨 줘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뿌렸던 것으로 표현된다. 그 이유는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계명에 대한 지식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다곤 신상이 땅에 곤두박질해진 채로 발견된 것은 계명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안의 자만이 비틀 거리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피상적임을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해줌을 의미한다. 다곤 신상의 몸은 물고기이었으나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다음날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은 부러진 채 굴러 다녔고 오로지 물고기의 모습인 몸만 성할 뿐이었다.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냉혈동물인 고기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식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말한다. 하지만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즐거움이 가지는 한계점을 분명히 실감하도록 해준다. 즉, 바다의 고기는 잡아 올려져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쓰여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바다의 고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가 돌았고 쥐떼로 인해서 그들의 작물이 못쓰게 되었다. 이것은 계명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몰랐던 악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우리속의 이기적인 탐닉이 우리를 여태껏 건강하게 지속시켜준 우리 안의 선한 것들까지도 먹어 치우겠다고 입맛을 다시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퀘가 재앙을 내려서 진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퀘를 블레셋 영토 안에 잡아두려고 이리저리 궁리한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블레셋 족장들이 그들의 영토 내 큰 성읍들 이곳저곳으로 퀘를 옮겨 보관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재앙은 퀘가 옮겨지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까지 많은 세월과 역경들을 거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갖은 고생과 곤경을 겪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계명을 준수함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진실로 알게 된다. 새 수레는 이러한

과정으로 있게 되는 계명에 대한 생각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준다. 그리고 두 암소는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원리로서, 계명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새로운 행동지침이 곧 수레를 끌 암소인 것이다.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벧세메스쪽으로 걸어가는 소가 내는 울음소리란 이젠 더욱 쉬울 것 같고 더욱 기쁨이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것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상징한다. 금쥐와 금중기의 형상은 이기적인 동기를 이타적인 동기로 대체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숫자 다섯이란 "비록 적긴 하지만 그래도 너덕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동기가 바뀌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상태보다 훨씬 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퀘는 단계별로 그 섭리를 진행시킨다. 처음 단계에는 환영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다음에는 제물을 필요로 한다.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속의 심정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도록 해 줄 때, 계명은 우리가 만끽한 이기적인 즐거움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통행료를 징수한다.

제 5반

블레셋이 상징하는 우리의 상태와 계명과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었고 주님이 임명한 판관이라는 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도 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 3장 20절의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이란 우리가 자아총명이라는 자만심을 깨트리고 주님의 방향과 보호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어린 시절 우리의 상태인 순진과 신뢰의 상태를 우리 속에서 일으켜주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무엘의 부름은 대사제 엘리가 성막의 진정한 예배가 부패되는 상황을 소홀히 하여 초래된 저주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다.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내린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판관시대를 통해서 발달되어 온 상태가 최 정점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이 죽고 퀘가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으로 표현된다.

스웨덴본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항에서 "블레셋 족에게 이스라엘이 정복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각종 규례와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상태였다. 즉, 그 때의 그들은 그 가르침에서 이탈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야훼께 돌아오려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다른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야훼께 돌아와 오로지 그분만을 섬겨라."라며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궤안에 보관된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일치됨을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고 미신적인 믿음으로 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그것의 권능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전세가 흐를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음은 과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궤의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명에 대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표현이다. 그들은 두 돌판을 지성소의 궤안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삶에서는 아주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블레셋이 상징하는 상태, 즉 생활에서 선이 분리됨을 허용하는 지식과 꼭 같은 것이다. 엘리와 그의 가문의 사제직은 끝장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엘리가 주님에 관한 정규적인 예배를 계속 수행했으나 예배가 악용됨을 방치함과 더불어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까지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교회의 일원으로 활약하면서 한편으로 세속적인 목적에 따라 행동하려는 자신과 이기적인 탐욕에 몰두하려는 자신을 못 본 척하는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법도가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원리로서 존재하나 단지 기억 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하여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지침과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인 것이다. 즉, 우리속의 "궤"가 "블레셋 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의 궤가 블레셋과 머물 수는 없다. 우리가 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행동에 놓는다면, 계명에 대한 참 지식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계명에 대한 참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찌그러진 그릇됨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종기와 쥐뎀의 재앙은 단지 백성들이 빠져버린 악이 드러나 보이는 것, 즉 감각적인 삶의 습관들의 면모가 밝혀지는 것이었다. 스웨덴붉은 이를 "교회속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소비해 버리는 악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블레셋이란 "믿음에 관한 지식이 있으나 이타애의 선 안에 있지 않고 단지 기억 속에만 담고 있는 자들"을 표현한다. 종기와 쥐뎀의 재앙을 당하는 블레셋의 상태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알게 된 그분의 법도를 우리의 생활 곧 우리의 생각과 행동지침에 응용하려는 대신에 이기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편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우길 때 겪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 블레셋의 신인 다곤은 몸뚱이는 물고기였고 머리와 손은 사람의 형상으로 된 우상이었다. 창세기 첫 부분을 상기해 보면, 물고기란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궤의 출현으로 머리와 손이 부러져 나갔고 몸뚱이만 성한 채로 있는 다곤 신상이란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블레셋적인 사상이 계명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속에 든 계명이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속의 악들을 드러내 보여줄 때마다 계명에 대한 지식을 기억 속 곳곳에서 이리저리 치우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본문에서 블레셋 족장들이 궤를 아스돗에서 갖으로 그리고 다시 에크론으로 옮기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계명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잠잠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궤가 이동할 때마다 궤의 권능은 자동적으로 발휘되어 우리 속에서 감춰진 죄들이 속속 밝혀지게 되는데, 이는 그 지식의 제 위치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자신에게 평화를 갖게 해준다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지속된다.

스웨덴북은 빼앗겼던 궤가 다시 돌아옴에 대한 상응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참된 기독교」 203항과 「하느님의 섭리」 326-12항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설명 700항을 참고하도록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점쟁이들을 불러 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의논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연상시켜 준다. 점쟁이들이 상응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상응지식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동방나라에도 존속했음을 의미한다. 궤와 더불어 보내진 금증기와 금쥐란 궤가 드러내준 악들을 단념함을 상징한다. 이것들은 면죄제물이라고 불리며,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행동지침의 동기로서 자아사랑 대신 주님과 이웃사랑을 놓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새 수레란 “새롭긴 하나 자연적인 수준의 교리”이다. 이는 「The Sower」라는 책에서 생활 속에 계명을 심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롭게 인정함을 뜻할 것이라고 암시되어 있다. 멩에를 메어 본 적 없이 젓먹이는 암소란 거짓으로 아직 불결해지지 않은 자연적인 애정을 말한다. 자연적인 애정이 그것의 기반인 자연계나 세상적인 것과 분리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송아지를 떼어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과 어미 소의 울음소리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칭찬이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배워서 그대로 실행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허전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즉, 교회에 봉사하되 그것을 통해 교회의 모범으로 채택되거나 칭찬받게 되는 기대감을 갖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봉사하게 되면 우리는 팔뚝의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송아지를 떼어 우리 안에 가두고 그로 인해 울게 되는 어미 소의 울음으로 의미되는 것이다.

암소들은 퀘가 가진 신성한 권능이 중용하는 대로 벳세메스쪽으로 곧장 수레를 끌고 갔다. 벳세메스 지역은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레위인들의 성읍이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퀘를 수레에서 들어내고 그 소와 수레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자신속의 악들을 인정하고 계명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속의 퀘는 그것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바, 우리의 자연적인 애정이나 생각의 자연적인 방법들은 주님을 모시는데 성별되어진다는 것이 위의 구절이 가진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퀘가 본래 있던 곳인 실로에 있는 장막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퀘는 이 성읍에서 저 성읍을 거쳐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퀘를 위해 지은 새 성막에 안치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심정상태를 악에 허용한 이후에는 초기에 가졌던 열정과 함께 있었던 계명에 대한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퀘의 인도하심에 스스로를 복종시켜 간다면, 퀘는 차츰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되어 우리의 심정 속에 다시 새겨져 퀘의 권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응용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게 된다. 이것은 다윗 왕에 의해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막에 퀘가 안치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항: “ ‘그들은 사제와 점쟁이들이 하라는 대로 멩에를 멘 적이 없는 어미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수레에는 야훼의 퀘를 싣고 금귀와 종기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사제와 점쟁이들이 이런 격식을 갖추어 행하라고 조언한 이유는 그들에게 상응에 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식은 그들에게 신학이었고 신학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제와 점쟁이들은 익히 아는 사항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단지 그러한 지식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사용해서 외적인 것들을 예배했고, 그 외적인 형상이 표현하고 있는 내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 2)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3) 이스라엘군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짜냈는가?
- 4) 케를 성막에서 끌어낸 두 사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 5) 케는 어떻게 되었는가?
- 6) 케와 같이 있던 불레셋의 신상에 어떤 변이 일어났는가?
- 7) 불레셋 사람들은 결국 케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 8) 누가 불레셋 사람에게 케를 돌려보내야 하는 방법을 말해주었는가?
- 9) 케는 어디에 실려 되돌려 보내졌는가?
- 10) 케와 더불어 무엇이 보내졌는가?
- 11) 케는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 12)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3) 왜 불레셋은 케를 간직할 수 없었는가?
- 14) 새 수레와 어미소는 무엇을 그리는가?
- 15) 불레셋의 점쟁이는 케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어떻게 알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 2) 팔레스타인
- 3) 케를 전투지역에 가져다 놓기로 함
- 4) 죽었다
- 5) 빼앗겼다
- 6) 그들 신이 부서졌다
- 7) 케를 되돌려 보내자
- 8) 사제와 점쟁이들
- 9) 새 수레
- 10) 다섯 개의 종기와 쥐
- 11) 벳세메스
- 12) 순종 없는 지식
- 13) 재앙이 계속 있으므로
- 14) 새로운 자세, 새롭게 된 애정
- 15) 상응지식으로

16

사울과 요나단

머리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체격과 외모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신체적 강함과 용감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언급할 것인데, 이는 차후 공부를 위한 배경지식이 되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4장 1-46절

14장: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불레셋 초소로 가자”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 그 때 사울은 육백 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3. 실로에서 야훼의 사제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며 아히톱의 아들인 아히야가 예봇을 모셔 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4. 불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 스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5.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6. 요나단이 자기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6.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 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었느냐?” 7.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당번이 이렇게 말하자 8.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데로 건너가자. 9.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꾀짜 말고 게 섰거라’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로 올라 가지 말고 10.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 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

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11.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블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 봐라. 히브리놈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하면서 12.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을 건너다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 줄 게 있다”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번에게 “나만 따라 올라 오너라. 야훼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하고는 13. 손과 발로 기어올라 갔다. 그의 무기당번도 뒤를 바짝 따랐다. 요나단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무기당번도 뒤따라가며 쳐 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같이 받을 반 이랑 같아 져듯, 이십 명 가량 죽였다. 15.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 덮쳤다. 16. 베타민 지방 게바에서 보초를 서던 사울의 군인들은 블레셋군이 갈광질광하는 것을 보았다. 17. 그러자 사울이 함께 있던 군인들에게 “인원을 점호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 나갔는지 알아내어라”하고 명령하였다.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 때 에봇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히야가 모시고 있었다. 19.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블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게 “그만두어라”하고는 20. 전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제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21. 이제껏 블레셋에 붙어 그들과 같이 싸우러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에 가담하여 싸웠다. 22.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온 이스라엘군도 블레셋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하여 쫓아가며 그들을 무찔렀다. 23. 이렇게 그 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으므로 싸움은 베호론 건너편까지 번져 갔다. 24. 그 날 이스라엘군이 하나 둘 모여 왔을 때 사울은 전군에게 맹세를 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이니 그 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전군은 아무 것도 먹지를 못했다. 25. 마침 거기 들에는 풀이 든 벌집이 있었는데 26. 군인들은 벌집 가까이 와서 풀이 푹푹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27.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전군에게 다짐을 준 말을 듣지 못한 터이라,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풀을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28. 군인 중의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님께서 오늘 안으로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전군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

이 지쳐 있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29.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시다니, 꿀 한 번 짙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30.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은 불레셋군을 더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31. 그 날 이스라엘군은 불레셋을 므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며 쳐 죽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32. 약탈에 나서 양, 소,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피 채 먹어 버렸다. 33. 사울은 군인들이 고기를 피 채로 먹어 야훼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느님을 배반 하였구나”하면서 큰 돌을 굴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34. 그리고는 전군에게 흩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 거기에서 잡아먹되 고기를 피 채로 먹어 야훼께 죄를 지어선 안 된다고 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몰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35. 이리하여 사울은 야훼께 제단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야훼께 처음으로 세워 드린 제단이다. 36.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가 불레셋을 해뜨기 전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쳐부수자.” 그러자 군인들은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으나, 아히야 사제는 우선 하느님께 여쭙어 보자고 제의하였다. 37. 사울은 하느님께 여쭙었다. “불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도 내리지 않았다. 38.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훼, 살아 계시는 야훼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 하여도 마땅히 죽이리라.”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40. 사울이 온 이스라엘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하고 대답하자 41.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아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만약 그 허물이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뉘뉘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을 풀려났다. 42. 사울이 말하였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주사위를 던져라.”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 보아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좀 짙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44.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하고 선언하였다. 45.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

게 간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번 대승을 안겨 준 요나단을 죽이시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 내어 죽지 않게 하였다. 46. 사울은 블레셋군을 더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블레셋군도 자기 고장으로 물러갔다.

교리 요점

- *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세상의 좋은 것을 즐기도록 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즐거움은 우리의 안목을 좁게 하여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악들을 공격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왕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 *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사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은 이루어낸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요나단의 선한 인격은 그가 성경에서 사랑받는 영웅이 된 원인이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아주 용감했지만, 아주 성급하며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님의 예언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분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명령을 무게있게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그에게 승리만을 주실 수 없었던 것이다.

요나단도 사울처럼 아주 용감했지만, 그는 주님을 더 신뢰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사울을 서서히 떠나 도망쳐 블레셋의 공포를 피해 각자 살 궁리만을 염두 했을 때 요나단은 그의 무기당변만을 데리고 사울에 협력했다. 그리하여 그는 용감하게 전진하고 적을 공격하면서 오로지 주님으로부터의 호의적인 징조만을 기대하며 적진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라는 과거 그들의 역사에서 입증된 진실에 의존했다. 그래서 그의 초기 승리가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고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블레셋을 몰아내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종종 너무 크고 높은 절벽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에 빠져 버리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단같이 주님의 권능만을 신뢰하여 시험이 오자마자 대담하게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듯 보였던 적이 아주 쉽게 정복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더 주고 있다. 적군을 다 부술 때까지 어떤 음식의 맛조차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람이 종교로 인해 스스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삶을 즐기는 것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연상케 해 준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사용하고 즐기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그것들을 쓰고 즐기되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던 중 벌집을 발견했고 그 꿀을 맛보자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다. 우리는 과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도록 해 주셨고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준비해 주셨음을 기억한다. 성경은 만나의 맛이 “벌꿀과자 같았다”고 말한다. 주님께서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지 모시기 힘든 험한 공사장의 감독자와 같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제 1반

본문의 교훈은 우리가 크거나 힘을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주님께서서는 올바른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며 배운 바대로 행하는 이들을 도우신다는 것이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예증으로 본문의 후반부를 언급한다. 사울에 반대하여 요나단을 지지한 군인들은 후에 다윗을 지지하는 길을 준비하는 예표가 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인정한 관관이었으나 성막에서 양육된 사람이었을 뿐 전투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적을 대항하여 자신들을 이끌 왕을 세워 달라고 졸라댔다. 그리하여 주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그들의 첫 왕으로서 못 백성들보다 키가 훨씬 크고 힘이 센 사울이라는 자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명령하셨다. 백성들은 사울을 그들의 최적의 지도자라고 여겨서 그를 그들의 첫 왕으로 삼는 것을 쾌히 승낙했다. 우리는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헤서는 안 됨을 알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왕처럼 보이는 사울은 용감했으나 슬기롭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암몬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금방 자기 과신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 그분께서 그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의 일부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처음에는 블레셋에 포위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의 군대의 힘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것은 요나단이 그의 무기당변에게 주님께 관하여 하는 말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다. 주님은 그러한 요나단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적진에 침입한 두 명의 젊은이들이 적군을 혼란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뒤에야 사울과 그의 군대는 적들을 무찌르게 된 것이다. 즉, 사울로서는 블레셋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지만, 요나단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결과적으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제 2반

관관 시대에서 열왕시대로의 변화,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의 요나단의 승리에 관한 의미를 주로 다룬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관관이었고 다른 관관들과는 많이 달랐다. 그는 성막에서 양육되었고 전투를 지휘하는 용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관관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기도 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든 백성들은 그가 주님께 의해 세워진 사람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인물이라고 그를 인정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아 다녔다. 사무엘상 7장 15-17절을 보면, 그는 해마다 순회하면서 그에게 의뢰된 모든 사건을 심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면 적의 손아귀로부터 빼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적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어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게다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적과 싸우길 원했고, 전쟁터에서 그들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원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왕을 세우고 있음을 눈여겨보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했다. 사무엘은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몹시 실망했다. 그러나 주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왕을 가지도록 하라고 하셨고 어떤 왕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도 보여 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위해서 언제나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신다. 주님께서 모색하시는 방법이란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방법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지적해 준 사람은 사울이었다. 그의 키는 못 백성들에 비해서 머리하나 만큼 더 컸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조건이어서 그들은 그를 왕으로 환영했다.

사울은 용감하고 대담한 젊은이였다. 그는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암몬 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암몬족은 판관인 입다가 싸워서 누른 백성이기도 하다. 사울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자 자기 과신과 성급함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사울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임명하신 조연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사무엘의 충고를 사려 깊게 듣지 않았고 그의 충고를 그대로 따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주님께 여쭙보지 않고 케를 전쟁터로 옮겨 놓아서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했던 때와 같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와 다른 아들이 있었다.

William Worcester은 「The Sower」라는 책에서 요나단의 징조에 관련된 흥미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두 개의 큰 바위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데 밑쪽에 시냇가를 가진 좁은 골짜기의 양쪽에 하나씩 있다. 이 골짜기는 동과 서로 뻗어 있다. 북쪽의 바위는 언제나 태양광선이 있어 보세스라 불리는데, 그 뜻은 “빛남”이다. 세네라는 다른 바위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인데, 바위 위에 자라난 가시덤불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다.”

성경에서는 작은 승리로 인해서 적들이 서로 치고받아 쉽게 적을 이기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이것의 의미를 궁금해 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조그마한 시험들을 가진다. 우리가 비록 작은 시험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임하게 될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에 아주 크고 중요한 시험과의 싸움에서 일상생활에 있었던 조그만 시험을 극복한 승리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를 인식하며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블레셋 군대를 과감히 공격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몰아내었다. 그러나 우리는 14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울이 평생 블레셋과 싸웠으나 결코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울은 본문 후반부에서와 같이 지혜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
- * 어떤 적이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가?
- *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하기로 작정했는가?
- * 요나단과 함께 행동한 사람은 누구인가?
- * 요나단은 그의 무기당번에게 주님께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 그는 주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 요나단과 무기당번은 몇 명의 적을 무찔렀는가?
- * 그 결과 적의 진영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사울은 그의 군대가 블레셋 군을 추격했을 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 * 누가 무지하여 사울의 명령을 어겼는가?
- * 요나단은 무엇을 먹었는가?
- *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명령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 누가 요나단을 구해주었는가?

제 3판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상응을 주로 공부한다. 영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는 때의 문제점과 시험들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사무엘이 고령이 되자 그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처럼 부패해져서 그의 높은 수준을 받들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블레셋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은 우리 모두가 아는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상태에 빠지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때가 많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걱정되는 문제들에 직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하고 실질적인 가르침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내려오는 것, 즉 피부로 느껴질 만큼 명백한 진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왕이란 지배하는 원리 곧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 원리를 상징한다.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를 상징한다. 사무엘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이유는 사무엘로 상징되는 심정상태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그의 리더십에 불만족해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실망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도록 한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실 이상적인 왕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바로 사울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못 백성들의 키가 그의 어깨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장대하며 힘이 센 용사였다.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국가로 있는 동안의 이스라엘을 통치한 세 왕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해야 할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로부터 갖게 되는 우리의 원리는 우리의 경험과 성숙도에 따라 자라며 변화된다. 세 왕들 중 첫 왕인 사울은 우리가 처음으로 갖게 되는 원리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마치 그것의 전부인 듯 느끼고 모든 것을 결론지어 버리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물의 겉만 보고 사물의 속까지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사울은 성급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암몬족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암몬족이란 우리의 일상적인데 있는 시험 곧 우리 삶의 표면에 있게 되는 시험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적은 블레셋이었다. 블레셋이란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선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나는 세례 받은 교인으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조금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주님께서 봐 주실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따르는 시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시험은 우리의 내적인 시험 중 하나에 해당되며, 사울이 상징하는 미숙한 원리로는 이러한 내적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없다.

본문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진영의 맞은편인 게바에 진을 치고 있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적과 싸워야 할지 막막해 했다. 그래서 많은 군대는 사울을 버리고 슬슬 빠져나가 동굴 같은 곳에 웅크리고 숨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사울의 통치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발전을 이뤄주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 추론인 자연적인 추론이다. 이

첫 추론은 짧은 안목이라는 결점을 지니지만 경험으로 배운 교훈을 인정하는 자질을 갖고 있다. 즉, 원인은 보이지 않아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상징하고 있는 바다. 요나단은 선조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과거 주님께서 눈으로 보이기에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았던 적들을 그분께 순종하는 극소수의 무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무기당변에게 “야훼께서 도와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장담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요청한 징조를 받았을 때 적진으로 공격해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 그의 공격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행동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무기 당변은 가파른 바위를 기어 내려간 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반대편의 바위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요나단은 그의 무기 당변병과 함께 단 둘이서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요나단의 승리는 사울과 그의 군대로 적들을 참패시키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울이 거둔 승리의 진정한 원인은 주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벌벌 떨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수차례 사용하신 방법이다.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순종하면서 우리 속의 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과감히 공격해 가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처럼 여겨졌던 시험이 우리의 생각보다 힘들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며 전진을 주저하면서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켰던 과거의 생각들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사울은 또 하나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그는 블레셋 군에 대한 추격을 끝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의 군대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허기진 나머지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었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결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 부치지 않음을 공부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어 영적인 전진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갖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요나단이 멈추어 먹은 꼴로 표현되어 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보다 슬기로웠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명령 불복종 죄로 요나단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에 관한 예증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여기는 자들이 고분 분투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해 하거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금욕적 투쟁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분께서 준비해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즐기 못하고 심지어 쉬는 것조차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않고 일생을 고단하게만 사는 자들을 본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뜻과 길을 바로 보지 못하고 편협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고단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의 삶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며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원하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을 결코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주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다.

기본 상용 공부

왕 =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
 요나단 = 경험에서 얻은 지식
 꿀 = 즐거움

제 4반

올바른 것을 결정하기 위한 근간을 피상적인 이해, 즉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사울과 유사하다는 것을 본문의 증거를 통해 살펴본다.

우리는 판관기서에서 자기 과신이나 자만심 속에는 위험만이 잔뜩 도사릴 뿐 아무런 선도 없음을 거듭하여 여실히 보게 된다. 그래서 판관시대는 열왕시대, 즉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그 뒤를 잇게 되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왕들은 지배하는 원리를 상징한다. 따라서 선한 왕은 진리에서 비롯된 원리를 표현하고 악한 왕은 거짓에서 비롯된 원리를 표현한다. 우리는 자신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준을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접근되는 제반 문제들을 헤쳐 나간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 들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방향을 결정함에 만족했던 과거동안 그들이 이뤄놓은 결과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왕권 체제하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게 될 것인지를 확실히 이해시켜 주라고 이르셨다. 사무엘의

통치는 어린 시절에 있는 주님에 대한 단순한 순종과 신뢰의 상태를 표현한다. 우리가 이 상태 하에 있으면 보다 안전하며 시련을 덜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짓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은 이런 사무엘의 통치에 만족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자유와 합리성을 충분히 활용하시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여 반복되는 실수를 초래하거나 어려운 길을 택하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사무엘에게 점지해 주셨고, 그 후 사울은 모든 백성이 참가하는 제비뽑기에서 선택되어 왕이 되었다. 사울은 당시 백성들이 원하던 전투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이끌 왕으로서 적격인 사람, 즉 패기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유일한 자였다. 이러한 사울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여 그것을 해결하는데 보다 성급하고 호전적인 자세에 부응되는 진리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앞에 부각되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사울역시 왕으로 추대되었던 초기에는 사무엘을 통해 오는 주님의 지시에 진지하게 순응하고자 하는 겸손과 순종을 가졌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안내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겸손해 하려고 함과 유사하다. 사울은 암몬족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다. 「판관 입다」편에서 살펴본 바대로, 암몬족이란 우리가 부딪치는 시험 중 내적인 측면보다 외적인 측면의 시험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울의 자만심은 이 승리로 인해 불쑥 머리를 내밀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전투에서 사무엘의 지시를 이행하려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전투에 임했다. 이러한 사울의 오만함은 주님과 그의 연결고리를 끊게 했고 그로 하여금 다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진리로 삶을 규율하고자 하는 우리의 첫 생각은 자연적인 이성에 기초하는데, 이 생각 역시 얼마간의 순수한 선을 이루어 내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적인 이해성은 기억 속에 든 지식에 불과했던 주님의 진리가 삶의 체험에 의해서 그분만이 진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러한 입증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 의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다. 그는 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적극적이었으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의 특성은 제 6절에서의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었느냐?”라는 구절로 명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공격할 때에 대한 결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던 것이다.

요나단의 작은 승리로 인해 블레셋 진영은 혼비백산 되어 서로 치고 받는 이수리장을 이루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의아한 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일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사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현상을 그려 주고 있다. 우리가 ‘남들도 다 이런 식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시험에 휩쓸려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에 기운 논쟁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나 기타 예증으로 세상적인 논쟁에 반박할 용기를 갖게 되면 우리를 끼우뚱하게 하려던 세상적인 논쟁의 구조가 모두 비틀리게 되고 결국 그 논쟁의 방어벽이 허물어져 혼동에 빠지게 된다. 즉, 거짓은 진리를 만나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낸 다는 것이다. 거짓의 진정한 정체는 다름 아닌 혼동이며 불확실함이다.

요나단이 꿀을 짖어 먹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롭다. 그는 고의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여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꿀을 짖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꿀이란 자연적인 수준의 즐거움 또는 쾌락을 표현한다. 꿀은 말씀 안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음식이다. 요나단이 맛본 꿀은 자신의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을 표현한다. 이런 만족감이라는 느낌에는 자아가 들어 있어 말씀의 글자 상에 있는 주님의 명령 중 어떤 사항은 정반대의 뜻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 말씀의 글자를 읽게 될 때에는 글자대로의 해석이 진정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 본문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심정상태를 위해 필요한 만족감을 얻는 순간을 우리의 상태를 감안하셔서 얼마만이라도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열정이 강한 초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려 하나 오히려 강한 열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어려운 길을 만들게 되기도 하는데, 본문의 사울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진실로 선을 행하려는 자는 타인을 고달프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명령을 철회하라고 청원했던 것이다.

제 5반

사울의 통치의 본성과 요나단의 의미 그리고 요나단의 작은 승리를 살펴봐,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19절에서 본문의 문제에 대한 경고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심을 강조한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블레셋은 이렇듯이 기가 꺾이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을 침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훼께서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손수 블레셋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전히 판관으로 있고 주님의 대면자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큰 세력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서워서 제각기 굴속에 피신하려 했음을 보게 된다. 제 13장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블레셋이 그 지역 전체를 장악했으나 이스라엘에는 전투를 위한 무기뿐만 아니라 대장장기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 이와같은 경우는 성경의 앞뒤 내용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인식되어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글자 속에 든 내적인 의미로 읽는다면, 이 이야기는 아주 체계적이며 꼭 짜인 섭리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이란 어린 시절 같은 순진과 신뢰를 가진 상태임을 공부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무엘보다 더 선호할 수 있는 다른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사무엘이 고령이 되자 그는 아들들을 판관으로 세웠다. 하지만 그들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에 대항해서 그들을 이끌어줄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초기에 가졌던 종교적인 열정이 식음에 따라 마음의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판관시대의 초기에는 주님을 모시는데 열정적이었으나 그 열정이 식어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고통 받게 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말로 영적인 위협에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되고, 이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시며 보호자로 삼아야 함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첫 상태중 하나인 신실한 겸손과 단순한 순종으로, 성경에서는 사무엘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커다란 폭풍처럼 밀려와 우리가 그나마 가진 자신의 조그만 영적인 기반마저 잃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기반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두지휘할 진로로서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특수한 것을 원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직면하여 있게 되는 자신의 마음을 좀 더 풍부하고 튼튼하게 해 줄 어떤 체계화 된 진리를 원한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평화스런 예언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대신에 전쟁을 지휘할 왕을 원한다는 것이다.

사무엘에 이어 등장하는 세 왕들이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한 단계씩 높이 이해해가는 개념들을 표현한다. 사울은 그의 용모(체격)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선택되어졌다. 주님께서 사울을 첫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사울만이 백성들의 수준에 가장 알맞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이나 상태에 따라 그분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심은 이미 설명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응용할 수 있는 만큼의 진리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사울은 용감하고 신실했으며 초기에는 겸손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심을 버리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초기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자기 과신에 취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심을 저버린 대가로 쓴 경험을 맛보게 된다.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처음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 그가 승리한 적은 암몬족인데, 이들은 판관 입다 시절에도 이스라엘이 무찌른 바 있다. 하지만 사울은 승리하자마자 자신감에 도취되어 사무엘을 통해 떨어지는 명령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블레셋은 다시 강성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블레셋의 새로운 공격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무엘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사울과 같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첫 개념은 매우 피상적이고 성급하다. 이 개념은 눈에 보이는 외관으로만 판단하는 자연적인 이해성에 기초하여 고집이 세며 외골수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어릴 적에 받은 가르침을 확증하게 해주어 주님의 권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갖도록 해준다. 이런 경험의 발달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적의 세력을 보고도 전혀 낙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적의 수가 주님께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말씀 속에서도 흥미를 끌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가 아버지 사울과 더불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가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 의문의 답은 내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사울의 계보는 진리에 대한 자연적 수준의 이해성을 뜻하므로,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되고자 하면 영적인 수준의 이해성에 반드시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새 인물로 왕위가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요인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군들이 블레셋 진영에 둘러 동굴에 숨거나 슬슬 내빼는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신 권능을 무조건 신뢰했기 때문이다. 제 13장을 보면, 그는 전 군대의 삼분의 일을 지휘하고 있었고 대담하게 블레셋의 수비대 중 하나를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무기 당번만 데리고 블레셋의 적의 진영에 침투하여 적을 공격한다. 이 공격의 초반부분의 내용인 제 4절로부터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에서 길목의 양쪽에 큰 돌 벽들이 버티고 있어 서로 공격하려면 그 돌 벽을 내려가서 다시 기어 올라가야만 공격이 가능한 지형이었고 그 돌 벽들 사이에 길이 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군의 군대가 가까이 포진하여 있으면서도 접전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 가까이 볼 수 있어도 쉽게 건너지 못하는 이 길목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한다.”라는 구절 중 큰 구렁텅이가 놓인 모습을 연상하도록 해준다. “구렁텅이”와 “길목”은 의미상에서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요나단이 기어 내려가고 다시 기어오른 두 바위 언덕들이란 자기 과신이라는 바위가 기어서 내려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바위가 기어서 올라간 바위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말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러한 큰 구렁텅이를 건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저 세상에 건널 수 없게 고정되어버린 구렁텅이 건너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요나단이 그의 부하가 수십 명을 때려눕혔던 것은 블레셋 전 진영에 무시무시한 공포가 감돌게 했다. 그리하여 블레셋 군은 혼란에 빠져 채 편끼리 칼로 치고 찌르는 이수라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 양상은 판관 기드온의 전투 때에도 있었다. 이 전투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이라는 우리속의 악을 조금만 공격하였더라도 블레셋에 나타나는 그 효과는 대단하게 됨을 묘사한다. 우리는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자기 총명을 지지하고 자만심을 부추기려 드는 우리의 논쟁이 실지로 보면 아주 허약한 것임을 인식하고 아주 조그마한 진리만 있더라도 그것이 즉시 혼란에 빠지는 허위에서 금방 녹아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사건은 아주 흥미롭다. 꿀이란 자연적인 종류에 속한 즐거움을 표현한다.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성경은 하라는 것보다 금지사항으로 가득 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본문에서 사울이 군인들에게 공격이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수세기를 걸쳐 오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자연적인 즐거움을 모조리 포기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연적인 이해성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 내리는 태도가 사울이 보좌에 군림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요나단을 포함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즐거움에 대한 탐닉이라도 그것을 일종의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꿀을 먹어 “눈이 번쩍 뜨인”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이 슬기롭지 못함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권능이

사울보다는 오히려 요나단에게 함께 있어 승리하였음을 눈으로 똑똑히 본 모든 부하들은 요나단을 두둔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형태는 결코 지나친 금욕생활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세상의 좋은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살며 그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그분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끝으로 이사야의 예언 7장 14-15절을 읽어보자. “그러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기가 나쁜 것(악)을 버리고 좋은 것(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는 양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619-8항: “그 당시 가나안땅에는 많은 꿀이 있었는데, 이는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무엘상서에서 알 수 있는바, 그들이 숲에 들어서면 그 지역에 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땅에 꿀이 흐르고 있었다든지 요나단의 눈이 꿀을 맛봄으로 열렸다(사무엘상 14:25-27,29)하는 말들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요나단의 눈이 꿀을 맛봄으로 번쩍 뜨인’ 이유는 ‘꿀’은 자연적인 선 그리고 그 선으로 인해 맛보게 되는 기쁨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선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어 우리의 마음을 계발해 준다. 이로 인해 요나단은 자신이 잘못 행했음도 알았다. 이사야서에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야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라는 구절이 있다. 그 이유는 상응이 그들의 바깥쪽 곧 그들의 결과에 시기적절하게 보여야 했고 이스라엘 교회의 모든 것이 상응으로 구성되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의미되거나 표현되어야 했던 섭리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초대 왕이었는가?
- 2)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는가?
- 3) 그는 어떤 적과 처음 싸워 승리했는가?
- 4) 사울의 약점은 무엇인가?
- 5) 어떤 적이 그를 괴롭혔는가?

- 6)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
- 7)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떤 점이 달랐는가?
- 8)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변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9) 왜 요나단은 둘이서도 적을 해치울 수 있다고 했는가?
- 10) 어떤 곳에서 그들은 적과 접전했는가?
- 11) 요나단은 주님께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2) 요나단의 습격이 승리하자 불레셋 진영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사울의 군대가 불레셋에 진격하면서 사울이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 14)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 15) 사울은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 16) 누가 요나단을 구했는가?
- 17) 성경에서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요나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불레셋 진영이 이수라장이 된 모습은 무엇을 그려 주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여서 3) 암몬족
- 4) 성급하고 불순종적이며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5) 불레셋 6) 요나단
- 7) 주님을 신뢰했다 8) 불레셋 진영을 공격했다 9) 믿음 10) 가파른 바위
- 11)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 말하면... 12) 공포에 휩싸였다 13)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 14) 꿀을 맛보았다 15) 죽이려 했다 16) 군인들 17) 통치하는 원리
- 18) 경험에서 온 지식 19) 자만심을 부추기는 논쟁들이 서로 다툼

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머리말

요나단을 중심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울의 시기심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강조되며, 다윗의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인해 그가 최후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짜의 죄와 벌은 본문에서 상당히 드라마적인 부분이지만,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본문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6장

6장: 1.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삼만 명을 소집했다. 2. 다윗은 이 전군을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것이었다. 그 궤는 거룩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3.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4. 우짜는 궤 옆에서 따르고, 아효는 궤 앞에서 인도했다. 5.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거문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부르며 춤을 추었다. 6.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7. 야훼 하나님께서 우짜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짜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8. 다윗은 야훼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곳을 베레스우짜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9. 다윗은 그 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이래서야 어찌 야훼의 궤를 모실 것인가”하였다. 10. 그래서 다윗은 야훼의 궤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 들이려 하지 않고 갓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 11. 야훼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 둔 석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12. 오벤테돔의 집에 하느님의 궤를 모셔 두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느님의 궤를 오벤테돔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 왔다. 13. 야훼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긴 다음 다윗은 살진 황소를 잡아 바쳤다. 14. 그리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15.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합성을 지르며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 왔다. 16. 야훼의 궤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 올 때 다윗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 덩실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17. 다윗은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궤를 모셔 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18. 이렇게 번제와 친교제를 드린 다음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9. 그리고 모여 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한 개, 마른 대추야자 한 뭉치, 건포도떡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체통이 참 불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며 22. 이번보다도 더 경망히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23.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교리 요점

- * 잘못된줄 알고 저지른 행동은 죄이다.
- * 우리에게 “자연적인 수준”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
- * 하느님의 법은 영원하며 인간의 바람에 맞춰서 해석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 * 우리는 시험을 추론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사울과 많이 달랐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소년으로 성장했고, 후에 큰 용사가 된 뒤에도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신뢰하며 의지했다. 다윗의 초지일관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세는 우리의 영적 발달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다윗은 뛰어난 하프 연주자였으며, 시편서의 많은 부분을 쓴 시인이기도 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후 법궤 곧 유대인의 삶의 중심을 의미하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와야 함을 알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씌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궤는 20여 년 동안 키랏여아림 성에 모셔져 있었는데, 그곳은 과거 블레셋 군이 궤를 벧세메스 성에 되돌려 보낸 후 다시 옮겨져 안치되었던 장소였다.

우짜의 사건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한다. 그 이유는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려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짜가 손을 내밀어 법궤를 붙든 것은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궤에 손을 댄 것은 인지상정으로 볼 때는 당연하지만, 결코 올바른 행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법궤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다루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궤의 권능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져 왔었다. 우짜는 본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법궤를 통상적인 상자로만 여겼지만, 모든 레위인들은 주님의 지엄한 명령에 의해 법궤에 손을 댄 수 있는 자가 기름 부어진 사제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법궤의 거룩함과 권능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십계명의 두 돌판은 궤 안에 담겨 있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계명을 지킬 때만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의미한다. 십계명은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우리의 의무는 오로지 계명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계명은 그 자체의 권능으로 영원히 서있기 때문이다.

제 1반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유와 다윗의 성품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연결고리로서 요나단을 살펴본다. 우짜의 이야기에서 우짜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그가 법궤를 경시하여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후 그곳은 명실 공히 국가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후에 주님도 그곳에서 탄생하셨다. 주님은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다.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의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후 주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 우리는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명시하는 바는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용사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에 찬양을 아끼지 않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시도 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좋은 친구관계여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여러 번 구해주었고, 다윗은 도망가서 숨어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살아 있는 동안 그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왕위에 올랐다.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정복했다.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가 언제나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후 법궤를 그곳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는 도중 주님께 살찐 황소를 바치면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법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다윗은 법궤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의 언덕중의 하나인 시온산 위에 새 성막을 지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그들은 키랏여아림으로부터 법궤를 어떻게 모셔 왔는가?
- * 우짜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 그 결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우짜의 행동이 그가 죽을 정도로 나쁜 까닭은 무엇인가?
- * 궤는 누구의 집에서 한동안 모셔졌는가?
- * 법궤는 그 집주인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
- * 그 결과는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제 2반

우짜의 벌을 언급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 행함이 죄가 됨을 지적한다. 궤는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거룩한 가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솔히 다루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에 해당되었다. 역대기서와 여호수아 9장 17절을 읽어보면, 궤가 모셔진 키랏여아림성이 과거 기브온 족들의 성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21절과 7장1-2절을 읽어보면 더욱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문을 통해 궤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가져본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님에 대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분께서 사울을 거절하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후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였고,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주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윗이 개울에서 주운 매끈매끈한 돌로 돌팔매를 만들어서 거인인 골리앗을 죽인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 싸움이 있기 전 사울은 다윗을 그의 무기 당번으로 임명했었고, 다윗과 요나단은 친우로서의 맹세를 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싸움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며 칭송했고, 이에 사울은 시기심이 발동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었고, 그 후 다윗은 숨어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자 다윗은 비로소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만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여 그 땅의 남쪽 부분에 위치한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다. 헤브론은 과거 아브라함의 정착지였다. 그러나 다윗이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고 7년이 흐른 뒤에 북부의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여부스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

수도를 정한 다윗의 바람은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다. 유다 바알라란 키랏여아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키랏여아림은 연맹 부족인 기브온 족에 딸려 있던 성이었다. 우리는 기브온 족이 과거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은 부족임을 기억한다(여호수아 9장).

사람들이 법궤를 소달구지에 올려놓고 운반했던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법궤가 운반될 때는 레위지파가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법궤가 어깨에 메어져 운반되었다면, 소가 뛰는 바람에 그것이 흔들려 떨어지지도 않아서 우짜가 시험에 빠질 염려도 없었을 것이다.

우짜는 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고정시키려고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우짜가 죽은 진정한 이유는 그가 궤에 손을 대어서라기보다는 그가 법궤의 권능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짜는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연중에 무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짜의 태도는 사무엘의 충고를 무시한 사울의 태도와 유사하다. 우짜의 순간적인 행동은 그의 깊은 속에 있었던 궤에 대한 그의 진정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우짜와 같은 태도를 종종 보이게 된다. 즉, 우리가 계명이 이제 낡은 것으로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알맞게 설명되거나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때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짜가 법궤를 받치려고 손을 대는 광경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욱 잘 알고 계시며, 그분의 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주님의 계명은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현재의 우리들에게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권능이 정확히 똑같은 것이다.

역대기상 15장 1절과 역대기하 1장 3-6절을 읽어보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성막이 본래의 성막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의 성막은 레위인들의 성중의 하나인 기브온에 세워져 있었다. 그 성막은 솔로몬 통치 초기까지는 그곳에 있었으나, 그 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막에서의 진짜 권능은 사실 법궤를 통하여 나왔다. 이는 우리가 계명을 준수할 때만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키랏여아림으로부터 법궤를 어떻게 옮기려고 했는가?
- * 우짜는 소가 법궤를 흔들리게 하자 그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는가?
- * 그래서 우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 * 우짜의 행동은 그 자리에서 우짜가 즉시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였는가?
- *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 * 우짜가 죽자 다윗은 궤를 어디로 모셨는가?
- * 그곳에서 궤는 얼마동안 모셔졌는가?
- * 어떤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도록 설득시켰는가?
- *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움직였는가?
- *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운반될 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 * 누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를 경멸하는 발언을 했는가?

- * 그 여자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는가?
- * 다윗은 예루살렘의 어디에 법궐을 모셨는가?

제 3반

예루살렘을 향한 법궐의 마지막 여행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그 여행 중에 있었던 갖가지 사건들을 다뤄본다. 세 명의 왕들과 시온 산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더욱 상세한 사항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 얼마 동안은 사울의 총애를 받았으며,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영원한 친구의 맹세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챈 사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 처음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후에 이 사실이 확인되자 다윗에게 도망가도록 권유했다. 다윗의 망명생활동안 다윗의 주위에는 많은 용사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과 더불어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울을 밀어내고자 하는 책략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울에 대한 충심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 모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자 거룩한 땅 남부 지역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반면에 북부지역의 백성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 후 다윗은 칠 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다. 그러던 중 이스보셋의 수하들이 그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북부지역의 백성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환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다윗은 통일국가의 왕이 되어 전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뒤 다윗은 여부스인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그의 수도로 만들었으며 그의 집권 40년 중 약 33년을 그곳에서 통치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려주고 있다. 본문은 과거 블레셋 군이 법궐을 되돌려 보낸 이래 모셔졌던 키랏여아림으로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 새 성막을 짓고 그곳에 법궐을 모셔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본문의 서두에서 저지른 범죄에 형량이 맞지 않는 처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을 보게 된다. 우리는 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짜가 손을 대어 붙드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마저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인들은 궤와 그것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하며 돌봐야 하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즉,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법궤가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워져 옮겨졌더라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며 우짜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여 벌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짜는 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선 듯 손으로 붙잡았는데, 이는 우짜가 평소 궤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음을 무의식중에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짜가 그러한 큰 벌을 받은 까닭은 그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이유 곧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이 법궤와 함께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우짜의 태도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계명이 주님께서서 그것을 주실 당시로 보면 올바르며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이고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그것 자체로는 부족하여 무언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짜의 이야기에서 있는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법이 영원하며 인간의 바램에 걸맞도록 재해석되거나 바뀌지 않음을 인정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우짜의 행위는 하나님의 지혜위에 인간의 견해를 얹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영적인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우짜는 즉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던 것이다.

우짜가 죽은 뒤 궤를 모시려 했던 것에 대한 다윗의 두려움은 우리가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실감하여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마음 내켜 하지 않으며 어떤 내적인 저항감을 느끼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이나 징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다윗의 공포를 가시게 하기 위해 궤의 권능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것과 같다. 이리하여 다윗은 궤를 모시는 적절한 절차를 취해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모셔왔고, 법궤와 동행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그 여정에서 제물을 바치기도 했다(역대기상 15:11 참조).

우리가 역대기하 1장 3-6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있는 견고한 “다윗의 성”에 궤를 위해 세운 성막은 본래의 성막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본래의 성막은 당시에도 기브온에 있었고 성전이 마무리 된 후에까지도 거기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 안에서 천막은 사랑에 근원하여 예배하는 상태를 표현한다.

다윗은 전투하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우리 속의 악들을 표현하며, 적들과의 전투란 시험과 투쟁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우리가 시험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생각의 중심은 항상 계명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어야만 한다.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탄과 따지려 들기보다는 진정으로 선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아주 간단한 성경의 인용만으로

악마에게 대답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뒷부분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레가 성으로 모셔지는 동안 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다윗을 경멸함으로 인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읽게 된다. 미갈은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는 동안 사울에 의해 다윗의 아내로 주어졌다. 미갈은 주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애정을 그리고 있다. 즉,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로 있어지는 자연적이며 자기 신뢰적인 결과로부터 비롯되는 애정을 상징한다. 사실 이런 종류의 애정은 첫 번째로 생기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한 열매”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미갈에게 그러한 저주가 내려진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텐트 또는 성막 = 사랑으로 예배함

이스라엘의 적들 = 우리 안의 악과 거짓들

제4반

케에 대한 각 인물의 태도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의 상이점을 주로 살펴본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사울 왕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을 통치해 가는 원리로서 하느님의 진리를 보게 되어 우리 안에 이뤄지는 진리에 대한 첫 개념을 상징한다. 이 첫 개념의 대부분은 사물의 외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기 확신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특성을 지닌다. 어떤 이들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로서의 요나단은 내적인 경험보다 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주님을 신뢰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신뢰는 우리가 더 깊고 영적인 것을 신뢰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종류의 신뢰는 아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사랑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관계의 표본으로 회자된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하는 아버지 사울의 시기심으로부터 다윗을 구해내어 일시적이긴

하지만 망명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울과 요나단 모두 죽어야 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몰라. 그걸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나는 좋거나 나쁜 모든 것은 나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야.”라고 말하는 믿음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진정한 신뢰에 기초를 두고 주님께 순종함이 바로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앙에 계명이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함을 그려준다. 궤는 한번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간 뒤에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되지 못했다. 블레셋이 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낸 뒤 처음에 궤는 벧세메스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키랏여아림, 즉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 바알라(여호수아서 15:9 참조)로 옮겨진 후 계속 그곳에 머물러있었다. 키랏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지역이다.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때에 궤가 모셔졌던 본래의 성막은 레위인들의 성들 중의 하나인 기브온으로 옮겨졌는데, 그 성막은 솔로몬 초기 통치까지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법궤를 키랏여아림에서 옮기려 한 다윗의 시도는 재난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는 그가 법궤를 수송하는데 따른 적절한 방법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법궤가 이동될 때는 언제나 레위인들이 고리를 사용하여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지하려면 정성을 다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함을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에 궤를 얹었다. 황소가 끄는 수레란 우리의 자연적인 선한 애정의 힘이 끌어당기는 생각의 체계를 묘사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연적인 선한 애정에 대한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직함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격언이다. 이 격언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격언은 우리의 행동이 근원인 동기가 되는 데는 부적당하다. 본문을 보면, 소가 뛰어서 수레를 흔들리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자연적인 애정은 가끔 계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명을 이리저리 재보도록 자극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그토록 케케묵은 계명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것이 갖는 신성한 권위에서 발견하려는 대신 자연적인 이성에서 발견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흔들리는 궤를 잡으려고 손을 댄 우짜의 모습이다. 인간적인 이해성에 기초하여 우짜의 행동을 추론하면 그것은 잘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추론이 지극히 인간적이며 인간적인 것은 옳바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잘 알고 있다. 우짜는 레위 인으로서 궤가 흔들릴 때 자신이 붙잡지 않더라도 그것이 떨어질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레위 인들은 성막과 궤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책임을 가진 지파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가 궤에 손을 댄 것은 궤에 대한 평소 그의 태도와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 즉, 그는 궤의 신성한 권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궤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궤의 신성을 무시했고 자신의 힘에 더 의존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를 죽게 만든 원인이다. 주님을 무시하고 자아와 세상에 의존함은 결국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다.

법궤를 운반하는 다윗의 두 번째 시도는 매우 겸손한 가운데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 즉, 궤를 레위 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지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자연적인 인간과는 정 반대된다. 사울의 딸 미갈은 자연적인 인간의 속성에 기울이려는 애정들을 표현한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있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를 피해 도망가 있는 동안 미갈을 다시 신하 중 한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그녀는 다시 다윗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양상은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이 겉으로 보기에 쉽고 성공할 것 같은 쪽을 항상 추구함을 묘사해준다. 그래서 자연적인 경향성은 영적인 열매를 생산하는 애정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미갈이 다윗을 경멸했듯이 자연적인 경향성은 겸손에 대한 영적 가치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은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다.

제 5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후 궤의 마지막 여행의 의미, 우짜의 행동과 그의 벌을 살펴본다. 또한 사울, 요나단, 다윗 그리고 미갈을 같이 엮어서 살펴보면서 자연성과 영성의 관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자연성이 결코 영성으로 발전될 수 없다는 것도 설명한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가 가진 다윗과의 우정은 역사에 길이 빛나는 우정의 표본으로 칭송되고 있다. 특히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질투심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후부터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숨통을 틈게 하기 위해 하프 연주를 했고 골리앗과의 전투에 승리했다.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군의 장군이 되어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자 백성들은 사울보다 그를 더 찬양했고, 이로부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이 비롯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 주었고, 이 후 다윗은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윗역시 사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원리 또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다윗으로 상징되는 통치는 새롭고 더 깊은 방법으로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가시적인 진리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이해한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중이었다. 반면에 다윗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이었다. 나귀란 자연적인 혹은 인간적인 추론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양떼는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과는 달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욱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후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은 이내 뒤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보다 깊은 차원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경험한 후에도 여태껏 사용해 왔던 자연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생긴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서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왕국은 한 동안 둘로 나뉘어 서로 싸움을 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이 죽은 후 발생한 왕국의 분열과도 유사하다.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은 다윗을 왕으로 하고 수도를 헤브론에 정했고, 북쪽 지역은 요르단 건너 지역까지 합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받들었다. 이스라엘 분단의 의미는 차후에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남쪽 지역이 우리의 내적인 삶의 영역 중 애정의 측면을, 북쪽 지역은 지적 측면을 그리고 요르단 건너 지역은 외적인 삶을 표현한다는 것은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의미들을 찾아보는 일은 과히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란 우리가 진리를 이해했으나 그것이 처음으로 있어서 자연적 혹은 인간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으로서는 악과 거짓의 공격에 맞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달아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영적인 이해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됨을 의미한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란 우리의 심정이 오랜 시련과 체험에 의해 새 원리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새 원리가 아니면 안 됨을 확신함으로써 새 원리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의지가 생길 때를 말한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설사 우리가 새 원리를

채택하고 각종 응용을 거쳐 확증과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처음으로 자리했던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부터 발달된 생각이나 느낌들에서 비롯된 습관들까지 제거되어야 함을 말한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곳에 법궤를 모셔야겠다고 결심했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항을 보면, 법궤가 여행하는 세 단계는 인간의 가장 외부적인 측면에서 가장 내부적인 측면으로 교회가 진보해 감을 그려준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진보는 신성한 진리를 수단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법궤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적 혹은 인간적인 것은 행위의 선이며 영적인 것은 이웃을 향한 이타애의 선이고 천적인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선이다.

우짜가 느닷없이 죽는 사건은 참으로 끔찍하게 느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짜의 행위가 지극히 인간적이며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왜 그가 죽어야만 했는가하고 의문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우짜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짜의 집안은 대를 이어 궤를 모셔왔기 때문에 우짜 역시 궤를 운반하려 할 때의 규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옛날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짜가 궤에 대한 공경심과 궤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더 깊고 신실했다더라면 그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하더라도 주님의 법을 깨트릴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의 행동은 자신에 신뢰를 두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않아 온 그의 속마음의 표현이었고, 그러한 그의 마음 상태가 벌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는 우짜의 사건에 있는 더 깊은 교훈을 주목해야 한다. 법궤는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신성한 진리들을 찾을 수 있고, 교회 역사 혹은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에 대한 풍부한 증거도 갖게 된다. 더욱이 말씀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 싶거나 우리의 선한 애정들이 비틀거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게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이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종교적 관습에 대한 것으로서 말씀 그 자체에 신성함이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시험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우짜처럼 주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잡겠다는 시도, 즉 주님의 권능을 자신의 권능으로 대체하겠다는 시도는 주님의 진리가 인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총명이 더 잘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믿어 보려는 마음으로, 이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 이유는 영적인 생명이 주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짜의 모습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는 여러 가지 길들을 묘사해 준다. 첫째는 말씀을 단지 인간이 만든 책으로 여기고 그러한 범주 안에서만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말씀을 인간적인 합리성과 논리의 틀에 넣어 두고 그 안에 맞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건너 뛰어 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성경 안에 주님의 신성이 거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며 무시하는 것이다. “우짜는 하느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란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면 “하느님의 궤 옆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영적인 왕국을 상징한다. 따라서 예루살렘 내의 시온산은 교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한다. 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이 지은 성막은 시온 산 위에 있었다. 다윗이 견고한 시온을 여부스족에게서 빼앗았다 함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심정을 굳건히 장악했던 우상들을 몰아냈음을 의미한다. 즉, 이와 같이 우리 속 깊은 곳의 적들을 몰아내는 것은 진리를 영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정복이 마무리 되었을 때 다윗의 왕국 건설 또한 완성되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팔을 뻗어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암몬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문 후반부에 기록된 사건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사울의 딸 미갈은 과거 사울이 다윗에게 아내로 준 여자였다.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딸의 몸값을 요구함으로써 다윗이 싸움에 참여하여 죽도록 자신의 딸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신해 있는 동안 사울은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다윗은 미갈을 되돌려 보내도록 요구했고, 이스보셋은 미갈을 당시의 남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되돌려 보냈다(사무엘하 3:13-16). 미갈은 주님의 진리를 해석하기는 하지만 자기 과신에 중심한 자연적인 애정을 표현한다. 이 애정은 쉽게 보이는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며 대중적일 것 같은 의견이라면 무엇이든지 갖다 붙이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만한 점은 우리의 첫 이해성이 발달되는데 있어 좋은 요소를 표현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와 죽었지만 미갈은 생존하여 다윗에게로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추론보다 자연적인 경향성이 극복해내기 훨씬 더 힘들다는 말이다. 사울의 딸임에 중점 한 미갈의 속성은 그녀가 다윗을 경멸하며 궤 앞에서 겸손했던 그를 조롱함으로 여실히 드러난다. 요나단은 죽어야만 했지만 어디까지나 선한 목적을 섬겼다. 반면에 미갈에게는 어떤 선도 없었다.

그리하여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0-28항: “온갖 종류의 악기가 소리를 내거나 연주하는 것과 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춤을 춘 것은 궤가 의미하는 신성한 진리의 유입이 주님으로부터 나와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결과 맺는 기쁨과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까지의 궤의 여행 중에 언급되는 악기들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이고 영적인 애정에서 오는 마음의 반가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다윗의 춤과 마음껏 노래 부르고 악기를 켜던 것은 영적이며 천적인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온 심정의 환희를 표현한다. 하모니를 이룬 음악 소리는 영계로부터 존재하고 그들의 반가움과 환희를 가진 애정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누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가?
- 2) 누가 그 왕을 기름 부었는가?
- 3) 그는 기름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었는가?
- 4) 누가 그 왕의 친한 친구였는가?
- 5)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시기하도록 했는가?
- 6)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누가 그를 구해주었는가?
- 7)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는가?
- 8) 다윗은 어떤 성읍을 빼앗아 수도로 삼았는가?
- 9) 그는 그곳에 무엇을 모시고자 했는가?
- 10) 궤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 11) 왜 우짜에게 변이 발생했는가?
- 12) 누가 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다윗을 비웃었는가?
- 13) 그녀가 받은 벌은 무엇인가?
- 14) 다윗은 예루살렘 어느 산에 궤를 모셨는가?

- 15) 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케를 예루살렘으로 모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우짜의 행위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사무엘 3) 아니다 4) 요나단
- 5)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 6) 요나단 7)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8) 예루살렘 9) 케
- 10) 키랏여아림 11) 케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 12) 미갈 13) 아이를 낳지 못했다 14) 시온산
- 15)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함
- 16) 삶의 중심에 하느님의 법을 놓는 것
- 17) 하느님의 진리의 권능을 의심함

18

성전 건축

머리말

열왕기상 5장 17절(개역 5:3)에서 언급되는 성전을 짓고자하는 다윗의 바램과 주님께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셨던 이유가 내포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의 차이점도 재고해본다. 성전의 세부 사항은 제 2반에서 많이 다루지고 있으므로 다른 반은 2반의 내용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전체적인 특성과 건축 재료들 그리고 장식에 따른 각종 타입도 생각해 보자. 또한 열왕기상 5장에서 언급되는 띠로의 왕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 내용도 파악해 두자.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6장

6장: 1.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사백 팔십 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사 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시브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2. 솔로몬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육십 척, 나비가 이십 척, 높이가 삼십 척이었다.
3.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이십 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십 척 더 나왔다. 4. 전의 창들은 우묵 들어간 틀에 넣었다. 5. 그는 또 전의 벽 둘레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둘렀고 사방에 돌아가며 결방들을 꾸몄다. 6. 아래층은 나비가 다섯 척이고 가운데층은 여섯 척, 삼층은 일곱 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어 버팀들보가 전의 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7.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8.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삼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9.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10. 또 온 성전 곁에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높이가 다섯척으로서 송백나무 재목으로 전과 맞붙게 하였다. 11.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12.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13.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14.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15. 그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보꼭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16. 또 이십 척 되는 전의 뒤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17.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의 길이가 사십 척인데 18.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이며 돌은 눈에 띄이지 않았다. 19. 밀실은 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셨다. 20. 그 밀실은 길이 이십 척, 너비 이십 척, 높이 이십 척인데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앞쪽에는 사슬을 늘어 놓았는데 그것도 금을 입힌 것이었다. 22. 그는 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밀실에 있는 계단도 금을 입혔다. 23. 밀실에는 올리브나무로 높이 십 척 되는 거룩을 둘 만들어 놓았다. 24.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섯 척이고 다른 날개도 다섯 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는 십 척이 되었다. 25. 다른 거룩도 십척이 되었다. 두 거룩이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이었다. 26. 한 거룩의 높이도 십 척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거룩의 날개는 펼쳐져 있어 한 거룩의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른 거룩의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닿아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28. 솔로몬은 거룩에 금을 입혔다. 29. 그는 전의 온 벽을 돌아가며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돌을 새김으로 새겨 놓았다. 30. 또 성전 안팎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31.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32. 두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돌을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룩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33.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사각형을 이루었다. 34. 두 문이 전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35. 그 위에다가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36. 또 다듬은 돌 세 줄과 송백나무 한 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37. 제사 년, 시브월에 야훼의 전 기초를 놓았다. 38. 그리고 제십 일년 팔월 곧 불월에 전이

그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칠 년째 되던 해였다.

교리 요점

- *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있어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준비되는 재료들로 지어진다.
- * 진정한 지혜는 이해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혜란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식별하여 올바른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능력이다.
- *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들은 그분을 섬기는데 고용될 수밖에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사울의 주님에 대한 반항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보좌를 계속 이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예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이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언제나 보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죽기 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기름 붓도록 명령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이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통치는 평화와 큰 영예를 누렸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유함까지 주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허용되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성막은 판자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일종의 천막에 불과했다. 성막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룩한 땅으로 진입한 후에도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고정된 중심지도 갖지 못한 채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이 그대로 존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묘사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우리 고유의 본성 속에 있는 악 그리고 악함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전쟁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예배와 그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심을 우리의 심정상태가 다양하게 바뀐다하더라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하늘 아버지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심 역시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동안의 성막으로 상징되고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이 이스라엘 왕국의 강건하며 항구적인 중심지가 되었을 때 다윗은 그곳에 궤를 모셨다. 솔로몬은 다윗의 정복으로 얻어진 평화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보다 오래가는 영적인 인격에 대한 묘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주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뇨?”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예루살렘성 밖에서 준비되어졌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혹은 다른 연장을 다루는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직면하여 싸우게 될 때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님께 우리 속에 지으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모양을 다듬어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인격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발견하게 됨으로서 완성되며 그 인격을 상징하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게 되는 선과 악의 선택으로 준비되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세 왕들의 이름을 재고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통치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을 두 건축물을 비교함으로써 알아본다. 또한 솔로몬 통치의 특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과 히람왕과의 동맹도 언급한다.

다윗왕은 법궤를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도 좋은지를 주님께 여쭙었는데, 그분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가 성전을 지을 책임자가 아님을 대답해 주셨다. 성전을 지을 자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기도 하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첫 세 왕들로서,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고, 그는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모든 적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통치 기간은 내내 평화로웠다. 솔로몬의 이름 역시 “평화”라는 뜻이다. 주님께서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그에게 소원 한 가지를 물으셨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슬기로움과 지혜로운 마음을 소원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소원에 아주 흡족해

하셔서 그가 지혜로운 마음과 더불어 큰 부귀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그의 보물들을 보기 위해 방문했고,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지성소는 언약궤를 모신 곳인데, 밀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솔로몬은 그곳에 두 개의 큰 거룹을 세웠는데, 그 거룹들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져 금박으로 입혀졌다. 두 거룹들이 펼친 한쪽 날개들은 언약궤 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고 있었고, 또 다른 쪽 날개들은 바깥벽에 닿아 있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총 7년이 걸렸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자 제물을 바치는 큰 봉헌 예배를 드렸고, 축제를 열어서 다윗이 지은 성막으로부터 언약궤를 모셔와 성전의 밀실에 모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한다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내리시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솔로몬은 몇 개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웠는가?
- * 주님을 위해 무엇을 건축했는가?
- * 그 성전의 바깥벽은 무엇으로 건축되었는가?
- * 돌은 어디서 다듬어졌는가?
- * 안쪽 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 송백 나무는 어디서 가져 왔는가?
- * 누가 송백 나무를 구하기 위해 솔로몬을 도왔는가?

제 2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성전의 계획과 세부사항들이다.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을 비교하고 검토해 본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 대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도 설명한다.

다윗은 전투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적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 왕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세력 면에서도 강대해졌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임을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기름 붓도록 명령했고, 백성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이다. 솔로몬의 통치기간은 내내 태평성대였고, 솔로몬 역시 다윗처럼 40년간 통치했다. 그는 통치 초기에 주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기브온으로 갔었다. 이는 시나이 산에서 만들어진 성막이 그 당시까지 궤를 제외한 모든 기구들을 가진 채 기브온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러한 솔로몬의 겸손한 태도와 그에 따른 주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는 아주 슬기로우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론 타국의 왕이나 여왕들까지도 그의 말을 청종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기도 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사람은 다윗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본문은 그 성전 건축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성전은 아니나 건축된 장소는 같다. 예루살렘성 안에는 시온산과 모리아산이라는 두 개의 언덕이 있는데, 이 둘은 계곡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시온산은 서쪽 언덕에 위치하는데, 그곳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성이었다.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는 이곳에 궤를 위한 성막을 지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동쪽 언덕 곧 모리아산(역대기하서 3:1)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 뒤에도 두 개의 성전들이 더 건축되었는데, 하나는 스투바벨이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헤로데가 지은 성전(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전)이다. 이 두 성전들 역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위치였다.

성전의 벽은 송백나무로 지어졌고 마루와 문들은 전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모두 레바논 산에서 가져와 졌다. 띠로의 왕 히람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아주 굳건한 동맹관계였으며, 성전을 지을 노련한 건축가를 준비해 솔로몬의 일꾼들과 협력하여 일하도록 했다. 열왕기상 5장 22-25절(개역 5:8-11)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히람과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를 알 수 있다.

본문에 기술된 간략한 사항만으로는 성전의 구조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에제키엘서 40-48장에 수록되어 있다. 새교회 목사인 T. O. Paine이 100여 년 전 성전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한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에 대한 가장 정밀한 건축학적 고찰로 사료된다. 본문에 의하면 성전의 크기에 관한 비례는 성막의 그것과 같다. 즉,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 것도 성막과 같고 밀실은 지성소로서 그 안에 궤가 안치되었고 크기 역시 성막의 크기와 같은 한 큐빗이다. 그러나 성전은 항구적인 건축물로

첨가된 모양새들을 가지고 있다. 즉, 앞쪽에 넓은 현관을 가졌다는 것과 두 개의 큰 청동기둥이 받쳐 든 지붕이 있었다는 것 등이 그 예다. 기둥들이나 다른 모든 청동기구들은 띠로의 왕 히람이 아닌 동명이인인 다른 히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열왕기상 7장 15-2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전 바깥쪽 벽 둘레에 작은 방들이 지어졌고, 이 방들은 성전 안으로 열려져 있었다. 이 방들은 솔로몬 왕이 소유했던 금과 은제품 그리고 전리품들을 보관하는 보물 창고로도 사용되었다. 성전의 기구는 성막의 것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성소 안에 한 개의 등경 대신 10개의 등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에제키엘서를 통해 바깥쪽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큰 제단과 놋대야뿐만 아니라 열 개의 작은 놋대야가 있었으며, 직무중인 사제들을 위한 방들과 사제들이 먹도록 배분된 제물의 일부를 굽거나 삶기 위한 장소들도 있었다.

본문 8장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있었던 거대한 헌당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성전 안에 언제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는 어떠했는가?
- * 성전은 어떤 재료들로 지어졌는가?
- * 성경은 성전이 지어진 방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7절 참조)
- * 성전의 안쪽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솔로몬이 밀실을 위해 만든 두 개의 형상은 무엇인가?
- * 그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 그들의 키는 얼마인가?
- * 그들의 날개는 얼마 컸는가?
- * 그들은 무엇으로 입혀져 있었는가?

제 3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일반적인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 본다.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이유와 제 7절의 의미를 파악해 본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여 준비되는 재료들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건축하심을 강조한다.

다윗은 전투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정복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막으로 언약궤를 안치하도록 허락되었지만,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본 관계로 성전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시험과 싸워 나가야 하지만 투쟁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이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며 단지 천국적인 인격의 건축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보좌위에 앉게 되었을 때 기브온으로 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가장 먼저 행했다. 기브온은 옛 성막이 마지막으로 세워진 곳으로, 성막과 그 안의 각종 기구들이 그때까지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비록 궤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정규적인 예배 행사가 그 성막에서 지속되고 있어서 솔로몬은 그곳을 보자 우선적인 예배의 장소로서 간주했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곳을 왕래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헌신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대로 그가 유명한 꿈을 가지게 된 이유이며, 그는 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택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혜로운 마음”을 선택하는 슬기로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이란 진정한 지혜와 같은 것으로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능력이며 의를 행하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후 아주 유명해져서 각국의 왕이나 여왕, 특히 세바 여왕의 경우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왔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이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말한다. 성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바름을 행함으로써 생산되는 선을 재료로 하여 주님께 의해 은밀하게 건축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 중 어느 하나를 기억에 되살려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에 사용될 수 있는 “돌”을 다듬고 있는 것이다. 제 7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자. 성전 건축은 7년이나 걸렸는데, 이는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간존재의 건축에도 7일이 걸린 것과 같다. 그 이유는 7이란 숫자가 거룩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이해성을 상징하고 다윗은 진리에 대한 영적 이해성을 상징한다. 우리가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의 삶을 진리에 의해서 규율해야함을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사울과 다윗으로 묘사되고 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즐거워할 때를 상징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위하여 의를 행할 때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의를 행함이 습관화되어서 그것을 즐기므로서 삶 자체가 의로움으로 가득할 때는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은 두 가지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막은 어린이 같은 상태에서 비롯된 마음으로부터의 예배를 표현한다.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항구적인 건축물임으로, 진리를 이해함에 기초를 두고 주님을 더 성숙해진 수준에서 영접하는 것을 표현한다. 돌 뿐만 아니라 송백나무와 전나무가 띠로의 왕 히람의 협조 하에 레비는 산으로부터 공급되어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다. 여기서 히람이란 세상적인 지식들을 통치하는 올바른 원리를 상징한다. 그는 다윗의 친구였으므로 다윗의 집을 위해서도 재료들을 준비해 두었다. 본문에서는 동명이인인 히람이 성전을 위해서 재료를 다듬는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작정할 때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들도 유용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변화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시온 산에서 모리아 산으로의 위치 변경에서도 발견된다. 이 두 산(언덕)은 모두 예루살렘성 안에 있다. 시온산은 견고하게 요새화된 지역으로서 교회의 “천적” 원리 곧 선함을 사랑함을 뜻하며, 모리아산은 교회의 “영적” 원리 곧 진리를 사랑함을 말한다.

성전의 계획과 지분율은 성막의 것과 똑같았다. 그러나 성전에는 제 7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더 많은 가구들이 배치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속의 진리들을 응용해 갈 때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발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행동적인 삶에 있어서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 사울 =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
- 다윗 =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
- 솔로몬 = 사랑으로 진리에 순종함
- 시온산 = 천적인 교회
- 모리아산 = 영적인 교회

7 = 기록함

제 4반

왕의 의미를 재정리하고 솔로몬의 상태를 우리의 이상으로 삼도록 한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은 거듭나는 우리 삶의 세 단계를 표현한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단계에 들어선다. 사울의 단계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를 의무감이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혹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서 비롯되는 상태이다. 이후에 오는 다윗의 단계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로부터 배운 바를 이해하면서 세상의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단계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여서 주님의 법을 공부하고 준수해 가는 상태이다. 우리가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와의 싸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님께 요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다.

지식과 총명 그리고 지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아주 다르다.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가진 지식을 체계화하여 삶에 응용할 수 없다면, 그에게는 총명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삶으로서 가진 지식을 총명으로 삶에 응용하여 살아내지 못한다면, 지혜는 그에게서 아주 먼 것이다.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 다윗도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의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열왕기상 5장 3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주신 다윗의 임무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속의 악들과 투쟁하는 동안에도 성막으로 표현되는 우리 안의 주님에 대한 예배와 신뢰는 어린 시절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옛 성막이 기브온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시험을 극복해 가는 동안 영적인 인격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시험이 승리로 끝나 평화로운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서 실질적인 성전 건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훈이 본문 7절의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로

의미된다. 성전을 짓는 재료들인 돌과 나무 - 진리와 선함 - 은 거룩한 땅 밖에서 가져왔고 각 재료들은 현지에서 미리 다듬어진 후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었다. 우리 속의 “성전”은 진실 된 것에 의거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듬어 이뤄지는 진리와 선함으로 지어진다. 우리속의 성전은 아주 조용히 건설되며 칠 년이 걸린다. 성전이 마무리되는 때란 우리의 성취가 주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측정되는 때이며, 이 성전은 우리가 영계로 건너갈 때 가지고 가게 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성전의 밑실 곧 지성소는 전체가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을 상징한다. 성전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언약궤는 이 밑실로 모셔졌다. 그런 다음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솔로몬은 엄숙한 헌당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함 곧 자신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진 계명의 준수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다.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은 부와 영예를 더하여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충분히 지켜졌다. 측정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던 솔로몬의 재산은 진실로 선한 삶이 소유하게 되는 영적인 부를 내적인 측면으로 그려준다. 재산의 세부사항 역시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솔로몬의 상태에 근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솔로몬의 상태로의 미약한 접근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안의 악을 들춰내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과 싸우고 정복하여 그 악에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평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신뢰를 위해 쌓아진 영적인 부를 경험하게 된다. 솔로몬 왕국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있다.

제 5반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열왕기상 5-9장과 예제키엘 40-48장을 읽어본다.

세 왕들 모두는 우리가 삶의 원리로 인정하여 받아들인 말씀 또는 주님의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는 각 왕이 표현하는 진리가 분명한 등차가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사울 왕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성 또는 자연적인(인간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그래서 사울로 상징되는 이해성은 자연적인(인간적인) 수준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계보가 멀어져야 했던 이유이다. 그러나 다윗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이해성은 많은 영적인 결과들을 이루어 낸다. 이러한 연유로 주님께서서는 다윗에게 그의 계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계보에서 탄생하시는 것으로 예언 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주님에게서 “지혜로운 마음”을 선물로 받았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변화기에 요나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중간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띠로의 왕 히람이었다. 여기서 히람의 역할이란 우리의 실질적인 생각이나 활동에 관한 자연적인 평면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성을 삶의 통치자로서 성공적으로 승계 받은 후일지라도 영적인 이해성을 떠받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됨을 표현한다. 이러한 것들은 열왕기상 제 5장에서 솔로몬과 띠로의 왕 히람이 거래 계약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다. 스웨덴북은 띠로와 시돈이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히람은 교회밖에 있는 국가이나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한 국가를 표현한다. 히람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친구로서 다윗이 궁전을 짓을 때와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궁을 짓을 때 협력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히람을 보자면, 우리가 선하지만 이방적인 상태 곧 우리가 획득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진리들을 이타적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우리속의 이런저런 상태들을 상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습득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도와주는데, 먼저 체계 있는 영적 사고력을 발달시켜 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궁을 지을 때 히람이 도와주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 다음으로 진정한 천국적인 인격 곧 우리속의 교회인 성전이 세워지는데도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가 습득한 지식과 역량이 우리속의 교회를 짓는데 사용되면, 우리 마음의 바깥 영역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선으로 활력을 얻고 생명을 받아 살아있게 된다.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거래의 대가가 양식이었음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이만 섬과 짠 기름 이십 섬을 공급하였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특전을 다윗의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은 이에 대한 이유를 히람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당신께서도 아시하시피 내 부친 다윗은 그분의 하느님 야훼께 성전을 지어 바치지 못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부친의 발밑에 밝히게 하시기까지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힌다. 천국적인 인격 곧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집은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합리성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계발되었거나 시험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지어질 수 없다. 주님의 집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긴 후 갖게 되는 평화의 상태 안에서 은밀히 흐르는 그분의 영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우리의 선함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고 거듭하여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의 선함은 언제나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악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방향을 바꿔 주님께로 열어두는 것뿐이다. 그래서 성전은 이주 조용한 가운데 지어졌고, 모든 재료들은 외곽지역에서 다듬어졌던 것이다. 우리의 천국적인 인격을 만드는 재료인 다양한 선함과 진리들은 우리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들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이 세상에서의 삶 전반에 걸쳐서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된다. 즉,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지 칠 년째 되던 해였다”라는 구절이 이에 해당된다. 스웨덴북은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된 이유에 관하여 많은 암시를 주고 있다. 그는 「하느님의 섭리」 제 245항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 성전은 신성한 인간이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비해 솔로몬은 세상에 오신 후의 주님을 표현한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654-33항에는 “교회속의 모든 사람은 영성과 합리성 그리고 자연성을 가지는데, 이는 솔로몬이 지은 세 개의 궁과 같다. 그 중 하나는 하느님의 집 곧 성전인데, 이는 영성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레바논의 수플궁으로 합리성을 상징한다 (송백나무나 레바논은 합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은 자연성을 상징한다.”라는 흥미로운 서술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의 휴식을 얻게 되면 그 영혼은 아름다운 형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영혼이 소유한 내적인 것인 교회에 관련 된 것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얻은 세상적인 것까지도 형체를 입는다는 것이다.

성전의 세부사항에 관한 상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막에 관한 지식을 상기하여 성전과 성막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성막은 천적인 교회를, 성전은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성막은 영적인 발달 단계에서 보면 지적인 면이 조금 떨어지지만 어린이와 같은 천진무구한 상태이다. 「천국과 지옥」 제 223항에는 “천적인 천국에 있는 교회는 나무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천국의 교회는 돌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나무가 선을 상징하고 돌이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성막의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던 반면 성전의 벽은 돌로 되어 있었다. 본문 15절에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보쪽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송백나무 널빤지로 벽을 붙인 모습은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오게 되는 선을 묘사해 준다. 이 벽에 거름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돌을새김으로 새겨 놓았는데, 이는 신성한 섭리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권능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다양한 축복에 관한 생각들을 표현한다. 금으로 입혔다 함은 진리를 아름답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다윗의 성막이 있었던 시온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본은 그의 저서에서 시온이 천적인 교회를 표현한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성막이 시온산에 건립되고 영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말씀 한 곳에서 동시에 언급되면 시온은 천적인 교회에 관한 것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에 관한 것을 상징함을 더불어 알아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알아둘 사항은 본문에서의 성전 구조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성전이 파괴된 후 수년 동안의 환상으로 에제키엘에게 보여준 바로부터 성전의 이모저모를 보충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에제키엘서 40-48장 참조). 본문에서 결여된 구조물에 관한 사항은 에제키엘서에서 설명되고 에제키엘서에서의 미비한 사항은 본문에서 보충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성전 구조를 알도록 해준다.

참고문헌 - 스웨덴본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7847-4항: “ ‘성전’은 지극히 높은 의미로 볼 때 주님께서 가지시는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22절에서 직접 가르치고 계신다. 성전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분의 교회를 의미하고, ‘문설주’와 ‘문 위의 가로대(상인방)’는 자연적인 것 안에 든 선과 진리로서 소개(입문)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성전에서 문기둥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올리브나무’는 진리의 선 또는 영적인 교회 속에 있는 선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1) 다윗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 2) 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 3) 누가 성전을 지었는가?
- 4) 솔로몬이란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 5) 누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는가?
- 6) 솔로몬은 그 재료의 값을 어떻게 치렀는가?
- 7) 성전 건축의 주재료는 무엇인가?
- 8)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 9) 성전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 10) 성전은 예루살렘 내의 어느 곳에 지어졌는가?
- 11) 왜 성전이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조용하게 세워졌는가?
- 12) 성전 건축은 몇 년이나 걸렸는가?
- 13)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그리는가?
- 14)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15) 성전 건축 재료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미리 다듬어졌다고 함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질문의 답

- 1) 적을 정복함 2) 평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3) 솔로몬 4) 평화 5) 히람
- 6) 곡식, 기름, 성읍들 7) 돌, 나무, 금 8) 전체적인 윤곽측면에서
- 9) 성전은 더 견고하고 항구적이다 10) 모리아산
- 11) 원산지에서 돌을 깎고 다듬었기 때문 12) 칠 년
- 13) 사울 - 의무감에서 진리를 순종함
다윗 - 존경심에서 진리를 순종함
솔로몬 - 사랑함에서 진리를 순종함
- 14) 시험과의 싸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인격의 형체가 이뤄진다
- 15) 바깥 삶 곧 일상생활 중에 있는 올바른 행동으로 인격이 형성된다

19

엘리아의 겹옷

머리말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그 원인을 살펴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대신 베텔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로 예배를 대체시킨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은 엘리아와 엘리사의 선교활동과 분단된 왕국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장

2장: 1. 야훼께서 엘리아를 회오리바람에 태워 하늘로 데려 가실 때가 되어 엘리아가 길갈을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2.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 있게.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텔로 내려갔다. 3. 베텔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4.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5.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 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십시오.” 6.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7. 예언자 수련생 오십 명이 뒤를

따라 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보고 있었다. 8. 엘리야가 겹옷을 벗어 말아 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9.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 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가? 말해 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뭇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10.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11. 그들이 말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뿔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겹옷을 집어 들고 되돌아 와 요르단강 가에 서서 14. 엘리야의 겹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15.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검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16.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굳세고 용감한 장정이 오십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어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17. 그들이 계속 졸라 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 하였다. 그리하여 오십 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18.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 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19.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20.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21.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2.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23.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하며 놀려 대었다. 24. 엘리사는 돌아 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사십 이 명을 찢어 죽였다. 25. 엘리사는 그 곳을 떠나 가르멜산을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 왔다.

교리 요점

- *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 발휘된다.
- * 우리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 * 말씀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도달할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 우리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배우며 하느님의 사랑이 그 의미로 전해짐을 알게 되면, 말씀의 글자는 우리 안에서 더욱 새롭게 되며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권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솔로몬에게 내려진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열되는 상황은 우리가 자신 혹은 타인 속에 든 악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워 버리기를 거절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솔로몬의 통치로 그려지는 상태, 즉 의를 행하기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심정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오는 깊고 어려운 시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나는 언제나 바른 사람이라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라고 느끼거나 “어느 누구도 솔로몬 같은 심정상태에 도달할 수 없어.”라고 느낄 때 들이닥치는 시험인 것이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의 북쪽과 요르단 건너편 지역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독립된 왕국을 건설했다. 그곳의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왕국을 세운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나쁜 것은 우상들을 세운 것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단과 베텔에 하나씩 세웠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예배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즉,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자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몇 가지 시험들과 싸워서 이긴 후 스스로 좋은 인격이라고 여겼던 것을 완성했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젠 성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혹은 “이젠 예배에 좀 빠져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웃에게 친절하며 도와주는 것으로 선을 베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단 말인가?”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에게 발생한 문제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북쪽 지파들에게 두 명의 큰 예언자, 즉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을 대변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자”는 하느님에 의해 쓰인 말씀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살피 주실 수 있다.

엘리야는 그의 임무가 끝나자 그의 종이며 제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그때 엘리사는 스승의 영검(영감)보다 갑절(두 몫)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엘리사의 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 엘리사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엘리야를 태우고 간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고, 엘리야의 겹옷이 엘리사를 위해 땅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글자로 이뤄진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우리를 천국과 연결시켜 주는 책임을 알게 될 때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 1반

엘리야와 엘리사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엘리사는 한 때 엘리야의 제자였고 그의 종으로 지내다가 후에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주님께서 백성들이 그분의 법을 잘 순종하면 그 성전에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겠노라는 하나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북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르호보암에 반기를 들었고, 결국은 독립된 왕국을 세웠다. 북부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고, 나머지 반쪽인 남부 백성들만이 르호보암에게 충실했었다.

여로보암은 북부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게 되면 언젠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에게 반역하지 않을까하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금송아지 상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사악한 왕이었고,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역시 사악했다. 여로보암이 통치한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역을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로보암의 후계자 중 가장 사악한 자는 아합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사벨은 아합보다 더 사악했다. 주님께서서는 아합이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경고할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내고자 노력하셨다. 그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Elijah)였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와 그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었다. 아합은 그런대로 상당히 설득되기도 했지만, 이사벨은 엘리야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항상 엘리야를 보호한 분은 누구이신가?
- * 엘리야를 계승하도록 선택된 사람은 누구인가?
- * 그들은 요르단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 * 엘리사는 어떤 소원을 구했는가?
- * 엘리야는 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로 들리어졌는가?
- * 누가 그 광경을 보았는가?
- * 엘리사는 엘리야의 겹옷(mantle)을 어떻게 얻었는가?
- * 그는 겹옷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 * 어느 성읍 근처에서 그 일이 발생했는가?
- * 본문 후반부의 두 기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제 2반

왕국의 분단된 형세를 성서지도에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당대에는 두 개의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복음서 시대에는 세 개의 지역으로 분열되었음도 기억해 두자.

솔로몬은 40년 동안 평화로운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며 통치했지만, 통치 말기에는 주님께

대한 충절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갔다. 그는 타국 출신의 아내를 수없이 많이 거느렸고, 그녀들을 위해 거룩한 땅 내에 여러 신들의 제단을 세워 주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위엄을 지키며 수많은 아내들을 위한 궁전의 경비충당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폭정을 하던 그가 죽자 북부 지역의 열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반기를 들고 사마리아에 그들의 수도를 정하면서 북쪽 지역에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 이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 지역, 즉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했던 지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으며 유다라고 불렸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사악하여 주님을 예배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왕국으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가 바로 엘리야였다.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엘리야가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수행한 기적들 중 몇몇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이합과 그의 아내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 본문은 엘리야의 삶 중에서 그의 마지막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의 계승자가 될 것이니 그를 종이며 제자로서 부르라고 분부하셨다.

만약 우리가 엘리사가 보았던 광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엘리야가 주님의 대변자로서 진정한 예언자였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은 광경을 본 후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허위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본 것이 확실히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엘리사가 가지게 된 갑절의(두 몫) 영감과 같은 것이다. 어렸을 때의 우리는 부모님이나 교회의 선생님들이 성경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배웠으며, 말씀을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다.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계명들이 진실로 주님의 법임을 깨닫게 되며, 그 길을 따르는 것만이 참된 행복으로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임을 삶을 통해서 실감하고 계명대로의 삶을 꾸리려고 애쓰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갑절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어린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던 것은 죽을 정도의 무례를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대머리라고 불리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엘리사는 주님의 예언자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만 했다. 이에 대한 깊은 의미는 성경공부를 심도 있게 해나가면서 차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엘리야와 엘리스는 요르단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 * 이전에 어떤 권능이 이 강을 갈랐었는가?
- * 엘리스는 엘리야에게 어떤 소원을 말했는가?
- * 엘리야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엘리스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엘리야가 하늘로 오를 때 무엇이 땅으로 떨어졌는가?
- * 엘리야의 겂옷은 어떤 의미인가?
- * 엘리스는 자신이 엘리야의 계승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겂옷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 * 엘리스는 예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수행했는가?
- * 엘리스가 베델로 가고 있을 때 어린이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놀렸는가?
- * 어린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 3반

우리 각자에게 분단된 두 왕국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스의 의미, 엘리스에게 주어진 두 배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던 이유도 살펴본다.

분단된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중 처하게 되는 상황을 상징한다. 선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가졌으나 이미 세상살이에 맞을 들인 우리의 이성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 곧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온갖 종류의 변명을 모색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설득한다. 따라서 유다왕국은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의 이성을 상징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 중에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더욱더 악독해져 갔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자 엘리야는 호렘산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긴박한 위협에 대해서 주님께 말하며 구원을 청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는 그를 되돌려 보내셔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는 바로 그의 후계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이었다. 본문은 엘리야가 자신에게 명령된 사명을 이루어 내는 장면이다. 엘리사는 한동안 엘리야의 제자와 종으로서 그와 동행했고, 마침내 엘리사에게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엘리사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 이제 자기를 따르는 것에서 되돌아가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거절했다. 그들이 여행을 출발한 길같은 예리고 근처에 있는 곳이 아닌 베델의 북쪽에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길갈에서 베델로 먼저 여행한 후 예리고로 가서 요르단 강을 건너갔다. 성경의 지리학적 측면에서의 두 예언자의 여정은 가장 높은 평면에서 가장 바깥쪽, 즉 가장 낮은 평면으로의 여행이었다. 이것은 말씀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린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내려와 도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와 주님과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평면이 바로 가장 바깥쪽 평면인데, 말씀의 글자를 단지 과거 시대의 유물이나 역사서로 간주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생활에 응용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그에게 새로운 확증이 주어졌다. 말은 총명을, 수레는 고리를 상징한다. 고리란 우리의 총명이 효과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조직화된 가르침으로서 우리를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운반해주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하늘까지 운반하고 있다. 불은 신성한 사랑, 주님의 예언자인 엘리야는 말씀을 상징한다. 더욱이 본문에서의 말씀은 높은 이해성으로부터 밝혀지는 말씀을 뜻한다. 엘리사가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엘리야를 보았을 때 엘리야의 권능은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권능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권능을 주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깨달아서 말씀을 읽게 된다면, 말씀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 진정한 기적들을 이루게 된다. 더욱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고 그 의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면, 말씀은 새롭고 더 위대한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된다.

엘리야의 겹옷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그는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데 “겹옷을 맡아 가지고” 강물을 내리쳤다. 그 뒤 엘리사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삶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말씀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말씀의 어느 구절만을 특별히 믿고 싶어서 혹은 자신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이유로 끄집어낸다거나 또는 어떤 구절만을 선택하여 확대시켜 삶에 적용하거나 설교에서 지나치게 강조하여 나머지 구절들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말씀속의 내적 의미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권능은 글자적인 의미 안에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적기에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배양해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본문의 나머지부분에서는 엘리사가 예언자로서의 경력을 쌓는 초기에 있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기술되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예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준다. 예리고는 지상의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의 머리 부분 근처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예언자 수련생들이란 우리 삶의 가장 낮은 평면인 감각적인 욕구만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묘사한다. 그러나 진리가 이렇게 낮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이 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엘리사가 준비시킨 새 그릇에 가득 담은 소금은 쓴 진리를 달게 해 주었다. 이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됨을 뜻한다. 소금은 “선을 위해 진리를 갈망함”을 상징하고, 진리를 배우기만하면 그 즉시 삶에 응용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진리는 우리에게 단맛을 주며 우리의 삶을 열매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베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아 꺼져라”하고 놀려댄 것이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을 섬멸하되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섬멸시키라고 말해진 부분을 제외하면(시편 137:9 참조), 아이들이 나쁜 의미로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순진과 신뢰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무지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시작을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선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선함이 시작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이 악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들의 악함이 시작됨을 표현하는 것이다. 머리털은 생명이 있는 신체 부분 중 가장 바깥부분으로서 우리의 가장 외향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표현한다. 그래서 예언자의 머리털은 가장 바깥 형태에서 계명에 순종함을 표현한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계명을 배워야 하며 그것에 순종해야 함에 대해 코웃음 치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의 글자를 경솔히 다룸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 코웃음 곧 놀려댐은 우리들을 더 큰 외향적인 악들로 끌고 간다. 이것이 숲에서 나온 곰으로 그려지며, 이 놀려댐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예언자의 겉옷 = 말씀의 글자
소금 = 선을 위해 진리를 바램

제 4반

세상적인 잣대로 선함의 기준을 재려는 시험과 성서가 더 이상 자신을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려는 시험을 주로 살펴본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주님의 예언자로서는 말씀을 상징한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듯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괴로움과 곤경을 치료해 주기 위해 우리속의 병의 근원인 악을 보여주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북쪽 지역의 지파와 요르단 건너 지역을 합한 열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반기를 들고 독립된 나라를 세워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었다. 그런 다음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북쪽 끝인 단과 베텔에 하나씩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예배하도록 했다. 우리가 세상적인 추론이 주님에 대한 예배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도록 허용하여 행동적인 선으로 세상의 칭송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예루살렘에 있는 궤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대신 금송아지들을 세워서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 심정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계보에 신뢰를 두는 남쪽 유다왕국이 상징하는 것이다. 유다왕국이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계속 준수하는 모습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열왕기서 상과 하의 분단된 왕국의 역사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왕국으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에 관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두 왕국을 번갈아가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심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선의지와 거짓추론 사이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엘리아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셨던 바와 같이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길로 접어들도록 우리를 인도하려고 노력하신다. 본문에서 엘리아의 겉옷은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말씀을 모순 없이 이해하여 받아 들였을 때는 엘리아가 겉옷을 둘둘 말았던 때와 같은데,

엘리아의 겔옷은 과거 케가 그러했듯이 요르단의 물을 좌우로 갈라지게 하는 권능이 있었다. 스웨덴북은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글자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살펴보자. 우리는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공부하면서 각 구절속의 영적 의미들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되며, 배우면 배우수록 더 많은 부분들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웨덴북이 강조하는 바는 이러한 모든 내적인 의미들은 실질적으로 각 구절의 글자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시편을 포함한 말씀의 구절들을 반복해서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읽고 가능하면 암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각 구절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는 말씀의 글자를 실제로 읽거나 암송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감화를 준다. 엘리사가 엘리아의 영보다 갑절 많이 받게 된 것은 그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들리는 엘리아를 지켜보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본문의 하단에는 또 다른 의미들을 지닌 두 개의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머리털은 생명체 중에서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언자의 겔옷이나 머리털은 말씀의 글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댄다는 것은 말씀의 글자가 거룩함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엘리사를 놀려댄 어린이들을 숲에서 나온 암곰 두 마리가 찢어 죽였다. 곰이란 털이 많은 짐승이다. 털이 많다 함은 가장 바깥쪽 곧 행위로서 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에도 신성한 영감이 말씀에 들어 있음을 부정하는 이들의 경우 말씀을 공부하기는 하되 말씀을 한낱 인간의 산물로 간주하여 오히려 주님께에서 더 멀어지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성경공부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곰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모습이 상징하는 바다.

샘터에 소금을 뿌려 샘물을 정하게(healing) 하는 사건은 소금이 진리와 선함이 하나가 되도록 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배운 후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이루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전에 하던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배운 새로운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별히 주님께에서 그분의 재림으로 보여주시는 새 진리의 경우는 더욱 진정하며 권능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새 진리를 알면서도 과거의 낡고 세상적인 삶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면, 우리는 결코 새 진리를 담은 새 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성읍인 마음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유는 새 그릇에 있어야 할

소금이 빠진 까닭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실생활에 습득된 새 진리가 있는 것 곧 적극적인 응용이 빠진 까닭이다.

제 5반

솔로몬의 죄와 왕국이 둘로 분열된 것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운 것 등의 의미를 살펴본 후 둘둘 말아진 엘리야의 겉옷 그리고 엘리야의 환상과 그 결과 예언자로서 엘리야의 첫 행동을 살펴본다.

평화로웠고 의기양양해 보였던 솔로몬의 통치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국이 둘로 분열되는 비극은 너무 갑작스러워 의아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된 왕국을 그리 길게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외부의 요인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까닭을 찾는다면 탐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지닌 영화와 번영 혹은 그들의 큰 수도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해 그들의 자만심이 거세져서 주님께 반역하는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왕국이 분열된 진정한 원인은 통치의 말기에 보여준 솔로몬의 처신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서 발견된다.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많은 외국 출신의 아내들을 거느렸고 그녀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세워주었는데, 결국 그도 그들의 우상에 예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매우 근엄한 경고가 담겨있다. 솔로몬의 통치는 아주 좋은 측면으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표현한다. 최고의 상태란 사랑으로 진리에 순종하게 됨을 말한다. 그러나 최고의 상태는 그와 더불어 아주 깊은 시험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제 완벽하여 어떤 잘못도 범할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자신이 아주 넓고 깊은 사랑을 지녔다며 교만해지는 시험이다. 이러한 착각은 자신 속의 선한 것 말고는 누구의 것도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유도한다. 결국 악이 아주 매력적인 형태로 다가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덥석 끌어안고서는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정에는 여전히 선해지려고 하는 의도가 남아 있는데, 유다가 솔로몬의 계보에 따르고 성전에서의 정기적인 예배를 계속 지키는 모습이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성이다. 세상이 선한 행위라고 여기는 외적 친절함을 잘 베푸는 사람이 선한 인격자라고 동의한 우리의 이성은 더욱 깊은 배반으로 치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 예루살렘으로 예배 보러 가는 백성을 유인했다는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이성 속에 통치하는 원리를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더욱 사악해져만 갔다.

말씀은 위와 같은 상태에 대한 경고들로 가득하다. 우리의 의도가 섰다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정작 말씀을 받는 장소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삶의 세 평면 중 생각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쪽의 반역적인 이스라엘 왕국에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내진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5321-5항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이란 측면에서 모두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설명된다. 스웨덴북의 저서에는 이 두 예언자가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사람의 상이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두 예언자들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권능의 두 배가 더해졌다 함은 엘리사가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엘리야보다 주님의 현존이 더 드러나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 속에 든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으로 입증하면서 진보할 때 그 권능이 두 배가 됨을 의미한다.

앞서 우리는 겉옷이 외부적인 진리들을 상징함을 배웠다. 이는 우리의 언어가 생각의 옷이 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겉옷은 언어와 비슷한 것이다. 밖에 드러나 있어 눈으로 확인되는 진리를 외부적인 진리라고 한다. 예언자의 겉옷은 말씀의 글자를 상징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궁극에 있는 말씀(the Word in ultimates)”을 의미한다. 이것이 궁극이라고 말해지는 까닭은 이곳에서 말씀의 권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설명」 395-4항에는 엘리야의 겉옷이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데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뒤의 인용문헌에도 그 일부를 게재하였다. 요르단 강은 우리를 교회로 입문하게 하는 첫 번째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돌돌 말아진 겉옷 곧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얻게 되는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강물을 가르도록 하는 권능을 갖게 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부각되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함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요르단 강을 가르기는커녕 그 물에 휩쓸리고 만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거짓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천국의 신비」 제 4255-4항에서 요르단 강의 물을 가르다 함은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상징한다고 설명된다. 이와 비슷한 기적은 과거 여호수아 시절에 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 이유는 궤가 계명을 표현하고 계명이 말씀의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처음 부를 때 자신의 겂옷을 엘리사에게 걸쳐 주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트린 겂옷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말씀을 표현함이 옮겨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검의 두 몫을 요구했다. 새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한 지식을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게 된 사람들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의 변천을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의 글자만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려 애썼던 이들이 상응에 관한 새교회의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면, 본문의 엘리사의 경험은 그들에게 참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엘리사에게는 그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게 되면 그의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졌다. 엘리사는 먼저 자신과 엘리야 사이를 갈라놓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다. 즉, 엘리사의 눈은 천국에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보도록 열려졌다는 의미이다. 불수레란 말씀으로부터 온 사랑과 이타의 교리를 상징하고, 불말은 그 교리에 근거한 믿음으로부터의 교리를 상징한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게 된다. 즉, 우리가 말씀의 글자들 안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관한 변함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천국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될 때 말씀은 우리의 이성 속에서 회오리바람에 휩싸이듯 들려진다는 것이다. 글자 곧 엘리야의 겂옷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이제 두 배의 권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엘리사의 경험은 참으로 값진 것이다. 우리가 상응의 빛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과거 우리에게 희미하거나 의미 없이 여겨졌던 구절들까지도 빛을 발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 효력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억에 담겨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이해성을 가질 때 그리고 특히 말씀의 권능을 인식할 때가 그러하다.

예리고의 샘물을 정하게 한 사건의 의미는 「천국의 신비」 제 9325-9항과 10항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요르단 강에 가까이 위치한 예리고란 말씀의 글자에 관한 외부적이고 자연적인 가르침을 상징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응용할 의사가 없다면, 그 진리는 쓰게 느껴져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새 그릇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의미하며, 소금은 선을 위해 진리를 갈망함을 의미한다. 엘리사가 소금을 뿌린 샘이라 함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인간속의 자연성을 표현한다. 이 자연성이 소금으로 인해, 즉 선을 위해 진리를 갈망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외적인 의미만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용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구절들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여기거나 자신에게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19절에서 “물이 나빠서”가 그에 대한 예이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는 우리의 새로운 이해성과 더불어 오게 되는 추가된 말씀의 권능으로 치료된다. 우리가 배운 것을 응용하려는 바람을 갖는다면, 새 이해성으로 읽은 말씀의 매 구절들은 우리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위의 효과라는 단어에 대한 실례가 본문의 마지막 사건에서 발견된다. 예언자의 직무는 한마디로 악을 지적하고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짜의 사건에서처럼 이 사건에서의 처벌 역시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부분 역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만을 토대로 이해하게 되면 말씀의 목적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우리는 엘리사가 말씀을 상징하고 그의 머리털이 말씀의 글자를 상징함을 인식할 때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엘리사를 놀리는 것은 말씀의 글자에 무슨 권능이 있겠는가라고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된다. 어린이란 언제나 시작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문단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들을 가볍게 대하려고 시작하는 위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가 생각 없이 말씀을 경시했다하더라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말씀을 장난말의 소재로 삼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건너뛰고 읽는 것과 같은 행위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처벌은 숲에서 나온 꿈에 의해 찢겨 죽는 것이었다. 꿈이란 말씀을 읽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말씀의 글자에 대해 가져야 할 존경심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발산되는 모든 것을 단지 인간적인 산물로서 귀결하는 논쟁이나 설득력 있는 추론들의 먹이가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멸이다. 그 이유는 “말씀의 모든 권능과 신성함은 글자적인 의미에 집합되어 그곳을 근거지로 삼기 때문이다. 이 글자의 뜻 없이 말씀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기초 없는 집과 같이 바람에 흔들려 무너져서 산산조각 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395-4항: “엘리야는 주님을 진리 자체인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고, 엘리사가 이를 잇고 있다. 그러므로 ‘겉옷’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신성한 진리 곧 가장자리에 이른 말씀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겉옷이 요르단 강물을 갈랐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없어 주었다 함은 말씀에 관한 주님을 표현함이 엘리사에게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트린 겉옷을 엘리사가 집어 들었다’함은 이 표현성이 엘리사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이 표현해야 하는 것에 따라 옷 입혀지기 때문이다. ‘겉옷’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신성한 진리인 말씀 또는 한통속에 든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엘리야의 겉옷이 요르단 강물을 가르되 처음에는 엘리야에 의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엘리사에 의해 갈라졌다는 것은 가장자리에 이르러 있는 신성한 진리의 권능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요르단강물’은 교회를 소개하는 첫 진리를 의미하는데, 이런 첫 진리들은 말씀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는가?
- 4)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진 두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 5) 엘리야의 직무가 끝나자 엘리사는 무엇을 요청했는가?
- 6) 엘리야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 7) 엘리사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가?
- 8)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이 땅으로 떨어졌는가?
- 9) 예언자 수련생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10) 엘리사는 수련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가?
- 11) 어린아이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놀렸는가?
- 12) 그 말이 그토록 나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린이들에게 무슨 변이 생겼는가?
- 14) 분단된 왕국의 두 부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예언자의 겉옷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엘리야와 엘리사의 상응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둘로 나뉘었다 2) 이스라엘, 유다 3) 유다 4) 엘리야, 엘리사 5) 두 배의 영검 6) 만일 내가 가는 것을 본다면 가능하다 7) 불말과 불수레 8) 그의 겹옷 9) 겹옷으로 요르단 강물을 가르는데 보고 10) 물을 정하게 했다 11) 대머리라고 12) 불손함의 표시 13) 곰이 찢어 죽였다 14) 지성, 심정 15) 말씀의 글자 16) 엘리야 - 순종함에서 말씀을 공부함
엘리사 - 내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말씀을 공부함

20

요 시 아 왕

머리말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사악한 왕들이 유다왕국에 잇달아 출현하여 주님에 대한 예배가 쇠퇴되고 우상이 범람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혁신을 꾀한 소수의 선왕들도 있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에게 유다왕국까지 정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23장까지 읽어두면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2장

22장: 1. 요시아는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시갓 출신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을 여디다라 하였다. 2.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3. 요시아 제십 팔 년에, 왕은 므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공보대신 사반을 야훼의 전으로 보내며 일렀다. 4. “대사제 힐키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 게서 받아 내어 5. 야훼의 전 공사감독들에게 주어 수리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6.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시오. 7.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요.” 8. 대사제 힐키야는 야훼의 전에서 법전을 찾았다고 하며 그 책을 공보대신 사반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은 9.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신하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은을 쏟아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고하였다.

10. 그리고 나서 공보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사제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11.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 12. 그리고는 대사제 힐키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불, 공보대신 사반과 시중 아시아에게 명하였다. 13. “이번에 찾아 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쭙어 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14. 대사제 힐키야와 아히감, 악불, 사반, 아시아는 여예언자 홀다를 찾아 갔다. 홀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요 디크와의 아들인 의상담당관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사가에 살고 있는 홀다에게 가서 용건을 말하자, 15. 홀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십시오. 16. ‘나 야훼가 선언한다. 유다 왕이 읽는 책에 적혀 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 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17.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의 속을 썩여 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같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18. 야훼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 들었다. 19. 이곳이 쑥밭이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 받으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므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들어 주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라, 어김이 없다. 20. 네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정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네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돌아 와 이 말을 어전에 아뢰었다.

교리 요약

- *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생존해 있기 위해서는 이해성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
- * 우리가 세상적인 사상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오도록 방지하면, 이기심은 우리의 마음속을 서서히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
- * 우리가 진실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 * 우리가 우리 속의 결점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진실로 고쳐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한다. 우리의 외부적 환경에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의 영혼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혼 곧 심정과 이해성을 진실로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배우며 언제나 그 뜻을 따르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주위의 환경에 관계없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의 “왕국”이 자주 분열된다는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왕국이 둘로 분열된 것과 같다. 우리의 심정은 선한 사람으로 있으려고 하나 우리의 이해성은 온갖 거짓 사상이 기어 다니도록 내버려 둘 때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대신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논리에 의해 규율되고 만다. 유다왕국 처럼 우리의 심정은 다윗의 계보에 충성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지속하지만, 우리의 이해성은 주님 대신 금송아지를 제단에 놓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 이야기 속에는 두 왕국 곧 남쪽의 유다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왕국이 세워졌다. 이 두 왕국이 각기 통치하는 것은 분리된 우리의 심정과 이해성을 상징한다.

본문은 두 왕국의 말기에 해당된다.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갔다. 그들의 적은 점차 강해져 갔고,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아시리아 왕국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 더욱이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했다. 간혹 그들을 “잃어버린 지파들”로 칭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도 그러한 언급이 있다.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훌쩍 빠져 버리는 때가 바로 “잃어버린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다.

심정은 이해성보다 오래 지속된다. 심정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의 선한 의도는 파괴되기 상당히 어렵다. 예루살렘과 주님의 성전은 유다왕국 안에 있으며, 여러 선한 왕들이 그 왕국을 통치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 왕이다. 요시아 왕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회개해서 재구성을 시도하여 과거의 상태로 회귀해 보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빠져 버린 나쁜 상태를 실감하게 되면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애쓴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면 노력한다. 요시아 왕 역시 그러했다. 우리는 요시아 왕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오용된 하느님의 성전을 수리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하느님의 법전이 언제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기 위해서 다시 성서로 되돌아간다. 우리 속에 요시아가 살아 있는 한 우리 심정속의 유다왕국은 지속된다. 즉, 우리가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고 진실로 발버둥 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틀어박혀진 나쁜 습관을 깨트려 버리기 쉽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나쁜 습관을 부숴내려면 그에 따르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거둢남에 있어서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요시아가 죽자 유다 왕국은 즉시 우상숭배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하여 유다왕국은 머지않아 바빌론 왕국에 의해 정복되고 만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혹은 행동하는 것들이 모여서 우리 속에 있는 하늘 왕국을 낳게 된다.

제 1반

성전의 수리와 수리 중 발견된 율법서 그리고 요시아 왕의 통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23장까지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요시아가 죽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정복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는 요시아 왕의 후계자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 계보의 왕들 중 선왕에 관한 것이다. 요시아는 솔로몬의 아들에 충성한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는데, 이 왕국을 유다라고 부른다.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된 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처음부터 악했으며,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 왕국의 모든 것들은 차차 더 사악해져서 유다왕국의 왕인 요시아 시대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다. 아시리아는 그 지역을 완벽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모두를 포로로 끌고 갔고 그 지역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켰다.

요시아 왕은 성전의 수리를 명령했는데, 수리 도중 성전에서 옛 모세의 법전이 발견되었다. 요시아는 법전의 내용을 듣고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법전을 낭독해 주었고,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면서

여로보암이 베텔에 세운 금송아지까지 헐어 냈다. 그리하여 유다 왕국은 다시 질서 안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과월절을 기념하도록 했는데, 과월절 축제는 유다 왕국에서 수십 년 만에 있는 큰 축제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의 땅에 살게 된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누구인가?
- * 유다왕국에서도 우상숭배가 번성했는가?
- *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선왕은 누구인가?
- * 그가 보좌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 * 그가 처음으로 행한 선한 일은 무엇인가?
- * 그들이 성전을 수리할 때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 * 과월절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기념했는가?
- *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제 2반

본 성경 공부는 열왕기하서를 마지막으로 하여 구약성서의 역사 이야기를 끝내고 시편과 예언서만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분단된 두 왕국의 이야기를 구약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하여 정리해 본다.

이스라엘 왕국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더욱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시게 됨으로서 그들의 구원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히즈키야왕이 유다왕국의 보좌에 있을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정복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은 동쪽의 땅으로 끌려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후 그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간 후 정착한 나라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했었는데, 이는 그들이 각기 다른 국가들로 분리되어 정착하며 흡수되어 주님께

대한 예배의 보존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 간 후 텅 빈 이스라엘의 영토에 외국인들을 끌고 와서 정착시켰다.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7장 24-29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복음서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며,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이라며 멸시받고 있었다.

유다왕국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모두 악하지는 않았지만, 유다왕국 내에도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상기시켜주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때때로 선왕이 등장하여 우상을 때려 부수며 백성들을 위해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도 했다. 그리고 한 때 유다 백성들은 정상으로 회복되기도 했다. 주님께서서는 유다왕국의 히즈키야왕이 선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 정복될 때에도 유다왕국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므나세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아버지인 히즈키야가 죽은 후 전 영토로 하여금 우상 숭배, 특히 비알을 숭배하도록 했다. 히즈키야왕은 다신교의 신전을 위해 높이 쌓이둔 산당들을 허물어 버렸다. 그러나 므나세는 “부왕 히즈키야가 허물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유다왕국의 역대 왕 중 가장 사악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성전 내에까지도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아몬도 그를 본받았지만,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아는 유다왕국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다.

신명기 31장 24-26절을 읽어보자. 이 부분의 말씀은 본문에서 발견된 법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모세의 법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당면하게 될 것들에 관한 경고로 가득하다. 므나세와 아몬이 나라 전역에 뿌려 놓은 죄악상을 생각하면서 법전의 낭독을 듣는 선하고 양심적인 요시아 왕의 심정을 각자 상상해보도록 하자.

요시아 왕의 조상인 히즈키야왕 역시 그의 시대에 평화를 약속 받은 적이 있다. 진실로 의를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면 돕는다. 요시아왕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 신실했다. 그는 모든 우상들, 특히 여로보암이 베텔에 세웠던 금송아지까지 파괴했다. 이 일은 히즈키야왕도 해내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의 역량만큼 행할 수 있는 특별히 선한 것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스스로 잘 파악하여서 기회가 되는데로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자의 역량에 맞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유용하게 되어서 주님의

역사에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유다왕국의 멸망은 요시아 왕에 의해 지연되었다. 요시아가 이집트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부왕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겨우 몇 년간 왕 노릇을 하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포로가 된 자들 중에서는 그들을 상기시켜 주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에제키엘과 다니엘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한지 7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귀환하도록 허용되었다.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주님의 강림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시아 왕은 몇 살에 왕위에 등극했는가?
- * 그가 행한 첫 번째 선한 업적은 무엇인가?
- * 성전을 수리할 때 대사제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요시아는 주님께 여쭙도록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 * 백성들이 받을 벌에 관해 홀다는 뭐라고 말했는가?
- * 그 여자는 요시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제 3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자신의 심정 안에 선의지가 살아 있게 하려면 먼저 이해성 속에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심정이 선한 자 혹은 흔히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언변에 쉽게 휘말리는 것을 예로 설명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이 악했던 반면 유다왕국에는 소수의 선왕들이 있었다. 앞서 우리는 유다가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해성적인 측면을 상징함과 우리가 사랑의 상태에 도달되어 있을 때는 솔로몬의 통치로 상징됨을 살펴보았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질 때에는 단번에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의 하락에 대한 최초의 징조는 마치 뱀이 수풀 속을 소리 없이 기어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추론이 우리의 이해성 속을 슬슬 기어 다니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의 선의지는 여전히 실재한다. 열왕기상 제 1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까지 성서의 이야기들은 분열된 왕국들의 하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성경에 있는 이 왕국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엮치락뒤치락하면서 열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이해성이 반대 방향으로 당겨져 가고 있다할지라도 이 둘은 사실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에 만연되어 있었던 우상 숭배가 유다 왕국 속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의 이기심은 우리 심정 속을 아주 조금씩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 이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 보자.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가 그 잘못된 행위가 주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면, “안 돼”라고 단호히 말하기 보다는 “글쎄”라고 응답함으로써 그 친구의 변론에 귀를 열어 두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친구가 권유하는 잘못된 행위를 즐기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찾게 된다. 즉, 우리는 단지 한 번의 경험삼아 본다는 추론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리는 당위성을 내세워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서 헤매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어 우리는 미몽에서 깨어나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것들이 결코 선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표준이 이미 우리에게서 아주 멀어져버린 상태이다. 이때에 우리는 마치 버스를 기다리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버스가 왔다가 떠나버린 것처럼 느끼게 된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구성 을 꾀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한다.

앞서 우리는 유다왕국의 왕 중에서 히즈키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는 유다 지역에 만연되어있는 우상들을 짓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세워 놓는 “산당”까지 부셔버렸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왕에 의해 정복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에 외국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살게 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상이 우리의 이해성을 완전히 채웠을 때를 표현한다. 물론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완전히 물들었다더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이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다왕국이 그래도 지속되었던 상황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안 깊은 곳의 선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의지를 방어해 줄 이해성 속에 남겨진 생각은 이제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자 유다왕국 역시 북쪽의 외세 침략에 의해서 극도로 약해져 많이 시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표현된다. 히즈키야 왕의 아들 므나쎄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부서버린 산당을 재건하도록 했고 모든 우상을 다시 세웠다. 심지어 그는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을 세웠다. 또한 그의 아들 아몬은 겨우 2년만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악했다.

이렇게 타락해 가는 유다왕국에 마지막 선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바로 아몬의 아들 요시아였다. 그는 8세에 왕이 되어서 장성할 때까지 대사제의 특별한 보호 하에 있었다. 요시아의 초기 시절에 관한 것은 제 11-1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마태복음 18장 1-3절도 읽어보도록 하자.

요시아의 첫 업적은 성전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 성전은 영적인 인격을 상징한다. 우리는 악한 심정상태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게 될 때 스스로의 심정을 순수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검증을 시작한다. 이와 같은 정직하고 겸손한 노력은 본문 4-7절에서 뚜렷이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요시아 왕의 노력의 첫 번째 결과는 “법전”의 재발견이었다. 이 법전은 계명과 더불어 다른 법도 포함되어 있는 모세의 책이었다. 이 법전의 발견은 우리가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에서 상당히 떨어졌음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을 의미한다.

요시아는 나라가 되어 가는 정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여 예언자인 홀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요시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은 백성들의 사악함이 피할 수 없는 처벌을 초래케 할 것이나 그의 즉위 기간 동안은 주님 앞에서 보여준 그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파멸은 면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23장은 요시아가 어떻게 모든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으며 성전을 깨끗케 하고 과거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상까지 파괴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후 그는 과원절을 기념했는데, 이 축제는 과거 많은 세월동안 있어 온 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축제였다. 하지만 요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그 땅에 범람하는 악의 물결을 잠잠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 23장 29절을 보면, 요시아가 통치 31년째에 유프라테스로 올라가려는 이집트 왕을 맞아서 자신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것을 막고자 했으나 그 싸움에서 전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 왕이란 언제나 자연적인 지식에 의존하려는 원리를 상징함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성을 세상적인 것에 다 주게 되면, 우리는 그 원리에 대면하여 똑바로 설 수 없게 된다. 이집트왕은 유다왕국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집트왕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이집트로 끌고 갔고, 다른 왕의 아들인 엘리야킴, 후에 여호아킴이라 불린 사람을 왕으로 옹립해 공물을 바치게 했다. 여호아킴의 통치기간 동안 바빌론 왕은 이집트 왕보다 더욱 강해져서 유다로부터 공물을 취해갔다. 여호아킴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그 후 얼마 뒤 예루살렘과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극빈자를 제외한 유다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서 결국 유다왕국은 멸망된 것이다. 바빌론이란 “자아욕에서 나오는 지배욕”을 표현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스스로가 모든 이로부터 존경 받아야 할 인물로 느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주 뿌리 깊은 악이며 늘 경계해야 할 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평가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자면, 섬기는 자의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점점 강해져 지배욕이 되는 것이다. 한 인격의 몰락 과정에 있어서의 아시리아는 거짓추론을 표현하는 바, 이 추론이 처음에는 우리 이해성을 포로화 시키면서 이해성 속에 있는 진리의 보루(성벽)를 헐어 낸다. 그 다음 이기적인 사랑과 한 계열인 지배욕이라는 악이 우리의 심정을 약탈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아시리아왕에게 이스라엘(이해성)이 붕괴되고 바빌론왕(지배욕)이 유다(심정)를 침공하는 사건에 담긴 의미이다. 유다왕국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간 지 70년 후 백성들에게 귀환이 허용되었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복원되었다. 그들이 귀환된 이유는 400여년 후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대신 아시리아왕이 강제로 그 지역에 이주시킨 외국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임을 기억해 두자.

기본 상용 공부

아시리아(나쁜 의미에서) = 거짓 추론

제 4반

이스라엘 왕국의 붕괴 후 머지않아 함락되고 마는 유다왕국의 모습으로부터 세상적인 추론을 자신에게 허용한 후 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

유다왕국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왕국의 몇몇 왕들의 이야기이다. 즉 아사, 여호사밧, 요시아, 아마지야, 우찌야, 요담 그리고 히즈키야 왕의 용감한 노력으로 유다왕국을 잠식하고 있었던 악의 가지들을 내려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솔로몬 왕국의 분열은 거듭나는 상태에 도달된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악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하면 이해성에 들어오려는 거짓 사상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성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건립되었고, 금송아지들을 베넬과 단에 세운 후 더욱 나쁜 상태로 전락하여 급기야 히즈키야 왕의 시대에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 왕국으로 끌려가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맞서려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휩쓰는 자연주의적인 논쟁을 용납함을 표현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영토에는 외국인들이 강제 이주되어 그 자리를 메웠다. 열왕기하 17장 24-41절을 보면, 이때 이주된 외국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이주되자마자 사자들에게 의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시리아왕은 포로들 중 사제 한 명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신을 모시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41절에는 “이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아훼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저희의 우상들도 섬겼다.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날까지 선조들의 풍습을 그대로 지켜 내려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들의 후손이 바로 복음서에서 가끔 거론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특히 요한복음 4장 6-26절을 보면, 그들이 그때까지도 신을 예배함에 있어서 혼동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약 성서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사백 여 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경멸하였다.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한쪽 귀는 자연주의만으로 추론하는 이들의 광적인 목소리에 귀를 열어두는 교인들의 혼란스런 상태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의 선의지는 우리속의 생각보다 더 끈질긴 데가 있다. 그래서 유다왕국(심정)을 아시리아(추론, 생각)가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국으로서는 북쪽의 방어벽 역할을 해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자 더 이상 외세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는 우리의 이해성이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심정이 이기심이라는 악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악을 허용하면서 회개와 재구성의 때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유다왕국의 선한 왕들도 적들로부터 보호와 스스로의 보전을 위해서

성전내의 금과 은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우리는 히즈키야 왕을 공부하면서 그가 친구인 체 방문한 바빌론의 사절단을 환대하여 성전의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하여 그로 인해 유다가 장차 바빌론에 끌려가게 될 것임을 왕에게 경고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지성이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적들이 우리 속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영적인 적들을 식별해 낼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명백하고 신속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므나쎄와 아몬은 히즈키야의 아들과 손자로 사악한 왕들이어서 과거 히즈키야가 부셔 버린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성전 내에도 우상을 세웠다. 그 뒤 유다를 보전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아몬의 아들 요시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요시아가 아이인데도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즉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상기하도록 해준다. 요시아의 첫 관심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성전이 거듭나는 인격을 그린다는 상상을 생각해 보면, 악한 왕들이 성전을 황폐케 하도록 방치했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 보수비용은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헌납으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일꾼들이 정직하게 일하여서 계산서를 검사할 필요도 없었고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자신속의 결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고치려고 정말로 신실하게 애쓴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모두 감수해 낸다는 것이다.

대사제가 율법 책을 발견했다. 남용되어 이수라장이 되어버린 성전 안에서 율법 책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심정 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기어 다니도록 허용한 후 과거 자신이 수용했던 삶의 표준이 자신 속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그 예로 한 때 높은 이상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시도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는 사회에 뛰어 들어 사업을 하면서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한 경쟁들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선의의 경쟁은 점점 멀어져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많은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뒤 어느 날 갑자기 “흠치지 말라”는 계명의 구절이 그의 귀가에 속삭일 때 그의 마음에 여전히 신실함이 남아 있다면, 그는 본문에서 요시아가 율법책의 낭독하는 소리를 듣는 때처럼 자신이 행한 많은 사건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빼뺏어졌는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였던 악한 변명을 요시아가 옷을 찢었듯이 갈기갈기 찢게 될 것이다.

요시아는 옷을 찢은 뒤 장차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주님께 여쭙어보았다. 그때 예언자 홀다는

백성들의 빼놓아진 결과는 비켜갈 수 없지만 왕인 요시아만큼은 주님 앞에 겸손하여 그의 생전에는 나라가 함락되지 않을 것이며 그를 평안히 죽도록 해주겠노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고 전했다. 그 후 요시아는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며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을 헐어 내렸으며, 점쟁이나 무당들을 쫓아내고 과거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마저 쓸어 버렸다. 그러나 악이 이미 백성들 속에 너무나 깊이 숨어들었던 차라 요시아의 혁신적인 행사들조차도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쾌락을 줄 것 같은 일이나 행위를 단 하루만 하고 금할 수 있는 척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행위는 작은 것이라도 그날 있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몸체의 일부를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육신이 죽을 때까지 쌓여져 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을 올바르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쁜 습관은 단번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며 이미 굳어진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 23장 29절에는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집트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출동하였다. 그러나 요시아는 므기또에서 파라오 느고와 접전하자마자 전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사무엘과 열왕기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집트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었다. 이집트는 지성의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하고 있다. 이 자연적인 평면은 우리의 나쁜 습관이 고질화되어 있는 곳이다. 요시아는 그의 나라를 이집트가 가로지르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전사했다. 므기또란 지역은 에스드랄론 평야에 있는 한 성읍인데, 이 평야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있어 왔다. 스웨덴본은 므기또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하르마게돈이라는 지역의 이름처럼 타인을 좌지우지하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그린다고 말한다. 이러한 욕망은 인격의 가장 큰 파괴자이다. 요시아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왕국은 바빌론에 정복되었다. 바빌론이란 “자아 사랑에서 나오는 지배욕”을 표현한다. 우리는 겸손만이 영적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마음 바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 유다왕국에 가져온 결과와 그 의미를 주로 공부한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쌓이고 쌓인 죄를 벗길 자격이 요시아에게 없었음도 강조한다.

앞서 우리는 히즈키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그가 선왕이었다는 것, 그의 병과 치료, 예언자 이사야와의 대화 그리고 바빌론 사절단에게 왕국의 보물을 보여주는 우쭐댐으로 드러났던 그의 약점 등에 관한 것이다. 므나쎄와 아몬은 히즈키야의 아들과 손자였지만 악한 왕들이 되어서 바알의 우상과 제단을 다시 세웠고 성전 내에까지도 우상을 세웠다. 아몬은 2년 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그의 집에서 그의 부하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

요시아는 겨우 여덟 살 때 왕위에 올랐다. 역대기하서 34장 33절에는 “왕위에 오른 지 팔 년째 되던 해 아직 나이 어린 몸으로 그는 태조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여 십 이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치워 없애 버리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가 통치 십팔 년째에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이다. 요시아 왕 외의 선한 왕들도 성전을 깨끗이 하고 보수했지만, 우상숭배가 다시 일어설 때 성전은 이내 오염되고 황폐해지고 말았다. 성전이란 우리 삶의 질에 대한 상징이다. 다시 말해서, 심정과 이해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되어지는 진정한 천국적인 인격 곧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의 법을 속속들이 행할 때의 인격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 즉 다른 동기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를 제치고 우리 삶을 통치하도록 허용될 때 우리 안의 천국적인 인격은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성전의 벽 곧 우리 인격의 벽을 형성했던 진리들은 헐어 내려지고 온갖 종류의 무가치한 사상들이 헐어진 벽을 넘어와 우리 속 성전을 기어 다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폭 빠져든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정신 차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 해주는 단 한 조각의 진리라도 정성스럽게 수집해야 한다. 이는 본문 4절의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게서”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오.”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자량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기쁘고 성실하게 해내야 한다는 말이다.

성전이 보수되는 동안 율법 책이 발견되었다. 이 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율법이 완성된 때부터 궤 옆에 놓여 있었던 모세 오경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책에 포함된 두루마리였을 것이다(신명기 31:24-26). 그러나 소중히 보관되어야 할 이 책들은 잘못 놓여져 있었고 사람들의 너리에서 사라져 잡동사니에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깨끗하게 보수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율법 책”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만이 선한 삶을 영위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즉,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삶이 천국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전율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은 우리가 배웠던 진리들이 “잃어버린 진리가 되어 있어서 심히 통곡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배운 진리들 중 삶에 응용하지 않는 진리들은 잃어버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요시아는 과거의 히즈키야보다 더 철저히 개혁을 단행했다. 즉, 그는 우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상수리나무와 산당 계다가 과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 놓은 우상들과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까지 철거하여 여로보암의 시대 때 그 제단에 관한 예언을 성취시켰다(열왕기상 13:1-2).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허문 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만으로도 삶의 발전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상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부서지게 됨을 뜻한다.

요시아는 발견된 율법 책이 들려주는 저주에 벌벌 떨었다. 그 이유는 그의 나라와 백성들이 추구했어야 할 진정한 길과 주님을 포기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신명기 28:15-68). 그는 여예언자 홀다에게 그의 나라가 장차 어찌될 것인가를 물어 보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예언은 성취될 것이나 요시아가 겸손하고 의로웠으므로 그의 시대에는 나라가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피할 수 없기를 원한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결코 그 결과를 비켜갈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잘못된 결과 속에서도 순수하고 겸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과응보에 따른 다는 것이다. 이런 교훈은 히즈키야나 요시아 왕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악의 결과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악들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더 나은 것을 행하고 최소한의 천국적인 인격을 만들려는 노력의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던 시절의 우리로 환원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잘못된 결과에서 과거의 자신에게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요시아와 같이 과감히 개혁을 시도한 왕도 백성들을 그들의 죄 속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의 악의 결과가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사항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차후에 올바른 행위를 이루기가 더욱 힘들어짐을 늘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는 요시아가 들은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법이 적힌 책에 의해 판결된다.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그 책들을 겸손한 자세로 읽고, 자신이 얼마나 그곳에서 멀어졌는가를 인식하며 자신을 채찍질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속을

깨끗이 하고 인격속의 파괴된 부분을 보수해야 할 것이다.

요시아는 성전의 정화와 보수의 최정점으로 과월절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과월절은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으로써 우리가 악과 거짓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이 백성들에게는 매해 지정된 날에 그 절기를 준수하도록 엄히 명령되어 있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는 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해주는 능력과 이에 따라오게 되는 평화와 기쁨을 되새기는 경험을 정규적으로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본문의 백성들은 주님을 포기한 지 오래되어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역시 소홀히 여겨졌고, 요시아의 시대와 같은 개혁의 시기에만 간간히 지켜졌을 뿐이다. 사실 우리들의 경우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자만심의 상태에서 근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빛진 자임을 실감하는 경험으로부터는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회에서는 과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성만찬은 요시아의 개혁이 상징하는 자기 검증과 회개라는 작업에 해당된다.

히브리국가의 종말은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의 일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교회의 표징이 되었던 고대 히브리국가가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집트가 유다왕국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출동했을 때 요시아가 죽었다는 대목을 접하게 된다(열왕기하 23:29). 이는 오랜 습관으로 이해성의 자연적인 평면상에 고착된 악들은 원상태로 돌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나라의 왕위는 요시아의 아들인 요하네하즈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그는 불과 석 달만 통치한 후 이집트 왕에 의해 밀려나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집트 왕은 다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קים을 내세워 공물을 바치는 일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 여호야קים 때에 바빌론의 유다 침공이 시작되었는데, 여호야קים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를 계승했다. 여호야킨과 왕궁내의 대부분 사람들도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운 사람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시드키야로 개명되고 말았다. 그리고 시드키야가 반역하자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이들을 끌고 가되 극빈자만 남겨두어 땅을 경작하도록 했다. 포로가 된지 칠십 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흡수했을 때, “주님께서 고레스의 심정을 흔들어서” 포로가 된 백성에게 귀환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 후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어 거룩한 땅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7항: “ ‘하르마케돈’이란 명예 받기를 사랑함과 남을 지배함 그리고 명성을 얻기를 사랑함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전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애통이 뒤 따르는 것이다. 뜨기또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질문 정리

- 1) 두 왕국 중 어느 왕국이 다윗의 계보를 따랐는가?
- 2)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 왕처럼 한결같이 악했는가?
- 3) 오늘 본문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는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가?
- 5) 그의 치적의 첫 사업은 무엇인가?
- 6) 그는 성전 수리 내용을 어떻게 지불했는가?
- 7) 성전을 수리할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 8) 그 책이 요시아에게 읽혀졌을 때 그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께 여쭙 보도록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 10) 홀다는 뭐라고 말했는가?
- 11) 요시아는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가?
- 12)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도 건드리지 못한 어떤 것을 요시아 왕이 철거했는가?
- 13) 나라에 질서가 잡히자 그는 어떤 축제를 기념했는가?
- 14) 요시아는 어떻게 죽었는가?
- 15) 그가 죽은 뒤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6)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왕국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성전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유다왕국에서 가끔 선한 왕들이 즉위했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이스라엘이 망하자 유다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유다 2) 아니다 3) 요시아 4) 8 5) 성전수리 6) 백성의 현금으로 7) 율법책
- 8) 옷을 찢었다 9) 여 예언자 홀다 10)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요시아 시대에는 그 벌이 없으리라 11) 우상과 제단, 산당을 철거했다 12)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 13) 과월절
- 14)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15) 바빌론에 정복당함 16) 이스라엘 - 지성, 생각 유다 - 심정, 느낌 17) 우리의 인격 18) 심정이 재구성과 회개의 때를 가끔 가지게 됨
- 19) 생각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포로가 될 때, 심정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없다

21

주님께 의지하는 자

머리말

성경에서 시편은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놓여 있다. 시편을 공부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늘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책이다.

성서 본문 : 시편 91편

1.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2. 야훼께서 네 피난처시요 네 요새이시며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3.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어
4.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5.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말아라.
6. 밤중에 퍼지는 열병도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도 두려워 말아라.

7. 네 왼쪽에 천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 천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8. 오직 눈을 뜨고 보기만 하여라.
악인의 죄 값을 내가 보리라.
9. 야훼를 너의 피난처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요새로 삼았으니
10.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네 집을 가까이 못하리라.
11.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였으니,
12.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13.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새끼와 구리뱀을 짓이기리라.
14.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 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 주리라.
15.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 주고 높여 주리라.
16.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교리 요약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신다.
- * 시편서는 새교회의 정경에 속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누군가의 마음이 이타적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세계에 사는 동안도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한다. 이는 그 책이 노래로서 우리의 심정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시편이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시어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약한 면을 넘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그분의 절대적 필요성을 표현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제이무리 완고한 물질주의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큰 위험을 겪는 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심정의 깊은 곳에 늘 하느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함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고 자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특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란 바로 주님을 아는 능력 곧 그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그분께로부터 비롯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를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본문의 시편 91편에서도 여느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편 64편에서 사악한 자들에 관한 “칼처럼 혀를 버리고, 화살처럼 시위에 독설을 메겨.”라는 구절을 읽게 된다. 진실로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들은 거짓된 생각과 우리의 선의지를 갉아먹는 우리 안의 이기적인 바램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며, 그 시험 중의 어떤 것은 마치 밤중에 퍼지는 염병과 같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직면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아무런 선전 포고 없이 당하고 치러야 하는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험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이닥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시험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꺼이 시험에 대항하려고 들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모든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수호천사들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잘 치려진 밥상에서 어떤 것을 먹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배운 대로 순종한다면, 본문의 시편에 있는 구구 절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그분께서 약속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의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제 1반

시편은 교회에서 예배의 찬송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다른 찬송가와와는 다르게 불려진다. 우리가 시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시편들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윗 왕을 기억해 보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으로 궤를 모셨고, 그때 궤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다. 즉, 다윗은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예술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윗은 한때 사울의 궁중악사로서 사울에게 악령이 덮칠 때마다 하프를 켜으로써 그를 안정시켜주기도 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받아쓰도록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왜냐하면 시편은 곧 노래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사람들은 그들의 예배시간에 시편들을 주님께 드리는 노래로 사용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역시 시편을 예배시간에 자주 사용해 왔다. 우리가 주님께 관해 생각할 때 혹은 우리가 곤란을 당하여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시편들을 읊어 보거나 노래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시편의 말씀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본문의 시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배워 가르쳐진 대로 행한다면 어떤 것에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즉, 우리의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천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그분에 대해 배우려 하고 그분이 보여주는 옳은 것을 행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시편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이 책에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제 2반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증을 3반과 4반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문은 시편으로 노래이다. 개역 성서에서는 시편이 다른 책들과 거의 같게 인쇄되어서 노래나 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나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시편이 시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편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이 다른 찬송가들처럼 운율로 쓰여 있지 않아서 영창이라는 특수한 음악을 통해서 시편을 노래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시편들을 성전 예배에서 노래했다. 물론 그들의 노래 방법도 영창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시편 찬양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성가대도 있었다. 사실상 레위지파의 몇몇 집안들은 이 찬양의 의무를 대대로 물려주었다. 따라서 그들의 성가는 매우 유명했다. 이에 대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관해 쓰인 시편 중의 하나로 알 수 있다. 137편과 126편을 읽어보자. 이 시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고향으로 귀환해도 좋다고 허용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노래했는가를 알도록 해준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시편을 노래로 불러와서 그 노래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자신들의 노래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시편서를 그들의 성서로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 왕에 의해 쓰였음을 기억한다. 그는 노련한 하프 연주자였고, 예술가 이면서 전쟁의 용사였다(사무엘상 16:14-23).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1-2절에서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라는 기록을 보게 된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단지 자신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 말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편서가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복음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누가복음 24:44)”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시편은 주님께서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가져야 하는 느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인 책인 것이다.

본문은 주님을 의지함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기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 안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어졌을 뿐이다. 즉, 우리의 육체란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벗어 던져져야 할 것, 즉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면 벗어져야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닥치는 여러 일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물론 건강한 육체를 간직해야만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진정한 “나”이며, 그것은 영원불멸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랑과 미움, 신뢰와 두려움 또는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하는 주체도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육체는 단지 우리 영혼의 수단이 되어서 행동해줄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이모저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배우려고 하며 그분께 가까이 있고자 하는 사람은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질병, 가난, 실망 또는 사별 등의 어떤 것이 발생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것은 영혼에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견디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불평하는 대신 여유 있게 살아내는 용감한 이들을 칭찬하고 존경한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 역시 노력하면 모두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나쁜 것들은 우리가 지성과 심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느낌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들은 우리를 해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즉 그분이 언제나 슬기로우시며 올바르심을 인지하게 되어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의 천사들은 잘못된 생각과 느낌이 우리 안에 들어 올 때마다 그것들을 밀어 내려는 싸움을 돕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나쁜 것들은 지옥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과 천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는 우리가 아닌 주님이시고 천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차 공부하면서 영혼 속의 다양한 적들의 실태를 더욱 관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적들에 대적해가면 우리에게 늘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의 구절들을 가능한 많이 외워서 시험이 닥칠 때마다 그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본문 4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그분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과 같고, 우리의 무기는 말씀 곧 주님의 진리인 것이다.

제 3반

우리가 직면하는 몇 가지 위험들에 대한 상응을 공부한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각자의 위험들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읽어 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시편들은 노래들로서 성전에서의 예배에서 찬양으로 많이 쓰였으며 다른 때에도 많이 불려졌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거룩한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시편을 거론하셔서 시편이 그분에 관해 가르치고 있음을 언급하셨다(누가복음 24:44). 그리고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서 우리를 위해 시편의 내적 의미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본문은 시편 91편이다.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즐겨 암송하며, 그들 중 일부는 암송하는 이상의 것도 알고 있다. 이 시편은 배워두면 아주 유익한데, 이는 주님과 천사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해치게 될 것이 정녕 아무것도 없음을 거듭하여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 쓸데없이 많은 일을 두려워하거나 곤경에 처하여 걱정에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허다하다.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헤쳐 나가려고 한다면, 근심과 두려움 등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혼자 아니며 우리 가까이에 늘 주님과 그분의 천사가 있어서 우리를 도울 채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닥쳐오는 곤경에 용감히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언제나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위험들의 속성과 주님께서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시는가를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다는 것이다. 제 5절과 6절에서 위험은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즉, 낮에 오는 것과 밤에 오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빛이 있는 낮이란 우리가 사물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상태를 상징하며, 잘 보이지 않는 밤이란 무지한 상태를 상징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위험한 것이 악과 거짓임을 익히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조금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심정 속을 기어 다니는 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것을 몰라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거짓 사상들도 즉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밤중에 퍼지는 염병”이며,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이다. 그 다음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부동켜안고 있는 못된 바램, 즉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즐거워하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다. 또한 우리는 뻔히 아는 어떤 거짓을 우리의 이해성 안에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핑계나 구실을 만들어 그것을 옹호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한마디로 거짓을 우겨대는 모습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이며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다. 주님께서는 악과 거짓의 다양한 양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그분께 가까이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즉, 말씀에서 얻은 진리가 악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제 13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악의 권세는 사자와 사자 새끼로, 거짓의 권세는 독사와 구리뱀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구절은 우리 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속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 놓는지 또는 우리 속에 거짓 사상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이해성 안에 어떤 독을 퍼트리게 되는지를 각자의 경험을 통해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제 3절의 “죽을 병” 역시 우리 안의 진리를 갈아먹어 치우는 악이며, “사냥하는 자의 덫”이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짓들을 의미한다.

이제 제 11절과 12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분은 “수호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호천사가 보호하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글자대로 암송하되 이 구절 속의 돌이 “진리의 거짓됨”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구절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돌이란 진리를 의미하지만, 이 구절에서의 돌은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돌, 즉 걸어가는데 발의 힘보다 더 힘센 돌인 뿌리가 있는 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돌은 진리가 거짓이 된 곧 뿌리가 있는 거짓화된 진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마태복음 4장 5-7절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세 번 받으신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의 악마는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인용하여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는 상황이 바로 “진리의 왜곡”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뿌리 있는 진리 곧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주님은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꾸하셨다. 우리는 간혹 주위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켜서 그들의 인내심의 정도를 시험한다고 느끼는 경우를 듣게 된다.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이기적인 방법으로 일을 벌려도 전혀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여기며 일을 벌려 나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시편의 모든 약속이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의 육체와 상관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그분께 접촉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만 해당된다. 우리의 육체는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곳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우리의 영혼이 속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영혼이 거처할 곳을 선택해가고 있다. 우리가 자신을 이기적으로 되도록 방치하고 자신만의 방법이나 길에만 몰두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을 찾자 성경을 뒤적거리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거처를 두게 된다. 그 이유는 이기심이나 거짓된 추론들이 바로 지옥의 삶이며 그곳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방법 곧 섭리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로 그들의 고충을 찾으며 그들의 영혼이 행복해 지도록 노력해 간다면, 우리 영혼의 거처는 당연히 천국에 있게 된다.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재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한마디로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복음서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실 수 있게 된다.

본문의 시편은 장수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히브리 원전에서는 “오래 살 수 있게 함”이 “낮들의 길이”로 말해지고 있다. 즉, 낮이 표현하는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시편의 마무리 부분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나는 대낮처럼 흰히 그 사건을 알고 있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낮은 밝히 앎 또는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밝히 아는 상태가 마음껏 길어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므로, 이는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 * 낮 = 이해하는 상태
- * 밤 = 무지의 상태
- * 갑옷, 방패 = 거짓에서의 보호
- * 돌 = 진리 혹은 거짓

제 4반

말씀과 그에 관련된 서적들을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는 기회를 가져본다. 이와 더불어 기도하는 습관과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갖추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안전해 질 수 있음도 확신한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끝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교회를 표현했던 유대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교회를 표현했다. 그들이 오래 전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법과 규례를 잘 준수했다더라면, 주님께서는 아마 그들의 예식 속에 담겨있던 상응을 통해서 천국과 인간과의 연결을 유지시켜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주님의 법을 준수하기를 중단했고,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 대부분이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고,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때까지 그들의 역사는 말씀에 수록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2절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바는 주님 앞에 겸손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땅에 남겨졌다는 것이며 그들이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예식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시편은 다른 성경책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 책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언급하셨듯이 말씀의 한 부분이다. 스웨덴북은 「예언서와 시편」이란 그의 저서에서 그 책들의 내적 의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대해서는 제 5번에 첨가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스웨덴북은 그의 방대한 저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편의 많은 구절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본문의 구절들의 경우는 그의 저서들에서 22번이나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인용된 구절들의 영적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다. 시편서는 그 내용 자체로 보면 유대인의 역사나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노래 책이며, 노래란 감정의 표현이다. 이것은 시편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이며, 우리 기억에 쉽게 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느낌을 말해주는 것들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시편을 본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거처가신 여러 상태들의 표현이다.

우선 시편 91편은 꼭 배워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바깥쪽 삶에서 실망, 질병에 의한 고통 혹은 사별과 같은 수많은 곤란을 겪는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홀로 대면한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은데, 바로 이럴 때 시편을 읽고 시편의 진정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자 언제나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는 우리가 겪게 되는 바깥쪽 삶의 위험이나 곤경으로부터 언제나 우리를 구해주시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보고 인식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는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하여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편 91편에 언급된 위험들이란 영적인 위험들 곧 지옥에서 오는 악과 거짓에 의한 위험들이 다. 우리는 그 위험들 중 어떤 것은 미처 눈치 채지도 못하고 당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그 위험들이 바로 우리를 밤중에 덮치는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의 위험들은 우리가 명백히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그 안의 달콤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당하게 되는 위험들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러한 위험들은 낮에 닥쳐오는 것들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있다면, 즉 우리의 아주 깊은 심정이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애쓰며 그분의 안내를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낮의 위험이든 밤의 위험이든 상관없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으시다.

본문의 시편은 주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이상의 것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것 역시 정신적인 노력에 관한 일이다. 즉,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분의 진리가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말씀 속에서 날개란 영적인 진리들을 상징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진리와 깊은 진리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공부에 참석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리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실로 얻어야 할 진리의 양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며, 주님의 재림에서 밝혀 주신 영적 의미가 담긴 스웨덴북의 저서들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4096항에서는 “말씀 속에 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기억 속에 담아 지고, 그 담아진 기억 속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 기쁨을 지각하는 마음을 가진 자 뿐이다”라고 설명된다. 이와 더불어 “사랑과 이타애 속에 있는 선은 주님께에서 흘러들어 오는데, 그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는 천사들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우리가 담아놓은 지식들 외의 다른 것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설명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오늘날의 우리는 아득한 옛날 태고 교회인들이 가졌었던 방법인 지각을 통해서 진리를 습득하지 못하고, 마치 짙은 구름 속의 물방울을 통과하여 나오는 햇빛이 무지개를 형성시키듯이 외부 경로를 수단으로 하여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온 지식들을 통해서만 진리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스웨덴북이 거듭 강조하는 “선은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늘 되새겨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지 간에 “나는 배울 것을 다 배웠어” 혹은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이면 남들에게 뒤떨어지지는 않을걸.”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며 스스로가 완성의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말씀 속의 의미를 날마다 더 새겨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그 이유는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제 5반

본문에 수록된 위험들의 영적 의미와 더불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다른 사항들도 살펴본다. 특별히 약속에 대해서 살펴본다. 약속이란 본질적으로 영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받아 사용하는 분명한 조건하에 약속이 성립된다는 것 그리고 정신적인 나태함은 우리의 선의지에 거짓말을 주게 됨을 설명한다.

시편이 예배에 애용되어 온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시편은 노래들로서 음악은 우리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편은 주님의 영감이 담겨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스스로 잘 찾지 못하는 우리 속의 깊은 느낌이나 생각 곧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편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한다는 것, 즉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가장 큰 특전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시편은 가장 깊은 의미상으로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통과해 가신 많은 내적인 상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시편은 모든 거듭나는 인격의 영적인 상태들을 상응을 통해서 보여준다.

시편서는 의로운 자와 무신론자간의 대비로 시작된다. 의로운 자가 그의 주변에 항상 붙어 다니다시피 하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습격당할 때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시편 제1편에서 강조된다. 시편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편이 표현하는 것은 주님을 당당하게 찬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스스로 체험한 결과이다.

시편 91편은 시편들 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암송 되어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으로 인해서 긍지와 위로를 얻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시편을 읽으면 주님과 천사가 자신에게 가까이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에 이 시편이 중점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우리가 질병이나 사별 같은 것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결론짓는 경우가 많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탓에 치료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5-7절에서 악마가 본문의 시편(12절)을 인용해서 주님을 시험하려는 것을 읽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악마에게 주신 답에서 그분께서 이 시편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암시해 주고 계심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새교회의 교리는 말씀의 모든 구절들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위험들이란 모두 영적인 위험들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체에 오게 되는 고통들을 허용하신다.

스웨덴북은 예언서와 시편의 내적 의미를 요약하면서 주님의 영화하시는 과정의 상태와 관련지어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절: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찬양하여 노래함.
- 2-6절: 이렇게 하여 적의 공격에서 보호가 있어 진다.
- 7-9절: 이리므로 지옥의 출현이 없게 될 것이다.
- 10절: 교회를 공격하는 지옥의 출현도 없게 될 것이다.
- 11-12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분을 섬기게 된다.

13-16절: 신성이 인성과 하나를 이루면 지옥의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못한다.

사실 위의 요약으로 우리 삶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스웨덴봄은 이 시편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얼마간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편은 그의 저서 곳곳에 무려 22번이나 인용되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보충되어 진다. 예를 들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는 우리가 이미 아는 진리로 덮어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과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이란 지옥으로부터 있는 악과 거짓들이라는 의미이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란 공개적으로 가르쳐진 거짓(논쟁)이며, 이로 인해 선이 파괴되어 짐을 의미한다.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이란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악들로 인해 진리가 파괴됨을 의미하며, ‘밤중에 퍼지는 염병’이란 우리도 모르게 황폐해지게 하는 악을 뜻한다. ‘한낮에 쏘다니는 재앙’은 드러난 채로, 즉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황폐를 자초하게 하는 악들을 말한다. 교회 속의 진리들을 황폐하게 하는 모든 거짓들을 파괴함이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로 표현되고 있고, 교회 속의 선을 황폐케 하는 모든 거짓들을 파괴함이 ‘사자새끼와 뱀을 짓이기리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는 시험이 날마다 연속된다는 것과 이러한 시험들이 지옥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험들 중 일부를 진정한 인격으로 거둬내는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낮에” 또는 “한낮에” 오게 된다고 하는 위험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지 못해 즉시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시험들도 있다. 이것들이 “밤에” 또는 “한밤중에”오는 위험들이다. 설령 우리가 선한 인격이 되겠다고 수십 번 스스로 다짐했는지라도, 우리는 금방 “낮에”오는 시험에 걸려들고 만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의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의 가죽을 덮어 쓴 늑대같이 변장하고 달려드는 악과 거짓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문의 시편은 주님의 도움이 언제나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것도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고집대로 벌려 놓은 일이 곤란을 초래했을 때 주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삭빠르게 상상하는 것은 꿈속에서나 이루어질법한 소원사항이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얻기 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본 시편의 구절구절을 진심으로 받아 읽을 사람의 거처가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주님의 거처는 우리가 우리 안의 자연적인 생각이나 경향성에 따라 살게 될 때는 절대로

거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가 죽을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여 신뢰하는 날개란 영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이 진리가 우리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그분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열어 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안전과 보호라는 단어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4096항에는 “사랑과 이타에 속에 있는 선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든다. 이 흘러들은 인간과 함께 하는 천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그 천사는 우리의 지식들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 보겠다고 할 때 선한 양심이나 의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 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삶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선의 힘이 진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스웨덴북은 “선은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즉,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 우리 속에 든 선의지의 품질이 결정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7102-10항: “여기서 ‘밤에의 놀람’이란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거짓이고, ‘낮에 흐르는 화살’이란 이미 드러나 있는 거짓이다. ‘흑암 중에 기어 다니는 염병’이란 아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거짓을 의미하며,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거짓을 말한다.”

「천국의 신비」 제 7505항: “ ‘극한 염병’이란 일반적으로 완전히 소진됨을 뜻하는데, 이는 염병에 의해서 진리가 황폐해짐을 말해 줌으로써 명백해진다[시편 91:5-6]. ‘흑암 중에 기어 다니는 염병’이란 은밀한 가운데 황폐해지게 하는 악을 의미하며,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란 드러내놓고 황폐화시키는 악들을 말한다.”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공부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시편은 무엇인가?
- 3) 우리는 시편서가 영감된 하느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 4) 왜 모든 이는 시편을 사랑하는가?
- 5) 주님께서는 시편 91편에서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 6) 본 시편은 위험을 어떻게 둘로 분류했는가?
- 7)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해당되는 위험을 말씀하고 계신가?
- 8) 주님께서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갑옷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9) 그분은 천사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 10)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를 돕도록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11) 낮에 있는 위험과 밤에 있는 위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시편 2) 노래 3) 누가복음 24:44 4) 심정에 호소하므로
- 5) 보호 6) 밤과 낮 7) 아니다 8)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
- 9) 우리를 돌볼 것이다 10) 나쁜 생각과 느낌에 대해 사용
- 11) 낮 - 결과를 예상하면서 있어진 악
밤 -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진 잘못

22

성전에서 솟는 샘

머리말

에제키엘서를 중심으로 하여 대 예언서의 일반적 요점을 소개한다.

성 서 본 문 : 에제키엘 47장 1-12절

47장: 1.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리어 성전 정문으로 가 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계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뺀 선을 타고 흘러 내려갔다. 2. 나는 그분에게 이끌리어 북문을 나가 바깥길로 해서 바깥 동문께로 돌아 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3. 그분이 측량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 4.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 찼다. 5.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 척 되는 곳에 이르러 보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6.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7. 되돌아와 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8.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 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9.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들어 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10.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의 그것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네그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 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11. 그러나 수령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12.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교리 요약

- * 모든 진리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 * 말씀은 깊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되 말씀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
- * 선한 일 안에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은 예제키엘서인데, 이는 대 예언서들 중의 하나이다. 대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로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대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12권의 소 예언서보다 부피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히즈키야왕 시대에 유다에서 살았다. 예레미야 역시 유다에서 살았는데, 그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 포로가 되기 얼마 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다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화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아 있던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을 계속했다. 그리고 예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고 포로들 가운데서 예언을 했다.

본문인 예제키엘 47장 1-12절의 내용은 예제키엘이 25년간의 포로생활 중에 가졌던 긴 환상중의 일부로서 그의 마지막 환상이기도 하다. 그는 환상 중에 천사에 의해서 거룩한 땅으로 데려가졌고 성전 이곳저곳으로 인도되었다. 이후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강에 관한 환상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강이란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 이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욱 배워가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를 거듭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가 바로 말씀임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퍼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임을 발견하게 됨으로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본문에서 에제키엘이 한 발씩 더 들어갈 때마다 더 깊어 가는 강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강은 흘러가는 곳마다 수렁이나 웅덩이를 제외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며 치료도 해준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순수하고 온전하게 만드실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심정이 끌리고 있는 약함과 악들 그리고 우리 속의 약함과 악들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거나 아예 인정하려 들지 않는 마음일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의 결점들을 보여주고 그 결점과 싸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줌을 느끼며 그대로 따르게 되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게 된다.

에제키엘이 본 강은 에덴의 동산을 적시던 강과 같은 강이며,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강과 같은 강 곧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으로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강을 말한다(창세기 2:9, 계시록 22:1). 그리고 시편에서는 “강물의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시편 46:4).”라고 표현되어 있다.

제 1반

성서 이야기 그대로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정리해본다.

요시아 왕이 죽은 뒤 유다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점령되었고, 예루살렘과 성전 역시 파괴되었다. 그리고 백성들 중 극빈자만이 포도원이나 밭을 지키도록 남겨졌고, 나머지는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 중에는 두 명의 위대한 예언자들이 세워졌다. 그 중의 한 명이 바로 사제 에제키엘이었다.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많은 환상들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계심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에제키엘이 환상 속에서 본 경이로운 강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강은 아니었다. 이 환상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를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극히 작은

이해만을 갖게 된다. 이는 바로 첫 번째 건너보는 물 곧 무릎에 차는 시냇물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해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허리에 차는 물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슬기롭게 영원히 말씀을 공부해야 함을 깨닫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언제나 새롭고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됨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물이 불어서 해염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상징하는 것이다.

이후 에제키엘은 이 강이 흘러가는 곳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며 그분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에제키엘서 외의 대 예언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이시아는 어느 왕의 시대에 유다왕국에서 살았는가?
- * 유다왕국의 말기에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유다왕국의 멸망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예언자는 누구인가?
- *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은 곳은 어디인가?
- * 에제키엘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간 예언자는 누구인가?
- * 세 가지 다른 대 예언서들과 구별되는 에제키엘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성과 성전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때 그가 성전 밖에서 본 새로운 어떤 것은 무엇인가?
- * 그는 동쪽 문턱에서 나오는 무엇을 보았는가?
- * 그와 함께 한 천사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 첫 번째 천 척(큐빗) 되는 곳에 있는 물은 얼마나 깊었는가?
- * 두 번째 천 척 되는 곳의 물은 얼마나 깊었는가?
- * 세 번째 천 척 되는 곳의 물은 얼마나 깊었는가?
- * 이 물은 얼마나 더 깊게 되었는가?
- * 강을 끼고 있는 양쪽 강둑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 물 안에서는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 *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났는가?
- * 이 물이 생명이 있도록 할 수 없었던 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 2반

시편 91편과 같이 말씀의 글자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음을 상기하면서 공부한다.

대 예언서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예레미야서의 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살았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 악한 길을 고집할 때 그들에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들이 고향에 머물기 위해서는 바빌론에 복종하면서 공물을 바쳐야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 갈 때 극빈자들과 함께 거룩한 땅에 남도록 허용되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 땅에서 예언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각자 고향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그들을 구원할 주님을 기다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은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려있었고, 그들 중의 한 집단은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한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데리고 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예레미야서의 끝 부분과 애가서가 이집트에서 기록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 우리는 에제키엘서 첫 장의 몇 절로부터 그가 사제였다는 점과 포로로 된지 5년째 되던 해에 예언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된다. 그에게는 많은 경이로운 환상들과 더불어 유다 외의 다른 국가들의 운명도 보여 졌다. 그리고 그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포로생활 중이더라도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는 70년 후 귀향하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실 그는 자신이 귀향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과히 놀라지 않았다. 본문은 에제키엘의 마지막 환상 중 일부로 25년 동안의 그의 포로생활 중에 주어진 환상 중 마지막 부분이다. 그의 영은 환상 중에 들리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지만, 그는 장차 다시 건설되어야 할 성전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도록 허락되어졌다. 그리고 성전의 이모저모를 낱낱이 보여주도록 천사가 그에게 보내졌다. 에제키엘서 40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들이 갔을 때 천사는 성전의 모든 것을 측량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에제키엘의 환상 속의 성전이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일치한다는 것과 더불어 솔로몬

의 성전에 대한 세부사항보다 더 세밀한 면이 부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측량된 후 천사는 동쪽을 향해 나 있는 성전 정문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성막역시 언제나 동쪽을 향해 입구를 갖도록 설치되어졌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말씀에 대한 공부가 지속되고 깊어지게 되면 에제키엘의 환상이 주는 경이로운 교훈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최소한의 것 곧 강이란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는 정도만 살펴볼 정도로 한다. 이 강이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듯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첫 번째로는 강물이 발목까지 찼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저 말씀의 겉 뜻만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해 가다보면, 우리는 말씀 속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를 느끼게 되어 어느 누구도 말씀을 다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영원히 공부해야 하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더욱더 많은 의미들을 배우게 된다. 강 언덕에 있는 어부들이란 삶에 필요한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강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원리들, 즉 말씀을 배운 후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큰 원리를 의미한다. 나무의 열매란 우리가 행한 선이며, 그들의 잎이란 우리 안의 큰 원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그것들을 고쳐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따라서 깊은 치료를 하는 약인 것이다. 이러한 잎들은 약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듯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말씀으로도 생명이 넘치게 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유일한 부분은 말씀을 따라 기꺼이 변하고자 원치 않는 우리의 고집이다. 이러한 고집은 우리의 이기적인 감정과 생각들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겨대는 말과 행동이 우리 마음의 수렁과 웅덩이가 된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에제키엘은 성전 문턱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가?
- * 제단의 어느 쪽에서 물이 나왔는가?
- * 첫 천 큐빗을 잴 후 물은 얼마나 깊었는가?
- * 두 번째 천 큐빗을 잴 후 물은 얼마나 깊어졌는가?
- * 세 번째 천 큐빗을 잤을 때는 얼마나 깊어졌는가?
- * 결국 그 물은 얼마나 깊어 졌는가?

- * 강독에서는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 강이 흘러가는 곳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 * 그 나무의 열매와 잎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었는가?
- * 본문에서는 열매가 무엇을 위한 것이 된다고 말해지고 있는가?
- * 본문에서는 잎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설명되는가?
- * 강이 흘러 갈 수 없었던 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제 3반

앞서 물의 상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물의 상응을 기초로 하여 본문을 정리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본문은 이야기 자체로도 매우 경이롭지만, 영적 면에서는 더욱 강력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명의 대 예언자들 중 첫 두 명은 유다왕국에서 살았다. 이사야는 히즈키야 왕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말기에 살면서 그 왕국의 종말을 예언했으며, 왕국의 종말이 성취됨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바빌론 왕에 의해서 고향에 남도록 허용되었다. 그는 계속 그 땅에서 예언했으나, 후에 그곳에 남아 있기를 두려워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이집트로 강제이주 당했다. 따라서 그의 마지막 예언들과 5편의 시로 된 얘기는 이집트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했다. 예언적 영감이 거룩한 땅 내에서만 주어진다고 믿었던 고대 히브리인들은 애가서와 다니엘서는 그들의 정경(canon)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에제키엘서는 그들의 정경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에제키엘이 예언하기 전에 이미 사제였고, 본문에서 기록된 바대로 그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들려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루살렘에 관한 에제키엘의 환상 중의 하나가 바로 본문에 해당된다. 에제키엘은 포로생활을 한지 5년이 지난 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고, 본문은 25년간의 포로생활 동안 그에게 주어진 환상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본문은 “그의 영이 들리어져 고국인 이스라엘에 있는 매우 높은 산에 내려졌는데, 그 산 위에는 남쪽으로 성 만큼 큰 건물이 한 채 서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거기서 낫쇠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노끈과 막대기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이 사람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세세하게 측량했다. 측량에 대한 이모저모는 제 40-41장에 기록되어 있다.

에제키엘서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모저모는 열왕기하에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솟는 물에 관한 환상이 뒤따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예언서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벽찬 감이 있으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공부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에제키엘의 환상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의 의미역시 아주 명확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 있는 중요한 상응들에 대한 고찰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즉, 물은 진리에 대한 상징이다. 따라서 성전 제단 옆으로 흐르는 물이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 또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제 말씀의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단의 오른쪽에서 흐르는 물에서 오른쪽이란 언제나 애정 혹은 사랑의 측면을 의미한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오른쪽은 동쪽을 향해 나 있는 성전 정면 또는 남쪽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남쪽이 영적 총명에 상응되기 때문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다음 에제키엘이 북쪽 문으로 나가 성전 바깥 길로 해서 동쪽 문 바깥으로 돌아가 보게 된다. 북쪽이란 영적으로 희미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동향으로 보이는 길로 해서 동문의 바깥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희미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에제키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각자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돌이켜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어린이였을 때 교회 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듣고 어린 마음에 그럴 것이라고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학교에 입학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지식들을 배워가면서 세상에서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에 몰두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잠깐이나마 인정하며 믿었던 주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게 되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흥미 없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희미함이며, “북문을 나가 바깥 길로”라는 구절의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동향으로 보이는 길로 해서 동문 근처로”, 즉 언젠가는 주님에 관한 지식을 다시 원하는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 이유는 동쪽이 언제나 주님께서 계신 곳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물을 따라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는 때를 말하며, 이때의 물은 재면 잦수록 우리에게 더 깊어짐을 실감하도록 해 준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십, 백, 천 그리고 만에 곱을 한 숫자들을 발견한다. 이 숫자들 모두는 어떤 상태의 완성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십대 청소년들”이라고 말할 때의 십은 어떤 단계를 통과했음 혹은 어떠한 상황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태의 완성」이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 척(큐빗)이라는 측량적인 표현은 우리가 하나의 천척을 잴 때마다 말씀의 더 새롭고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물의 깊이에 대한 세 단계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단계로서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발목까지 차는 물이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서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있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 즉,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가르쳐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릎까지 차는 물이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천적인 의미를 아주 조금씩 알게 된다. 말씀 속의 천적인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느끼셨는가에 관한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까지도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바램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말씀은 우리의 허리까지 찬 물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끝이 없음을 명확히 알게 된다. 즉, 우리가 영원히 말씀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이 말씀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헤엄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앞의 상응들을 모두 이해했다면, 우리는 강의 양쪽 언덕 위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창조 이야기」편을 상기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무란 살아있는 영적인 행위 또는 선한 일을 순수하게 해나가는 것이 기초가 된 진정한 원리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원리 안에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강이 주님으로부터만 흘러 내려오듯이, 모든 선한 일 역시 그분으로부터만 근원된다. 그 이유는 그분이 선과 진리 그 자체가시기 때문이다. 고기역시 좋은 의미에서 볼 때 선용을 위해 자연적인 지식을 찾는 애정을 상징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말씀의 글자를 공부한다면, 우리는 강가에 늘어선 어부가 되어 그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물에 걸려 끌어 올린 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되고 그 안에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강이 흘러들어 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로부터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만 있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수렁이나 찌꺼기가 남아 있는 갯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우리 마음속의 부분은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할 바램이 없다는 것이다.

나무란 원리를 그리고 나무의 잎이란 그 원리로부터 생산되는 생각들을 상징한다. 강가에 있는 나무들의 잎이 치료하는 약이라고 말해진 이유를 각자 생각해보도록 하자.

기본 상용 공부

측량줄 = 교회의 상태를 재보는 능력

남쪽 = 영적 총명

북쪽 = 영적 회미함

그물 = 지침이 되는 수단

제 4반

세상은 주님의 창조물이며 성경은 삶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의 재능이나 지식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을 대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책들의 분량이 다른 열 두 권의 소 예언서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유다에서 히즈키야왕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 왕들의 시대에서도 예언했다. 예레미야는 유다백성들이 포로로 됨을 목격했으나,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사이에서 예언했다.

에제키엘의 예언들은 그에 따르면 포로가 된지 5년 후부터 20년간 주어졌다고 한다. 그가 본

환상들 중 마지막 부분이 에제키엘서 40-48장인데, 여기에 본문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영은 환상 속에서 거룩한 땅으로 옮겨졌고, 끈과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고 있는 천사에 의해 인도되었다. 이러한 천사의 측량은 열왕기하서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제 46장을 통해서 에제키엘이 그에게 익숙한 것들에 관한 꿈을 가진 까닭이 그가 사제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제 47장에서는 그가 포로로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서 결코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 그는 성전 동쪽 문턱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그 물이 제단 남쪽에서 근원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진리를 묘사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님의 진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제키엘의 환상 속의 강을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주님의 진리가 있고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진리를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근원되었음을 인정할 후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 준비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한 후 삶에 응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두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생명의 강조차도 생명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즉, 수령이나 웅덩이와 같은 곳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곳에는 잔물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소금은 좋은 의미로는 진리가 선에 하나 되는 요소 또는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바람을 표현하지만, 본문의 경우와 같이 나쁜 의미로는 진리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가 사악한 성 소돔을 뒤돌아보았을 때 소금기둥이 되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삶 속에는 스스로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 곧 우리 속에 이기적인 느낌이나 생각들이 언제나 들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남아 있는 잔물 웅덩이로 상징된다. 이 웅덩이는 생명의 강물이 생명을 줄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진리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진리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강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서 더욱 깊어져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 강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결코 시드는 일이 없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때도 없다. 이러한 나무들은 우리 속의 영적인 총명이 더 진전될 때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원리들에서 자라난 생각들을 상징하며, 이는 강가 양쪽에 자라나는 나무들의 잎이 무성한 것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약이 된다. 약은 병을 치료할 때 쓰인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잎 곧 생각들을 수단으로 영혼의 질병인 자신 속의 결점과 약함을 보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강은 치료와 더불어 우리 속의 모든 자연적인 지식이 살아 있도록 해주며 유용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진리의 강가에 서서 우리 속의 자연적인 지식을 끌어올리게 된다.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근원됨을 명확히 보는 사람과 주님께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시기 위해 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잘못 흘러가지 않으며 실망이나 자포자기로 인해 좌절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자신을 강타하는 많은 외부 환경 조건에서도 행복하고 유용한 삶 곧 충만한 삶을 일구어 나간다.

제 5반

영적 총명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주로 공부한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재림에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를 공부하고 삶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선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 언급되는 한정된 부분만으로는 예언서 전체를 언급하기 곤란하다. 예언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아주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시편이나 예언서의 경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극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예언서가 이사야나 에제키엘과 같은 개개인의 상상적인 창작을 공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예언자 스스로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말씀 속의 많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 주셨다” 또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말한다”와 같은 표현들을 읽게 된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말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예언서들의 곳곳에서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가서 6장 8절에는 그 의미가 열려 있어 더욱 명백한 의미가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깊은 감동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언서들의 글자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공부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북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한 절 한 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시편과 예언서의 경우는 그의 「예언서와 시편」이라는 미완성된 작품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그의 저술에서 예언서의 인용문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알려고 노력하면 인간적인 상상이나 추측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예언서에 담긴 영적 의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선택된 본문 역시 매우 경이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글자에서도 알 수 있다. 본문은 에제키엘의 포로생활 25년 동안 그에게 주어진 환상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그는 사제로서 유다의 왕 여호야킴과 더불어 맨 먼저 바빌론으로 끌려 온 사람들 중 하나였다. 마지막 환상 속에서 에제키엘의 영은 거룩한 땅으로 옮겨져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아졌다. 그는 그 산 위에 남쪽으로 성 만큼 큰 건물이 하나 서 있음을 보았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의 용모는 뿔쇠같이 빛나고 손에 노끈과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에제키엘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측량했다. 제 40-46장은 열왕기하에서의 솔로몬의 성전 모습을 더욱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성전은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또는 주님을 예배함에 중심을 두면서 계명에 순종하는 진정한 영적인 인격을 표현한다. 그리고 물은 진리를 상징한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확실히 기억한다면, 본문 1절에서의 “성전 오른쪽” 또는 “제단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진리에 대한 묘사라는 것과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총명한 상태가 되도록 해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공부할 때만이 신성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배웠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며 선한 사람의 이해성 안에 있는 말씀의 지식 안으로 신성한 진리가 유입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본문의 열 두절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와 선의 유입과 이러한 유입으로 세 천국의 천사들과 사람들이 영적 생명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신성한 선과 진리로부터 총명과 이타애를 갖는다.”라고 요약한다.

신성한 진리로부터의 우리의 “강”은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거둬남을 발전시켜 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든 더 깊고 깊은 진리를 발견하도록 해주신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629항에서는 발목이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무릎은 영적이며 자연적인 것을 그리고 허리는 진리와 선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영혼의 발전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해석과 유사하다. 즉, 솔로몬으로 표현되는 상태란 진리를 삶에 사용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평화롭고 슬기로운 상태로서 우리가 이를 수 있는 최고 정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말씀 속의 진리의 깊이가 말씀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전과 달라져 말씀의 내용을 밝히 알게 된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늘어진 나무들이란 말씀을 수단으로 이해된 진정한 원리를 상징한다. 이 나무들의 열매란 이타적인 사랑에서 행해진 선한 일로서, 그 열매는 순수하고 계속해서 생신됨을 의미한다. 이 나무의 잎이란 영적으로 합리적인 사상들을 상징하는 바, 이 사상들이 우리 속의 악함이나 악들을 끄집어 내 보여주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강 속의 물고기들은 우리 속의 자연적인 지식들인데, 이 지식들은 주님의 신성한 계획과 목적에 관련되어질 때 합당하게 쓰여져 진정으로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

이상과 같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풍경은 우리가 가진 영적 확고한 가능성에 대한 묘사를 에제키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그분께서 재림을 통해서 밝혀주신 수단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공부해간다면, 우리는 우리 경험들의 모든 부분들이 생명이 있게 되고 축복만을 가져옴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적 발달을 늦추게 하는 유일한 한계성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착각 속에 존재한다. 수렁이나 웅덩이는 계속 생명 없이 있게 되고 여전히 “잔물로 남아 있게 된다.” 우리는 늘 빠뜨어져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느낌들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으려는 태도는 진리의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편에서는 “강물의 즐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그 한가운데서 하느님이 계시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강은 에제키엘의 환상 속의 강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과도 같은 것으로서, 즉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마른 사람은 오라.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라.”라고 말씀하신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3424항: “강은 말씀이다. 모든 것을 살게 만드는 강물이란 그 안에 든 신성한 진리이다. 물고기는 기억 속에 든 지식이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62908항: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받아 어떻게 총명이 증가하는지는 예언자가 건너간 강물로 묘사되고 있다. 발목까지 차는 물이란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무릎까지 차는 물이란 영적이면서 자연적인 것을, 건널 수 없는 강이란 천적인 총명을 그리고 이 총명을 지혜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는 삼층 천의 천사들이나 천적 인간이 가진 지혜이다.”

질문 정리

- 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에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 3) 천사는 무엇을 맨 먼저 측량했는가?
- 4) 에제키엘이 알고 있는 성전 내용 중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5) 천사가 강을 측량할 때 얼마큼씩 멀리 측량했는가?
- 6) 에제키엘로 하여금 건너가보도록 허용된 세 가지 깊이는 무엇인가?
- 7) 마지막 깊이는 얼마나 깊었는가?
- 8) 강가에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 9) 강가에 누가 서 있었는가?
- 10) 강물이 닿는 곳은 어떻게 되었는가?
- 11) 살아있게 만들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
- 12) 이런 장소는 어떻게 남아있는가?
- 13) 나뭇잎은 무엇에 쓰였는가?
- 14) 강은 무엇을 그리는가?
- 15) 잎과 열매는 무엇을 그리는가?
- 16) 우리가 항상 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예루살렘 3) 성전 4) 물 5) 천 큐빗 6) 발목, 무릎, 허리 7) 머리
너머까지 8) 나무 9) 어부 10) 건강하게 된다 11) 잔물로 13) 치료 14) 말씀 15)
있 - 좋은 생각, 열매 - 선한 행위 16) 말씀에는 끝없이 많은 지혜가 있다

23

느부갓네살의 꿈

머리말

다니엘서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서 안에 알맞은 장소를 정해 주셨다. 유다왕국의 함락과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한다.

성서 본문: 다니엘 제 2장

2장: 1. 느부갓네살왕 제이 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 왕은 자기가 꾸는 꿈을 알아내려고 미술사, 술객, 요술장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3.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4.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더미로 만들리라. 6.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7.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 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8.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9. 너희가 내 꿈을 알아 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렵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아니냐?” 10. 점성가들은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미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묻은 적이 있습니까? 11. 임금님께서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
다.” 12.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재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13.
재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14.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룩이 바빌론 재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15.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룩이 그 사정을 알려 주자 16. 다니엘은 자기가 입궐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17.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 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18.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재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19. 그 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0.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21.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재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어라.

21.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어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23.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4.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룩을 찾아 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재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25. 아룩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 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
다. 사로잡혀 온 유대인입니다.” 아룩의 말을 듣고 26.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나?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나?” 2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재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장이라도 밝혀 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28.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30.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 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31.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2.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쇠요, 33.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4.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35. 그러자 쇠, 흙, 놋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들은 산 같은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36.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37. 임금께서는 왕이실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38. 하느님께서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39.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놋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40.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부숩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만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옹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42.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옹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43. 임금님께서 보신대로 쇠가 옹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옹기 흙이 엉키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44.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45.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놋쇠와 옹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46. 그러자 느부갓네살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47.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48.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재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49.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교리 요점

- *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를 조절한다.
- * 계시는 예언자들에게 종종 꿈으로 주어지기도 했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 * 겸손함은 이타애의 필수 요건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선왕인 요시아가 죽은 후 유다 왕족과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길로 되돌아가버렸고, 그 결과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 없는 때가 더욱 빨리 초래되었다. 먼저 이집트가 쳐들어와 공물을 바치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 바빌론이 거룩한 땅을 이집트로부터 가로챘다. 한 동안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유다를 통치하도록 바빌론에 의해 허용되었지만, 그들이 바빌론에 반역함에 따라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던 성전을 파괴했고 극빈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제일 먼저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인들은 예루살렘이 몰락되기 전에 끌려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아마 유다의 젊은 왕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가진 능력이나 재주가 탁월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갈대아의 모든 지식으로 교육시켜서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 왕자들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다니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친숙하다. 이는 그가 성경전체를 망라하여 주님에 대한 겸손과 순종으로 지혜와 용기를 얻은 사람의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본문은 그가 어떻게 바빌론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꿈의 내용이 스스로가 슬기롭고 위대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선함과 지혜를 차차 잃게 되어 결국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묘사임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꿈이 바빌론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해몽해 주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 정도의 해몽 이상의 아주 폭넓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더 깊고 깊은 의미를 준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전후에 대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해 두어야 한다. 먼저 다니엘이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보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두 번째는 그가 꿈의 의미를 말해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갔을 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잘난 체 하는 데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밝히 알려주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공공연히 선언했다. 이로 인해 꿈의 의미가 설명된 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부와 권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하느님을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인정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혹은 교회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되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으스대거나 자신이 선한 사람이어서 선행을 베푸는 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화자찬이나 남을 지배해 보려는 마름들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의 뿌리가 시작되려는 움직임이 자신 속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다니엘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을 미리 읽어두어야 할 것이다. 다니엘서 1장에는 잘못된 것을 하도록 내려진 명령을 거절하는 다니엘의 용기와 올바르게 처신할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니엘이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반석이 되었다. 또한 이것이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임도 주지하자.

우리는 선왕이었던 요시아를 기억한다. 그는 성전을 수리했으며,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서를 발견했다. 그는 주님께서 율법서에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해 내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고,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포기하고 다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왕이다. 그러나 요시아가 죽은 후 백성들이 아주 속히 악한 길로 되돌아가서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바빌론에 정복되도록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왕국을 점령하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 최초는 유다의 젊은 왕자들이었다. 느부갓네살은 갈대아(바빌론 사람의 통칭)의 학문과 언어를 영특하고 잘 교육된 유다의 왕자들에게 교육시켜서 그들이

자신을 잘 보필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 젊은이들 중의 한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벨트사살이라는 갈대아식 이름을 지어 주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였지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굳건히 결심한 사람들 중 한명이었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의 왕이 명령한 일을 거역하는 데 따르는 엄청난 위험, 즉 죽음을 무릅쓰고 그 명령의 잘못된 사함을 실행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고, 그는 더욱 슬기로우질 수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밤 기이한 꿈을 꾸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그 꿈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과 현자들 그리고 마술사들까지 불러 들였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님께 간구했고, 그분은 왕에게 말해줘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꾸은 꿈과 그것의 의미를 말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의 하느님은 분명히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다고 인정하면서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최고의 현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부유하게 해주었고, 과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을 바빌론 전 지방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자랑으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만사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진력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리해 보자.

- * 왕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 * 꿈속의 형상은 각기 무슨 부분으로 이뤄져 있었는가?
- * 무엇이 이 형상을 부수었는가?
- * 형상을 부순 이 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제 2반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이 바로 본문의 교훈인데, 이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이루게 되는 좋은 예이다. 형상을 부서뜨리는 돌을 중심으로 본 반을 진행한다.

요시아 왕이 노력한 대대적인 개혁정치는 유다왕국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선하게 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정복당했고, 극빈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두 명의 대 예언자가 이러한 포로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예제키엘과 다니엘이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4개의 대 예언서들이다. 애가서는 사실상 예레미야서의 속편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 첫 번째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집단은 다른 포로집단들과 아주 달랐다. 다니엘서 1장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이 고향을 떠날 당시 그가 단지 어린 소년이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들은 이미 고향 땅에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교육받아왔다. 즉, 유다왕국 내에서 왕족의 자녀들은 대 사제의 특별한 보호 하에 양육되었던 것이다. 다니엘을 포함한 네 명의 젊은이들은 비록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스스로의 종교를 지키는데 대단히 용감했었다. 제 1장 8-16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를 어떻게 증명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제 1장의 마지막 네 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우리가 의를 부르짖다가 행여나 어떤 곤경에 빠지지 않을까 또는 불행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의를 행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굳히게 해주기도 한다.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창세기 41장 15-16 절을 읽어보자. 본문 2장 27-30절을 읽어보면, 요셉과 다니엘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혜가 스스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히 알도록 해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본문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느님을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인정했음을 발견한다. 왕이 다니엘을 바빌론의 통치자로 내세운 것은 하느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신감에 넘치는 자 혹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의심쩍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뢰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올바르게 행하려고 애쓴 이들로서 타인의 복지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위에 자신을 놓으려는 시험에 노출될 때 혹은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이나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들에 대해 경멸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본문의 다니엘의 행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있는 것이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선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문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운 이야기를 상기 시켜준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도록 하자.

- * 누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 갔었는가?
- * 왜 주님은 그를 잘 키우실 수 있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가?
- * 무엇이 파라오의 주의를 끌게 하여 그가 파라오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
- * 그는 파라오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 * 파라오는 그에게 어떤 벼슬을 주었는가?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네 권의 대 예언서들의 순서는 어떠한가?
- * 대 예언서들에 “대”라는 어휘가 붙은 까닭은 무엇인가?
- *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형상의 머리 부분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 * 그 형상의 가슴과 두 팔은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 * 그 형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 * 그 형상의 정강이는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 * 그 형상의 발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는가?
- * 이 형상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 * 무엇이 상을 부수었는가?
- * 부순 후에 그 돌은 어떻게 되었는가?
- * 다니엘은 그 형상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했는가?
- * 이 형상의 다른 부분들은 무엇을 그리는가?
- * 왕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 * 다니엘은 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제 3반

본문은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주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교훈만으로도 흡족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영적인 의미의 파악은 아주 광범위하나 바빌론으로 표현되는 악을 주로 살펴본다.

우리는 시편서를 다루면서 고대 히브리인들이 시편서를 그들의 정경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편서를 그에 알맞은 권위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두 권의 책을 그들의 “거룩한 저술(sacred writing)”로 분류했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러한 저술들을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신성한 영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이 예언자중의 한 명임을 언급하신다. 네 권의 대 예언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이다. 이 네 권에 “대(major)”라는 어휘가 붙여진 이유는 그 책들이 부피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 예언서라고 불리는 열두 권의 책들은 그 부피가 모두 작다.

다니엘은 과거 요시아 왕의 두 번째 아들로써 왕위에 오른 여호아킴의 통치 시절에 유다의 왕족이었다. 여호와킴은 그의 형 여호아하즈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이집트 왕에게 잡혀 끌려가게 되어 형 대신 보좌에 오른 인물이다.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면, 바빌론의 왕이 여호아킴의 통치 때에 예루살렘을 공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4장 7절을 보면, 그가 이집트의 세력을 꺾어 그 지역 일대를 그의 손아귀에 장악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다니엘서 제1장을 읽어 보아야 한다. 우리가 1장에서 알게 되는 사항은 다니엘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갈대아어로 잘 알려진 그의 동료들인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젊은이들이 유다에서 바빌론으로 끌려온 첫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바빌론의 왕이 이들을 갈대아의 학식으로 양육시키려 했음도 알 수 있다. 다니엘서 제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들이 과거 그들의 고향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종교 속에서 진정으로 머물기 위해 굉장히 용감했었다는 것과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님께서 그들이 바빌론에서 변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이 포로가 된 다른 백성들보다도 월등한 지혜를 갖도록 해주셨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니엘도 과거 요셉과 같이 모든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 능력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의미를 공부하기에 앞서 주목해 두어야 할 사항은 그 이야기 자체에서 주는 명확한 교훈들이다. 다니엘 역시 요셉처럼 (창세기 41:16) 자신의 지혜의 근원이 스스로가 아닌 주님이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자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들은 다니엘의 즉각적인 반응은 인도자이시며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친구들과 함께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과감한 용기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했었음을 알게 된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다니엘의 순종과 겸손함의 결과로 그에게 부와 권력을 주었고, 그를 들어 세움과 동시에 “너의 하느님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며 하늘나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4절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간절함은 타인들 곧 재사들의 목숨을 건져 주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그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든 즉각적인 생각은 그의 세 친구들을 돕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예언자 역할을 담당한 유일한 인물이다. 새교회의 진리는 부와 명예가 사람의 심정 속에 뿌리내리지 않고 있는 이상 그것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에 해를 입히지 않으며 부와 명예가 주어진 자들은 단지 주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수단으로 주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바빌론에서의 다니엘의 위치에 대한 증거는 같은 입장 곧 포로생활 중에 예언한 또 다른 예언자인 에제키엘서 14장 14절 또는 28장 3절 에서 찾을 수 있다. 다니엘은 오랜 후 포로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고레스 왕 시대때까지 높은 지위를 누렸다. 정말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명예는 하느님 앞에 겸손하며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여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바빌론 백성들의 미래를 예견해준다고 해몽하고 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이런 식으로 그의 꿈을 이해하는 것은 그에게 타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느님의 섭리 하에 조절되고 있다. 본문 21절에서 다니엘은 주님에 대해서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 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나안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는 다른 왕조들에 의한 끊임없는 정복의 역사였다. 우리가 성서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왕조들은 시리아를 시작으로 하여 아시리아와 바빌론 그리고 구약성서의 사무리 직전에 속하는 메대족의 다리우스와 페르샤왕 고레스 등이 있다.

영적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속의 형상은 바빌론으로 불리는 교회의 하강을 묘사한다. 앞서 요시아왕 편에서 살펴 본 바대로 바빌론이란 “자아 사랑으로부터의 지배욕” 을 표현한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랑이 어떻게 교회와 관련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배욕이 시작부터 지배를 즐기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숨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커져 세력을 얻는 특징을 지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히즈키야 왕을 공부하면서 그가 바빌론에서 온 사절단을 친구로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궁궐내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 줌으로써 비극의 씨가 빨리 크도록 하는 실수를 범하는 사건을 살펴보았다. 본문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왕국 내에서 무슨 일이나 능숙하고 사리에 밝아 왕궁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빌론 말(갈대아어)과 글을 가르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느님을 기꺼이 인정했다. 이러한 인정은 느부갓네살이 그가 꿈에 본 형상의 부분들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라고 불릴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는 머리가 지혜를 그리고 금이 주님을 사랑하여 선을 행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지배욕이 그의 심장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더라도 처음에는 주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데 열심이고 예배를 포함한 각종 교회 행사들에 적극적이며 선한 행위도 곧 잘 실천한다. 그러나 지배욕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 그 지배욕을 소유한 자의 처음 징조는 주님을 사랑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공부하고 이해한 주님에 관한 지식만은 계속 사랑한다. 이것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행동으로 선한 일을 지속해나기만 하면 선한 인격자이므로 세상이 칭찬해줘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놋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상징하는 바다.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해오던 선행마저 중단하고, 자신이 성실한 교인이며 성경지식을 잘 아는 신앙인이어서 마치 선한 인격이 자신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것이 쇠로된 정강이가 상징하는 바다. 이때부터 수많은 거짓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종교적인 사상에 혼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의 행동 지침은 때로 진정한 원리 혹은 거짓 원리에 근거해서 이뤄지지만, 이 두 가지 원리는 결코 서로 합해질 수 없다. 이것이 쇠와 흙으로 된 발이 상징하는 바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의 빛, 즉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장한 선행이나 지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의 형상을 크게 보자면 인류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 즉 주님을 사랑함 안에 거했던 인류가 점차적으로 자아사랑으로 돌아서면서 그들의 선행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지식까지 상실하여 결국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만으로 구원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베드로가 주님께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서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신 주님이란 바로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운 돌이 상징하는 바다.

기본 상응 공부

철 = 자연적 진리

진흙 = 선함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악으로 전환된 자연적 선

밭 = 우리의 일상 지침

제 4반

느부갓네살의 꿈에 담긴 의미의 깊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선하고 영리하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지배욕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기어 다니도록 허용하려는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시험임을 강조한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두 왕국 중 이스라엘은 이해성을 그리고 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포로가 되었는데, 여기서 아시리아는 거짓된 추론을 상징한다. 그리고 유다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는데, 바빌론은 “자아사랑에서 나온 지배욕”을 상징한다.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지배욕은 스스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비평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남들처럼 결점을 지녔다고 긍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결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소지를 많이 두고 남들에게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심한 경우 자신의 의견에 대립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깎아 내리거나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 진리를 오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이 상징하는 것이다. 금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은은 영적인 진리 또는 믿음을, 놋쇠는 자연적인 선함을 그리고 쇠는 자연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진흙은 자연적인 선함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스스로가 똑똑해서 선함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악으로 변해진 상태를 상징한다. 또한 머리는 지혜를, 발은 직접적인 행동을 상징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느부갓네살이 본 꿈속의 형상은 인격의 변화를 묘사한

다. 즉,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 자기 속의 선함이나 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속의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들 역시 자신의 것으로 여겨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인격자라고 생각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타애가 결핍되어 진리보다 거짓 추론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표현한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가 신성한 진리 곧 자신의 행동지침이 주님과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이어야만 된다는 진리에 갑자기 맞부딪치면 여태껏 그가 닦아놓은 인생의 모든 것이 붕괴되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성서의 이야기로 볼 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인 응용을 더하고 있다. 느부갓네살은 입으로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그는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영을 담은 자였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 그의 나라는 얼마가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 흡수되고 말았던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창조자이시며, 창조물을 관리해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조절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에 따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면 자이를 높이려 하느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행동이나 방향을 논할 때 또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이사야 60장 12절의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리라.”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말씀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왕국은 곧 하느님께서 세우실 왕국인 것이다.

스웨덴붉은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형상을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로 시작되었으나 차츰 남을 지배하라고 부추기는 자신속의 이기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허용하여 결국에 주님의 권능을 횡령함으로써 주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지경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교회 역사의 측면에서 금으로 된 머리란 태고교회를,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대 교회를, 놋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열조시대를 지나는 히브리교회를, 쇠로 된 정강이는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교회를 그리고 쇠와 흙으로 된 발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있게 되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상징한다.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석이란 우리 안에 들어온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이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해야 할 사항은 많은 신화와 설화들 역시 금, 은, 동 그리고 철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위와 같은 경이로운 예언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림과 재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대 예언서의 네 번째 예언자인 다니엘은 부유하며 권력까지 지닌 유일한 예언자였다. 그는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한 고레스 시대까지도 그의 번영과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제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성공은 주님에 대한 그의 겸손과 순종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의 일생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이들의 삶은 시편 91편에 대한 좋은 표본이기도 하다. 어느 것도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또 하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다니엘은 출발 당시부터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강조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요셉이 파라오에게 했던 것과 같다.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명예와 권력을 보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말을 인정하여 그의 하나님을 가장 큰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하되 자신의 선함이나 지혜를 상대방에게 강하게 인상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혹은 주변에서 진정으로 위대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이 자기 확신으로 가득차 있지 않고 한결같이 자신의 약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약함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바빌론의 의미와 그에 이해를 주로 다룬다. 바빌론은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계시록 18장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악을 상징한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인 바빌론에 대항해서 싸워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대 예언서들 중 네 번째 책이다. 예언자 다니엘은 유다 왕가의 일원으로서, 바빌론이 처음 유다왕국을 침공하여 공물을 바치도록 하게 한 여호야קים의 통치 때에 아주 젊은 나이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 한명이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서 1장을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고대 유대 국가는 진정한 교회에 대한 표현적인 존재일 뿐이었고 시간이 흐르자 그마저도 거짓으로 덮여져 결국 표현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조차 상실해 버렸다고 한다. 또한 바빌론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지배욕”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주님의 인도를 찾고 그분께 순종함을 중단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을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인간의 영적인 적중에서도 최후의 적에 해당된다. 이를 염두 해 두면, 스웨덴봄이 「시편과 예언서들」에서 제 1장에 대해

“유대 국가사이에 있는 교회가 파괴되었을 때에 ‘바빌론’은 그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것을 사유화해 버렸다. 애당초 바빌론은 교회속의 모든 것을 알고자 했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원했는데, 이것이 ‘바빌론’의 시작이었다.”라고 서술한 간략한 주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웨덴봄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빌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편과 예언서들」에 있는 의미의 응용이 제 6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응용은 제 7장에서 변화를 이루어 교회 시작 초부터 있어 온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 소개되고 나머지 요약부분이 더 확대된 응용으로 이어진다.

다니엘서에 대한 소개인 제 1장은 다니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쓰여 졌다. 그러나 제 2장 4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는’ 부분부터는 갈대아어 또는 아람어로 말하고 쓰기 시작했으며 제 7장까지 갈대아어로 쓰여져 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특성이 비슷하나 히브리어만큼은 다양하지 못하다. 다니엘은 제 8장의 초두부터 주님의 예언자로서 자신의 체험으로 복귀하고, 다시 히브리어로 글을 쓰기 시작하여 책의 끝까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는 일부는 역사적이고 다른 일부는 예언적으로 되었다. 예언적인 부분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갈대아어로 쓰인 제 2장부터 7장까지로서 벨사살의 축제의 사건과 사자굴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 온 네 짐승의 환상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인 것으로서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제 8장), 다니엘의 기도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한 칠십 년의 예언에 대한 해석(제 9장) 그리고 네 번째 예언적인 환상이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 예언적인 환상은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고레스 시대 때 가졌던 환상이다. 제 10장에서는 그에게 주님의 경이로운 모습이 보여 지고 있는데, 이는 아주 유심히 공부해야 할 부분이다. 다니엘의 예언들과 계시록서의 내용들 간의 유사성은 모든 주석가들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다. 이는 주님의 강림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 역시 미리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에서의 주님의 영적 왕국에 연결되는 사건인 기독교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기독교의 사건까지도 암시해주고 있다.

스웨덴봄은 본문에 있는 꿈의 해석을 그 형상의 영적 의미와 더불어 그 의미의 일반적인 면과 특수적인 면에서의 응용까지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지배욕이 우리의 마음에 터전을 마련하도록 허용하는 위험성을 보도록 하고 섬뜩 놀라게까지 해준다. 지배욕은 처음에 인식하기가 힘든 것이 그 특징이다. 지배욕을 상징하는 바빌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유대의 히즈키야 왕이 바빌론의 사절단을 친구로 영접하여 그들에게 궁내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히즈키야 왕의 행동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바빌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스웨덴봄의 저서를 통해 이 외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형상은 교회의 역사도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 한 단원을 「요한계시록 설명」 제 411-4항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금으로 된 형상의 머리는 태고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천적 교회 또는 주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선이 통치했던 교회이다. 이 교회가 가졌던 선은 말씀가운데서 금 또는 머리로 말해진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대교회로서 태고 교회를 계승했는데, 이 교회는 영적 교회 또는 이웃을 향한 이타애에서 나오는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회의 선이 말씀 속에서 은이나 가슴 또는 팔로 언급되고 있다. 놋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고대의 영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는 영적이면서 자연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바, 이 교회는 믿음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로 통치된다. 그러나 쇠와 진흙으로 된 다리와 발은 이스라엘교회와 유대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들은 내용물은 없고 형체만 가진 교회로서 그 안에는 선과 진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 자체가 거짓인 왜곡된 진리와 그 자체가 악인 간음질 된 선을 의미한다. 이는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임금님께서 보신대로 쇠가 옹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옹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철은 자연적인 진리를, 옹기 흙은 자연적인 선을 그리고 발과 다리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 진흙은 간음질 된 선을 상징하며, 철은 말씀의 곁에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의미되는 인간의 씨란 선과 진리가 결합됨을 의미하나 본문에서는 쇠와 옹기 흙이 엉기지 않듯이 서로 결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거짓된 결합인 왜곡과 간음질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형상을 쳐서 부순 돌이란 주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진리이다. 이 진리가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다는 주님이 신성한 진리로 천국과 교회를 통치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지배욕은 모든 인류에게 상속되어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욕을 상징하는 바빌론은 말씀 속에서 고대교회의 극치인 바벨탑으로 처음 등장한다. 우리는 지배욕이라는 악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자라 오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모습으로도 변장하여 자라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 악은 우리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히는 교묘한 악임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우리는 지배욕이라는 악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서를 통해 철저히 배우게

된다. 다니엘의 인격은 바빌론으로 그려지는 상태와 날카롭게 대비를 이루며 굳건히 서 있다. 그는 많은 재능과 높은 교육을 겸비한 유다의 젊은이였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지혜가 자신이 잘나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종교 원리에 철저히 의존했다. 그는 위급한 모든 상황의 해결책을 주님께 의지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했고, 자신을 상하게 하려고 몸부림친 이들에게 단 한 번도 분개하거나 씩씩해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 역시 그에게 어떤 나쁜 영향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는 왕들이 교체되고 여러 국가로 변모되는 시대적인 급변기에 살았지만, 삶의 끝까지 부와 권력을 유지했던 인물이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요셉처럼 주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의 전생을 통해 신성한 권능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준 표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요셉과 다니엘은 시편 91편의 말씀인 천사들이 말해주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 있어지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1029-5항: “다니엘에 의한 꿈의 해석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 교회의 상태가 꿈속의 형상인 머리, 가슴, 팔, 배, 넓적다리, 정강이 그리고 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 은, 놋쇠, 철 그리고 진흙이 재료가 되어 형상의 머리부터 발까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역시 처음에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선에서 나온 지혜로 가득 했었음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부분인 머리는 지혜를 의미하고, 금은 이 교회의 초반에 있었던 주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발과 발가락이 쇠와 흙이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마지막 상태에 가서는 어떤 선이나 지혜도 없이 존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인척관계 곧 사람의 씨를 맺는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 즉 말씀속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불일치는 당연한 결과 일 수밖에 없는 바, 이 교회는 끝에 진리의 응용이 인간을 예비하게 되어 왜곡되고 만다.”

「천국의 신비」 제 9406-7항: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쇠, 놋쇠, 은 그리고 금을 쳐서 가루로

만들었다 함은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받는 측면의 멸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악과 거짓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의 글자를 인용할 때인 바,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끝장난 상태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 속에는 어떤 천국적인 사랑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오직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만 있게 될 따름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 유대 왕국이 말씀만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태고시대 때의 경우 말씀의 진정함은 금으로 의미되었다. 하지만 말씀의 속뜻은 말씀의 글자를 통해서는 추상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2) 왜 주님은 언제나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계발해 주실 수 있으셨는가?
- 3) 다니엘 당시 누가 통치했는가?
- 4) 이 왕은 그 나라의 현자들에게 무엇을 대답하라고 요구했는가?
- 5) 다니엘은 그 대답을 어떻게 구했는가?
- 6)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인가?
- 7) 이 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는가?
- 9) 그 발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 10) 어떻게 형상이 파괴되었는가?
- 11) 형상을 부순 돌은 무엇이 되었는가?
- 12)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느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13) 그 왕은 다니엘에게 어떤 보상을 내렸는가?
- 14) 상을 만든 네 금속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15) 그 상의 발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16) 이 환상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바빌론 2) 그의 믿음 3) 느부갓네살 4) 왕의 꿈을 재생하고 해석함
- 5) 기도를 통해 6) 큰 상(형상) 7) 금 8) 은, 동, 철 8) 철과 진흙
- 9) 돌 10) 산같이 큰 바위 11) “하느님들의 하느님” 12) 은 지방의 통치자
- 13) 금 - 주님을 사랑, 은 - 믿음, 동 - 자연적인 선함, 철 - 자연적인 진리
- 14) 바깥쪽 삶 15) 지배욕이 자신의 삶에서 발달하도록 허용하는 자는 영적인 파멸을 갖는다

24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

머리말

우선 소 예언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리한 후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서 본문 : 아모스서 제 8장

8장: 1. 다시 주 야훼께서 보여 주신 것은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였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하고 내가 아뢰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제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도 없구나. 3. 그 날이 오면, 궁궐에서 노래하는 여자들도 울부짖으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간 데마다 버려진 시체 투성이가 되리라.”

4.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더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5.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겨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빛돈에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결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 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7. 야훼께서는 야곱이 자랑으로 여기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나는 이 백성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8. 그리하여 땅은 뒤틀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모두 찌들리라.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어 오랐다가 잦아들리라.
9. 그 날이 와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에 땅이 캄캄해지거든,
모두 내가 한 일인 줄 알아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10. 순례절에도 통곡소리 터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그치면
상여 소리 구슬피 퍼지리라.
모두들 굽은 베를 허리에 걸치고
머리를 밀며 외아들이라도 잃은 듯 통곡하리라.
마지막 날은 이런 비극으로 끝나리라.
11. 나 야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 말리라.

- 동기간의 정을 끊고
칼로 겨누며 달려들었다.
사뭇 증오심에 불타올라
12. 끝내 양심을 풀지 않은 죄 때문이다.
데만에 불을 지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13. 나 야훼가 선고한다.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며
영도를 넓힌 죄 때문이다.
14. 라빠성에 불을 질러
그 궁궐들을 살라 버리리라.
폭풍이 몰아치는 날
회리바람과 함께 살라 버리고,
15. 백성을 다스리던 왕은
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 야훼의 말씀이시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벌은 우리가 행하는 악 안에 포함되어 있다.
- * 말씀의 목적중의 하나는 우리속의 악들의 해로움을 경고하는 것이다.
- * 목마름이란 진리의 결핍을 의미한다.
- * 굶주림이란 선함의 결핍을 의미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구약 성서의 마지막부분에 위치한 열 두 권의 책들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이 책들이 “소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 책들의 부피 때문이지 그 책들의 내용이 가벼워서가 아니다. 따라서 소 예언서들이 말씀의 다른 부분들과 동등하게 중요함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에 의해 보내져서 그 시대에 백성들이 빠져 있는 악을 지적하며 장차 그 악행의 결과를 경고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다. 예언자들 중 일부는 주어진 환상들을 받아쓰도록 명령되었는데, 사실 환상을 받아 쓴 예언자들 스스로도 그들이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 이유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단어들이 모두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예언은 그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이 거듭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그 중요성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주님의 말씀들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꽤 많이 공부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아모스서로부터 발췌한 본문 8장에는 두 가지 명백한 말씀이 등장한다. 그 중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에 관한 저주이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흔한 것들이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사업 면에서 속이기 일쑤며, 주님을 잘 예배하는 체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본문에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본문을 통해서도 물질적인 양식이나 물에 대한 부족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한 양식과 물보다 더 요구되는 것은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귀를 수단으로 하여 소리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내 말 들리니?”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귀가 멀어서 소리 자체를 듣지 못할까봐 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부모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너 내 말대로 할 거니?”일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서 듣는 것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본문인 아모스서의 구절들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자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 1반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상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본문 첫 절의 환상과 뒤의 메시지를 구별하여 진행한다.

성경의 목차에 적혀있는 첫 네 권은 대 예언서들로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이다.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열 두 권의 책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우리역시 본문과 같은 나쁜 일을 저지르도록 유혹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원하거나 남의 것을 가로채서라도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마음에서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골프장이나 낚시터에 가려고 하거나 혹은 예배를 보면서도 머릿속에 다른 일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분주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질문 및 요점 정리

- *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이 한 말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었다.
- * 예언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말씀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 * 예언자들은 말씀 외에 환상을 가지기도 했다.
- * 그들은 그들이 본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 그대로 그것을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 * 아모스서는 소 예언서의 세 번째에 해당된다.
- * 아모스는 스스로를 베들레헴 근처 드고아에 사는 목자라고 설명했다.
- * 그는 유다의 우찌야 왕 시대 때 살았다.

- * 이 시대는 히즈키야 왕 시대 이전이다.
- * 본문에서 아모스는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다음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가?
- * 제 11절에서는 어떤 양식과 물이 우리 영혼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제 2반

예언서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와 상응의 원리가 글자 상에 드러나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본문이 가지는 유용함을 강조한다.

아모스는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왕 보다 삼대 앞선 왕인 우찌야 왕 시대에 살았다. 그는 베들레헴 남쪽에서 6마일 정도 떨어진 드고아 마을 출신이었다. 우리는 7장 14-15절에서 그가 목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 수련생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의 백성, 에돔인들, 암몬인들 그리고 모압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말씀들을 주셨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에게는 말씀뿐만 아니라 환상도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이 본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받아써야 함은 알고 있었다.

본문은 아모스가 과일 바구니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몇 가지 죄악상을 지적해 주셨다. 하지만 5절의 첫 부분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예배를 위한 율법의 일부를 형식적으로나마 계속 준수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과 28장 11절을 보면, 새 달의 시작에 관한 율법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준수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들의 법령들에 대한 준수는 역겨움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신앙인으로 존경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더라도 예배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대화의 화젯거리만을 염두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계명이 있을 리 만무하다. 개역 성경의 5절에는 「에바」와 「세겔」이 서술되어 있다. 에바는 건조된 곡물의 히브리 계량단위로서, 우리말로는 「되」나 「말」의 표현이 적절하다. 세겔은 주조되지 않은 화폐의 무게를

젤 때 쓰는 계량단위이다. 따라서 그들이 저울이나 저울추를 어떻게 속였는가를 알 수 있다. 본문에서 특별히 흥미를 주는 구절은 제 11절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배웠다. 영적 의미란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의미로서, 안쪽의 의미 또는 내적 의미 곧 속뜻을 의미한다. 하지만 때때로 이 의미는 글자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지기도 하는데, 11절이 바로 그러한 구절중의 하나이다. 기근이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양식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구절에서 주님이 신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심을 보게 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요한복음 4장 13-14절을 읽어보면, 아모스서의 이 구절이 복음서들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굶주림” 또는 “배움에 목마름”이란 표현을 들을 때 그 뜻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돌이켜 보자. 상징적 언어란 아주 오래 전 사람들이 인간의 가시적인 현상들과 사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이뤄지는 것들과 상응됨을 알고 만들어서 사용하던 언어이다. 이스라엘 왕국 같은 나라가 아주 이기적으로 되고 주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의 종교가 야비위꾼 수준처럼 결만 번드레한 종교로 전락되었을 때, 그곳에 남아 있는 선량한 소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이 의미하는 바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마태복음 15-16절을 읽어보자. 우리는 이 구절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복음서 시대에도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했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 곧 선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 3반

여름(익은)과일 한 바구니의 상응과 파괴하는 악의 본성을 주로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11절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에 영적의미가 드러나도록 서술되어 있는 부분임을 설명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19장 8절도 살펴본다.

예언자들이 곧 주님을 대변한 사람들임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과 그들이 보고 기록한 모든 환상들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들이 깊숙이

감춰져 있음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씀들은 옛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해졌던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전시대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으로, 예언서들 안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의미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다. 예언자들 역시 그들이 본 환상이나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에 대해서 단지 그것들의 글자적인 의미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들과 환상들이 주님께 의해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었고 주어진 말씀과 환상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어 깊은 연구 없이는 예언서의 내적 의미를 아주 조금만 이해하게 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예언서들 안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나 필요성에 응용되거나 우리 행동의 직접적인 지침으로 응용될 수 있는 명료한 사항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스웨덴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해주셨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말씀의 속뜻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준비를 갖추 더 많은 내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도록 해주신다.

본문은 아모스서이다. 성경의 차례에 의하면, 아모스서는 소 예언서들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책이다. 아모스는 유다왕국 히즈키야왕 보다 삼대 선대인 우찌야 왕의 시대에 살면서 예언했다 (1장 1절 참조).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도 우찌야 왕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역시 비슷한 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요엘과 요나도 같은 시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아모스에게는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는 사제가 아니었고 '예언자의 학교' 혹은 '예언자 수련소'에서 교육된 적도 없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대략 6마일 떨어진 드코아라는 시골마을에서 목부 혹은 목자로서 생활하다가 주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돔인, 암몬인 그리고 모압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메시지와 환상을 주님께에서 받았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그들이 빠져 있는 악들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이 국가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예언했다.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종국에 가서는 회생된다는 희망과 그에 따른 행복을 약속해주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러한 희망의 약속은 아모스서의 마지막장인 9장 11-15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 첫 절에서 묘사된 환상으로 예시되어 있기도 하다. 스웨덴복은 첫 절의 여름(익은)과일 한 바구니에 대한 환상은 교회의 새로운 것이 존재 안으로 오는 것을 의미하고 2절과 3절에서는 구 교회의 끝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바구니란 빵이나 과일을 담는 용기인데, 이는 우리의 의지 부분을 상징한다. 우리는 의지 부분에 우리가 이루어낸 선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일은 선한 일을 상징한다. 여름이란 우리의 심정이 이타애(자비)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훈훈해진 때를 표현한다. 여름 과일 한 바구니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주어진 환상이다. 우리는 이 환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종교를 엮어 버렸는가와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표현이 되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허용하실 수 없었던 까닭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제 4-6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안식일과 각종 규정들을 계속해서 준수하긴 했으나 그것이 형식적이었을 뿐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탐욕이나 남을 억압하는 지배욕에 허용해 버렸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이 주님께 대한 예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의 행동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옮겨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선이 없게 된다. 한 마디로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아닌 설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과일이 없는 바구니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1절은 글자 그대로에 영적의미가 드러나 있는 구절들 중 하나다. 즉,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자 진심으로 원하는 이들과 이해한 것을 실천하고자 진실로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글자 안에 감춰져 있는 내적인 의미가 일부라도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속뜻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주님의 말씀을 청중함”으로만 만족될 수 있음을 명백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청중은 곧 순종을 표현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애야, 내 말 듣고 있지?”라고 물을 때, 부모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아마 “애야, 내 말 대로 하렴” 일 것이다. 영적 기근과 목마름은 말씀 속의 진리를 배워 그것에 순종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산상설교에는 팔복 중의 하나로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본문 11절을 기억하면서 위의 구절을 고려해보면, 말씀 속에서의 굶주림이나 목마름 또는 양식이나 마시는 것 등이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닌 어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고대교회인들은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상응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대부분을 상응의 언어로 말하고 기록했다. 따라서 그 시대의 말씀 역시 이러한 상응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사회에까지 전해지는 관용어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상응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는 알아”, “그는 이상이 높아”, “그 사람의 마음은 훈훈해” 또는 “그 사람은 앞에 목말라 있어” 등의 표현을 흔히 쓴다. 즉, 우리는 이와 같은 상응의 언어를 무의식중에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응의 언어는 느낌의 전달이나 사상적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간결하지만 깊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기본 상용 공부

바구니 =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인간의 의지부분

여름 = 이타애의 상태

목마름 = 진리를 갈망함

귀와 듣는 것 = 순종

제 4반

우리가 노력하면 소 예언서들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실용적인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소 예언서가 우리의 삶에 즉시 인용될 수 있다는 본보기로서 아모스서를 채택했다. 열 두 권의 소 예언서들은 각기 매우 짧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 중 요나서는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소 예언서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는 사항은 그것들이 예언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을 연구하고자 소 예언서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 책들의 역사적 측면만이 부각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한 국가나 개인 또는 한 장소나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과 주님의 의도가 자연적인 사건보다 영적인 측면에 초점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는 아모스서 1장 1절에 아모스가 우찌야 왕 시대 때에 예언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언제 어디서 예언 했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정확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예언이 우찌야 통치 때의 사건이나 조건들이 표현하는 교회 또는 개인의 하향길 속에 있는 특별한 단계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아모스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었으며 예언자 수련생도 아니었다. 아모스서 7장 14절의 그가 목부 또는 돌무화과를 가꾸는 농부였다는 기록은 퇴보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 열려 있는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퇴보되는 상태로 만연해 있었던 시대의 예언자나 예언자 수련생들은 모두 거꾸로 된 교회를 대변했다. 즉, 이사야서 30장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솔깃한 말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교회의 대변인들이 많았다. 반면에 아모스의 직업과 같이 목부나 돌무화과 농부는 그가 가진 선함을 보존하려 애쓰고 일상생활 속에서 의를 행하려 노력하는 사람을 표현한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 한 바구니를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핵하고 그들의 파멸을 예언하는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아모스가 본 지극히 단순하며 사랑스러운 환상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언뜻 본문을 읽고 아모스에게 그 환상이 주어진 까닭을 글자적인 의미를 통해 추측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시편과 예언서」에서 아모스서 제 1절에 대해서 “교회의 새로운 것이 존재 안으로 오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 절을 보다 광범위한 주제인 “이런 교회 대신 새로운 교회”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 2과 3절에 관하여 “옛 교회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전적으로 황폐되고 파멸됨”이라는 주제와 관련된다.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처음 보여 지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배경을 지나 그를 받쳐주기 위해 주시는 빛나는 약속이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떠받쳐 주기 위해서 영계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여름과일 한 바구니란 선한 일로 이끄는 이타애로 가득 찬 마음을 그린다. 또한 이것은 한 개인 속에 있는 진정한 교회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아모스서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악한 실태는 여름과일이 담긴 바구니의 환상과는 직접적으로 대비된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사업에서도 부정직했다. 또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만을 지키며 그 형식 속의 주님은 고려하지 않았고, 내심으로 악만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생활은 결국 영적 파멸과 죽음을 초래한다. 이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을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고 책망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다(마태복음 23:23 참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을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 놓고는 사람들을 가로 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신다. 이는 본문 11절에서 미리 언급된 것이다. 선한 자가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말씀을 읽고 소유하면서 가르쳐질 것으로 기대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 지상에서 존재했던 교회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때마다 주님께서는 옛 교회에 속하기는 했지만 소수의 선한 사람들로부터 새교회를 일으키셨던 것이다. 예언서들은 고대 유대교회의 황폐해짐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태고교회나 고대교회의 경우보다 더욱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유대 교회는 주님의 강림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첫 기독교회의 쇠퇴와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공부를 신실한 마음으로 임하는 자들은 아모스와 같이 여름과일 한 바구니에 대한 환상을 보도록 허락된다. 우리가 보게 되는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의 응용은 이기적이며 모독만을 일삼는 세상 삶의 홍수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주며, 우리의 이해성이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도록 열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제 5반

소 예언서들에 관한 개요를 설명한 후 아모스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도록 도구를 주셨다는 것과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함도 강조한다.

우리는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서의 끝을 맺고 있는 말라기서까지 이르는 열 두 권의 책들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이 소 예언서들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암송하며, 특별히 요나서의 경우는 대략의 줄거리를 기억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 예언서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면 친숙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책들이 너무 짧아서 각 책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지도 모른다. 많은 학자들이 열 두 권의 책들을 적합하게 배열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는 오바디아서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이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배열된 순서이며, 연대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순서라고 생각된다. 일부 소 예언서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 배열되었고, 또 다른 일부 책들은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사건을 기초로 하여 그 순서가 판가름되기도 했다. 사실 새교회인들은 위와 같은 책의 순서보다는 그 말씀 속의 의미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그 이유는 내적인 의미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본문인 아모스서는 위의 문제들과 소 예언서들의 의미를 공부함에 있어서 다리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소 예언서의 일반적인 방향과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교훈도 알려준다.

아모스는 자신의 신상내력을 그대로 예언서에 드러나도록 한 예언자들 중의 한명이다. 아모스

서 첫 장 첫 절에서는 그가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가 유다의 우찌야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시기에 예언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아모스가 이시아나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이었고 그가 전한 말씀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왕국의 백성들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그의 거주지가 베들레헴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그가 유다왕국의 백성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7장 14-15절에서 아모스는 자신에 관하여 “나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요 돌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가장 큰 원리를 한시도 뇌리에서 떠나게 해서 안 된다. 즉, 우리의 이해성이나 상상력이 미약하여 영화나 상상력을 동원한 종교 소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이해성을 위한 보약이 되게 하여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에 대한 내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에 포함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이모저모를 통해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재림으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주 희미한 이해만주는 예언서의 부분에서도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영적 계발의 계기를 얻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가 바로 본문 초두에 기록된 환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웨덴북의 도움없이 그 구절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 예를 “여름과일, 즉 다 익은 과일, 이 과일은 곧 시들어 떨어진다. 고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다 무르익었음을 표현함”이라고 설명된 국제 성서의 주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해석은 한정된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의 글자적인 의미로 만들 수 있는 논리적인 추리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북은 우리를 위해 「시편과 예언서들」에서 “교회의 새로운 것이 존재 안으로 오고 있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절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련되어 “이전의 것 대신 새로운 교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보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 환상을 살펴보아야함을 알 수 있다. 이 절에 대한 상세한 주석은 스웨덴북의 어느 저서에도 첨가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저서 「천국의 신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석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상응들을 찾을 수 있다. 즉, 요셉과 빵을 굽는 시종장의 이야기에서 음식을 담는 그릇 바구니란 우리속의 의지 또는 자발적으로 행하려는 부분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또 창세기 8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언약 부분의 주석으로부터 여름이 이타애의 상태를 표현함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상응들을 종합해 보면, 여름과일 한 바구니란 의지가 이타애로 선한 일을 생산하는 새로운 교회를 그려줌을 알 수 있다. 이 진정한 교회와 대조되는 제 4-6절에서의 이스라엘 교회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종말이 피할 수 없었던 원인을 명확히 보도록 해준다.

예언서 전체를 망라하여 악에 대한 탄핵은 그것이 빠르던 늦던 간에 일단은 선한 이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언제나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은 아모스서 제 9장의 후반부에 이를 때까지 아모스에 의해서 실제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구원과 더불어 새로운 교회가 도래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주위 조건이 8장 11-13절에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이 절을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있었던 그분의 서술과 비교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 볼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6절이다. 사실 본문의 11절은 영적인 뜻이 글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문단들 중 하나여서 신실한 태도로 성경을 읽는 신앙인들에게 그 구절을 통해서 다른 많은 구절들의 의미를 계발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과 물을 길으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 예다. 스웨덴본은 이런 말씀의 경우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나 드러내 놓고 있는 얼굴이나 손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스웨덴본의 저서에는 아모스서 8장으로부터 인용된 부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천국의 신비」 제 3693항에서 본문 제 9절인 “대낮에 해가 꺼지고”와 같은 경우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이들에게 진리가 희미해짐”을 명시한다는 것과 제 4779항에서 본문 10절인 “굶은베를 허리에 걸치고”와 같은 경우는 “자기 속의 선들이 파괴되었음에 심히 통곡함”을 명시한다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설명」 제 386-11항에서 제 11절에 대한 의미와 「천국의 신비」 제 3923-6항에서 14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언서는 우리의 이해성을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공부하고 주님께서 미리 설비해 두신 수단을 마음에 받아들게 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예언서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단지 당시의 국가들이나 백성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이해성에 보내는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소 예언서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 7장 25-26절의 “오늘에 이르도록 나의 종 예언자들을 줄곧 보냈지만,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고집이 세어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못되게 굴고 있다(공동번역).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중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본 반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참고 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386-22항: “ ‘양식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의 결핍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회나 교회의 교리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녘에서 동녘으로 돌아다니며 야훼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에서 발견된다.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다’ 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이란 모든 측면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영계에서의 가장 바깥쪽은 선과 진리들이 시작되고 종결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말씀에서 ‘바다’란 선과 진리를 인지함 또는 넓게 보면 일반 지식들을 의미한다. ‘북녘에서 동녘으로’란 선과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방 각처를 의미한다. 북쪽은 진리가 희미하게 보임을, 동녘은 선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다음 절에서 “그날이 오면 아름답고 씩씩한 젊은 남녀들도 목이 타서 쓰러지리라”하고 말해진다. ‘아름다운 처녀’란 선으로부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씩씩한 젊은이’란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 자체를 의미한다. ‘목이 타서 쓰러진다’함은 위와 같은 선과 진리의 결핍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있는가?
- 2) 왜 우리는 그 책들에 “소”라는 말을 붙이는가?
- 3) 이 책이 쓰여 진 가장 이른 연대는 언제인가?
- 4) 이 책 중 마지막 세 권의 연대는 언제인가?
- 5) 이 책들 중 아모스서는 몇 번째에 들어있는가?
- 6) 그는 언제 살았는가?
- 7)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8)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9) 그는 누구를 향해 예언했는가?

- 10) 본문은 어떤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 11)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12)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제 11절은 어떤 종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하는가?
- 14) 복음서의 팔복 중 몇 번째가 위의 11절과 같은가?
- 15)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12권 2) 짧아서 3) B.C. 800년 4) B.C. 400년 5) 3번째
- 6) 우찌야 시대 (약 B.C. 800년) 7) 드고아 8) 목부
- 9) 이스라엘,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족들 10) 여름과일 한 바구니
- 11) 속이고 훔치고 12) 국가가 망한다 13) 말씀을 듣지 못함 14) 4번째
- 15) 심정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듣기 위해 지성을 열면 된다.

25

강림에 대한 예언

머리말

성경의 두 부분과 단어 「Testament, 성약」의 의미를 설명한다.

성서 본문: 말라기서 3장 (개역 3,4장)

3장: 1.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터 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똥을 걸러 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5.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품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 of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6. 나는 야훼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여전히 야곱의 후손으로 대접하리라.

7.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 법규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 가겠습니까?”하고 묻는다. 8.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9.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10.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공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갠아 주는지 갠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1. 내가 해충을 막아 땅의 소출을 축내지 못하게 하고 포도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2. 너희가 사는 이 땅은 낙원이 되어 못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13.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그러나 14.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배웃을 입고 울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15.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 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지 않은가!’ 16.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책에 적어 두고 잊지 않으리라. 17. 내가 나서는 그 날에 가서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 주리라. 18.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19. 보아라. 이제 풀무불처럼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오면, 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검불처럼 타 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0.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니, 너희에게는 승리의 태양이 비쳐와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풀려 뛰어 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 21.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그 날이 오면, 나쁜 자들은 너희 발바닥에 채처럼 짓밟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2.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나의 종 모세를 시켜 온 이스라엘에게 내린 법과 규정과 계명을 되새기도록 하여라. 23. 이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24.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교리 요점

- * 주님의 오심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예언되어져 있다.
- *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만을 말했다.
- * 자신의 지혜를 신뢰함은 신앙과는 정반대이다.

* 선한 자는 언제나 구원될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본문으로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다. 단어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특사”라는 뜻이다. 말라기를 통해 주어진 예언들의 주된 내용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수 백 년 동안 그분을 따른 유대인들 중의 선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고대 유대교회는 이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혼혼함과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이라는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곳으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서 말씀을 자신들의 세상적인 방법에 이용함으로써 결국 선한 사람들까지도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말라기서 이후 사 백 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예언자도 보내주지 않으셨다. 말라기를 통한 예언이 그들에 대한 마지막 권고이자 경고였던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젠가 그분 자신이 세상에 오실 것임과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한 자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도록 준비될 것임도 약속해 주셨다. 본문 제 17절은 위의 약속을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위한 아름다운 글이다. 즉, 그들이 선하게 남아 있다면 그들이 주님의 보석중의 하나로서 세어짐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본문 20절도 위의 구절같이 주님의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이다. 우리가 진실로 선남선녀가 되고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이해성에 명백한 진리의 빛이 드리워지고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혼혼해지며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했던 각종 질병들이 모두 치료될 것이다.

제 1반

성서의 두 부분, 단어 「Testament」의 의미, 예언의 의미,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방법상의 차이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본성 그리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미치는 주님의 오심의 차이점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본 반에서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성서가 신약과 구약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성약, Testament」이란 엄숙한 계약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 성서 안에 있는 성약들은 주님께서 지상의 인간과 만드신 엄숙한 계약에 관하여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 온 성경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살피 주시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서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이러한 약속들을 인류에게 주셨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 인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대로 거룩한 땅 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러한 엄숙한 계약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실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님께서는 구약 성서의 마지막장에 해당되는 이곳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분 자신이 세상에 오셔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악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심을 두려하게 될 것이나 선한 백성들은 그분을 환영할 것이다.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말함을 예언이라고 한다. 3장 20절(구번역 4:2)은 주님의 오심이 선한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를 알려준다. 우리 모두는 태양이 우리 주위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며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주님의 오심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태양이 만물을 밝고 명확히 보도록 해 주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고 올바른 삶을 사는 길을 명확히 보도록 해준다. 따라서 성경에서 대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뜻하고,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선한 이들이 그분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자 엘리야가 보내질 것이라고 예언 되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세례자 요한이었다.

제 2반

성경의 구조, 신약과 구약의 차이, 성약의 의미, 무지로 인한 잘못과 알고 행한 잘못의 차이점, 악이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앞서서 이익만을 앞세우기 위해 들어 누어있다는 것 그리고 신약 성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살펴본다.

우리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70년 후에 거룩한 땅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된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포로가 된 백성들 모두가 귀환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바빌론에서의

생활을 넉넉하게 여겨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귀환하는 이들에게 돈이나 양식 등을 주며 도와주었고, 페르시아 왕은 과거 바빌론 왕이 강탈한 성전의 집기나 보물들을 되돌려 보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은 지연되고 말썽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언서에서 언약궤가 다시 제자리에 안치되었다는 언급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후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하깨와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라는 세 명의 예언자가 있었다. 단어 「말라기, Malachi」는 히브리어로 “나의 전달자 또는 특사”라는 의미이다.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것임을 예언했지만, 특별히 본문의 예언들은 신약 성서와 구약성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다.

3장 1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될 특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 “언약의 사자(특사)”로서 주님 자신에 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첫 번째는 두 번째를 위한 준비임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심으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과의 새로운 계약 또는 동의를 만들 것임이 예언되고 있다. 이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4-35절과 마태복음 5장 17-18절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새로이 만드신 계약이 사실 오래 전부터, 즉 구약 성서에 있어 왔던 계명들을 지킴에 기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새로운 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서에 언급되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약 성서에서 강조해온 순종이라는 명령과 더불어 한 가지 사항이 더 요구된다는 말이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류의 기준은 각자의 관심사가 무엇에 우선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즉,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우선시하는 이들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올바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이들로 분류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말라기를 통하여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고집하는 길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로 되돌아온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번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심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 말라기의 예언이 있는 후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어떤 예언자도 그 땅에 보내지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를 지킴에 있어서 의례적인 형식만을 준수했을 뿐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사항을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우리의 정서적인 것과 인격적인 기반은 우리가 자라난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장 먼저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자란 가정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되며, 주님에 대한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됴됨이와 삶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들도 많다. 그들 역시 좋은 의도심은 가지고 있으나 환경적인 기회가 없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많다. 요시아 왕에 대한 공부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그가 율법서를 발견했을 때 역대의 왕들이 주님께 얼마나 반역했고 그의 백성들이 주님께 얼마나 불순종 해왔는가를 심각하게 느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몰라야 했던 이유도 있었다. 그 이유는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행해왔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천둥과 번갯불 같은 전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희망 따위는 아예 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섭리는 그들이 행한 것이 나쁘다는 정도의 인식만이 그들에게 있어지도록 한 뒤 그들로 하여금 나쁜 행동들을 포기하도록 격려하시면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여 점차 올바른 길에서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차차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더 심오한 것들을 배울 준비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선한 이들을 인도하신 방법이다. 그러나 사제들과 바리사이파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진실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러한 이기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오로지 더욱 부유해지고 권세를 누리게 해주는 것들만 가르쳤다. 이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읽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선한 이들과까지도 말씀에 무지하여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특사가 보내져야 했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서는 본문에서 그분의 오심이 악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 * 주님의 오심은 선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제 12절(개역 4:2)에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오심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는가?
- * 주님의 길을 준비할 특사는 누구인가?
- * 그는 무엇을 한다고 예언되었는가?

* 이 준비는 왜 필요했는가?

제 3반

고대 유대 교회에 보내지는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말라기서의 위치와 당대에 관련된 말라기서 예언의 넓은 의미 그리고 본문의 구절들에 대한 상응을 살펴본다.

본문은 구약 성서에 대한 본 공과의 마지막 부분이다. 구약 성서에 있는 마지막 세권의 책들은 유다왕국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후 예언된 것들이다. 말라기 시절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는 모세를 통해 규정된 의식에 따라 거행되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 대부분의 마음 상태는 이전과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진실로 주님을 섬겨보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없었고 오로지 과거 그들이 가졌던 부귀와 나라의 권세가 재건되고자 하는 희망에서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지 않고 그들을 위한 위대한 국가도 건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조차 유지하기가 힘들어져 여러 나라에 수차례 정복되어 결국에 타국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그들은 불안정한 제물을 주님께 바침으로 인해 하느님의 것을 도적질하기 시작했다 (말라기 1:7-8, 3:8). 그리고 “하느님을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라고 투덜거렸다. 또한 그들은 히브리 아내들을 멀리하며 타국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그들이 주님께 의해 마지막으로 경고된 때를 위해 그들의 악이 꼬집어내어졌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며 번영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그 악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되어졌다. 유대인들의 나라는 말라기 이후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대부분의 세월을 남의 지배하에 억눌려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떤 예언자도 그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말라기 시절의 악한 자들 사이에는 선한 백성들도 속해 있었다. 말라기서의 주요한 말씀은 이러한 선한 이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예언은 다른 예언자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언의 목적은 선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400여 년 동안 주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은 선한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언급되는 시므온이다. 그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 16-18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들은 주님의 값진 보석 또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되고 있다. 스웨덴북의 저서에는 값진 보석들이란 신성한 사랑에서 투영되는 진리들을 표현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천사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선과 그들 안에 있는 지혜가 설사 그들의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모든 선과 지혜가 그들을 통해 행하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임을 늘 알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지혜를 받아서 전달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세상의 천사들이 된다. 이는 천사란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 역시 히브리어로 “나의 전달자”임을 기억해 두자.

본문에서는 두 명의 특사가 거론되고 있다. 그중 한 특사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언약의 특사(사자)”라고 불린다. 「성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언약 또는 동의함을 뜻한다. 구약성서는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언약이 이행되어 감을 기술한 것, 즉 만일 사람들이 시나이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례들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번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이행이다. 성경에서 누차 살펴 본 바대로 유대인들의 나라는 거둬하여 이 언약을 깨트렸고 급기야 그것을 모독하기까지 이르렀다. 주님께서서는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임을 이미 예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서 전체를 망라하여 주님께서 직접 언젠가 세상에 오셔서 남아 있는 선한 이들과 새 언약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거둬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의 예언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들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때는 사악한 자들에게 참혹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제 3장 20절 (개역 4:1)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개인의 측면보다 인간 역사의 측면에서 성취된 느낌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의 내용이 우리 개인의 측면에서도 응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한 이들에게 있는 주님께서 오시는 결과는 3장 19절(개역 4:2)에서 기술되고 있다. 창조 이야기에 4일째 되는 날 태양이 나타나는데, 이때 해의 출현이란 우리의 심정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발달되는 때를 묘사한다. 영문성경의 3장 20절에는 “But to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shall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라고 기록되어 있다. 날개(혹은 개역 성경에서의 광선)란 세상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려주는 힘, 즉 내면 또는 영적인 생각을 상징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인간에게 가져오신 것으로서 선한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식별하도록 하여 그들이 악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리하여

개역 성경에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라고 번역된 것이며, 공동번역에서는 “너희의 병을 고쳐 주리라”라고 번역된 것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식별은 빛(광선)이 비취질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영혼의 병은 우리속의 악이며, 그분이 오시면 선한 자의 병은 고쳐지게 된다. 그러나 선한 이들 역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많은 잘못된 행위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선의지를 가진 이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 행해왔던 많은 악행들을 느끼고 실감하게 되면, 자포자기해버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범하게 되어 스스로에게 아주 큰 해를 입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과오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며 그것을 하나씩 고쳐 나가 그들 심정속의 깊은 악들까지 완전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온화하며 슬기로운 방법이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선의지를 보존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루신 방법이기도 하다.

3장 20절에서는(개역 4:2) “외양간에 매여 있던 소가 풀려 뛰어나오듯 너희는 밖으로 나와”라고 전하고 있다. 소 또는 송아지란 삶의 외면에 있게 되는 선들을 상징한다. 그런 다음 21절에서는 “나쁜 자들을 짓밟으리라”라고 말해진다. 이 구절은 선한 이들이 그들 스스로 악들을 이겨내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모세의 법을 되새기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순서는 진실로 선해지고자 하는 이들이 겪어야 하는 재구성의 단계이다. 즉, 처음에 계명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배워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자신 속의 이기적인 욕구와 싸워 이겨냄을 묘사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바로 재구성의 이모저모에 대한 표현임을 배웠다.

본문 시대의 교회는 완전히 전복된 상태여서 선한 사람들은 그들이 소속된 교회로부터 해야 할 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임과 예언자 엘리야가 보내져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 준비될 것임이 약속되었다.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와 성취된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부하게 될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태양 = 주님, 신성한 사랑, 주님을 사랑함

날개 = 영적 진리

송아지 = 외면의 선(실생활에서의 선)

제 4반

유다 백성의 귀환과 그 결과는 고대 유대교회의 마지막 시기와 유대인들이 장차 올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유를 알려준다. 이에 따른 말라기의 예언들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간략히 살펴본다.

말라기란 히브리어로 “나의 특사(전달자)”란 뜻이다. 어떤 이들은 말라기란 단어가 예언서의 책이름이기 때문에 실존했던 인물의 이름이 아닐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말씀속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영적인 의미와 연관된 의미를 담고 있고, 이렇게 담겨진 내적 의미야말로 주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진정한 목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며, 각각의 예언자들은 각기 다른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말라기의 말씀은 소 예언서의 마지막으로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에 해당된다. 말라기가 전하는 말씀은 첫째로 주님의 생애와 관련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영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세상에서의 주님의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 공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의미들 중에서 주로 개인적인 측면을 공부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계로 개인적인 측면보다 글자적인 의미나 역사성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왕이 등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한 줄거리는 에즈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책들로부터 포로로 되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귀환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과 귀환한 백성들이 그들의 귀환이 허용된 이유인 성전의 완성과 예배의 회복에 대한 것보다 그들의 집의 재건이나 땅을 차지하고 복구하는 것에 더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세상적인 목적물만을 추구했던 구습에 다시 쉽게 젖어 들었고,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 귀환의 초기에는 예언자 하깨가 보내져 성전을 완성시키도록 촉구되었다.

그 뒤 즈가리아가 보내졌고, 말라기가 마지막 경고를 하도록 보내졌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 세레자 요한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예언자도 이 백성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이러한 400여년의 시대에 대해서 “경외서, Apocrypha”라는 책들이 알려주고 있지만, 이것들은 기독교의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동안 이 백성들은 타국가의 지배하에 있었다. 우리는 복음서의 시대 때에도 로마제국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그들을 통치하는 유대인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로마제국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들의 외적 역사에 해당된다. 우리는 본문에서 당대 사람들의 내적 상태와 그 국가 역사의 나머지 시대 동안의 상태를 볼 수 있다. 3장 5-15절에서는 이 나라가 빠져버린 악들을 함께 묶어서 묘사되고 있고, 그 외의 악들이 1장과 2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특별히 14-15절을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귀환한 백성들 대부분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그들이 누렸던 부와 번영을 회망하여 귀환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때 그들의 예배 동기는 이기적이기만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때에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16-18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여태껏 살펴본 바대로, 어떤 교회가 기울어져가고 있을 때일지라도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즉, 이들이 더 이상 진리를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남아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이들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실 수 있으셨다. 우리는 진리에 무지하더라도 심정이 선에 기울어져 있는 이들을 “그루터기 또는 남겨두신 것”이라고 부른다. 이는 농부가 겨울이 와서 마치 죽은 듯 지내지만 봄을 기다리며 종자 씨를 겨울 내내 잘 보관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제 5반

개인적인 응용에 초점하여 본문의 의미를 살펴본다.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사건을 상기해보면, 코라와 250명의 회중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질투하면서 성막 문간에 그들의 향을 바쳤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태워버렸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추켜 세우려는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한순간에 미움으로 돌변하는가를 묘사한다. 「천국과 지옥」 제 570항에서는 “지옥은 자아에 와 세상애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욕망도 해당

된다. 욕망이란 꺼지지 않는 열정인데, 이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옥의 불 역시 기쁨을 주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원하고 열망하는 것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을 스스로 기쁨으로써 인정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있는 인간이 기뻐하는 것은 이 밖의 다른 것로부터는 근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옥불은 욕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기쁨이며, 이것의 근원은 자아애와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악들은 타인을 경멸하고 증오한다. 또한 자신을 높여주지 않는 이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시기하며 미워하고 복수심으로 불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흥폭함과 잔인함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랑들은 신성한 것들에 관해서도 부정적임과 동시에 경멸하고 조롱하는 바, 교회속의 모든 거룩한 것의 가치를 손상시킨다. 그리고 죽은 후 영이 될 때 이 악들은 인간 안에서 거룩한 것에 대항하는 분노와 미움으로 된다.”라고 서술된다. 말라기 3장 19절(구번역 4:1)은 위의 해석에 대한 증거로 인용되는 구절들 중 하나다.

말라기 시대 때에 위와 같이 영적으로 파괴적인 자아사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음은 본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5-15절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항하여 있어야 할 백성들의 임무들로 명백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로부터 수백 년 후 주님께서 계셨을 때의 그들의 상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말라기와 그 이전의 두 예언서들은 바빌론에서 귀환한 후의 예언들이다. 세 권의 책들 중 가장 앞에 놓인 하깨서는 귀환 후 이십 년이 채 되기 전의 시기에 해당되는데, 그 때부터 백성들은 이미 성전의 재건을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그 땅에 있던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의 백성들과의 결혼도 거침없이 하던 실정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과거 쓰라리게 당한 체험에 의거한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말라기 이후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특사로 등장할 때까지 어느 예언자도 그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던 것이다. 종교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본문의 14절에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 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라고 잘 요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 때에 선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제 16절은 악의 세력이 다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이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선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제 17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약속은 주님을 진실로 흠모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음성이 없었던 사 백년 동안에도

이러한 소수의 선한 사람들이 꾸준히 악에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웨덴북의 저서로부터 교회가 황폐해질 때 주님께서 늘 새교회를 지으실 그루터기에 해당되는 소수의 선한 사람들을 보존하셨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사야 17장 6절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하여도 올리브를 떨고 나서 끝가지에 두세 알, 열가지에 네댓 알 남아 있듯 하리라.”라는 말씀이다. 오랜 시기동안 예언자들을 통해 만들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소수의 선한 사람들을 지탱하도록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예증을 누가복음 2장 25-38절의 안나와 시므온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말라기 3장 19-20절에서 주님의 오심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있어질 결과를 소멸하는 불과 떠오르는 태양으로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태양을 환영하지 않는 이들은 자연적이든 영적 차원이든 간에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었다. 모든 선한 이들은 태양의 밝음과 따뜻함을 환영한다. 그래서 정의의 태양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게 된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283-9항에서는 정의의 태양이란 천적인 신성을 상징하고 여호와와 날개는 영적인 차원에서 있는 신성 또는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사랑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 온 여타 진리들을 상징한다고 설명된다. 넓은 의미에서 날개란 우리 생각을 세상적인 평면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 주는 영적인 진리들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이 진리들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관계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로 상징되는 진리는 수많은 고뇌와 한계성에서 우리의 지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안목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외양간의 소가 풀려 뛰어나오듯이 된다”고 본문에서 묘사되는 것이다. 주님의 오심은 바깥으로 뻗는 우리의 애정을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21-22절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애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계명에 따른 삶을 즐겁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차후의 공부 과정에서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서와 더불어 우리의 구약 성서 과정은 일단락 짓게 된다. 그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유의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마지막 절이 “자식 또는 자녀”로 번역되어 있으나, 그것을 직역하면 아들이 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와 같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진리를 표현한다는 영적인 해석에 원어인 히브리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724항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가운데 항상 자녀라는 단어 대신 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 구절로부터 결말 되는 것은 ‘어른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아들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린다’는 것이 영적인 선이 진리와 결합하거나 진리가 선들과의 결합을 촉진시킴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에 의해 거듭남이 있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거듭남은 선과 진리 그리고 진리와 선이 결합될 때 있어지며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태양이심과 신체적인 눈 속에 백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에 갑자기 노출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짐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강림시 주님의 목적중의 하나는 “눈먼 자를 보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 시대의 선한 단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는데, 이는 말씀속의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지도자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덮어놓아 그 의미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라는 엄청난 진리의 빛이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강하게 비추었 다면 그들의 영혼은 자포자기하거나 자기파멸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특사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8159-2항: “영적인 교회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시험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수행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인간으로 이들을 위해서 지옥에 대항해 주셨는데, 이는 말라기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의미된다. 이 구절은 주님의 오심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이 구절에 있는 ‘레위 후손’은 영적인 교회 속에 있는 이들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레위란 이타에 또는 영적 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장간의 불길’은 시험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시험에 의해 순수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 구절 속에서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됨’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란 믿음과 이타에이고, ‘옛날 그 한 처음’이란 고대 교회시대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질문 정리

- 1) 소 예언서는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 마지막 세 권의 책은 언제 예언되었는가?
- 3) 세 권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책은 누가 예언했는가?
- 4) 말라기란 무슨 뜻인가?
- 5)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 6) 말라기는 어떤 큰 예언을 하고 있는가?
- 7) 그는 그분의 오심이 무엇 같다고 말하는가?
- 8) 그분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9) 그분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 10)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내진다고 했는가?
- 11) 주님의 오심은 왜 떠오르는 태양 같다고 했는가?
- 12) 말라기 이후 세례자 요한 때까지 왜 예언자가 보내지지 않았는가?
- 13) 왜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준비되어야 했는가?

질문의 답

- 1) 12
- 2)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 3) 말라기
- 4) 나의 특사
- 5) 십일조 법에 불순종함
- 6) 주님의 오심
- 7) 정의의 태양
- 8) 그들을 짓밟으리라
- 9) 그들을 치료해 주리라
- 10) 엘리야
- 11) 따뜻함과 빛을 가져오기 때문
- 12)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
- 13) 주님의 진리가 갑자기 들이닥친 결과로 자아 파멸이 있을 것이기 때문

26

세레자 요한의 출생

머리말

구약 성서를 공부할 때는 지리적인 배경의 설명을 추가해 왔으나 신약 성서의 공부에서는 하나의 지리적인 배경만 있게 된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였다. 본과를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래아 바다, 가파르나움, 요르단강 건너지역 그리고 예리고의 지도상 위치를 기억해둔다. 본문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나 주님의 탄생이 성탄절 공부에서 다루지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구약성서와의 연결점을 강조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장

1장: 1.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 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3.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께 써 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이비야 조에 속하는 사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즈가리아였고 그의 아내는 사제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8. 어느 날 즈가리아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9. 사제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 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뽑아 정하였는데 즈가리아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10. 안에서 즈가리야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즈가리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서 있었다. 12. 이것을 본 즈가리야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 그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즈가리야, 하느님께서 네 간구를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의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16.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 올 것이다. 17.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18. 이 말을 들은 즈가리야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시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말하자 19.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일러 주었는데 20.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즈가리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22.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즈가리야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병어리가 된 즈가리야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시늉만 할 뿐이었다. 23. 즈가리야는 사제 당번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 왔다. 24.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다섯 달 동안 들어 앉아 있으면서 25.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 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26.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 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하고 인사하였다. 29.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31.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33.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34.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자 35.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37.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38.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 갔다. 39.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 가서 40. 즈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42.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43.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44. 문안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에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45.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46.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48.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50.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51.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52.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53.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54.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가량 함께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하였다. 61.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하며 62.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63. 즈가리야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64. 바로 그 순간에 즈가리야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65.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67. 아기 아버지 즈가리야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 예언의 노래를 불렀다. 68.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 와 해방시키셨으며, 69.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 하심이요, 72.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시고 73.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시어 75. 떳떳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 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76.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 되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77.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리니 78.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어 79.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80.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다.
- * 신약성서 안에 구약 성서가 꾸준히 인용되어 신약과 구약이 함께 묶어져 있으므로, 그 둘을 분리하면 둘 다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 진정한 믿음은 주님에 관한 조그만 지식까지도 흠모한다.
- * 우리속의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도록 만든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의 내용은 아주 길지만 그 안의 각각의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서만을 읽어야 한다고 여기거나 구약 성서에서 십계명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들은 십계명까지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에 관한 지식 없이는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구약 성서가 전 복음서에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약과 구약의 두 성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두 특사에 관한 예언을 읽게 된다. 그중 하나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엘리야이다. 다른 하나는 “언약의 특사”인데, 이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이 두 예언이 성취되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낳을 아기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에게서 탄생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이천 년 전 세상에 오셨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크게 여기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가끔 잊고 살아간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가정에 더욱 가까이 와 계심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들여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심을 느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 들어오시도록 마음 문을 열어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시도해 보자.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졌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마태복음 3:2). 천국은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적인 것들에 쏠려 있는 동안은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이 닫혀 있게 되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게 된다. 이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회개이다. 우리는 회개가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상의 것을 의미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회개란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비추어 보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우리 마음속의 그릇된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지침을 뿌리째 뽑아 던지는 것이다.

제 1반

말라기서의 엘리야에 대한 예언, 세레자 요한의 탄생, 요한의 예언과 그 결과 그리고 그가 베푼 물세례를 살펴본다.

성서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본문은 신약성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서이다. 모든 복음서들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 그분의 삶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도록 누군가가 보내질 것이라는 말라기서의 예언을 기억한다. 말라기의 예언은 예언자 엘리야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진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게 된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 번 읽어 보도록 하자. 구약성서의 원어는 히브리어이고, 신약성서의 원어는 그리스어이다. 영어 성경의 경우 Elias(엘리아)라는 이름으로 쓰여 있기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Elijah(엘리아)가 그리스어로 바뀐 것이다.

본문에는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그의 아들이 약속되어진 엘리야일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주님의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성소에서 주님께 분향을 드리고 있었다.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자신이 전하는 말이 진실 됨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징조를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즈가리아가 병어리가 되어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이 태어난 후 즈가리아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리게 되자 그가 한 말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였다.

요한은 성장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에게 오곤 했다. 그는 엘리야와 거의 같은 옷차림으로 살아서, 모든 이들이 그를 주님의 예언자라고 인식했다. 주님께서도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약속된 특사라고 사람들에게 언급하신 적이 있다. 요한은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곧 오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행하고자 하며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모든 이들은 회개하면서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리하여 우리가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제 2만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주어져 있다. 구약성서와 본문과 연결됨을 살펴보고, 회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서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주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것으로서 따로 취급하고자 한다.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에 관한 것이다. 말라기서 3장 첫 절에는 두 명의 특사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다. 첫 특사는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다른 특사는 “언약의 사자(특사)”로서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두 가지 약속들의 성취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말라기서의 예언은 주님의 오심이 사악한 자들에게 파괴적인 불이 되며 선한 이들에게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이들의 부류에 속한 이가 바로 즈가리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며 첫 대사제였다. 주님께서는 크게는 레위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사제직을 맡도록 그들을 다른 지파들로부터 분리하셨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별도의 영역을 배당 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 내에 흩어져 살면서 그 영토내의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도록 했다.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한 후 사제들은 여러 조로 나뉘어서 성막을 살폈으며,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 년에 한 달씩 조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했다. 분향제단은 성소 내에 설비되어 있었는데, 이 제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다. 향을 태우는 일은 사제들이 해야 할 예배의 정구항목이었다.

본문의 뒷부분은 천사가 말한 약속의 성취에 관한 것이며, 이는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됨도 보여준다. 요한이 출생한 후 즈가리야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신앙 고백과 주님에 대한 찬미였다. 찬미 또는 찬송이란 주안에서 “복됨”을 뜻한다.

주님 시대 때의 거룩한 땅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북쪽에는 갈릴래아,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그 두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이란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난 뒤 아시리아로부터 이주된 외국인들의 후손들이었다. 일부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지역에 살고 있었다. 갈릴래이는 “이방인들의 갈릴래아”라고 불릴 정도로 타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소원하며 구약 성서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소수의 선한 백성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 중에 한 가지 특별한 예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특별히 예언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언된 시기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어머니 역할을 맡도록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마리아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23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여기서의 두 이름은 주님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임마누엘(Immanuel)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며, 예수(Jesus)란 “여호와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말씀은 이 두 이름에 의해 탄생될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말씀에서 네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9절과 26절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절들에서 볼 수 있다. 스웨덴북은 가브리엘이라 불리는 천사란 한 명의 천사가 아닌 한 단체로서의 천사들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 자신이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에서 배우기를 사랑하며 동시에 가르치기를 사랑하는 천사들이 모인 사회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사촌인 엘리사벳에 관한 일을 말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벳을 보러 갔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주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낳게 될 여자임을 보여 주셨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다. 그리고 이 두 단어들은 모두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한다. 엘리사벳이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확증한 후 마리아가 노래한 46-55절은 오늘날 마리아의 찬가(Magnificat)라고 불리는데, 이는 특별히 성탄절 때에 자주 불리는 찬송이다.

천사는 즈가리야에게 “네게 태어날 아들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라고 전했다. 영어 성경(KJV)에서의 Elias(엘리아)는 히브리어 Elijah(엘리아)의 그리스어

적인 발음이다. 과거 엘리야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상을 나열하여 보여주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고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한의 메시지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즉,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라는 것이었다. 요한은 과거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살았다(마가복음 1:6). 또 그의 말에는 권능이 있어서 모든 이들이 그가 예언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원했던 이들은 그를 환영하며 믿으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을 세례자 요한(John the Baptist)이라고 한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자기 고집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마음과 이해성을 열어져 진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자기의 결점이나 과오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다. 어찌됐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심정에 그분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는 대로 즉시 그분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다가”와 계신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즈가리야의 고백은 무엇인가?
- * 엘리사벳의 선조가 누구라고 말해지고 있는가?
- * 천사가 즈가리야에게 나타났을 때 즈가리야는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천사가 그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 어떤 징조가 그에게 발생했는가?
- * 본문에서 즈가리야 외에 누가 천사를 보았는가?
- *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인가?
- * 천사는 마리아가 나올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전했는가?
- *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명령되어져 있는가?

제 3반

우리의 삶에 비추어 세례자 요한의 설교의 의미를 찾아본다. 이와 더불어 구약의 예언서들에 있는 예언들의 성취와

세례의 의미도 살펴본다.

마지막 예언자가 보내진 후부터 주님의 탄생까지는 약 4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그 당시의 말씀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어졌었지만, 이를 바르게 전해야 할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인간이 만든 법과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덮어 버려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법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각종 축제와 의식행사를 치르는 것에 만족하며, 의식들에 참석하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헌물이나 요구사항만을 준행하면 주님께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즐김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일부 현대의 신앙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정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 각종 헌납을 준행하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진실로 선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소수이지만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것을 구약 성서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다. 말라기의 예언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인 데,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본문 내용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사는 본문 17절에서 엘리야가 장차 올 것이라고 예언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영어 성경(KJV)에서는 이 절의 엘리야가 Elias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서 Elijah로 표기되었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서 그렇게 표기되었을 뿐 두 이름들은 결국 같은 사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3-14절과 17장 10-13절을 참조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즈가리야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는 매우 경이로운 사건이다. 구약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기 위해 다니엘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다(다니엘서 8:16, 9:21). 가브리엘(Gabriel)이란 히브리어로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를 의미한다. 스웨덴본은 가브리엘에 대해서 “이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배워 가르쳐 주기를 매우 사랑하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인 천국의 사회(집단)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다니엘과 즈가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실제로 천국에 있는 한 사회의 전체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천국의 사회가 지상에 나타나되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로 나타난 것이다. 즈가리야가 일시적으로 병어리가 된 사실은 그가 과거에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음을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천사가 말한 위대한 약속을 그가 믿고 말할 수 있기에는 그의 이해성이

극히 무능력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어에도 상응의 언어로 표현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빗대어 “저 친구는 병어리야”라고 표현할 때에 “병어리”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열심히 말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요한이 태어나자 즈가리아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즈가리아가 요한이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천사의 말을 진실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혀가 풀리면서 그가 한 첫 마디의 말이 바로 찬미였다. 즈가리아의 노래는 교회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마리아도 즈가리아와 엘리사벳과 더불어 경건하고 신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왔던 무리에 속했다. 마리아에게도 그녀가 주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경이로운 소식을 전하도록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졌다. 구약성서는 한마디로 주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예언으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2-23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의 선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상황을 의식하면서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위로로서 그 예언에 집착했다. 이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 2장 36-38절에 있는 여 예언자 안나의 말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었고,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그녀의 역할에 대한 신성한 확증을 받았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져야만 했다.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 곧 자신 속의 악을 의식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들만이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였다. 사실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 와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받는다.’하는 표현은 곧 구원됨을 의미하지만, 구원에는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속의 악한 생각과 느낌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우리의 의지로부터 떼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악한 것들을 청소하고 빈방을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꼭 한번 쯤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구절이 비록 짧지만 인류를 위해서, 즉 우리 모두를 망라하여 엄청난 말씀임을 주지해야 한다. 간혹 신앙인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입장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구원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세례가 기독교인의 표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세례란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보기들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고 있다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알고 있음”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본보기를 따라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다. 알고 있다는 것은 껍데기(형식)에 속하며, 이는 것을 삶에 옮기는 것이 바로 껍데기의 속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쪽으로만 향하게 하려는 거짓들을 치워내고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여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세상에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요한의 직무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기심을 들추어 꺼내 보여주며 그것에 대항하여 싸워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었다. 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권고에 순종하여 회개한 이들은 주님께 귀를 기울일 준비를 갖추고 그분을 따를 준비를 완료한 사람들이다. 말라기서 3장에서 주님의 오심은 떠오르는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설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물체는 우리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등을 돌려 댈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우리 안에 가득한 악과 거짓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회개를 강행한 이들에게는 요르단 강가에서 요한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른다. 물세례란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얻어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기본 상응 공부

병어리 = 드러내 놓고 주님을 믿지 못함

세례 = 말씀속의 진리로 삶을 정화 함

제 4반

예언의 성취를 통한 신구약의 연결점을 강조한다. 또한 주님과 세례자 요한의 연결점도 강조한다.

말라기서를 포함한 구약성서의 많은 책들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경이로운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다. 말라기서 이후 주님의 강림 때까지 이어진 사 백여년의 공백 기간 동안 강림에 관한 예언들은 유다 백성들의 특별한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일례를 헤로데가 구주가 탄생하실 곳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묻고 그들이 그 답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엿볼 수 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악한 행실을 일삼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거나 일반 백성들에게 심판이라는 두려움을 낳기도 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처럼 두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즉, 의로운 시대가 오기를 갈망하는 이들과 현재의 삶을 그대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이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누가복음 제 1장에는 주님과 세례자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마태나 요한복음보다 더 명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구약 성서로 알 수 있는 사항은 때가 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예언자가 보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말라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사람이 예언자 엘리야라고 했다. 마태복음 11장 10-14절로부터 사람들이 장차 보내질 사자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고, 요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구주로 믿고자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스웨덴북은 천사 가브리엘이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사회를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말한다. 가브리엘은 요한의 출생과 주님의 탄생을 알렸다. 우리는 그가 요한의 선교에 관해서 즈카리아에게 한 말과 주님에 관하여 마리아에게 전한 말의 내용을 세심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한의 직무는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주님에 관한 예언은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던 선한 이들도 깊은 악과 캄캄함 속에 놓여 있어서 위와 같은 예언이 이어진 것이다. 율법과 예언들의 가르침은 윗자리에 눌러앉은 원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인해 희석되어 있었고, 그들의 이기심과 세상욕에 의해서 매장되어 버렸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적합한 준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던 상태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이 악과 거짓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진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의 파괴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겸손과 회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반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즈카리아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요한 또한 자신이 주님에 앞서 보내진 자임을

선포했다(누가복음 3:4). 그리고 주님께서도 변모의 사건 뒤에 세 제자들에게 위의 진리를 밝혀 주셨다(마태복음 17:10-13).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다. 엘리야의 메시지 역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야란 우리의 삶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생명이 없는 불모와 같이 되어 버림을 상징한다. 거친 옷을 입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란 우리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게하는 삶의 거친 부분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가 먹은 메뚜기와 들꿀이란 삶의 거친 것들로 인해 비롯된 회개에서 갖는 만족이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에 관하여 “이 부부는 다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즈가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그가 들은 예언의 성취가 세상적인 견지에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변치 않은 믿음으로 그는 병어리가 되어야만 했다. 스웨덴붉은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병어리란 무지해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남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이들을 뜻한다고 말한다. 요한의 출생은 즈가리아의 혀를 풀리도록 해주었는데, 즈가리아의 첫마디는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다. 요한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볼 때 주님보다 먼저 출생했고, 그분의 출생 전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그의 친척인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때는 요한의 일이 우리 속에서 선행될 때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속의 악을 보고 싸워 나가 마음의 길을 터놓을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이다. 간혹 우리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주님의 특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속의 악을 보지 않고 그것과 싸우지도 않은 채 종교적 열정만으로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속의 악을 질책하기보다 먼저 자신속의 악을 보고 심판해야 한다. **신앙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게 되는 오류중의 하나는 “나는 패선한 인격의 소유자야”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된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러한 속성이야말로 우리를 악에 기울도록 하고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혀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항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거듭남이나 구원이 어떤 수준에서 있어지든지 회개는 그에 앞선 절대적인 필수사항이다. 우리가 자신속의 드러나는 악함이나 부족함을 대범하고도 솔직하게 직시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만심에 취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곧 이타적인 영이 자만과 거만함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구약성서를 과거의 것으로 여기며 경시하는 경향에 대한 반증으로 본문을 살펴본다.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가 갖는 개인적인 응용도 중요함을 언급한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교회의 상태에 관하여 “그 때의 교회는 심히 황폐해져서 그 속에는 어떤 선이나 진리도 남아 있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그 시기는 “힘이 정의다”라는 것이 교리였던 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때이다. 그리고 그때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말씀을 “어떤 효과”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후였다. 물론 말씀이 읽혀지고 예배도 그들의 전통적인 예식에 따라 성전에서 지켜지고 있었지만, 종교의 목적이 이미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서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황량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예언을 흠모하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갈망한 선하고 경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본보기가 바로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인데, “이 부부는 함께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목자와 사도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방국가인 교회 밖에서도 자신들이 어둠속에 걷고 있음을 알고 빛을 갈망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본문 68-79절에 있는 즈가리아의 노래는 주님의 자비가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 온 주님의 영화로우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스웨덴북은 위 구절에 있는 주님의 찾으심 곧 방문이 심판에 선행되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그 진정한 속성에 대한 조사를 뜻하며 여기서의 어둠은 악으로부터의 있게 되는 거짓과 무지에서 오는 거짓 모두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여기서의 어둠속의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진리의 빛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아마 전 세계를 뒤엎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진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왜곡시켜 다른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왜곡된 진리, 즉 거짓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3:15).

즈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들이었다. 즈가리아는 아비아조에 속하는 사제의 일원이었다. 아론의 가문은 24조로 나뉘어 성전 예배를 교대로 봉사했었다(역대기상 24:1-19).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제들은 그들의 당번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누가복음 1:23). 특별히 즈가리아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298항에서 천사가 즈가리아에게 나타나되 분향 제단 오른쪽에 나타난 이유는 천사나 사람에게 관련지어 볼 때 오른쪽이란 주님께에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선을 근거로 하여 갖게 된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스웨덴북은 말씀 안의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리고 라파엘은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의 사회를 뜻하며 그 사회의 특별한 기능에 따라 이러한 이름들로 불려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특별히 가브리엘은 “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이들의 선교, 즉 여호와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입으신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신성임을 선포하는 이들이다”라고 강조한다.

누가복음서는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완전한 주님의 생애에 관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고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복음서만이 주님의 승천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기적들은 신약과 구약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며 사 백여년의 공백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고, 요한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준비를 갖추도록 그분에 앞서 보내졌다. 이는 세례가 악과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짐을 의미하거나 표현하고,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에 의해 거듭남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례를 통한 것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천상천하의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입시고 계시면서도 그분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나 예루살렘에서 사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지도 못하셨을 것이다. 더욱이 주님께서 그 속에 거짓뿐인 국가나 그 나라의 교리 가운데로 현존하셨다면, 그들이 가진 전부인 거짓이 신성 자체를 직접 대면하게 되어 그들의 파괴가 초래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서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로 의미되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너희

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즈가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요한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한 스스로도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역시 그분의 변모를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뒤 세례자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이었음을 밝혀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밀접한 연관성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는 구약 성서의 전체가 주님 생애에 관한 예언에 해당되며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의 예언들이 실체화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도 당신은 율법과 예언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법과 모든 예언들이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임을 명백히 해주시기도 했다.

즈가리아가 병어리가 된 사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상응을 제시해 준다. 그 이유는 속어 중에 있는 “병어리”의 의미가 상응으로 표현되는 병어리란 뜻에서 파생된 것 중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병어리란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관용어에서 무지함 또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어떤 대상에 대한 무지 또는 총명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말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어리란 지식 그리고 이해성과 더불어 확신의 결핍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병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웨덴복은 병어리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병어리는 무지로 인해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로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이들을 의미하는데, 이 상태에 있는 국가가 교회 밖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단순한 이들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주님에 의해 베풀어진 기적들은 그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원되는 인류나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주님에 의해 병어리가 치료됨은 병어리 된 자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거짓으로부터 해방됨을 상징한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 관해 시편(135:16)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35:6)에서 주님의 나라가 움에 관하여 “그 때에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 때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병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썸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라고 예언되었다. 사막과 황무지란 강림 시에 처한 교회의 상태를 그리는데, 이런 이유로 요한이 광야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다. 또한 썸이 터지고 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게 될 진리를 상징한다.

누가복음은 “천사의 예언에 따라 요한이 태어나고 아기 이름을 요한 곧 그 이름의 의미인 ‘주님은 놀라운 자비이시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에 즈가리아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전한다. **주님에 대해 무지함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이해성의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주님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설명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가 진실로 영적으로 “병어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중에 그분을 밝히신 대로 그분을 익히며 배워 획득한 지식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까지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영적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주님 시대의 선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 위에 덮어놓은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능력을 요한에게서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앉혀져야 할 옳고 그름의 근본이 되는 새로운 원리들이 요한을 통해 명백히 알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과 거짓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주님을 인식할 준비가 갖추져 그분을 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밝혀 주시는 더 깊은 진리들을 경청할 준비도 갖추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에 겸손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의 길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로 상징되고 있다.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구성의 시기를 의미하며,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 외적 생활을 질서 안에 정착시킴을 표현한다. 이렇게 삶을 질서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거룩한 땅에 진입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었다. 거룩한 땅으로의 진입이란 내적인 성취와 행복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이 외친 모든 것은 외적인 삶을 재구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선에 관한 측면에서 말씀의 글자가 주는 진리를 표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 영원히 생생한 진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셔 언제나 들어오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우리는 문을 열고 그분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들을 치워냄으로서 주님의 영을 위한 길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본문은 말라기서에 있는 두 예언들의 성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즉, 천사 가브리엘이 즈가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다. 마리아에게 사촌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가졌다고 전하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다.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기뻐 뛰놀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증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뤄지게 된 천사의 약속에 대한 신성한 확증을 갖게 되었고, 즈가리아와 마리아의 찬양이 있게 된 것이다.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출생하여 공적인 선교역시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분의 진실한 정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했는데, 이 선포는 하늘로부터의 소리와 표증에 의해 즉각적으로 확증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가 있어지자 요한의 선교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는 스스로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증언했다(요한복음 3:30). 그는 주님의 공생애 2년째 되던 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3년째 되던 해 초에 사형되었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6988항: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어리’가 말을 못한다는 의미로부터 명백해진다. 여기서 ‘말을 함’은 단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고백 혹은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내적 의미에서의 ‘병어리’란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들은 몰라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을 뜻하며, 이런 상태의 나라들은 교회 밖에 있는 나라들 또는 교회 내에서 단순한 사람들도 이에 해당된다.”

질문 정리

- 1)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
- 2) 말라기는 어떤 사건을 예언해주고 있는가?
- 3) 말라기는 어떤 두 특사가 올 것이라고 했는가?
- 4) 주님이 오실 당시 그 땅에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은 무엇인가?
- 5) 주님의 오심으로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6) 주님의 오심으로 선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 7) 첫 특사는 누구라고 했는가?
- 8) 본문에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 9) 그 천사는 누구에게 먼저 왔는가?
- 10)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즈가리아에게 주었는가?
- 11)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12) 천사는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 13)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4) 우리는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15)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6) 왜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는가?
- 17) 병어리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는가?
- 19) 세례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말라기 2) 주님의 오심 3)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사와 언약의 특사
- 4)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과 선해지기를 원한 이들 5) 풀무불에 타듯이 된다
- 6) 고침을 받는다 7) 엘리야(요한) 8) 가브리엘 9) 즈가리아 10) 아들을 갖는다
- 11)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12) 마리아 13) 아들을 가진다
- 14)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 15) 회개하라! 16) 세례를 주었기 때문
- 17) 영적인 무지 18) 겸손과 회개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
- 19)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도

27

주님의 탄생

머리말

본장은 교회의 절기중 하나에 속하나 성서를 차례대로 배열하고자 이곳에 삽입한 것이다. 성탄절에 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성탄절에 대한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장 1-20절

2장: 1.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2.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3.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5.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 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7.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8.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10.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11.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하고 말하였다. 13. 이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4.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5.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 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사실을 보자”하면서 16. 곧 달려 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이야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18.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완성이다.
- *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도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 * 주님께서는 우리속의 유대 땅 곧 마음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속의 갈릴래아 지역 곧 일상생활에서 성장하시며 우리속의 사마리아 지역 곧 생각을 자주 거치셔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연력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쉽게 입증된다. 실제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구약 성서에는 하느님 스스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 왔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시기로 약속된 구세주를 언급하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사용된 이름이었다.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예수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를 의미하며, 탄생한 아기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누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마리아로부터 인간 본성을 입으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시험들을 당하시고 그것들을 극복해내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본보기를 따른다면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역시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천국으로

가는데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길인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엄청난 사건들은 우연적으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즉,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초부터 서서히 준비되어 때가 되자 이뤄진 것이라는 말이다. 성탄 이야기를 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의 세부사항들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들을 사랑한다. 세월이 지나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안겨 준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성탄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선사하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그분 자신이었던 것이다.

제 1반

성탄절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어떤 분의 생일이다. 주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인간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탄생하여 존재의 시작을 알리듯이 주님께서 2000년 전 12월 25일에 그렇게 탄생하셨다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언제나 살아 계신 분으로 세상과 세상속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육안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항상 말씀해 오셨지만 인간들이 그분을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에게서 배우려는 대신 자신의 고집대로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주 이기적으로 되어 결국 불행해지고 말았다. 주님 시대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바리새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 대신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마저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올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세상에 오셨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이웃들과 주고받는 선물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인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망각하곤 한다.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관한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분이 첫 번째 성탄절에 스스로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오래 전에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이사야 9:5-6).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는가?
- * 본문 제 11절에서 베들레헴은 무엇이라고 다르게 불리는가?
- * 예수님 전에 어떤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 *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었는가?
- *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온 까닭은 무엇인가?
- * 당시 거룩한 땅은 어느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는가?
- *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었는가?
- *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빈방이 있었는가?
- * 그들은 어디에서 기거했는가?
- *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몇 년 전에 탄생하셨는가?
- * 우리는 주님의 탄생년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달리 부르는가?
- *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안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는가?
- * 목자들이 한 밤중에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 * 주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하늘의 군대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
- *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한 후 무엇을 했는가?
- * 누가 예수의 탄생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간직했는가?

제 2반

먼저 성서지도에서 나자렛과 베들레헴 지역을 찾아본다. 관관시대로부터 약 11세기가 경과한 후 주님의 강림이 있었다는 것과 강림 당시 거룩한 땅이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동방박사와 세례자 요한 등 강림 때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건을 주로 살펴본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태어날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불리질 것이며 이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전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해 가셨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부닥치는 시험들이나 약함을 직접 느껴 보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며 극복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주님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도움으로 악에 대항하면, 우리는 우리들 속에 깊숙이 틀어박힌 악의 권세로부터 풀려나 구원된다.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란 뜻이며, 그리스도(christ)란 그리스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다. 올리브기름을 가지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성별(聖別) 되는 모습이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심이 어땠을까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우리의 연력이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다.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마태복음서에는 거룩한 땅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았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이 주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지식을 어떻게 습득했는가는 고대 교회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할 미스터리일 것이다. 그들은 놀랍게도 별을 관측함으로써 주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대 말씀에 있는 예언들을 아주 흠모했고, 고대 말씀으로부터 전해오는 지식들이 그들에게 전승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앎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대로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막기도 한다. 이런 인간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음서들에 언급되는 바리새이파 사람들이다. 진리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거룩한 땅에 있는 목자들은 그들의 가족

때와 더불어 살면서 목초지를 찾아 가축들을 이리 저리로 끌고 다녔다. 그리고 밤에는 가축을 우리 안에 두고 사나운 짐승의 습격으로부터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불렀고, 양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서 목자들이 부르면 이내 다가오곤 했다. 양은 매우 온순하며 남을 해치지 못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양은 신뢰와 순진을 상징한다. “순진(純眞)”이란 단어를 라틴어의 어원에서 보면 “해치지 않음”이란 의미이다. 본문에서는 순진과 신뢰를 흠모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목자에 의해서 상징되고 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지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주님께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던 베들레헴 근교의 목자들에게 비친 그분의 영광스런 빛은 저 멀리 떨어져 비춰주는 별빛이 아니라 그들 바로 위 아주 가까운 하늘이 열린 빛이었다. 그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즉각 믿고 그분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리고 의심 없이 믿는 마음과 더불어 그 마음으로 꾸준히 밀어붙이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천국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는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나, 지상에서는 진실로 선한 인격의 마음 안에서만 있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마태복음 22:35-40) 가르치신다. 이 가르침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삶의 지표이며,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던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사건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사건인가?
- *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태어났는가?
- * 그는 어떻게 이 길을 예비했는가?
- * 주님께서는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인가?
- * 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왔는가?
- * 왜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가?

- * 하늘의 군대는 세상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
- *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는 뒤 목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 * 그들은 주님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 목자들은 누구에게 그분에 관해 말해주었는가?
- * 누가 목자들이 말한 것들을 유념해 두었는가?

제 3반

본문의 세부사항에 대한 상응을 주로 살펴봄으로써, 세상과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해 본다.

구약 성서에서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거듭하여 예언되고 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예언에서 약속된 아기는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다. 아기의 형태로 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였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언서들을 통해서 약속된 아기를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라고 불리며 지상에 있는 그들의 적들을 쓸어버릴 권능의 왕이요 그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세울 왕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막상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는 낮고 천한 곳에서 아기로 오셨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된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곧 삶의 안내자를 찾고 있던 단순하며 선량한 사람들과 예언들의 주는 외형적인 의미보다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보았던 자들에게만이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성탄절의 이야기에서 목자는 순진함을 흠모했던 사람들을 표현하며, 동방박사들은 올바른 삶을 위해 진리를 흠모한 사람들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시각은 한밤중이었다. 빛은 진리를 상징하며 어둠은 무지를 상징한다. 주님께서 어둠이 가장 깊은 한밤중에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인간이 만든 전통들로 말씀을 가려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때에 그분께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에 관한 진정한 앎을 갈망하는 이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의혹이나 의심의 가능성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때는 세상

중에 악의 권세가 너무 커져서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조차 더 이상 악에 대항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뒤바뀔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악이 그분께 들어와 공격할 수 있도록 인성을 입으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 날 가장 큰 선물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사하셨던 까닭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탄절 날 주고받는 선물에 감사할 때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주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눕혀진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속의 선한 애정들을 먹이시게 됨을 묘사하고 있다. 마구간에 있는 가축은 유용한 노동이나 용역을 위해 있는 우리의 애정들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바라는 특권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남을 잘 섬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겸손한 자들만이 그분의 탄생을 인식했고, 오늘날역시 우리 주위에서 겸손한 자 곧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이 진실로 그분을 인식하게 된다. 여관에 머무를 방이 없다 함은 우리속의 이해성과 마음이라는 방이 자아로 가득 차서 주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우리 안에 없음을 묘사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란 자아를 비워서 그 안에 주님을 모실 공간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의 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가축을 지켰다. 그들은 그분과 그분의 진리에 관해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함이나 선함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 단순하고 선한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세주에 관한 지식이 발견되거나 들려지게 되면 어두운 방에 불이 켜져서 빛이 한꺼번에 강하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오게 된다. 이들은 주님에 대한 지식을 환영하며 더 배우려고 급히 달려간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직성이 풀린다. 본문의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늘 군대의 메시지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참된 천국의 심정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을 표현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몸소 본보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위의 두 사랑 곧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기심을 기어이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욱 배우려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기본 상용 공부

마구간 = 말씀에서 온 진리의 교리

목자 = 순진을 흠모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들 = 삶을 목적으로 진리를 흠모하는 이들

별 = 인도해 주는 진리

제 4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와 그분의 들어오심을 저지하는 장벽이 되는 두 가지 상태들을 대비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말하는 천군 천사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한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미한 사건처럼 여겨진 주님의 강림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단지 인간이었다고 우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다.

주님의 탄생에 관련된 친숙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어느 한 쪽에 소속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진리를 흠모하다 사랑해 버리는 동방박사와 순진과 신뢰를 흠모한 목자라는 두 부류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꺼이 믿으며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할 것이며 설사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탄생에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자 보내졌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예비로서 있게 된 진지한 자아 탐구와 회개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주님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 곧 마리아와 요셉, 즈기리아와 엘리사벳,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공부하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이 온전한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복음(새 소식)에 열려 있어서 스스로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밝힐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새 진리를 영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도록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를 받는 길을 뒤엎어 버리는 어떤 것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력은 헛될 뿐이다.

스웨덴북은 선택의 자유라는 우리의 특전이 간섭될까봐 천사들이 아주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한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허용하셨기에 선포되었던 것이며, 이것은 천국에나 있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표현인 것이다. 이에 관련되어 주기도문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진실로 영화로워지면, 그곳에는 순진이 존재할 것이고 선한 의지가 우리의 삶에 놓이게 될 것이다. 평화란 순진 - 해를 주지 않음 - 으로부터 있게 되는 상태이다. 주님께서서는 어린 양이라고 불리며, 평강의 왕이라고도 불린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마음 안에 받아 들였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인도될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서 분리된 외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는 성탄과 관련하여 그분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갈릴래아의 나자렛에서 성장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께서서 탄생하신 곳과 자라신 곳의 의미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맥락이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은 의지 측면을 그리고 갈릴래아 지역은 외적인 삶의 측면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유다와 갈릴래아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놓여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의 이해성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지상에서 주님의 공생애 대부분은 갈릴래아에서 있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주기적으로 오르내리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기억한다. 이는 우리 생활에 꼭 있어야 할 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 보겠다는 바램으로 시작하지만, 그 바램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바램은 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인 섬김으로 수행될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행동적인 삶에서 섬기는 것을 잘 수행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한 바른 수단을 알고자 연구하고 생각함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짐하는 재생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주 효과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깊은 묵상일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선의지를 간직하려 애쓰는 이들 조차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만 악들을 극복하게 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 그분 자신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인간들의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때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려 애쓰며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속의 악들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만이 가능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분은 모든 인간에게 합리성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게 되면 인간 역시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합리성과 선택의 자유를 쓰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제 5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더불어 성탄 이야기의 의미에 대한 이해 역시 꾸준한 성장이 있어야함을 강조한다.

당시 사람들이 미미하게 여겼던 사건인 주님의 강림은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을 바꾸어 놓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력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 대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들이 강성해졌다는 것 등이 그 예다. 주님의 삶은 세상에 새로운 표준 곧 새로운 이상을 주셨고, 영적 생명 없이는 결국 멸해질 수밖에 없음을 세상에 알리셨다. 영적인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며, 그것을 얻는 수단은 진리를 배워 살아냄으로서 생기는 지혜이다.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총명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게 되면 혼돈과 불확실과 두려움이 초래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지상에서 유일하게 순수했던 진리는 히브리 말씀 안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이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아서 당대의 사람들은 그 책을 더 이상 열린 마음으로 읽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을 뒤덮은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린 큰 빛은 한밤중에 있었다. 유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동방박사가 본 별, 즉 목자들의 주위에 내리 비친 “주님의 영광”의 빛은 모두 동일한 빛으로서, 주님이 진리로서의 “길”이요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빛인 것이다. 또한 이 빛은 “이방인들을 밝게 해줄 빛”이고 진리를 추구하여서 빛을 찾는 현자들에게 길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린이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경배하러 온 목자들에 둘러싸여

놓여 있는 말구유의 거룩한 아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한 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담긴 더 깊은 의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는 새로워지고 깊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외의 그 어느 것도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님의 탄생은 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식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말씀 중에서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즉, 마태복음 13장 15절의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또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구절들을 통해서 답해 주고 있다. 올빼미는 자기들의 먹이를 포획하려고 어둠에 의존한다. 그들은 밤에는 잘 보지만 낮에는 거의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올빼미란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진리를 보게 될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어린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과제가 주어지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인간들의 눈이 감겨있지 않았더라면, 올빼미의 눈이 대낮에 열리면 파괴되는 것같이 주님의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빛은 오히려 그들의 파멸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강림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주님의 강림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알려졌다. 그래서 주님의 빛은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였고 점차 확산되어 전 세계에 퍼졌던 것이다.

주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으로, 그곳은 과거 베냐민과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그분은 스스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의 집”이라는 뜻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선택되고 유용해지는가를 아주 간단한 교훈으로 가르치신다. 그분의 오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인 베들레헴 말구유에 놓인 비천한 곳에서 아기로 오시는 모습은 우리의 어린 심정을 충분히 움직이도록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순진한 상태를 벗어나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미천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 탄생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에서 벗어나 그 안에 담긴 그분에 관한 지식과 의미들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성탄 이야기에 담긴 상응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동방박사들은 영적인 삶에 따른 진리를 흠모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표현하고, 목자들은 선함과 순진한 것을 사랑하는 단순한 심정을

표현한다. 이 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자들이다. 이들은 과거 부모나 선생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통해 받았던 주님에 대한 지식을 흠모하고 사랑한다. 이것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오래 전부터 지녀왔던 고대 말씀에 있는 예언들을 흠모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반면, 주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으나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속에 저항하며 선하고 순진한 애정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이들은 목자들이 밤새워 양떼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주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여관은 없었다. 여관이란 “교훈하는 장소”를 표현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배우기를 원할 때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의 장소였다. 그 여관이 사람들로 꽉 차서 머무를 방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교회라는 장소에 위탁된 귀중한 지식이 이상한 것으로 꽉 차서 신성한 진리역시 그것들과 뒤섞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주님께서 놓으신 장소는 미친한 구유였다. 구유(여물통)란 말이나 소를 먹이는 곳이다. 삶을 위한 어떤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속의 장소란 낮은 이해성과 마음이다. 그리고 그분은 포대기에 싸서 눕혀졌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어 있어진 처음의 진리들을 표현한다.

많은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히브리국가에 주님의 탄생에 관한 언급이 있어왔고, 탄생 시에도 이적과 경이로움이 동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의 탄생을 인정했던 것을 의아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적이나 경이로움이 아무에게나 보여 질 수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본문 제 17-18절은 이에 대한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목자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단순히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 신앙이란 의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게 된다. 주님역시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오심을 간절하게 진실로 갈망했던 이들만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아기 예수가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들 각자에 알맞은 방법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셔서 그분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다. 즉, 동방박사들은 상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별을 볼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에 비해 단순한 목자들에게는 그들 심정에 직통하는 방법인 이름답고도 장엄한 환상을 보도록 하셨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천사를 통해 실질적인 선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셨고,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은 천사에 의해 말해졌다. 또한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지각함에 따라 가르쳐졌다. 하지만 어떤 진리도 원치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을 멀하지 않도록 보거나 듣지 못하도록 되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스웨덴북은 천사들이 지상의 사람들을 교훈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속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수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전을 주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선택의 자유가 인간들에게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섭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교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게 강요하려 드는 것은 오로지 악 뿐이다. 그러나 강림 당시의 천군 천사들에게는 천국의 참 분위기를 위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로 표현하도록 허용되었다. 즉, 본문 14절의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바로 그것이다. “good will toward men”을 보다 적절하게 번역하자면, “to men of good will”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두 가지 큰 계명으로 강조해 두신 그분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은 개인적 측면과 세상적 측면 모두에서 평화로의 길임이 명백하다. 이 두 계명은 성탄절에 가장 깊이 숙고해야 할 메시지라고 사료된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주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다면, 우리는 목자들이 했던 행동을 닮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구유에 놓인 주님을 발견했다. 구유란 말씀의 글자를 상징하는데, 이는 우리가 말씀의 글자에서 주님을 빨리 발견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주님을 타인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일상 업무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706-12항: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여관에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말해진다. ‘여관’이란 교훈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것이 유대인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간음질화 하여 오로지 거짓 속에만 있게 되었다. 이것 역시 ‘여관에 방이 없었다’로 의미된다. 만약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기뻐하셨다면, 그분은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셔서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침대에 놓여 졌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그분은 진리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교리와 함께 하셨을 것이고 천국적인 표현역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은 ‘포대기에 싸서’ 누이셨다고 말해진다. ‘포대기’란 첫 진리를 의미한다. 첫 진리는 순진의 진리이며, 신성한 사랑의 진리이기도 하다.”

「진정한 기독 종교」 제 92항: “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혹은 ‘나는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보내짐’이 인간들 사이에 내려오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입으신 인간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입으신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로 실체화 되었는데, 이는 그 인간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느님으로부터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또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그분의 인간 안에 있는 여호와 하느님을 의미하고, ‘인간의 아들’이란 말씀에 관한 측면에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반면, ‘마리아의 아들’이란 엄격히 말해서 그분이 입으신 인간을 의미한다. 주님이란 점에서 그분이 가지셨던 신성은 여호와 아버지로부터였고 인간은 어머니로부터였다. 이 둘이 하나를 이루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이다. 신성한 삼위 일체 곧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안의 아버지는 신성이고 아들은 신성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은 신성의 실재하심이라는 것은 본서 제 3장의 주제인 신성한 삼위일체에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2) 주님께서는 대략 몇 년 전에 지상에 태어나셨는가?
- 3) 그분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4)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5)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가?
- 6) 그분의 탄생이 알려진 이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산 사람은 누구인가?
- 7) 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 8)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누구에게 말해졌는가?
- 9) 그 목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중이었던가?
- 10) 누가 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 11)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2) 천군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목자들은 어디서 주님을 발견했는가?
- 14) 목자들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가?
- 15) 누가 목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했는가?
- 16) 예수란 누구인가?
- 17) 왜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가?
- 18)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 2000년 전 3) 베들레헴 4) 마리아
- 5) 요셉 6) 동방박사 7) 별을 보고... 8) 목자 9)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 10) 천사 11)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
- 12)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13) 마구간 14) 그들이 만난 사람 15) 마리아 16)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 17)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심 18) 속량, 모든 이로 구원 가능하게 만드심

28

나인성의 과부

머리말

제 1권에서 복음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았으므로, 그 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에 있지 않은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다루어 같은 사건의 중복을 피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주님 생애의 초기나 세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연관된 사항들은 각 권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7장 1-30절

7장: 1.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2. 마침 그 때 어떤 백인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였다. 3. 백인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 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다. 4.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그 백인대장은 도와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6.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인대장은 친구들을 시켜 예수께 전갈을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사람이 못 되며 7. 감히 주님을 나가 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8.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군중을 돌아다보시고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

가 보니 중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 11.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 갔다. 12.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 오고 있었다. 13. 주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울지 말라”하고 위로하시며 14. 앞으로 다가서서 상여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 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하고 명령하셨다. 15.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16.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 와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19.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하고 묻게 하였다. 20. 그 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십니다”고 말하였다. 21. 바로 그 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 주셨다. 22.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24.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 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26.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27.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28.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뜻을 받아

들었으나 30.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 * 모든 예언자들은 말씀을 표현한다.
- * 믿음은 확신을 내포한다.
- * 진정한 이타애는 삶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에는 두 가지 경이로운 이야기가 있다. 그중 하나는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로마군의 백인대장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사실로 믿었고, 그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알고 있어서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인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에 구애 받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주님의 권능에 대해 듣게 될 때 더욱 확증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로마인이었던 백인대장이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기꺼이 자신을 돌렸듯이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문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만 가난한 과부에 관한 것이다. 주님께서 는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녀의 아들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그저 우연히 있었던 일들 짚으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연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위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정한 가르침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육체를 떠난 우리의 영혼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한다.” 천사들이 볼 때 우리가 일컫는 죽음이란 곧 영혼의 세계에서 태어나게 되는 부활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천사들이 영혼의 세계에서 의식을 갖고 깨어나는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당사자를 위한 축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배우고 살아내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죽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자 스스로가 어느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제 1반

주님의 생애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고, 본문 뒷부분을 중심으로 기적 그 자체가 갖는 중요성을 살펴본다.

본문은 기적에 대해서 간증한다. 기적이란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말한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신 후 사악한 왕 헤로데의 살인 음모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헤로데가 죽고 난 뒤 다시 유다로 돌아 가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나사렛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착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분은 열두 살이 되던 해에 그분의 첫 과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 뒤 그분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그분이 서른 살이 될 때까지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한편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선교하기 시작했다. 많은 선한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 그의 말을 청중하며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점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꿔야 함을 알게 되었고, 더 나은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시로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요르단 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까닭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며 세례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그분 위에 빛이 비추지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서 약속된 주님이시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들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누가 보내졌는가?
- *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일러준 이는 누구였는가?
- * 가브리엘은 어떤 징조를 즈가리아에게 주었는가?
- *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 * 세례를 받으신 후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 * 기적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이 기술되고 있는가?
- *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 *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의미는 무엇인가?
- * 이 시기에 요한은 어디에 있었는가?
- *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 무엇을 여쭙어보았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 2반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지난 공부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기적과 더불어 믿음을 강조하고, 생명을 조절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설명한다.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의 권능 역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언급한 후 세례자 요한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지난 공부를 재조명해 보자.

- * 누가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보내졌는가?
- *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 누가 즈가리아에게 장차 있을 일을 말해주었는가?
- * 즈가리아에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는가?
- * 우리는 요한이 출생한 후 즈가리아가 한 첫말을 뭐라고 부르는가?
- * 즈가리아 외 누구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졌는가?
- * 천사는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 *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 헤로데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주님께서 피신한 나라는 어디인가?
- * 주님께서 성장하신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주님께서 열두 살이 되던 해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신 곳은 어디인가?
- *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주님은 몇 살이였는가?
- * 그분은 어디서 요한을 발견하셨는가?
- * 그분을 위해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세례를 베푸자 하늘로부터 어떤 징조가 주어졌는가?
- *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사십 일 동안 어디서 머무셨는가?
- * 거기서 그분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주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끝낸 직후 시작되었다. 그분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 주셨다. 본문은 주님께서 베푸신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기적이란 단어는 “놀라운 일”라는 뜻이다. 성경상의 기적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다.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공부하다 보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필요한 두 가지 조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고침을 받는 이가 먼저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함을 인식한 후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도울 수 있으심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이다.

백인대장이란 백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로마 제국의 군인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인들을 상당히 미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백인대장을 좋아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백인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백인대장의 종을 낮게 해달라고 청했던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청을 받아서 백인대장의 집으로 향하셨으나, 백인대장은 그분께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의 종이 낮게 될 것이라고 청했다. 주님께서서는 백인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기록된 기적은 백인대장의 종을 낮게 했던 것보다 더욱 경이롭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가 갖는 주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므로 생명을 초월한 권능을 갖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가 증병에 걸려 몹시 아플 때 우리가 회복되는지 아니면 죽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의사가 치료될 것이라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해 왔던 껍질인 육체를 두고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는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영계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늘 영계에 그 거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의식하기 어렵지만 때가 되어 육신의 껍질을 벗게 되면 금방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서, 영계에서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삶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본문의 기적에서 과부의 아들을 영혼의 세계가 아닌 이 세상에서 다시 깨어나도록 하셨을 뿐이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여러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기적들이 있다. 열왕기상 17장 8-24절, 열왕기하 4장 8-37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1-42절과 49-56절을 찾아보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충실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누가복음 3장 19-20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한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사명을 실패한 것처럼 느끼며 선교 생활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세례를 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 제자를 주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하고 묻게 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대답하셨다.

요한과 같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이해성으로 주님이 메시아이시요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심을 알고 이해하며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봐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고도 이해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고 믿던 옛 사람들의 믿음보다 한층 더 높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기적이 갖는 상응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룬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그간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다. 당대 사람들은 전적으로 물질주의적 이어서 가시적인 것만을 믿는 경향이 강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러한 가시적인 증거들을 요구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육의 눈이 보는 것 이상의 높은 것을 보게 해주는 시야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가진 육신이란 영혼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제일가는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하지 않아서 늘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며,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마음에서 오며, 마음이란 주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선한 일을 할 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수행할 권능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이러한 권능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더 연장되어야하거나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위해서와 타인을 위해 좋은 것으로 여겨지시면, 그분의 권능은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나 영계에서나 모두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분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우선 그분을 믿고자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서 상응을 통해서 이해되는 더 깊은 교훈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다. 따라서 백인대장의 종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안의 쓸모 있는 자질들이며, 그 종이 죽었다 함은 그 유용한 자질이 어떤 상황이 되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함을 의미한다. 백인대장이 가졌던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심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위해 그분께로 얼굴을 돌림을 의미한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느님에게는 만사가 가능하다.”이라는 말씀에 신념을 갖는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기적은 과부를 위해 베푸시는 것이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각기 이해성과 애정을 상징한다. 이를 토대로 나인성의 과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사실 말씀에서 언급되는 과부는 여럿이 있다. 그중에서 본문의 과부는 우리속의 어떤 선한 바람을 상징하는데, 그 바람은 그것과 더불어 균형을 이뤄야 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로 상징되는 바람으로부터 나오는 사상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어린 시절 주일 학교에 다닐 때와 같이 하느님과 성경을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라고 말을 흔히 한다. 이러한 표현은 말하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이해성 안에 있었던 진리가 죽어 버리도록 세상적인 생각과 삶을 허용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주님의 현존과 권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재함으로서만 우리속의 진리들을 다시 살아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에 이어지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구절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말씀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미 죽었던 자를 살리신 주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거나 호평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들을 과거 엘리야나 엘리사도 행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열왕기상 17:8-24, 열왕기하 4:8-37).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분 곧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때를 맞으셨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확증을 받아가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요한이 말했던 모든 것이 진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것이 아니다. 갈대는 물가에서 마구잡이로

자라는 식물이다. 따라서 갈대란 우리 속에 자연적인 수준에서 기억으로 들어오는 말씀의 글자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의 글자를 읽고 기억 속에 담아 두곤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말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을 찾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논리들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논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짜깁기하는 행위이다. 광야라는 세상적인 수준에서 주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즐거움도 주지 않을 수 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사는 곳인 왕궁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극복해낸 후 천국에 이르렀을 때 발견하게 되는 곳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말씀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의 이야기들은 우선적으로 우리속의 악을 들추어내서 회개하도록 해주며, 그 안에 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케 하도록 노력하게 해주는 세례자 요한과도 같다. 이리하여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직능을 완수할 때를 맞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28절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의 영혼이 이때에 이르면 세례자 요한은 죽고 우리의 심정 안에 주님의 영을 진실로 느끼기 시작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면서 한없이 성장하게 된다.

기본 상용 공부

과부 = 소유하고 있어야 할 진리를 잃은 선한 바램

갈대 = 말씀의 가장 외적인 뜻

왕궁 = 천국

제 4반

과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중의 사소한 일에서도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한다.

새교회는 말씀에 기록된 기적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새교회인들은 말씀중의 기적들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들이라서 구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거나 기적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어낸 것이라고 하는 억측에 결코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유지 하며 보전시켜 주신다. 또한 그분의 권능이 영계와 자연계의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것에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는다면 기적들에 대한 어떤 혼란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수행하시지 않으셨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의심이 많은 자들처럼 그 당시에 주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기적을 모두 믿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거나 듣고서 그 권능이 필시 악마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신 까닭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어떤 확증을 주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심으로서 오로지 세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나라나 시대에 휘말려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필요로 하고 찾으면서 그분을 인정하고자 한 이들과 말씀의 가르침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적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훗날 상응으로 가르쳐 지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 이후 그분의 영이 세상에 역사하심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영적인 시야에 관한 능력이 배가되도록 해 주셨고, 다시 재림을 통해 이러한 능력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해 주셨다. 이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0:29).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높은 믿음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과거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당시 베푸신 기적들은 분명히 그분께서 행하신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 기적들이 갖는 상응적인 의미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 주시는 기적을 예로 들어 보자.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백인대장처럼 우리의 생명이 자신과 세상의 영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쓰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까지도 주님의 권능이 미쳐서 생명을 주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한 백인대장이란 스스로를 고치고 재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며 영적인 상태가 자신의 일상생활까지 모두 지휘하고 있는 올바르게 잡혀 있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생활에서 있어지는 마지막 시험에 해당된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희미한 길마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즉 의심과 실망의 때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님의 권능이 재활시켜 주심에 대한 묘사이다. 나인성의 과부란 선한 바람이 그에 따라 있어야 할 적절한 진리를 빼앗긴 상태에 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란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우리 안의 선의지를 표현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한쪽에 밀쳐두고 당면 문제들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있게 되는 진리의 빛으로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처지에 놓이게 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흔하다. 또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는 위로와 충고를 가지고 돕고 싶었던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이웃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접근하고 도와야 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 스스로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알지 못해 번민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속에 든 약함이 우리를 어떻게 영똥한 데로 끌고 가서 내동댕이치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막상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도 허다하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선택하고 싶다는 것 혹은 선행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는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여기며 폭 주저앉고 만다. 한마디로, 살아 있는 어떠한 것도 자신이 가진 능력이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상징된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은 곧 “마치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과부나 그의 친지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성문”가에 서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상여에 손을 대실 때 장례행렬이 멈췄듯이 우리가 스스로의 결정 대신 주님을 찾았다면,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우리는 아이성을 정복하려다 실패한 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아훼의 퀘 앞에 엎드렸던” 여호수아를 기억한다. 그 때에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숨겼다”라고 타이르셨다.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잘못된 점들을 발견하여 바로잡게 되었고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감옥에 있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제자가 주님께 보내지는 모습 역시 위와 같은 실망과 의심의 모습과 같다. 주님께서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여 대답을 주셨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거나 주위를 둘러볼 때 인간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에 있는 고난은 원칙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본문의 뒷부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주님의 진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흔들거리고 비비꼬아지는 것이 아니며 천국의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쉽게 보이고 유쾌하게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 5반

과부의 외아들을 일으키셨던 것과 세례자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주로 다룬다.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17개의 비유들과 다른 복음서들과 공통된 10개의 비유가 담겨 있어서 비유에 관한 한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복음서의 대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그가 주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초대 기독교인들 중 일인으로 바울과 여러 번 여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그는 유럽에 건설된 초대 기독교회인 마케도니아에 있는 필립의 그룹 지도자로 7년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누가”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골고새서 4:14). 그의 이름은 그가 유다의 후손이 아니었음을 암시해 준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과 세 번째 복음의 저자로서 인정되고 있다. 누가복음 제 1장 1-4절에서의 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한 그의 기억적 지식이 그에게 가능했던 모든 자료들을 심도 있게 고찰한 결과임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서역시 여타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감하에 쓰인 기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들 중 하나는 마태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병을 고치는 광경을 기록하되 병의 고침을 받는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본문의 기적에 대해서 이 사건의 말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인 백인대장과 유대인의 믿음을 비교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적인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일으키시는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다. 위의 두 사건 모두 갈릴래아에서 있었다. 백인대장의 전갈은 가파르나움에 계시던 주님께 전달되었다. 나인성은 나자렛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갈릴래이는 “이방인의 갈릴래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 지역이 우리의 바깥쪽 삶 또는 일상생활을 표현해 줌을 살펴보았다. 정복자

로마 역시 세상의 삶을 표현하는데, 통상적으로 더 높은 것에 헌신해야 하는 노력이나 우리가 침략당하는 시기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 하지만 정복자 로마인들 중 한 명인 백인대장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친구이며 혜택을 줄 수 있는 측면의 삶이 약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백인대장의 종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영감을 통해 우리속의 쓸모 있는 능력이 얼마간이라도 회복됨을 의미한다.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위와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다. 성경에서의 과부란 선한 바램이 생산적으로 되고자 하나 그에 따른 적절한 진리가 결여된 상태에 처한 것을 묘사한다. 아들이란 선한 바램에서 파생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선택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에 따라 있어야 할 주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단순한 진리마저도 거짓에게 강탈당하고 마는 예를 볼 수 있다. 진리가 결핍된 선함은 남에게 속고 이용당하기 쉬우며 악에 물들기 쉽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보호하는데 필수 요소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모두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부활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해준다. 그중 하나가 자연적인 부활인데, 이는 인간이 육신을 물질세계에 내려놓고 영계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부활인데, 이는 인간의 생명 노릇을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새 의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발견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 측면에서 알게 되는 말씀이 갖는 연계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흥미를 더해준다. 본문에서는 나인성의 과부가 당한 일로 이어진 일종의 비통함에 대한 예증으로서, 과부 사건 뒤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연이어 주어지고 있다. 그 당시 요한은 헤로데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그를 추종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선교는 이미 막을 내렸던 것이다.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의 선교 사업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의아심을 그의 마음에 허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의 생애와 선교에 대해 좌절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이나 타인을 돕는 일에 대한 노력이 불현듯 헛되게 느껴질 때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나 희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경우와 같다. 감옥에 있던 요한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이룬 성취라는 좁은 공간에 자신을 감금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역사 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큰 섭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그분에게 여쭙러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성취해

가지고 있는 기적들을 직접 보도록 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기꺼이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면, 그분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함이 정녕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비롯됨을 확인하도록 해주신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의 제 28절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여느 예언자들처럼 세례자 요한도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말씀의 글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글자는 우리의 바람이나 상상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말씀의 글자는 부드러운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말씀의 글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칠게만 보이는 진리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러한 거친 진리들이 바로 예언자들이기도 하다. 예언자들은 주님을 대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글자가 주님을 대변함을 인식하게 될 때, 말씀의 글자는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록 해준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말씀의 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스웨덴북은 제 28절을 인용하는 「천국의 신비」 제 9372-6항에서 “내적인 뜻 혹은 천국에서의 말씀은 외적인 뜻이나 세상에 있는 말씀보다 훨씬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가르친 것 보다 더 위에 존재함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로 의미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말씀이 지각되는 것은 지혜 속에 있는 것이어서 심히 위대하므로, [그곳에서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899-11항: “‘죽음’은 부활을 의미한다. 고로 ‘죽은 사람’이란 영원한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뜻한다. 그 이유는 ‘죽음’이 지옥 또는 악과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과 거짓들은 인간이 영적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악과 거짓이 죽어 활동을 그칠 때까지 인간은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하는데, 이는 말씀 속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 또는 ‘부활’이란 말속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은 말씀 어디서나 인간 고유의 것 곧 그 자체로 본다면 단지 악과 거짓뿐인 생명의 활동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에서의 부활은 그것이 자연적이든 영적 측면이든 간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에 의해 의미된다.”

질문 정리

- 1)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2)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누구인가?
- 3) 주님이 오신다고 누가 통고했는가?
- 4) 천사는 즈가리아에게 어떤 징조를 주었는가?
- 5) 같은 천사가 어떤 다른 통보를 했는가?
- 6) 누구에게 위의 통보는 있어졌는가?
- 7)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두 개의 친숙한 노래는 무엇인가?
- 8)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9)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 10) 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 11) 오늘 본문의 첫 기적은 무엇인가?
- 12)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 13) 왜 주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수 있는가?
- 14) 요한은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15) 주님은 요한의 특사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 16) 주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누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의 예언
- 2) 즈가리아와 엘리사벳
- 3) 천사 가브리엘
- 4) 요한의 출생까지 병어리가 됨
- 5) 주님의 탄생에 관한 것
- 6) 마리아
- 7) 축가와 찬미가
- 8) 회개하라
- 9) 그들에게 세례를 줌
- 10)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 11) 백인대장의 종을 고치심
- 12)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심
- 13) 그분은 생명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
- 14)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이십니까?”
- 15)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 16) 예언자
- 17)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29

열 두 사도의 파견

머리말

본문은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장에서는 열 두 사도의 파견 부분만을 다루도록 한다. 이는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성서 본문: 누가복음 9장 1-36절

9장: 1.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2.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고 보내시면서 3.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돈은 물론, 여벌 내의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5.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6. 열 두 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 주었다. 7. 한편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8.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들려 왔기 때문이다. 9.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 보려고 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싸이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11.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뒤쫓아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며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열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니 군중을 헤쳐 제각기 근방 마을과 농촌으로 가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그러자 13.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희에게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들 먹일 만한 음식을 사 오라는 말씀이십니까?”하고 물었다. 14. 거기에 모인 군중은 장정만도 오천 명 가량이니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대충 오십 명씩 떼지어 앉히라고 하셨다. 15.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히자 16.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이리하여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들었더니 열 두 광주리나 되었다. 18.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하고 물으셨다. 19.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0.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22.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24.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30.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2. 그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3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버렸다.

35. 이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36.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교리 요점

- *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화하신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은 주님께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 * 믿음은 남을 도울 능력을 준다.
- * 우리가 남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나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 단지 태어난 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말의 요지는 자신의 악들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다. 물론 첫 대목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섭리 하에 어떤 스스로의 선택 없이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나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의 주장의 뒷부분은 진실이 아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태어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그렇게 이뤄지는 인간의 최종적인 인격은 어느 누구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에 걸림돌을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치워냄으로써 스스로를 더 강건하게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또는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원하게

되면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도와줄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우리 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출생 환경을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장소나 기회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장소나 기회는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백 년이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세월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세월 동안 어떤 인격을 이룰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매일의 선택은 실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스스로 선택하고 이뤄낸 인격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게 될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사도가 될 열 두 사람을 뽑으셨다. 열 두 명중에 네 명은 어부라는 미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들 역시 어부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사도는 세금 수금원이라는 전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품질들을 열 두 사도들 안에서 각각 보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분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무엇이든지 행했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고 그들이 남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실 수 있었으며, 남들 속의 악함이나 악함 혹은 빼놓아진 사상들을 보고 지적하여 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었다. 본문은 이 가르침의 일부와 사도들이 행하는데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이 사건이 주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도록 하신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

제 1반

사도들의 숫자,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다룬다.

주님께서 여러 지방과 마을들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갖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랐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왔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 나아왔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부른다. 제자란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과 이해성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분의 모든 제자들로부터 그분은 열두 명을 따로 뽑으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장차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자 한 일들을 말하게 될 갖가지 특별한 품질들을 그들 안에서 발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 생활이 끝난 뒤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열 두 명을 사도라고 부른다. 사도란 단어는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수련하도록 하셨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 사도들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 * 사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 사도들은 어떻게 자신을 돌보았는가?
- * 열 두 사도 중 주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자들은 누구인가?
- * 주님께서 이 세 명의 사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 * 환상 속에서 보인 주님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 이 환상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이 환상 속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는가?
- * 모세와 엘리야는 각기 무엇을 표현하는가?
- * 베드로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 *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는가?
- *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무슨 말을 했는가?
- * 구름이 걷히자 그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 * 사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제 2반

하늘로부터의 소리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3장 21-22절의 주님의 세례를 상기해본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4-16절에 있는 열 두 사도의 이름도 기억해 본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앞서 했던 공부를 복습해보자.

- * 기적이란 무엇인가?
- * 주님께서는 로마군의 백인대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 * 세례자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 그 당시 요한은 무엇을 알고자했는가?
- * 주님은 요한의 특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큰 매력을 느끼도록 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 받고자 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었던 이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 그들 중에서 세례자 요한에 의해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를 주님께에서 배우고자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에서 올바른 삶을 배우기 위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제자란 “배우는 자”를 의미한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똑같이 공부하지만 더 많이 배우는 학생들을 보고, 이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똑똑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모두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학습 능력의 대부분은 배우고자 하는 바램이나 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아무리 좋은 학생이라도 배우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결코 우등생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스스로 충분히 공부했다고 자만하는 경우도 결국에는 뒤처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바는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것, 우리 영혼에 관한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선하며 유용한 삶을 꾸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우고자 하는 바램은 우리가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몇 사람을 발견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특별히 가까이 있게 하시면서 타인들에게 가능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보도록 해 주셨다.

본문의 7-9절과 18-20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헤로데조차도 예수님께서 발휘한 능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깝게

따라 다닌 이들은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들 중 세 명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환상은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믿었던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상이점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이란 뜻이며, 히브리어의 “메시아”도 이와 같은 뜻이다. 때가 차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진 자” 또는 “하느님의 아들”라고 부르는 인간의 형체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왔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믿었던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주님의 특별한 종으로서 그들에게 지상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고백의 중요성은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아들이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구약성서 예언들의 성취이며, 육안에 임하신 여호와를 의미한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이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분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도록 해 주셨다. 이는 그들이 영계에 가서 그분을 뵈을 때와 같은 모습이다. 이 환상을 다른 말로 변모(transfiguration)라고도 한다. 변모란 “모습이 변함”이라는 뜻이다. 이 환상에서 모세는 법을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들을 표현한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그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이 환상의 끝부분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계심을 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심을 진실로 믿을 때 이 환상은 우리의 이해성에도 보이게 된다. 우리는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찾되, 복음서들이 증거 하는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는 몇 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으셨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 사도란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 *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 사도들은 무엇을 선포하였는가?
- *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당부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생활하라고 이르셨는가?
- * 사도들이 군중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고 주님께 청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는가?

- * 그들이 가진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했는가?
- * 주님께서 그 음식에 축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세 명의 사도들은 어디서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 * 세 명의 사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보여 졌는가?
- * 그들이 본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 * 베드로는 무엇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 * 그들을 덮어서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 *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뭐라고 말했는가?
- * 구름이 겹히자 그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제 3반

열 두 사도들의 전체적인 의미와 더불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갖는 의미도 살펴본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대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찾으려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며 지지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중 그분과 가장 가까운 열두 명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사도가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임명된 사도들은 훗날 세상으로 파견되어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열둘이었듯이, 주님의 사도들도 열둘이었다. 그 이유는 열둘이라는 숫자가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숫자 열둘이란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노력할 때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를 알고 계시듯이 장차 기독교회의 건설에 기여할 특별한 품성들을 열 두 사도들 안에서 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내리시며 특별한 경험을 갖도록 해 주셨다.

열 두 사도들이 겪은 경험들 중의 일부는 그분께서 그들을 떠난 후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 속에서 실제화 되기도 했다. 본문은 그분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주라고 보내신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식량자루, 빵, 돈 그리고 여벌의 내의까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서 머무를 곳과 음식을 얻으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그들이 똑똑하다거나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돌보심으로만 모든 것이 이뤄짐을 명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도 이를 인식하고 배워야만 한다. 설령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지 확신할지라도, 우리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거나 조언해 줄 때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요하거나 자신의 사상을 상대방에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네 복음서들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기적의 간략한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과 진리가 비록 미흡하더라도 이를 타인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구하면 그분께서 그 적을 양을 곱하고 곱해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남게도 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제 본문의 나머지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들 역시 사도들을 준비시키시는 또 다른 사건들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처럼 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에 관한 뚜렷한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인간적인 판단 속으로 되던져지게 되며 옳고 그름에 관한 우리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스스로의 아집이나 세상에 의해 인도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그 모든 사상에 하느님이 없다”라고 우겨대는 현상이 우리에게 초래된다는 것이다 (10:4). 이로 인해 주님의 변모가 기록된 세 복음서의 사건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먼저 거론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변모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하느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제자들 앞에 계신 그들의 스승이며 그 스승이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예언은 주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부상되어야 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 즉,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삶이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하듯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역시 미약한 부분에서 점차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식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5-26절에서 당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세 사도들과 같이 변모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거나 온화하게 말씀하실 때만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견책해 주실 때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옛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강도로 말씀의 글자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과 아주 가까웠던 자들이며, 이 셋은 각기 믿음과 이타에 그리고 이타에로부터 이루어진 일을 표현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그분의 변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영적인 지각의 상태로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림을 말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마태복음서에는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 복음서들 모두 그분의 옷이 희게 빛났다고 전하고 있다. 얼굴은 사람의 내면의 질(質)을 상징한다. 우리가 주님이 곧 하느님이심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 안에서 명백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행동이 하느님의 참된 본성(本性)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 것이며, 그분의 옷인 말씀의 글자가 우리에게 갑자기 명확하게 되어 이전에 말씀의 글자를 덮고 있던 가상적인 곤란함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말씀 속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이해성에 비취지게 된다.

베드로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시하여 예배하려던 생각이었다.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믿음을 간직한 채 새로운 것인 기독교적인 믿음을 단지 추가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이 제안을 했을 때 그가 가진 어두운 마음인 구름이 그를 덮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6-18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여기서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세 사도들은 이 환상을 통해 주님께서 오신 것이 당대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시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확신 했던 것이다. 물론 베드로는 이를 상기시켜 주는 또 다른 경험도 가졌지만, 이 거룩한 산에서의 경험이 가장 직접적인 것이었다(사도행전 11:1-17 참조).

기본 상용 공부

열 둘 =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들

베드로 = 믿음

야고보 = 이타애

요한 = 이타애로부터 이루어진 일

모세 = 율법 또는 말씀의 역사 부분

엘리아 = 말씀의 예언 부분

얼굴 = 개인 속에 든 내면의 특성

제 4반

주님의 사도로써 쓰임 받으려는 자세를 강조한다.

사도란 단어는 “파견됨”을 의미한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세상 안에서 천국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열 두 사도를 파견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이 주님의 사도들에 있었던 바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추종자들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계셨듯이, 그분은 지금의 우리 안의 것들도 모두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지녀야 할 영적인 품성에 관한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분에 관해 가져야 할 확신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경지를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먼저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 속의 악해지려는 경향성을 정복하고 우리의 결점과 약함을 고치도록 하는 능력을 그분께서 주심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증진시켜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그분의 일을 하는 동안 자신들을 위한 어떤 물질적인 준비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스스로의 공적을 찾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어지는 경향성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이 타인에게 해준 일이나 말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 한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역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와 타인을 도와주려는 우리의 선한 능력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영을 위한 어떤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나를 잊는 것 곧 망(忘)적인 마음자세가 우리에게 필수요건일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라는 대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혹은 그 선행을 기꺼이 수락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 자신의 하고 있는 선의 행함이 종료될 때까지 그 행함에 머물러야 함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필요로 하고 작은 보탬이라도 환영하는 이에게 그런 것을 해주면서도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의 관심이 어떤 다른 흥미에 의해 사로잡히거나 또는 상대방과의 견해차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5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충고나 도움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그리고 발의 “먼지를 떨어라”라고 경고되고 있다. 이 경고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 싶지 않는 이들을 우리 마음에 잡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머무르게 하면 또 다른 할 일이나 노력에서 우리를 구름같이 덮어 씌워버리거나 실망만을 주어 우리의 의지를 아예 주저앉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선의지를 거절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발에 묻은 먼지”로 의미되고 있다.

사도들이 그들의 실습 여행을 마치고 주님께 되돌아 온 후,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익힌 교훈을 납득하도록 할 또 다른 경험을 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심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우리의 미약한 지식이나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가 익혀야 할 기본이 되는 가르침에 접하도록 해준다. 본문의 의미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선택된 성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자. 즉,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이사야 9:6). “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하고 일러주었다.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마태복음 1:21-23).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말이를 받아 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말이를 말아서 시중들던 사람에게 되돌려 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하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4:17-21).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4:25-26).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나?’”(요한복음 14:8-9). 위의 몇몇 구절들만 살펴보더라도, “하느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글자적인 의미에서조차 하느님의 아들이란 인성을 입으신 하느님 곧 우리와 함께 계심을 뜻하는 임마누엘을 의미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표현으로부터 성경적이지 않는 삼위일체론의 결말을 끌어내어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의 예언 안에서 그 명확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장하신 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이란 고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장차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 요한복음 10장 32-33절을 읽어 보자.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대개 그들이 원하는 하느님이 예수와 같은 분이 아니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자신과 비슷한 인간으로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들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항목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리스도가 곧 하느님이심을 부정하는 생각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천국의 빛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버리도록 한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열려 변모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안도 열려 말씀의 내적 의미 속에서 거하시느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랜 뒤 사도 요한은 더욱 충분해진 환상 속에서 그분을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12-18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스웨덴붉은 영계에 가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성취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에 따라 측정된다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우리가 주님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하느님이심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생각하지 못할 경우 영계에 이르러서도 결코 그분을 “마주 대하여”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계에 가서 천사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가 하느님이시라는 진리를 인정해야함을 교육받아서 알고 인정한다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정면으로 비치는 빛이 아닌 반사된 빛으로만 그분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이미 영계에 이른 이상 주님을 바로 보기 위해 우리의 이해성 안에 이뤄져야할 기초를 형성할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능력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변모하신 그분을 볼 우리의 능력이다. 둘째는 성경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셋째는 그분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율법과 예언서 곧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얼마나 기꺼이 바라는지 또는 그분의 영을 얼마나 영접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의 내적인 의미를 공부하여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서 말씀을 덮고 있는 구름이 걷혀질 때까지 위쪽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예수님만이 서계시는 곳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제 5반

본문 전체의 의미가 간략하게 파악되도록 진행해 간다.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다 보면 본문에 언급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나 그분의 변모하시는 사건이 중복됨을 볼 수 있다. 중복된 사건 자체가 지니는 의미는 넓게 해석하면 어느 복음서나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다보면, 서로 각기 다른 다양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이해성에 친숙해진 말씀의 문단들이 두드러져 나오는 현상은 그 안에 우리를 위한 진정한 어떤 길이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게 되는 각기 다른 상태나 경험에 말씀의 이야기들이 적용되도록 말씀들을 우리의 이해성에 가져다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본문에 중복된 두 가지 사건역시 사도들의 인생 업무를 위해 준비되는 부분으로서 그것들을 누가복음에 가져다 놓으셨는데, 이는 사도가 되어야 할 우리를 위한 준비로서 배려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사도가 되기를 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들이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하며,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할 것이다. 본문은 이런 과업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지침들에 해당된다.

사도들을 파견했던 것은 실질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도들은 각기 여러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가 되돌아와 그들의 스승에게 보고했다. 떠날 때 각 사도들에게는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속의 악을 극복하고 타인들의 악함을 고치는데 도와주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내용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주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심을 직접 보여주라는 의미이다. 사도들은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받도록 해 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떠나라고 명받았다. 이 명령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특별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진리와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들 간에 우리의 자아가 슬며시 고개를 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자만이나 자기주장에 쉽게 휘말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하며, 사도들이 동네속의 먼지를 떨어 버렸듯이 그동안 들었던 노력에 대한 실망감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즉시 떨어뜨려야

한다.

주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 복음서들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기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자녀 또는 우리의 이웃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양식을 줄 책임이나 기회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가진바가 부족하여 안타까워하거나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에게 새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혹은 “내 자녀들이 새교회의 교리를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하나?” 등과 같은 질문은 실로 다양할 것이다. 12절에서 사도들이 군중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듯이 우리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적절한 답을 위해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자고 하는 충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기억 속에 든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줄 어떤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그분께서 필요함을 충족하고도 남도록 그것을 배가시켜 주심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스웨덴북의 저서를 통해 설비해 두신 주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공부해 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도로서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우리는 스웨덴북이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유입(流入)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오병이어의 교훈에 뒤따르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형태의 가르침을 접하도록 해준다. 변모에 관한 이야기는 세 복음서들에서만 주어지고 있다(마태 17:1-9, 마가 9:2-10). 이 사건이 세 복음서들에 기록되는데 따르는 공통된 선행 조건은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선행 조건들은 네 단계로 구분되는 영적 성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는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이다. 둘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어떻게 놓으셨는가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는 것이다. 셋째로는 우리가 그분과 결합하고자 하면 자아 중심적인 삶 곧 자신의 목숨을 반드시 한쪽으로 밀어 놓아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서는 영화된 인성 안에 계신 그분을 빌 능력과 그분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의 글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64-2항에서는 변모하심에 관한 이야기의 상응이 다른 문단에서보다 더 명백하고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다. 즉,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택하셔서 산에

오르셨는데, 이는 그들이 교회의 믿음과 이타애 그리고 이타애로부터 행해진 선을 표현하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함은 ‘산’이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마태 17:2)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얼굴’이 내면의 것들을 의미하고 ‘그 얼굴이 빛났음’은 그분의 내면의 것이 신성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해가 신성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옷은 그분에게서 발출되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빛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는 두 사람이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말씀의 역사적인 부분을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의 예언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에서 ‘빛나는 구름’이란 내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말씀은 말씀에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란 주님의 신성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성함이 주님으로부터 있고 교회속의 모든 진리 역시 그분으로부터 있어져서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신비」 5922-5항, 「요한계시록 설명」 195-18항, 「천국의 신비」 2576-19항 그리고 「천국의 신비」중에서 창세기 18장에 대한 서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변모에 관한 이야기에서 구름이 걷힌 뒤 세 명의 사도들은 예수만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신실할 때, 우리는 영적인 환상의 높은 산으로 인도되어 말씀의 내적인 의미가 그분을 밝혀주듯이 그 산에서 영화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때야 비로소 주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서와 말씀의 전체에서 주님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세 사도들은 그들이 본 환상을 얼마동안 다른 이들과 나누지 못했다. 이와 같은 환상은 충직한 섬김의 왕관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을 보도록 준비되지 않은 이들과는 이러한 특별한 환상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말이다. 주님의 재림의 실체는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히 알려주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모란 그분의 재림으로 가능해지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성을 예언해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제 821-2항: “열 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와 마찬가지로 복합체 안에 있는 교회, 진리와 선에 관한 모든 것 또는 믿음과 이타애에 속한 모든 것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믿음과 이타애 그리고 이타애로부터 행해진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 셋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를 이루어 완전한 것을 표현한다. 그들이 하나로서 말해지는 이유는 이타애 없이 존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일함 없이는 이타애가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의 신비」 제 5922-5항: “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그분이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바와 같은 신성한 인간을 보여주셨는데, 이 신성한 인간은 신성한 빛 속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여 진 그분의 형체가 말씀의 내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보여 지게 되는데, 천국에서의 신성한 진리 역시 이와 같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의 사용을 위한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 사람에게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보여 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백인대장은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는가?
- 2) 주님께서는 백인대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 4) 세례자 요한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5) 요한의 특사는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6) 주님께서는 그 특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그분은 요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이때 거기에는 몇 명의 사도들이 있었는가?
- 9)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는가?
- 11)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했는가?
- 13) 그들은 어디서 머물라고 했는가?

- 14)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 15) 본문에 있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 16) 그 기적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17)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 18) 어떤 세 사도들이 주님과 가장 친근했는가?
- 19) 그 사도들은 무엇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20) 이 환상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인가?
- 21) 우리는 이 환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 22) 열둘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3) 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이 변모를 볼 수 있었는가?
- 24) 우리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이들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2) 그는 큰 믿음을 가졌다 3) 아들을 살리심
- 4) 감옥에 들어갔다 5)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6) 너희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 7) 위대한 예언자 8) 열 둘 9)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침 10) 하느님의 나라
- 11) 온 동네에서 병을 고치고 전도함 12) 어느 여분의 것도 지니지 말라
- 13) 사람들의 집에서 14)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라 15) 오천명을 먹이심
- 16)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권능 17) 하느님의 그리스도
- 18) 베드로, 야고보, 요한 19) 주님이 희게 빛나심 20) 모세, 엘리야 21) 변모
- 22) 복합체 안의 모든 선과 진리,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애쓸 때 알고 느끼게 되는 모든 것
- 23)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
- 24)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과는 자유로이 나누되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

30

선한 사마리아 사람

머리말

본문에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부분까지는 몇 개의 장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몇 장 안에는 비유, 제자들을 가르침, 기적 그리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 상태를 폭로하시는 것 등이 들어 있다. 제 10장의 첫 부분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잠금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이 첫 부분을 먼저 읽고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명확한 빛으로 비춰 보게 될 것이다.

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25-42절

10장: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26.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하고 반문하셨다. 27.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28.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하고 물었다. 30.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31.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2.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34.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35.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36.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8.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었다. 39.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41.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42.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교리 요점

- * 주님을 예배함은 선한 삶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이다.
- *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 * 믿음은 선한 일로 결과 되어져야 한다.
- * 각자 안에 든 선이 곧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는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유일한 비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성서 이야기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자주 인용되고 있다. 선하며 친절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지극히 단순하며 도움이 되는 교훈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거나 남용해 버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만 있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하느님조차 믿지 않더라도 선한 사람이 되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난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도와주는 편이야. 그게 나의 종교거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된다. 우리는 이 말속에 자신을 찬양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있고 자기 칭찬은 선천적인 이기심을 암시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혹은 이웃에게 칭찬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는 본문을 읽다보면 본문의 비유가 위와 같은 내용과 전혀관계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첫 단계로 율법교사로 하여금 율법속의 두 큰 계명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계신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 주님께서 이 두 계명 중 첫째는 계명이 어느 것인가에 대해 “이것이 첫째는 큰 계명이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구약 성서의 율법을 습득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섬김에 대한 그들의 행위적인 면은 대단히 경건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은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치 않았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에 사용하셨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멸해왔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민족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라고 불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러한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은 각 개인 안에 든 선이 사랑하게 될 이웃은 종족, 색깔, 지위 그리고 신분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말씀을 쉽게 왜곡했음을 알고 계셨는바, 이 비유의 말씀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를 곡해하지 않도록 섭리해 두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실패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마르타는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었다.” 이런 일은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마르타의 불평에 대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진실 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주님에 관해 꾸준히 배워 가는 길에서만 우리속의 이기적인 사랑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이 자리 잡게 되어 우리를 통해 그분이 세상에 나타내지실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 주님을 사랑함이 첫째는 큰 계명임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되새겨보기 바란다.

제 1반

본문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의 뒷부분에서 우리의 선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본다. 누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리고 유대인이 그들을 경멸했던 까닭을 살펴보면 비유가 진정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본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 사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구약 성서의 율법을 환히 알고 있는 율법 교사가 주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쭙었다. 그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알기 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을 그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 주셨는데, 이는 그가 구약성서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셨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주님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대답했다. 주님께서 그가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상 그는 그분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에 따라 살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때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이와 비슷하다.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을 합리화 시킬 어떤 구실을 발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여쭙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 후 바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놓아두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친절이라는 측면에서 그분께서 의미하신 것이 단순히 이웃의 육체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을 돕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육체적인 선행보다 더 나은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가?
- * 비유란 무엇인가?

- *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 받던 계층은 누구였는가?
- * 비유 속에서 사제와 레위지와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 *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 * 사마리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 *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 * 이 비유는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내용인가?
-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마르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주님께서는 두 여인이 하던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가?
- *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가?

제 2반

비유에 있는 교훈과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교훈을 강조하고, 이 두 교훈의 적절한 관계를 두 가지 큰 계명의 순서를 통해 살펴본다. 최소한 27절만이라도 암기하도록 하자.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율법으로부터 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도록 하셨다. 이 율법 교사가 인용한 율법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 29절에서 “스스로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율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변명하려 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의 첫 번째 사항은 잘 지키고 있다고 느꼈지만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주님께서 이웃이란 자신이 속한 종교와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해주시기를 은근히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바라던 것 대신 비유를 주셔서 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해지도록 하셨다.

예루살렘 언덕사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예리고는 사해와 가까운 곳으로 아주 낮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두 지역간의 거리는 약 18(29km)마일 정도인데, 왕래되는 길은 거칠고 가파르며 들쭉날쭉한 암석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강도들이 암석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

와 여행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사제들은 당시 가장 찬양 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레위지와 사람 또한 사제와 비슷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업신여기며 미워한 부류에 속했다. 그 이유는 오래 전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붕괴되고 그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텅비어버린 그 땅에 외부로부터 강제 이주시켜진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로 하여금 종족이나 신분 또는 학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한 자비와 친절을 보고 인정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웃”이란 “가까운 것”이란 의미가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여는 마음인 이기심은 사람들을 언제나 서로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 우리가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도우려 할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다. 우리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 불린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 있는 선을 돌보며 사랑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선을 돕도록 애써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종종 스스로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여행은 우리가 가진 높은 상태인 이상과 선한 해결점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일 또는 즐거움으로 내려감을 그린다.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닥친 시험이 우리의 선한 의도나 생각들을 강도질 해가고 영적으로 우리를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곧 우리를 다시 높은 상태로 들어 올려 사랑과 좋은 충고(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 주며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 갈 때까지 보살펴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교훈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분은 오랜 뒤에 이 비유에 담긴 진실함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신의 변명에 대한 구실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상당하다. 우리는 이들 중에서 남을 위해 행한 어떤 행위를 과시하며 자신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고 말하거나 행위로서의 선한 일들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며 소리 높여 주장함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뒤에 바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놓아두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르타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수행하게 되는 모든 행동적인 선함들은 우리의 삶에 유용하며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마르타와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께 관해 배워야 할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측면에서 이웃을 돕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동적인 면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영예를 자신에게 돌리게 되고 결국 그 선한 일속의 선을 자신이 취해 버리고 만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가? (9장 1절 참조)
- * 사도란 무슨 뜻인가?
- * 어떤 능력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는가?
- *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들은 누구인가?
- * 그들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가?
- * 본문의 비유는 누구에게 말해지고 있는가?
- * 당시 모세의 법을 환히 알고 있었던 계층은 누구였는가?
- * 율법 교사는 주님께 무엇을 여쭙었는가?
- * 우리는 가장 큰 두 계명을 뭐라고 부르는가?
- * 주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는 동안 마르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마르타는 주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했는가?
- *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 3반

비유의 세부사항을 상응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두 가지 큰 계명의 가르침을 예증으로 삼아 두 이야기의 관련사항을 살펴본다.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주님의 비유 중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속한다. 그리고 율법교사와 그의 질문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도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큰 계명으로 답하고 계신다. 마태복음서에서의 교훈은 주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 누가복음서에서의 교훈은 우리의 개인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본문에서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비와 친절이 중요한 사항이지 학식이나 종족 혹은 계급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사제나 레위 지파 인보다 자신들이 경멸해 왔던 사마리아 사람을 더 나은 이웃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님**에 의해서 이웃이라 불린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신 바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종족 자체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인격 곧 속사람의 값어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의 인격 속에 든 선인 것이다. 주님의 비유속의 모든 사항들은 누구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을 담고 있다. 여기에 상응을 첨가시켜 공부하면 더욱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교회 또는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되는 영적인 시아나 해결책을 상징한다. 이런 높은 상태에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되므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높은 상태 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속의 선한 결심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곳인 삶의 일상이라는 낮은 평면 곧 예리고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리고로 가는 길가에 잠복하고 있는 강도란 우리 속에 든 악한 충동과 생각들을 상징한다. 이것들은 지옥에서 올라 온 것들로서 강도처럼 우리 속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를 덮치고 우리의 높은 생각과 선의지를 강탈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반쯤 죽여 놓는다.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사제와 레위 지파 사람은 썩어진 교회를 표현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해성 속에 올바른 것에 관한 지식과 진리들을 간직하고 있으나 실제로 선을 행해 보겠다는 따뜻한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반쪽 밖에 안 되는 지식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선을 행해 보겠다는 단순한 바램이 우리를 도와주는 원조물자와 같은 것이다. 이런 바램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인으로 표현되는

선행에 대한 바람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사랑과 진리인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다음 짐승에 우리를 태운다. 여기서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속의 단순한 선함을 기초로 하여 있게 되는 추론이며, 이 추론은 반쯤 죽은 우리를 회복 가능한 곳인 여관으로 실어다 주게 된다. 우리의 강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천국이며,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선을 행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단순한 의지이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웃이 선함이라고 지적하신다. 그리고 스웨덴복은 우리가 이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은 모든 이들 안에 있는 선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함이란 그들 속에 있는 악까지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점검하면서 그들 속에도 선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선이 발달되고 증가되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회에서는 유사한 선함을 지닌 사람끼리 모이게 된다. 이것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애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가까이 붙어살게 된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선함을 가져가 가까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선한 행위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읽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주신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둘 다 착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마르타의 생각은 주님의 육체적인 필요성을 섬기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타가 주님께 보다 가시적이고 행위적인 선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마리아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마리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 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함을 배울 기회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해져 결국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관하여 배우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이 선하다는 증거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선하다고 속으로 칭찬하면서 자신과 같은 행동선상에 있지 않은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행동만으로 이뤄지던 우리의 선함은 내적인 측면에서 전혀 선이 아니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 든 선이 도와줘야 할 우리의 이웃임과 우리의 안내와 힘을 주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항상 유념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함께 더욱 잘 섬겨가게 되어 지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인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본 상용 공부

예루살렘 = 영적인 상태
예리고 = 바깥쪽 생각과 활동 평면
강도 = 나쁜 생각과 바람
기름 = 사랑
포도주 = 영적인 진리

제 4반

율법교사의 질문과 그에 답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주로 살펴본다. 또한 우리가 매일하게 되는 이웃 사랑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이웃에 대한 교리도 살펴본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종종 남용되기도 한다. 본문의 비유는 스스로를 존경하여 자신의 옳음을 정당화시키려고 한 율법 교사를 위해 자비와 친절이 학식이나 출생 혹은 사회적 지위보다 더 낫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사랑되어야 할 이웃은 각 사람 속에 있는 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든 진정한 교훈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비유가 행위적인 친절이야 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선하게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다 교회 밖에 더 선한 사람들이 많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주장을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나 교회를 지지하지 않는 변명으로 이용한다. 교인들보다 비교인들 중에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더 선한 사람들이 단지 교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다고 불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하지 못한 까닭이 그들의 신앙이 입술로만 예배하는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이지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등장한 사제나 레위지파 사람은 진정한 교회나 교회의 교리를 표현하지 않고, 부패된 교회 곧 “정의와 자비 그리고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부패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정의에 관한 지식을 그들의 이해성 속에 잘 붙잡아 두고 있었지만, 선을 행할 훈훈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선의지가 결여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속의 이기적인 바램이나 추론이 우리속의 선을 강도질하려고 들 때와 같은 중요한 시험의 시기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돕지 못한다. 즉, 선을 행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운 것처럼 우리를 돕게 된다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단순히 행위적인 선한 일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음을 이 비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며 실수하지 않도록 해준다. 주님께서는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는데”라며 불평하는 마르타를 아주 부드럽게 타이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를 선택한 마리아가 더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선한 행위가 반드시 그분의 진리의 인도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선행이 자아로부터 있어지면 진정한 선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바는 사랑되어야 할 이웃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이웃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든 선이다. 그래서 스웨덴복은 우리가 이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 모든 사람 속의 선이요 이 선을 사랑해야 한다고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 원리를 응용하거나 친구의 결점을 극복하려는 것을 돕고자 한다면 그 친구의 결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본 척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려면, 자녀의 과오가 드러날 때 자녀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보고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그것을 두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살이 점검함과 동시에 그들 속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을 찾아내어 돌봐주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는 선의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본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들 사이에서도 필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선한 특질과 더불어 나쁜 특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과 달라서 혹은 인간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남을 단죄하는 대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안에 든 선은 사랑하고 그 안의 악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웃 사랑이 두 가지 큰 계명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첫째가는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첫째가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가 본문 첫 부분의 교훈과 상호보충 되고 있는 것이다.

제 5반

두 가지 큰 계명의 순서, 율법 교사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삶에서 응용되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균형점을 살펴본다.

우리는 본문과 더불어 주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지상 업무의 마지막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다(누가복음 9:51). 본문 이후의 몇 장에 걸쳐 가르치시고 있는 대부분은 비유이며, 그것들 대부분은 타 복음서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본문의 가르침은 시작부터 아주 간단한 용어로 이뤄지고 있다. 율법교사 곧 서기관은 당시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34-40절에서는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사랑을 강조하신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답이 옳다고 하시며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씀 전부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다. 본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중 첫째 돌 판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련된 것이고, 둘째 돌 판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둘째 돌 판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첫째 돌 판의 것을 깨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첫 돌 판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둘째 돌 판의 것을 깨트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친절과 정의 안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인정됨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일부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정의와 이타애가 결핍된 행위를 보여 주어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혹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웃사랑이 주님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즉, “저 사람은 종교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없지만 이웃들을 위해서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 또는 “교회 내에서보다 교회 밖에 더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와 같은 주장들이 그러하다. Leigh Junt라는 사람의 시가 출간된 1838년에는 주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부산물로 인정되면서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증거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과 뜻을 주님께 의지하지 않거나 무엇이 선인지에 대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웃에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님 사랑에 근거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선이 자아 사랑에 근거하게 되고 자아 사랑은 선함을 자아의 걸치레로 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16-26절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자아 사랑이 선함을 자아의 걸치레고 만드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으나, 주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분을 따르라고 했을 때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판다함은 우리의 소유인 선함과 지혜가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즉,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본문의 율법교사는 이와 같은 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는데, 이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그의 질문으로 암시된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어 비유들 중에서 자주 거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파악함에 있어서 경솔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진정한 이타애가 교회 밖에서 있다는 증거로 이 비유를 거론하거나 이웃 사랑의 필수요건이 이웃의 물질적 필요를 돌보는 것이라고 역측하는데 이 비유를 악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며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삶에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출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한 상응을 조금이라도 살펴본다면, 우리는 위와 같은 착각이나 역측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는 상응으로 보면 “교리속의 진리가 생활의 선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그분의 뜻에 관해 배웠던 어떤 것을 우리가 실제 응용하는 데에 놓으려고 노력함을 말한다 (AE 458-10). 우리는 이 여행 곧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속의 이기적 바람이나 그 바람에서 나오는 거짓 추론에

의해 종종 공격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라는 옷을 강탈당하고 우리의 선한 해결책들이 소극적으로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반쯤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 좋은 의미에서 사제와 레위 지파 인은 주님에 대한 예배와 이타애의 선을 표현한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처럼 나쁜 의미에서의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과 이타애의 선이 없는 것을 표현한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자들을 의미한다(AE 444-1). 사마리아인이란 “진리를 사랑(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의미한다. 부연하자면, 사마리아인들은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삶에 적용해 보려는 의지를 지닌 자 또는 “이웃을 향한 이타애의 선 안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AE 375-42).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속성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도와주는 바, 선한 사마리아인들만이 선하고 진정한 것인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어 흔들렸던 우리의 선의지를 강건하게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하여 우리의 이해성이 허용하면 더 많은 교훈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게 된다. 여관이란 삶의 참된 교훈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야기 전체가 영적인 섬김에 대한 묘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라고 불리는 자가 사마리아인이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심을 주목해야 한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가 이타애의 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본은 각자가 지닌 주님 사랑의 품질에 따라 이웃이 될 사람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AC 6711항).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 안에 든 주님 사랑이며 타인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주님 사랑이 증가되는 방향으로의 행동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분별없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은 결국 그의 악행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각자 주위에서 이에 대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을 위해서 스웨덴본의 「천국의 신비」 제 6703- 6712항 또는 「참된 기독교」 제 428항을 읽어 보도록 하자. 주님께서 율법교사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이 사제나 레위지파 인보다 더 나은 자신의 이웃임을 인정하도록 만드셨을 때, 율법교사가 받은 가르침은 진정한 선함은 그 선함의 출처에 상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곡해하여 스스로가 옳은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이 비유 뒤에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란 우리가 활동적인 것에만 미혹되어 바쁜 나머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느라 바빴던 마르타와 같이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기고, 이를 실천하면서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다보면, 과도한 일에 신경 쓰며 걱정하여 한정된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균형감을 상실하게 된다. 어떤 교회는 때로 외적인 봉사에 너무 치중하여 말씀을 가르치거나 공부하는데 소홀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필요성이 긴박하기 전에는 영적인 것을 인간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히 진실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평화와 기쁨을 찾고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유다는 그것을 붓느니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투덜거렸다. 이때에 주님께서서는 본문과 같이 가르치시고 계신다. 이와 더불어 마가복음 14장 7절을 읽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마르타에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사랑함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선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드높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자.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새 예루살렘과 그 교리」 제 85항: “오늘날 공통되는 견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이웃이라는 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신중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웃의 정의나 혜택을 베풀 때 삶의

질을 잘 살펴서 그 안에 참된 이타애가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적으로 교회를 품은 사람은 식별력 곧 총명으로 이타애를 이룬다. 그러나 외적으로만 교회를 품은 이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이타애를 적용하게 된다.”

「진정한 기독교 종교」 제 428항: “악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악마에게 빵을 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악인은 빵을 독으로 바꿔 놓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마에게 빵은 곧 독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악인은 선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해서 결국에는 빵을 독이 들도록 변화시킨다. 이는 마치 누군가를 죽일는지 모르는 적에게 칼을 건네주는 격이다. 또한 늑대와 같은 심보를 가진 자에게 목자의 지팡이를 맡겨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여 결국 그가 지팡이를 손에 쥔 후 양떼를 광야로 몰고 가 다 죽이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약탈하는 것만 연구하고 기회를 엿보는 강도에게 공권력을 주는 경우, 그 사람은 법을 집행하고 재판할 때 부자의 죄는 가볍게 하고 뇌물을 바치는 자는 석방하는 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사도란 무엇인가?
- 2) 주님의 사도는 몇 명이었는가?
- 3)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 4) 그들은 전도 때에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도록 되었는가?
- 5) 사도들이 군중들을 먹이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 6)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 7)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 8)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 사도는 누구인가?
- 9) 이 세 사람은 어떤 환상을 보도록 허락되었는가?
- 10) 본문에서 율법교사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1) 주님께서 이 대답을 위해 어떤 책을 참고 하셨는가?
- 12) 율법교사는 무슨 대답을 발견했는가?

- 13)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4)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비유로 답하셨는가?
- 15) 강도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가?
- 16)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 하고 지나친 두 사람은 누구인가?
- 17) 누가 이 사람을 도왔는가?
- 18) 사마리아인들이란 누구인가?
- 19) 이 비유는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0) 마리아와 마르타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1) 주님께서는 누가 더 나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22) 왜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 즉시 이어지는가?

질문의 답

- 1) 과견함 2) 열 둘 3) 하느님의 나라 4) 영접하는 자들
- 5)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불리셔서
- 6)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7)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 8) 베드로, 야고보, 요한 9) 변모
- 10)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1) 성경
- 12) 주님과 이웃사랑 13)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14) 선한 사마리아 사람
- 15)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16) 사제, 레위인 17) 사마리아 사람
- 18) 아시리아 나라가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의 후손 19)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라
- 20)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타는 봉사하느라 분주했다 21) 마리아
- 22)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법을 배우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1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

머리말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문이 언급된 앞부분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소 친숙하지 않게 여겨지는 뒷부분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3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 그 이유는 영혼의 눈을 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간직해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찾으며 그분의 안내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성서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장: 1.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2.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 놓을 것이 있어야지'하고 사정을 한다면 7.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하고 거절할 것이다. 8.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 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 주지 않겠느냐? 9.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11. 생선을 달리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12. 달걀을 달리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예수께서 병어리 마귀 하나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병어리는 곧 말을 하게 되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 그러나 더러는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하였으며 16. 또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싸우면 쓰러지게 마련이고 한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18.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19.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20.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하여 남의 것이 될 것이다. 2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 들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24.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하면서 25.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26.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데리고 들어 가 자리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하고 외치자 28.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하고 대답하셨다. 29. 군중이 계속 모여 들고 있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렇게도 악할까!” 하고 탄식하시며 “이 세대가 기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 30.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사건이 기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도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31. 심판 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32. 심판 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33. “등불을 켜서 숨겨 두거나 뒷باك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없어 둔다. 그래야 방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네 눈이 병들었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36. 너의 온 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37.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어느 바리사이파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38. 그런데 예수께서 손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깜짝 놀랐다. 39.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 차 있다. 40.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 41.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십분의 일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십분의 일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43.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닌다.” 45. 이 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희에게도 모욕이 됩니다”하고 투덜거렸다. 46.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워 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 47.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48.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49.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가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고 하셨던 것이다. 50.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1.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즈가리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렸고 자기도 들어 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53. 예수께서 그 집을 나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몹시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54. 예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 신성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 * 주님께서는 구약 성서를 꾸준히 인용하셨다.
- *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오게 된다.
- * 가장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은 마음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과 자기희생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봉사에 대한 많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또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며,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야말로 부드럽고 친절하시며 사랑과 용서만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저주하신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습득한 자들로서 당시 유대인의 종교를 대표했었다. 그들의 마음은 거만하고 이기적이어서 길바닥같이 딱딱했고, 그들은 오로지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받들어 주기만을 원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죄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라고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걱정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성령이란 우리의 영혼을 계발시켜 주며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말한다고 한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다는 것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리사이파인 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을 진실로 영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위했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도 주님의 권능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이 악마의 두목인 “베엘제불”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진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아서 용서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길을 고집하는 이들은 주님의 용서하시는 영이 자신들의 심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참담한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거나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순수하게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되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을 순종하며 믿었던 제자들에게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위선자들은 주님을 등지고 그들의 마음과 이해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그래서 결국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이 한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선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로서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늘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서 이웃들로부터 인정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도록 해주는 선행 그 자체로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함이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우리들 속에 있게 될 때 진정한 선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의 육성만큼 생생하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심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에 속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제 1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관한 것 그리고 제 33절과 34절의 의미를 살펴본다. 본문과 더불어 누가복음 18장 9-14절도 읽어본다.

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을 환영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를 말씀하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심을 간직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부모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거나 답하면서 부모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의 기억을 회상해보면 아주 행복했던 느낌이 들어 불현듯 미소를 머금게 되는 행복감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전혀 다른 것도 있음을 떠올린다. 즉, 우리가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곡해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과 틀어져 있을 때는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고집할 때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도 그분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길을 바꾸면서까지 주님의 가르침에 청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권능이 베엘제불로부터 왔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베엘제불이란 악마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들이 주님의 권능이 하느님의 권능이었음을 인정했다면, 그들은 그분을 믿어야만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언제나 가장 경건한 유대교의 종교인임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서를 공부하고 그것을 옮겨 적어서 새로운 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생계의 주된 업무였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준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큼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신앙이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맨 먼저 달려와 그분을 환영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경외하도록 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훈을 받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입증하려고 온갖 모략을 꾸몄다. 이리하여 그들은 예수의 권능이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고 소문을 냈다. 따라서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덮어놓았던 것이다. 이들은 마치 빛이 비춰질 수 없도록 등불을 덮어 둔 사람과 같다.

우리는 주위의 친구나 이웃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충고하려고 노력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려는 대신 그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 보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 영혼의 눈이 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는 악해지는 대신 순수해짐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지를 환히 알게 하는 빛과 같다. 우리는 과거 바리사이파 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이 빛을 덮어두고자 해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대화 속에서 쓰는 "알았다"라는 표현은 "이해했다"를 뜻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간직하면 우리의 이해성이 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교훈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든 이기심으로 이해성의 눈을 구름에 가려진 햇빛처럼 침침하게 되도록 놓아두면 올바른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을 초대했던 바리사이파인은 어떤 불평을 했는가?
- *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바리사이파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시 여겼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이 경시한 무엇을 지적하셨는가?
- *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견책하셨는가?

제 2반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에 관한 것과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이유를 살펴본다. 또한 "위선"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본 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본다.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누가복음서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서의 것보다는 우리에게 덜 친숙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본문의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하나는 제 2절의 마지막 문장의 순서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순서의 원문인 그리스에서도 영문과 같아서 마태복음의 것보다도 그 순서가 일치함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지상에서 행하는 것 곧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뤄지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의 뜻을 하늘에 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에 사는 우리에게 있는 하늘이란 곧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이해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리가 우선 마음과 이해성 안에 써진 후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져야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빛” 대신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사용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복음서들에서 주어진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기도문에 대한 주님의 설명에서 소개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빚진 것 곧 은혜 입은 것을 당감해 주심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5절로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은 후 마태복음 6장 7-8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 바로 이전에 있는 구절이다. 두 복음서들의 각 문단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1-23절을 읽어보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준비를 갖추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 “no”라고도 응답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될 때 “no”라고 응답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마태복음서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문단은 다양한 삶의 형태가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하신 산상설교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대부분은 주님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파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잘 교육된 사람들이며, 그들의 일과는 구약 성서를 읽고 베끼면서 율법이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2장 3-6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바리사이파인들이란 여느 사람들보다 더욱 경건하다고 분류된 계층이었다. 그들은 유대교의 대표자 역할을 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볼 것이라고 자처했다. 주님께서

이들에 관해 하셨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5-7절에서 찾아보자. 이러한 두 무리는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편리하도록 모세의 율법에다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나 이런저런 규정들을 잔뜩 덧붙여 놓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줄도 몰라서 주님의 법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율법학자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던 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인식하고 환영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헤로데처럼 자신들 외에 누군가가 그 땅에서 통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9-40절에서 “예언자 요나의 기적”으로 주님께서 의미하신 바를 익히 알고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언급하신 것이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요나서 제 3장에서 볼 수 있다. 남쪽 나라의 여왕이란 세바의 여왕을 말한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 1-10절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구약 성서를 공부해 두어야 한다.

주님께서 제 33절에서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도록 덮박으로 덮어두지 말라고 하시고,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속의 진리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의 등불은 손잡이가 달린 조그만 항아리 모양으로 된 접시였는데, 그 끝에는 불꽃이 일어나도록 심지를 단 구멍이 있었다. 제 34절의 “네 눈이 성하면”이란 옛말로는 “single”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깨끗함 또는 순수함을 뜻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보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이 구절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지 않으려 할 때가 바로 우리의 이기심이 발호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옛날의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같이 처신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아 사람들에게 그분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자 주력했다. 본문에서 바리사이파인 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트집을 잡기 위해 주님을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십일조란 모든 종류의 생산물에 대한 십분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데 쓰이도록 바침을 의미했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이 십일조를 내면서 크게 생색을 냈다.

위선자란 자신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존경하고

칭송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속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 면에서 모두 선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과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의 마음과 이해성을 꿰뚫어 보셨듯이 오늘날의 우리의 속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권능이 어디서 왔다고 주장했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제 16절에서 그분의 적들은 무엇을 주님께 요구했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야 할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들이 주님께에서 꼬투리를 잡았다고 착각하도록 한 주님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 *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십일조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제 3반

제 33절과 34절에 대한 상응을 중심으로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두 가지 예증을 들어 설명한다. 즉, 눈이 성한 자의 예증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눈이 병든 자의 예증을 뒷부분에서 다룬다.

앞서 우리는 말라기서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이 사악한 자들에게 풀무 불에 던져진 검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볼 수 있다. 복음서에서의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겉모양새는 존경받을 만하여 모든 이들에게 아주 경건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들은 구약 성서를 공부한 학식 있는 자들로 모세의 법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바리사이파인들은 율법을 아주 빈틈없이 준행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 두 무리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사랑했으며, 이러한 지배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율법에 이런저런 자신들의 규정을 덧붙여 놓기도 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로 하면 자신들을 찾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후 주님께서 등장하신 뒤 사람들이 요한과 주님의 말을 청중하기 시작했을 때,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지배하에 사람들을 묶어 놓았던 것이 허물어져 감을 느끼며 분노하여 자연히 주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구약성서의 예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서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신봉하고자 하는 것 곧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는 마음이 더욱 컸다.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아집을 쫓는 모습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오늘날의 우리에게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본문 33절과 34절에 담겨있다. 빛은 진리에 대한 제일가는 상징물이다. 빛을 발하는 초나 등잔은 진리를 발생하게 하는 교리를 상징한다. 시편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라는 말씀을 상기해보고,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일곱 등경 사이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도 기억해 보자.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의 교회란 교인들이 무지라는 어둠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환한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리를 가르치도록 예상되는 교회를 의미한다.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 역시 자신들이 교회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교리를 가르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덮어두었다. 게다가 그들의 자아 사랑은 주님 스스로 인성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와 계실 때조차도 그분의 진리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걸어 두었다.

눈은 이해와 상응한다. 이해성을 가린 우리속의 이기적인 생각이 물러갔을 때의 눈은 온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맑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이 우리의 이해성을 지배하게 되면 진리의 빛은 우리의 마음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그 때 내 눈에 뭔가가 씩었나봐.”라는 말을 흔히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의 상황을 예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다. 즉, ‘마치 눈에 무언가가 씩은 것처럼’이라는 표현은 곧 ‘마치 내 마음이 무언가에 흘린 것처럼’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신의 고집대로 추진하고자 안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즉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분주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능이 악마로부터 왔다고 떠들어댔던 것이다(15절).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길을 얼마나 멀리까지 고집할 수 있는가와 기적을 목격함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만들지 못함을 보여준다.

주님께서서는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인격에 대해서 위선자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묘사하신다(44절 참조). 이와 같은 책망은 마태복음 23장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우리는 두 복음서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두 가지 죄를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그들이 십일조를 바치는 데는 신경을 썼으나 정작 그것이 의미하는 바인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여긴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았으나 사악함이 가득 찬 속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잔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서 영적인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이해성 안에 있는 지식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접시는 음식을 담는 용기로서 선함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구절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갖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과 이해성을 이기적인 바램과 추론들로 가득 채워 버려서 진리나 선함이 있을 장소를 남겨두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 밖에도 본문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데, 제 2절에서 언급되는 주기도문의 단어의 배열이 그 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과 약간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영어 성경의 “as in heaven, so in earth,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번역된 것은 마태복음의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땅에서도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표현보다는 정확한 그리스 원문의 번역이다. 스웨덴본은 우리 영혼의 하늘인 우리의 이해성과 마음의 바램이 주님의 의지를 행하는 것에 있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역시 신실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본문의 일반적인 주제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집주인의 비유와 9절과 10절의 약속은 주님께서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내리신 말씀임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 29절에서 언급되는 “예언자 요나의 기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배운 바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삼일 만에 있게 될 그분의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는 삼일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다가 바닷가에 토해내져 살아난 요나를 기억한다.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에 관한 예언이 바로 “요나의 기적”임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31절의 “남쪽 나라의 여왕”이란 세바의 여왕을 말하는데, 그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0장 1-10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기본 상용 공부

초, 등잔 = 교리
등경 = 교회
잔 = 영적인 진리를 위한 용기
눈 = 이해성

제 4반

신실성과 겸손함을 주로 살펴볼 것인데, 이는 신실성과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언뜻 보기에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는 일반적인 추세에 휩쓸리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며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는 영적인 강함을 얻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저주 받은 사람들은 당시 경건하다고 인식된 이들 중에서도 존경받았던 두 계층인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서기관)이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위선자들과 부르셨고, 그들의 주님에 대한 행동은 그들이 위선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알고 있어서 그분의 오심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는 사람이 등장하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고려해 보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현존과 가르침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기적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분의 권능이 악마로부터 온 것이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서 밝혀질 때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들을 들은 우리의 태도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위선의 폭로의 진실성의 여부와 우리 스스로 그 행위가 죄가 되는 여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붉은 이에 대해서 「참된 기독교」 제 147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 안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그 결과로 있어지는 행동이나 말 속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설사 자신 안의 내적인 것이 의견을 달리한다할지라도 외적인 것으로부터 말하도록 유아기 때부터 가르쳐짐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위장과 야침 그리고 위선의 근원이 됨은 더욱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으로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진 자는 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뜻하고 행동하되, 그것들이 모두 내적으로부터 있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말씀에서 “단순”으로 의미되고 있다(누가복음 8:15, 11:34 참조). 한 마음인 자가 두 마음을 가진 자 보다 더 현명하다.”

이상의 인용문은 우리가 “직설적인 직언”만을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언사에 꼬투리를 잡아 부정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거듭남을 향한 첫 단계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이 싫어하는 항목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행위들을 재구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재구성의 초기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바램을 칭찬하시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 자녀의 행동이 하찮은 것이라도 많이 칭찬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공급된 메추라기와 만나의 이야기이다. 메추라기는 의를 행함에서 있어지는 인간적인 만족을 표현하고, 만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오게 되는 마음의 흡족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깥쪽에 속하는 선함들은 거듭남의 시초일 뿐이며, 이러한 선행의 발단이 마음에서 우러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그리스어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로 표현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의 하늘인 마음에서 뜻을 세우고 손과 발의 행동인 땅이 그 뒤를 따라야 선을 행하는 진정한 질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와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 곧 그분께 선함을 구하려는 이들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려는 그분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한 구절로 기록된 기적, 즉 주님이 악마를 쫓아내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된 병어리로 표현되고 있다. 「주님의 탄생」을 공부하면서 살펴본 병어리가 된 즈가리아를 상기해보면, 병어리란 주님을 “고백”하는데 무능력함을 표현함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도 이 기적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들과 군중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도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지 못했다. 자신의 이익 추구에 집착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권능이 베엘세불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수근 댔다. 이러한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가 말끔히 정돈된 집에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되돌아와 다시 자리 잡는 악령의 비유로 주님께 의해 묘사되고 있다.

무엇을 인정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곧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니느웨 사람과 세마의 여왕은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진 성경으로부터 있게 되는 주님께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녀서 성경에서의 그분에 대한 지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인정했다. 반면, 이미 성경을 가졌던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성경 안에 담긴 지혜를 깨닫기는커녕 주님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 33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그 진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계신다. 족대 또는 등경은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의 주된 직무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드높게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비유의 형태로 이 교훈을 요약하고 있다. 그런 다음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 또는 율법 교사들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책망이 이어진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제 2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인생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경우 본문의 교훈을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과 상반된 느낌을 가진다고 인식될 때마다 이를 자신의 잔과 접시의 안쪽을 철저하게 깨끗이 닦을 기회로 삼아서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느낌을 재고하고 자신의 안쪽을 더 강건케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 5반

위선에 대해서 토의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위선을 저주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모두가 위선자임을 간과해서 안 됨을 설명한다.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문을 주심으로 시작된다. 산상설교에서 주어진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다. 사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도문은 상이한 형태와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차이점이 별반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서들 간의 기록이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는 각 복음서를 기록했던 자의 마음 상태가 달라서 각기 다른 섭리로 복음이 기억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서가 모두 그리스어로 씌어졌고 같은 사건에 다른 형태가 연결되는 경우 그리스인이 말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와 같은 단어의 순서는 본문의 나머지 교훈과 내용상의 연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첫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듯이 삶에 있게 되는 모든 일의 안내와 도움을 주님께 의존해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매일 요구되는 영적 필요함을 충족하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그분을 찾아야 한다.

위 문단의 내용과 상반되는 배경으로 다음 문단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세의 법을 알고 지킨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타나신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에 관하여 묘사되고 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치하는 것이었다. 이사야가 기록한 바대로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높이는 체 하며 그들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만 갔다(이사야 29:13-19).” 이 인용 구절은 본문에 나타나는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기도 하다. 제 33-34절은 본문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으로 볼 수 있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뒷막으로 덮어 둔” 이들이었다. 그들은 구약 성서를 높이 들어 올려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는커녕 잘못된 해석과 규정들을 첨가시켜 말씀을 덮어둠으로써 오히려 성서에서 나오는 빛을 가려버린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라는 말씀이 있다. 어떤 교회든지 첫째로 삼아야 할 교회로서의 기능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말씀 속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밝혀 주시는 진리(계시) 위에 인간의 총명을 칭찬 받게 하려고 튀어나오는 추론들로 성서의 빛을 덮을 때, 이 행위는 그야말로 제일가는 교회의 기능을 뒤엎는 의도적인 거짓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 34절은 이런 악의 근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은 이해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눈이 “성해야 (single)”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 single이라는 단어를 “단순 (simple)”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어로부터 비롯된 이 single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단 하나의, 단순한, 거리낌 없는, 꾸밈없는, 솔직한, 신실한” 등의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악과 병들”에 대치하고 있다. 본문의 원어인 그리스어에서 “악과 병들”이라는 단어는 “사악함, 외고집의, 악의 있는, 악”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34 절에서 강조되는 사항은 이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다. 고로 위에서 사용된 두 단어의 대비는 마음의 내적인 상태들에 해당되는 겸손함과 자기 고집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34 절에 담긴 이러한 의미를 염두 한 뒤 이후에 언급된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읽는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바깥쪽인 행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참된 기독교」 제 147항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교회 안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그 결과로 있어지는 행동이나 말 속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유아기 때부터 설사 자기 속의 내적인 것이 의견을 달리한다하더라도 외적인 것으로부터 말하도록 가르쳐짐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이런 것이 위장, 아첨 그리고 위선의 근원이 됨은 더욱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것으로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진 자는 외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뜻하고 행동하되, 이것들은 모두 내적으로부터 있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이 말씀에서 “단순”으로 의미되고 있다(누가복음 8:15, 11:34 참조). 한 마음인 자가 두 마음을 가진 자 보다 더 현명하다.” 스웨덴북이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대로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서 산다고 자랑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대하는 것을 마치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처럼 여기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북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느낀 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새교회의 교리가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바깥쪽인 행위의 재구성이 우리의 거듭남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유발하는 동기는 주님의 뜻 외의 다른 인간적인 동기가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유쾌하게 인사를 하거나 친절하게 한 행동들이 우리의 내적인 사고나 느낌의 진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바꾸기에 앞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바꾸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계시록 설명」 394-3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사람이 선하고 진실 된 것 그리고 신실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고 행동하되 그것들이 모두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아 사랑으로부터 그것들을 말하고 행동한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내적으로부터 없고 외적인 곳에만 근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행위나 일들은 악하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 안에 있다고 간주하면 그 천국은 결국 자신을 정당화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주님의 법에 어긋난다.” 스웨덴북은 이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해 놓은 일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사랑해서인지 혹은 자신을 사랑해서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일 자체라는 외적인 형태로 보면 두 종류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로지 주님만 판단하시고 식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생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행위의 진정한 근원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과 이해성을 보셨다. 그분은 악을 단죄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만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안쪽 행동 곧 동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말씀 속에서 오게 되는 주님의 진리로 자신을 성찰하고 빼놓아버지거나 어그러진 것들을 끄집어내어 교정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영혼인 하늘에서 이뤄진 후 땅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794-3항: “인간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두 가지 마음을 지닌다. 우리는 영적 마음을 내적 인간 또는 영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연적인 마음을 외적인간 또는 자연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인간은 내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지니고, 외적으로는 자연적인 것을 지니게 된다. 내적인 인간은 천국과 결합되어 있고 외적인 인간은 세상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인간을 통하여 내적 인간으로부터 행동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행해진다. 즉,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있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적인 것 없이 외적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자아로부터 행동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11:39-41)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이다. 즉, ‘잔과 접시의 겉’과 ‘잔과 접시의 안’이다. ‘잔’은 ‘포도주’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접시’는 ‘음식’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포도주’는 진리를 의미하고, ‘음식 혹은 양식’은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선행위’는 사랑과 이타애를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기도문을 형태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 2) 율법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3)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율법학자들은 무슨 책을 공부했는가?
- 5) 위의 두 계층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6)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7) 주님께서는 어떤 징조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가?
- 8) 본문에서는 구약성서의 어떤 두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가?
- 9) 주님께서는 등불을 어떻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위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12) 눈이 병들었다 함은 무슨 뜻인가?
- 13) 주님께서는 무슨 과오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는가?
- 14) 위선이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은 어떤 것들인가?
- 16) 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는가?

질문의 답

- 1) 제 2반 참조 2) 성경을 베끼는 사람 3)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계층
- 4) 성경 5) 악마 6) 갈라져서 싸워 망하는 집안 7) 요나의 기적
- 8) 요나, 세바 여왕 9) 등경 위에 10) 등불을 켜서 감추어둔 자는 어리석다
- 11) 깨끗함, 순수함 12) 악으로 인해 보지 못함 13) 위선 14) 선한 체 함
- 15) 사람들이 보는데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며, 경건한 체 행동하고 타인을 판단함
- 16) 주님의 현존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했기 때문

32

큰 잔치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바리사이파인들에 대해서와 주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녔던 이유를 상기해본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율법학자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4장

14장: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 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 그 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께서는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하고 물으셨다. 4.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5.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7.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8.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안하게도 맨 끝자리에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사는 이웃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13.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15. 같이 앉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하고 말하자 16.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18.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 봐야 하겠소. 미안하오’하였고 19. 둘째 사람은 ‘나는 거룻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러 가는 길ियो. 미안하오’하였으며 20.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하고 말하였다. 21.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 와서 주님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한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22. 얼마 뒤에 종이 돌아 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하고 말하니

23.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24.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5.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 서서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큼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29.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30. ‘저 사람은 집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하고 비웃을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32.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33.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34.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35.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여라.”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도록 우리를 항상 초대하고 계신다.
- *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그것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의문점을 갖게 된다.
- * 신실하지 않은 믿음은 신실하지 않은 친구와의 관계와 같다.
- * 변명은 우리가 가진 애착의 진정한 본성을 노출 시켜준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를 보게 된다. 이 비유는 특별히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이파인들을 향한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도덕적인 주제를 담고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 이유는 그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며 기억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때때로 이야기들을 기억에서 끄집어내어 되새기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도 한다. 어른들이 이런저런 도덕적인 문제를 직접 가르쳤다면, 어린이들은 아마 귀를 막아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종종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이며, 성경상의 수많은 내용이 이야기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린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어린아이들이 복잡하고 힘든 주제를 듣기 싫어하듯이 그분의 교훈에 귀를 틀어막기 때문이다. 우리가 귀를 틀어막는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과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비유로 읽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제 삼자의 이야기로 들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귀를 틀어막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그 이야기속의 사람같이 여겨지는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틀 안에 살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비유에서 큰 잔치를 준비한 어떤 사람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식탁에 초대받은 처음의 사람들이 곧 우리들이며 그분의 초대를 수락한 사람이 우리임을 알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양식을 허락하고 계심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양식 외에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도 제공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육체를 이 세상에 버리고 떠날 때가 언젠가 오며 우리의 영혼이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취하게 되는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장차 건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추하고 비뚤어진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게 되는 바,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 우리는 모두 비유속의 사람들처럼 주님께 평계를 대기도 한다. 즉, 엄밀히 보면 하찮은 존재인데 세상적인 지위와 돈 그리고 야망에 분주해 자신의 신앙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변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가 뜻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로서, 자신의 죄와 무지함과 약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자신의 허기진 곳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잔치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아성찰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최소한 이들보다도 더 성한 사람이야”하고 자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부하게 되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제 1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함을 설명한다.

바리새이파인들은 주님의 적이었지만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믿고 있어서 그분의 친구인 척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히 경건한 면에서 월등하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는 어떤 친분도 갖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거듭하여 그들에게 지적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은 모든 이를 돕기 위해서였지만, 그분은 자신이 풍족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도우실 수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비유에서 말해지는 이들로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아주 친한 친구의 초대에도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해당된다.

우리가 육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일요일에는 골프를 치러가거나 하루 종일 누워서 T.V.를 보면서 쉬는 것이 자신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음을 떠올려보면, 본문의 비유가 주고자 하는 교훈의 의미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주님의 집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오도록 초대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왜 주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로 바리사이파인들을 나무라셨는가?
- * 비유에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곧 누구를 뜻하는가?
- * 주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교훈과 선함을 받도록 누구를 초대하고 계시는가?
- * 여러분은 이 초대를 거절한 적이 있는가?
- * 어떤 세 가지 핑계가 비유 속에서 주어졌는가?
- * 교회는 곧 누구의 집인가?
- * 비유속의 잔칫집 주인은 식탁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누구를 발견했는가?
- *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제 2반

영적인 양식과 물에 관한 사항을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의미하는 바도 살펴본다. 어린이가 부모의 꾸준한 사랑과 가르침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함과 지식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꾸준히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게 됨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고 쉽게 이해되어서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그 속에 담긴 요점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차후에 그 요점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문의 비유에서 바리사이파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명백한 가르침에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문을 닫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았지만, 후에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되새겨 보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 속의 내용 중 일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친분 관계를 깨도록 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진정한 친구라고 여겼던 이들보다 더 나은 친구임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교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에서도 가르쳐지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더 큰 내용이 본문의 비유에 담겨 있다. 비유속의 잔치집 주인은 주님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높은 친구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참석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양식을 주고 계신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진정한 잔치 음식은 영혼을 위한 음식인 것이다. 이 음식은 곧 그분의 사랑과 진리이다. 그분은 성경에서 거듭하여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지신 선한 것들을 자유롭게 먹도록 배려하고 계신다. 그분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6:35).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마실 “생명수”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한복음 4:10, 14).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해서 초대하시는데 거절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비유에 등장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핑계를 대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일이나 유희를 위해서,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용무 때문에 주님의 집에 가는 것이나 성경을 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초대받으면 그 초대를 즉각 수락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초대되면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한쪽에 젖혀두지 못한다. 우리는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친구이자 주님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며 잔치에 대한 것과 잔치 음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잔치에 참석한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가 의미하는 사람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6절을 읽어보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성경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언급이 많다. 성경에서의 부유한 자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매우 잘난 사람이라는 착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부유한 자라고 불리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선함과 진리를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억측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가난한 자란 선함과 지혜가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며 주님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의미함을 알고 있다면, 본문의 비유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또한 읽어 보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이파인들같이 되어버린 기독교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불구자와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란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만들었다고 느껴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걸어가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자신이 무식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기에 약하며 불완전하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유롭게 제공해 주시는 도움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당도록 노력해 가야만 한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 1절에서 누가 주님을 식탁에 초대했는가?
- * 바리사이파인이란 어떤 이들을 말하는가?
- * 주님께서는 손님들에 관해 무엇을 주목시켜 주셨는가?
- *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셨는가?
- * 본문의 비유에서 잔칫집 주인은 처음에 누구를 초대했는가?
- * 처음 초대된 이는 무슨 핑계를 늘어놓았는가?
- * 두 번째 초대된 이는 무슨 핑계를 늘어놓았는가?
- * 세 번째 초대된 이는 무슨 핑계를 늘어놓았는가?
- * 주인은 잔치 음식을 먹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을 발견했는가?

제 3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 가지 핑계에 관한 상응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이 요구된다는 것과 주님의 식탁이 곧 말씀임을 살펴본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삶에 필수 요소이다. 우리가 먹고 마신 모든 것은 육체의 지탱과 재활을 위해 즉각적으로 소모된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각양각색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광물들을 두셨다. 우리는 동식물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으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 게다가 우리는 여럿이 앉아 먹고 마시기를 선호한다. 세상에서 친구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 음식을 나누는 장소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일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음식을 나누도록 한 바리사이파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었다. 당시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의 적이였다. 그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척 하거나 주님의 친구인 척 한 까닭은 단지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찾아내고자 늘 기회를 노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사실 그분에게는 어떤 적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심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뒷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속셈에 경종을 울려주셨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받지 못할 때 쓰시는 방법인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그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이 언젠가 그 비유를 되새겨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 몸은 우리의 영혼이 소유한 태도나 능력을 행위로 표현해 줌으로서 영혼을 섬길 따름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행하는 것들로부터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육체가 꾸준한 양분의 공급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꾸준한 양분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 영혼의 양분인 영적인 양식은 주님께서 오신 선함과 진리이며, 이 양식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본문의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이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초대받은 손님들임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제공해 주시는 선함과 진리를 상징한다. 본문의 비유인 큰 잔치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제공해 주시는 상징적인 잔치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고 계신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게 되면, 그분의 선함은 우리의 마음으로 자유로이 흘러들어 오게 된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만일 주님께서 초대하신다면 나아 즉시 수락하지.”라며 확신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초대장이 오게 되면, 우리는 참석하지 못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기도 한다. 본문의 비유에 있는 세 가지 변명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수락하는지와 우리 마음에 일게 되는 옳지 못한 예들의 이모저모를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 봐야겠소”하고 핑계를 댔다. 밭이란 인간의 마음을 말한다. 따라서 밭을 산 자란 자신의 사상에 몰두되어 말씀을 읽은 겨를이나 말씀에 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보러 가는 길이요.” 라고 말했다. 일을 부리는 황소들이란 쓸모 있는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따라서 마르타와 같이 (10장 38-42)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해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경황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못 갈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로서, 참석하지 못함을 미안하다고 느끼는 자들이다. 그러나 셋째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라고 대꾸했다. 자신의 사상이나 활동에 “결혼한” 모습은 주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가겠다고 확고히 다짐하는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님의 친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주님의 진리조차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가 충분히 선하며 선행할 수 있는 지식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반면,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의 초대를 기쁘게 승낙한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언급되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 장애인들이란 죄에 빠져 버린 이들로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당하고 다쳐버린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완전히 재생시키고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원한다. 그리고 절름발이 들이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삶을 엮어 가기에는 자신에게 약점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힘들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소경이란 주님의 가르침을 위해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되 진정으로 열심히 읽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읽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각자 나름대로 소원하는 사람들이며, 그 결과 그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강건함을 얻게 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불구자요 절름발이며 소경이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됨을 기쁘게 승낙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으로 공부를 마무리 지어보자.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기본 상용 공부

황소 = 유용한 일에 대한 애정

결혼 = 마음과 이해성이 하나 됨/선과 진리의 결합

가난한 자 = 겸손한 마음
 불구자 = 자신이 행한 죄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인정하는 이들
 절름발이 = 나에게서는 의를 행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
 소경 = 지식과 이해면에서의 결핍을 인정하는 이들

제 4반

제 3반과 같은 교훈을 이끌어 본다.

본문의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큰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참석하도록 초대하고 계심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잔치란 주님의 집 곧 말씀 안에서 있게 되는 잔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주님의 친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곧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초대를 듣게 되면 그 잔치에 가까이 참석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잔치에 가야 할 시간에 다다르면, 즉 말씀을 공부해야 할 시간이나 교회에 가야 할 시간 또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때를 만나면, 주님의 친구임을 자처하는 우리는 많은 핑계를 늘어놓게 된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첨가된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으심을 그분의 과오로 비판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율법의 글자는 지키면서 그 율법의 의지에 해당되는 율법의 본의는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척해 왔다. 이러한 가식적인 행사들 중의 하나가 바로 본문에서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것이 그분을 경외해서가 아닌 가식적인 것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듯이 이것을 그들을 가르칠 기회로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배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며, 그분의 눈으로 볼 때 바리사이파인들이야말로 그들이 경멸한 세리나 죄인들보다 더 깊은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게 된 기회를 이용하셔서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곳에서 수행하신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딱딱한 체 하고 싶어함을 지적하셨는데, 먼저 세상적인 추론으로 호소하시는 낮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큰 잔치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비유는 그들의

마음에 기억되어 머무르기 쉽지만, 그 효과는 오랜 후에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교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큰 잔치의 비유에서의 세 가지 핑계는 상응으로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적 잔치의 참가에 방해물로 자리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자기집착을 묘사한다. 첫 번째 사람은 발을 사서 가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발이란 마음을 상징한다. 이런 형태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의 주관을 발달시키는데 도취되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으려고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은 겨릿소 다섯 쌍을 사서 그것들을 부려보려 간다고 했다. 황소란 바람직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사업에 충실 하느라 교회에 갈 틈이 없고 성경을 읽을 단 몇 분의 여유도 없다고 말하는 남자와 집안일을 충실히 하느라 바빠서 주님과 성경 공부를 위해서 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여인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열중한 일들이 인간적으로 매우 유용하여서 누구라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는 것이 문제지만, 이들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일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굶기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방금 결혼했다는 이유로 올 수 없다는 사람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에 고취되어 자신이 선호하는 길을 간섭하려 드는 어떤 것도 배제하겠다고 으르렁대며 자신의 마음을 꼭 닫아 잠근 경우이다.

결국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의 초대에 승낙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한 마음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죄와 약함 그리고 무지함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인도와 강건함을 위해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산상설교의 팔복에서도 언급되는 사람들로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슬퍼하는 자와 온유한 자 그리고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기도 하다.

주님의 잔치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항상 베풀어지고 있다.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잔치에 올 필요가 없는 핑계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하다면, 우리는 이 초대를 기꺼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잔치에 가서 음식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마감 짓는 구절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읽어 보자.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회가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할 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내일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비유들로부터 있게 되는 더 많은 교훈들에 관한 것이다. 초대장을 받아들고 잔치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꼼꼼히 헤아려

보지 않고 시작하여 결국 완성하지 못하는 자나 적의 군사력을 평가해 보지 않고 전쟁을 치르려는 왕 혹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진리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것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요소가 되고 만다. 우리 모두는 “너희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고, 또 행한다면 복되다”는 주님의 권고를 가슴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제 5반

주님에 대한 바리사이파인들의 태도와 이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주로 대비하여 세 가지 핑계들을 그 예증을 통해서 공부한다.

식욕은 우리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육체는 규칙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건강에 유익하며 다양해야만 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로 식탁에 앉게 되면, 우리는 그저 먹는 것을 즐기 위해 식탁에 앉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는 함께 식사함을 서로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효과적인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나눔으로서 서로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 이것은 서로가 지닌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선한 상태에 있게 되면, 먹는다는 것과 더불어 영적인 선용도 수행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의 많은 부분에서 먹고 마심, 잔치, 만찬 그리고 결혼잔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과한 것, 즉 먹고 마시는 것을 거론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먹고 마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먹고 마심이란 그분의 사랑과 지혜 또는 선과 진리이며,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유지시키고 발달시켜주게 되는 영의 자양분들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연계의 먹고 마심이 육체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것과 같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먹는 유대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계시록 3:20). 그분은 말씀 속에서 항상 잔치를 열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입맛대로의 선과 진리를 먹고 마셔 행복을 얻도록 하고 계신다. 그분은 말씀 속에 현존하시면서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슬기롭고 사랑스러운 단어들로 말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또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바람과 생각들로 우리와

기쁨을 나누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위와 같은 초대를 받아들이는 선택은 우리 자신의 자유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싶은 집단 또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해 간다. 우리는 때로 자신보다 슬기로운 누군가를 찾아내 그로부터 배움으로써 자신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장점을 뽐내고자 하여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찾아내 대장노릇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결국 자신의 발전을 잘라내고 후퇴함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큰 잔치의 비유에서 더 확대되어 설명되고 있다. 우리가 진실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꾸준하게 참석하며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아내고 그분이 제공하는 진리를 흡수하여 실지로 삶에 응용함으로써 말씀속의 선함까지 받게 되어 그분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연계를 맺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주님의 일을 거들게 된다. 우리가 참석하는 성찬식이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는 그분의 초대에 가겠다고 승낙함에 대한 외적인 상징이다. 실지로 이 만찬에 있게 되는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어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는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바래느냐에 비례하여 우리 안에서 실제화 되며 권능도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천사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에 비례하여 이 부분의 달성여부도 가능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초대장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도착되어 있다. 게다가 주님께서서는 이 초대장을 거둬들이고 보내고 계신다. 이러한 주님의 초대는 말씀의 글자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모든 진리에서도 반복되는데, 이는 “자기 종을 보내어. 어서 오라고” 하는 구절 속에 담겨 있다.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문의 비유를 읽으면서 초대받은 자들이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그 잔치를 왜 거절했을까하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적인 생각들에 몰두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간섭될까 우려하여 그분의 초대를 거절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이다.

세 가지 핑계들이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지혜를 주님에게서 찾으려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심사의 총체적인 상징화이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거기에 가 봐야 한다고 핑계를 댔다. 밭은 마음, 정확히 말하자면 지적인 것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핑계는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사고에 자아도취 되어 그러한 논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갈 여유나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여기며 심지어 주님께 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어서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과 같은 핑계를 대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은 겨룻소 다섯 쌍을 사서 그 황소들을 얼른 부려 보아야겠다고 했다. 황소란 자연적인 유용성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한다. 이 애정이 주님을 섬기는데 향하고 있다면 선하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경우에서처럼 인간적인 사무들을 돌보느라 너무 분주해 혹은 현재나 장래의 필요성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거나 세상 모두가 선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외적인 자선에 몰두하여 그분을 찾고 그분을 더욱 잘 알기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과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손님들은 자기들이 초대에 응해야 함을 인정했으나, 당장은 갈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위의 두 사람은 언젠가 자신들이 몰두한 일이나 공부 등을 마친 후에 주님을 찾을 시간을 갖고 교회도 나가보겠다는 식의 태도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인격을 건설함이 결코 미룰 수 없고 오늘 중단했다가 내일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것이 아니라서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위의 두 사람들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면, 우리는 이내 세 번째 사람과 같이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라고 노기 띤 반문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신의 사상을 구축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업무나 사업을 일으켜 정착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성취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혼신을 기울인 사상이나 사업에 결혼되어 헤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과거에는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믿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일들로서 단지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자세로 “성서에 무슨 진리가 들었나? 내 방식이 진리이지.”라는 반문을 제기하며 주님이나 교회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어떻게 갈 수 있겠소?”라고 주님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된다.

이 비유는 사실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핑계를 댄 손님이란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상적인 사상이나 사리추구에 전적으로 빨려든 사람들 또는 교회를 묘사한다. 반면, 잔치에 모여든 손님들이란 성경의 진리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갖고자 하는 자들로서 첫째로 “동네의 한 길과 골목에 있는 자들”이다. 즉, 유대인들 사이에 끼여 살고 있어 말씀의 진리에 어느 정도 접촉되어 있었던 이들을 말한다. 그 다음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 밖의 사람 곧 교리를 모르는 이들인데, 이들은 “역지로라도 데려 오라”고 명령되고 있다. 이는 진리를 통해 주님께 도달되기보다 사랑의 힘으로 이끌릴 자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간혹 교회에 등록된 새 신자가 “나는 교회와 성경에 쓰여 있는 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 친한 친구가 내게 베푼 행동의 동기가 바로 그가 믿는 하느님의 진리에서 나왔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라고 고백함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에 이끌릴 사람들에게 대한 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그리고 절름발이가 글자그대로의 자연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들은 영적 의미에서 말씀을 가지지 못하여 진리에 무지하고 선함이 결핍된 자들이나 여전히 진리를 바라고 진리로 선함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들이 이방인들이요,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후에 주님의 교회가 건설되어졌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계시록 설명 제 652-31과 천국의 신비 제 2336-4 그리고 계시록 설명 223-22을 참고하기 바란다.

큰 잔치의 비유 마지막 절은 주님의 초대에 우리에게 이미 부여된 특전인 선택의 자유에 따르는 심각함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는 것은 그것들을 얻고자 얼마나 소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을 닫아걸게 되어 더 이상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자아와 주님 사이를 선택하는 기회로 주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선택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자신속의 잘못된 생각과 이기적인 바램을 버리고 그 속에 그분의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뒤로 후퇴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사상이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진취시키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입장을 차단하는 사리추구나 자아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에서 몰아냄으로서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고 계속해서 문이 열려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인 바, 주님께서는 본문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비유로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252항: “만찬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기쁨의 교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천국을 ‘만찬’ 또는 ‘결혼’에 비유하고 계신데, 누가복음(14:16-24)에서는 잔치에 비유하고 계신다(마태복음 22:1-15에서의 혼인잔치도 이와 비슷한 의미임). 여기에서의 ‘잔치’

도 천국과 교회를 의미한다. ‘핑계를 댄 사람들’이란 교회가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 또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진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란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이들이고, 교회밖에 있는 이들이다. 천국과 교회는 ‘만찬’과 ‘결혼’에 비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사랑에 의해 주님과 천사가 결합되고 천사와 천사들은 이타애로 연합되어 모든 기쁨과 더없는 행복의 교류가 온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교회인 바, 이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왜 주님께서 말씀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놓으셨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과오를 보셨는가?
- 4)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주셨는가?
- 5) 그분의 잔치에 처음 초대된 부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 6) 이들이 참석 못 한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인가?
- 7) 이들 속에 어떤 과오가 있음을 보여주는가?
- 8) 그분의 잔치를 즐기도록 발견된 사람은 어떤 이들인가?
- 9) 비유속의 잔치 주인은 누구인가?
- 10)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잔치에 초대하시는가?
- 11) 주님의 집은 어디인가?
- 12) 핑계를 댄 친구들은 누구인가?
- 13) 그분의 초대에 응한 가난한 자란 누구인가?
- 14)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다함은 무엇을 표현인가?
- 15) 세 가지 핑계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도우시기 위해
- 2) 아주 종교적이라고 하는 계층 3)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다
- 4) 큰 잔치 5) 친구들 6) 밥을 사서, 황소를 부려보려고, 결혼해서
- 7) 이기적이어서 무부분별함 8)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 9) 주님 10)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함유하는 그분의 말씀
- 11) 교회 12)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
- 13) 겸손이 있는 마음 14) 주님의 선함과 진리로 우리 영혼을 먹이심
- 15) 밥: 지적인 자량(마음)
황소: 우리 마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음
아내: 이기적인 방법(행동)에 “결혼됨”

33

방탕한 아들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큰잔치에 뒤따르는 비유이므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서본문: 누가복음 15장

15장: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2.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누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흔 아홉 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5.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하며 좋아할 것이다. 7.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열 닢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닢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 볼 것이다. 9.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10. 잘 들어 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14.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흥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15.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7.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18. 어서 아버지께 돌아 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20.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 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25.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26.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27.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 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 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29.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30.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 버린 동생이 돌아오니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31.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32.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하고 말하였다.”

교리 요점

*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 * 말씀속의 진리는 영적인 부유함이다.
- * 진리를 잃게 될 때 믿음도 잃게 된다.
- *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용서역시 우리에게 도달될 수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다. 바리사이파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신 것을 흠으로 잡아 그분을 비판했다. 세리들이란 로마제국에 바칠 세금을 거둬들이던 유대인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들을 경멸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몸이 성한 이를 위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신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그분의 적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다. 우리 각 개인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한다. 양 백 마리란 우리의 어린 시절에 담겨진 순진함과 신뢰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자연적 이기심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서게 되면, 어린 시절의 천국적인 마음의 상태들은 하나씩 우리 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어 자칫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서 아주 떨어진 위치로 밀려나가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또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은전 열 닢”을 획득한다. “은전 열 닢”이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들인데, 특별히 요약해서 말하면 십계명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계명 중의 어느 하나가 자신이 기어이 해보고 싶은 일을 금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일을 방해할 것 같은 계명 중의 하나를 우리 이해성의 중심부에서 슬그머니 뒤편으로 밀쳐내어 감춰 버린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추론이라는 먼지 낀 이론으로 은전 한 닢을 덮어놓음으로써 우리 속에서 빛나는 “은전”들 중의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성장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 재능이나 자질들을 점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쓰고자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 그분의 품에서 멀리 떠나가서 자신의 고집대로, 즉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때로 본문의 작은아들의 처지 같이 낮고 천한 위치로까지 전락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바램만을 위해 전전공공하는 삶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바램이 “돼지”로 상징되며, 돼지가 먹는 찌꺼기 또는 쥐엄나무 열매란 육체적 바램만으로 이어지는 삶을 즐기느라 고심하는 생각들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실제로 결별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세상 삶에 허덕거린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 놓아주신 그분에 관한 것들은 비록 한쪽으로 밀려나 우리로서는 찾기 힘들고 아예 없어진 듯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속 깊고 깊은 곳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늘 현존하시면서 우리의 처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먼 고향으로 떠나갔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 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신 착란이라고 할 수도 있는 큰 계산 착오에 해당된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란 우리가 이러한 계산착오를 절실히 실감하는 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대목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방탕한 아들은 돼지 떼들 사이에 주저앉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자신을 돌봐 줄 아버지에게로 갈 것을 소원했다.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어서 길고 먼 길을 되돌아가야 했지만, 그것을 과감히 선택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를 섬기는 종의 신분이었다. 우리는 때로 이 부분을 이 이야기에서 쉽게 간과해 버린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께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 그리고 이기적인 느낌들을 바꾸어서 하느님의 아이들 같이 처신하는 마음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 1반

우리 속에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성 그리고 비유 속에 있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어느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에서 어떤 결점을 찾아 그분을 공격하려고

잔뜩 버리고 있었던 터라 그분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더 나은 것을 해 봄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 자신이 아주 선하여 더 이상 그분에게서 배울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보다 월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 앞서 언급한 바리사이파인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작은 아들은 우리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비유속의 아버지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자신속의 결점을 인정하고 고쳐야겠다고 애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앞서 했던 공부와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서는 큰잔치의 비유에서 바리사이파인들 속에 든 어떤 결점을 지적하셨는가?
- *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먼저 누구를 초대했는가?
- * 그들은 왜 오지 않았는가?
- * 그 다음 그분은 누구를 초대하셨는가?
- *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 *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무엇을 했는가?
- *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 *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했는가?
- * 큰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제 2반

세 가지 비유 안에 담겨진 것 그리고 바리사이파인들과 방탕한 아들이 우리 안의 어떤 것들과 같음을 인식하면서 넓은 의미에서의 교훈을 찾아본다.

우리는 본문 1절에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리들이 바리사이파인들이 경멸했던 같은 유대인들로 로마제국을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사도 마태역시 세리였음을 알 수 있다.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공부하며 구약 성서를 베끼고 가르쳤는데, 특히 당시의 지도자들이 만든 각종 규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했다. 본문의 세리나 죄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역시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경멸했다.

사실 미국 내에는 수많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피부색이 다른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다. 특히 그들 각자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양육된 연고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제각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만큼 제각기 옳다고 믿는 것도 다른 것이다. 우리 모두는 태생이 이기적이어서 자신이 옳다고 우기거나 자신 외의 남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실수를 흔히 범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는 학문을 많이 쌓고 수양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극복하기 매우 힘든 것이다. 설사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옳바르다는 것이 경험이나 생각 혹은 추론 등으로 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을 행한 누군가에게서 물리서서 “그 친구는 구제불능이야.”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이 되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 친구가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도 없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니다. 주님께서서는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연적인 속성인 이기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보고 조금씩이나마 그것들을 극복해 보겠다고 선택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그분으로부터 받은 상속물들이 유아시절부터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잘 간직되도록 주셨던 선한 것들 중의 어느 하나를 잃어 버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진 진리들 중의 어떤 것을 잃게 되면, 그분께서는 그 진리 곧 그 빛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올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찾으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은전 한 닢을 찾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우리는 이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선한 삶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잘못될 때도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유인 방탕한 아들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다.

영어 단어 prodigal(방탕함)이란 “wasteful(낭비하는)”이라는 뜻이다. 작은 아들이 낭비한 상속물

이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주신 우리 안에 담긴 각종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미한다. 우리가 자아를 기쁘게 해줄 것만을 원하면, 우리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 자신의 상속된 재산을 탕진하고야 마는 방탕한 아들처럼 되고 만다. 우리는 방탕한 아들이 처한 상황만큼이나 낮은 상태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돼지같이 살아.”라고 말할 때 그것의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가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준비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분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큰아들은 외적으로, 즉 눈에 보이는 선한 생활을 행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같이 관용 없이 굳어진 상태였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려는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이들의 마음상태를 엿볼 수 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큰 결점은 무엇이었는가?
- *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타인들을 어떻게 간주했는가?
- * 주님께서 앞서 공부한 비유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 * 잔치에 처음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 * 왜 그들은 오지 않았는가?
- * 누가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었는가?
- * 본문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교훈은 무엇인가?
- * 첫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었는가?
- * 두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었는가?
- * 세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을 잃었는가?
- *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며 큰아들은 어떤 불만을 털어 놓았는가?

*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제 3반

세 가지 비유들의 상응을 주로 살펴본다. 또한 나인성의 과부가 지니는 의미도 상기해 보도록 하자.

본문의 세 가지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배회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시 잘못을 행한 이들로부터 고개를 돌리거나 냉대하지 말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며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비유들은 삶의 세 가지 평면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어떻게 길을 잃어 가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잃어버린 양이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졌던 순진한 신뢰심 같은 것으로, 우리속의 선한 애정들을 말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애정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속의 모든 양떼들 곧 선한 모든 애정들은 목자 없이 광야에서 헤매게 된다. 순진한 신뢰심은 모든 선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 그 자체와도 중요성을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진한 신뢰심의 중요성은 주님께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복음 18:3)”라고 하신 말씀의 구절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은전 열 닢이란 우리가 각자의 삶을 계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십계명을 의미한다. 우리가 십계명 중 어느 하나를 잃거나 열 개의 계명 중 어느 하나를 덮어두거나 슬그머니 흘려버리면, 그렇게 잃어버린 계명 곧 지켜지지 않은 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매일 사사건건 우리 인격의 흔들림을 느끼도록 해준다. 그 이유는 인격이라는 집을 떠받친 열 개의 기둥 중 하나를 빼낸 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쓸어 내야” 할 집이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상이라는 먼지가 쌓인 우리의 인격을 의미한다. 등불이란 은전 한 닢을 우리 속에서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빛을 가진 말씀 곧 우리가 소지한 성경책이다. 이는 시편 119편 105절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라는 구절을 상기해 보면 이해될 것이다.

방탕한 아들이란 자신의 행동 측면이 주님에 의하여 지휘 감독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상속물” 곧 자기의 모든 재능과 부여된 기회를 챙겨서 “먼 나라”,

즉 주님으로부터 먼 삶의 상태로 향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이들은 방만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실체들을 낭비해 버리게 된다. 이런 삶은 “돼지를 치는” 것, 통상적으로 일컫는 감각적인 악들로 직행하게 된다. 이 감각적인 악들은 동물이 영위하는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인간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미치는 것(insanity)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주님을 알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본성을 소유함인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방탕한 아들은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들어 올려 마침내 잘못된 삶을 정리하는 진지하고 겸손한 회개를 하면서 그분께로 발길을 돌린다면, 우리는 길 중도까지 마중 나와 반겨주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든 독선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바리사이파인들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큰아들만이 회개한 죄인의 귀가를 반기지 않았다.

제 10절은 종종 사람들을 혼동시키기도 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신다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그 구절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 10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의를 꾸준히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가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말로 명확히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이 완악해지고 독선적이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잃은 은전 = 잃은 진리
 우리의 상속 = 우리의 모든 기회와 능력
 돼지 떼 = 감각적인 것에 대한 애착
 잃은 양 = 잃은 선한 애착

제 4반

악과 죄의 차이점, 영적 손실로 고통 받는 우리속의 세 가지 평면들 그리고 방탕한 아들이 초래한 재난의 원인이

자신의 길을 고집함에 있었음을 주로 언급한다.

본문에 들어있는 세 가지 비유들은 경이로운 시리즈로 엮여져 있다.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바리사이 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심에 대해 혹평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비유들로 답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2-13절의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에 담긴 명백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즉 심정과 지성 그리고 행동이다. 이렇게 범하는 죄는 언제나 우리가 소유했던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손실을 초래한다. 스웨덴복은 악과 죄 간의 뚜렷한 구별을 강조한다(천국의 신비 제 8925항 참조). 악은 비의도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잘못임을 알면서 행하는 것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로 비추어 볼 때 잘못임을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 가지 비유에서 묘사되고 있다. 잃은 양이란 우리가 이미 소유했었으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어떤 순진한 애정을 상징한다. 잃어버린 은전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이해성의 더럽고 구석진 곳으로 밀쳐지도록 허용해 결국 버려지게 된 어떤 진리를 상징한다. 방탕한 아들이란 외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즐기며 그것이 하지는 대로 하기를 고집함을 상징한다.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란 주님을 표현하고, 그분으로부터의 상속물이란 각 개인이 타고나는 모든 능력과 부여된 모든 기회를 뜻한다. 주님께서서는 설령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안의 상속물이 그분의 것이어서 우리의 의향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상속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두고 계신다는 말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능력, 소유물 또는 강함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유보해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고향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리도록 하여 우리의 본성을 허비하고 말 것임을 예견하시는 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의 집에 머물도록 강요하시지 않는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가 주님의 특성인 이타적인 사랑이나 섬김을 빼놓으면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생 초기에 알고 선한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경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듯 보이는 다른 길을 뚫어보길 선호한다. 어떤 이들은 방탕한 아들처럼 교훈을 깨닫기 전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돼지 떼란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애정 또는 바램을 상징한다. 돼지들이 먹는 찌꺼기 곧 쥐엄나무 열매란 우리가 세상적인 쪽만을 응시하여 진정한 영적 자양분 대신 받게 되는 피상적인 사상들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책들이나 공연들은 이와 같은 찌꺼기들을 주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은 이것들 속에 뭔가 주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여기며, 때로 그것들 속에 진리인 듯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지로 그것들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그것들 속에는 영혼의 자양분인 선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위와 같은 껍데기들 안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추론을 아주 조금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와 영적인 가치성을 무시해 버린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탕한 이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17절에서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중얼거렸다”라고 가르치신다. 인간이 아주 심하게 고통당하여 자신이 정말 잘못 선택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해성은 겨우 다시 주님을 향해 열려져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중얼거린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의 생각과 입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자신의 거주지를 다시 얻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고 정정해야 한다고 결심하여 인생의 발길을 돌리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모든 걸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자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방탕한 아들같이 제정신을 차려 벌떡 일어나 섬김을 받는 대신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삶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비유 속에 든 특별한 교훈들 중 하나를 살펴보자. 즉, 개혁교회의 주장 중의 하나인 “믿음만으로”의 교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음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이 교리는 우리 삶의 악함과 상관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신성한 자비로 한순간에 씻어진다고 가르친다. 비록 청교도들이 이 교리를 받아 들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 받으려면 선한 삶도 필수 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죄의 결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는 탈출구로서 이 교리를 악용하기도 한다.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를 맞으러 나갔다고 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구성하려는 의지의 신실함을 보시면 즉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의지를 보시며 거짓된 고백 따위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않으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큰아들이 등장하는 비유의 대목에서 주님께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노력하심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율법의 글자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과 이해성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며, 우리 모두가 잘못을 행하게 됨을 인정하고 꾸준히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서 삶을 꾸려나가기에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역시 우리의 영적인 고향에서 어떤 방탕이가 귀환하면 기뻐하는 천사들과 더불어 그의 귀환을 기뻐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제 5반

위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토론을 전개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설령 우리의 삶이 악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인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만 안겨줄 뿐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방탕한 아들이 제정신을 차려 고향에 되돌아오는데 긴 여행을 해야 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로 대치되는 모습을 다시 접하게 된다. 즉,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를 보고 투덜거렸다. 이후에 있는 세 가지 비유들의 취지는 주님 사랑의 참의미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비유들은 그 사랑으로 위의 모든 이들을 그분께로 끌어당겨 각자도 하여금 그분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검증해 보고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해서 회복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각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명확한 사항은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즉 우리가 주님께에서 이탈되었음을 인식하고 자신을 바꾸어 보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비유들은 우리 삶의 세 평면에서 있게 되는 진리들을 각 평면 별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에 관한 것인데, 잃은 양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순진한 애정중의 하나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그 애정 하나를 잃음으로써 그 밖의 모든 양(애정)들도 고통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양들은 광야(들판)에 버려 둔 채로라는 말씀에 묘사된 것과 같은 상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고 그것을 발견하셔서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되돌아오셔야 하는 것이다. 잃은 양이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지극히 단순한 신뢰심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얻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심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물불을 가리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곤경과 위험을 물리쳐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휘말려 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심을 우리 삶 속에서 거듭하여 보여 주신다. 우리는 이 신뢰심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며 기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복음 “천사들이 인간에게서 악이 제거되어 천국으로 인도됨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한다(천국의 신비 5992항). “어깨에 메고”란 신성한 사랑이 온힘을 다 쏟아 신뢰심을 보존하려 함을 의미하며, “잃었다가 찾은 양”이란 회개하는 사람속의 선을 의미한다(천국의 신비 제 9836-6 항)

잃었던 은전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진리를 잃은 모습을 그리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진리를 알되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온 진리의 빛으로 살살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그것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우리의 정신적인 집을 살살이 쓸어 내는 바, 즉 자신을 면밀히 검증하여 진리가 희미하게 보이도록 만든 거짓 사상을 거절해 버려야 한다(요한계시록 설명 675-10항).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은전인 진리는 무엇일까? 죽음이란 저 세계의 삶으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저 세계의 삶 곧 영혼으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며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진리이다.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러한 가르침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으나, 성장하면서 세상에 퍼진 죽음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속으로 미끄러지게 되어 자신과 친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죽어야만 한다니.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어.”라고 중얼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이나 견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견해와 세상적인 사상으로 진리를 덮어둔 먼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전 한 닢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샘이 다 마르기 전에는 결코 물의 귀함을 모를 겐”이라는 말 역시 진리의 귀중함을 잘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인식할 때까지 그분께서 주신 선과 진리를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현실인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서 주신 것을 가끔 잃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른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간직해야 했던 것을 잃고 난 후 그것을 다시 찾아 원위치에 놓았을 때 오는 기쁨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 이상의 기쁨임을 알고 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의 행동적인 선상에 있어서의 죄라는 것을 가지고 위의 교훈을 직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는 물론 주님이시다. 아들이 자기 것으로 떼어 달라고 요구한 뿔(사슴)이란 주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선과 진리들이다. 우리가 안내자로서의 주님을 찾는 것을 피곤하게 느끼며 스스로 뭔가 해 보고자하면, 우리는 본문의 방탕한 아들처럼 되어 버린다. 그는 이내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먼 고장”으로 가게 되었고, 무분별한 생활로 자기 뿔을 모두 탕진해 버린다. 우리가 우리 안의 선한 애정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자신의 명석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선함과 진리의 본성은 그것 안에서 사라져버린다. 그 이유는 우리 속을 선하고 진정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지만 주님의 것으로서, 그분에게서 온 생명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빛이 나온다고 하여 그 빛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세상적인 기준들을 습득하게 되어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삶을 정진하게 된다. 결국 “돼지를 치는” 수준까지 전락하여 오로지 육체가 탐하는 욕망만을 탐식하게 된다. 이렇게 까지 바닥으로 미끄러지면,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기근이 더 심하게 엄습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여서 영적 본성이 굶주리게 되면 어떤 만족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유속의 방탕한 아들은 이런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 스스로의 잘못 때문임을 실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데 이르러서 마침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 지극히 옳은 삶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릴 때 우리의 잘못된 방법에 대한 벌금인 고통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본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도록 해주시고 결국에 그분께로 되돌아가도록 해 주신다. 이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상태 곧 누가 뭐래도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은 용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도 전에 멀리서 보시고 달려오셔서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며 진정한 생각인 새 옷을 다시 입혀 주시고 선을 행하는 새 사랑의 가락지를 끼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한 행위라는 살찐 송아지를 잡도록 해 주신다.

집에 계속 머물렀던 큰아들이란 바리사이파인을 표현하나 우리속의 바리사이파인도 표현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가시적으로의 올바른 삶, 즉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요구되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본문 25절의 “밭에 나가있던” 큰아들과 같이 된다. 즉, 우리는 법을 어긴 이들에 대해 냉랭하고 혹평적일 때가 많으며 그들이 회개할 때나 그들도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용납하는 자체를 거절하여 본문의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게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동이 가시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제 9361항 또는 요한계시록 설명 제 279-6항을 참조). 위 세 가지 비유들에 있는 공통된 교훈은 우리에게 자신속의 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에 관한 것이다. 바리사이파인들처럼 본문의 큰아들은 자신 속에 든 결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율법의 글자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삶의 영적 상태를 진보시킬 가능성은 없게 된다.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란 너나 나나 불완전하지 않은가?”라는 변명 대신 참회어린 고백을 해야만 한다. 즉,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다시 그런 짓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자신속의 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아서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와 “잃은 은전 한 닢”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해야 한다. 그래서 방탕한 아들이 제정신을 차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세상의 관례를 넘어 우리들의 생각을 들어올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 다시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소 발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하나를 반겨 맞는 천사들의 기쁨 곧 천국의 기쁨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279-6항: “‘방탕한 아들’이란 영적인 부를 낭비한 이들, 즉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낭비한 이들을 의미한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고백’은 심정의 참회요 겸손함을 의미한다. ‘그가 입었던 처음 의복’이란 일반적이고

제일가는 진리들이고, ‘손에 낀 가락지’란 내적 또는 영적 인간 속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발에 신은 신발’이란 외적 또는 자연적 인간 속에 든 선과 진리이다. 그래서 위의 두 가지는 거듭남을 의미하게 된다. ‘살찐 송아지’란 사랑과 이타애로부터 나오는 선을 의미하고, ‘먹고 즐긴다’함은 연합과 그에 따른 천국적인 기쁨을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천국의 교리」 제 159-161항: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하고 회개의 일을 행해야 한다. 죄를 고백함이란 악이 무엇인지 알고 자아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 안에 있음으로 하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로 인해 자아를 질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이 된다. 회개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들을 고백한 후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심정으로부터 자기 죄의 경감을 간곡히 탄원하고 이타애와 믿음의 교훈에 의거하여 새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잔치의 비유는 누구를 두고 말했는가?
- 2) 바리사이파인이란 누구인가?
- 3)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의 어떤 과오를 지적하셨는가?
- 4) 위 비유 속에서 어떤 손님이 처음 초대받았는가?
- 5) 그들은 어떤 핑계를 대었는가?
- 6) 이 핑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7) 잔치 음식을 즐긴 손님들은 누구인가?
- 8)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 9) 이에 대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 11) 이 비유들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 12) 첫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3) 둘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4) 셋째 비유에서 무엇을 잃었는가?

- 15) 방탕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6) 작은아들은 무엇을 낭비했는가?
- 17)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8)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결국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 20)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받아 주었는가?
- 21) 큰아들은 이를 어떻게 느꼈는가?
- 22)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3)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은 무엇을 그리는가?
- 24) 방탕한 아들이 낭비한 상속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 25)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 되돌아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2) 엄격하게 종교생활을 한다는 계층 3) 자기 자랑 4) 친구들
- 5) 밭을 사서, 황소를 부려 보려고, 아내를 얻어서 6) 이기적인 무분별
- 7)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8) 세리, 죄인 9) 주님께 불평했다
- 10) 3 11) 뿔가를 잃고 찾음 12) 양 13) 은전 14) 아들 15) 낭비함
- 16) 돈 17) 먼 고장 18) 가난해지고 굶주림 19)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섬기겠다
- 20) 기쁨으로 21) 시기했다 22)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 23) 잃은 애정, 잃은 생각 24) 모든 우리의 능력
- 25) 자아를 겸손하게 하고, 길을 바꿔서 다시 노력함

34

부정한 청지기

머리말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중요하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많은 이들에게 의문시되는 점이 자주 돌출되므로 이를 설명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될지 모르나, 두 가지 비유 모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교훈으로 귀결된다. 이 구절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므로, 성서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16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자기 재산을 그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했다. ‘자네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것인가?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3.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4.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를 자기 집에 맞아 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하고 물었다. 6. ‘기름 백 말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오십 말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7.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시오’하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팔십 섬이라고 적으시오’하고 일러 주었다. 8.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속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다.”

9.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 갈 것이다. 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11.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땀을 내어 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15.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체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느님께서 가장스럽게 보이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 그 이후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17.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20.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다 놓은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21.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22.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23.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라자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24.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하고 애원하자 25.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 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26.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27. 그래도 부자는 또 애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소원입니다.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저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내어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하고 대답하였다. 30.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하고 호소하였다. 31.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교리 요점

- *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지만 그것을 허용하신다.
- *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말씀속의 법칙은 반드시 성취된다.
- * 주님께의 충실함은 저절로 이웃에의 충실함으로 표현된다.
- * 우리 마음속의 이타애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발달되어야 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은 결론으로서 13절의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교훈을 설명한다. 재물(mammon, 탐욕)이란 단어는 아람어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부”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성경 상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 모든 것이란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적으로 원하는 세상에서의 지위, 권력, 학식 또는 돈 등등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 물질적 소유, 가정에서의 위치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누리서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발전되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들 모두는 주님의 “청지기들”이며, 우리들이 지니는 다양각색의 능력과 소유물들은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선한 행위를 빚지고 있는 “종”들에 해당된다. 이 사랑과 선한 행위가 기름 백말과 밀 백 섬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자신이 언제나 충실한 청지기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주님 대신 자아를 섬기도록 자신의 종인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이나 능력들을 모두 써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부족했던 점들을 다시 정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과거 주님께 빚진 것을 다 청산해 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비유에서의 청지기는 자신의 과거사가 들통 나자 미래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을 헤아려 본다.

즉, 땅을 파는 일과 빌어먹는 일 그리고 주인의 종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권한으로 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자기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신안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선함을 발견하려고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이 스스로가 천성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지님을 말한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주님께 용서 해달라고 요청하나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려는 일말의 노력 없이 용서를 비는 염치없는 모습을 의미한다. 청지기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주인은 그가 슬기롭게 행동했다고 말하면서 칭찬해 주었다. 이 비유는 표면적으로 볼때 그가 취한 행동인 세 번째 길 역시 부정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이기적이며 나쁜 것들은 덮어두고 지금부터라도 충실히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붙잡아 보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혹은 이타적인 용도로 주님께서 주신 세상적인 선물들을 모두 사용할 때, 우리는 세속의 재물일지언정 자기편(친구)이 되게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슬기로운 선택을 한 세속의 청지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빛의 자녀”들, 즉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빛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후 주님께서는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주신다. 그 이유는 이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나쁜 짓을 행한 적이 있음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타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며 슬기롭다고 자처함으로써 그들의 속은 더욱 냉정해지고 스스로를 뽐내어 남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 산상설교의 팔복 중의 첫 번째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와 성경 상에서 부유한 자는 저주되고 가난한 자는 칭찬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부유한 자란 자신이 위대하며 똑똑하다고 여겨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가난한 자는 자신이 낮고 천하며 미련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부자와 라자로에 관한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느님과 재물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과종기”에 해당되는 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을 자유의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발달되게 될 우리 영혼의 형태와 본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사후에 자신의 통치하는 사랑 곧 자신이 가장 중심으로 삼은 돈이나 권력 쟁취 혹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등 자신의 중심원리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저 세상에서 부자와 라자로 사이에 놓여 있는 큰 구렁텅이는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과 놓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필요한 모든 진리를 말씀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어떤 기적이나 환상을 보면 하느님과 천국을 믿겠다며 공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언은 진실이 아니다. 믿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이런저런 기적이나 환상을 보게 되면 그것을 조소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계신다.

제 1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잘 운영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왕국이라는 것과 이미 잘못 행한 일들은 결코 원위치로 환원할 수 없음을 재고해 본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잘못을 행한 사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비유를 공부하게 된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청지기였다. 청지기란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집과 소유물들을 경영하는 종을 말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의 청지기임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운영할 조그마한 왕국을 각 개인에게 주시고 있다. 이 왕국이란 우리 속의 마음과 이해성 그리고 삶이다. 주님께서 조그만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나아지고 행복한 장소로 운영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되돌려 갚아야 할 빚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물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며, 이것들이 그분을 섬기는데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주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삶에 빠져서 주님의 선물을 낭비하거나 허비할 때가 많다. 우리가 잘못인 줄 알면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직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직했던 부분들은 결코 원위치로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잘못된 부분이라도 그것을 원만히 수습하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이미 잘못된 행동들의 가장 슬픈 점은 이들이 후에도 원위치로 충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충분한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만이 이 세상의 친구와 친척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에서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과 자신을 추켜세우려는 것을 모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본문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여기서 재물(Mammon)이란 단어는 갈대아어 또는 아람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자 성경 상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자아를 위한 것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기적이란 무엇인가?
- *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설명하셨는가?
- * 본문의 비유 외에 기억나는 복음서의 비유는 무엇인가?
- * 본문의 비유에서 주인은 그의 청지기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 * 청지기는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가?
- * 왜 청지기는 그의 직분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가?
- * 그는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는가?
- *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 중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 그는 두 번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 청지기가 이러한 행동을 한 까닭은 무엇인가?
- * 주인은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 비유속의 청지기는 충직했는가?

제 2반

본문속의 두 가지 비유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우리의 근본적인 선택이란 주님을 섬기는 삶이나 아니면 자아 중심의 삶이나를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듯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이 선택을 붙여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공부하게 된다. 우리는 첫 번째 비유를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른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잘 돌봐야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비유의 줄거리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가 선하기보다는 주인의 채무를 거둬들이는데 약삭빠르게 행동했다고만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유의 줄거리가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해왔던 것들이 뼈뿔어진 것임을 갑자기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청지기와 같은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 우리는 부주의한 습관에 젖어 들기 쉽고 이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될 때야 비로소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버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그 누구도 일단 행해진 잘못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맞아.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잘못된 거야.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도 없고.” 또는 “나의 잘못을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등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말마저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자신의 치부가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이다. 재물(mammon)이란 단어 은 아람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까닭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원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뜻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천국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민족의 시조로서 모시고 있어서 그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서의 부자는 간혹 Dives라고도 언급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부터 근원된 것으로 rich를 의미한다. 이 비유에서 알아두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부자가 나쁜 인간이며 라자로는 선한 인간이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자였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가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고 느낄 때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성경 상에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겸손한 자를 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 자만으로 마음을 팍 채운 이들 곧 성경 상의 바리사이파인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외적 조건들은 저 세상 삶에서의 우리 삶의 조건을 결정짓지 않는다. 성경은 “주님께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비유에서의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그 이유는 그가 세상적 소유물에만 집착하여 천국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자로는 비록 거지 신세였지만 선한 인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두 인간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는 각자 이 세상에서 선택해간 삶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그 속의 진리를 보아서 그 진리대로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원하신다. 이 길은 선함을 사랑하는 법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행하는 길이기도 하다. 주님과 사후의 삶을 믿고자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환상이 보여 진다면, 그 사람은 환상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그러한 인간은 환상을 꿈이나 망상이라고 단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항은 인생살이의 과정에서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중심 원리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아 충족만을 추구함을 중심 원리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찍 알고 더욱 빨리 우리의 선택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를 선택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는가?
- * 청지기는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 들었는가?
- * 청지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 *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청지기에게 창피한 것이었는가?
- * 그는 자신의 처지를 건져내는 행동이 무엇이라고 결심했는가?
- * 이렇게 결심한 청지기의 행동은 선한 것이었는가?
- * 이 행동에 대해 주인은 뭐라고 말했는가?
- *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먼저 물었는가?
- * 그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 * 아브라함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제 3반

일반적인 의미로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본다.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주님의 말씀 곧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재물(mammon)이란 부유함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비유에서 주인이 부정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유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즉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선을 낭비한 부정한 청지기들임을 실감하면서 그것을 읽게 되면, 비유 속에 담긴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더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단지 그분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유물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지만, 때로 자아를 섬기는데 이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빛지는데 그분께 빛진 것을 아무리 갚아나가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주님께 빛진 것을 다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빛을 탐감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인정하며 슬기롭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기름 백 말과 밀 백 섬이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빛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오십 말과 팔십 섬이란 우리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것이 원상복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에 보다 나은 행동을 할 것임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에서 부자란 선함과 진리에 관한 지식은 풍부하나 자만심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부함을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거지 라자로란 진정한 지식이 조금밖에 없고 행위적인 삶마저 추하게 이끌어 왔으나 마음만은 열려있어 자신들이 받게 되는 어떤 작은 것도 선용하는 이들을 말한다. 개는 말씀 속에서 나쁜 의미의 상응을 갖는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개들이 자연적인 바램 곧 이기적인 바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의 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우리가 갖게 되는 친절함이나 남을 도와주려 하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성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경향은 우리가 무지하여 범하게 되는 악들을 어느 정도 만회시킬 수 있다.

우리의 속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살게 되는 저 세계에서 부자라는 자만심과 세상욕은 그것을 담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알맞은 장소인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함 곧 거지라는 진리가 모자라서 언제나 진리를 바라던 마음과 겸손함은 그의 행복을 천국에서 발견하도록 인도한다. 큰 구렁텅이란 실제로 있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구렁텅이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각자 즐겨 보려고 열심히 배운 각자의 삶의 본질에 따라 있게 되는 영혼의 차이를 의미한다.

선한 삶에 필수요소는 겸손과 더불어 주님을 가까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자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주님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저 세상에 가서는 천국적인 것을 즐기겠다는 양다리식의 신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눈에 어떤 기적이나 천국에 대한 환상이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본 상용 공부

밀 = 선함

백 = 충분한 양

개 = 자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연적인 애정

지옥 불 = 자아사랑

제 4반

청지기의 의도를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하느님과 자아 중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읽다보면 두 비유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두 비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훈을 제 13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서의 재물(mammon)이란 단어는 악덕으로서의 부를 의미하는 아람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아의 확장에 관련된 모든 형태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선함과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자연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모든 기회 역시 주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청지기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직분을 인식하고 우리의 재능을 그분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기적이거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데 그것을 악용한다면, 우리는 재물(mammon)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대비되는 선택에 있어서의 중간을 선택할 수 없다. 즉, 오로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청지기는 방탕한 아들이 그랬듯이 위기의 순간에 제정신을 차려 자신의 지위가 없어짐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는 나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와 비슷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섬기는 일이 더 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게 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께 진 빚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속에 갖고 있지 않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공적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 없이 단지 주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내맡기며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청지기의 해결책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 이것은 자신 안에 든 모든 자질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청지기는 최선을 다해서 빚진 자들로부터 채무를 받아 냈다. 채무자들의 빚인 기름 백 말과 밀 백 섬이란 우리가 주님께 빚진 사랑과 순종의 넉넉한 치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갚게 되는 기름 오십 말과 밀 팔십 섬은 우리가 주님께 지불하게 되는 우리의 한정된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지불할 때, 우리는 슬기롭게 행하는 것이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부자란 진리를 가졌으나 그것을 자신을 섬기는데 사용한 사람을 표현하며, 라자로란 진리가 결핍되어 있으나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그것이 오게 되면 이내 받아들이는 사람을 표현한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는 재물을 섬겼고 거지는 하느님을 섬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칭되는 상태의 영원한 결과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비유의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다. 지옥의 불이란 자아사랑에서 나오는 불타는 욕망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언제나 “제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주어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 즉 가식적으로 의를 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더욱 배우려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육체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결정들에 영향을 준 행동들을 이루는 말단기관인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쓸모없게 된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형체를 주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영혼이 드러내는 형체는 어떠한 가식이나 허식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있는 그대로의 인격이 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사이에 있는 큰 구렁텅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으로서 선택하는 것들에 의해 우리의 인격이 영원히 고정되어 짐을 의미한다. 본문의 마지막 몇 구절은 특별히 흥미롭다. 자신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믿고 그 외의 어떤 것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 준다면 믿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설사 그러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을 모두 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기 때문이다.

제 5반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 하는 첫 번째 비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세 가지 거짓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첫째는 인간이 태생이 선하지만 주위 환경이나 타인들로 인해 악에 몰든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간이 자신이 행한 어떤 것에도 공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오직 구세주 주님만을 인정하며, 설사 선한 삶이 없더라도 신성한 자비에 의해 자신이 구원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종국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본문에는 익히 알려진 두 가지 비유가 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바리사이파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는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재물을 섬기고 있음을 발견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 13절이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두 주인”을 “두 주들 (two lords)”로 읽어야 함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가 요한복음 13장 13절의 경우 주인(master)과 주님(lord)이 동시에 사용되는데, 이때의 주님과 본문의 주님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본은 이에 대해서 주인은 진리를 그리고 주님은 선에 관하여 서술한다고 설명한다(천국의 신비 9167-2). 그래서 이 절은 “너희는 진리와 거짓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선과 악을 함께 섬길 수 없다”를 의미하게

된다.

본문의 부정적인 청지기의 비유는 많은 성경 애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왔다. 그 이유는 비유속의 주인이 부정적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세속의 자녀들”로부터 있는 위와 같은 예를 “빛의 자녀들”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시며,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충고하신다. 재물(mammon)이란 아람어로서 “부유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단어는 성경 상에서 소유물, 돈, 학식 또는 사회적 지위 등 우리로 하여금 자기만족과 타인을 경멸하도록 하는 것들을 총칭하는데 사용된다.

이 비유는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 능력, 재주, 지식, 책임 또는 기회 등은 그분을 잘 섬기도록 하기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선물들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 중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그분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목적이나 사사로 운 이득을 위해 낭비하는 청지기들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본문의 청지기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인 3절은 두 가지의 “터무니없는 해결책들”에 관한 것이다. 청지기가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두 해결책에 자신의 구원을 기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란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사상이 거짓임을 의미한다.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란 우리에게 부여된 재능으로 주님께 빛진 것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주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구원을 기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을 무가치하게 여김을 의미한다. 주님의 선물을 어느 정도라도 이미 남용해 버린 자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방향은 본문의 청지기가 선택한 것뿐 일 것이다. 청지기가 불러 모은 주인에게 빛진 자들이란 주님을 섬기도록 부여된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표현한다. 그들이 빛진 기름 백 말과 밀 백 섬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분께서 예상하신 사랑과 선함의 기대치이다. 그러나 기름 오십 말과 밀 팔십 섬이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랑과 선함의 최대치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여태껏 자신의 재능을 잘못 사용하여 낭비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분께 빛진 것 곧 기름 백 말과 밀 백 섬을 영원히 갚을 길이 없으므로, 우리의 여생을 충분히 선용한다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 빛진 자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왕 잘못된 인생 될 대로 되거라”하는 식으로

대처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부족함을 정정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전력을 기울여 그분께 빛진 것을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갚는 성의를 보여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가 청지기의 결정에 있었기에 비유속의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깨달은 순간부터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위와 같은 결정이 쉽게 있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는 이러한 결심을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재물이란 세상적 소유물, 학식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 등을 총칭한다고 배웠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혹은 자아를 섬기는데 사용된다.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위 세 가지 종류를 모두 가졌으며, 그것들을 자아를 섬기는 데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여 어떤 측면에서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부하면서 남들을 경멸해 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처럼 되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마가복음 10:24).”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곧 자신의 지식이나 선함이 부족하여 주님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과 반대된다. 둘째 비유속의 부자는 당연히 바리사이파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우리, 즉 자신의 이모저모에 대해 주님께 빛진 것이 없고 그분께 용서(탕감) 받을 일이 없어서 그분의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 라자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이 도울 자”이다. 거지 라자로란 자신을 영적인 거지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형편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부자가 입은 화사하고 값진 옷이란 그가 소유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묘사한다. 라자로의 중기투성이인 몸은 무엇이 올바른지 잘 몰라서 또는 그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빠져 버린 악들을 의미하고, 이 중기를 핏은 개들이란 선하게 살아보겠다는 단순한 충동만으로 자신의 외적인 삶을 고쳐보려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천국의 신비 9231-3항, 9467-5항, 천국과 지옥 365항, 참된 기독교 215항, 성경에 관한 교리 40항」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자는 그의 물질적 부유함이 아닌 그의 즐거움의 근원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만족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이른 것이다. 라자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려” 했기 때문에, 즉 선한 인격을 이루고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지식까지도 갈망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란 영적인 거리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0187항에서 선한 기운만 맴도는 곳에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잠깐도 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러한 구렁텅이를 장치해 두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구렁텅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고 닦은 삶에서 스스로 만들게 되는 어떤 것이다. 이기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삶을 산 사람은 저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타적인 선함을 발견하거나 추구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거나 어떤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친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충고해주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했다면, 우리는 “라자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축이게 해달라”하는 구절에서 라자로에게 물을 찍어 가져다주는 일이 불가능했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저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이야. 육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야.”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물론 천국에 가야지.”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삶의 본질 그 이상의 것을 저 세상에서 얻거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한 것을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선을 저 세상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렁텅이가 의미하는 바다. 이 세상에서 악 가운데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자들은 천국의 것을 즐기는 그릇을 만들지 못하여 이들이 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지옥에서만 발견된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에서의 부자와 같이 주님께서 저 세상의 삶을 기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적에 의해서라도 저 세상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7290항에서 기적이 주님의 시대 때 행해진 이유와 오늘날 기적이 질서 있지 못하게 된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까닭은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과 엇갈리는 주님의 법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고 심지어 그 법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이기적인 소망 사항이 우리들 심정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은 그 소망에 반대되는 것을 세상 삶의 장애물로 여기고 거절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 제 250-5항: “ ‘불의의 재물’이란 영적의미로 악에 의해 소유당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악한 자는 이 지식을 단지 자신들의 위엄과 부를 얻는데 사용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식들에서 나오는 선함 또는 ‘빛의 자녀들’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이것들은 영원한 성막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부정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는가?
- 2) 청지기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 3) 그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4) 그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가?
- 5) 그는 무엇이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가?
- 7) 그의 주인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9)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0) 재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이 비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비유를 바리사이파인들에게 주셨는가?
- 13)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 14)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 15)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16) 왜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가?
- 17) 그러자 부자는 무엇을 부탁했는가?
- 18)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가?
- 19)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 20)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22) 글자 상에서 부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정이 어떻게 슬기롭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

23) 둘째 비유에서 부자와 거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 1) 제자들 2)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3) 자기 직책을 잃음
- 4) 땅을 파는 일 5) 빌어먹는 일
- 6) 작접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 7) 그를 칭찬했다
- 8)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남은여생 동안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 9) 그렇게 할 수 없다 10) 부유함, 이기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
- 11) 주님을 비웃었다 12) 부자와 라자로 13) 아브라함의 품(천국) 14) 지옥
- 15) 라자로로 물 한 방울을 찍어 보내달라
- 16) 나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못 간다
- 17)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 해 달라 18)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있다
- 19)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낸다면... 20)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 21)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게 될 자신의 존재를 결정지어야 한다
- 22) 스스로가 원래 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며 자비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 23) 부자 - 영적인 것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자
거지 -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며 의에 굶주려 있다고 인정하는 자

35

종려 주일 (3)

머리말

자캐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으므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의 자세와 더불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19장

19장: 1.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거기에 자캐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3.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4.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들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5. 예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캐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다. 6. 자캐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 가 묵는구나!”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8. 그러자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네 감절은 갚아 주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9. 예수께서 자캐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 주셨다. 12.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13. 그래서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금화 한 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 보아라’하고 일렸다. 14.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15.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 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 보았다. 16.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열 개로 늘렸습니다'라고 말하자 17. 주인은 '잘 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하며 칭찬하였다. 18.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다섯을 벌었습니다'라고 말하자 19. 주인은 '너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20.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몹쓸 종아, 나는 바로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말이지? 23.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꾸어 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 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하며 호통을 친 다음 24.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열 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하고 일렀다. 25.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열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말하자 26.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하고 말하였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29.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벧파게와 베다니아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30.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31.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 32.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33.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 가오?"하고 물었다. 34.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35.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걸옷을 엮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36.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걸옷을 벗어 길에 퍼 놓았다. 37.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39.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하고 말하였다. 40. 그러자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42. 한탄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이제 네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 와 44.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성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상인들을 쫓아 내시며 45.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47.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공리를 하고 있었다. 48.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교리 요점

- * 왕으로서의 주님이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신성한 진리이다. 자연적 이성을 완전히 다스린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 * 말씀속의 아주 짧은 이야기에도 우리가 영원히 공부해야 할 의미가 담겨져 있다.
- *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길 원해야 한다. 겸손은 이타애의 기초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날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는 왕이나 관관이 나귀를 타던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던 날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의 간격이 불과 며칠밖에 안 됨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던 것일까?

고대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의 모든 예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서 조만간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은 자”가 왕으로 오셔서 주위의 모든 적을 무찌르고 지상에서 그들의 국가를 영원히 드높여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을 견지하고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세주에 대한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치 않으며 무시하기까지 했다. 위의 말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의 추론을 지휘하도록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을 내세우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심사임을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성경 상에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 곳곳에서 발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주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왕으로 환영했던 군중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의 많은 적들, 특히 로마제국을 무너트려주실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이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을 제거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이용되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셔서 준비를 갖추도록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지를 않았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의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이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께서 죽음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큰 변화가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됨을 입증해 주실 수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해야 할 사항인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도 가르쳐 주실 수 없었을 것이다.

본문은 자캐오처럼 자신속의 악함과 죄를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과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의 썩은 마음같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완악한 마음의 차이점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군중들을 미워하기 보다는 백성들이 실제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 그들 자신이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행복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타적인 삶을 선택했다더라면, 그들 모두 구원받았을 것이다.

기독교인은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일주일을 “성주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주간동안

어린이들에게 누가복음 20-23장 사이에 있는 주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고 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사이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의 차이점을 찾으며 자신의 마음과 이해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본문의 자캐오같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과오를 정정하려고 결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한 후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즉, 우리 삶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예증으로서 자캐오의 이야기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것이다.

부활주일 전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오래 전 이 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군중들이 길가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분의 입성하시는 길에 던졌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당시의 유다 지역에는 없어서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을 대부분 걸어서 가야만 했다. 유대의 관습들 중 하나는 왕이나 관관들이 나귀를 타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였다. 주님의 추종자들이나 군중은 나귀를 타심이 그분께서 왕으로 군림함을 뜻한다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께서 곧 군사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로마제국을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가 다시 위대한 국가로 부상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왕으로 입성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나라는 하늘과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 자캐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바는 무엇인가?
- * 자캐오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 *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세관원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 왜 그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는가?
- * 왜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려오라고 하셨는가?
- * 자캐오는 자기 인격이 어떠하다고 했는가?
- *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 2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의미 그리고 자캐오의 행위와 금화비유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 사건들이 성주간에 있었음을 설명한다.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오래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신 사건을 되새긴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경이로운 일들, 그분의 친절함이나 온화하심에 비해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그분을 냉혹하게 대우한 모습 그리고 열심히 그분을 따라 다니던 군중들이 쉽사리 그분에게서 등을 돌린 것 등을 의아해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속의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면 우리 안에서 쉽게 있어지는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간섭하는 이들을 대단히 미워한다. 만약 누군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충고하고 예상되는 일을 아무리 설명 해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 결국 그냥 내버려두는 편에 서있던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소귀에 경 읽기 식인 사람들에 관하여 쉽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든 주님의 흠을 잡아서 군중들로 하여금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보여 주시자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미움과 증오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우리는 범죄란 언제나 이기심에서 시작됨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진실이다.

주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 첫날에 그분은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 하는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왕으로서 군중들에게 환영받으셨다. 이 이야기는 네 가지 복음서 모두에서 언급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12-13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던졌다고 전한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복음서로부터 주님께서 타신 망아지가 나귀의 망아지 곧 어린 나귀였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을 환영한 군중들은 그분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자신들의 왕국을 다시 건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주님을 환영한 그들의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분께서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곳은 지상의 왕국이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이 하늘나라이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입성하심을 묘사하는 것이다.

본문은 위의 사건이 있기 전 이 사건을 수행코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발생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캐오라고 불리는 키 작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곧 죽음에 놓일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에 대해 제자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가 임박해 와서 금화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다. 당시의 화폐단위인 므나(mina)란 금이나 은의 수량 단위이다. 이는 오늘날 미화 20불 정도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이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금화로 번역되고 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비유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뒤 그들로 하여금 여태껏 배우고 훈련받은 모든 것을 선용하도록 하는 기대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선호하는 대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주셨지만 우리가 슬기롭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데 그 능력을 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단지 그에 대해 섭섭해 하셨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슬퍼하셨다. 우리는 제 45절과 46절을 통해 그들이 성전을 돈을 버는 장소로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서기 70년경에 성취되었는데, 그 때 로마인들이 이 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 그분은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하셨는가?

- * 어린 나귀는 당시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동물인가?
- * 제자들은 주님께서 타실 나귀등에 무엇을 깔았는가?
- * 그들은 그분 앞의 길에 무엇을 던졌는가?
- * 군중은 뭐라고 주님께 환호했는가?
- * 자캐오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 *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 * 세관장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 왜 자캐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 그분을 보기 위해 자캐오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 *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는 자신의 인격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가?
- * 달란트의 비유에서 귀족들은 그들의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 첫 사람은 자기 금화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 그 보상으로 주인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 둘째 사람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 그의 보상은 무엇이었는가?
- * 세째 사람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 * 주인은 셋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제 3반

주님의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과 이기심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건 두 사람을 대비하여 살펴보고, 자캐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상응에 관하여 설명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슬피 우신 주님의 모습이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 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첫 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본문의 이전 내용은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갈릴리로부터 내려가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과 그분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간에 있는 명백한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을 환영하는 제자들

틈에 끼어서 그분께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모습은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미워하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

본문은 주님과 사도들이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해당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죽음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며 그분을 설득하려고 했다. 물론 그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지도 못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세상에서 해내야 할 일의 한 부분으로서 기꺼이 그 죽음에 다가 가셨다. 주님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 그 자체이시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여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이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하는 여정과 반대됨을 주목하도록 하자. 주님께서서는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인 바, 이것은 바깥쪽에서 그분의 가장 깊은 가르침 곧 가장 높은 승리의 장소로 올라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문을 여는 자케오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자케오가 영적으로 강도만난 사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자케오란 자신의 잘못된 점을 보고 주님을 뵈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자케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성경 상의 돌무화과나무란 무화과나무들 중에서 가장 하급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란 선한 일을 상징한다. 자케오가 돌무화과나무에 기어오른 모습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뵈고자 할 때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더불어 우리의 거처를 만들리라”라고 말씀하시게 된다.

금화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비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쓸모 있도록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즉,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기” 때문이다.

종려주일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하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이나 관관들의 관습처럼 주님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 가셨다. 나귀란 우리의 “자연적 이성” 또는 세상적 문제를 슬기롭게 판단하는 우리의 능력을 상징한다. 나귀는 타박타박 걷는 짐승이어서 꽤 듬직하지만, 주인의 지시대로 잘 따르려 하지 않는 고집이 센 동물이다. 스웨덴붉은 이러한 나귀의 특성과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의 특성과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 이는 나귀라는 짐승의 속성이 지닌 힘인

자연적 이성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더 높은 원리에 전적으로 복종하도록 하셨음을 의미한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그분이 가시는 길에 그들의 옷을 던졌다. 겹옷이란 우리의 애정 곧 진리가 가리키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옷 입히고 있는 생각을 상징한다. 주님의 겹옷은 언제나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진리를 표현하나, 우리의 겹옷은 언제나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

군중들은 주님을 환영했는데, 바리사이파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주님께서서는 그들로 하여금 군중들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반대하는 이들을 미워하시는 대신 한탄하시며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후 그 예언은 약 40년 후에 성취되었다. 사실 주님께서서는 고대 유대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이다. 유대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을 가졌으나, 정작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표현해 주어야 할 그들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어서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회가 새로 생겨나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당시 교회의 상태는 성전 뜰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치들의 모습에 함축되어 있다.

성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워내려고 하지 않는지 혹은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제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분 앞에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던졌듯이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을 복종시키는 모습, 즉 주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에 환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자세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아를 잊으려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십자가는 우리의 이기심을 정복하는 승리의 상징임도 유념해야 한다. 이 승리는 주님의 도움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누구나 쟁취 가능한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무화과 = 외적으로 선한 일

나귀 = 자연적 이성(추론)

제 4반

자신을 검증할 때와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야 할 헌신에 대해서 주로 살펴본다.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친숙할 것으로 보고, 본 반에서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예루살렘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한다. 우리가 신성한 진리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우리가 영적 원리의 지배하에 우리의 세상적 추론을 배치할 때 그분은 나귀를 타고 우리속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생각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우리의 걸음을 벗어 던지게 된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 영혼에 든 내적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데, 즉 우리의 잘못된 사고나 이기적 바램들을 쫓아 내주시는 것이다.

자케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세관장이란 세상적인 성공을 사랑하는 마음 곧 애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자케오는 “키가 작은”사람이었다. 그가 상징하는 애정은 우리를 악으로 쉽게 끌고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악한 쪽이 아니라 조금은 선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이 “키가 작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 성경 상의 돌무화과나무란 하급에 속하는 무화과나무인데, 스웨덴북은 그것이 “외적 교회의 진리”를 표현해 준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이처럼 꺾데기에 불과하여 쓸모없는 듯 보이는 진리들이라도 그것들에 기대고 순종하려 하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군중 위로 우리를 높여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케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케로를 보시고,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세상적인 출세에 쫓려있던 우리의 흥미가 한때나마 주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라도 우리의 흥미가 그분을 위해 사용되도록 즉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자케오의 경우같이 이런 즉각적인 행동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악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고치도록 해주어 궁극적으로 기쁨과 구원이 당연히 뒤따르는 곳으로 이끈다.

주님께서는 자케오를 어여쁘게 보신 그분에 대해 불평한 이들에게 금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처지를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다. 미천한 직분에서라도 기꺼이 성실히 행해 보려는 자캐오는 말씀에서 보물을 갖고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실패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보다 영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해 하시면서 하신 파멸의 예언은 지상의 도성과 고대 유대교회에 관한 언급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분의 간절함을 표현해 준다. 따라서 진리를 알고도 그에 성실치 못했던 이들이 빠져들고야 마는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파멸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다. 창세기의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계시록의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있어지는 경고들은 선과 악 그리고 죽음과 생명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우리는 부활주일 전의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지닌 연약한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그것을 공격하여 파멸시키려는 모든 시험을 만나 극복하셨음을 상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곧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주간 동안 자신의 특별한 약함과 과오들을 끄집어내서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늘 염두하고, 이것들과 싸우기 위한 강건함을 주님께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예루살렘 입성의 서문인 두 이야기를 주로 살펴본다.

본문은 주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도중 근처에 있는 예리고에 들리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리고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 있는 교훈과 그로 인해 있게 되는 생활의 선을 표현하는데, 이는 생활의 선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교리의 선으로도 교훈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제 700-15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겪게 되는 사건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식을 삶의 행동 선상에 실제로 놓으려고 애쓰는 상황에 대한 것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주님께서 갈릴리와 요르단 건너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이는 삶의 외적인 측면에

서 있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예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인데, 이는 그분의 가장 깊은 시험과 그분의 가장 큰 승리를 위해 가고 계심을 표현한다. 주님께서는 예리고에서 세관장인 자캐오를 발견하신다. 자캐오는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졌으나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다. 그의 마음에는 그분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실한 바램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기어오른 돌무화과나무란 무화과 중에서 가장 저급한 과실을 생산하는 나무인데, 이는 세상적인 인간에게 가능한 선과 진리의 외적인 종류를 말한다(계시록 설명 403, 805-10) 자캐오가 표현해 주는 것은 영성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그는 눈에 보이기엔 선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생각해서 이기적 동기 없이 선한 일을 실제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하면서 그분에 관한 더 나은 지식을 얻게 된다. 자캐오는 주님을 보고 그분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자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즉시 인식하고 고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금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마태복음 25:14-30)와 비슷하나 똑같지는 않다. 본문에서는 기회의 동등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사람에게는 한 개의 금화가 주어진다. 「계시록 설명」 제 675항에는 비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 ‘먼 길을 떠나는 귀족이 부른 열 종’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교회에 있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 장사를 해보라고 나누어 준 ‘금화 열 개’란 말씀에서 온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과 그 지식을 지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장사’라는 것은 이 지식이나 능력으로 총명과 지혜를 획득함을 의미한다. 많이 획득한 이들이 금화 한 개를 열 개로 불린 사람이고, 얼마정도 획득한 이들이 금화 다섯 개까지 불린 이들이다. 장사를 잘한 이들에게 주어진 ‘고을’이란 총명과 지혜로부터 나온 삶과 행복이다. 말씀속의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세상에서 영적인 총명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악하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하느님의 섭리」 제 210항에 있는 이에 대한 이유와 더불어 설명되는 예증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살고 있다는 나에 대한 외관을 빼놓으면 인간은 인간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뜻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스스로의 의지로부터인 듯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스스로의 사려 분별로부터 필요한 것을 찾아 얻어서 삶에 속하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인도되거나 지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지 않으면 인간은 축 처진 손, 벌려진 입, 감겨진 눈, 들이마신 숨, 숨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있는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언행이 마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감각이나 지각에서 오는 인간적 지각을 벗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도록 해주는 유일한 두 능력인 자유와 합리성을 벗어버리는 격이 되고 만다.”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세부 사항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주간 동안 이러한 이야기(20-23장)들을 사려 깊게 묵상하며 자기 검증의 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주간은 주님의 당당한 예루살렘 입성의 날인 종려주일에서 시작된다.

이제 지상에서의 주님의 일은 거의 끝나셨다. 남아 있는 일이란 마지막 시험을 맞으시고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일, 즉 영화하심의 성취뿐이었다. 많은 평범한 사람과 극소수의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서 믿었다. 주님께서서는 종려주일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왕이나 판관이 타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사람들의 한 중간에 서 계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분 앞에 놓일 어두운 며칠과 환호하는 군중이 그분을 버릴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가 구약성서를 성취하시는 것임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즈가리야 9장 9절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방법이 미리 예언되었던 것이다. 말씀의 글자는 그분의 공생애가 밝히 알려려 하는 진리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내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과 행동 각각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있어진 것들이다. 주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신성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상징한다. 주님의 진리가 권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절대적인 요소이다.

나귀란 자연적인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게 됨을 상징하고, 나귀 새끼란 이러한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합리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2781항에서 나귀와 그 망아지란 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의 자연적인 인간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주님만이 자연적인 인간을 완전히 굴복시키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였던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은 자연적인 수준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그분 앞에 종속시키셨음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나귀위에 얹어 깔고, 그분을 환영한 군중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퍼놓았다. 우리의 겉옷이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각종 생각이나 사상들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주님 아래 종속되며 그분의 방법에 순응되어야만 한다. 군중이 들고 나온 종려나무가지(요한복음 12:13)란 신성한 진리가 주님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상징한다 (계시록 밝힘 (Apocalypse Revealed) 367참조). 그래서 영화하심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입금이며,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은 제자들의 진실 된 인정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육체적으로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질서로 가져다 놓으셨음을 의미하며, 그분의 탄생 시에 천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약속의 성취임을 표현하고 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은 글자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의 가장 깊은 슬픔은 인간이 자신들에게 있게 되는 평화에 속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세상을 단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열망하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까지 성전을 깨끗케 하시고자 성전에서 사교팔던 장사꾼들을 몰아 내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진리가 우리속의 성전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을 상징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봄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480항: “울음이 슬픔과 사랑의 표현임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울음은 자비나 동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비는 사랑이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사랑은 자비라고 불리는데, 이는 인간이 그 자체로만 보면 지옥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런 사실을 지각하면 자비를 애원하게 된다. 울음이 내적 의미에서 자비인 고로,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림’은 때때로 여호와 또는 주님께 연관되어 서술된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음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대해 동정하시고 통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에 대해서, 즉 교회 안에 이타애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내적 의미에서 어떤 믿음도 없게 됨을 슬퍼하시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과는 무슨 날에 관한 것인가? 왜 그렇게 불러 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중이셨는가?
- 3) 본문 처음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어디를 통과하고 계셨는가?
- 4) 본문에서의 주님의 길 방향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어떤 사람의 길 방향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5) 자캐오의 직업은 무엇인가?
- 6) 왜 자캐오는 주님을 볼 수 없었는가?
- 7)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짜냈는가?
- 8)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그는 자신의 인격이 어떠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가?
- 10)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바리사이파인들은 어떻게 느꼈는가?
- 12)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3) 주님께서 말씀해준 비유는 무엇인가?
- 14) 이 비유의 줄거리는 무엇인가?
- 1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16)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17)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8) 새끼 나귀는 누가 타 본 적이 있는가?
- 19)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나귀 위에 타실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는가?
- 20) 군중들은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길에 무엇을 했는가?
- 21)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22) 바리사이파인들이 불평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3) 예루살렘을 보신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4) 주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셨는가?
- 25)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시자 무엇을 하셨는가?
- 26)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종려주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요한복음 12:13)
- 2) 예루살렘
- 3) 예리고
- 4) 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 5) 세관원
- 6) 키가 작아서
- 7) 돌무화과나무에 기어올랐다
- 8) “어서 내려오너라...”
- 9)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 10)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 11) 불평했다
- 12) 비유
- 13) 금화
- 14) 열 종에게, 금화 한 개씩을...
- 15)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능한 한 선용하라
- 16)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 17)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 18) 그렇지 않다
- 19) 나귀위에 겹옷을 깔았다
- 20) 나무가지들을 던졌다
- 21)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 22) 돌들이 소리치리라
- 23)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 24) 예루살렘의 파멸
- 25) 성전을 깨끗케 하심
- 26) 기도하는 집

36

부활절(3)

머리말

성주간의 사건을 주로 살펴보고, 부활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12

24장: 1.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 있었다. 3.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 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4.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5.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7.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 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말해 주었다. 8.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9.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 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10.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러니 하고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 * 우리는 “돌이 굴러졌음”이란 말씀의 글자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위해서 주님에 의해 영감 된 글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 진정한 믿음은 열심히 이해하려는데 있게 된다.
- * 신성화하신 그리스도를 뵙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지는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부활(Easter)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Easter라는 단어는 튜톤족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부활절이 항상 봄에 있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과일절 뒤에 있었고, 이 과일절은 춘분점 가까스로 봄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달력에서 부활절의 날짜가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사실 주님의 부활이 봄의 시작과 더불어 있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의 봄이 시작되는 것과는 의미상으로 일치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봄이란 겨울의 동면에서 깨어나 새싹들이 지면에서 솟아오며 새들이 창가로 돌아와 우리를 깨워주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봄의 모습처럼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희망과 삶을 세상에 가져다주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도들은 완전히 용기를 잃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죽음에 놓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임을 말씀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잊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는 어떤 역경을 통과하는 경험을 갖기 전 사도들이 아주 쉽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잊어버렸음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역경을 만나고 통과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역경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빛나는 쪽을 쳐다보는 것”, 즉 그 역경 속에서 어떤 희망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사도들은 모두 과거의 자신의 직업으로 되돌아갔고, 함께 앉아 탄식하며 무엇을 할까 염려만 했던 것이다.

남자들보다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주님을 사랑해 온 여인들은 비록 그분께서 돌아 가셨지만 그분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들은 매장된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 아침 일찍 주님의 무덤으로 향료를 가져갔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굴러져 있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닌 여인들이었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이 여인들이었다.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슬픔이 우리의 가정에 닥칠 때 슬퍼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혹은 신성한 섭리에 의문을 제시하기보다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유용한 것을 발견하고자 새로운 삶과 희망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뵈게 되었을 때 공포와 의심을 떨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세상에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하여 기독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이로운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그중 첫째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지극히 정상적인 단계로서, 연극의 제 일 막에서 제 이 막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하나의 단계에 해당될 뿐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삶에서 잠드는 것이며, 더 밝고 아름다운 저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인생향로에 대한 사항을 배우고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인도하시고 지원해 주시며,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삶과 행복을 준비해 주신다.

제 1반

종려주일과 연관 지어 부활 주일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우리 모두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으며, 부활주일 이전 주일 역시 특별한 날임을 기억한다. 우리는 부활주일의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12월에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주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특별히 기념하여 성탄일이라고 부른다.

주님께서서는 오래 전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보여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가정에서 성장하셨다. 때가 이르자 그분은 가르치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다. 주님께서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베푸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께

나와 경청했지만, 때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 받을 때 직언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적들로 하여금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하도록 허용하신 까닭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죽음은 새롭고 더 행복한 삶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종려주일 주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이들이 주님께 실망하고 분노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 누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군중들의 실망을 그분을 제거할 기회로 이용했는가?
- * 그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 * 그분의 시신은 무덤에 놓여 졌는데, 그 무덤의 입구를 막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 *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구에게 미리 언급하셨는가?
- *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일요일 아침 누가 무덤으로 갔는가?
- *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 * 주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 그들이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는가?
- * 천사는 그녀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천사는 그녀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었는가?
- *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제 2반

과월절을 포함한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을 정리한 후 부활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 * 부활절 이전 주일은 뭐라고 부르는가?
- * 주님께서는 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 * 주님께서는 어떤 동물을 타셨는가?
- *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 군중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 *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는가?
- * 주님의 적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 * 주님의 적들이 그분을 미워한 까닭은 무엇인가?
- * 주님의 친구들이란 누구인가?
- * 자캐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 * 주님께서는 자캐로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 *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직후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위의 사항들은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있어졌던 일들이다. 그런 다음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과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성주간의 첫 이틀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밤이 되면 그분은 베다니아 마을로 나가셔서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의 집에서 묵으셨다. 목요일 저녁 군중들은 그분이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면서, 그분이 신성모독자여서 그분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바리사이파인이나 사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다니아에 머무르셨고 목요일 밤 과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 열 두 사도들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과월절을 기념하게 된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그 후 모든 기독교인들이 과월절 대신 이 성만찬을 기념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성만찬 때의 빵과 포도주를 그분의 몸과 피라고 부르셨다. 빵은 선함을 상징하는데, 이는 그분의 선함이 빵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빵을 그분의 몸이라고 하신 의미는 주님께서 완전히 선한 분이심으로 그분의 선함만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포도주와 주님의 피는 그분 자신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천국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분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과일절 만찬에서 그분의 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과일절 기념 후 기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유다의 안내를 받은 군중들은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 유다는 병정들에게 자신이 입 맞추는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유다는 주님께 입맞춤함으로서 그분을 배반했는데, 우리는 주위에서 친구인체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자를 두고 유다와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주님께서는 먼저 대사제 앞에서 심문을 받고 단죄를 받았으며, 그 후 빌라도에게 이송되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주님을 헤로데에게 이송하는 방법을 써서 그분께 형을 언도하는 것을 회피했다. 우리는 여기서의 헤로데가 주님 탄생시에 있던 헤로데가 아닌 세레자 요한의 목을 베게 한 헤로데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헤로데는 주님을 희롱했지만,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한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 빌라도도 주님께 죄를 씌우고 싶지 않았으나, 사제들과 백성들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금요일이었고, 이렇게 되자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다. 그들은 주님께서 실패하셨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이 자신들의 큰 착오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심은 실패가 아닌 승리였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으신 이유는 죽음이란 단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하나의 단계일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참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적들이 그분에게 온갖 짓을 다하도록 허용하신 까닭은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을 해할 진정한 능력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 로마 군인들은 그분의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차지했는데, 이 속옷은 통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주님의 시신은 새 무덤 곧 아리마태아 출신의 사람인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모셔졌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이 놓여 무덤을 봉인했으며, 누군가가 그분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의 입구를 지키라고 군인들에게 명령되었다. 토요일은 히브리인의 안식일이어서 시신은 무덤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그분의 시신에 바르려고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다. 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6장 3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다음 공부 과정에서 부활 사건에 관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분의 부활이 인류의 역사를 바뀌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적들이 그분에게 처참한 짓을 가하며 그분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함을 허용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삶은 자연계에서 시작되며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것들로 저 세상에서 살게 될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최적의 때에 이 세상에서 잠들고 영계에서 깨어나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 본향에 있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의 선택들에 의해서 결정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과월절은 언제 기념되는가?
- * 과월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마태복음 28:2 참조)
- * 누가 그들에게 나타났는가?
- *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천사는 여인들에게 과거 예수님께 하셨던 어떤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는가?
- *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자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제 3반

성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더불어 무덤의 봉인이 가진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부활 이야기의 상응과 주님의 의해 계발될 수 있는 선함만이 진실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임도 강조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때를 위해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당신께서 죽음에 놓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설득하려들자 그들을 꾸짖으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성주간 첫날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황폐해지고야 말 교회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성전을 장터로 변하게 한 비둘기 장수와 환전상을 몰아내심으로써 성전을 깨끗케 하셨다. 그 후 이틀 동안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밤에는 그분의 친구인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가 있는 베다니아에서 묵으셨다. 그분은 목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의 이층 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드시며 이때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그 후 주님께서 올리브 산의 게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유다에 의해 배반당하셨다. 그날 밤 그분은 대사제 앞으로 끌려가 심문 받은 후 헤로데에게 끌려가셨으며,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심문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고, 그분의 시신은 그날 오후 늦게 아리마태아 사람인 요셉이 소유했던 새 무덤에 모셔졌다. 이 후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봉인되어졌고, 경비병들이 무덤의 입구에서 보초를 섰다. 그분의 시신은 히브리 전통인 안식일 동안 무덤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을 두고 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사제들은 그분을 죽음에 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그들이 신성한 길을 따르는 것과 신성한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신성한 삶을 사는 것을 모두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사상 그리고 세상의 삶만을 원했을 뿐이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주님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향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이기적인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해석이나 각종 규정들을 말씀 위에 덮어놓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이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바를 알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거짓 해석이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큰 돌로 상징된다.

아침은 언제나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그리고 여인은 애정들을 상징한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녀들이 주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가져온 향료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분에 대한 내적인 이해를 상징한다. 그녀들이 그분께서 그녀들을 떠났다고 생각되는 때까지도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그녀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던 것이다. 반면, 사도들은 주님께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까지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자들과 여인들 간의 상이점은 선함의 사랑에 기초된 믿음과 단순히 마음만으로 본 것에 기초한 믿음의 상이점과 같은 것이다. 안식일이 끝나자 무덤이 열리고 인간 삶의 새 기원이 시작되었다. 주님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까지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만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각 개인의 죽음과도 같지만, 그것은 연극에서 제 일 막이 끝나고 제 이 막의 시작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유대 교회의 끝과 기독교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서지고 낙담만 남은 사도들은 부활로 인해 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변화되었고, 심지어 복음의 무적 용사가 된 사도들도 생겨나서 그들로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되었다. 부활은 주님이 수행하신 모든 기적들, 즉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확신하도록 하는 증인인 것이다. 그 이유는 부활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거치심으로써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분만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즉 육체의 죽음은 삶의 단계에서 보다 위쪽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 어떤 변화도 있지 않음을 입증해 주셨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는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되돌아와 내게 말해준 적이 없거든.”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돌아 오셔서 말씀해주셨어.”라고 즉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대답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의 주님의 생애가 기독교회가 가져야 할 유일한 기초인 것이다.

기본 상응 공부

- 무덤을 막은 돌 = 말씀에 대한 거짓 해석
- 아침 = 새로운 상태의 시작
- 여인들 = 애착들
- 향료 = 선으로부터 온 내적 진리

제 4반

무덤을 막은 돌과 열린 무덤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생각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천국의 빛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문을 닫도록 한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가 주님이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변모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다. 스웨덴북은 저 세상에 가서 그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뤘던 그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측정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한 인격으로서 그분에 관한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도 결코 그분을 정면에서 볼 수 없으며 단지 산만한 빛으로만 그분을 식별할 수 있다. 설사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천사들로부터 예수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을 마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부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만이라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주님의 당당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그분의 마지막 사역의 시작이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군중의 환호는 주님께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을 드러내 놓고 질책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실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속의 죄나 위선을 밝은 빛 안에서 보고 그것들을 단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열렬한 믿음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서 이내 식어 버리기 쉽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듭나는 삶은 일보라도 전진하게 되며, 우리 안에 강함이나 저항력이 생기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된다.

주님께서 과월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 그분은 흔히 과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신다. 십자가는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투쟁의 극이었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수단으로 당시의 인간들이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던 악의 힘, 즉 지옥의 권세를 누르시고 정복하셨던 것이다. 과월절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이듯이, 우리는 그 절기 대신에 제정하신 성만찬에서 그분의 지상 생애와 죽음을 수단으로 지옥으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직접 구출하실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주님께서 한정된 삶을 사는 육체의 죽음을 멈추게 하셨다면,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권능으로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당신을 구출하셨더라면, 그분은 그분의 적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강제로 인정하도록 하실 뿐 그들의 마음은 바꾸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악마의 노예에서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상태는 노예에서 노예로 전환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노예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노예는 다만 두려움으로 순종할 뿐이며, 두려움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즉, 진정한 행복이란 자발적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스웨덴봄은 주님의 마지막이며 최고의 시험은 인간을 강제로라도 구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권능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목격하며 그분께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도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모든 희망을 쉽게 포기하고 그분을 떠났던 것을 의아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나마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이켜 보면 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과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과 그분을 꾸준히 신뢰하면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들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사도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 말씀에서 여인은 애정들을 상징한다. 여기서의 여인들은 주님께 관하여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했던 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생각은 언제나 주님께로 향해 있었고,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 보려는 의지가 그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그분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했다. 향료란 선으로부터 있는 자연성 안에 든 내적 진리를 상징한다. 스웨덴봄이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단순한 선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진리를 깊게 이해하지는 못하나 선해지기를 한결같이 원하는 자들이다. 이로 인해 이들의 마음의 문이 항상 천국 쪽으로 열려 있어 천국의 영향력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게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위의 여인들이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져 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 이유이다. 무덤을 막은 돌이란 교회가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거짓 해석들, 특히 메시아 이신 주님 안에 든 신성한 진리를 거절하게 만드는 거짓 해석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역시 그분의 공생애를 세상적인 성공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애정이 육체보다 중요함을 배워서 당시의 사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의 신체적 편안이나 쾌락으로 인해 영적인 것들을 거둬서 포기하려 들고 신체적

고통이나 물질의 부족을 영적인 것과 바꾸려 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정한 베드로의 행동에 혀를 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켜 보면 단지 세 번이 아닌 어쩌면 평생 동안 주님을 부정하며 그분에게서 슬쩍 뒤돌아선 적이 많았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미리 일러두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했음을 의아해하기 전에 날마다 읽는 성경 구절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커녕 한 구절을 단 하루만이라도 유념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셔야 했듯이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도 다시 일어나셔야 한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되돌아와 그 경이로운 소식을 말해 주었을 때 제자들이 “부질없는 헛소리가 아닌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과 같지 않은가를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자.

제 5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세상과 개인을 위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본다.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의 이모저모와 그것들의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고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을 공부하는 데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성주간은 당당하게 시작되어 영광스럽게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극도로 약해질 수 있었던 것과 인간의 의지에 반대되면서까지 인간의 구원을 열망하시는 주님의 마지막이며 가장 깊은 시험에 관하여 묘사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성주간의 첫 이틀 동안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와 사제들의 위선이나 세상욕을 거침없이 모두 폭로하셨다. 밤이 되면, 그분은 베다니야로 나가셔서 친구인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의 집에서 묵으셨다. 그분은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성으로 들어 오셔서 열 두 사도와 더불어 과일절 음식을 드셨다. 그분은 이 만찬에서 모든 제물과 전통적인 축제를 대신 할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그분의 현존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의 기초를 기독교회에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만찬이 그분께서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명백히 일러두시며, 그들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만찬을 준수하라고 당부하셨다. 즉,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빵이 그분의 몸을,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서 우리는 과일절 어린 양이 순진을

상징하여 주님 사랑에 근거한 선을 뜻하고,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양의 피는 삶에 응용된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고 배웠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지혜이시므로, 그분의 몸은 그분의 사랑이며 그분의 피는 그분의 지혜 혹은 진리가 되는 것이다.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 역시 이와 같은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에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그분에게서 받고자하는 간절함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고대 유대교회의 예배가 가지는 상응을 통해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 이유는 인간의 내적 삶이 완전히 뒤집혀진 상태여서 주님께서도 더 이상 내적 경로를 통해 인간과 결합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상에서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삶 속의 영적 힘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분과의 진정한 결합으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인간은 이때로부터 과거 교회들의 예식을 그대로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고, 각자의 삶속에 깃든 애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지침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규적인 예배 의식을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음을 재인식하며, 선하고 슬기로운 것의 근원을 자신에게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새교회는 정규적인 예배 의식과 특별 의식으로서 주님께서 성별해 두신 세례식과 성찬식 모두를 집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들에 참가하면서 이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 관하여 더욱 배우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신실한 마음가짐을 겸비한다면,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결합하도록 하는데 한층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현존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들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행동적인 상징이 되는 이러한 예식들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너희는 내 왕국의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리라.”하는 영적인 축제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가 이 축제에 참여할 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참된 기독교 702-710, 계시록 설명 329참조)

스웨덴복음은 계제마니 동산에서의 시험과 십자가상에서의 시험을 연결시켜 주님의 마지막 큰 시험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이유는 지옥이 신성 자체를 시험할 수 없어서 시험을 겪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겪게 된 모든 시험을 극복해 내셨다. 또한 주님께서 입으신 인성으로서의 그분은 우리가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듯이 지옥의 세력을 만나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 속에 존재하셔야만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텅 빈 상태”라 불리는 때, 즉 그분이 입으신 인성의 평면을 의식하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이런 인성 위를 내려 누르는 지옥이 만든 공격에 대항하여 인간의 측면에서도 투쟁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투쟁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게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십자가의 시험)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늘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그분역시 우리가 시험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인간의 약함과 악의 강함을 느끼셔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도 기도 하셨다. 십자가상에서의 시험과 게세마니에서의 시험은 육체적 고통이나 그분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버리는데 따른 슬픔 혹은 사람들 앞에 잘못 보여 지게 된 것을 줄여보겠다는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과시해 보이려는 것에 따른 시험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신성을 보도록 하여 구원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천국의 신비 2821, 10528참조)

위와 같은 시험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수난을 피하는 것은 그분께서 육을 입으신 목적 자체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게 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은 인간으로 하여금 강제로 그분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능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시험이 그분의 힘을 얻으면 극복이 가능함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과하신 까닭은 죽음조차도 진정한 인간을 파괴할 권능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적들이 행한 것들이 최악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그분은 그것들이 얼마나 효과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세 재판소에서 심문을 받으셨다. 즉, 대사제와 헤로데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였다. 당시 유대인들의 평의회는 대사제와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실질적으로 단죄했다. 그 외의 두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형에 동의했을 뿐이다. 사제란 언제나 의지의 측면을 표현한다. 거꾸로 된 교회속의 사제란 의지 속에 든 악을 상징한다. 인간의 의지 속에 든 악이 주님을 실제로 단죄하고 거절한 장본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사제들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라고 숨김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를 그분을 단죄하는 구실로 삼았다. 비록 악이 주님의 주장이 신성한 권위임을 인식하더라도, 그 주장이 신성한 권위이므로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헤로데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이기적인 삶을 통치하는 거짓 원리를 상징한다. 그는 예수를 만나길 원했고 기적을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님께 했지만, 그분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주지 않으셨다. 설령 악인 속에 든 합리성이 호기심으로 인하여 주님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려고

할지라도, 그곳에 어떤 영적인 계발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서, 바깥 삶을 통치하는 세상욕을 상징한다. 이 세상욕은 주님의 주장이 신성인 것과 죄목에 해당될만한 것이 그분께 전혀 없음을 인정했으나, 그것은 악한 의지의 판단에 기꺼이 손뼉을 치는 일당인 것이다. 그래도 그는 주님을 심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찢었다.

십자가의 수난은 입으신 인성을 통해 주님을 공격해 오는 악의 권세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분은 이 시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유한한 인성의 모든 것을 벗어나셔서 입으신 인성과 그분의 본질인 신성이 하나를 이루도록 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만나시고 극복하신 모든 과정과 그분의 삶을 통해 진행되어 온 영화의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의 지진은 당시에 존재한 교회 상태의 완전한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계시록 설명 400). 주님께서 숨을 거둘 당시의 암흑이란 당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간 속에 있는 거짓들을 표현한다. 군인들이 주님의 겹옷을 나눠 가짐이란 성경을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말씀의 글자를 사사로이 나눠 갖음을 표현한다. 통으로 짠 속옷을 제비뽑아 차지함이란 말씀의 내적 의미는 상하게 할 수 없음을 표현한다. 주님의 십자가 양쪽에 달린 두 강도란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인정함으로 구원되는 이들과 그분을 거절하는 이들을 상징한다.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짐이란 “모든 가상들을 홀으러 버리심으로 신성 자체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음을 표현한다. 이와 더불어 그분께서 신성 자체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기도 하다(천국의 신비 2576-5).”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 천국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천사의 형체로 나타나셔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 그분의 신성한 인간 안에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실 수 있게 되셨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개자이신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는 여전히 그분께서 보여주시지 못한 시험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는 시험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필요성 속에서 신성한 권능에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의 기초가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복음서는 주님 스스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명백하게 일러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제자들을 의심과 낙망 속에 처하도록 했음을 간증한다.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은 그것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이 헛소리라고 간주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의해서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복음서의 증거는 사도들이 부활을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물질주의적 비평가들의 주장과는 반대된다. 사도들은 부활 후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소수의 집단이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지식이나 지능 면에서도 대단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세계로 뛰쳐나가 갖은 박해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건설된 기독교는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은 복음이 갖는 권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부활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었을까? 주님의 부활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셨다는 것과 그분의 모든 약속이나 말들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들의 스승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그분이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사랑해 주는 친구며 자상하신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인간들이 그들에게 가하는 어떤 것도 그들의 영원한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확신 속에서 강건함을 얻어 전진해 갔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주는 힘 속에서 기독교회가 건설되며 성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확신에 부활을 빼두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단지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되어 기독교의 복음은 아무런 권능이 없는 단순한 시민적이고 도덕적 생활에 관한 교훈들로 급락될 것이며, 미래는 물론 현재에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부활주일 아침에 기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음을 통과하셔서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두셨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18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 목숨을 바칠 권리가 있고 다시 얻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보여주셨으나,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사항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조롱하던 자들도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라고 말했던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그분을 조롱했던 자들과 같이 그분의 죽음을 인정했고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렸다. 주님께서 어떠한 외적인 도움 없이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유한한

존재 속에도 없는 것, 즉 그분만이 생명이심을 모두에게 입증해 주셨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에서 주님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의 차이점을 명시해 주고 있다(천국의 신비 35, 108, 1729, 2083, 5078등 참조). 하느님만이 그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하느님의 사랑과 지혜 4-6).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신 주님의 본질을 확신 받은 토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라고 고백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라는 확신은 그분의 모든 말씀과 약속에 신성한 권위를 즉시 부여해 준다.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비록 그분이 선하고 위대하셨다할지라도 그분의 가르침에는 신성한 권위가 없는 것이다. 우리 역시 사도들처럼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면 만사가 형통되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든지 간에 의를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면류관이 될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저 세상에 대한 믿음을 물질주의에서의 탈출이라고 빈정대거나 삶의 불공평함과 고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며,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또한 분명하다. 즉,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살아날 것이다.”란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면류관으로서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부활은 이보다 더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부활은 주님께서 이 천년 전 지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으시고 수십 년간 사셨다는 것과 신성한 인성으로 우리 사이에서 여전히 살고 계시면서 과거 사도들이 알고 따랐던 그분과 똑같이 강하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입증한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다시는 그분을 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과 항상 현존하심을 믿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면 곳에 떨어져 존재하시는 분 혹은 어떤 비인격적인 분으로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인간으로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는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즉시 도울 채비를 갖추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묵상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자.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8:19-20).” “내가 시대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복음 마지막장 끝 절).”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400-14항: “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와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 냈을 때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마태복음 27:51, 28:1-2). 지진들은 교회의 상태가 바뀌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사장에서와 십자가상에서 견디신 그분의 마지막 시험을 통해 지옥을 정복하셨고 지옥과 천국의 모든 것을 질서 안에 놓으셨으며, 그분의 인성을 영화 하셨다. 즉,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진이 있었고 바위가 갈라진 것이다.’ ‘바로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신성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휘장 안쪽에는 궤가 놓여 있었고, 그 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 있었다. 이 ‘증거판’은 신성한 인간 측면에서의 주님을 의미한다. ‘휘장’이란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있었던 교회의 외적인 것을 의미하고, 유대인들 자신의 빛에 의해서는 말씀 또는 주님이나 신성한 진리를 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림을 의미하고 있다.”

「천국의 신비」 제 4748-2항: “고대인들이 몰약이나 향을 거룩한 예식에 사용한 이유는 냄새가 지각에 상응했기 때문이다. 향긋한 냄새와 여러 종류의 향료(양념)들은 인간의 지각을 쾌적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즉 선으로부터의 진리에 속한 것 혹은 이타애로부터의 믿음에 속한 것과 상응된다. 저 세상 삶 속에서 주님에 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될 때마다 지각 자체는 냄새로 변화된다. 넓은 의미에서 여러 종류의 향료는 자연성 속에 든 내적 진리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것은 그 안에 든 선으로부터 존재한다. 그 이유는 진리가 스스로 자연성을 만들지 못하고 선이 진리를 수단으로 그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자연의 다양함은 선과 결합되는 진리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그 이유는 선은 진리로부터 선의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께서는 예리고를 지나시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셨는가?
- 2) 자캐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 3) 왜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서 자캐오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반대했는가?
- 4)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 5) 이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 6)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 7) 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 8) 군중은 그분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종려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 10) 주님께서 성에 들어가신 후 무엇을 하셨는가?
- 11) 주님께서 성주간동안 어디서 묵으셨는가?
- 12)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가?
- 13) 그분이 새로 제정한 기구는 무엇인가?
- 14)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15) 주님께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 16) 어느 요일에 십자가형이 거행되었는가?
- 17)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모셔졌는가?
- 18) 누가 일요일 아침 무덤에 왔는가?
- 19)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20)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21)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22)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는가?
- 23) 사도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24)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 25)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질문의 답

- 1) 자캐오 2) 누가복음 19장 참조 3) 그가 미움 받는 세관원이어서 4) 금화의 비유 5)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라 6) 나귀 7) 왕이나 판관이 나귀를 탔기 때문 8) 왕으로서 9)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았기 때문 10) 성전을 깨끗케 하심 11) 베다니아 12) 과일절 음식을 드심 13) 성만찬 14) 가리옷 유다 15) 십자가형 16) 금요일 17) 새 돌무덤에 18) 여인들 19) 향료 20)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졌다 21) 그분은 일어나셨다 22) 그분이 삼일만에 일어나신다고 한 말씀 23) 믿지 않았다 24)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다 25) 주님께서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37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머리말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과 부활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본과를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누가복음 24:13-53

24장: 13. 바로 그 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14. 이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가서 나란히 걸어 가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퐁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리고 클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9. 예수께서 “무슨 일이나?”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यो.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헌에게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는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22.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 가보았더니 23.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고 알려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24.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26.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7.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28. 그들이 찾아 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29.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가십시오”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 가셨다. 30.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32.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 졌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33. 그들은 곧 그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다. 가 보았더니 거기에 열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34.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35.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6.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어 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40.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하시고 45.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46.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47.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 된다고 하였다.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9.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하고 말씀하셨다. 50.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야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51.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다. 52.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 53.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교리 요약

- * 새 예루살렘에 관한 천국의 교리가 모든 인류를 위해 말씀을 열어 보이도록 한다.
- *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다.
- * 말씀을 믿고 공부해야만이 천국적인 교리를 받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이 일어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보았다고 누가복음은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분을 따랐던 남자 제자들은 그들 속에 있는 빼앗긴 희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분을 즉시 볼 수 없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현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 모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아주 흡사하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주님에 관해 예언된 것을 알고 있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일어나는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어서 과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더디 믿는 자들”인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에게 두 가지 경이로운 것을 해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즉 말씀을 열어 주셨던 것이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끌어내어 주장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말씀이 열려야 한다고 하신 본문의 가르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이 주님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의 역사나 다른 외적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등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글자적인 의미 안에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것을 결코 알지 못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성서의 글자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는 모순된 것으로 가득함을 부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서술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을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하며, 심지어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울은 성경이 갖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한 사람으로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문자는 죽이고, 성령은 생명을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비유를 공부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유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도 알고 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치시는 바는 구약성서가 그분 자신에 관한 깊은 의미를 가진 일종의 비유라는 것이다.

부활 후 그분의 나타나심과 부활 40일 후 베다니아에서 거행된 그분의 승천은 사도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가르쳐 주었다. 즉, 사도들이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그분께서 언제나 그들 가까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진정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밖으로 나가 기독교회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제 1반

부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고 승천에 관한 사항도 언급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말씀의 열림과 그분의 재림을 연관 지어 설명한다.

엠마오로 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그분이 그들의 시야에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경이로운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그들은 주님을 뵈고 말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유령이라고 받아들여 안절부절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 그들에게 증명해 주셨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주님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적 의미 곧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편에서 그분을 두고 하신 말씀을 보도록 말씀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때로부터 승천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어느 날 제자들과 베다니아 근처, 즉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이리하여 그들은 두 가지 사항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주님께서 과거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셨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주님을 뵈 수 없edah더라도 그분이 언제나 그들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장 끝 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인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 역시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염두하고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임마누엘 스웨덴북의 이해성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것들을 말씀 속에서 보고 그것을 받아쓰도록 하셔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섭리해 두셨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는 부활주일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 주님께서 일어나셨음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누구인가?
- * 사도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 본문의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 * 본문의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 * 엠마오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마을인가?
- * 이 두 제자는 무슨 대화를 나누며 길을 가고 있었는가?
- * 누가 다가와서 그들과 같이 걸었는가?
- * 왜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 * 이 제자들은 그분께 말할 때 무엇을 슬퍼하며 말했는가?
- * 그분은 그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가?
- *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제 2반

새교회에 있어서 본문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본문의 두 제자들은 사도는 아니었는데, 주님의 추종자로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얼마 전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여인들의 간증을 들었으면서도 매우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인들의 증거를 진실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이 그분께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고, 그분의 부활이 그들이 예상했어야 할 것임도 보여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그들에게 얼마만이라도 보여 주셔야만 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6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에 다리를 무렵에서야 비로소 믿을 준비를 갖추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음식을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 그분을 알아보도록 해 주셨다. 본문의 이야기는 새교회인들을 위한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이유는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구약 성서 글자대로의 이야기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과 구약 성서에 그분에 관해 전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두 제자들의 이해성을 열어주셨고,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성서의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두 제자들은 단순한 자들이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시는 동안 그들의 심정은 뜨거워졌지만, 그 후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기억하거나 받아 쓸 수 없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의 깊은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즉 인간의 이해성이 당시의 사람들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후 다시 성경의 깊은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셨다. 이때에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전달자로 선택된 사람에게 그가 배운 것을 받아쓰도록 하셔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 이 사람이 바로 이마누엘 스웨덴북이다. 전 인류를 위해 말씀이 열려서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이 부활 후 40일 후에 있어졌음을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다른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우리는 부활주일에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가?
- * 주님의 부활을 맨 먼저 안 사람은 누구인가?
- * 여인들은 왜 무덤으로 갔는가?
- * 그들은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누가 주님께서 일어나셨다고 여인들에게 말해주었는가?
- * 사도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자마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 * 주님께서는 언제 열 한 제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가?
- *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는가?
- * 베다니아에서의 마지막 사건은 무엇인가?

제 3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어야 함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말씀속의 내적 의미의 존재에 대한 성경 상의 증거를 강조한다.

여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도들에게 말했다고 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 더욱이 베드로는 스스로 무덤에 달려가 확인해 본 다음에도 그분의 부활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죽으면 만사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역시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여 계속 슬퍼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걷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까닭을 주님께 말했다고 할 때,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대신 예언자들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낙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다.

이후 주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성경 부분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성경에서 그분에 관해 언급된 사항들 중 일부를 설명해 주셨다. 그 설명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내적 의미임을 23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한 그들의 표현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뒷부분에서도 주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성서를 깨닫게 하심을 볼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이 주님으로부터 영감 된 말씀의 일부임을 살펴보았는데, 본문 44절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사실 고대 유대인들의 정경은 시편을 말씀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초대 기독교회 인들은 본문 또는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으로부터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편이

내적 의미를 가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후 많은 이들이 수세기 동안 성경의 내적 의미를 발견하거나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여전히 말씀의 내적 의미에 대한 지식을 적절히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적 의미를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원리들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요한복음 16:12). 말씀의 내적 의미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열어 주실 수 있는 수준까지 인간의 이해성이 발달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로 했던 것이다. 말씀을 여신다는 것은 곧 그분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림의 성취는 18세기 중반에 임마누엘 스웨덴북이 주님께 의해 선택되고 준비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어느 누구라도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받아쓰도록 하셔서 이뤄진 것이다.

사복음서는 주님의 부활 후 그분의 출현에 관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이 가장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만을 읽는다면 주님의 승천이 부활 후 며칠 안 되어 거행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애에 관한 모든 기사들 속에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있는 시간의 경과가 종종 명시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곳저곳에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14절에서 그의 복음서에서 보다 더 상세한 승천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승천이 있었던 장소가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라자로의 동네인 베다니아였음을 배우게 된다.

이밖에도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시고 만져 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등으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에게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을 때 육체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유용한 감각적 능력까지도 남기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 가지는 몸은 육신이 아닌 영체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입으신 “가장 외적인 것들”까지도 신성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이 세상과 더불어 언제나 직접적으로 접촉하실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의 몸이 마리아를 통해 받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마리아로부터 온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서 신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께서 육신으로 일어나셨더라면,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분을

알아보았을 것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라지고 나타나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혹은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하는 주님께 대한 최선의 길은 요한계시록 1장 12-16절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바대로 이다. 이 구절은 한 인격체로서 그분을 생각하게 해줌과 더불어 여느 유한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도 명백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본문을 다루면서 상응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교훈만 생각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주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두 제자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보도록 해 주셨다. **빵을 떼심이란 선을 수단으로 하여** 결합함을 상징한다. 사도들이 그분께 드린 음식은 구운 생선과 벌집이었는데, 구운 생선이란 사랑을 통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자연적인 지식들을 그리고 벌집이란 자연적인 기쁨을 상징한다. 스웨덴붉은이 구절에서의 구운 생선과 벌집이란 말씀의 글자와 그 글자가 주는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말씀의 글자와 그로부터 있게 되는 즐거움만이 주님께서 그분의 사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었다.

기본 상응 공부

빵을 떼심 = 선을 수단으로 결합함

구운 생선 = 사랑에 의해 유용하게 되는 자연적인 지식들

벌집 = 자연적인 기쁨들

구운 생선과 벌집 = 말씀의 글자와 그로부터 있게 되는 즐거움

제 4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목적과 부활의 본성 그리고 새교회인을 위한 본문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사복음서는 부활 후 주님의 출현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각 복음서의 마지막장에 있는 사건들을 차례로 읽고 목록을 작성하여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는 대목 역시 우리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때로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토마에게 손을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최소한 두 번 이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비록 수의는 남아 있었지만 무덤에 놓여 있었던 육체도 사라졌다. 이런 사항들과 더불어 본문에서 주님께서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의 일어나심은 우리가 죽어 일어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우리는 죽어서 육체를 남기게 될 때 자연계에서의 삶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감각이나 의식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스웨덴봄이 설명하는 바대로 영화 하신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지셨고 “궁극의 것들”까지 신성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와 늘 함께 살고 계시며, 더욱이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삶에까지도 함께 하시게 된 것이다.

본문에 기술된 두 번의 출현은 사도들이나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믿어야 하는 중요성과 성경의 글자 안에 신성한 진리가 살아있다는 확증을 깊이 심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셨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해성이 열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후에 있게 되는 사도들의 전도여행에서 그 이해성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당시의 사도들이 가졌던 말씀의 내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스웨덴봄의 이해성을 통해 말씀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증과 함께 말씀의 내적인 이해에 대한 해석의 기본 원리를 출판하도록 하셔서 말씀의 깊은 속뜻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확증과 더불어 말씀의 속뜻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 해주신 이 경이로운 일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새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재림의 빛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의 두 제자들과 같이 “얼마나 심정이 뜨거워 짐을 느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사를 통해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씀해주셨다(이사야 5:4).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스웨덴봄의 저서들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열어주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에 의해 가르쳐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심을 볼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라고 하시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라고 나무라실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사도행전 1:3). 우리가

이분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며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모든 선함과 진리가 그분에게서만 흘러나옴을 알고 믿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과거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분부는 우리가 말씀과 교리를 충실히 공부해서 그 말씀이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하여 참된 말씀이란 글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적인 의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게 될 때 까지 계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달받은 상대방을 계발해 주고 구원함이 자신이 명석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섭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5반

부활 후의 주님의 몸과 성경을 여심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가르침을 중심 과제로 삼아본다. 이 임무와 성령에 대한 약속은 사도들을 위해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되었다. 이 약속과 임무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은 새교회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각자를 위한 의미를 신중히 고려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사실 부활 후 주님의 몸에 관한 특성에 관하여 기독교회 내에서 상당히 많은 견해차가 있어왔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수의만 남겨진 채 주님의 육체는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분과 대화하면서 걸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빵을 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았는데, 그러자마자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런 후 그분은 갑자기 사도들 가운데 서 계셨다. 따라서 부활 후 나타나신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것인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육체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사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몸 그 이상의 어떤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하고 반문하시며,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드시기도 했다. 스웨덴북

은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화하심을 통해 그분의 가장 바깥의 것들까지도 신성으로 만드셨으므로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곧 신성화된 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성한 몸은 무한한 것이며, 물질적 몸은 유한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 머리로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믿는 바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현존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분이 성경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심정은 뜨거워졌고, 그 후 그분이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머무르셨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진리를 간직하고자 하는 바램을 의미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진리를 삶에 응용하고자 하는 바램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함은 믿음 속의 선과 진리가 가르쳐짐과 이를 수단으로 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새교회는 본문의 이야기나 그 밖의 모든 말씀에 내적 의미가 있음이 주님 스스로 증거 하신 사건들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 성서의 모든 말씀 또한 그분에 관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는다. 주님께서는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본문에서도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셨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께서 직접 성경의 의미들을 풀어 주시는 것을 들었음을 그들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특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특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즐기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 놓으셨으므로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는 타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주님의 부활 후의 출현에 대한 기록이 있다. 부활과 승천 사이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은 이전보다 더 내면에 속한 것으로, 선교를 위해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밖에 있는 한 장소로 인도하신 후 거기서 그들과 헤어져 하늘로 올라 가셨다. 그분의 제자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현존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르렀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들의 믿음이 가시적인 그분의 현존에 의존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더불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첨가하고 있다(요한복음 20:30-31)

스웨덴봄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 이해성 속에서 승천하셔야만 한다. 즉, 그분의 지상 생활은 오래 전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분의 유아기, 어린 시절, 기적들 또는 십자가에서의 고통 등에 대한 생각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도록 해 주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의 내적 의미는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만 할 주님에 대한 우리 이해의 단계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주님에 대한 우리 이해는 그분의 삶의 자연적인 부분 위로 올라가야만 하고, 영화 하신 인성이 이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첫 장에서 상응적인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하신 주님의 인성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친구요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이시다. 이사야가 말한 바대로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인 것이다(이사야 9:6). 성경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달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생각, 즉 기독교인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 받으셨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분을 동정하는 태도로 신앙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한 마지막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하고 그들에게 분부되었다. 예루살렘이란 교리를 표현한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교리를 통해 우리의 이해성에 올 때까지 교리를 공부하며 실습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언제나 신성한 지혜와 함께 수행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상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사상들로 뭔가를 해보려하거나 말씀 또는 스웨덴봄의 저서로부터의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어떤 문단을 발췌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믿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의 힘 속에서” 전진될 수도 있지만 이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새 시대에서는 스웨덴북의 저서의 도움을 받아 열리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말씀의 일부를 바꿔 보려하거나 어떤 성경 단원의 가치를 저하시켜 자신이 의도하려는 바에 들어맞도록 하려고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시도가 자신의 충명을 드러내어 즐기려 하는데서 비롯되어 결국에 진리를 왜곡시키려는데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있었던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기독교인의 제자 된 도리의 면류관은 주님의 진리를 타인에게 가져다주는 능력과 타인에게 주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배운 그분에 관한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능력에서 있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 자아를 한쪽에 내려놓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은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제 5620-14항: “부활 후 제자들과 잡수신 ‘구운 생선과 벌집’은 말씀의 외적 의미를 뜻한다(‘물고기’는 말씀의 진리적 측면에 관한 것이고, ‘벌집’은 말씀의 진리가 주는 기쁨에 관한 것이다). 이 음식은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제자들이 생선과 벌집을 갖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음식도 섭리속의 한 부분이다. 이 음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즉 미미한 글자에까지도 그분의 섭리가 닿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이 말씀 속에 적혀 있다고 하셨다. 더욱이 구약성서의 글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주님에 관해 기록된 사항이 극히 적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첫 부활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2) 주님의 부활을 처음 배운 이는 누구였는가?
- 3)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가?
- 5) 누가 그들에게 와서 함께 걸었는가?
- 6) 왜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 7)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주님께 말했다고 할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9) 그들과 주님이 함께 식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주님께서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11) 이 사건을 사도들에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이때 사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3)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확증시켜 주셨는가?
- 14) 그분은 무엇을 잡수셨는가?
- 15) 그 다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 16)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7)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18) 승천은 어디서 거행되었는가?
- 19)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헤어지셨는가?
- 20) “빵을 떼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던 말씀속의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22) 주님의 부활후의 몸은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입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음
- 2) 여인들
- 3) 헛소리로
- 4)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 5) 예수님
- 6) 그들 눈이 가리워져서
- 7) 본문 25절
- 8) 성경에 있는 그분 자신에 관한 것
- 9)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자 그분은 사라지셨다
- 10) 심정이 뜨거워졌다
- 11)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 12)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함
- 13)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도 드심
- 14) 생선과 꿀
- 15) 성경의 내적 의미
- 16) 능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 17)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 18) 하늘로 올라가심
- 19) 베다니야
- 20) 사랑을 나눔
- 21) 천국의 교리
- 22) 영화 되신 신성한 본체

38

네 기수들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계시록 1-5장까지의 간략한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네 생물과 봉인된 책 그리고 어린 양을 공부의 중심으로 삼는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6장

6장: 1. 나는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뢰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 그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 썼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3.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5.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한 가운데서 들려 오는 듯했습니다. 7.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나오너라”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8.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을 지배하는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9.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아래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1.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12.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티털로 짙은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피빛으로 변하였습니다. 13. 그리고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5. 그러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좌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 다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 다오.

17.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교리 요점

- * 말씀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관계가 있다.
- * 예언적 말씀의 결과들은 사람의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 교리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A.D. 90년경, 계시록이 쓰인 이래 기독교는 이 책을 해석하느라 매우 분주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신약 성서의 예언적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의 예언적 부분들과 닮지 않아서 1-3장까지를 제외하면 요한 자신의 시대적인 사건과 연계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야말로 장차 올 일들을 예언하고 있음이 명확한 것이다.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중의 하나가 요한의 환상 중의 어느 부분과 각종 역사적인

사건들 곧 전쟁이나 싸움과 연관 지어 보려는 것이었고,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본문에 있는 네 기수들에 관한 내용은 인간의 상상력에 특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의 자료가 되기도 했었다.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해 두어야 할 사항은 성경이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어떤 세상적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예언들이 아닌 어떤 특별한 상황 하에 있게 되는 우리의 영혼들에 발생하게 되는 것들에 관한 묘사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눈을 열어 성경 안에 있는 그분에 관한 이모저모를 이해하도록 해 주셨음을 상기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봉인들이란 주님께서 성경 안에 들어 있는 내적인 내용들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실 때까지 붙여두신 것을 말한다. 주님의 법도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이에 대해서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런저런 생각이 잘못임을 뻔히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이는 피할 수 없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훈이 바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되도록 하신 것들 중 하나이다.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이해성의 상태에 따라서 각 개인은 천차만별로 영향을 받게 된다. 네 마리의 말과 네 기수들이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의 영혼이 천차만별로 진리를 받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첫째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진리를 환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진리의 도움으로 자신속의 결점을 찾아 고쳐보려고 하는데 진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진리를 영접하는 이들이 흰말로 상징되고 있다. 둘째로, 어떤 이들은 말씀속의 진리를 발견하되 자신에게는 그것을 전혀 응용하지 않고 타인들을 질책하는 수단으로써 그것을 즐겨 사용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붉은말로 상징되고 있다. 셋째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관해 성경으로부터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성경의 곳곳에서 여러 구절을 들춰내서 각 구절의 글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논쟁하며 자신들이 들추어 올린 구절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밝힌 것처럼 떠벌린다. 이런 식의 태도가 검은 말로 상징되고 있다. 넷째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들을 위해 성경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여겨 성경을 통째로 거절해 버린다. 이런 경우 주님은 그들의 영혼에 전혀 다가갈 수 없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마음이 푸르스름한 말로 상징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가 그곳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살아갈 때에 더 깊고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 또는 자아의 중심원리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세계로 가게 될 때 심판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제 1반

사도 요한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고, 네 마리 말들의 색깔을 기억하도록 한다.

주님께서 열두 명의 사도들을 뽑으셨다. 첫 네 사도는 두 쌍의 형제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들 모두는 어부 출신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그분을 따르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이들 네 명중 요한이 바로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다. 그는 열 두 사도 중 제일 어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주님께 “사랑 받는 제자”라고도 불린다. 그는 변모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 중에 속해 있었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 그분의 생애에 관한 전말을 받아쓰도록 선택된 네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다른 세 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이다.

그들 중에서 요한은 나이가 들었을 때 또 하나의 거대한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다. 사실 그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업무를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며 그분에 관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 전했다. 그래서 그곳에 일곱 개의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은 요한을 그들의 지도자로 여겼다. 그러나 소아시아에는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자들도 있었다. 과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인 주님을 미워했던 때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요한을 죽음에 처하도록 하지는 않고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그를 분리해 놓기 위해서 파트모스라고는 섬에 유배시켰다.

요한은 그에게 계시가 주어질 당시 상당히 나이가 많았다. 그는 소아시아에 설립된 일곱 교회의 지도자였으나 적들에 의해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다. 계시록의 첫 장은 주님께서 어떻게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과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변모되어 보여 주신 모습보다 더 빛나고 경이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과거에 자신이 사랑했었던 그분임을 인식했다. 첫째로 주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주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스물 네 명의 장로들이 둘러앉은 큰 옥좌에 관한 환상과 네 짐승에 대한 환상도 그에게 주셨다. 이 네 생물들은 거룩들인데, 각각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 그리고 날고 있는 독수리 같았다. 또한 요한은 옥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봉인을 가진 책을 보았는데, 그 봉인은 주님만이 떼실 수 있었다. 이 책이 바로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주님에 의해 봉인들이 떼어지는 광경을 공부하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다음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제 2반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를 다시 살펴보고, 네 마리의 말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누가복음 뒤에 이어지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복음서 안에서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 사랑 받는 제자”라고 불리며, 그의 사도로서의 업적과 그의 후기 생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산 곳이 에페소였으며 소아시아에 건립된 일곱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이다. 신약성서 지도에서 일곱 교회가 위치했던 도시들을 찾아보도록 하자.

과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대사제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했듯이, 이후에도 기독교인이 살았던 지방에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진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는데, 유배될 당시 그의 나이는 약 구십 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자신이 유배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주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이 섬에서였다(계시록 1:12-16). 그리고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받아쓰라고도 말해졌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서는 일곱 교회를 위한 메시지와 길고도 경이로운

환상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 환상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장차 기독교인의 영혼들에 발생하게 될 것에 관한 예언이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바로 요한이 이렇게 받아 쓴 책이다. 계시록의 첫 장은 일어나셔서 영화 하신 주님에 관한 환상이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편지의 내용은 각 교회가 서로 달라서 각기 좋은 점과 주님께서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신 나쁜 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각 교회에게 경고해 주시며, 그들이 회개하여 신실해지면 받게 될 특별한 약속도 해주셨다. 우리는 제 4장에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큰 옥좌와 그 둘레에 배석한 스물 네 명의 장로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다. 네 짐승(생물) 또는 거룩들 중 첫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는 송아지 같았으며, 셋째는 사람 같았고 넷째는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 뒤따른다. 이 두루마리는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다.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또는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신 분이셨다. 이 두루마리는 곧 말씀이었고, 어린 양은 곧 주님이셨다.

본문에서 우리는 책의 봉인이 떼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다. 요한은 첫 봉인에서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까지 그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요한이 보게 되는 네 마리 말들에 관한 면모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계시록이 쓰인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하는 바를 궁금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스웨덴볼을 통하여 네 마리 말들이 상징하는 바를 밝혀 주셨으므로 이 기이한 환상에 담긴 의미의 일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마리의 말들이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각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과 그렇게 이해한 정도에 따라 그들의 삶과 세상에 미치게 될 결과를 상징하고 있다. 흰말이란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상징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계시록 19장 11-13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열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워졌었는지를 재고해 보자. 다섯째 봉인이 떼어짐이란 말씀속의 진정한 의미가 선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말씀이 열릴 때 그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여섯째 봉인이 떼어짐에서는 자신의 악한 길만을 고집 하느라고 주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와 동일한 계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이 기수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 * 무기 외에 어떤 것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 * 그는 무엇을 하려고 나아갔는가?
- * 둘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그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는가?
- * 셋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이 기수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달았는가?
- * 그는 무엇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는가?
- *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이 기수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 * 어떤 권한이 이 기수에게 주어졌는가?

제 3반

네 마리의 말과 네 기수들로 그려지는 봉인이 떼어지는 모습의 상응을 주로 다룬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 5반까지 읽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은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인에게 발달되게 되는 내적인 심정 상태를 상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환상들로 가득한 책이다. 이 환상을 받아 쓴 사도 요한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노령에 소아시아 해안에서 떨어진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물론 요한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사도들 사이에 속해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성을 열어 주시는 틈에도 속해 있었다. 파트모스 섬에서 있게 된 그의 환상들은 과거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으로 밝혀 주셨듯이 말씀속의 진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 깊은 악들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주는가와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여 자신속의 악과 싸우고 또 다른 이들은 진리를 부정하거

나 자신속의 악을 계속 옹호할 수 있도록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있어진 것이다.

첫째로 요한은 일곱 등경 사이에 서 계시는 주님께 관한 경이로운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담당해 왔던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관한 편지가 주어졌다. 그런 다음 그는 심판의 큰 옥좌와 스물 네 명의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들과 일곱 인이 찍혀 봉해진 두루마리, 즉 어린 양만이 펼 수 있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봉해진 두루마리의 봉인이 떼어지는 환상으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한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어진 책이다. 우리가 성경 속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계와 저 세계 모두에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이야 말로 진리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더욱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항상 원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타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할수록 진리는 우리속의 이기심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을 환히 보게 해주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악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봉인이 떼어짐이란 우리 안에서 더 큰 악들이 밝히 드러나지는 모습을 상징한다. 첫째로부터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요한은 기수를 태운 말들을 보았다. 말쌈 속에서 말이란 총명 또는 우리의 보다 높은 추론력을 상징한다. 우리가 가진 추론력은 우리 속에서 가장 유용한 자질 중 하나이다. 좋은 측면에서의 추론력은 상당히 유용하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것을 정반대의 측면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악에 속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위해 추론력을 오용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는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을 때조차 종종 저지르게 된다. 각기 다른 말들이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사용함을 상징하고 있다.

흰말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로 살고자 하는 바람으로 인해 성경속의 진리를 이해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러한 바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계발시켜 주신다. 그래서 흰말의 기수는 싸우기 위해 활이란 무기를 가졌고, 시험에 분명히 승리한다는 월계관을 쓰고 있던 것이다. 흰말의 기수는 정복에 정복을 더해 갔다. 붉은말이란 성경을 거짓되게 이해하는 자들로서, 자신속의 결점을 변명하거나 타인들을 저주하는데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런 식의 이해성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된다. 검은 말은 흰말과는 정반대의 경우이다. 따라서 검은 말은 성경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상징한다. 그 이유는 성경을 하느님의 계시로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바, 검은 말이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 글자의 어느 일부를 끄집어내어 마치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듯 소란을 피운다. 즉, 과거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일부의 규정들을 지키며 자신들이 꽤 경건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와 선함에 관해서는 눈썹 하나도 까닥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 23-2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넷째 봉인이 떼어짐에서 “푸르스름한” 말이 튀어나왔다. 이 말은 진리를 행할 마음도 없고 진리를 이해해 보려는 의지도 없는 마음과 이해성의 양쪽 모두를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앞서 공부했던 큰잔치의 비유에서 장가들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한 사람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여지가 그들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이해성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기수는 죽음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뒤돌아서면 우리의 영혼에는 전혀 생명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다.” 다섯째 봉인이 떼어짐은 구원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봉인의 떼어짐은 구원될 수 없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숨겨지기만을 원했다.

마태복음 23장 23-24절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혀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십분의 일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과,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구절을 되새기면서 본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기본 상응 공부

흰 말 =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

붉은말 = 선해지고자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상태
검은 말 = 진리가 없는 말씀의 이해
푸르스름한 말 = 선과 진리의 양 측면을 파괴하는 성경의 이해

제 4반

본문의 일반적인 의미와 뒤의 인용문으로 본 반을 진행하도록 한다.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 위치한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때인 그의 생애 말기쯤에 주어진 긴 환상에 관한 기록이다. 이 책은 신약성서에 있는 예언서로서, 장차 있게 될 기독교회의 역사와 그 위에 있어질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롭게 이어질 새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계시록은 일곱 등경 사이에서 서 계시는 주님에 대한 요한의 환상과 더불어 요한이 감독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편지들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기 위해 이 편지들을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이 환상이 주어진 때인 A.D. 90년경에 기독교 모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달되면서 최초로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과 열정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일곱 교회 각각은 각기 좋은 면과 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주님께서서는 각 교회에 서로 다른 경고와 충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물을 놓고도 똑같이 보지 않는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알맞게 그분의 말씀속의 진리를 주시며, 우리는 삶에 적용하고 싶은 정도만큼만 믿고자 한다. 따라서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선택에 따른 삶을 이루도록 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계신다. 여기서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그 이유는 이 선택이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세상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계시록 제 4장에서는 심판의 상징인 큰 옥좌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일곱 인이 찍힌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즉 어린양이신 주님만이 여실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5장을 공부하면서 참고하게 되는 것은 계시록 20장 11-12절인데, 심판이란 두 책의 비교 대조 곧 “생명의 책”과 우리의 삶에 의해 쓰인 책과의 대조인 것이다. 이 대조에서 좋고 나쁜 것의 차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를 진실로 원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으로 자신을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곱 인이 떼어짐이란 성경이 진실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도록 우리의 이해성을 여는 것을 묘사한다. 각 봉인이 떼어짐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갖는 여러 가지 태도를 판가름해주는 것이다. 네 마리의 말이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네 가지 방법(태도)들을 상징한다. 흰말이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 혹은 그분께 순종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서를 읽을 때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말씀의 진정한 이해를 상징한다. 흰 말 위의 기수만이 시험을 정복할 수 있다. 흰말은 계시록 19장 11-13절에서 다시 등장하고, 그 기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붉은말이란 말씀에 순종하려는 바램없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자신속의 과오를 찾아내어 고쳐보고자 하는 진리를 응용하길 원치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총명을 타인과 자신을 상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만다. 그 이유는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진리는 거짓화 되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검은 말이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흥미조차 없는 자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검은 말의 기수는 저울을 들고 모든 것을 달아보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아주 조금만 지불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가짐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글자에 정성을 쏟고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것이다.

푸르스름한 말이란 말씀속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르게 살아보려는 바램을 모두 상실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들은 주님께로 접근하려는 길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을 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와 여섯째 봉인이 떼어짐이란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심판 속에서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한 자들은 겸손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한다. 악한 자는 주님의 얼굴로부터 스스로를 감추려고 애쓴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마지못해 서의를 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타인의 눈에 비춰져 그 행위의 진위가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참작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본문의 환상이 가지는 세부사항은 보다 더 특별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스웨덴봉의 저서 「계시록 설명」을 참고하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뒤의 참고문헌은 예증으로 인용된

일부이기도 하다.

제 5반

네 기수의 의미를 상응의 빛으로 밝혀 본다.

“계시록의 네 기수들”은 수세기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의 상상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 중 하나다. 네 기수들은 단계적인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써 언제나 인식되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인간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예증하려는 시도가 아주 많았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네 기수들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재림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의 내적 상태와 더불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을 인지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봉인이 때어짐에 따라 있어지는 심판이 말씀의 내적 의미가 열림으로 가능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계시록 풀이」에서 본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장차 마지막 심판을 맞이할 이들에 대한 탐사가 취급된다. 즉, 각자가 지녀온 말씀의 진정한 이해가 발견되고, 그에 따른 그들의 삶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제 1-2절은 선에 의거하여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며, 제 3-4절은 선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제 5-6절은 진리를 경멸한 자들이며, 제 7-8절은 선과 진리 양 측면이 황폐해져 있는 자들이다.”

스웨덴북의 설명에 언급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천국에 살게 될 이들이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받아 그들 악에 대항하는 싸움에 그 진리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19장 11-1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두 번째 사람들은 진리는 이해했으나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바램은 없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흥미가 없어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선하게 보였으면 하고 바라는 이들로써, 바리사이파인들처럼 율법의 글자를 열심히 추켜들고 왈가왈부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여 자아사랑과 거짓으로 삶이 짝 차버린 자들이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타입은 한결같이 파괴적이어서 그 파괴하는 모습은 각 말 위에 탄 기수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흰 말 위에 탄 기수는 손에 활을 들고 있었다. 활이란 교리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말씀은 교리 없이 이해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교리는 말씀의 글자에서 이뤄져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굳이 영적 의미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귀결 짓기도 한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하여 기독교 이전의 이스라엘 교회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글자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말씀의 글자 중에서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스웨덴북의 저서 「성경에 관한 교리」 제 91항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말씀이 교리 없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은 교리란 순수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등불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말씀은 전적으로 상응에 의해 쓰여 졌으며, 그 결과 말씀 안에 담긴 많은 의미들은 진리의 외관이지 진리 그 자체가 아님이 나에게 보여 졌다. 그리고 성서의 많은 것들이 자연을 납득하고, 사람의 감각적인 것에 속한 것들까지 채용되어 쓰여 졌음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속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진리를 옷 입히고 있는 진리의 외관을 보고 그것이 마치 진리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여 붙잡기도 한다.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타인보다 명석하여 진리를 본다고 착각하여 자신이 본 진리, 즉 꺾데기에 불과한 진리를 그들의 삶에 확증(응용)하게 되면,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명하다는 것은 사실 진리의 여부를 확증하기 전에 확실히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여기는 이들이 진리를 확증하는 이유는 스스로 천부적인 재주가 있다고 착각함으로부터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서의 단순한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화되어 진리를 삶에 사용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에 의해 계발되고, 진리의 빛으로 진리를 보게 된다. 이리하여 타인들도 그들에 의해 계발되지만, 거짓은 거짓의 빛으로만 보인다.”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올 수는 없다. 우리는 말씀과 스웨덴북의 저서를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하며,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바램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예상했던 바대로의 견해를 찾지 못하는 때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흰 말 위의 기수는 월계관을 받아쓰고 있다. 월계관은 승리를 상징한다. 전투란 자신 속에서의 악과 거짓에 대한 것이다.

붉은말 위의 기수는 자신 속의 악을 고쳐보려고 하기는커녕 아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는 자들을 상징한다. 그의 칼이란 이기적인 편의를 위해 진리를 사용하는 바, 진리를 왜곡 시켜버림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는 이 큰 칼을 타인을 향해 휘두른다. 그래서 평화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즈가리야 1장 8-15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어둠이 무지를 상징한다는 정도의 상응은 알고 있다. 검은 말 위의 기수는 저울을 들고 있었다. 저울이란 “진리와 선을 평가함”을 의미한다. 그가 밀과 보리를 단 그 가치는 매우 적었다. 여기서의 밀과 보리란 외적인 선과 진리들을 표현한다. 이 기수에게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해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내적인 선과 진리들로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기수들로부터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7610항에서 이것과 이집트에 내려진 열 재앙 중 우박의 재앙을 비교하고 있다. 우박의 재앙에서 보리와 아미는 파괴되었으나, 밀과 쌀보리는 파괴되지 않았다. 푸르스름한 말을 탄 기수는 큰잔치의 비유(누가복음 14장)에서의 세 번째 사람이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라고 한 변명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상응에서 흥미 있는 사항 중 하나는 말들의 출현에 일치하여 언급되고 있는 네 생물(거룩)들에 관한 것이다. 이 생물들은 제 4장에서 기술된 순서에 따르면 사자와 송아지 그리고 사람과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다. 사자는 힘을 상징한다. 흰 말 위의 기수는 정복에 정복을 거듭해 가고 있었다. 송아지는 자연적 선함을 상징한다. 붉은말 위의 기수는 이 선함을 파괴할 수 있었다. 사람은 지적인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유로 검은 말 위의 기수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독수리는 영적인 지식을 상징하는데, 푸르스름한 말 위의 기수는 이러한 지식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다.

본문 후반부에서의 다섯째와 여섯째 봉인을 폐심이란 말씀이 열린 이후 수십 세기 동안 영계에 집합된 선한 자들 혹은 악한 자들 위에 있어질 기독교회의 결과들을 밝혀주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항구적인 기독교인의 천국은 주님의 재림이 거행될 때까지 형성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독교계에서 온 모든 선한 자들은 주님의 보호 하에서 “보다 낮은 지역”인 영계에서 보존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선한 자가 바로 본문에서의 “제단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영혼”들이다.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며 구원된 자들이라고 자부한 악한 자들은 “가상 천국”에 보존되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진 하늘”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숨으려 했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315-316항: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리는 것은 선과 진리가 너무 적어서 거의 없는 듯 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저울로 무게를 다는 것이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그것의 질(質)을 평가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314항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밀’과 ‘보리’란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한 데나리온이란 아주 작은 화폐단위로 아주 소량의 가치를 의미한다. ‘올리브기름이나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추어 놓인 거룩한 선과 진리들을 위반하거나 모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두셨음을 의미한다. ‘올리브기름’이란 사랑의 선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이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올리브기름’은 거룩한 선을 그리고 ‘포도주’는 거룩한 진리를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성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2) 이 책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 3) 요한이 본 첫 번째는 무엇인가?
- 4) 그분은 누구들을 위해 메시지를 주셨는가?
- 5) 심판의 큰 상징물은 무엇인가?
- 6) 누가 옥좌 둘레에 앉아 있었는가?
- 7) 누가 옥좌 위에 앉아 계셨는가?
- 8) 어떤 생물이 이 환상에서 나타났는가?
- 9) 옥좌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는가?
- 10) 이 책은 무엇인가?
- 11) 그 책에는 몇 개의 봉인이 있었는가?
- 12) 누가 그 봉인을 뿔 수 있었는가?
- 1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14) 둘째에서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을 보았는가?

- 15) 다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엇을 보았는가?
- 16)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17) 네 말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봉인이 떼어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계시록 2) 사도요한 3) 부활하신 주님 4) 일곱 교회
- 5) 옥좌 6) 24 장로들 7) 주님(어린 양) 8) 거룩들 9) 두루마리, 책
- 10) 말씀 11) 일곱 12) 주님(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어린 양) 13) 흰말
- 14) 붉은, 검은, 푸르스름한 말 15)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 16) 지진 등등 17)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 18) 말씀의 내적 의미가 우리 이해성에 열림

39

일곱째 봉인

머리말

본문의 내용은 상응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든지도 모른다. 본문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대략적인 윤곽을 통해서 일반적인 의문 사항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8, 9장

8장: 1.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좌 앞에 있는 황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4.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 갔습니다. 5.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 그 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삼분의 일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모든 선박의 삼분의 일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횡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의 삼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13.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 있다!”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9장: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2.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 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3.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4.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6. 그 다섯 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8.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9.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찼고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1.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12.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두 가지 재난이 더 닥쳐 올 것입니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5.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6.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효가 이 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7.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 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향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8.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말았습니다. 19.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20.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21.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교리 요약

- * 우리의 참된 영적 상태는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진리를 대면할 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 *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신성한 진리이다.
- *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본문의 환상은 재난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글자 그대로의 물질적인 재난이 아니라 영적인 재난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 진지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며...”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시사되었음을 기억한다. 하늘로부터의 나팔소리는 신성한 진리의 선포를 상징한다. 그리고 선포의 결과는 신성한 진리에 무관심했다거나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자초된 영적인 황폐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내심이 선행 선택하지 않다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선한 제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타인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선호하며, 스스로를 상당히 잘난 존재로 인식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선함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다. 진정한 선 혹은 가식적인 선은 바깥쪽의 현상, 즉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구별해 내기가 아주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계로 들어갈 때 가식적인 모습은 모두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 그래서 저 세계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저 세계에서는 하느님을 경외함을 사랑하며 순수하게 겸손해지

기 위한 방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의 내적인 심정상태는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이기적인 포부, 자기 자랑,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갖게 되는 분노 그리고 타인들이 자신을 받들고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한다고 인식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요한의 환상에서 기이하고 격렬한 메뚜기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을 옹호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 추론들은 파괴적인 말과 그 위에 탄 기수들로 상징되고 있다.

이 밖에도 본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가끔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한 것 곧 주님께서 아주 선하며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도록 방치한 악들을 결국에 가서는 눈감아 주실 것이라 상상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서는 사랑 자체이셔서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종국에 가서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문자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환상은 찌그러지고 파괴적인 인격이 드러나더라도 우리 속의 악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주님께서서는 참으로 사랑이시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혜 자체이시기도 하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즉, 그분께서 생각하는 능력과 내적으로 되고 싶은 모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그분조차도 우리로부터 이러한 능력들을 거두어 가실 수 없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랑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부부사이, 부자지간 혹은 친구사이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우리는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관계에서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듯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것에 대한 사랑을 선택해 가는 우리의 시기 또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만드는 시기, 즉 한마디로 파종하는 시기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저 세계에서 심판은 단지 뿌려진 씨를 거둬들이는 수확의 시기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 1반

우리가 말씀이 주님이심을 명심하고 성경을 대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순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할 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망각하기도 한다. 본문의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경이로운 일들 중의 일부를 공부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요한의 영적인 눈앞에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러한 환상들의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듯이, 요한도 환상들을 보았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에게 이 환상을 받아 적으라고 말해졌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즐겁게 배우며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이해성에 있게 되는 것들을 묘사해 준다. 기독교회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그 교회속의 선한 이들도 더 많은 지식 곧 주님만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스웨덴북에게 보여주셨고, 그에게 그 내용을 받아쓰도록 명령하셨다.

우리는 본문의 계시록만 보더라도 요한의 환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제공하고 계신 경이로운 사랑과 진리 그리고 능력이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다양한 양상에 관한 묘사임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선하며 이타적인 사람들은 환상을 이해함으로써 행복해지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며 고통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고통까지 받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부모는 자녀가 나타내고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울 때 자녀에게 올바른지 것과 좋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애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위의 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된 느낌이나 생각들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 둘 수 있지만, 저 세계에서는 그것들을 덮어 둘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육체가 없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누구나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 반을 정리해 보자.

- *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에 관한 환상이 요한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 그는 환상 속에서 어떤 책을 보았는가?
- * 그 책에 찍힌 봉인은 몇 개였는가?
- * 누가 그 봉인을 떼었는가?
- *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다섯째와 여섯째의 봉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본문은 몇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광경에 관한 것인가?
- *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 무엇이 즉각 흐르고 있었는가?
- * 일곱 천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 다른 천사 하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 그 천사가 가진 것을 불로 채워 땅에 던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 별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 *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제 2반

본문 이전의 성경을 재고한 후 공부를 진행한다.

우리는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요한의 환상이 완성되는 것으로써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의 완성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진실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씀이 완전히 열려지게 됨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9장 39-41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것의 잘못됨을 느끼지도 못한 채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일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그 일들이 잘못된 것임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잘못될 것임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거나 용서하며 혹은 용서받는 형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갖으며 끝을 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 행하게 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 채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추려하거나 변명하려고 애쓴다. 그 이유는 자신의 본심을 남들이 알게 되면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혼한 습성 중의 하나는 남에게 칭찬받기를 즐기면서 자신이 상당히 잘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우둔했는가를 알도록 우리 안에 빛을 비추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쌓아 놓은 우리 속에 든 자신이 이름답다고 생각했던 속성은 파괴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 본성의 파괴가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진 것들이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자신의 선함과 지혜에서 나온 사상들에 관한 것임을 상기해 보면 본문 8장과 9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시록 제 7장에서는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 모든 선한 사람들이 장차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의 명령에 의해 인장이 찍혀지고 있다. 스웨덴북은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 있었던 침묵이란 지상의 교회 속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천사들이 보게 될 때 있게 되는 그들의 경악감이라고 설명한다.

말씀에서 나팔소리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선포되는 모습을 상징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직전 발생했던 일을 알 수 있다. 일곱 번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일곱 개의 봉인이 떼어지는 모습처럼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게 됨을 뜻한다. 주님께서 이러한 광경들을 마치 하나의 입체 영화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면할 수 없는 마음상태를 형성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해 보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인 것이다. 9장 마지막 두 구절을 특별히 주목하도록 하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이기적이며 악한 길로 완전히 빠져 있어서 재난이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걸어 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길을 바꾸고자 하는 결심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어렸을 때는 나쁜 습관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도 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타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함과 이기적이지 않은 것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보자.

- * 요한은 하느님 앞에 몇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 * 그 천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 * 그 외의 천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 그 천사가 불이 가득 담긴 향로를 땅에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제 8장과 9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나팔소리가 있었는가?

제 3반

계시록 8장과 9장의 일반적인 의미를 토대로 본 반을 진행한다. 특별히 심판의 의미는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 거행된 마지막 심판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본문의 공부 과정은 다음 공부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앞서 우리는 계시록의 책에 붙어 있던 봉인 중에서 여섯째 봉인까지 떼어짐에 대해서 공부했다. 제 7장에서는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도록 허락되기 전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로 인해 선한 영혼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인을 가지고 어떻게 봉해두시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제 7장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주 명백하고 단순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 즉, 타인이 우리의 의지까지 나쁘게 만들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속의 약함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실로 의를 행하고자 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행함이 가능해지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짐은 주님의 진리가 밝혀지는 마지막 순서이다. 앞서 우리는 첫 공부과정인 창조의 이야기들에서 여섯째까지의 날들이 지상에 있는 인류로부터 형성된 첫 교회의 발달이나 준비 또는 단계들을 표현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이러한 발달의 완성을 표현한다. 숫자 일곱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숫자는 거룩한 숫자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이 숫자가 안식일과 연결되며, 말씀 속에서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데 종종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여섯째 봉인까지 떼어진 후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잠깐의 쉬이 있게 된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진 다음 이어지는 두 장에서는 일곱 나팔 중 여섯째 나팔 소리에 따른 이야기가 전개 된다. 그리고 환상에 대한 새 장과 시리즈가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시작된다.

말씀 안에서 나팔이란 “신성한 진리가 하늘로부터 밝혀지고 명백하게 함”을 표현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재고해 보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의 나팔 소리는 시나이 산으로부터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예리고성 주위를 행군하되 켈을 맨 사제를 따르면서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으나,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돈 다음 사제가 나팔을 불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 또한 판관기 7장 16-22절에서의 판관 기드온은 부하 삼백 명에게 각기 뿔 나팔 하나와 횃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 자신이 나팔을 불면 모두 일제히 나팔을 불고 손에 든 단지를 깨도록

하여 적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도록 하여 쉽게 적을 정복했다.

본문에서는 각 나팔이 불릴 때마다 하나의 과멸이 뒤따르고 있다. 요한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 첫 기독교회에 거행된 심판에 대한 상징이다. 앞서 우리는 지상에 태초 이래로 계승되어온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수차례 살펴보았다. 그들을 순서대로 보자면,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이다. 각 교회는 각각 주님께에서 오는 진리의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서 선한 자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했으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거짓으로 변하거나 거절되기도 했다. 심지어 각 교회 안에서 악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들 일부라도 구하시기 위해 악의 범람에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이전 교회에서 남겨진 일부의 선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새로운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이 세상에 오심이 첫 기독교회의 시작이었으나 그 교회 역시 예전 교회들의 전례를 따르게 될 것임과 지상에 마지막 기독교회가 건설되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두 장에 걸쳐 거행된 본문의 과멸은 악과 거짓이 어떻게 첫 번째 기독교회의 사람들의 영혼에 있는 선함과 진리를 점진적으로 파괴시키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첫 번째 기독교회인들 대부분은 교회에 속해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속의 진정한 생각과 느낌을 감출 수 있지만 저 세상으로 갈 때는 육체와 더불어 우리 속을 감출 수 있는 껍데기를 남겨 둔 채 우리 속에 든 것만을 가질 수 있음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은 우리가 자신에 관련된 진리에 대면하게 될 때인 저 세상에서의 영적인 심정상태 곧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본문은 지면관계상 상세히 다룰 수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스웨덴북의 「계시록 풀이」 또는 「계시록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네 번째까지의 과멸이 땅과 바다와 강과 샘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와 달과 별에 거행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땅은 우리의 삶 중에서 선함에 관련된 것을 그리고 바다는 우리의 기억 안에 모여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강과 샘물은 주님으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오는 진리를 상징한다. 해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달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리고 별은 주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상징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각 경우에 있어서 삼분의 일이 파괴되어졌다고 말해진다. 삼분의 일에서의 숫자 3은 우리속의 세 평면인 의지와 생각 그리고 행동에 관련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소리란 교회 속에 있는 악들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랑과 진리와 선함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제 9장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소리로 시작되며, 지옥이 열려서 지옥속의 사람들의 질과 그들이 저지르는 각종 해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나팔로 노출되는 이들은 교회속의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스스로가 학식 있고 슬기로운 자라고 자부하며,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리고 스웨덴북은 여섯 번째 나팔로 노출된 이들이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타인보다 슬기롭다고 자처하지는 않았으나 주님을 믿노라고 이미 고백한 신자들이므로 설사 자신이 좋아하는 데로 살더라도 생활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결국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밝혀준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알고 본문을 읽는다면, “과연 누가 이처럼 격렬한 재난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면 인간이 몸으로 저지르는 악행은 처벌을 수단으로 억제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처벌 때문에 신호등을 억지로 지키는 것처럼 악한 행위 역시 그렇게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있게 되는 것 곧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욕망은 처벌이라는 것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악을 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 선택된다는 것이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이다.

기본 상응 공부

나팔 = 신성한 진리가 하늘로부터 밝혀져 명백해짐

제 4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다.

앞서 우리는 네 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네 말과 네 기수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모습을 상징한다고 배웠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봉인의 떼어짐이란 신성한 진리를 바라는 측면에서 있게 되는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의 대체적인 상태임도 살펴보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구에 심판이 있게 될 것임과 그 심판의 때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글자대로 성취되는 때라는 것 그리고 그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며 선한 자는 천국에 들려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것들 중 하나는 첫 강림에 대한 구약성서의 많은 예언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글자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셨다고 믿었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웨덴북에 따르면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은 영적으로 모두 성취되었고 신약 성서의 모든 예언 역시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봉인의 떼어짐은 악한 자 위에 떨어지는 심판에 대한 상징적 묘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환상에는 두 가지 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는 각 개인이 저 세상 삶에 들어갈 때 있어지는 개별적인 심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8세기 중반 주님의 재림 시에 거행된 기독교회 위에 있어진 일반적인 심판을 의미한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부른다. 앞서 우리는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그리고 이스라엘교회로 이어지는 각 교회의 끝에서 언제나 심판이 있어왔음을 수차례 살펴보았다. 스웨덴북은 각 교회속의 사람들의 상태가 밝히 드러나 남아 있는 일부의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된 다음 이렇게 분리된 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주어져 이들이 핵심이 되어 새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다고 설명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그분이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하늘의 구름에 오실 때 기독교회에 있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두셨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라는 예언과 본문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제 계시록 7장 1-3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이 부분은 본문의 공부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말하는 바는 주님께서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도록 허락하시기 전 뒤따라오는 파멸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선한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으로부터 심판이 우리가 영계에 들어갈 때 혹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일 때 주님의 명령에 의해 있게 되는 즉각적인 대 변화가 아님을 배우게 된다. 이 세상에 여전히 고대교회의 잔류인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며 유대교회와 기독교회 역시 우리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것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스웨덴북에 의하면 오로지 태고교회만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제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들 속에서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새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명백히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마지막 심판이 영계에서 거행되었고 그 결과는 지상에서 아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각 개인에 대한 심판역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뤄진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실질적으로 끝을 맺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지옥이나 천국으로 이동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있어지는 때 사건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즉 각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바램이 하느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했다라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주님의 도장이 자신에게 찍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악령의 침범으로부터 보호되면서 적절한 훈육을 거쳐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웠더라면, 본문에 표현된 단계적인 파멸이 우리에게 거행되게 된다. 나팔소리란 말씀의 어디에서나 신성한 진리의 선포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소리란 신성한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의 악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기심을 의롭게 보이도록 덮어두었던 추론속의 거짓들이 폭로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9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와 같이 악한 상태에서 선한 상태로 바뀔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적인 행복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채워나가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기쁨이 이기적인 것이었다라면, 그 기쁨의 발견은 오로지 지옥에서만 있게 된다.

제 5반

인간의 점진적인 발달과 그 위에 내린 각 심판을 다룬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저 세상에서 가지는 영혼은 우리가 실제로 믿었던 것에 대한 형제이며, 그 형제가 진리의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다.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말씀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본문과 유사한 사항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경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끝맺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큰 용은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인 “늪은 뱀”이다. 이 밖에도 창조의 육일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인간의 점진적 발달 단계이며, 이렛날은 그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여섯 봉인이 떼어지는 것과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것은 모두 일곱 번째와 더불어 완성된다. 이것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자신 속에 교회를 건설하기를 거절한 이들 위에 있어진 심판의 단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의 창조 과정에서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 본문에서 넷째 나팔이 불어지자 해와 달과 별의 파괴가 있었다. 또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예리고성의 정복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예리고성을 들고 이렛날에는 그곳을 일곱 번 돌고난 후에 케를 메고 앞장 선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일곱 사제와 일곱 나팔이 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미디안족들은 갑작스런 나팔소리와 빈 단지 속에 든 횃불이 번쩍임으로 인해 갈광질광했었다. 작은 계시록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중에서 31절은 주님의 재림 시에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에 오실 것”이라고 하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라고 전한다. 이 구절은 계시록 7장 1-3절과도 비교 된다. 이 밖에도 예언서에서 나팔소리는 의의 승리를 말하고, 악의 최후를 선포하고 있다. 상응에 관한 지식 없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 상징적 표현들의 유사성만으로 본문의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보다도, 본문 구절의 상징들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 시대의 빛 속에서 이 의미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나팔소리란 “신성한 진리가 천국으로부터 명백하게 밝혀주심”을 표현한다(계시록 설명 262). 다시 말해서, 진리의 빛 속에서 악과 거짓들은 파괴적이며 죽어있는 인격 속에 있는 것들이 밝히 보인다는 것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믿기에 편리할 것 같은 것들을 즐겁게 따라가려는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간으로서의 속성이다. 기독교계에서의 이러한 경향의 태동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메시지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재림이 거행되어야 했던 이유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이 기독교 내에서 크게 확산되어 기반을 다지고 있어서 기독교내의 선한 심정들이 더 이상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주님의 첫 강림시인 이스라엘 교회의 말기 때에도 있었다. 본문 역시 다른 부분의 말씀처럼 각 영혼이 영계에 들어올 때 그들의 삶에 관한 심판에 적용된다. 하지만 본문은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불리는 것에도 적용된다. 마지막 심판은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기독교계에서 올라온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 시에 영계에서 집행된 심판이다. 스웨덴북은 “말씀이 열릴 때까지 진정한 기독교인의 천국이 형성될 수 없었으므로 기독교계에서 올라온 선한 자들은 중간 세계, 즉 “보다 낮은 지역”의 한쪽 지역에 보존되었고, 같은 기독교계에서 올라온 악한 자들은 “가상 천국”에 집합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한다. 열린 말씀에 기초한 마지막 심판은 이러한 영혼들 위에 집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가상 천국은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들의 본성을 본 악한 자들은 그들의 거처가 지옥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 반면, 낮은 지역에 머물던 선한 이들은 들려져서 영원한 기독교인의 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상 천국이 사라지는 모습은 계시록 6장 14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선한 이들이 보호되는 모습은 계시록 6장 9-11절과 7장 1-3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본문 8장과 9장에 관하여 「계시록 풀이」에서 서술된 것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8장: “개혁교회가 여기서 취급된다. 1-6절은 믿음 만에 존재했던 이들에 관한 것과 그들과 교통되는 영적 천국의 준비에 관한 것이다. 7절은 그런 믿음의 내용물이 탐사되고 명백히 보여진다. 8절과 9절은 그 믿음의 형체에 관한 것이다. 10절과 11절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12절과 13절은 그들이 거짓 안 곧 악 속에 있다는 것이다.”

제 9장: “개혁교회 안에 있는 이들 곧 이타애에서 믿음을 분리해서 확증하여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하며 구원되었다고 하는 학식 있고 슬기롭다는 이들의 삶의 상태가 탐사되고 그들의 진상이 밝혀진다.” (1-12절) “앞서 언급된 자들과는 달리 학식이 있거나 슬기롭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기쁘게 받아 삶에 적용한 믿음 만에 거한 자들이 탐사되고 밝혀진다.” (13-19절)

“마지막으로 위의 부류에 소속된 자들, 즉 믿음이 모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들에 관해서이다.” (20,21절)

우리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심판은 개혁교회의 기초 교리인 “믿음만”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스스로의 신앙을 확증해 버린 사람들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뒤의 환상 중 일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명백히 구분해 두어야 할 사항은 스웨덴볼이 기독교회에 관하여 말한 것과 그 교회들이 만들어 발달시킨 교리적 기초 위에서 다양해진 기독교 분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교리적 기초를 경시한 채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 흔하며, 때로는 그런 교리를 누가 믿느냐는 식으로 소홀히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의 태도가 마치 대중화된 기초 논리가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경향성에서 자라나는 태도들임을 유의해야 한다.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서의 인간적인 분위기 혹은 소속감 때문에 그 교파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기초에 관하여 재고해 보기를 게을리 하고, 그 기초가 중시하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편리한 듯 여겨져 그 교리와 합세 할 경우의 신앙은 명목상인 입술로만의 예배에 그치고 삶에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게 된다. 물론 각종 교회들에 소속된 이들이 교회의 교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삶을 살면서 그 교리에 밀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군가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의 진리를 세세하게 따져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거나 그에 따른 삶을 일일이 어떻게 점검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주님께서 친절하

시며 사랑자체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각이나 행실이 조금 빛나더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신앙의 중심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만으로도 신앙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견지를 명심하면서 본문을 사려 깊게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파멸은 진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은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대신 자기 고집대로 인도되어야겠다고 선택한 개인의 영혼 속에서 있어지는 진정한 모든 선함과 진리의 점진적인 파멸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410-411항: “ ‘별들의 이름은 썩이라 하고,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란 지옥적인 거짓을 의미하는데, 이 거짓에서 인간적인 총명이 파생된다. 이로 인해 말씀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된다. ‘별’이란 지옥적인 사랑인 자만에서 튀어나오는 총명을 의미하고, ‘이름’이란 그 총명의 질을 의미한다. ‘썩’이란 지옥적인 거짓을 의미한다. ‘물’이란 진리를 의미하나, 이 구절에서는 말씀속의 진리들을 뜻한다. 그 이유는 주제가 믿음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삼분의 일’이란 모든 것을 뜻한다. 영적 생명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씀속의 진리 외에 어떤 곳에도 생명의 근원이 없게 된다. 그러나 말씀속의 진리가 왜곡되면, 교인들은 자기들 종교의 왜곡된 것에 따라 보고 이해한다. 그러면 그들 속의 영적 생명은 소멸된다. 그 이유는 말씀이 천국과 교통되어 말씀이 인간에 의해 읽혀지면 그 속의 진리는 천국으로 올려 지지만, 그것이 진리와 접합되거나 결합되어 있는 거짓으로 읽혀지면 지옥을 향해 있어 산산이 조각날 뿐이어서 말씀속의 생명은 결국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런 소멸은 말씀으로 거짓을 확증한 이들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확증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소멸되는 지경까지 치닫지는 않는다. 나는 이와 같이 산산이 쪼개지는 것을 보았고, 난로속의 불이 나무들을 형편없이 살라 버리는 소음을 들었다.”

질문 정리

- 1) 일곱 봉인을 가진 책은 어떤 책인가?
- 2) 누가 그 봉인을 떼었는가?
- 3) 첫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4) 둘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5)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승마자는 무엇으로 불렸는가?
- 6)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7)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무엇이 보였는가?
- 8)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그 속의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 9)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 앞에 몇 명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가?
- 11) 그 천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2) 여덟 번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천사는 향로에 무엇을 담았는가?
- 14) 그 다음 그는 무엇을 가지고 향로를 채웠는가?
- 15)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6) 본문에서 몇 개의 나팔이 불어졌는가?
- 17) 이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 18)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
- 19) 끝없는 지옥 구렁이의 악마에게 어떤 두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가?
- 20)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회개했는가?
- 21) 본문은 내적 의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22)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에 가도록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말씀 2) 주님 3) 흰말 4) 붉은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 5) 죽음 6) 제단 아래에 있는 선한 자들 7) 악한 자들 8) 바위가 자기들을 숨겨주도록 9) 침묵 10) 일곱 11) 나팔 12) 금향로 13) 향 14) 제단 불 15)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16) 여섯 17) 우박, 불덩어리, 큰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별이 떨어지고, 태양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다 18) 썩 19) 아바돈, 아폴리온(파괴자) 20) 회개하지 않았다 21) 첫 기독교 시대 안에 있던 선함과 진리의 점진적인 파괴 22)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선택

40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머리말

말씀의 전체적 윤곽을 되새겨 보면서 본장을 진행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정점이 되는 부분임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9-27절

21장: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 두 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 한째는 청옥으로, 열 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교리 요점

- * 우리의 “거룩한 성”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들을 규율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천국적인 원리로 건설된다.
- * 새 예루살렘은 삶의 이상향을 그려주는데, 이를 향하여 각 개인들이 날마다 분투하는 것이다.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성경은 1500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책이지만 한 권의 책이다. 그리고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인간을 위해 섭리하셔 왔던 모습을 말씀해주시고, 순진과 신뢰를 잃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인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려하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거의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직접 세상에 오셔서 악과 싸워서 이기고 행복으로의 길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들에게 보여 주셨다.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어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예언서이다. 이 책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선택하게 되는 삶의 종류에 따라 있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밝히 알려준다. 또한 계시록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리에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재난과 같은 결과들을 묘사하는데 지면의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이러한 불행한 결과들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우리가 자신속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을 인도자로 삼아 따라갈 때 성취하게 되는 그분께서 아껴두신 경이로운 행복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선한 자들의 마지막 상태가 “하늘에서 하느님께서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구절로 묘사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우리에게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라는 두 가지 삶의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에 해당되는 외적인 삶과는 달리 우리 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내적인 삶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진정으로 중요한 자신임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저 세계로 건너갈 때 이러한 내적인 자아가 지니는 속성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며,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 역시 내적인 자아에 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우 불행했던 반면 꾀박과 고난 속으로 점철된 삶을 산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경우도 있음이 바로 그 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성”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주도해 가도록 우리가 선택한 원리들로 건설된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배워 순종한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기술된 대로의 아름다운 천국적인 성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성내의 성전은 주님이시며, 그곳의 빛은 그분에게서 비롯된다. 각 개인이 가진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온 진리들은 각기 다른 특별한 광채와 색깔을 보유한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 **성을 쟈 금으로 만든 측량자란** 순수한 이타적 사랑으로 된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측량자를 의미한다. 또한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 했다”고 한다. 진실하고 의로운 모든 것과 그분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 그리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가됨에 따라 있게 되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바로 길이와 넓이가 상징하는 바다. 이러한 연유로 성을 쟈 것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도 불린 것이다. 이것은 삶의 이상향에 대한 묘사로서, 우리 각자가 날마다 쟈취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제 1반

본문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낭독해주면 이야기 속의 참 소리를 어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욱 인상 깊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다. 또한 본문은 천국과 천국적인 삶에 대한 묘사로서, 본문에서 새교회의 이름이 유래된 것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보았다. 이런 슬픈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바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과 이해성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이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다. 심판이란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좋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밝혀줌을 말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있게 되는 외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는 우리의 속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셨다.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중의 한 대목이다. 요한은 환상의 끝으로 거룩한 도성을 보았는데, 이 도성은 천국적인 삶에 대한 묘사이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이 아름다운 도성의 이름에 따라 명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천사들이 배우듯이 천국적인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새교회의 교리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항상 기억하면서 선하게 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금으로 된 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새 예루살렘 성은 몇 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가?
- * 이 도성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 * 문들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 * 열 두 주춧돌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 * 성벽은 무엇으로 쌓았는가?
- * 성과 성내의 거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 * 성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 *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우리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 2반

본문의 세부 사항 하나 하나를 기억하도록 한다. 전체적 윤곽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해를 설명함으로써, 차후 세부사항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람의 자는 창조 이야기에 담긴 인간의 발달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짐이란 여러 종류의 파멸의 시작이며, 이는 우리가 진정한 진리에 직면하게 될 때 과거에 자신의 마음과 이해성 속에서 커가도록 눈감아 준 나쁜 것들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앞서 우리는 파괴란 이런 악한 것들이 야기하게 되는 일들임을 배웠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이기적 바램이나 생각들의 본연의 상태가 확연하게 드러나 악한 자가 선한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지옥이란 이기심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 다음 선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고 즐기게 된다.

제 3권을 마무리 짓는 본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강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성은 성경 전체가 우리를 이끌어 향하게 하는 이상향인 것이다. 성경속의 사람들이 그 성을 그들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그곳을 모든 예배의 중심지로서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상에 있던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었고, 뒤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 역시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다시 파괴되고 말았다. 어찌됐든 수세기를 거치는 세월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명확하게 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란 영적이며 영원한 어떤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라는 뜻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평화롭고 행복한 심정상태, 즉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배워 그에 따라 살려고 하면 있게 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나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새 예루살렘이란 이 성의 이름은 주님께서 말씀을 여시는 역사인 재림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말씀의 더 깊은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요한의 환상 속에서 봉인이 떼어져 모든 것이 질서대로 놓일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도성이 내려오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데, 이에 대해서는 차차 성경 공부를 더해 가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줄거리를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16절과 17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네모가 반듯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그 사람이 신실하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혹은 그 사람이 항상 타인에게 정직하며 공평함을 의미함으로써,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임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표준에 대고 사람을 “측량”해 본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거룩한 도성을 재는 것도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말해진다. 선한 사람은 주님의 특사 또는 천사로서 네모반듯할 것이다. 네모반듯한 자란 주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배운 진리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은 그의 인격에 비례하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높이이다.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해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 도달함으로써 인격숙의 선함과 지혜 그리고 강함을 얻게 된다. 본문은 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쓰여 지게 되는가와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에 거주지를 정하는 사람들 틈에 어떻게 속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거룩한 성을 보기 위해 요한은 어디로 데려가졌는가?
- * 이 도성은 몇 개의 문을 가지고 있었는가?
- * 도성의 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 * 성벽에는 몇 개의 주춧돌이 있었는가?
- * 주춧돌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 * 도성과 도성의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었는가?
- * 주춧돌은 무엇으로 꾸며져 있었는가?
- * 도성에 있는 성전은 무엇인가?
- * 도성의 빛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 * 누가 이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 * 누가 이 도성에 들어가는가?

제 3반

지금까지 공부해 온 상응을 토대로 본문의 주석을 각자 나름대로 달아보도록 하자. 거룩한 성은 우리가 세교회인으로서

이루어야 할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짐과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로부터 그분의 재림까지의 사이에 영계에 모아진 기독교회인들의 영혼의 본모습을 밝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졌었던 것들에 비례해서 천국에 가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발견하여 자신들이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상태를 “가상의 천국들”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태가 깨어지는 것의 시작이 제 6장 4절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 구절에서는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진 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라고 읽게 된다.

일곱 번째 나팔소리와 더불어 악과 천국의 권능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악은 그들의 마지막 처소인 지옥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다음 선한 이들은 주님에 의해 잘 간수될 수 있는 곳으로 올려졌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의해 밝혀진 더욱 심오한 진리들로 훈육되어 진정한 기독교인의 천국을 이루게 되었다. 이 천국과 더불어 지상의 새 기독교회가 형성 되었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진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밝혀지는 더 깊은 진리를 공부하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의 소망인 새 하늘과 새 교회에 소속될 것이다. 본문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교회에 관한 것이다. 말씀에 있는 진리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이해가 주어졌음이 21장 1-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광경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 또는 약칭하여 “새 교회”라고 부른다.

성의 경계를 지어주며 보호해주는 성벽이란 말씀의 글자를 의미하고, 그 성이 가진 열 두 대문이란 선한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모든 진리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성벽의 주춧돌이란 기독교 신앙에 근본이 되는 큰 진리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나 열 두 사도란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선과 진리들을 상징한다는 것은 앞서 수차례 언급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대문과 주춧돌에 써여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보석들이란 말씀 안에 든 갖가지 진리들을 상징한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들을 응용해 보도록 빛을 주실 때 진리들은 제각기 아름답게 진리의 빛을 투영하는바, 우리가 알게 되는 각 진리들을 의미하게 된다.

새 예루살렘 성의 각 면에는 문이 셋씩 있었고, 각 대문은 “종일토록 대문을 닫는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종일토록 대문을 닫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세상에 모든 이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출발하여 서로가 모두 다르지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지식을 그들 각자에게 그 나름대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더욱 선하게 되고자 주님의 진리를 진실로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으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본문의 마지막 절과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성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성의 빛은 우리가 우리속의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될 때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22절과 23절로 의미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책과 우리 삶의 책을 비교해 보기 위함이다.

우리가 염두 해야 할 구절은 16절이다. 길이는 성경에서 사랑 또는 선함의 척도로서 사용되고, 넓이는 진리에 대한 이해의 척도로서 사용되고 있다. 높이는 “제각기의 수준에서 함께 하는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그 이유는 진리를 더욱더 배워가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진리를 실천함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 주님께 도달되고 그분의 영 또한 우리에게 내려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성을 측량했던 측량자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말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성서 공부 과정, 즉 한 해 동안 배워온 모든 교리를 거룩한 성의 성벽과 주춧돌의 한 부분으로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 여러가지 진리들을 우리의 사고 속에 자리 잡도록 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엮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본문에 있는 빛나는 보석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삶을 더욱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성벽이 아름답게 투영되는 벽옥으로 쌓여 나타나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본 상용 공부

- 성 = 교리
- 거리 = 삶의 길
- 성벽 = 말씀에 대한 글자적인 측면
- 길이 = 선함의 척도

넓이 = 진리의 척도

높이 = 각 수준에 있는 선과 진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 하늘과 땅에 있는 새교회

제 4반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주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문의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중 하나이다. 거룩한 성은 우리의 이상향이라는 것과 재림으로 주어진 진리 없이는 누구도 거룩한 성을 붙잡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계시록의 일부는 영계에서 있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완성을 다루고 있다. 즉, 악과 거짓들이 권세를 잡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결국 주님의 군대에 의해 패하여 지상생활에서 그들이 선택해온 기쁨이 있는 곳인 지옥으로 철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계는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스웨덴북의 「계시록 풀이」에서 본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요약으로 시작된다. “이 장은 마지막 심판 후 천국과 교회의 상태를 다룬다. 즉, 새교회가 심판 후 새 천국을 통해 지상에 존재하게 될 것과 그 교회가 주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이 1절과 8절로 상징되고 있고 그 교회가 주님과 결합함이 9절과 10절로 상징되어 있으며, 그 교회의 말씀에서 온 총명에 관한 것이 11절에 묘사되어 있고 그 교회의 교리에 관한 것이 12절부터 21절까지에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질(質)에 관한 것이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교회로 명명된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이름과 그 이름의 근원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소속된 교회의 이름을 물을 때 단순히 “새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듣는 이가 의문을 가진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기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이름의 근원이 계시록 21장에 있음도 언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은 새교회인의 이상향으로 삶 가운데에서 다듬어져야 한다. 이 이상향은 계시록에서 도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도성은 교리와 상응된다. 선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만으로는 새교회인이 되지 못한다. 스웨덴북은 선이 진리로부터 그 속성을 갖게 되며 사랑은 진리를 통해서만 힘을 발휘한다고 거듭하여 강조한다. 그래서 도성이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성벽과 대문 그리고 기초도 가졌던 것이다. 또한 대문들은 각 방면에서 세 개씩 총 열 두 문들이 있어서 모든 천사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문들이 항상 열려 있었지만,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흠직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개인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에서 각자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이뤄진 삶에 대한 책이 하느님의 말씀인 생명책과 비교 대조되는 것이다.

거룩한 도성은 금으로 되어있고 거리도 금이며, 천사들이 가진 측량자 역시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새교회인의 생명의 품질임을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만이 그 도성속의 성전이요 그 도성을 밝게 해주시는 빛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교회인이 걸어야 할 길은 섬김을 사랑하는 길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타적 사랑으로 된 측량자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거룩한 도성을 묘사하는 모든 세부사항은 진리를 상징한다. 도성의 한계를 긋고 성내를 보호해주는 성벽이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상징하는데, 이 성벽은 투명한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내적 의미로 볼 때 진리가 새교회속에서 글자를 통해 빛난다는 뜻이다.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대문에 적혀있고, 그 주춧돌에는 열 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문이란 소개하는 진리를, 열 두 지파란 교회 속에 든 모든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기초란 기독교인의 교리에 속한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열 두 사도란 “주님에 관해 말씀 속에 있는 교리와 그분의 계명에 일치되는 삶에 관한 모든 교리”를 상징한다. 주춧돌을 장식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쁨을 얻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말씀의 글자 속에 담긴 특별한 진리를 말한다. 말씀을 읽고 얻게 되는 진리들은 아주 다각적인 것으로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항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새교회의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각기 특별한 진리로 섭리하심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성의 문에는 열두 개의 진주가 있는데, “그 열 두 대문은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다.” 진주란 주님에 관한 지식과 그 인식을 뜻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과 마태복음 13장 45-46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님을 인식하며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 도성에 슬쩍 들어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거룩한 도성에 관하여 언급된 사항 중 또 다른 하나는 그 도성이 “네모가 반듯했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만큼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진 만큼 선함을 가지며, 이 둘은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곧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의 측면이라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벽을 짠 자는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라고 했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을 자아에 맡겨 간직해서는 안 되고 자아로부터 떼어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로 우리 영혼을 언제나 정결케 하여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천사이든 사람이든 간에 천국적인 이상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5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천국에 대한 환상과 그 이상에 관한 것이지만, 새교회인에게 있어야 할 것과 행동에 대한 탐구적이며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고 공부에 임하기 바란다.

말씀은 진정한 인간 존재의 창조로 시작되어 인간 존재가 갖춰야 할 이상향으로 끝맺고 있다. 이상향이란 각자에게 허용된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남아 있게 되면 달성 가능한 우리 영혼의 이상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우리 영혼의 모습은 계시록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글자 그대로만 보아도 아름다운 이 환상은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구절로 여겨진다. 그들이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기억한다면, 차후 우리를 계발해 주시는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시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한 성에 대한 사랑을 잃게 된다면, 그때의 우리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새교회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도성에 관한 이야기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에 주어진 말씀의 내적 의미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된 우리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해 주시는 신성한 섭리 하에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공부는 거룩한 성의 세부 사항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사항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들, 즉 개개인의 영혼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풀이」의 제 21장 목차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본 장은 마지막 심판 이후의 천국과 교회의 상태를 다룬다. 심판 후 새 천국을 통해 새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주님만을 예배할 것이다(1-8절) 그 교회가 주님과 결합할 것이다(9절과 19절) 말씀으로부터 온 총명에 대한 세부사항과(11절) 그로부터의 교리에 관한 것과(12-21절) 그것의 품질에 관하여(22-26절)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서 밝혀주신 교리 속에서 스스로의 영적 의문을 해결하며, 진정한 천국적 삶의 도면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기초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교회, Church of the New Jerusalem”이라고 명명했다. 그 이유는 새교회의 목적이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의 교리들을 타인에게 알려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도성이란 말씀의 어느 곳에서든지 교리를 상징한다. “언덕위에 세운 도성은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본 교회의 선구자들은 이 도성을 언덕위에 세워 교회가 자라도록 했다. 요즘의 우리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 같이 왜 급성장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후 타교회의 방법들을 연구하느라 동분서주하며 그것들을 베끼려 하고, 우리 교회의 교리는 좁은 소견 같으며 타협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교리를 바꾸면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교리를 뜯어고치려는 마음으로 기울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 교회는 새교회가 아니다. 진정한 새교회는 사방 각처에 내려오고 있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만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곳이 새교회가 아니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이유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새교회 교인들인 우리가 새교회의 교리를 배워 그대로 살아내는 정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리를 선포해 갈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요한의 환상 속에 있었던 거룩한 성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성의 길 역시 금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천국과 지상에 있는 새교회가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품질이 사랑의 선임을 의미한다. 즉, 거룩한 도성은 자연적 선함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선을 그리고 그 도성의 길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사랑하는 길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었으며, “그 도성은 벽옥이었다.”라고 한다. 이는 말씀의 글자를 통해서 투영되어져 비춰오는 진리를 상징한다. 스웨덴 북은 그것이 말씀의 영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성벽이란 도성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도성의 한계를 그어주기도 한다.

거룩한 도성에는 열두 개의 문이 있었고 사방의 각 방위에는 세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문이란 소개하는 진리를 상징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르며, 각각의 다른 유전적

속성과 배경 그리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진도 사업을 위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도성에 접근하여 자신에게 호감을 주는 문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문이란 각자에게 허락된 특별한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 또는 특사가 각기 특별한 품질을 가지고 각 문마다 서 있다. 이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각 문에 하나씩 적혀 있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한 진리에 대한 흥미는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바라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록 도성의 문들은 언제나 열려 있었으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흠직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이다”라고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다. 앞서 우리는 심판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선택한 것으로 기록되어진 우리 삶의 책과 말씀인 생명의 책과의 비교 대조임을 배웠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벽의 주춧돌이란 크고 기본이 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새롭고 항구적이 될 천국은 기독교인들의 천국이기에 때문에 열 두 사도들의 이름이 주춧돌들에 적혀있는 것이다. 스웨덴본은 벽옥으로 된 성벽이란 말씀의 글자 안에 있는 신성한 모든 진리가 영적 의미에서의 신성한 진리로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비추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그의 저서를 수단으로 말씀속의 영적 의미를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지게 되는 성벽은 벽옥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는 벽을 장식하는 보석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그 의미는 새 예루살렘 교리 속에 거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부터 취해진 모든 교리는 각자 그 교리를 받는 태도에 따라 다른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천사는 금으로 된 측량자를 가지고 성을 측정했다. 이 측량자란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자를 상징한다. 측량 결과 그 도성은 네모반듯하였다. 즉,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가 모두 같았다는 것이다. 말씀에서 길이란 선 또는 사랑의 척도를, 넓이란 진리의 척도를 그리고 높이란 선과 진리가 우리 삶의 세 가지 평면인 우리의 바깥 행동으로부터 생각을 거쳐 가장 깊은 것인 의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평면에서 활동되는 것의 측량을 의미한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삶의 모든 평면을 이루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측량의 자는 “사람의 자 곧 천사의 자”였다. 즉, 새교회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자아 대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정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새교회를 건설해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큰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나가는 정도에 따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일이다.” (시편 127:1)

참고문헌 -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계시록 밝힘』 제 914항: “그 성벽의 주춧돌이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함은 새 예루살렘 교리 속의 모든 것이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부터 취해진 것이며 그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리속의 모든 것을 받는 태도에 따라 진리가 다른 빛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열 두 주춧돌’이란 교리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n. 902). 그리고 ‘벽’이란 글자적인 말씀이다(n. 898).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주님의 새교회이다(n. 879, 880). ‘보석’이란 글자적인 말씀에 영적 의미가 투영되어 비취지는 것을 말한다(n. 231, 540, 726, 911).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받으므로, 이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에서 온 교리의 모든 것을 받는 태도에 따라 빛나게 된다. 내적 사고는 천국의 빛 안에 존재하여서 지각이라고 불리며, 외적 사고는 세상의 빛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해성은 천국의 빛으로까지도 들어 올려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진리를 알고자 하면 그 이해성도 들려지게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그 도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 3) 그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그 도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5)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이 있는가?
- 6) 그 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 7) 성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8) 성벽에는 몇 개의 주춧돌이 있는가?
- 9) 주춧돌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 10) 그 주춧돌은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가?
- 11) 그 성의 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12) 성안의 성전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13) 그 도성을 비추는 빛은 어디서 오는가?
- 14)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5) 누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 16)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 17)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측량했는가?
- 18) 그 도성의 가로 세로는 어떠했는가?
- 19) 측량자가 “사람의 자 또는 천사의 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 20) 우리 교회가 본문을 특별히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21) 성과 성의 길이 순금으로 되었다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22) 누군가가 “당신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 23)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몰라서 혼동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거룩한 성 2) 하느님, 하늘로부터 3) 새 예루살렘 4) 금 5) 12
- 6) 이스라엘 지파 7) 벽옥 8) 12 9) 사도 10) 보석 11) 금
- 12) 주님이 성전이다 13) 하느님의 영광 14) 악한 사람
-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힌 자들 16) 선한 삶을 영위했음
- 17) 금자 18) 네모반듯했다 19) 선한 인격은 네모반듯하기 때문
- 20)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주기 때문
- 21)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하여 사랑하는 길을 걸도록 하시기 위함
- 22) 새 예루살렘 교회 23) 계시록 21-22장 참조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